

연구보고서 2017-5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정해식 · 김미곤 · 여유진 · 전진아 · 김문길 · 우선희 · 최준영

【책임연구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III: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5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발행일 2017년 12월
저자 정해식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가격 11,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84-8 93330

발간사 <<

2017년 초 유엔은 '세계행복보고서'에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가 2016년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2016년 6~8월 중 조사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행복도가 2015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인의 삶의 질에서 주관적 인식의 측면은 항상 객관적 조건 측면에 비해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신적 삶에 자리한 불안, 불신과 불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2016년, 2017년에는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삶의 근저에 놓인 '불안함', '불만'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는 사회통합 이슈를 연구하면서 2014년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 인식 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년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 및 가치를 알리는 연구를 주도해 왔다. 연구진은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인이 실제의 경험에 비해 과도하게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이 경험하는 사회병리 현상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진은 2017년 6~8월 중 전국 성인 남녀 3,839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하였다. 2017년에는 예년의 조사 시점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선거 결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조사 시점을 한 달 정도 늦췄다.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조사 자료는 앞선 연구 자료와 더불어 '사회통합' 관련 연구의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연구의 문제의식을 적시하고,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트라우마 경험과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회갈등의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에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개입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 내에서 한국인의 정신적 건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정해식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미곤 부원장, 여유진 연구위원, 전진아 연구위원, 김문길 부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최준영 연구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6
제3절 조사 설계 및 내용	18
제2장 이론적 배경: 사회통합 개념의 확대를 위한 시도	37
제1절 사회통합 개념의 이론적 검토	39
제2절 사회통합과 사회병리의 관계	45
제3장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 방법	56
제3절 분석 결과	60
제4절 소결	75
제4장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7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9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80
제3절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84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00

제5장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103
제1절	서론	105
제2절	이론적 배경	107
제3절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	109
제4절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	125
제5절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130
제6절	소결과 정책 시사점	136
제6장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사회구조 인식의 영향 분석	14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43
제2절	연구 개요 및 모형	145
제3절	분석 결과	149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67
제7장	결론 및 연구 함의	171
제1절	연구 요약	173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176
참고문헌		183
부 록		
부록 1.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 설계	191
부록 2.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204
부록 3.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초 분석	224
부록 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4개년 지속 문항 비교	408

표 목차

〈표 1-1〉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모듈의 주요 구성 문항	18
〈표 1-2〉 CES-D 11 척도 문항	20
〈표 1-3〉 부정적 생활 경험 측정 문항	21
〈표 1-4〉 지난 1년간 사행활동 경험 측정 문항	23
〈표 1-5〉 스트레스 척도 문항	24
〈표 1-6〉 아노미 척도 문항	25
〈표 1-7〉 자아탄력성 척도 문항	25
〈표 1-8〉 위험 인식 측정 문항	26
〈표 1-9〉 분배 공정성 측정 문항	28
〈표 1-10〉 절차 공정성 측정 문항	28
〈표 1-11〉 사회문제의 원인 측정 문항	29
〈표 1-12〉 다른 사람과의 다툼(갈등) 경험 측정 문항	30
〈표 1-13〉 가족과의 다툼(갈등) 경험 및 심리적 부담 측정 문항	30
〈표 1-1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2014년-2017년) 지속 설문 문항	31
〈표 1-15〉 2014년 주제 모듈 ‘사회통합과 행복’ 주요 조사 문항	32
〈표 1-16〉 2015년 주제 모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주요 조사 문항	32
〈표 1-17〉 2016년 주제 모듈 ‘사회통합 국민 인식’ 주요 조사 문항	33
〈표 1-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34
〈표 1-19〉 응답자 분포	35
〈표 2-1〉 사회의 질과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비교	43
〈표 2-2〉 사회문제의 원인	49
〈표 3-1〉 응답자 특성	60
〈표 3-2〉 인구사회학적 특성, 트라우마 경험, 자아탄력성과 우울 여부 간 상관성 분석	62
〈표 3-3〉 인구사회학적 특성, 트라우마 경험, 자아탄력성과 자살생각 여부 간 상관성 분석	65
〈표 3-4〉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가 보고 건강수준과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의 상관성 분석	68
〈표 3-5〉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가 보고 건강수준과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의 상관성 분석	69
〈표 3-6〉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가 보고 건강수준과 자아탄력성의 상관성 분석	70
〈표 3-7〉 우울 여부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2
〈표 3-8〉 자살생각 여부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4
〈표 4-1〉 영역별 박탈 항목	83

〈표 4-2〉 주요 변수에 대한 연령별 기술분석 결과	85
〈표 4-3〉 연령별·박탈항목별 박탈의 비율	86
〈표 4-4〉 연령별 평균 사회적 지지 점수와 상관관계	89
〈표 4-5〉 박탈과 정신건강 점수 간의 상관관계	90
〈표 4-6〉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전체 대상)	91
〈표 4-7〉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노인 대상)	93
〈표 4-8〉 박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전체 대상)	94
〈표 4-9〉 영역별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97
〈표 4-10〉 영역별 박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98
〈표 4-11〉 연령대별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비율 및 자살생각 이유	99
〈표 5-1〉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110
〈표 5-2〉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112
〈표 5-3〉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113
〈표 5-4〉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114
〈표 5-5〉 원인별 갈등 경험	115
〈표 5-6〉 원인별 갈등 경험: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116
〈표 5-7〉 원인별 갈등 경험: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117
〈표 5-8〉 원인별 갈등 경험: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118
〈표 5-9〉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및 심리적 부담 정도	119
〈표 5-10〉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120
〈표 5-11〉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120
〈표 5-12〉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121
〈표 5-13〉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및 갈등의 심각성	122
〈표 5-14〉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123
〈표 5-15〉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124
〈표 5-16〉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124
〈표 5-17〉 빈곤상태와 자아탄력성 세대 간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126
〈표 5-18〉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자아탄력성 세대 간 비교	126
〈표 5-19〉 실업 기간과 자아탄력성 세대 간 비교	127
〈표 5-20〉 빈곤상태와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127
〈표 5-21〉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	128
〈표 5-22〉 실업 기간과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	128

〈표 5-23〉 빈곤상태와 우울 세대 간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129
〈표 5-24〉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우울 세대 간 비교	130
〈표 5-25〉 실업 기간과 우울 세대 간 비교	130
〈표 5-26〉 주요 변수와 조작적 정의	131
〈표 5-27〉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갈등 인식 및 갈등 경험에 미치는 영향	133
〈표 5-28〉 자아탄력성의 사회경제적 맥락	134
〈표 5-29〉 갈등 경험, 정신건강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135
〈표 6-1〉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 설문지	147
〈표 6-2〉 영역별 위험 인식의 설명 요인	151
〈표 6-3〉 영역별 갈등 인식의 설명 요인	154
〈표 6-4〉 개인 특성과 생애주기 위험 인식	157
〈표 6-5〉 개인 특성과 경제적 위험 인식	159
〈표 6-6〉 사회통합 인식의 설명 요인: 사회적 불안	160
〈표 6-7〉 사회구조 인식(공정성 인식 관련)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161
〈표 6-8〉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 인과모형의 모형적합도	163
〈표 6-9〉 사회구조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 인과모형의 모형적합도	164
〈표 6-10〉 사회적 위험 인식과 사회구조 인식 인과모형의 모형적합도	165
〈표 6-11〉 완전경로모형의 모형적합도	166

그림 목차

[그림 1-1]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분석 모형	16
[그림 2-1]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응집의 이론적 관계	40
[그림 2-2] 사회의 질 체계와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42
[그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여부	61
[그림 3-2]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과 우울 여부	63
[그림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여부	64
[그림 3-4]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과 자살생각 여부	64
[그림 3-5]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66
[그림 3-6] 유형별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률	67
[그림 4-1] 연구 모형	82
[그림 4-2] 연령별 기초생활 박탈 비율	88
[그림 4-3] 연령별 주거 박탈 비율	88
[그림 4-4] 연령별 의료 박탈 및 미래 대비 박탈 비율	88
[그림 4-5] 청년의 고용상태별 우울 점수와 자살생각 비율	96
[그림 4-6]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여부 및 자살생각의 이유	99
[그림 5-1] 연구 개념 틀	107
[그림 5-2] 사회갈등 수준 인식 변화(2014, 2016, 2017)	111
[그림 6-1]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연구 모형	146
[그림 6-2] 항목별 위험 요소에 대한 불안	150
[그림 6-3] 영역별 위험에 대한 불안	151
[그림 6-4]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	152
[그림 6-5]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	153
[그림 6-6] 한국 사회 격차에 대한 인식	155
[그림 6-7]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156
[그림 6-8] 경로모형	162
[그림 6-9]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의 인과모형	163
[그림 6-10] 사회구조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의 인과모형	164
[그림 6-11]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구조 인식의 인과모형	165
[그림 6-12] 사회통합 수준 평가에 관한 수정된 경로모형	166
[그림 7-1] 예방-증진 개념의 도식화	180

A Study of Social Problem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with Policy Recommendations

Project Head · Jung, Hae-sik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social problem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s social problems under the categories of “mental illness,”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unfairness.” We also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trauma and mental health, deprivation and mental health, conscious conflict and mental health, and social anxiety and social cohesion.

This study is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of social cohesion that focus on happiness, social mobility, Koreans’ perceived social cohesion. As a part of this study, and in line with other studies, a face-to face survey was conducted of a total of 3,839 adult Koreans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included questions concerning depression, suicidal thoughts, conscious conflict, and psycho-social anxiet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to August of 2017.

This report is comprised of seven chapters. Following Chapter 1, an introduction, Chapter 2 suggests a theoretical model of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hesion. From chapter 3 on, we present the main results from this surve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ental health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rauma experience. Second, depriv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Third, the level of perceived conflict varied across different social groups, but the direction was different than

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expected. Fourth, those with psycho-social anxiety reported low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cohesion, with their view of social system as unfair, corrupt and unable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risks they face.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early intervention is necessary in trauma experience and that programs for enhancing resilience should be strengthened. This study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romoting integrated welfare strategies for old-age. In addition, to promote social cohesion, it is necessary that the social system should be able to everyone's psycho-social health needs.

*Keywords: Social Cohesion, Social Perception, Social Exclusion, Social Conflicts, Happines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 사업의 목표이며, 이를 위한 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년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가 그 결과물이다.

2017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은 한국인이 경험하는 불안과 불신, 불만이라는 사고방식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증진을 위한 단초를 쌓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 불신, 불만이라는 사회문제 현상의 근저에 개인 심리적 차원의 문제와 사회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고, 관련 문제들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조사 주제를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로 하고, 전국 성인 남녀 3,83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설문지에는 사회심리적 감정 상태, 신뢰,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갈등 인식에 대한 문항을 주로 포함하였으며, 매해 한국인의 사회통합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조사 설계, 수집된 조사 자료의 분석 및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장별로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 분석,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갈등과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정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한국 사회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한 거대한 사건들은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가중시켰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문제에서부터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직업 상실, 사회적 재앙 수준의 재난까지 한 개인은 다양한 트라우마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트라우마 경험이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트라우마 경험의 발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더불어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에 분석에서는 성인에 초점을 두어 트라우마 경험의 중첩성(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 최근의 트라우마 경험이 현재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이들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울 여부를 종속변수로 할 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여부,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여부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살생각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여부,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과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여부의 상호작용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구 결과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부적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우울할 가능성,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외상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아 초기 위기 개입이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으므로 조기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상의 경험이 외부로 드러나 초기에 위기 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조기 개입은 불가능하므로 조기 개입 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대표적인 형태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홍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아탄력성 역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아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 프로그램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 사회가 급격한 변화, 혼란의 상태에 놓여 있거나, 불평등과 빈곤이 만연한 상태에 있을 때 사회통합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박탈과 빈곤 상태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에 대해 더 큰 불만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질적 박탈의 영역별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물질적 수준에서의 개입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지지)에 의해서 정신건강 수준이 조절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책 개입 수단이 될 것이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박탈의 수준은 우울 수준을 설명하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14%→21.3%로 설명력 향상).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의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박탈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는 박탈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지는 못함을 의미하는데, 노인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미약하게나마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다. 즉 노년기에는 박탈의 수준이 다소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강하면 우울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탈 상태는 특히 자살생각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과 실업자의 자살생각은 현재의 박탈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 수준 또한 자살생각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 박탈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우울 수준도 높아진다. 특히 실업자일수록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장년기 우울은 기초생활 박탈, 주거 박탈, 미래 대비 박탈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강 문제 또한 우울 수준을 높이는 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의료적 박탈과 우울 수준과는 통계적 관련성이 낮았다. 노년기 우울에는 기초생활 박탈, 주거 박탈과 의료 박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우울 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다. 박탈의 영역별로 볼 때,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기초생활 박탈은 자살생각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 주거 박탈은 특히 중장년기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전 연령층에서 자살생각을 줄이는 데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다. 연령별로 볼 때, 청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상의 문제(33.4%)가 자살생각을 한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장년의 경우 경제적 문제(39.1%)가, 노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43.4%)가 자살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주요한 분석 결과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난 부분이다. 소득보장, 건강보장, 서비스보장을 아우르는 생활보장의 차원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복지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지지는 모두 정신건강, 즉 우울과 자살생각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다.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질병에 대한 보장률을 높이며, 돌봄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기존 가족 역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줄 때 개인의 정신건강 나아가 사회의 통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령에 따라 개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영향도가 상당히 달리 나타난 부분이다.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통합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령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국가사회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다.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한국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열악하다면 그 맥락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증가하는 소송 건수,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갈등 해결 방식의 높은 비율 등 사회병리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안 중 하나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맥락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5장에서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유형별, 원인별 갈등경험과 경험한 갈등의 심각성을 인구사회학적 구분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빈곤과 실업(경험 및 기간)을 기준으로 주요 정신건강 지표를 세대별로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경험, 정신건강, 사회통합 인식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 인식과 경험에 대한 내용이다. 갈등 유형에서는 경제적 갈등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징적으로 이념적 갈등이 급증하였다. 사회갈등 전반에서 남성이, 중장년이, 고학력 집단일수록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갈등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최저소득층에서는 갈등에 대한 인식이 적었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실업자가 갈등 수준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갈등 경험의 원인은 정치적 견해, 세대, 문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구집단별로는 대체로 남성, 중장년, 대졸 이상 집단에서 이들 갈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처할수록 갈등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갈등 경험은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취업 또는 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 크게 경제적 요인과 가사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정신건강 지표의 세대별 비교 결과이다. 자아탄력성은 빈곤, 비자발적 실업 경험, 실업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집단의 자아탄력성이 대체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빈곤층 중 자아탄력성이 가장 낮은 집단은 노인, 중장년, 중기청년 등의 순이고, 실업 경험 집단 중에서는 노인, 중장년, 후기청년 등의 순이다. 스트레스는 빈곤층, 실업 경험 집단에서 전체 세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실업 기간은 청년, 중장년의 경우 6개월 미만에서 가장 높은 반면, 노인은 6~12개월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연령 집단은 중기청년, 노인,

후기청년 등의 순이고, 실업 경험 집단 중에서는 노인, 후기청년, 중장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도 역시 빈곤층, 실업 경험 집단에서 전체 세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실업 기간에 따라서는 청년과 중장년이 장기 실업일수록 우울이 심각한 특징을 보인다. 자아탄력성이나 스트레스에 비해 우울은 빈곤, 실업 경험, 실업 기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셋째,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해석이다.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된 경우 갈등 인식과 갈등 경험이 악화되었다. 또한 취약성에 노출된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학력자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정신건강이 열악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가족 내 갈등을 많이 겪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이 심각할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부정적이고, 자아탄력성이 클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갈등 경험과 정신건강을 매개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이나 정신건강과 같은 사회병리 또는 사회문제는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갈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종합될 필요가 있으며, 갈등 관리의 차원에서 표출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원인별 갈등 중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가족 내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소득재분배 등의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고,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실천적 접근도 필요하다. 넷째,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적 배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라.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한국인의 과도한 불안은 어느 수준이고, 그것이 얼마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불안의 근저에 놓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위협에 대한 인식, 즉 사회적 불안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서 실제의 위협보다 사회적 위

험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식하고 불안해하는 집단은 개인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거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에서는 사회 기능의 정상적 작동에 대한 인식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속성이 반영되었다. 둘째, 불안 함의 정도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정성 및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절차 공정성이 갖춰졌다고 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이러한 사회구조 인식은 사회적 위험 인식(사회적 불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회통합 평가를 매개하고 있었다. 즉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불공정하고, 부패하여 그들의 위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사회통합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객관적 여건의 개선이 절실하다.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성의 축소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통합 증진, 특히 인식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살 만하다’는 평가를 위해서는 불안 요소에 대한 직접적 개입 외에도 사회구조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가 부패하였다고 인식하고, 분배 결과 및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한국 사회의 통합 정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는 인식적 차원의 개선을 위한 시도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다시금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인의 불안 정서에 인식적 차원과 이를 결정할 경험적 차원의 괴리가 크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인은 어느 정도로, 왜 우울해하며 불안해하고, 갈등의 상황에 놓이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트라우마 경험, 물질적 박탈의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정책적 개입의 도구를 찾기 위한 근거 기반 분석의 시도였다.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입,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정신건강 측면의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물질적 박탈을 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지지망의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 경험에서도 집단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갈등 의식에 사회적 맥락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일관되지는 않았다.

한국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는 불안을 촉발하며, 불안은 부정적 사회통합 평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히 사회제도가 어느 정도 기능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한국인의 부정적 사회통합에는 물질적 수준의 문제도 있지만, 주요하게는 사회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는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됨을 의미한다. 사회갈등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임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였다.

첫째,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복지 전략으로서 소득보장, 건강보장, 서비스보장을 아우르는 생활보장 정책의 필요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령에 따라 개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영향도가 달랐으므로 개별화된 접근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성의 축소 외에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사회갈등 인식,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가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용어: 사회통합, 정신건강, 물질적 박탈, 사회갈등, 공정성 인식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조사 설계 및 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이 연구는 한국인이 경험하는 불안과 불신, 불만이라는 사고방식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가 통합 증진을 위한 단초를 쌓아 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을 설명하는 데 불안·불신·불만 등 소위 3불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이상영 등, 2015, p. 11).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불신·불만과 결합한 불안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정의한 불안을 종합하면, “불안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지거나 원치 않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앞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느끼는 감정적 반응”이다(이상영 등, 2015, p. 15).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말한다. 또는 사회의 지향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즉 불안은 변화의 방향이 개인에게 부정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한 우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의 2015년, 2016년 연구 결과 한국인의 낮은 사회통합 인식에는 사회적 불안(특히 경제적 불안 및 박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여유진, 정해식 등(2015, p. 181)은 사회적 기대에 비해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불안감을, 정해식 등(2016, p. 153)은 저축과 미래 대비 노력의 부족에 더해 공적 보장제도의 미비에 따라 불안감이 확대되고, 그것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정해식 등(2016, p. 183)은 한국인이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에 비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인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 세계 가치관 조사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성

공'과 '경쟁'이라는 시장 지향이 가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으며,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 서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려 준다(장덕진 등, 2015, pp. 86-91). 모두가 성공을 지향하지만 그것이 경쟁이라는 결과의 산물일 수밖에 없음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과 경쟁에서 실패하여 낙오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진다. 경쟁의 틀에서 성공하는 자가 실패하는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적은 이유이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이동성을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정해식 등, 2016, p. 61). 성공에 대한 강한 지향을 보여 준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분배 결과보다는 분배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었다(정해식 등, 2016, p. 181). 분배 과정의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분배 결과의 불평등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이다. 평등(equality)이 먼저 이뤄진 이후에야 공평(equity)을 논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존하는 방식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판단 속에서 공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력'과 사회를 '만인에게 좋은 사회'로 만들어 주는 통합력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 공공성의 원리가 철학적 가치로 빛을 발한다(신진욱, 2007, p. 19). 이렇게 본다면 공공성의 원리는 사회통합의 원리와 맥을 같이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강조는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요구이다.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는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 가능성과 정당화 기능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안정 요인의 확장에 대한 대처라 할 수 있다(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2017, p. 373). 사회통합이라는 같은 단어가 정권에 따라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는 것은 인정하는 사회질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이라는 단어 안에 각기 다른 지향을 가지는 바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해식 등(2016)은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이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경고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경기 침체, 고용조건 악화 같은 경제적 문제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심리적 불안정성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국민 개인의 경우에도 인간관계상의 어려움, 채무관계, 실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회·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이상영 등, 2015, p. 178).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 능력과 책임윤리의 실종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표출하기보다 억누르기를 강요당했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던 ‘갑질 사태’, ‘금수저, 흙수저’ 논쟁은 사회적 약자로서 느끼는 불만을 증폭하였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를 잡았는데, 2016년 9월부터 1년 동안 발간된 소설에서도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공포, 불안을 다룬 내용이 많았다(이윤주, 2017).

그렇지만 한국인의 심리적 불안이 일순간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은 1990년대 말 이래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여파가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심리적 불안은 지금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사회현상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불안은 인간 내면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이나,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이상영 등, 2015, p. 291).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는 성인, 청소년은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가 낮다(이상영 등, 2015, pp. 290-291). 또한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의 피로감과 부작용, 그리고 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의 한계로 말미암은 급격한 사회구조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노미 현상의 하나인 비행, 범죄, 중독, 정신적 문제, 자살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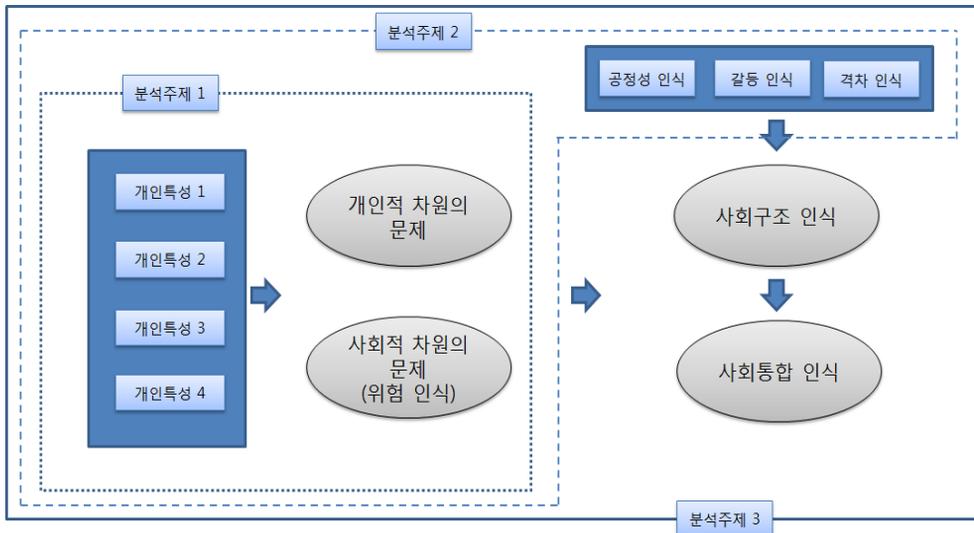
그러므로 사회·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불만·불신 등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이상영 등(2015)은 한국인의 구체적인 불안의 수준과 규모를 파악하고, 불안의 영향 요인을 개인·집단·사회 수준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해식 등(2016)은 한국인의 사회통합 지향이 집단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사회·심리적 불안의 문제가 사회통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관계는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상호관계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어떠한지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불안 및 위험 인식 등이 신뢰

및 협력 의식 등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심리적 불안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수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또한 신뢰, 유대감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불안이 횡행하면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찾는다. 이때 안정감을 제공하는 한 방법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전상진, 2006, p. 230). 또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체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가도 안정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 불신, 불만이라는 사회문제 현상의 근저에 개인 심리적 차원의 문제와 사회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고, 관련 문제들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²⁾

[그림 1-1]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분석 모형



2) 이 연구는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평가 도구로서 통계자료 생산 과정에서 설정한 문제의식을 ‘분석 주제’로 표출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설계할 당시의 문제의식을 이 보고서에 모두 담지는 못하였는데, 그것은 세부 연구 주제별로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 주제의 추가, 논리적 완결성의 추구 내에서 분석 의도의 구현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이러한 방법이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크게 세 개의 분석 주제를 설정하였다. 이 중에서 분석 주제 1은 다시 2개의 연구 주제로 구성된다. 각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분석 주제 1의 하위 범주에 있다. 각 개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과도한 우울, 불안을 사회문제의 하나로 볼 때,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적절한 치유와 더불어 개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통해 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적절한 치유와 자아탄력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 연구 주제도 분석 주제 1의 하위 범주에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박탈과 빈곤 상태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에 대해 더 큰 불만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강의 관계,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자본의 조절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특히 노인) 노인 복지서비스에서 사회적 자본(여가, 지지)의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구조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특히 사회갈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분석 주제 2의 한 영역에 있다. 각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열악할수록 다양한 갈등 경험에 노출될 수 있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이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집단의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과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사회통합 인식을 살펴보는데, 특히 사회구조 인식의 매개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분석 주제 3의 한 영역에 있다. 개인의 사회적 환경은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이 결정될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통합은 어느 한 부분의 개선으로 증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공정성(분배 정의, 부패의 축소)의 확보는 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부정적 사회통합 인식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조사 설계 및 내용

1. 조사 설계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현재 유행하는 우울, 중독 및 자살과 같은 개인 차원에서 사회문제와 불신, 불만 및 갈등 인식과 같은 사회제도적 차원에서의 사회문제 수준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조사를 하였다.³⁾

2017년 조사에서는 사회문제 현상을 ‘사회병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회통합의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문제의 확대 현상은 사회통합의 한 하위 요소이기도 하므로, 제반 사회문제의 정도에 대한 측정을 목적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심리적 불안 상태와 갈등 인식이 사회통합의 인식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심리적 감정 상태와 신뢰 및 갈등 인식을 포함하였다.

〈표 1-1〉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모듈의 주요 구성 문항

구분	문항	
사회심리적 감정 상태	우울	
	자살생각	자살생각 및 자살생각의 이유
	부정적 생활 경험	경험유무 및 가장 부정적인 사건과 경험시기
	흡연	현재 흡연 여부 및 흡연량
	음주	음주 빈도, 폭음의 빈도
	사행활동 경험	사행활동 경험, 장시간 또는 고비용 투자한 사행활동
	스트레스	
	아노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신뢰 및 갈등 인식	위험 인식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공정성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 필요 경험, 이용 여부, 이용 시 어려움, 그 이유
	사회문제의 원인	
	다툼이나 갈등 경험	가족과의 다툼이나 갈등, 가족 이외 갈등 경험

3) 불만과 갈등 인식을 사회문제라 지칭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건강한 사회구조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만과 갈등 인식은 존재하고, 그것을 감당해 낼 만큼의 유지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명명하는 편의를 위해 사회문제라 지칭하였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개인적 차원의 불안과 사회적 차원의 불안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도박 등 일탈행위, 아노미 척도, 불안 척도, 스트레스 대응 지수 등을 이용하였다. 일탈행위에는 도박, 음주,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등의 소극적 일탈과 폭력 등 적극적 일탈이 있을 것이다.⁴⁾ 사회적 차원의 불안정도 측정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한국 사회의 안전 및 위험 관련 설문을 활용하였다. 둘째, 사회제도 인식은 한국복지패널 설문지 및 국내외 각종 사회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특히 공정성과 관련한 분배 공정성 문항과 절차 공정성 문항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셋째, 사회통합 인식은 기존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설문을 활용하였다. 사회통합 인식은 본 연구가 4년차 연구에 접어들고 있어, 인구학적 조건 등에 따른 사회통합 인식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의 설문은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주관적 인식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배치하여, 수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설문지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통합 인식’을 주요 주제로 설정하였다. 연차별로 인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동성 인식, 사회통합 하위 요소의 중요도 등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2017년에는 사회통합 인식의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개인적·사회적 불안의 정도와 이를 일부분 매개할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제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독립 변수로 배치한다.

4) 적극적 일탈에 대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인의 갈등 해소 방식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등을 참고할 수 있었다.

2. 주요 조사 내용

가. 2017년 신규 문항

1)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불안

① 우울

우울은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라는 질문에 11점 척도(①전혀 우울하지 않다~⑩매우 우울했다)로 측정된 기존 문항을 보완하기 위해 11문항으로 이루어진 CES-D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of Depression Scales, 이하 CES-D)를 추가하였다. CES-D는 인구 집단의 우울증을 연구하는 NIMH의 역학연구 센터(Radloff, 1977)에서 설계하였는데, 한 개인의 지난 1주일간 심리적 태도와 행태를 자기 보고 방식으로 측정한다. 문항 내용은 ‘①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②비교적 잘 지냈다’, ‘③상당히 우울했다’, ‘④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⑤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⑥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⑦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⑧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⑨마음이 슬펐다’, ‘⑩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⑪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CES-D 11 척도 문항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 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②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살 생각에 대해서는 ‘①경제적 이유 때문에’, ‘②현재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③가족갈등 및 주변과의 단절 등 사회적 관계 때문에’, ‘④기타’로 원인을 파악하였다.

③ 부정적 생활 경험

부정적 생활 경험은 개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폭행 피해 등을 의미한다.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은 ‘①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죽음, 유산, 실종 등)’, ‘②폭행피해(신체, 정서, 언어, 성폭행 등)’, ‘③따돌림’, ‘④본인의 신체/정신질환’, ‘⑤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정신 질환’, ‘⑥자연재해’, ‘⑦사고 경험(교통사고, 화재 등)’, ‘⑧(본인 혹은 가족의) 이혼, 별거’, ‘⑨재정적 문제’, ‘⑩학업, 업무, 취업에서의 실패나 어려움’, ‘⑪어린 시절 학대’의 11개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표 1-3〉 부정적 생활 경험 측정 문항

구분	경험 유무	
	예	아니요
(1)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죽음, 유산, 실종 등)	①	②
(2) 폭행 피해(신체, 정서, 언어, 성폭행 등)	①	②
(3) 따돌림	①	②
(4) 본인의 신체/정신 질환	①	②
(5)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정신 질환	①	②
(6) 자연 재해	①	②
(7) 사고 경험(교통사고, 화재, 등)	①	②
(8) (본인 혹은 가족의) 이혼, 별거	①	②
(9) 재정적 문제	①	②
(10) 학업, 업무, 취업에서의 실패나 어려움	①	②
(11) 어린 시절 학대	①	②

④ 중독

중독은 흡연과 음주, 사행활동 경험 3가지 측면을 조사하였다. 흡연과 음주는 개인의 기호로 볼 수 있으며 적당한 사행활동은 개인의 취미생활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지나친 흡연과 음주, 그리고 사행활동은 중독으로 이어져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와 하루 평균 흡연량을 파악하고, 음주는 AUDIT 척도의 축약형인 AUDIT-C를 활용하여 지난 1년간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파악하였다. 지난 1년간 평균적인 음주 빈도는 '①전혀 마시지 않음', '②한 달에 1회 미만(몇 달에 한 번 정도)', '③한 달에 1회', '④한 달에 2~3회', '⑤일주일에 2-3회', '⑥일주일에 4회 이상'으로 파악하고, 음주량은 소주와 맥주 구분 없이 술잔으로 계산(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하여 1회 음주 시 '①1~2잔', '②3~4잔', '③5~6잔', '④7~9잔', '⑤10잔 이상'으로 파악하였다. 더불어 지난 1년간 남성의 경우 한 번에 소주 7잔 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경우, 여성의 경우 소주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경우의 빈도를 함께 질문하였는데, 응답은 '①전혀 없다', '②한 달에 1회 미만', '③한 달에 1회', '④일주일에 1회', '⑤거의 매번'으로 파악하였다.

사행활동 경험은 지난 1년간 내국인 카지노와 경마 마권 구매 등 공공이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활동뿐만 아니라 사설 사행활동을 포함한 10가지의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1-4〉 지난 1년간 사행활동 경험 측정 문항

구분	경험 유무	
	예	아니요
(1) 내국인 카지노 베팅	①	②
(2) 경마 마권 구매	①	②
(3) 경륜 경주권 구매	①	②
(4) 경정 경주권 구매	①	②
(5) 복권 구매(로또, 연금복권, 즉석복권, 전자복권 등)	①	②
(6)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루트) 구매	①	②
(7) 소싸움 경기 우권 구매	①	②
(8) 사설 사행활동	①	②
(9) 친목 목적 게임(현금을 걸고 하는 내기 성격의 게임, 고스톱, 포커, 카드게임 등)	①	②
(10) 오락형 온라인 게임(현금이나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 한게임 등)	①	②

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의미한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우울이나 불안장애 등과 같은 심리·정신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Cohen 등은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개발하였다(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 이 척도는 응답자가 지난 한 달간 받은 스트레스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척도이다. 즉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스트레스 척도보다 개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이종하 등, 2012). 이 연구에서는 Cohen 등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응답자의 응답 편의를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다.

〈표 1-5〉 스트레스 척도 문항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1)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아노미

Nisbet(1965)에 따르면, 아노미(Anomie)는 “규범적 체계의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일생 동안 그에 맞추어 살아왔던 가치들의 붕괴, 혹은 갈망하는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 사이의 갈등”을 의미한다(신동준, 2004, p. 35에서 재인용). Srole(1956)는 아노미 척도를 ‘자기 대 타자의 소속감’과 ‘자기 대 타자의 소외감’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아노미 척도를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Srole의 아노미 척도에 ‘⑥요즘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다’, ‘⑦요즘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2개 문항을 추가하여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각 문항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④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측정하였다.

〈표 1-6〉 아노미 척도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요즘에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미래를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3) 누가 뭐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요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따름이지, 미래를 생각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요즘 공무원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탄원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6) 요즘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르지 판단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7) 요즘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⑦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

〈표 1-7〉 자아탄력성 척도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나 동료에게 너그럽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갑자기 놀림을 당해도 금방 관철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다른 여러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매일 생활은 흥미로운 일로 가득하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관철아진다	①	②	③	④

Block과 Kremen(1996)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 환경적 요구에 따른 긴장, 충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아통제-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박은혜, 이민규, 2016, p. 625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하고

유성경, 심혜원(2002)이 번안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를 활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①나는 내 친구나 동료에게 너그럽다’, ‘②나는 갑자기 놀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③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④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등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최소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최대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분포를 갖는다.

⑧ 위험 인식

위험 인식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걷을 때(혹은 혼자 걷는다면) 귀하는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기존의 문항⁵⁾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14년 문항을 활용하여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 관계, 환경 등 7개 영역에 걸친 위험, 그로 인한 불안 수준을 파악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7개 영역의 25개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한 불안 정도를 물었으며, 응답은 ‘①매우 불안하다’부터 ‘⑤전혀 불안하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1-8〉 위험 인식 측정 문항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 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A. 자연재해 관련	(1) 홍수나 태풍	①	②	③	④	⑤
	(2)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동	①	②	③	④	⑤
	(3) 황사나 가뭄	①	②	③	④	⑤
	(4) 지진 및 쓰나미(지진해일)	①	②	③	④	⑤
B. 건강 관련	(5) 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과 같은 전염병	①	②	③	④	⑤
	(6) 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과 같은 먹거리 문제	①	②	③	④	⑤
	(7)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	①	②	③	④	⑤
	(8) 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성인병	①	②	③	④	⑤

5)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걷을 때(혹은 혼자 걷는다면) 귀하는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의 문항은 사회생활 관련 불안, 즉 ⑬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한 불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전 연도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기존 문항을 유지하며 보완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C. 생애 주기 관련	(9) 노후	①	②	③	④	⑤
	(10) 이혼, 가족 부양 기능의 약화 등 가족 해체 및 약화	①	②	③	④	⑤
	(11)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12)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D. 사회 생활 관련	(13)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과 같은 범죄	①	②	③	④	⑤
	(14) 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인적 재난 및 산업재해	①	②	③	④	⑤
E. 경제 생활 관련	(15) 실업 및 빈곤	①	②	③	④	⑤
	(16) 주택 및 전세 가격 불안	①	②	③	④	⑤
	(17) 국가 및 가계부채,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과 같은 금융 불안	①	②	③	④	⑤
	(18) 경기침체 및 저성장	①	②	③	④	⑤
F.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19)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	①	②	③	④	⑤
	(20)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①	②	③	④	⑤
	(21)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주변 강대국 간의 군사적 충돌	①	②	③	④	⑤
	(22)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①	②	③	④	⑤
G. 환경 관련	(23) 원전 사고와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24)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	①	②	③	④	⑤
	(25) 수질오염	①	②	③	④	⑤

2) 사회구조 인식

① 공정성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까지 형평의 원칙에 따른 분배 공정성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레벤탈(Leventhal, 1980)은 개인이 처한 공정성을 평가할 때 형평 이론은 기여나 능력에 따른 보상의 결과만을 중시했다고 비판하며 분배의 결과뿐만 아니라 보상의 결정 과정, 즉 절차의 공정성으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박효민, 김석호, 2015).

이에 이 연구에서 공정성은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분배 공정성은 능력, 기술, 노력, 학력, 경력 등에 따라 받는 대우가 공정한지, 불공정한지에 관한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①매우 공정하다'부터 '⑤매우 불공

정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절차 공정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는데, 6가지의 절차상 상황에 대해 ‘①매우 그렇다’부터 ‘⑤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공정성에 대한 두 문항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문항을 활용한 것이다.

〈표 1-9〉 분배 공정성 측정 문항

구분	매우 공정하다	약간 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불공정하다	매우 불공정하다
(1) 두뇌(능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관련된 기술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3) 노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4) 학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5) 경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표 1-10〉 절차 공정성 측정 문항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부 압력이나 ‘백’(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②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는 갈등의 해결을 원만하게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소득 계층이나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서비스 이용 실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지난 5년간 법적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필요 경험 여부 및 당시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법률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정도 및 그 이유 등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3) 사회통합 인식

① 사회문제의 원인

사회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 즉 개인 자체의 문제로 보는 개인적 접근과 사회구조에 따른 문제로 보는 제도적 접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통합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4가지 사회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이탈’, ‘사회적 규범의 해체’, ‘사회제도와 가치 간의 충돌’, ‘빈곤,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 중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11〉 사회문제의 원인 측정 문항

구분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이탈	사회적 규범의 해체	사회제도와 가치 간의 충돌	빈곤,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
(1) 자살, 알코올중독, 허키코모리 등 자기 파괴적 행동	①	②	③	④	⑤
(2) 살인, 각종 범죄 등 타인에 대한 폭력·범죄	①	②	③	④	⑤
(3) 특정인,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는 태도	①	②	③	④	⑤
(4) 희망, 진취성과 같은 삶의 방향 상실	①	②	③	④	⑤

② 다툼이나 갈등 경험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집단 간(세대, 지역, 이념 등) 갈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존 문항이 있었으나 개인의 실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갈등 및 다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을 보완하였다. 먼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인 갈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정치적 견해나 문화적 차이, 출신 지역 및 세대, 학벌 차이에 따른 다툼(갈등) 경험 여부를 파악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다툼(갈등) 경험 여부와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는데, 심리적 부담은 ‘①매우 적음’부터 ‘④매우 큼’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추가된 2개의 문항은 이상영 등(2013)의 ‘한국 사회의 갈등 및 사회병리 현상 실태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1-12〉 다른 사람과의 다름(갈등) 경험 측정 문항

구분	있음	없음
(1) 정치적 견해 차이	①	②
(2) 문화적 차이	①	②
(3) 출신 지역 차이	①	②
(4) 세대 간의 차이	①	②
(5) 학벌 차이	①	②

〈표 1-13〉 가족과의 다름(갈등) 경험 및 심리적 부담 측정 문항

구분	경험 여부		경험이 있는 경우, 심리적 부담 정도			
	있음	없음	매우 적음	적음	큼	매우 큼
(1) 경제적 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2) 가사 부담 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3) 자녀 양육(교육) 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4) 취업 또는 실업 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5) 가족 내 건강 혹은 간병 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6) 생활양식(종교, 가치관)과 성격 차이	①	②	①	②	③	④
(7) 고부갈등, 노부모 부양 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8) 폭언 및 폭행(학대) 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나.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2014~2017년) 지속 설문 문항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개발된 문항 이외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통합 및 갈등 요인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사된 문항은 사회통합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가구 및 가구원 일반 사항’과 ‘가구 경제 상태’, ‘행복 및 만족도’, ‘사회적 자본’, ‘계층 인식 및 이념적 성향’ 등이다. 구체적인 기존 설문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2014년-2017년) 지속 설문 문항

구분		주요 문항
가구 및 가구원 일반 사항	가구 형태 및 가구원 구성	가구원 수, 노인 수, 장애인 수, 만성질환자 수, 아동 수, 실업자 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
	가구주 및 응답자 일반 사항	성별, 나이, 교육 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참여 상태, 직업, 직업안정성, 고용 형태 등
	주택 및 거주 형태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가구 경제 상태	생활비	총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
	소득	응답자 근로소득, 가구 총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산과 부채	거주 주택 가격, 금융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부채 총액
행복 및 만족도		삶의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생활 영역 만족도), 행복감, 우울감 박탈 및 여가 등
사회적 자본		대인 및 기관, 전반적 사회 신뢰도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기부 활동
		투표 여부, 정치적 관심도
		사회집단 간 갈등 인식 정도
		정부의 역할 인식 정도
계층 인식 및 이념적 성향 등		소득계층 인식(현재, 미래), 이념적 성향, 국가에 대한 자부심

다. 2014년, 2015년, 2016년 조사 문항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실태에 대한 진단과 동시에 각각 연도별로 주제 모듈을 설정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을 주제 모듈로 하였고, 2015년 조사에서는 사회이동의 실태를 주제 모듈로 하였으며, 2016년 조사에서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을 주제 모듈로 하였다.

2014년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통합과 행복의 실태와 결정 요인, 나아가 사회통합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사회통합 및 행복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때 사회통합에 대한 주요 문항과 행복에 대한 일반적인 문항은 2015년과 2016년 조사에서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인의 행복 주제 모듈로서 2014년 조사는 다른 연도 조사에 비해 심도 있는 행복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 1-15〉 2014년 주제 모듈 ‘사회통합과 행복’ 주요 조사 문항

구분	문항
스스로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자신의 행복감 평가 - 동년배와 비교한 자신의 행복감 평가 - 매사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 평가
행복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의 조건 (공정한 민주사회에 사는 것, 적절한 수입, 친밀한 관계, 신체적 건강 등) - 행복할 수 있는 소득 수준 및 재산수준

자료: 정해식 등.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사회통합 국민 인식. p. 26.

2015년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세 요소(사회적 배제,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중 그동안 사회통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사회이동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의 실태와 사회이동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이동 실태 파악은 응답자 개인의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모두 파악하였다. 세대 내 이동은 학교→첫 직장→현 직장의 고용상태 및 직위 등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세대 간 이동은 3세대(전 세대-현 세대-미래 세대)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해 파악하였다.

〈표 1-16〉 2015년 주제 모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주요 조사 문항

세대	시점	주요 조사 항목
본인 (destination, second origin)	현재(2015. 5. 31.)	가구 특성 및 개인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위세, 경제 상태(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은 3개월 평균) 사회통합 인식 등
	첫 직장 입사 당시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등
	본인이 15세(중3) 즈음	성장한 곳, 경제적 수준, 학업 성적 등
부모(origin)	본인이 15세(중3) 즈음 (부모가 40세 즈음)	부모 생존 여부,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분위기, 문화자본 등
첫째 자녀 (second destination)	첫째 자녀가 15세(중3) 즈음	첫째 자녀의 경제활동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 성적, 가정의 분위기, 문화자본 등

자료: 정해식 등.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사회통합 국민 인식. p. 26.

2016년 조사는 객관적 수준으로 측정되는 사회통합 상태와 더불어 그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수준에서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통합 국민 인식을 주제 모듈로 하여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의 상을 설명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1-17〉 2016년 주제 모듈 '사회통합 국민 인식' 주요 조사 문항

구분	문항		
사회통합 수준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 평가		
사회통합의 조건	- 사회통합 조건의 중요도		
	사회적 배제(포용성) 수준	경제적 지원, 그룹 간 격차 축소, 다양성 인정	
	사회적 자본 수준	신뢰 증대, 참여 증진	
	사회이동성 수준	기회의 제공, 두터운 중산층	
	갈등 관리 수준	갈등 조정, 그룹 간 협력 등	
우리 사회의 상태 (10년 전 현재 10년 후)	- 우리 사회의 상태 진단		
	배제 사회	차별과 소외가 심함 사회 ↔ 배려와 포용의 사회	포용 사회
	불신 사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신뢰 사회
	침체된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역동적 사회
	불안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희망 사회
	갈등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협조 사회

자료: 정해식 등.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사회통합 국민 인식. p. 26.

3. 2017년 조사 개요⁶⁾

가. 조사 방법 및 내용

이 조사는 국민의 사회문제 실태 및 사회통합 상태 간의 관계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 생산에 목적을 두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6)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완료하였다(심의번호: 연구조정팀-473).

이 조사의 조사 단위는 가구 내 1인이며, 19세 이상 75세 이하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1인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국 500개 집계구를 대상으로 각 집계구당 8가구의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집계구는 2015년 집계구 리스트에서 400개 집계구를 추출하고 및 신규 아파트 지역 집계구에서 100개를 추출하였다. 2017년 표본배분은 집계구 수에 대한 제공근 비례배분 방식을 취하였다. 경기도의 3개 집계구와 강원도의 2개 집계구에서는 별장 지역, 공장 지역 등의 문제로 동일 지역 내에서 5개 집계구를 대체하였다.

〈표 1-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 남녀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31일 이전 출생) ~ 만 75세 이하(1941년 5월 31일 이후 출생) 남녀 * 외국인 제외(귀화한 경우는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 조사)	
표본 단위	가구 내 개인 1인(빠른 생일자)	
표본 크기	전국 500개 집계구(지역) 내 3,839가구(3,839명)	
표본 추출	2015년 집계구 활용 조사 표본 집계구 500개에서 8가구를 계통 추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 기간	2017년 5월 31일~2017년 8월 31일	
조사 문항	가구 구성 및 경제 상태	가구원 수, 가구원 특성, 가구 형태, 생활비, 공적이전소득, 소득 평가, 재산과 부채, 주거 특성 등
	생활 상태	박탈 등
	응답자 일반 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태어난 연도,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여부, 장애 여부, 경제활동 상태, 직업안정성, 고용 형태,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심리적 감정 상태	행복,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위협 인식, 스트레스, 자살, 우울, 부정적 생활 경험, 아노미, 흡연, 음주, 사행활동 등
	신뢰 및 갈등 인식	사회 신뢰, 부패, 갈등, 공정성, 사회 인식, 사회적 네트워크, 법률서비스, 사회문제의 원인 등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주관적 계층 인식, 소득 평가, 사회이동, 사회통합 평가 등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나. 응답자 분포

이 조사에서는 표본가구 내에서 대표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빠른 생일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응답자의 최종 분포는 다음 <표 1-19>와 같다.

<표 1-19>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체		3,839	100.0
성별	남성	1,948	50.8
	여성	1,891	49.3
연령	20대 이하	729	19.0
	30대	731	19.1
	40대	832	21.7
	50대	813	21.2
	60대 이상	734	19.1
지역	수도권	1,930	50.3
	비수도권	1,909	49.7
	대도시	1,615	42.1
	중소도시	1,837	47.8
	농어촌	388	10.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44	14.2
	중하층	1,399	36.4
	중간층	1,654	43.1
	중상층(+상층)	242	6.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71	14.9
	200만 원대	596	15.6
	300만 원대	770	20.1
	400만 원대	653	17.0
	500만 원 이상	1,244	32.4
학력	중졸 이하	592	15.4
	고졸	1,683	43.9
	대졸 이상	1,564	40.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16	31.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29	11.2
	고용주·자영자	737	19.2
	무급 가족 종사자	85	2.2
	실업자	128	3.3
	비경제활동인구	1,245	32.4
직업	관리자·전문가	338	13.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79	55.9
	숙련 및 기술직	529	21.4
	단순노무 종사자	221	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12	67.6
	비정규직	533	32.4

주: 월평균소득-무응답5case/ 직업-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해당/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만 해당.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사회통합 개념의 확대를 위한 시도

제1절 사회통합 개념의 이론적 검토

제2절 사회통합과 사회병리의 관계

2

이론적 배경 << : 사회통합 개념의 확대를 위한 시도

제1절 사회통합 개념의 이론적 검토

1.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국내에서는 ‘사회통합’으로 번역되는 외국 개념은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등이 있다(노대명, 2009, pp. 7-8; 여유진 등, 2014, pp. 58-73). 이 개념들은 각각 사회적 포용, 사회적 통합, 사회통합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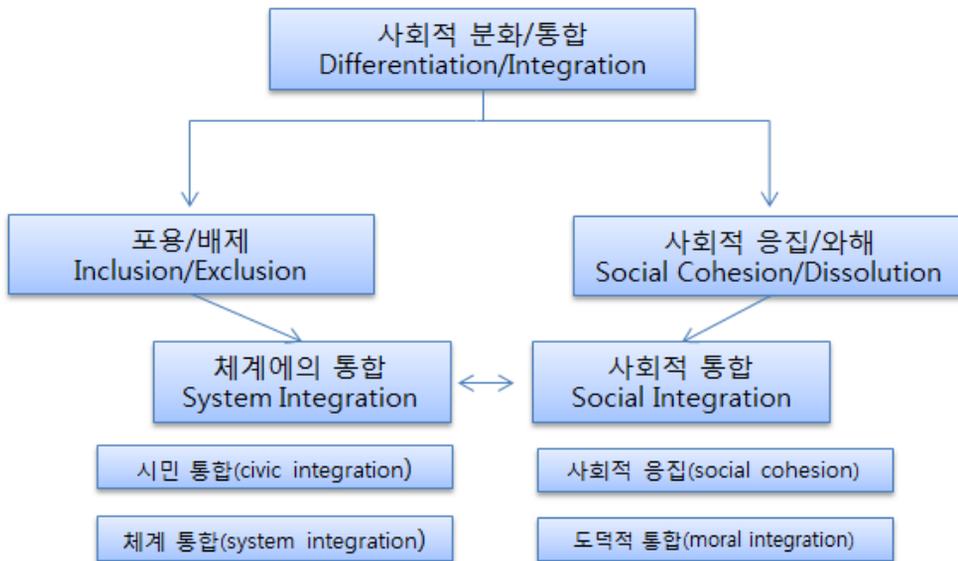
여기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각종 사회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여 보호·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포용은 통합된 사회의 한 모습이지만, 그 자체로는 사회통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사회적 포용은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여유진 등, 2014, p. 58).

이에 비해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구성원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United Nations [UN], 1994, 노대명, 2009, p. 8). 사회적 통합 개념은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는 사회 구성원이 존재하는 사회를 상정한다.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이 통합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UN, 1994; 여유진 등, 2014, p. 65). 첫째는 포괄한다는 개념이다. 포괄한다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 집행되어 이미 어떤 사람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못 누리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확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구분을 줄인다는 의미이다(여유진 등, 2014, p. 65). 각각 다른 사회 구성원이 하나의 사회구조 안에서 동일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연대의식과 공동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연대의식이 증진되는 것을 말하며, 폭력을 줄이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공통의 정체성을 개발·강화하는 것이다(UN, 1994; 여유진 등, 2014, p. 65). 이것은 서로 다른 생활세계, 이념 구조 간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는 하나의 공통된 사회질서 개념 속에서 각기 다른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개념인 포괄의 반대는 배제

(exclusion)이며, 둘째 개념인 연대의식과 정체성의 강화의 반대는 분열(disintegration)이다(UN, 1994; 여유진 등, 2014, p. 65).

유엔의 이러한 개념 분류는 이미 록우드(Lockwood, 1964)가 체계에의 통합(System Integration)과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명명하여 분류한 바와 같다. 록우드는 1999년 저작에서 이를 각각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과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으로 구분하였는데, ‘핵심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와 ‘공동체 수준에서 친족이나 기타 주요 네트워크가 유지되며, 자발적 조직에 대한 참여 등이 이뤄지는 상태’로 정의하였다(Lockwood, 1999, p. 64). 여기서 사회적 통합은 도덕적 혹은 가치의 의견 일치에 따라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며, 체계 통합은 도덕적 연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크레첼(Krechel, 1999)은 사회적 통합을 도덕적 통합(moral integration)으로 지칭하고, 체계에 대한 통합을 체계 통합(system integration)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림 2-1]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응집의 이론적 관계



자료: Beck et al.(2001, p. 338), 정해식(2012, p. 20), Lockwood(1999) 및 Krechel(1999)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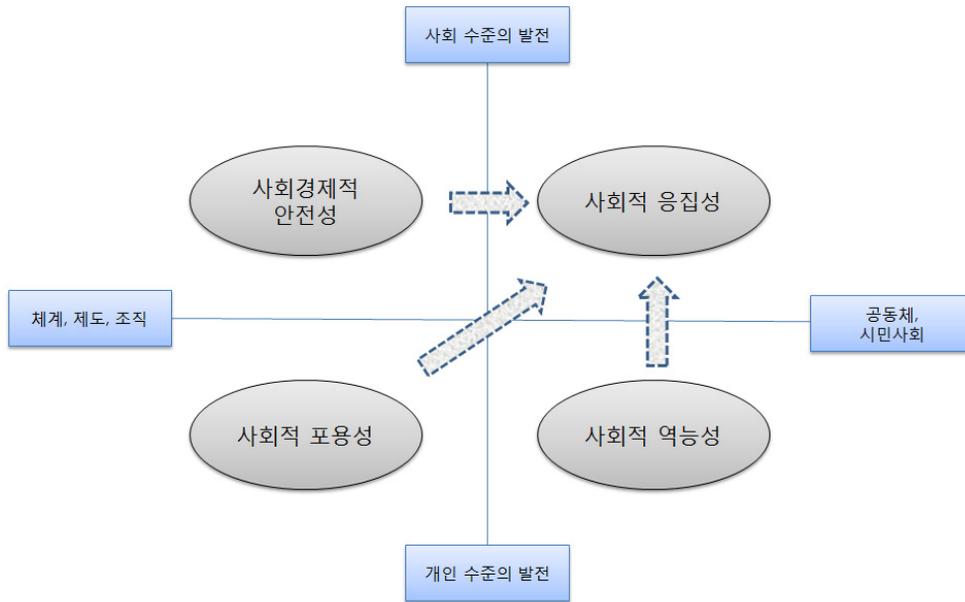
이러한 관점은 인간 사회가 고유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있다. 사회통합의 개념도 이러한 담론 구조에서 출발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Durkheim, 1893)은 공유된 충성심과 연대를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보았으며, 사회변화가 통합의 본질을 변화시키는데, 전근대 사회의 통합을 ‘기계적 연대’로 근대 사회의 통합을 ‘유기적 연대’로 표현하였다(OECD, 2011, p. 52; 여유진 등, 2014, p. 69에서 재인용). 이런 연유에 따라 사회통합에 대한 캐나다 정책연구소 위원회는 통합을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뢰, 희망과 상호 호혜성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공유된 가치, 공유된 도전 과제와 동등한 기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 프랑스 정부의 일반계획위원회는 사회통합을 “공동체 귀속감을 키워 주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믿게 하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Jenson, 1998, pp. 4-5, 여유진 등, 2014, p. 69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사회통합이라는 하나의 과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05, p. 23)는 사회통합을 “모든 구성원의 장기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으로, 가용한 자원에서의 공평한 접근,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존중, 개인적·집합적 자율성, 책임감 있는 참여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격차와 배제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의 한 축과 신뢰, 호혜의식 및 활동, 연대의식과 같은 사회적 응집의 한 축을 이용하여 설명해 왔다(Berger-Schmitt, 2000;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0; 노대명 등, 2010). 그러나 사회통합의 설명 요인, 보다 정확하게는 조건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되어 왔다. 여유진, 정해식 등(2015)은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을, 정해식 등(2016)은 ‘사회갈등과 관리’를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하위 구성 요소로서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응집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적 포용성이 낮은 상황에서 사회적 응집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동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응집성이 낮은 사회에서 전체 사회적 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힘들다(정해식, 안상훈, 2015, p. 121). 즉 이들의 관계는 앞서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정해식 등(2014, p. 122)은 사회통합의 조건에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하위 분면이 포함되고, 그 결과에 따라 신뢰,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합의될 수 있는 통합적 규범과 가치, 각종 단체에의 소속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로 [그림 2-2]와 같은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간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 발전 경로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해식 등(2014, p. 123)은 사회통합은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해결 또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수준 전반에서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 2-2] 사회의 질 체계와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자료: 정해식 등. (201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p. 123.

사회통합을 단순히 도덕적 통합, 정서적 유대를 넘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까지로 본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가져온다. 구조기능주의자로서 파슨스(Parsons)는 질서 잡힌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는 사회규범이 외적 강제력일 뿐 아니라, 지속적 사회화 과정을 거쳐 내면화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사회 체계의 네 가지 기능-적응 기능, 체계유지 기능, 통합

기능, 목표달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Giddens, 2012, p. 88). 그러나 구조기능주의는 합의와 동의하에 이뤄진 사회질서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즉 이해관계의 충돌, 사회 구성원들 간의 미시적 상호 작용이 사회의 질서와 무질서를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 사회질서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갈등, 새로운 구성원과 기존 사회체계의 갈등, 새로운 체계와 체계 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갈등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통합 논의는 과잉통합(over-integration)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욱 심화·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전상진, 2006).

2. 사회통합의 하위 범주

사회통합이라는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는 개념적 조작화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논의를 역으로 유추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슷한 추상적 수준을 가지는 ‘사회적 질’ 개념은 앞서 [그림 2-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사회통합 개념을 측정하는 데도 하위 구성 요소를 격차 해소, 사회적 배제의 축소, 사회적 이동성의 확보, 사회적 자본의 증진이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여러 연구는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격차 및 사회적 배제를 해소·축소하고, 그를 위한 한 도구로서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을 추진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 자본 수준의 확보도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표 2-1〉 사회의 질과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비교

사회의 질		사회통합	
하위 분면	주요 영역	구성 요소	주요 지표
사회 경제적 안전성	-재정적 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돌봄 -일(고용) -교육	격차 해소	-소득빈곤 및 격차 -자산빈곤 및 격차 -주관적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 -실업 및 저임금 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 -지역 격차 -정보 격차

4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사회의 질		사회통합	
하위 분면	주요 영역	구성 요소	주요 지표
사회적 포용성	-시민권(정치권, 공민권, 사회권) -노동시장 접근성(포용) -각종 사회서비스(건강, 주거, 교육, 돌봄, 금융, 교통, 공공문화)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	사회적 배제의 축소	-적절한 주거 조건 -교통 접근성 -의료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건강상태 -동등한 기회 및 불평등의 배제(성별, 세대, 계층, 장애, 국적 및 인종 등) -여가의 질 -공적 영역에 시민 참여
사회적 역능성	-지식 기반 -노동시장의 통제와 역능성 -제도의 개방도 -공적 공간의 활성화 -대인 관계 지원	사회적 이동성의 확보	-교육 접근성 -학업 성취도 격차 -사법제도의 형평성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기대
사회적 응집성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적 네트워크(관계망) -정체성(국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증진	-자원봉사 및 기부 -시민단체 참여 -타인 및 공공에 대한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정치 활동과 소속 -사회연대 -국가공동체 귀속감

주: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 및 주요 지표는 OECD(2011), Berger-Schmitt(2000), UN ECLAC(2007), 노대명 등(2009), 노대명 등(2010)에서 제안된 내용을 재구성.

자료: 정해식 등(2014, p. 125)을 재구성.

위와 비슷하게 Beauvais와 Jenson(2002)도 사회통합의 다섯 가지 상이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통된 가치와 시민 문화로서 사회통합이다. 통합된 사회는 구성원이 공통의 목표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된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 맺음 속에서 공통의 도덕적 원칙과 행동 준칙을 공유하는 사회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여유진 등, 2014, p. 71에서 재인용). 둘째, 사회질서와 사회통제로서의 사회통합이다. 기존 사회 질서와 체계를 위협하는 사회 내의 갈등과 도전이 부재한 상황을 의미하지만, 이때 기존 사회질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의 가치를 수용하는 사회적 배제 등이 없는 사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여유진 등, 2014, p. 71에서 재인용). 셋째, 사회적 연대와 부의 격차 감소로서의 사회통합이다. 사회와 사회 구성원이 공통의 경제, 사회, 환경적 기준을 향해 가는 균형적 발전을 의미한다(여유진 등, 2014, p. 72에서 재인용). 넷째,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회통합이다. 공동체와 가족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사회를 의미한다(여유진 등, 2014, p. 72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지역적 소속감과 정체성으로서의 사회통합

이다. 사회통합이 ‘소속감, 장소에 대한 애착, 지역적 이동의 개념으로, 지역 내 시민들의 결합’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때 지역 및 장소가 좁은 개념이어서는 안 되며, 소속감이 배타적이어서도 안 된다(여유진 등, 2014, p. 72에서 재인용).

이렇듯 사회통합의 하위 범주는 체계와 제도의 문제, 그리고 구성원의 가치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치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제도를 통한 지나친 통제를 경계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제도와 구성원의 가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발현되는 양상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제2절 사회통합과 사회병리의 관계

1. 사회병리의 역사와 개념

가. 사회병리학의 역사

사회병리학(social pathology)은 자본주의 사회문제의 구체적 현상으로서 사회문제의 빈발과 사회학에서 사회유기체론(社會有機體論)으로의 관심을 배경으로 하여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체계화된 학문이다(이상현, 2004, p. 136). 흔히 사회병리, 도덕성 결여라는 관점으로 소개되는 사회병리학적 시각은 1900년대 초반 사회문제의 원인을 급격한 도시화에서 찾고자 했던 사회학의 접근에서 시작하였다(강세현, 2002, pp. 247-248). 이러한 접근을 초기 사회병리학이라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조건으로 개인의 비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사회의 병리적 조건은 변화하는 사회의 이상과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 능력의 결여 또는 변화하는 사회의 기능적 기구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의 실패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강세현, 2002, p. 249).

이에 비해 후기 사회병리학자로 볼 수 있는 카볼리스는 병리적 행동을 촉진하는 사회구조와 과정 및 문화적 지향의 특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Kavolis, 1981, p. 40; 강세현, 2002, p. 251에서 재인용). 강세현(2002, pp. 250-251)은 카볼리스의 관점에서 기존 제도가 사회구성원의 ‘파괴적 또는 자기 파괴적 행동’을 조장한다면 그 제도는 병리발생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런 점에서 갈등이 파괴적 행동을 초래하지 않는

다면 갈등 그 자체는 병리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카볼리스는 사회병리적 행동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Kavolis, 1981, pp. 38-39; 강세현, 2002, p. 251에서 재인용). 첫째는 자기 파괴성으로, 자신의 생명, 건강, 정체감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이 있다. 자살, 알코올 중독, 노이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타자 지향적 파괴성으로 타인의 생명, 건강, 정체감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동이 있다. 살인, 인종차별, 각종 범죄,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존중을 철회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자발적인 병리로 개인이 파괴적 행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택, 또는 선택할 능력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질병의 징후를 발전시킬 때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넷째, 조직적 병리이다. 행위자들이 그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의 권위, 권력에 의해 강요받거나 또는 도덕적 의무감으로 인해 파괴적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파괴적 행동을 하도록 고무하는 것을 말한다. 노예제, 수용소가 대표적이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네 가지 사회병리적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통해 사회가 병리적 상황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카볼리스의 접근이 사회병리를 기존 사회의 질서 유지라는 보수적 접근을 넘어 객관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사회병리 현상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과오가 아닌 지점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슬래터(Slater)는 1970년 출판된 '외로움의 추구'라는 책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사회병리를 발생하게 하는 핵심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미국 사회의 개인주의적 분위기가 기술 발전, 사회 이동과 함께 각 개인을 가족, 지역사회, 친족 조직에 묶어 두는 연대성을 파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Slater, 1981, p. 42; 강세현, 2002에서 재인용). 즉, 개인의 비도덕성에 초점을 둔 초기 사회병리적 관점과 달리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듯 후기 사회병리학은 사회 환경을 사회병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기 시작했다(강세현, 2002).

나. 사회병리학의 개념

사회병리학이란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제 현상에 대해 기능장애(dysfunction or malfunction)와 사회적 이탈(social deviance)의 시점에서, 하나의 분석 방법과 독

자적인 이론틀을 형성한 학문이다(대교훈, 1974, p. 63; 이상현, 2004, p. 138에서 재인용). 기능장애라는 개념은, 기능주의의 틀을 기축으로 하여 상호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 입장에서 여러 사회적 단위의 제 기능 혹은 그것이 현재적, 잠재적으로 내포하는 가지각색의 기능장애(병리성)와 그 현상(병리현상) 및 그 과정(병리과정)의 총체로서의 사회병리로 치환된다(이상현, 2004, p. 138). 달리 말하면 기능장애는 주어진 체계 내지 사회적 단위의 적응 혹은 조정을 감하는 관찰 결과로서 일정한 사회적, 문화적 체계 내지 사회적 단위의 일정 기능적 요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 신념 혹은 조직의 일정 형식 및 결과를 가리킨다(이상현, 2004, p. 141). 일탈이란 개인 혹은 하위집단의 행동, 정신적 신체적 상태, 신념, 태도, 생활양식이나 관습, 규범 등이 개인이 속한 집단, 하위집단을 포섭하는 상위집단 혹은 전체 사회의 규범(norms)이나 표준(standards)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이상현, 2004, p. 143). 일탈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주체와 판정 주체의 사회적 속성이나 상황 등에 따라 일탈로 판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 사회병리학의 주요 이론으로는 사회부적응론, 사회참가론, 사회긴장론, 사회해체론, 아노미론, 일탈행동론을 들 수 있다(이상현, 2004, p. 141). 이 중에서 사회부적응론은 앞서 소개한 초기 사회병리학의 흐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 현대 사회병리학은 사회해체론, 아노미론, 일탈행동론을 주로 다룬다.

Elliott과 Merrill(1950)은 사회해체를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그 목적과 일치하여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집단 성원 간의 제 관계가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이상현, 2004, p. 145에서 재인용). 이것은 사회체계의 조직 구조를 구성하는 구성적 규범(constitution norms)이 적절하지 않고, 따라서 사회규범이 사회관계 내지 사회행동을 충분히 규칙화하지 못한 통제기능의 장애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상현, 2004, p. 145). 이에 비해 아노미이론(anomie)에서 말하는 아노미란 사회규범이 그 규범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경제, 가족, 부부 등 사회적 제 영역에서 각 개인의 욕구 충족 행위를 규제하고 적당한(도덕적으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는 사회 상태를 말한다(이상현, 2004, p. 146). 마지막으로 일탈행위론(deviant behavior)은 사회병리이론의 하나라기보다는, 사회병리현상을 사회 제 규범에서의 일탈로 포착해 그 원인, 현상 과정 및 사회적 대응 내지 통제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틀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사회병리학의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다(이상현, 2004, p. 146). 세 이론은 순서대로 구조

의 문제, 구조와 개인의 문제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일탈행위론에서는 개인의 문제를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2. 사회통합과 사회병리의 관계

현대 사회병리학의 흐름을 따라가자면, 거시적 차원의 ‘사회해체’ 양상과는 별도로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해체’ 또는 ‘사회병리’의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차원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으로 사회병리적 현상이 만연하는 원인을 사회해체론과 아노미론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해체론은 사회제도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며, 아노미론은 사회규범이 변화한 사회구조와 불일치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각종 사회적 불안, 위험 요소가 계층 집단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험을 가하게 됨에 따라 복지제도를 위시한 각종 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공적 제도를 통한 지원 기능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고,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사적 지지망도 축소되는 과정이다. 아노미적 상황으로서 규범과 제도의 불일치 상황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성공에 대한 갈망과 이동성이 제약되는 폐쇄적 사회구조하에서도 여전히 성공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 두드러진다면, 효·돌봄 등 사적 지원망에 대한 기대와 개인주의적 인식이 만연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보고서는 사회통합을 격차, 배제와 같은 ‘체계 통합(system integration)’이라는 한 축과 신뢰, 호혜의식 및 활동과 같은 사회적 자본 성격의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의 한 축이라는 두 축을 이용하여 설명해 왔다. 사회병리 현상은 앞서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의 반대 개념으로서 갈등, 해체, 분열과 관련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 사회통합은 여전히 체계 통합과 사회적 통합의 관점으로 설정하면서 사회병리를 사회해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다만, 사회병리의 양상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Jenson(1998)의 구분에 따라 사회병리의 사회적 차원에 대해서는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전체 국가 제도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분배 정당성에 대한 불만, 사회갈등의 심화 등은 사회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성원이 사회적, 개인적 불안에 직면하였을 때 사회는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사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사회, 즉 통합된 사회라면 이러한 불안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공존의 자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해체된 사회, 사회통합의 수준이 낮은 사회라면 구성원의 불안에 대해 무관심하고, 제도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각자도생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의 불안 정도에 대한 측정 및 관심은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조사하였다.⁷⁾ 사회문제를 카볼리스(Kavolis, 1981)의 구분을 일부 따라 자살, 알코올중독,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 자기 파괴적 행동, 살인 등 타인에 대한 폭력·범죄, 특정인이나 집단을 적대시하는 태도, 희망이나 진취성과 같은 삶의 방향 상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을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일탈, 사회적 규범의 해체, 사회제도와 가치관의 충돌, 빈곤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사회체계·구조와 개인의 갈등 상황, 가치와 가치의 충돌 상황, 구조와 가치의 충돌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 파괴적 행동의 경우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일탈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반면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사회적 규범의 해체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그와 비슷한 수준에서 개인의 일탈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특정인,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사회제도와 가치 간의 충돌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희망, 진취성과 같은 삶의 방향 상실에 대해서는 사회구조, 가치 간의 충돌, 개인의 나약함을 고루 지적했다.

〈표 2-2〉 사회문제의 원인

(단위: %)

구분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일탈	사회적 규범의 해체	사회제도와 가치 간의 충돌	빈곤,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
자살, 알코올중독, 히키코모리 등 자기 파괴적 행동	49.3	23.22	11.03	7.36	9.09
살인, 각종 범죄 등 타인에 대한 폭력·범죄	17.52	26.01	26.11	16.52	13.84
특정인,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는 태도	9.09	11.53	23.6	38.12	17.67
희망, 진취성과 같은 삶의 방향 상실	21.01	13.71	19.01	22.63	23.6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7) 본 장의 구성 목적에 따르면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실시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한 문항이 이 조사의 내용이므로 이를 포함하였다.

제 3 장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3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트라우마 경험이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나 죽음의 위협을 일으켜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공포, 희망 없음, 극심한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사건”(Yehuda, 2002; 송리라, 이민아, 2016, p. 1에서 재인용)을 말한다. 이러한 트라우마의 유형은 다양하다. 자연재해, 사고, 전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트라우마 경험에 포함된다.

이러한 트라우마 경험에 노출되는 개인이 경험하는 강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각 개인의 능력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 환경적 요구에 따른 긴장, 충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아통제-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lock, Kermen, 1996; 박은혜, 이민규, 2016, p. 625에서 재인용).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은 트라우마 경험이 우울, 불안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정미, 이숙, 2005; 박경, 2007; 김한나, 김혜련, 최윤신, 2011). 윤명숙과 김서현(2012)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상 사건 경험과 자살생각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상 경험을 한 대학생들의 자살생각률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Kinderman 등(2013)의 연구는 18세 이상 85세 이하 성인 약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트라우마 경험이 정신건강의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한다. 이들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은 가족력, 사회적 박탈과 더불어 학대 경험, 부정적 생활 경험이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예측한다고 보고한다.

트라우마 경험을 했는지 여부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트라우마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가 증가한다고 기존 연구들은 보고

하고 있다(Copeland et al., 2007; Suliman et al., 2009). 구체적으로 Suliman과 연구진(2009)은 하나의 트라우마 경험을 한 청소년보다 여러 트라우마 유발 사건에 노출된 청소년이 더욱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증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강현아(2013)는 누적 위험 모델(cumulative risk model)에 기반하여 부정적 외상 사건 경험의 수, 빈곤 상황, 거주 환경의 물리적 위험성 여부로 누적된 위험 변수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누적된 위험 정도와 우울, 불안 간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는 누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불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아동기 폭력, 성인기 폭력의 지속적 노출, 즉 생애 전반에 걸친 부정적 생활 경험은 노인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gle et al., 2014). Ogle 등(2014)의 연구는 아동기 폭력, 성인기 신체적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노인에서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대처 효율성을 증가시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김연화, 2010; 김민경, 2012). 자아탄력성이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다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매개변인 혹은 조절변인으로 활용되었다.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이용한 연구들은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이 현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두드러진다. 즉 일상적 생활스트레스(이옥형, 2012)나 가족 학대 등 아동기의 트라우마 경험(김민경, 2012)이 개인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낮아진 자아탄력성은 다시 심리적 안정감(이옥형, 2012), 생활만족도(김민경, 2012)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자아탄력성을 조절변수로 이용한 연구들은 주로 횡단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들에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이 개인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인과성을 횡단 자료에서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다수의 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을 조절변인으로 활용하여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즉 트라우마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임정숙, 윤명숙, 2014).

2. 연구 목적

많은 수의 기존 연구들은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 등 트라우마 경험이 아동, 청소년, 혹은 성인기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트라우마 경험의 중첩성(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 최근 트라우마 경험이 현재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이 가지는 자아탄력성이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연관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개인의 자아탄력성에 따라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대처가 다르고, 정신건강 수준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3장에서는 개인의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연관성을 살펴보고,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이들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트라우마 경험은 개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며, 선행 연구에 따라 성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와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정신건강 수준은 선행 연구에서 주로 활용했던 우울과 자살생각 유무로 정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의 트라우마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횡단 자료에서 인과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조절변인으로 포함하였다.⁸⁾

8)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생활사건 유형별로 경험 유무를 묻고 있으나 그 사건의 발생 시기를 묻고 있지 않아 자아탄력성이 형성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제2절 연구 방법

1. 활용 변수

개인의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간 관계를 살펴보고 개인이 가지는 자아탄력성이 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정신건강

1) 우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은 11문항으로 이루어진 CES-D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of Depression Scales, 이하 CES-D)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0=1주일에 1일 미만, 1=일주일에 1~2일, 2=일주일에 3~4일, 3=일주일에 5일 이상).

이 문항들 중 ‘비교적 잘 지냈다’와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문항을 역으로 코딩하여 11문항의 총합을 계산하였다. 총점은 0에서 33점의 분포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ES-D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8). 이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 수준은 평균 4.16점(표준오차=0.09)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을 평균 점수가 아닌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에 따른 우울 여부를 살펴보고자 Radloff(1977)가 제시한 것처럼 우울 수준의 총점을 20/11로 곱한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를 ‘우울(1)’, 미만인 경우를 ‘우울하지 않음(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2)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최근 1년간 자살생각 경험 여부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최근 1년 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 트라우마 경험

이 연구에서 트라우마 경험은 개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죽음, 유산, 실종 등)’, ‘폭행피해(신체, 정서, 언어, 성폭행 등)’, ‘따돌림’, ‘본인의 신체/정신질환’,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정신 질환’, ‘자연재해’, ‘사고 경험(교통사고, 화재 등)’, ‘(본인 혹은 가족의)이혼, 별거’, ‘재정적 문제’, ‘학업, 업무, 취업에서의 실패나 어려움’, ‘어린 시절 학대’의 11개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의 빈도와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를 포함하였다.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의 빈도는 11개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의 합으로 산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의 빈도는 0개에서 11개에 이르며, 연구 대상인 총 3,839명 중 절반 정도인 2,064명(53.8%)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는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또는 무기력을 느꼈던 사건의 종류’와 ‘사건 경험 시기’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조사가 시작된 시기 1년 전인 2016년 6월~2017년 6월 동안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또는 무기력을 느낀 사건’이 있었던 사람을 ‘1’로 코딩하였다.

다.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

자아탄력성 척도는 ‘나는 내 친구나 동료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등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최소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최대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분포를 갖는다.

이 연구는 14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연구에 포함하였다(점수 분포 최소 1점, 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alpha는 .81로 나타났다.

라.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자가보고 건강수준

연구에서 활용된 일반적 특성은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상태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19세부터 75세까지를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의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 이혼/사별/별거, 미혼의 3개로 범주화하였다. 교육수준 역시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총가구 소득을 활용하여 가구원 수를 제곱근한 균등화 소득 값을 산출한 뒤 사분위로 구분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연구에 포함하였다.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정하기 위해 자가 보고 건강수준이 포함되었다. 자가 보고 건강수준은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단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은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의 5점 척도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자가 보고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과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1’로,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사람을 ‘0’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간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 개인이 가지는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Bivariate level 분석을 포함한 기초 분석 및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가. 기초 분석

기초 분석은 이 연구에 포함된 샘플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정신건강 수준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하였다. 그 이후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주요 변수들인 우울과 자살생각, 트라우마 경험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 포함되는 샘플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더불어 자가 보고 건강수준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

였다. 이 중 이 연구의 종속 변수인 우울 여부와 자살생각 여부의 경우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자가 보고 건강수준과 더불어 주요 독립 변수인 자아탄력성과 트라우마 경험과 연관성 역시 살펴보았다. 상관성 분석의 경우 활용되는 변수에 따라 Chi-square 분석과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분석은 개인 표준화 가중치를 활용하였다.

나.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

Bivariate level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간 연관성과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 여부와 자살생각 경험 여부를 각각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실행 전 분석 모형에 포함하는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상관관계 계수가 .5 이상으로 나타나는 변수 간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모형 1은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변수인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일반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자가 보고 건강수준을 포함하였다. 모형 2는 모형 1에 트라우마 경험을 나타내는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의 빈도와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 변수가 추가되었다. 모형 3은 모형 2에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자아탄력성의 평균값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 모형 4는 트라우마 경험과 자아탄력성이 둘 다 우울 및 자살생각 경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 상호작용항을 넣어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트라우마 경험 중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 변수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상호작용항을 구성하기 위해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 변수는 '-1'과 '1'로 코딩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은 평균값을 활용하여 평균 중심화하였다. 각 변수 투입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간 Chi-square difference test가 실행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표에 제시되어 있다.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는 개인이 가지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자아탄력성과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간 상호작용항은 구성하지 않았다.

제3절 분석 결과

1. 기초 분석

가. 응답자 특성

〈표 3-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가중치 적용된 %)

구분		사례수	비율
총		3,839	100.00
성별	남자	1,924	50.75
	여자	1,915	49.25
연령	19~29세	618	19.00
	30~39세	787	19.05
	40~49세	821	21.67
	50~59세	765	21.17
	60~75세	848	19.11
혼인상태	유배우	2,560	64.68
	별거/이혼/사별	433	10.29
	미혼	846	25.02
교육수준	중졸 이하	728	15.41
	고졸	1,587	43.85
	대졸 이상	1,524	40.74
경제활동 상태	정규직	1,109	28.98
	비정규직	529	13.89
	비임금근로자	880	21.39
	미취업자	1,321	35.75
가구소득 (4분위)	1분위	985	21.97
	2분위	992	25.80
	3분위	925	24.92
	4분위	937	27.30
자가 보고 건강수준	매우 좋음/ 좋음	2,686	71.06
	보통/ 나쁨/ 매우 나쁨	1,153	28.94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최근 1년)	예	203	5.51
	아니요	3,614	94.49
우울 여부	예	555	14.79
	아니요	3,284	85.21
자살생각 여부	예	226	6.34
	아니요	3,613	93.66
		평균	표준오차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평생)		1.10	0.03
자아탄력성		2.67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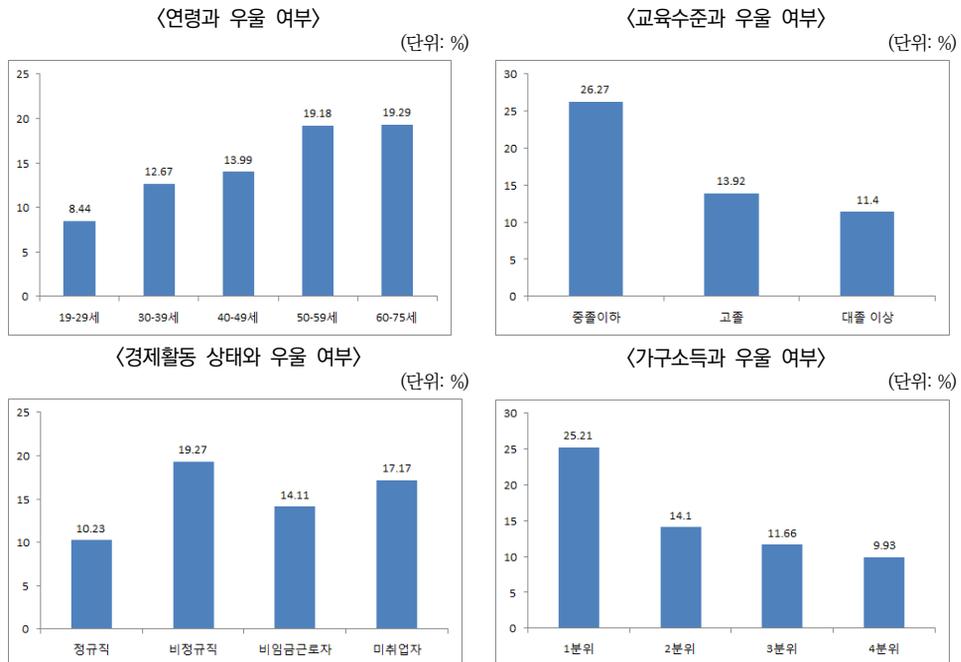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 연구에 투입된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1>과 같다. 분석에 투입된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에 대한 분포는 유형별로 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혼인상태에서 유배우인 응답자가 64.68%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43.85%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미취업자가 35.75%로 가장 많았다. 자가 보고 건강수준을 보면 응답자의 약 71%가 자신의 건강을 ' 좋음' 혹은 '매우 좋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 경험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5.5%가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생 동안 약 1.1개의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우울 여부와 자살생각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14.8%가 우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6.3%가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의 분포를 갖는 자아탄력성 평균은 2.67점으로 나타났다.

나. 우울 여부

[그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여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분석 대상 응답자 중 약 14.8%가 우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트라우마 경험과 자아탄력성에 따라 우울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표 3-2〉 인구사회학적 특성, 트라우마 경험, 자아탄력성과 우울 여부 간 상관성 분석

(단위: 명, 가중치 적용된 %)

구분	우울함		우울하지 않음		Chi-square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총	555	14.79	3,284	85.21		
성별	남자	255	13.55	1,669	86.45	4.88
	여자	300	16.08	1,615	83.92	
연령	19~29세	51	8.44	567	91.56	50.63***
	30~39세	98	12.67	689	87.33	
	40~49세	101	13.99	720	86.01	
	50~59세	140	19.18	625	80.82	
	60~75세	165	19.29	683	80.71	
혼인상태	유배우	284	11.51	2,276	88.49	219.76***
	별거/이혼/사별	160	39.80	273	60.20	
	미혼	111	13.01	735	86.99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2	26.27	546	73.74	77.09***
	고졸	213	13.92	1,374	86.08	
	대졸 이상	160	11.40	1,364	88.60	
경제활동 상태	정규직	109	10.23	1,000	89.77	33.32***
	비정규직	101	19.27	428	80.73	
	비임금근로자	111	14.11	769	85.89	
	미취업자	234	17.17	1,087	82.83	
가구소득 (4분위)	1분위	237	25.21	748	74.79	100.16***
	2분위	129	14.10	863	85.90	
	3분위	105	11.66	820	88.34	
	4분위	84	9.93	853	90.07	
자가 보고 건강수준	매우 좋음/ 좋음	229	9.01	2,457	90.99	249.91***
	보통/나쁨/매우 나쁨	326	28.99	827	71.01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최근 1년)	예	69	32.78	134	67.22	58.57***
	아니요	478	13.59	3,136	86.41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t value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평생)	2.25	0.11	0.90	0.03	11.52***	
자아탄력성	2.50	0.02	2.70	0.01	-9.59***	

주: 1) *p<.05, **p<.01, ***p<.001

2)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특성별 우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row percent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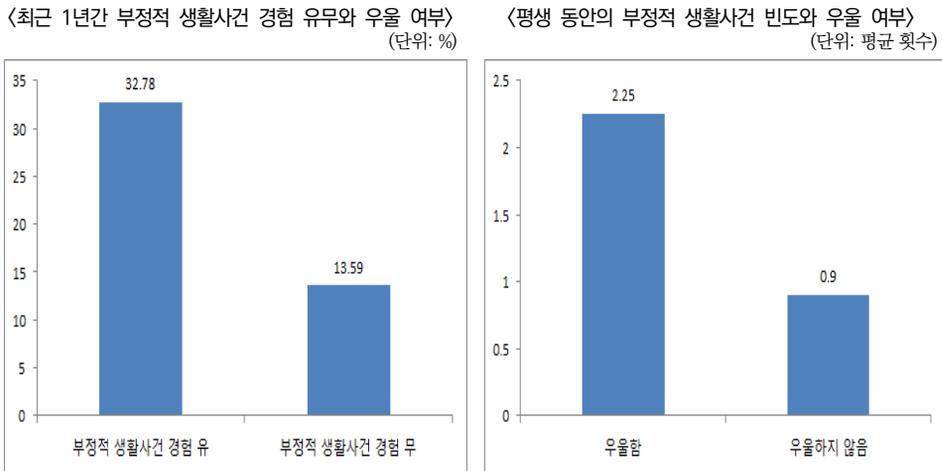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과 우울 여부 간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연구 대상의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chi^2=50.63$, $p<.001$), 별거/이혼/사별 상태일수록($\chi^2=219.76$, $p<.001$),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chi^2=77.09, p<.001$),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일수록($\chi^2=33.32, p<.0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100.16, p<.001$), 자가 보고 건강수준을 ‘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chi^2=249.91, p<.001$)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했을수록($\chi^2=58.57, p<.001$)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가 더 높고($t=11.52, p<.001$), 자아탄력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t=-9.59, p<.001$).

[그림 3-2]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과 우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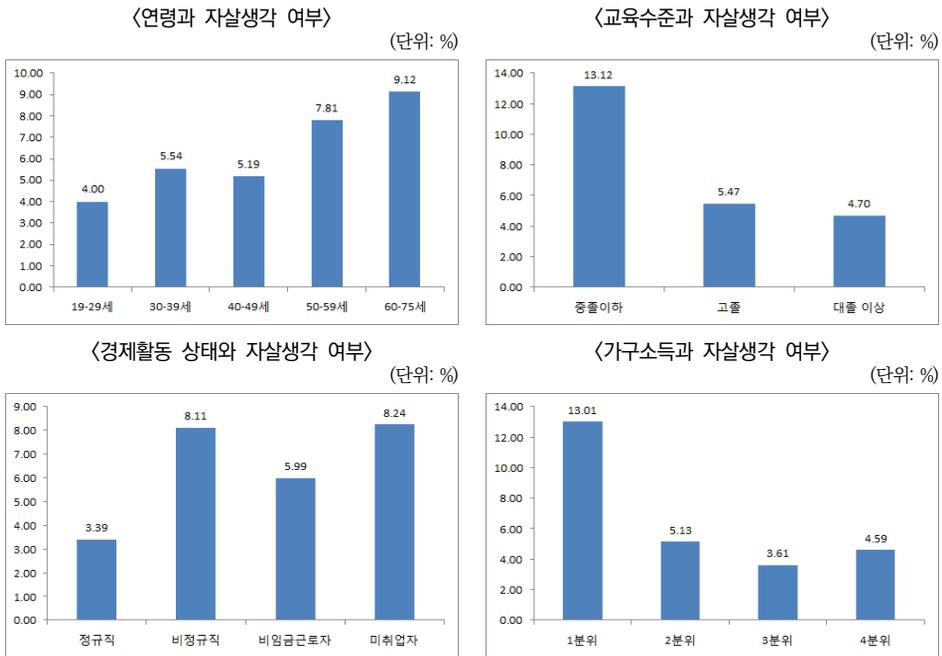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자살생각 여부

분석 대상 응답자 중 약 6.34%가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트라우마 경험과 자아탄력성에 따라 자살생각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과 자살생각 유무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우울 여부와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경험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우울 여부와 유사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chi^2=21.90, p<.001$), 별거/이혼/사별 상태일수록($\chi^2=83.52, p<.00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chi^2=55.03, p<.001$),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일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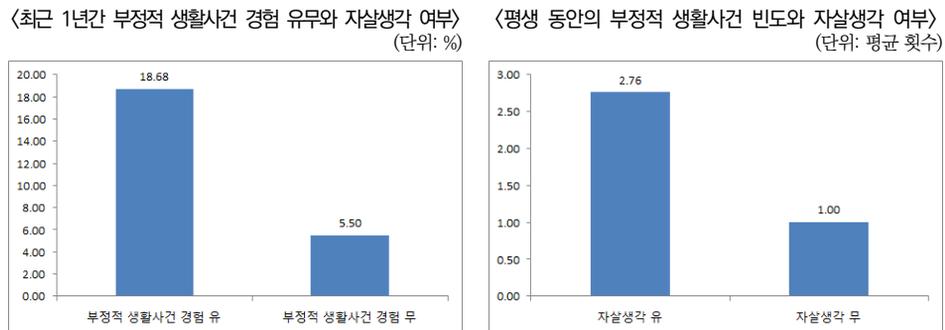
($\chi^2=27.69$, $p<.0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83.11$, $p<.001$), 자가 보고 건강수준을 '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chi^2=189.00$, $p<.001$),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여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4]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과 자살생각 여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리고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했을수록($\chi^2=58.97$, $p<.001$)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가 더 높고($t=9.34$, $p<.001$), 자아탄력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7.00$, $p<.001$).

〈표 3-3〉 인구사회학적 특성, 트라우마 경험, 자아탄력성과 자살생각 여부 간 상관성 분석

(단위: 명, 가중치 적용된 %)

구분		우울함		우울하지 않음		Chi-square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총		226	6.34	3,613	93.66	
성별	남자	102	5.66	1,822	94.34	3.05
	여자	124	7.03	1,791	92.97	
연령	19~29세	21	4.00	597	96.00	21.90**
	30~39세	42	5.54	745	94.46	
	40~49세	35	5.19	786	94.81	
	50~59세	54	7.81	711	92.19	
	60~75세	74	9.12	774	90.88	
혼인상태	유배우	121	4.84	2,439	95.16	83.52***
	별거/이혼/사별	62	16.86	371	83.14	
	미혼	43	5.88	803	94.12	
교육수준	중졸 이하	85	13.12	643	86.88	55.03***
	고졸	81	5.47	1,506	94.53	
	대졸 이상	60	4.70	1,464	95.3	
경제활동 상태	정규직	33	3.39	1,076	96.61	27.69***
	비정규직	39	8.11	490	91.89	
	비임금근로자	46	5.99	834	94.01	
	미취업자	108	8.24	1,213	91.76	
가구소득 (4분위)	1분위	112	13.01	873	86.99	83.11***
	2분위	42	5.13	950	94.87	
	3분위	36	3.61	889	96.39	
	4분위	36	4.59	901	95.41	
자가 보고 건강수준	매우 좋음/ 좋음	69	2.89	2,647	97.11	189.00***
	보통/ 나쁨/ 매우 나쁨	157	14.81	996	85.19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최근 1년)	예	39	18.68	164	81.32	58.97***
	아니요	183	5.50	3,431	94.49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t value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평생)		2.76	0.19	1.00	0.03	9.34***
자아탄력성		2.48	0.03	2.68	0.01	-7.00***

주: 1) * $p<.05$, ** $p<.01$, *** $p<.001$

2)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특성별 우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row percent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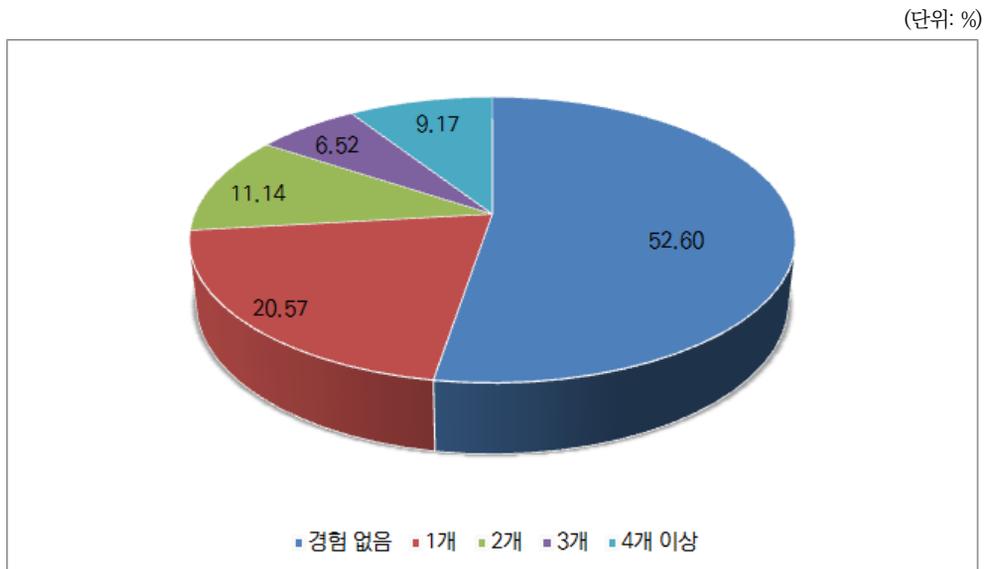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라. 트라우마 경험

1)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특성

이 연구에서 제시한 11개 유형의 부정적 생활사건 중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인 52.6%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1개 유형의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57%, 2개는 11.14%, 3개는 6.52%, 4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7%로 나타났다.

[그림 3-5]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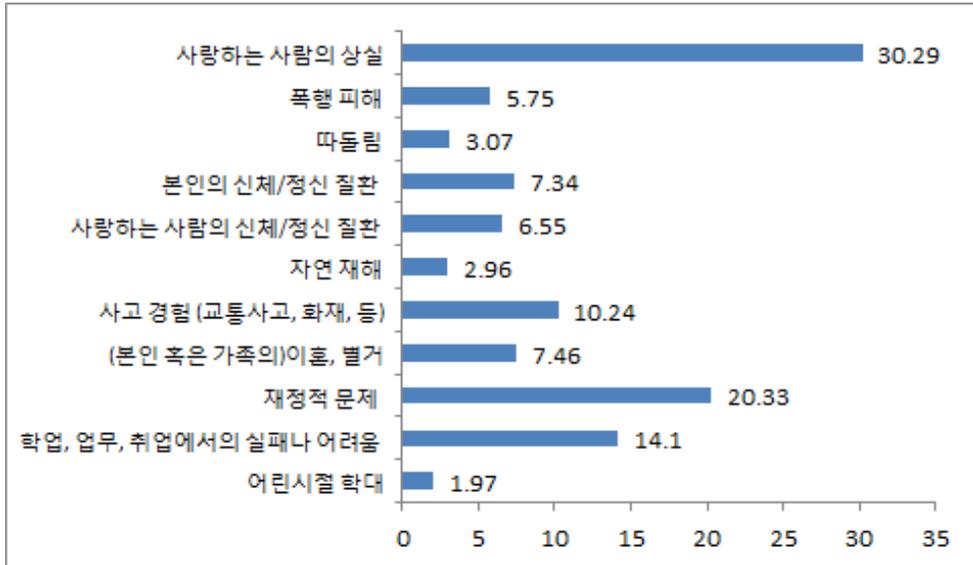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11개 유형별로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률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연구 분석 대상 중 죽음, 유산, 실종 등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0.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재정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0.3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6] 유형별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률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와 의 상관성

분석 대상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가 보고 건강수준, 그리고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와 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는 연령(F value=4.90, $p < .001$), 혼인상태(F value=2.24, $p < .05$), 교육수준(F value=-2.75, $p < .01$), 가구소득(F value=-3.20, $p < .01$), 그리고 자가 보고 건강수준(t value=-12.06,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을 상태인 경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가구소득이 1분위에 해당할수록, 자가보고 건강수준을 '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4〉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가 보고 건강수준과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의 상관성 분석

(단위: 회)

구분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t/F value
		평균	표준오차	
총		1.10	0.03	
성별	남자	1.13	0.05	-0.88
	여자	1.07	0.04	
연령	19~29세	0.77	0.07	4.90***
	30~39세	1.08	0.08	
	40~49세	1.14	0.07	
	50~59세	1.24	0.07	
	60~75세	1.23	0.07	
혼인상태	유배우	0.97	0.04	2.24*
	별거/이혼/사별	2.16	0.12	
	미혼	1.01	0.07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7	0.08	-2.75**
	고졸	1.05	0.05	
	대졸 이상	1.05	0.05	
경제활동 상태	정규직	0.94	0.05	0.72
	비정규직	1.52	0.10	
	비임금근로자	1.07	0.07	
	미취업자	1.09	0.06	
가구소득 (4분위)	1분위	1.39	0.08	-3.20**
	2분위	1.06	0.06	
	3분위	0.91	0.06	
	4분위	1.08	0.06	
자가 보고 건강수준	매우 좋음/ 좋음	0.82	0.03	-12.06***
	보통/나쁨/매우 나쁨	1.77	0.07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와의 상관성

분석 대상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가 보고 건강수준, 그리고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연구 대상의 성별에 따른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chi^2=18.77$, $p<.01$), 혼인상태($\chi^2=22.78$, $p<.01$), 경제활동상태($\chi^2=36.72$, $p<.001$), 자가 보고 건강수준($\chi^2=9.91$, $p<.05$)이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19~29세 일수록, 미혼인 상태일수록, 비정규직이나 미취업자일수록, 자가 보고 건강수준을 '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가 보고 건강수준과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의 상관성 분석

(단위: 명, 가중치 적용된 %)

구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무		Chi-square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총		203	5.51	3614	94.49	
성	남자	100	5.60	1813	94.40	0.06
	여자	103	5.42	1801	94.58	
연령	19~29세	49	8.75	567	91.25	18.77**
	30~39세	37	4.99	747	95.01	
	40~49세	39	4.22	776	95.78	
	50~59세	37	5.09	725	94.91	
	60~75세	41	4.75	799	95.25	
혼인상태	유배우	110	4.26	2440	95.74	22.78**
	별거/이혼/사별	30	6.67	396	93.33	
	미혼	63	8.31	778	91.69	
교육수준	중졸 이하	47	7.27	675	92.73	4.16
	고졸	79	5.09	1500	94.91	
	대졸 이상	77	5.31	1439	94.69	
경제활동 상태	정규직	40	3.16	1063	96.84	36.72***
	비정규직	35	7.11	491	92.89	
	비임금근로자	30	3.53	847	96.47	
	미취업자	98	8.00	1213	92.00	
가구소득 (4분위)	1분위	61	6.23	918	93.77	10.08
	2분위	60	6.23	924	93.77	
	3분위	35	3.48	883	96.52	
	4분위	47	6.11	889	93.89	
자가 보고 건강수준	매우 좋음/ 좋음	122	4.77	2553	95.23	9.91*
	보통/나쁨/매우 나쁨	81	7.34	1061	92.66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특성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를 살펴보기 위해 row percent로 제시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마. 자아탄력성과의 상관성

분석 대상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가 보고 건강수준, 그리고 자아탄력성 간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가 보고 건강수준은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남자일수록(t value=-5.01, $p < .001$), 연령이 낮을수록(F value=-11.31, $p < .001$), 유배우자이거나 미혼인 경우(F value=4.53, $p < .0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F value=11.30, $p < .001$), 정규직인 경우(F value=-5.02, $p < .0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F value=10.99, $p < .001$), 자가 보고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t value=-12.06, $p < .001$) 자아탄

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3-6〉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가 보고 건강수준과 자아탄력성의 상관성 분석

(단위: 점)

구분		자아탄력성		t/F value
		평균	표준오차	
총		2.67	0.01	
성	남자	2.70	0.01	-5.01***
	여자	2.63	0.01	
연령	19~29세	2.77	0.01	-11.31***
	30~39세	2.72	0.01	
	40~49세	2.68	0.01	
	50~59세	2.61	0.02	
	60~75세	2.56	0.01	
혼인상태	유배우	2.66	0.01	4.53***
	별거/이혼/사별	2.52	0.02	
	미혼	2.75	0.01	
교육수준	중졸 이하	2.51	0.02	11.30***
	고졸	2.66	0.01	
	대졸 이상	2.73	0.01	
경제활동상태	정규직	2.71	0.01	-5.02***
	비정규직	2.67	0.02	
	비임금근로자	2.65	0.01	
	미취업자	2.64	0.01	
가구소득(4분위)	1분위	2.54	0.01	10.99***
	2분위	2.67	0.01	
	3분위	2.68	0.01	
	4분위	2.75	0.01	
자가 보고 건강수준	매우 좋음/좋음	2.71	0.01	-12.06***
	보통/나쁨/매우 나쁨	2.56	0.01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

기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 여부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포함한 모형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을 제외한 연령,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자가 보고 건강수준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 트라우마 경험을 추가한 모형인 모형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chi-square difference=130.73, $p < .001$).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OR=2.17, 95% C.I.=1.54-3.06),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OR=1.33, 95% C.I.=1.26-1.40)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3은 모형 2에 자아탄력성이 추가된 모형으로 트라우마 경험과 자아탄력성이 독립 변수로 개별적으로 포함된 모형으로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chi-square difference=47.14 $p < .001$). 모형 3을 보면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통제하고도 개인이 그동안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OR=1.32, 95% C.I.=1.25-1.39),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경험 유무(OR=2.10, 95% C.I.=1.48-2.98), 자아탄력성(OR=0.36, 95% C.I.=0.27-0.49)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동안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이 많을수록,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경험을 했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우울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4는 모형 3에서 트라우마 경험과 자아탄력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경험 유무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이다. 하지만 모형 4는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경험 유무와 트라우마 경험과 자아탄력성이 독립 변수로 개별적으로 포함된 모형 3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chi-square difference=0.69, $p > .05$), 상호작용항 역시 $p < .05$ 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

〈표 3-7〉 우울 여부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우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성	남자(ref=여자)	1.07	0.87	1.32	0.98	0.79	1.22	0.99	1.23
	30-39세	2.36	1.57	3.57	2.08	1.35	3.20	1.87	2.88
	40-49세	2.50	1.63	3.84	2.22	1.41	3.49	2.00	3.15
	50-59세	2.58	1.64	4.06	2.61	1.63	4.18	2.25	3.63
	60-75세	1.22	0.73	2.02	1.32	0.78	2.24	1.20	2.04
혼인상태(ref=유배우)	별거/이혼/사별	3.71	2.84	4.85	2.86	2.16	3.79	2.80	2.11
	미혼	2.10	1.52	2.90	1.91	1.36	2.69	1.92	1.36
교육수준(ref=대졸 이상)	중졸 이하	1.24	0.87	1.77	1.25	0.86	1.81	1.13	0.78
	고졸	0.95	0.74	1.20	1.00	0.78	1.29	0.96	0.75
경제활동 상태(ref=정규직)	비정규직	1.27	0.92	1.77	1.03	0.73	1.45	1.06	0.75
	비임금근로자	1.10	0.81	1.48	1.05	0.77	1.44	1.06	0.77
	미취업자	1.54	1.15	2.05	1.28	0.95	1.73	1.24	0.92
	1분위	1.58	1.16	2.16	1.76	1.28	2.43	1.54	1.11
가구소득(ref=4분위)	2분위	1.17	0.87	1.56	1.26	0.93	1.69	1.16	0.86
	3분위	1.21	0.90	1.63	1.27	0.94	1.73	1.18	0.86
	매우 좋음/ 좋음 (ref=보통/나쁨/매우 나쁨)	0.32	0.26	0.39	0.42	0.33	0.53	0.45	0.35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 (최근 1년)	예(ref=아니오)				2.17	1.54	3.06	2.10	1.48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평생)				1.33	1.26	1.40	1.32	1.25
자이턴력성							0.36	0.27	
최근 1년 부정적 생활경험 유무*자이턴력성								0.82	0.51
Likelihood Ratio(df)		390.55(16)		521.28(18)		568.42(19)		569.11(20)	
△chi-square(df)		-		130.73(2)***		47.14(1)***		0.69(1)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기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생각 여부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포함한 모형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자가 보고 건강수준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 트라우마 경험을 추가한 모형인 모형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chi-square difference=95.87, $p < .001$).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OR=2.45, 95% C.I.=1.60-3.74),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OR=1.36, 95% C.I.=1.27-1.45)가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여부와 유사하게 트라우마 경험과 자아탄력성이 독립 변수로 개별적으로 포함된 모형 3은 모형 2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chi-square difference=20.65, $p < .001$). 모형 3의 결과를 보면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통제하고도 개인이 그동안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OR=1.35, 95% C.I.=1.26-1.45),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경험 유무(OR=2.34, 95% C.I.=1.53-3.60), 자아탄력성(OR=0.39, 95% C.I.=0.26-0.59) 모두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동안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이 많을수록,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경험을 했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 여부와 달리 트라우마 경험과 자아탄력성을 독립 변수로 개별적으로 포함한 모형 3과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경험 유무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 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square difference=5.91, $p < .05$). 또한 최근 1년간의 부정적 생활경험 유무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8〉 자살생각 여부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살생각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성	남자(ref=여자)	1.05	0.78	1.42	0.89	1.21	0.89	1.21	0.87	1.19	
	30-39세	1.68	0.93	3.02	1.33	0.71	2.47	1.16	0.62	2.17	1.19
	40-49세	1.39	0.75	2.58	1.18	0.61	2.27	1.04	0.54	2.00	1.05
	50-59세	1.36	0.71	2.61	1.40	0.71	2.76	1.16	0.58	2.31	1.19
혼인상태(ref=유배우)	60-75세	0.67	0.33	1.38	0.75	0.35	1.60	0.68	0.32	1.44	0.70
	별거/이혼/사별	2.36	1.64	3.39	1.64	1.11	2.41	1.59	1.08	2.35	1.58
	미혼	1.73	1.09	2.74	1.41	0.86	2.31	1.37	0.83	2.26	1.37
	중졸 이하	1.24	0.76	2.04	1.20	0.72	2.00	1.09	0.65	1.84	1.09
교육수준(ref=대졸 이상)	고졸	0.83	0.58	1.19	0.86	0.60	1.25	0.83	0.58	1.21	0.82
	비정규직	1.45	0.88	2.38	1.16	0.70	1.94	1.19	0.71	2.00	1.18
	비임금근로자	1.40	0.88	2.24	1.31	0.81	2.12	1.33	0.82	2.17	1.31
	미취업자	1.93	1.24	3.01	1.52	0.96	2.41	1.45	0.92	2.30	1.45
가구소득(ref=4분위)	1분위	1.49	0.97	2.29	1.70	1.10	2.64	1.49	0.95	2.33	1.46
	2분위	0.83	0.54	1.28	0.89	0.57	1.38	0.83	0.53	1.29	0.83
	3분위	0.78	0.49	1.24	0.79	0.49	1.28	0.74	0.45	1.20	0.73
	매우 좋음/좋은 (ref=보통/나쁨/매우 나쁨)	0.21	0.15	0.29	0.30	0.21	0.42	0.32	0.23	0.45	0.32
자기보고 건강수준 (ref=보통/나쁨/매우 나쁨)	매우 좋음/좋은 (ref=보통/나쁨/매우 나쁨)										
	예(ref=아니오)				2.45	1.60	3.74	2.34	1.53	3.60	2.78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 (최근 1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										
	예(ref=아니오)				1.36	1.27	1.45	1.35	1.26	1.45	1.35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평생)	자이탄력성										
	자이탄력성										
최근 1년 부정적 생활사건 유무*자이탄력성	최근 1년 부정적 생활사건 유무*자이탄력성										
	예(ref=아니오)										
Likelihood Ratio(df)	Likelihood Ratio(df)	237.00(16)			332.87(18)			353.52(19)		359.43(20)	
	Δchi-square(df)	-			95.87(2) ^{****}			20.65(1) ^{****}		5.91(1) [*]	

주: * p<.05, ** p<.01,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4절 소결

트라우마 경험이 개인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 경험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Bonanno(2004)는 지극히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번영(thrive)에 대한 인간의 역량을 저평가했다고 밝히며, 생각보다 사람들은 부정적 생활사건에 ‘잘’ 적응한다고 언급한다.

최근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외상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외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들과 동일하게 이 연구에서도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부정적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누적 위험 모델(Cumulative risk model)이 제시하는 것처럼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우울할 가능성,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들은 외상 경험 발생 이후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최수미, 2015) 외상이 발생한 초기에 위기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Ogle 등(2014)의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기에서 성인기, 전 생애에 걸쳐 누적된 트라우마 경험은 노인의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외상이 발생한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연재해나 세월호 사고와 같이 외상의 경험이 외부로 드러나 초기에 위기 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등 외상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아 초기 위기 개입이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으므로 조기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자연재해나 세월호 사고와 같이 외상의 경험이 외부로 드러나 초기에 위기 개입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초기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3개월, 6개월,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팔로업(follow-up)하는 조치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한 외상의 경험이 외부로 드러나 초기에 위기 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조기 개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기 개입 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즉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상 경험이 어떠한 것들인지, 외상 경험 이후 자신의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에서 받는 상담에 대한 별도의 코드(Z 코드)가 부여되어 정신질환명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비롯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고과, 학생생활기록부 등의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 등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대중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트라우마 경험은 자연재해에서부터 가정 내 폭력까지 다양하므로 관련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생활 경험을 한 대상자들에게 트라우마로 인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경험자들을 모니터링하여 치료나 개입의 영역으로 연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실천가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기초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교육 제공)에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복지요원 역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과 관련한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 및 사례관리를 통한 개입을 하는 주체로 기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능할 수도 있지만, 안산온마음센터와 같이 '트라우마 센터'를 확대 설립하는 것도 방안이다. 현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난심리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지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트라우마에 대한 개입까지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광역 단위로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예방, 치료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 역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개입 프로그램 역시 강화하여야 한다. 자아탄력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기존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주체들에서부터 대학교 내 상담센터를 비롯한 현장의 기존 상담이나 개입 프로그램에서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제3절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4

물질적 박탈이 <<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통합의 영역(英譯)은 ‘social cohesion’ 혹은 ‘social integration’이다. 이때 cohesion은 어원상 ‘함께 살다’를, integration은 ‘안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통합은 “한 사회의 성원들이 응집성과 연대감을 가지고 조화롭게 살아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이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배제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적절하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혼란 상태에 놓여 있거나, 불평등과 빈곤이 만연해 있거나,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이 팽배해 있다면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박탈과 빈곤 상태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에 대해 더 큰 불만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는 빈곤, 박탈과 우울, 사회병리, 범죄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예컨대 범죄학 이론에서 지역사회 통제 정도는 그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부조를 포함한 응집력, 연대, 사회적 자본의 정도,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도 등에 의해 많이 좌우되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제 정도에 따라 일탈의 수준이나 범죄율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되고 있다(Bursik & Grasmick, 1993;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김상원, 2010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물질적 박탈과 정신 건강,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물질적 박탈의 영역별로-기초생활, 주거, 의료, 미래 대비, 절대 박탈의 차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세부적인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자본(지지)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박탈의 대적점에 놓여 있는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1. 물질적 박탈과 정신 건강 간의 관계

박탈은 빈곤과 결핍이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양상, 즉 빈곤의 실현태라 할 수 있다. 또한 물질적 박탈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전형이다. 타운센트는 빈곤을 “자원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일상적인 생활양식, 관습과 활동으로부터의 배제”(Calandrino, 2003)로 정의한다. 저소득이 이러한 빈곤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만족스럽지 못한 지표라는 것이다. 그는 저소득 대신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 지표로 박탈지표를 제시했으며, 이후 많은 학자들이 개발한 박탈지표가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여유진, 김미곤 등, 2007).

정신건강의 한 측면으로서 우울(depression)은 주로 의학적 관점에서 병리적 현상으로 정의된다. 즉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p. 220; 양보람, 2013, p. 80; 이웅, 임란, 2014, p. 99에서 재인용). 하지만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우울은 사회적 환경과 사건, 사고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이웅, 임란 2014, p. 99). 이러한 측면에서 이현정(2012, p. 63)은 의학적으로 우울증을 병리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인이 경험하는 일상적 위험과 불안 요소를 드러내고 개인의 적절한 대응 방식을 하나의 새로운 윤리로 강조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은유”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사회의 지나친 경쟁과 사회적 배제를 개인의 자기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치부하고자 하는 의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심화된 우울의 상태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살의 주요 위험 요인인 만큼 진단의 의도와는 별개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조영주, 2016). 실제로 우울은 다수의 연구에서 주로 자살생각 혹은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설명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이웅, 임란, 2014, p. 100).

기존 연구들에서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소득과 교육수준(강상경, 권태연, 2008; 김동배, 유병선, 이정은, 2012; 성준모, 2013), 직업 및 고용상태

(박세홍, 김창엽, 신영전, 2009), 주거환경(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등을 꼽고 있다. 사회적 지지 또한 우울과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김상원(2010)의 연구 결과 사회적 지원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질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둘 간의 관계에서 빈곤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신학진(2014)의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의 분석 결과 노인의 질병 그 자체만으로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질병으로 인한 역할 상실, 고독, 우울이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산층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빈곤층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작은 것으로 검증됨으로써 우울의 증재를 통해 자살생각을 완화하려는 빈곤 개입을 병행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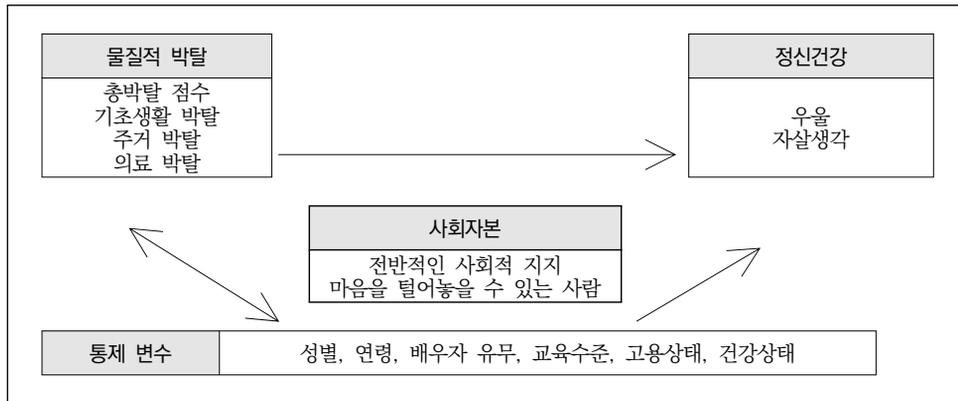
무엇보다 다수의 연구에서 이 연구에서 독립 변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박탈과 다양한 건강 요인들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Deaton, 2001; 김창엽, 김명희, 2003; 허종호 등,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박탈 경험과 건강의 대표 요인 중 하나인 우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이웅, 임란, 2014, p. 100). 한국 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주희 등(2015)의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고, 이 둘의 관계에서 연령은 부정적인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 경험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던 이웅, 임란(2014)의 연구 결과에서도 박탈 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탈의 경험이 우울에서 더 나아가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질적 박탈이 정신 건강,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박탈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 효

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1] 연구 모형



먼저 이 연구에서 종속 변수는 우울과 자살생각 두 가지이다. 우울 척도는 CESD_11의 4점 척도 활용하였다. 1개의 문항에 대해 ‘극히 드물다’를 0점으로 하고 ‘대부분 그랬다’를 3점으로 재코딩하였다, 11개 문항 중 ‘비교적 잘 지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의 두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이렇게 합산된 우울 척도의 최대 점수는 33점이다. 여기에 20/11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60점을 최대 점수로 하는 우울 척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또 다른 종속 변수로 자살생각은 “귀하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예”, “아니요”의 이분 변수이다.

다음은 독립 변수로 박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역별 박탈 항목의 합산 점수를 활용하였다. 원래 조사표상 박탈의 총항목은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변수와 중복의 우려가 있는 문화생활 및 가족생활 관련 문항(4문항)과 교육받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해당하는 교육 관련 문항(5문항)은 제외하고 22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22개 문항에 대해 단순합산 방식과 가중합산 방식을 혼합하여 박탈 점수를 산정하였다. 즉 기초생활, 주택 및 주거 환경, 의료 및 건강, 미래 대비 박탈 항목에는 1점(16점)을,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절대적 박탈 항목에는 2점(12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인별로 박탈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합산된 개인의 박탈 점수를 최대 박탈 점수(28점)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표준화하였다.

〈표 4-1〉 영역별 박탈 항목

우리 가정에서는,		
상대적 박탈	기초 생활 (식생활 의생활)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 먹는다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 먹는다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 먹는다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5) 음식점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주택 및 주거 환경	(6)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1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의료 및 건강	(11)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고(받을 수) 있다	
	(12)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13)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미래 대비	(18)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19)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20) 사회보험 외의 사적 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적 박탈	경제적 어려움	(25)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26)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27)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28)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29)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30)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또 다른 독립 변수이자 조절 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와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두 개 문항 합산 점수를 활용하였다. 각각은 0에서 10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가지며, 이 두 문항의 합산 점수를 최고 점수(20점)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성(남/여), 연령(35세 미만/35~64세/65세 이상), 배우자 유무(있음/없음), 교육수준(중졸 이하/고졸/대학 이상), 고용상태(정규직/비정규직/비임금근로/실업/비경활),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정도(그렇지 않음/어느 정도 그러함/매우 그러함)를 통제한 상태에서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울 척도는 회귀분석, 자살생각은 로짓 분석으로 분석한다. 사회적 지지와 박탈이 우울 또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추가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박탈과 사회적 지지 변수는 유의미하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으면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사회적 지지 변수는 유의하지 않으나 상호작용항만 유의한 경우 그 변수는 순수조절 변수(pure moderator)가 된다. 사회적 지지 변수와 박탈의 상호작용 변수 모두 유의미한 경우 사회적 조절 변수는 유사조절 변수(quasi moderator)가 된다. 상호작용항을 계산할 때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심화 점수(centered scores) 방법을 사용하였다(전지혜, 2010, pp. 62-63).

이어서 연령에 따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연령을 청년(35세 미만), 중장년(35~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을 하였다. 물론 연령별 영향 요인의 차이와 유의성을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과 같은 좀 더 엄밀한 연구 모형을 설정해서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간명성(principle of parsimony)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는 데 좀 더 역점을 두고자 하였기 때문에 연령별로 구분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총 3,839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제3절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 기초 분석 결과

먼저 주요 변수들에 대한 연령별 기본 통계치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34세 미만의 청년이 28.3%, 35~64세 중장년이 60%, 65세 이상 노인이 11.7%를 차지하고 있다.⁹⁾

우울 점수는 평균 7.6점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우울 성향이 다소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역시 연령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9%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자살 수준을 반영하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¹⁰⁾

〈표 4-2〉 주요 변수에 대한 연령별 기술분석 결과

구분	19~34세	35~64세	65세 이상	전체
연령집단 분포(%)	28.3	60.0	11.7	100.0
CESD11(최대60점)	6.4	7.8	9.3	7.6
자살생각(한적 있다, %)	4.4	6.4	10.9	6.3
총박탈(최대100점)	3.5	4.3	8.6	4.6
기초생활 박탈(최대100점)	2.7	3.7	6.6	3.8
주거 박탈(최대100점)	1.6	2.5	3.3	2.3
의료 박탈(최대100점)	2.0	3.0	4.1	2.9
미래 박탈(최대100점)	15.1	14.3	39.3	17.4
사회적 지지(최대100점)	63.7	58.4	53.4	59.3
성별(여성, %)	49.3	46.8	50.4	49.3
평균연령(세)	26.7	49.0	69.5	45.1
배우자 유무(유배우 %)	28.0	81.5	67.1	64.7
교육수준(%)				
중졸 이하	0.6	12.7	65.0	15.4
고졸	47.2	46.0	24.9	43.9
대학 이상	52.3	41.3	10.1	40.7
고용상태(%)				
정규직근로	34.1	31.6	3.1	29.0
비정규직근로	13.4	14.4	12.4	13.9
비임금근로	5.6	28.4	23.9	21.4
실업	5.8	2.2	3.1	3.3
비경활	41.3	23.4	57.6	32.4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그렇지 않다	97.3	88.3	68.9	88.6
어느 정도 그러하다	2.1	9.4	24.2	9.1
매우 그러하다	0.5	2.4	7.0	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총박탈 점수는 역시 연령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인의 박탈 점수(8.6점)는 청년의 평균 박탈 점수(3.5점)의 약 2.5배에 이른다. 박탈 영역별로는 미래 대비 박탈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7.4점), 이어서 기초생활 박탈(3.8점), 의료 박

9) 이 분석의 결과는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다.

10)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9.1명으로 OECD 평균의 2.4배를 넘는다(OECD, 2015).

탈(2.9점), 주거 박탈(2.3점) 순이었다. 모든 영역의 박탈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박탈 수준이 청장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3〉 연령별·박탈항목별 박탈의 비율

(단위: %)

분류	구분	항목	전체	연령별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상대적 박탈	기초생활	1주일 1회 이상 육류 섭취	5.95	2.54	5.71	15.46
		1주일 1회 이상 과일 섭취	5.21	3.62	4.86	10.80
		기호식품 구입	2.29	0.40	2.03	8.17
		동절기 의류 2벌 이상	3.30	1.16	3.35	8.21
		계절 정장 보유	7.48	6.31	7.04	12.53
	주택 및 주거환경	적절한 난방	1.46	0.85	1.51	2.70
		적절한 방수	3.62	2.93	4.20	2.31
		10분 내 대중교통	2.65	1.30	3.05	3.81
		옥탑방이나 (반)지하 아닌 자상 거주	3.45	2.92	3.70	3.40
	의료 및 건강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 시설	1.10	0.29	1.38	1.67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 진료	5.75	5.62	6.08	4.36
		치과 치료	3.18	1.52	3.21	7.05
	미래 대비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구매	1.08	0.56	1.20	1.75
		비일상적 지출에 대비(저축)	19.54	14.13	17.75	41.74
		노후 대비 연금이나 저축	20.03	19.71	16.18	40.45
절대적 박탈	기초생활	사보험 가입	12.73	11.39	8.89	35.63
		결식, 절식	3.29	3.51	2.95	4.49
		공과금 미납	3.57	3.14	3.86	3.09
		전기, 전화,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	1.66	1.21	1.98	1.13
	주택 및 주거환경	추운 겨울 난방 불가	3.07	1.78	2.89	7.11
	주택 및 주거환경	집세 체납으로 인한 이사	1.22	1.14	1.31	0.96
	의료 및 건강	질병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감	2.15	1.07	2.35	3.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좀 더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개별 박탈 항목에서 박탈이 발생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식생활, 의생활과 같은 기초생계에서의 박탈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평균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의 15.5%가 1주일에 1회 이상 육류나 생선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10.8%는 1주일에 1번 이상 과일을 섭취하지 못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노년기 빈곤이 영양 불균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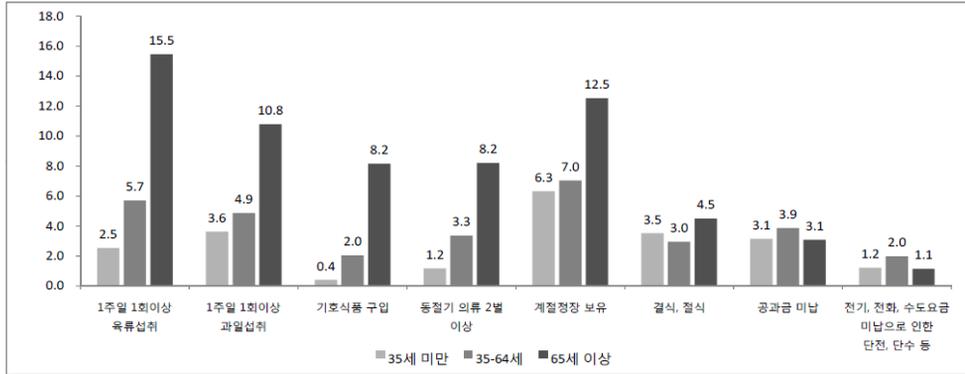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공과금 미납이나 전기, 전화,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경험을 한 사람의 비율은 35~64세의 장년층이 각각 3.86%와 1.98%로, 노년층에 비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의 경우 만성적 소득의 빈곤을 경험하면서 소비의 수준을 소득수준에 맞추어 최대한 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자녀 양육, 주거비 지불과 같이 필수적 지출이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가계 적자가 공과금 미납, 단전, 단수와 같은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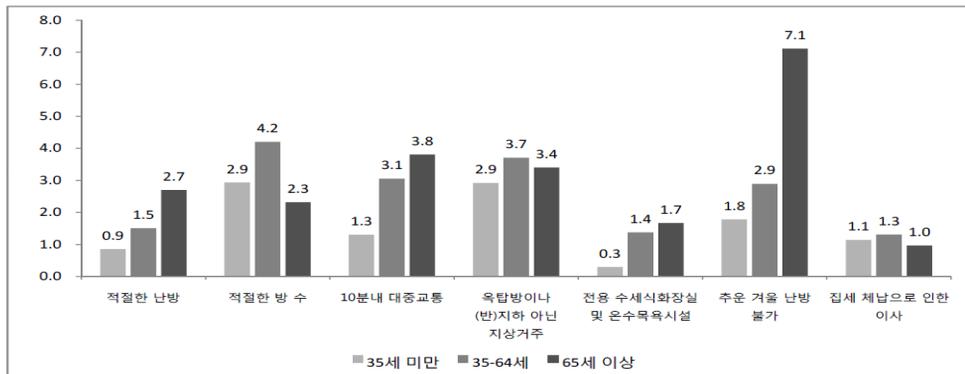
다음으로 주거 박탈 경험률의 경우 노년층의 에너지 박탈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추운 겨울에도 돈이 없어 난방을 하지 못하고 지낸 경험을 한 노인의 비율이 7.1%로 전체 평균의 2.3배에 이른다. 대중교통 접근성, 주거의 질(수세식 화장실과 목욕 시설 등) 등의 항목에서도 노인의 박탈 경험률이 청장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적절한 방 수의 확보,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주거 위치, 집세 체납으로 인한 이사 등의 박탈 경험은 중장년층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우 소득은 빈곤하지만 생애주기상의 자산 축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의 안정성은 조금 더 높은 현실(income-poor, asset-rich)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장년층의 경우 자녀의 성장기인 경우가 많아 적절한 방 수 확보가 어렵고, 교육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도 많이 드는 시기여서 상대적으로 집세 체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적 박탈도 전반적으로 노인에게서 출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 진료의 경우 청년과 중장년층에서 약간 더 높았다. 하지만 노인과 청장년층의 만성질환의 빈도와 강도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미래 대비를 위한 저축, 연금이나 사보험 가입의 경우 노인의 박탈률이 40% 내외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만성적으로 높은 빈곤율로 인한 지출 여력의 부재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미래 대비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활상의 각종 위험에 대비한 공적 보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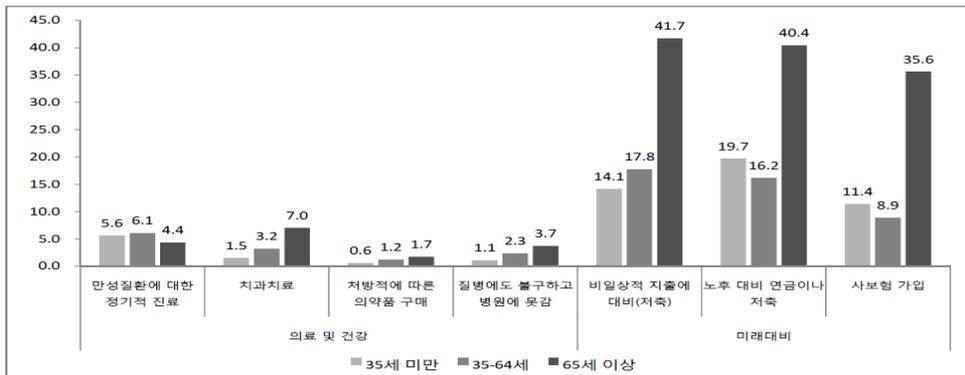
[그림 4-2] 연령별 기초생활 박탈 비율



[그림 4-3] 연령별 주거 박탈 비율



[그림 4-4] 연령별 의료 박탈 및 미래 대비 박탈 비율



사회적 지지의 경우 평균 59.3점으로 중간치를 조금 넘는 수준을 보였다. 35세 미만 청년은 사회적 지지 점수가 63.7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노인은 53.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노인의 경우 박탈 수준은 높고 사회적 지지 수준은 낮아 전반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하게 한다. 사회적 지지에 포함된 두 항목을 분리해서 각각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항목의 평균 점수 수준과 양상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둘 간의 상관관계도 0.52로 매우 높았다. 즉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로 평소에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며, 그 역은 반대일 가능성이 높았다.

〈표 4-4〉 연령별 평균 사회적 지지 점수와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항목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F값 (prob)F	Corr.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5.94	6.33	5.87	5.36	47.1 (0.00)	0.52
평소에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92	6.40	5.81	5.31	56.3 (0.00)	

이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총박탈 점수와 우울(0.39), 자살(0.33) 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박탈뿐만 아니라 영역별 박탈과 종속 변수들 간에는 0.2 내외의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재산과 우울,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직접적인 결핍의 상태를 묘사하는 변수가 잠재적 자원 변수보다 더 유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우울, 자살생각 간에도 각각 0.33, 0.26의 상당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 변수인 우울과 자살생각 간에는 0.4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데, 이는 기존 이론이나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병리적 수준의 지속적 우울이 자살생각이나 시도의 중요 위험 요인일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5〉 박탈과 정신건강 점수 간의 상관관계

	① 기초 박탈	② 주거 박탈	③ 의료 박탈	④ 미래 박탈	⑨ 총박탈	⑩ 소득	⑪ 재산	⑫ 사회적 지지	⑫ 우울	⑬ 자살 생각
①기초 박탈	1.00									
②주거 박탈	0.61	1.00								
③의료 박탈	0.57	0.51	1.00							
④미래 박탈	0.38	0.35	0.32	1.00						
⑤총박탈	0.87	0.78	0.71	0.69	1.00					
⑥소득	-0.20	-0.14	-0.11	-0.35	-0.28	1.00				
⑦재산	-0.14	-0.13	-0.10	-0.23	-0.20	0.40	1.00			
⑧사회적 지지	-0.28	-0.22	-0.18	-0.32	-0.34	0.25	0.18	1.00		
⑨우울	0.34	0.29	0.25	0.29	0.39	-0.17	-0.11	-0.33	1.00	
⑩자살생각	0.29	0.30	0.19	0.22	0.33	-0.10	-0.08	-0.26	0.43	1.00

2.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 물질적 박탈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먼저 아래 표는 물질적 박탈이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둘 간의 사회적 지지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 변수만을 투입한 회귀모형에 박탈 점수, 사회적 지지 점수,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항 등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한 결과를 보여 준다.

독립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 연령, 교육수준, 근로상태, 건강 문제 모두 우울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저학력일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우울 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경험할수록 우울 수준 역시 높았다.

〈표 4-6〉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전체 대상)

	m1 b/se	m2 b/se	m3 b/se	m4 b/se
성별(여자=0)	-0.574* (0.276)	-0.820** (0.264)	-1.047*** (0.260)	-1.049*** (0.260)
연령집단(35세 미만=0)	2.458*** (0.356)	1.913*** (0.342)	1.382*** (0.337)	1.377*** (0.338)
35~64세				
64세 이상	1.146* (0.553)	0.535 (0.530)	0.071 (0.520)	0.067 (0.520)
배우자 유무(없음=0)	-3.062*** (0.317)	-2.195*** (0.307)	-1.931*** (0.301)	-1.928*** (0.301)
교육수준(중학 이하)	-1.754*** (0.443)	-1.016* (0.425)	-0.745 (0.417)	-0.744 (0.417)
고졸				
대학 이상	-1.447** (0.470)	-0.764 (0.451)	-0.251 (0.444)	-0.258 (0.445)
비정규직	1.370** (0.436)	0.626 (0.419)	0.318 (0.411)	0.318 (0.411)
비임금	0.337 (0.380)	0.133 (0.364)	0.074 (0.356)	0.079 (0.357)
근로상태				
실업	4.772*** (0.753)	3.403*** (0.724)	2.916*** (0.711)	2.906*** (0.711)
비경활	0.711 (0.371)	0.033 (0.357)	-0.007 (0.349)	-0.003 (0.350)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그렇지 않음=0)	5.620*** (0.469)	3.904*** (0.458)	3.457*** (0.450)	3.451*** (0.450)
어느 정도				
그려함				
매우 그려함	10.612*** (0.855)	8.267*** (0.827)	7.555*** (0.812)	7.532*** (0.814)
총박탈 점수		0.266*** (0.014)	0.221*** (0.014)	0.217*** (0.017)
사회적 지지			-0.098*** (0.008)	-0.097*** (0.008)
상호작용항				0.000 (0.001)
상수	8.167*** (0.579)	6.927*** (0.558)	13.070*** (0.731)	13.049*** (0.733)
N	3,839	3,839	3,839	3,839
r2	0.140	0.213	0.245	0.245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독립 변수인 박탈점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은 이전 모형에 비해 14%→21.3%로 설명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즉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박탈의 수준은 우울 수준을 설명하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이다. 이전 모형에서 유의미하던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회귀계수가 낮아졌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 이상 정규직 근로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은 주로 이들의 저소득으로 인한 높은 박탈 수준에 의해 설명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성별의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는 박탈 수준을 통제했을 때 우울 수준의 성별 격차가 더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은 남녀 간 우울 성향의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지 변수를 추가로 투입할 때 모형의 설명력은 3.2% 정도 추가로 향상된다. 사회적 지지 역시 우울 수준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탈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는 박탈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지는 못함을 의미한다. 즉 박탈의 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독립적으로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다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미약하게나마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다. 즉 마지막 칼럼의 상호작용 효과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서 상호작용항은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킨다는 의미, 즉 노년기에는 박탈의 수준이 다소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강하면 우울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사적인 결과이다.

〈표 4-7〉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노인 대상)

	m1 b/se	m2 b/se	m3 b/se	m4 b/se
성별(여자=0)	0.808 (0.768)	0.161 (0.720)	-0.015 (0.722)	-0.156 (0.722)
배우자 유무(없음=0)	-6.295*** (0.780)	-4.275*** (0.760)	-3.966*** (0.771)	-3.843*** (0.770)
교육수준(중학 이하)	-1.701* (0.858)	-0.722 (0.807)	-0.575 (0.808)	-0.826 (0.813)
고졸	-1.990 (1.198)	-1.663 (1.117)	-1.374 (1.122)	-1.772 (1.132)
대학 이상	-0.472 (2.161)	-1.189 (2.016)	-1.558 (2.017)	-1.261 (2.014)
비정규직	-1.395 (2.065)	-2.442 (1.929)	-2.735 (1.927)	-2.692 (1.920)
비임금	0.521 (2.744)	-2.023 (2.573)	-2.505 (2.575)	-2.710 (2.567)
근로상태	-0.078 (2.005)	-1.577 (1.876)	-1.986 (1.880)	-1.804 (1.875)
실업	5.196*** (0.828)	4.346*** (0.778)	4.229*** (0.777)	4.314*** (0.775)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그렇지 않음=0)	10.409*** (1.376)	8.266*** (1.304)	8.163*** (1.300)	8.289*** (1.297)
어느 정도 그려함				
매우 그려함				
총박탈 점수		0.263*** (0.029)	0.239*** (0.031)	0.178*** (0.041)
사회적 지지			-0.046* (0.021)	-0.029 (0.023)
상호작용항				-0.003* (0.001)
상수	12.169*** (2.040)	10.239*** (1.913)	13.091*** (2.331)	12.263*** (2.352)
N	563	563	563	563
r2	0.281	0.376	0.382	0.387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우울과 자살생각은 상당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두 변수의 수준이나 관련 요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에서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여 로짓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8〉 박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전체 대상)

	m1 b/se	m2 b/se	m3 b/se	m4 b/se
성별(여자=0)	-0.134 (0.180)	-0.285 (0.188)	-0.427* (0.187)	-0.421* (0.186)
연령집단(35세 미만=0)				
35-64세	0.536* (0.255)	0.235 (0.252)	-0.032 (0.253)	-0.027 (0.252)
64세 이상	0.350 (0.347)	0.091 (0.316)	-0.165 (0.322)	-0.150 (0.318)
배우자 유무(없음=0)	-0.769*** (0.192)	-0.454* (0.194)	-0.314 (0.198)	-0.318 (0.194)
교육수준(중학 이하)				
고졸	-0.452* (0.230)	-0.267 (0.240)	-0.142 (0.256)	-0.140 (0.251)
대학 이상	-0.343 (0.277)	-0.208 (0.262)	-0.054 (0.276)	-0.041 (0.271)
근로상태				
비정규직	0.523 (0.308)	0.253 (0.316)	0.057 (0.333)	0.052 (0.328)
비임금	0.355 (0.300)	0.322 (0.286)	0.316 (0.287)	0.300 (0.285)
실업	1.029** (0.361)	0.528 (0.415)	0.241 (0.430)	0.258 (0.421)
비경험	0.441 (0.267)	0.139 (0.276)	0.095 (0.282)	0.072 (0.280)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그렇지 않음=0)				
어느 정도	1.294*** (0.204)	0.904*** (0.212)	0.759*** (0.228)	0.754*** (0.223)
매우 그렇함	1.652*** (0.284)	1.174** (0.364)	0.880* (0.348)	0.886* (0.346)
총박탈 점수		0.060*** (0.006)	0.046*** (0.007)	0.054*** (0.009)
사회적 지지			-0.037*** (0.007)	-0.041*** (0.007)
상호작용항				0.000 0.000
상수	-2.902*** (0.380)	-3.139*** (0.375)	-0.888 (0.535)	-0.729 (0.528)
N	3,839	3,839	3,839	3,839
chi2	144	207	239	244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먼저 통제 변수만을 투입한 첫 번째 모형에서 연령, 배우자 유무, 실업, 건강 문제가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중장년, 배우자가 없는 사람, 저학력자,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청년, 배우자

가 있는 사람, 고졸자, 건강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에 비해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총박탈 점수를 추가로 투입할 경우 건강 문제를 제외하고 앞서 유의미했던 대부분의 통제 변수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거나 유의성이 약화되었다. 즉 중장년과 실업자의 자살생각은 현재의 박탈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수준은 자살생각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우울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사회적 지지 수준은 그 자체로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는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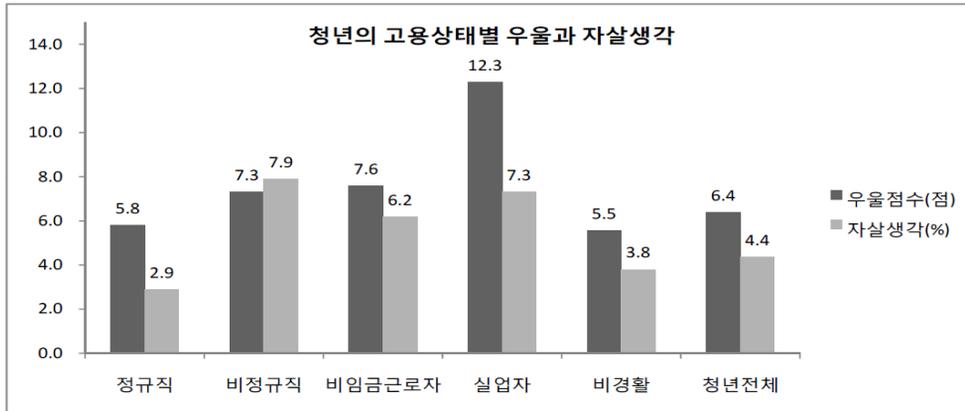
나. 연령별, 영역별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아래 표는 연령별로 영역별 박탈의 수준이 우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의료 박탈을 제외한 기초생활 박탈, 주거 박탈, 미래 대비 박탈의 수준은 우울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별로 분리해서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다. 먼저 3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 박탈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우울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 발견된다. 하지만 나머지 영역의 박탈은 우울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청년기에는 성별 우울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배우자가 있고 없음 역시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년기 우울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업이었다. 즉 실업자일수록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자의 우울 점수는 12.3점으로 우울증의 위험군 분류 기준인 9점을 상회하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 역시 전체 정규직(2.9%)보다 2.5배 이상 높은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상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기 실업 상태가 청년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결과로서 주목된다. 비정규직 청년의 경우 우울도는 정규직이나 청년 전체에 비해 크게 높지 않지만, 자살생각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의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미래 전망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보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가 부분이다.

[그림 4-5] 청년의 고용상태별 우울 점수와 자살생각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중장년기 우울은 기초생활 박탈, 주거 박탈, 미래 대비 박탈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문제 또한 우울 수준을 높이는 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적 박탈과 우울 수준과는 통계적 관련성이 낮았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소득과 소비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인 동시에 노년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다차원적인 박탈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안 정성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우울에는 기초생활 박탈, 주거 박탈과 의료 박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소득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이 쇠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에 의료적 박탈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점이 시사적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우울 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스스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상담할 만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다소간이나마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 수준이 낮은 것도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표 4-9〉 영역별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전체 b/se	35세 미만 b/se	35-64세 b/se	65세 이상 b/se
성별(여자=0)	-1.031*** (0.260)	-0.462 (0.449)	-0.971** (0.372)	0.086 (0.722)
연령집단(35세 미만=0)	35-64세 1.387*** (0.338)			
	64세 이상 0.099 (0.522)			
배우자 유무(없음=0)	-1.957*** (0.302)	-0.710 (0.524)	-2.431*** (0.437)	-3.813*** (0.772)
교육수준(중학 이하)	고졸 -0.785 (0.418)	1.466 (2.896)	-0.294 (0.518)	-0.695 (0.810)
	대학 이상 -0.298 (0.446)	2.969 (2.881)	-0.604 (0.549)	-1.643 (1.124)
	비정규직 0.335 (0.411)	0.941 (0.725)	0.023 (0.541)	-1.438 (2.013)
	비임금 0.083 (0.357)	1.111 (1.000)	0.011 (0.421)	-2.592 (1.921)
근로상태	실업 2.902*** (0.713)	5.160*** (1.004)	1.090 (1.141)	-2.036 (2.580)
	비경활 0.041 (0.352)	-0.054 (0.566)	0.568 (0.507)	-1.653 (1.879)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그렇지 않음=0)	어느 정도 3.459*** (0.451)	8.404*** (1.567)	2.301*** (0.578)	4.378*** (0.778)
	매우 그러함 7.531*** (0.815)	-2.283 (2.942)	7.580*** (1.084)	8.208*** (1.312)
기초생활 박탈	0.104*** (0.015)	0.123*** (0.037)	0.101*** (0.020)	0.082** (0.030)
주거 박탈	0.081*** (0.020)	-0.012 (0.048)	0.087*** (0.026)	0.140** (0.044)
의료 박탈	0.020 (0.015)	0.062 (0.033)	-0.012 (0.020)	0.070* (0.028)
미래 대비 박탈	0.020*** (0.005)	-0.005 (0.008)	0.040*** (0.007)	0.007 (0.009)
사회적 지지	-0.098*** (0.008)	-0.106*** (0.014)	-0.094*** (0.010)	-0.047* (0.021)
상수	13.143*** (0.739)	10.298*** (3.017)	14.460*** (0.938)	13.225*** (2.333)
N	3,839	1,007	2,269	563
r2	0.246	0.186	0.255	0.389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4-10〉 영역별 박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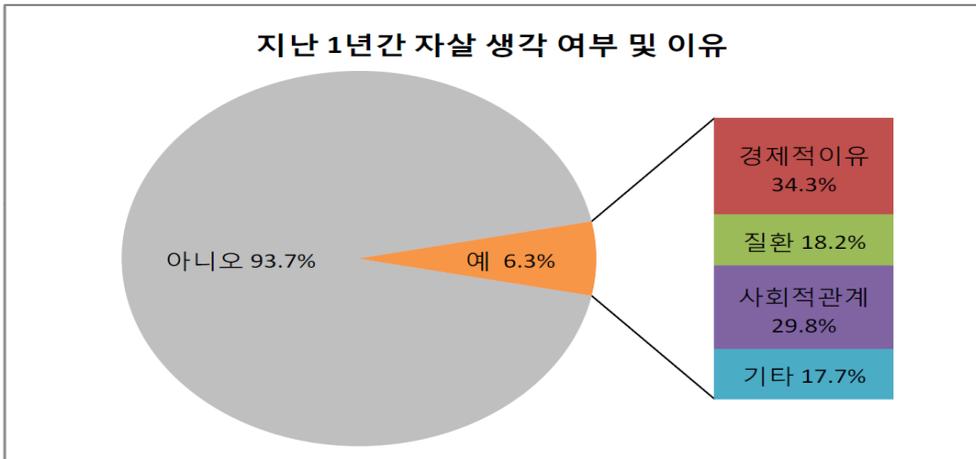
	전체 b/se	35세 미만 b/se	35-64세 b/se	65세 이상 b/se
성별(여자=0)	-0.391* (0.189)	-1.116** (0.393)	-0.336 (0.261)	0.390 (0.415)
연령집단(35세 미만=0)				
35~64세	-0.030 (0.259)			
64세 이상	-0.163 (0.326)			
배우자 유무(없음=0)	-0.345 (0.199)	-0.535 (0.542)	-0.488 (0.257)	-0.196 (0.485)
교육수준(중학 이하)				
고졸	-0.207 (0.258)	-0.829 (1.044)	-0.194 (0.310)	-0.206 (0.524)
대학 이상	-0.118 (0.278)	-0.402 (0.975)	-0.237 (0.329)	-1.151 (0.733)
근로상태				
비정규직	0.090 (0.337)	0.683 (0.712)	0.074 (0.386)	-1.799 (1.117)
비임금	0.321 (0.287)	0.643 (0.731)	0.217 (0.333)	-0.096 (0.849)
실업	0.246 (0.442)	0.236 (0.757)	0.363 (0.630)	-1.346 (1.100)
비경활	0.179 (0.287)	0.221 (0.638)	0.195 (0.367)	-0.384 (0.785)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그렇지 않음=0)				
어느 정도	0.796*** (0.230)	0.584 (1.110)	0.668* (0.307)	1.262** (0.427)
매우 그럭함	0.965** (0.347)	0.000 (.)	1.156* (0.477)	0.740 (0.596)
기초생활 박탈	0.017 (0.009)	0.029 (0.022)	0.015 (0.012)	0.018 (0.014)
주거 박탈	0.035*** (0.010)	0.017 (0.027)	0.044*** (0.013)	0.026 (0.015)
의료 박탈	-0.003 (0.007)	-0.017 (0.020)	-0.008 (0.010)	0.015 (0.011)
미래 대비 박탈	0.002 (0.003)	0.003 (0.006)	0.002 (0.004)	0.000 (0.005)
사회적 지지	-0.038*** (0.007)	-0.055** (0.020)	-0.027** (0.009)	-0.063*** (0.013)
상수	-0.777 (0.548)	0.786 (1.468)	-1.200 (0.620)	0.198 (0.995)
N	3,839	999	2,269	563
r2	236	47	139	81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던 변수 중 배우자의 유무, 실업 상태 등은 자살생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우울도도 높을 뿐 아니라, 자살생각을 할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 문제는 청년의 자살생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된다. 특히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개인 특성 변수로 나타난다.

박탈의 영역별로 볼 때,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기초생활 박탈은 자살생각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 주거 박탈은 특히 중장년기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 연령층에서 자살생각을 줄이는 데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림 4-6]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여부 및 자살생각의 이유



<표 4-11> 연령대별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비율 및 자살생각 이유

구분	19~34세	35~64세	65세 이상	전체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음	4.4	6.4	10.9	6.3	
이유	경제적 이유 때문에	23.8	39.1	30.1	34.3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6.9	13.4	43.4	18.2
	가족 갈등 및 주변과의 단절 등 사회적 관계 때문에	35.8	34.5	9.8	29.8
	기타	33.4	13.0	16.6	17.7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지난 1년간 죽고 싶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사람(조사 대상의 6.34%)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이유(34.3%), 가족 관계 단절이나 갈등 등 관계의 문제(29.8%), 건강상의 문제(18.2%)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연령별로 볼 때, 청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상의 문제(33.4%)가 자살생각을 한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장년의 경우 경제적 문제(39.1%)가, 노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43.4%)가 자살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즉 생애주기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이나 정책적 대응 역시 이러한 연령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이 연구에서는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지지가 정신 건강,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분석의 결과 첫째, 기초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10.9%가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43.4%),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30.1%), 사회적 관계(9.8%) 순이었다. 흔히 생애주기상 노년기는 4고[苦(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의 경험에 쉽게 노출된다고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인에게 드는 소득 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비용이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각종 사회서비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향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사회복지의 수준이 현재와 같이 지체될 경우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 수준도 더욱 낮아질 우려가 있다. 소득보장, 건강보장, 서비스보장을 아우르는 생활보장의 차원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복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지지는 모두 정신건강, 즉 우울과 자살생각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신건강에 미치는 물질적 박탈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다만, 노인의 경우 물질적 박탈이 심각하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강한 경우 우울감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지지 이외에도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물질적 박탈 상태, 정서적 지지를 비롯한 사회자본의 부재,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신체적 제약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혹은 포괄적으로 완화시키거나 경감시킴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극빈, 과도한 부채, 질병 등으로 인한 신변 비관이 (동반)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분노범죄 등의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 사건·사고가 언론을 통해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또한 빈곤 속에서 홀로 살다가 고독사한 후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핵가족을 넘어 1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모래알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질병에 대한 보장률을 높이며, 돌봄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기존 가족 역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줄 때 개인의 정신건강 나아가 사회의 통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 연령에 따라 개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영향도가 상당히 달랐다. 청년의 경우 특히 실업의 상태가 우울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실업이 12.3%, 54만 8,000명¹¹⁾까지 치솟은 현실에서 청년의 실업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시사적이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희망하는 직장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그라들면서 우울감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박탈의 영역 중 청년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초생활의 박탈이었다. 즉 먹고 입고 공과금을 내는 것 등의 기초생계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한 청년일수록 높은 우울감을 보인다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좀 더 적극적

11) 2017년 2월 기준(e-나라지표, 2017. 10. 11. 인출).

인 노동시장 정책과 아울러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수당, 주거복지지원 등 복지 지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장년의 경우 의료 박탈을 제외한 기초생활 박탈, 주거 박탈, 미래 대비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중장년기에는 주거 박탈의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도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기는 생애주기상 평균적으로 소득도 가장 높고 지출도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시기 박탈, 특히 일상의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택을 가지지 못하는 주거상의 박탈을 경험할 경우 정신건강에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간 주택 가격의 급등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과 접근성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그동안 주택을 사유재로만 인식한 정부의 인식과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건설분을 통해 내수 부진을 만회하려는 기업의 인식이 상호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거복지 영역을 확대하고, 주택의 공공재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 박탈과 주거 박탈, 그리고 의료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박탈 요인 외에는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사회적 지지가 강한 경우 우울과 자살생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노인의 경우 다차원적 박탈과 더불어 생애주기상 나타나는 노쇠와 질병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복지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즉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소득보장, 질병의 예방과 적절한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노력,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위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합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통합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령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국가사회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제 5 장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제4절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

제5절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제6절 소결과 정책 시사점

5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제1절 서론

1. 문제 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자살률은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 초반에 정점에 오른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감소세와 달리 유독 일본과 한국은 1990년대 후반 들어 급증하면서 전체 OECD 국가와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16, p. 118). 자살의 원인은 1차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비관이나 정신적인 병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삶을 비관하게 만드는, 정신질환과 같은 병리를 유발하는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이 발전하고 있다.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학적 이론으로는 기능주의적 접근(사회병리론, 사회해체론, 일탈행위론, 하위문화론), 갈등주의적 접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그리고 교환주의 이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 중 하나인 사회병리론에서는 초기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병리의 원인을 찾던 것과 달리 잘못된 사회제도가 야기하는 사회병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빈곤의 원인을 과거에는 개인의 병약함이나 나태함에서 찾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세계화, 기술변화, 사회정책 등 사회구조에서 찾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인 역학(Epidemiology)은 1990년대 후반 ‘역학 전쟁(The Epidemiology War)’으로 불린 논쟁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확장시킨다(김승섭, 2017, p. 59). 그리고 2000년 발간된 『사회역학(Social Epidemiology)』이라는 출판물을 시작으로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의 원인’인 사회적 요인을 탐구하기 시작했다(김승섭, 2017, p. 60).

OECD는 전체 회원국들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과 배치되는 일본과 한국의 증가세는 두 국가에 큰 충격을 준 1998년 외환위기와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OECD, 2016, p. 118).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실증한 한 연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Gool과 Pearson(2014)은 경기침체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자살률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는 사실로부터 경기침체와 높은 자살률의 강한 상관관계를 실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경제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노동시장의 큰 충격이 자살과 같은 사회병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회역학 분야의 연구가 있었는데, 동유럽 국가들에서 결핵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소비에트 붕괴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었다(Stuckler et al., 2010; 김승섭, 2017, pp. 67-70에서 재인용). 체제 전환 과정에서 평균수명이 감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음주와 살인 등 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았던 경제학자들과 달리 이 학자들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한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결핵 발생률과 결핵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의료 시스템과 노동시장 보호와 같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Stuckler et al., 2010; 김승섭, 2017, p. 70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증가하고 있는 소송 사건 건수,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갈등 해결 방식의 높은 비중(정해식 등, 2016, p. 100) 등 사회병리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사회병리 완화, 사회갈등 해소 등의 1차적 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증진과 국민의 행복 수준 제고라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본 장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 주제를 다룬다. 선행 연구들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다룬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유형별, 원인별 갈등 경험과 경험한 갈등의 심각성을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구분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곤과 실업(실업 경험 여부, 실업 기간)을 기준으로 주요 정신건강 지표를 세대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갈등경험, 정신건강, 사회통합 인식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5-1] 연구 개념 틀



이를 위해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 사회구조와 사회갈등, 사회갈등과 사회병리, 사회구조와 사회병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사회갈등 인식과 개인들이 경험한 제 유형의 갈등을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성, 사회갈등, 정신건강의 각각의 관계를 세대를 구분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5절에서는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 그리고 이들의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사회문제 접근 방법은 크게 구조기능주의적 접근, 갈등론적 접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교환주의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김병 등, 2010). 사회병리는 이 사회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 중 기능주의 이론의 한 분야다. 사회병리론은 이 중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의 하나로, 여기에는 사회병리론 외에 사회해체론, 일탈행위론, 하위문화론 등이 있다.

일탈행위론에는 뒤르켐(Durkeim)의 자살이론, 머튼(Merton)의 아노미론, 서덜랜드(Sutherland)의 접촉차이론 등이 있다. 사회병리학의 초기 연구자들은 주로 적절히 사회화하지 못한, 내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의 가치와 신념을 거부하는 개인을 사회병리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여기에는 약물남용, 폭력, 여성·아동 학대, 범죄, 테러리즘, 부패, 차별, 따돌림, 낙인, 인권침해 등이 해당된다. 후기 연구자들은 개인이 아닌 사회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병리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사회의 불평등이나 계층의

고착화 등이 사회 구성원의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병리적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현대갈등주의 이론은 사회에 “질서와 합의보다는 무질서, 변화, 갈등과 투쟁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에 기반하며, 마르크스(Marx)의 변증법적 갈등주의, 짐멜(Simmel)의 기능적 갈등주의, 베버(Weber)의 교환적 갈등주의와 비판이론이 있다(최일섭, 최성재 등, 2011, pp. 59-60). 변증법적 갈등주의와 기능론적 갈등주의에 따르면 사회문제는 “비합법적인 사회통제와 착취”, “희소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불균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의 구조”에서 비롯된다(최일섭, 최성재 등, 2011, p. 62).

갈등주의 시각에 기반한 사회문제 접근 이론으로는 가치갈등주의와 사회긴장론이 있다. 가치갈등론은 사회의 모든 갈등이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다(최일섭, 최성재 등, 2011, p. 64). 사회긴장론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그리고 집단 간의 불화, 대립, 알력, 투쟁 등이 계속되는 긴장 상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이다(최일섭, 최성재 등, 2011, p. 65).

갈등론과 사회병리론의 결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서덜랜드(Sutherland, 1945)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서덜랜드 이후 지난 50년간 (1)사회병리학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정의되고, (2)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추상적인 원리(abstract principles)로 설명되며, (3)개인적 행위의 유형들이 아니라 가치 갈등으로 특징되는 사회의 여건(conditions of society)으로 주로 연구되고 있다.

2. 선행 연구

사회갈등과 사회병리를 다룬 연구로는 이상영 등(2013)과 오영희(2004)를 들 수 있다. 이상영 등(2013)은 가족 갈등과 사회병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이용해서 가족 내 갈등 발생과 관련되는 개인적 속성, 개인(일반 가구원, 근로자)의 지역사회와의 갈등 관계, 가족 내 갈등 경험이 개인의 건강과 사회병리 현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우울증상 고위험군,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군이 비교군에 비해 가족 갈등 요인 수가 많다는 점에서 갈등 경험과 사회병리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스트레스 요인이 이들의 우

울증상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오영희(2004)는 대학생과 부모의 갈등 경험과 부모를 용서하는 것과 정신건강(불안, 분노,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실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갈등 경험이 많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그리고 용서의 중재 효과는 불안과 자아존중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사회갈등을 다룬 연구 중 Gershoff 등(2007)은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 주는 빈곤은 부부 갈등과 같은 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장지연, 안재진(2013)은 같은 맥락에서 빈곤층 아동일수록 부모의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함으로써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호기 등(2015)은 사회이동성 악화가 사회적 불만과 불안을 증가시키고 계층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 그리고 소득분배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계층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을 다룬 연구로, 정해식 등(2016)은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하고 있다. 인식 조사의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의 정도와 집단별 갈등의 정도를 설문하고, 이렇게 파악된 사회갈등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실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갈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설문함으로써 인식 차원이 아니라 경험 차원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갈등의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인적 경험인 정신건강으로 대표되는 병리 문제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제3절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

1. 사회갈등 인식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에 대해서 매우 심하다 8.5%, 대체로 심하다 71.8%, 별로 심하지 않다 17.5%, 전혀 심하지 않다 0.8%로 나타났고, 0(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4점(매우 심하다)으로 측정한 갈등 점수는 2.89로 나타났다.

갈등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갈등의 유형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40.8%),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29.5%),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25.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순서는 동일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29.6%)과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26.0%)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33.6%)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표 5-1〉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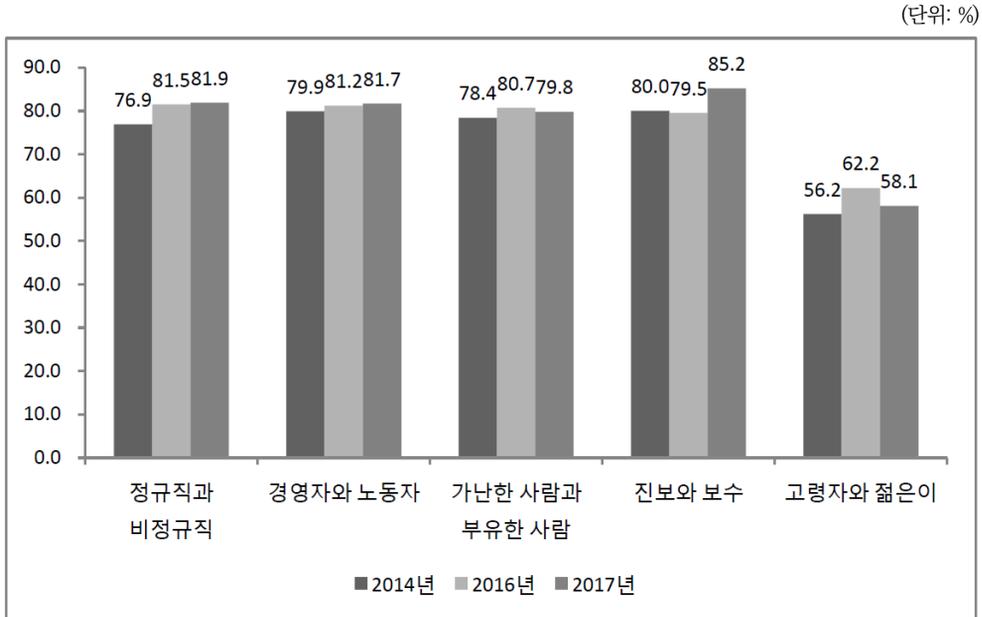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계	갈등 점수 (0~4)
사회갈등 전반	8.5	71.8	17.5	0.8	1.4	100.0	2.89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17.8	62.0	17.4	0.8	2.1	100.0	2.99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25.3	56.4	15.9	0.9	1.4	100.0	3.08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11.4	41.3	37.7	5.5	4.1	100.0	2.6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29.5	52.4	13.9	1.8	2.4	100.0	3.12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13.4	44.7	34.8	5.4	1.7	100.0	2.67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40.8	44.4	12.5	1.0	1.3	100.0	3.27
지역 간의 갈등	15.8	41.3	33.0	7.3	2.6	100.0	2.67
다문화 갈등	7.0	42.9	39.5	6.0	4.7	100.0	2.53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10.3	52.6	28.8	3.5	4.7	100.0	2.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4년도 조사(김미곤 등, 2014)와 2016년 조사(정해식 등, 2016)의 주요 유형을 비교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증가한 반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과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은 지난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은 지난해 다소 증가폭이 컸지만, 다시 증폭으로 감소한 특징을 보인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은 다른 유형과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5.7%포인트).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적 사건의 전개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념 갈등이 크게 표출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그림 5-2] 사회갈등 수준 인식 변화(2014, 2016, 2017)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정해식 등.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사회통합 국민 인식' 자료 분석.
 3) 김미곤 등. (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 조사' 자료 분석.

사회갈등 전반과 집단별 갈등에 대한 인식을 주요 인구집단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점수(최대 4점)가 되도록 관측치의 순서를 바꾸어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까지 분포하도록 했다. 먼저 사회갈등 전반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중장년, 청년, 노인의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로 집단별 갈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빈부,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대체로 정치경제적 측면의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은 노사 간,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진보와 보수, 지역 간의 갈등, 중장년은 빈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 다문화,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은 빈부, 세대 간의 갈등을,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은 노사,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정규

직과 비정규직, 진보와 보수, 지역, 다문화,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단위: 점)

구분	성		연령			학력		
	남성	여성	청년	중장년	노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사회갈등 전반	2.92	2.87	2.87	2.91	2.83	2.86	2.89	2.9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3.01	2.96	2.95	3.01	2.95	3.00	2.98	2.99
경영자와 노동자	3.07	3.09	3.09	3.08	3.01	3.03	3.07	3.11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2.63	2.59	2.63	2.62	2.50	2.57	2.61	2.62
정규직과 비정규직	3.14	3.11	3.10	3.15	3.03	3.06	3.12	3.15
고령자와 젊은이	2.66	2.68	2.64	2.69	2.65	2.72	2.65	2.68
진보와 보수	3.29	3.25	3.28	3.27	3.21	3.21	3.26	3.30
지역	2.66	2.68	2.70	2.66	2.67	2.61	2.64	2.72
다문화	2.51	2.55	2.52	2.55	2.46	2.50	2.49	2.58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2.72	2.74	2.67	2.76	2.68	2.71	2.71	2.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소득수준별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사회갈등 전반에 대한 인식은 소득 2분위, 5분위, 3분위, 1분위, 4분위 순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선형적인 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1~2분위와 4~5분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위가처분 소득 50%로 정의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빈곤층에 비해서 비빈곤층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는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저소득층이 갈등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최저소득층인 빈곤층의 경우는 오히려 갈등 상황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빈부와 세대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중간층인 3분위는 노사,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진보와 보수, 지역 간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빈곤층은 빈부,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세대 간의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단위: 점)

구분	소득 5분위					빈곤(중위 5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빈곤	빈곤
사회갈등 전반	2.88	2.93	2.90	2.85	2.92	2.90	2.87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3.02	3.00	2.98	2.98	2.95	2.98	3.05
경영자와 노동자	3.07	3.10	3.11	3.04	3.09	3.08	3.07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2.61	2.61	2.63	2.60	2.60	2.61	2.63
정규직과 비정규직	3.04	3.19	3.16	3.10	3.14	3.14	2.98
고령자와 젊은이	2.73	2.66	2.69	2.60	2.68	2.66	2.75
진보와 보수	3.24	3.26	3.33	3.26	3.25	3.27	3.22
지역	2.64	2.67	2.69	2.69	2.66	2.68	2.63
다문화	2.45	2.53	2.55	2.54	2.60	2.54	2.47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2.66	2.76	2.76	2.73	2.76	2.74	2.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실업자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보다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비자발적인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과 같은 임금노동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갈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집단별 갈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장기실업자를 제외하고) 세대,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을,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실업자는 빈부, 노사,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 지역, 다문화 간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장기 실업자일수록 집단별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모든 집단별 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표 5-4〉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단위: 점)

구분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상용	임시/일용	고용/자영/무급	실업	장기 실업	비경험	있음	없음
사회갈등 전반	2.88	2.88	2.90	2.92	3.01	2.90	3.00	2.89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2.95	3.04	2.97	3.06	3.19	3.00	3.06	2.98
경영자와 노동자	3.06	3.11	3.05	3.14	3.11	3.09	3.13	3.07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2.60	2.67	2.55	2.78	2.94	2.62	2.79	2.60
정규직과 비정규직	3.10	3.12	3.15	3.16	3.15	3.13	3.17	3.12
고령자와 젊은이	2.64	2.78	2.68	2.75	2.83	2.65	2.77	2.66
진보와 보수	3.26	3.18	3.30	3.25	3.24	3.29	3.27	3.27
지역	2.63	2.67	2.64	2.75	3.00	2.73	2.68	2.67
다문화	2.54	2.52	2.52	2.59	2.58	2.52	2.58	2.53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2.69	2.79	2.77	2.61	2.64	2.73	2.75	2.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장은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나 갈등 경험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사회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실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학력수준, 소득수준, 노동시장 지위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저학력층,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 실업자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학력수준이나 소득수준보다는 실업상태, 특히 장기 실업상태가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하는 변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사회갈등 경험

과거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갈등과 관련한 설문은 상기와 같이 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제 유형의 갈등을 직접 설문하였다. 먼저 원인별 갈등 경험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 차이에 의한 갈등을 경험한 비

율이 1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대 간의 차이 10.9%, 문화적 차이 7.3%, 학벌 차이 5.7%, 출신 지역 차이 4.5%였다. 앞서 이념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경험한 갈등도 이념에 기인하는 갈등(정치적 견해 차이)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5〉 원인별 갈등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정치적 견해 차이	19.0	81.0
문화적 차이	7.3	92.8
출신 지역 차이	4.5	95.5
세대 간의 차이	10.9	89.2
학벌 차이	5.7	9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주요 갈등 원인별 갈등 경험률을 인구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남성이 모든 원인별 갈등을 여성보다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에 의한 갈등을 여성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출신 지역 차이, 학벌 차이에 의한 갈등도 여성에 비해 조금 더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의 경우는 출신 지역 차이, 세대 차이, 학벌 차이에 의한 갈등을 다른 세대에 비해 보다 많이 경험했고, 중장년은 정치적 견해 차이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을 다른 세대보다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은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에 비해 갈등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모든 원인별 갈등 경험이 현저하게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에서는 정치적 견해 차이에 의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5-6〉 원인별 갈등 경험: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단위: %)

구분	성		연령			학력		
	남성	여성	청년	중장년	노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정치적 견해 차이	22.5	15.3	17.8	20.0	16.6	11.0	17.8	23.3
문화적 차이	7.4	7.0	6.3	8.3	3.9	3.7	6.2	9.6
출신 지역 차이	5.9	2.9	4.9	4.3	3.8	3.1	3.9	5.5
세대 간의 차이	11.6	10.1	11.6	11.2	6.9	6.8	10.0	13.2
학벌 차이	6.5	4.7	6.9	5.6	2.4	2.8	6.0	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개인의 갈등 경험은 개인이 처해 있는 또는 경험했던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로 원인별 갈등 경험 비율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제 원인별 갈등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중간 소득계층인 3분위는 모든 원인별 갈등 경험률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인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같은 결과, 즉 빈곤층보다 비빈곤층이 제 원인별 갈등을 보다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층이 경험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치적 견해 차이가 가장 많고, 세대 간의 차이, 학벌 차이, 출신 지역 차이, 문화적 차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비빈곤층도 역시 정치적 견해 차이가 가장 많지만, 빈곤층과 달리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고(3순위), 출신 지역 차이에 의한 갈등 경험률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인다.

〈표 5-7〉 원인별 갈등 경험: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단위: %)

구분	소득 5분위					빈곤(중위 5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빈곤	빈곤
정치적 견해 차이	13.5	17.7	15.2	22.2	27.8	20.1	10.5
문화적 차이	4.0	7.5	6.9	8.5	9.7	7.8	2.2
출신 지역 차이	3.3	4.5	4.7	4.0	6.1	4.7	2.3
세대 간의 차이	7.4	9.9	9.0	13.0	15.5	11.6	4.8
학벌 차이	3.1	6.7	5.0	5.2	8.8	5.9	3.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펴보면 앞선 갈등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실업자의 갈등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을 제외하면 장기 실업자일수록 제 원인별 갈등을 보다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제 원인별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업자의 경우 다른 모든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견해 차이에 의한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했지만, 이에 의한 갈등 경험률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가장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상용직과 비교해 보면 정치적 견해 차이에 의한 갈등(+2.3%포인트)보다는 세대 간의 차이(+8.4%포인트), 문화적 차이(+5.3%포인트), 출신 지역 차이(+4.3%포인트), 학벌 차이(+3.9%포인트)에 의한 갈등을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 실업자의 경우도 정치적 견해 차이(25.2%)에 의한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했지만, 세대 간의 차이(24.5%)에 의한 경험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5-8〉 원인별 갈등 경험: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단위: %)

구분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상용	임시/일용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	실업	장기 실업	비경활	있음	없음
정치적 견해 차이	20.7	19.7	20.2	23.0	25.2	15.9	29.5	18.2
문화적 차이	7.5	7.8	6.4	12.8	12.4	6.7	14.4	6.7
출신 지역 차이	4.6	4.7	5.0	8.9	11.3	3.3	9.5	4.1
세대 간의 차이	9.9	13.8	10.0	18.3	24.5	10.5	19.3	10.2
학벌 차이	6.2	7.6	5.2	10.1	14.6	4.0	10.7	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상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기준별로 살펴볼 때, 학력과 소득의 취약성은 제 원인별 갈등 경험의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이해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는 반면, 실업은 사회갈등 경험의 유력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족과의 다툼이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심리적 부담이 어떠한지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경험이 2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 양육 12.3%, 가사 분담 11.7%, 취업 또는 실업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또는 실업은 근로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원인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28.0%로 약 3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요인을 가장 빈번한 갈등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원인별 가족 내 갈등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부담은 각 갈등 경험률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심리적 부담이 가장 큰(매우 큼) 갈등 원인은 고부갈등, 노부모 부양이 22.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와 관련된 갈등 경험률(5.3%)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 다음으로 취업 또는 실업 17.7%, 폭언 및 폭행(학대) 16.2%, 가족 내 건강 혹은 간병 13.7%, 경제적 문제 10.3% 등으로 나타났다. 폭언 및 폭행(학대)의 경험률(2.0%)은 가장 낮지만,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9〉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및 심리적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없다	있다	심리적 부담			
			매우 적음	적음	큼	매우 큼
경제적 문제	80.0	20.0	12.7	36.4	40.7	10.3
가사 부담	88.3	11.7	17.6	50.2	28.0	4.1
자녀 양육	87.7	12.3	19.7	44.8	27.6	7.9
취업 또는 실업	92.1	8.0	5.5	29.2	47.6	17.7
가족 내 건강 혹은 간병	94.6	5.4	9.5	32.8	44.1	13.7
생활양식과 성격 차이	94.7	5.3	8.5	51.7	33.3	6.6
고부갈등, 노부모 부양	94.7	5.3	11.3	31.3	34.7	22.8
폭언 및 폭행(학대)	98.0	2.0	8.5	22.7	52.6	1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취업 또는 실업에 의한 갈등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갈등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갈등 원인 중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이 경험한 갈등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3.6%포인트), 경제적 문제(3.0%포인트), 고부갈등/노부모 부양(2.5%포인트)이 꼽혀 양육이나 부양과 관련된 갈등을 남성에 비해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 별로는 중장년층이 취업 또는 실업을 제외한 모든 원인별로 가족 내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이 취업 또는 실업과 관련된 가족 내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는 가족 내 건강 또는 간병에 의한 갈등과 폭언 및 폭행(학대)에 의한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 대졸 이상은 가사 부담, 자녀 양육, 취업 또는 실업, 생활양식과 성격 차이, 고부갈등/노부모 부양에 의한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10〉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단위: %)

구분	성		연령			학력		
	남성	여성	청년	중장년	노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경제적 문제	18.4	21.4	13.3	24.0	14.8	20.9	21.9	17.4
가사 분담	10.6	12.9	9.3	14.6	2.8	4.2	10.5	15.8
자녀 양육	10.6	14.2	9.3	16.0	1.3	2.2	10.6	18.1
취업 또는 실업	8.0	7.9	10.0	8.1	2.3	3.0	8.8	8.9
가족 내 건강 혹은 간병	5.1	5.8	2.4	7.0	5.1	8.2	4.8	5.2
생활양식과 성격 차이	4.7	6.1	4.7	6.2	2.6	2.8	5.3	6.4
고부갈등, 노부모 부양	4.1	6.6	3.1	7.0	2.4	3.7	4.5	6.8
폭언 및 폭행(학대)	1.3	2.7	0.7	2.7	1.4	2.3	1.8	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률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 가족 내 건강 혹은 간병, 폭언 및 폭행(학대)에 의한 갈등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많이 경험한 경향이 있는 반면, 가사분담, 자녀 양육, 생활양식과 성격 차이, 고부갈등/노부모 부양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많이 경험한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빈곤층이 경제적 문제와 건강 혹은 간병에 의한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1〉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단위: %)

구분	소득 5분위					빈곤(중위 5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빈곤	빈곤
경제적 문제	24.3	27.1	18.2	14.7	15.3	19.5	23.2
가사 분담	8.3	14.8	11.1	11.6	13.7	12.5	5.0
자녀 양육	7.9	16.2	14.4	11.8	12.3	13.3	5.3
취업 또는 실업	7.4	9.4	5.9	7.1	10.6	8.1	6.4
가족 내 건강 혹은 간병	7.1	7.2	4.8	3.3	5.2	5.2	7.7
생활양식과 성격 차이	3.6	7.0	3.6	5.2	8.2	5.8	2.2
고부갈등, 노부모 부양	2.7	8.2	5.2	5.1	6.1	5.8	1.5
폭언 및 폭행(학대)	2.6	1.9	1.5	1.8	2.0	2.0	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률을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상용직의 경우 가사분담과 자녀 양육에 의한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한 반면,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업자의 경우는 역시 취업 또는 실업에 의한 갈등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장기 실업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와 관련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경제적 문제, 가족 내 건강 혹은 간병, 고부갈등/노부모 부양, 폭언 및 폭행(학대)에 의한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비자발적인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부갈등/노부모 부양을 제외하고 모든 갈등 유형별로 갈등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2〉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단위: %)

구분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상용	임시/일용	고용/자영/무급	실업	장기 실업	비경활	있음	없음
경제적 문제	16.9	30.9	20.2	24.0	34.9	18.4	41.3	18.3
가사 분담	15.1	11.2	9.7	8.2	5.4	10.2	16.9	11.3
자녀 양육	15.7	10.1	9.9	8.3	0.6	11.9	17.9	12.0
취업 또는 실업	7.2	11.9	5.0	41.3	55.9	5.8	25.8	6.6
가족 내 건강 혹은 간병	4.0	8.6	4.0	7.5	13.3	6.5	10.2	5.1
생활양식과 성격 차이	6.0	7.5	2.5	9.0	10.9	5.5	8.3	5.1
고부갈등, 노부모 부양	5.7	7.2	5.0	0.7	2.0	5.1	4.9	5.4
폭언 및 폭행(학대)	1.4	4.3	1.3	2.7	0.7	2.1	3.4	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족 내 갈등은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나 원인별 갈등 경험과 달리 인구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족 내 갈등 원인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다른 경제활동 참여 유형들과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그 과정에서 폭력 발생 여부, 그리고 고소·고발과 같이 법적 분쟁으로의 비화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주요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를 보면 가족과의 갈등이 1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장생활 6.1%, 친구, 선후배

4.6% 등으로 나타났다.

갈등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갈등이 1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 5.8%, 공공기관 5.4%, 가족 4.7% 등으로 나타났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갈등은 대체로 교통사고나 음주사고와 같이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갈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기관과의 갈등에서 비롯한 폭력 발생 빈도가 낮지 않은 것은 주로 인신 구속이나 사회보장 급여, 서비스와 같은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고소·고발과 같은 법적 분쟁으로의 비화 경험은 갈등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 아니라 갈등의 지속성을 대표하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사고로 만난 사람과의 갈등이 1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공기관 12.5%, 우연히 만난 사람 5.6% 등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나 음주사고에 의한 폭력 사건 등은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의 중재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곧잘 비화하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설득력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의 갈등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13〉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및 갈등의 심각성

(단위: %)

구분	없다	있다	폭력 발생 여부		고소·고발 여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가족	87.4	12.6	4.7	95.3	2.5	97.5
친구, 선후배	95.4	4.6	2.6	97.4	0.3	99.7
이웃	97.8	2.2	5.8	94.2	4.5	95.5
직장생활(업무, 거래관계)	93.9	6.1	1.6	98.4	4.2	95.8
우연히 만난 사람(길거리, 술집, 버스, 지하철 등)	99.0	1.0	11.7	88.3	5.6	94.4
사고로 만난 사람(교통사고 등)	99.2	0.8	3.4	96.6	16.9	83.1
공공기관(경찰,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98.9	1.1	5.4	94.6	12.5	8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을 인구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갈등 대상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의 경우는 친구/선후배, 직장생활,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갈등을 많이 경험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가족, 이웃과의 갈등을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는 친구/선후배, 공공기관과의 갈등을, 중장년층의 경우는 가족, 이웃, 직장생활, 사고로 만난 사람과의 갈등을 각각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4〉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단위: %)

구분	성		연령			학력		
	남성	여성	청년	중장년	노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가족	11.5	13.7	9.9	14.5	9.0	11.6	12.1	13.4
친구, 선후배	4.9	4.4	7.6	3.6	2.9	1.9	5.0	5.4
이웃	1.6	2.8	1.1	2.7	2.5	2.6	2.3	2.0
직장생활	7.8	4.4	6.4	6.7	2.4	2.4	5.3	8.4
우연히 만난 사람	1.2	0.7	1.2	1.0	0.5	1.0	0.6	1.4
사고로 만난 사람	0.7	0.8	0.4	1.1	0.4	0.5	0.6	1.1
공공기관	1.2	1.0	1.3	1.1	0.6	0.8	1.1	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을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소득분위별로는 대상별 갈등에서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보면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모든 대상에 대해서 빈곤층보다 비빈곤층의 갈등 경험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15〉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단위: %)

구분	소득 5분위					빈곤(중위 5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빈곤	빈곤
가족	9.4	14.3	14.2	12.5	12.9	13.0	8.9
친구, 선후배	4.0	4.5	4.5	6.3	3.7	4.7	4.6
이웃	2.4	2.4	2.2	1.9	2.2	2.3	1.6
직장생활	1.9	7.2	5.4	9.0	7.4	6.7	1.5
우연히 만난 사람	0.4	0.7	1.1	1.5	1.1	1.1	0.2
사고로 만난 사람	0.2	1.7	0.6	0.9	0.7	0.8	0.3
공공기관	0.6	0.7	1.4	1.7	1.1	1.2	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을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상용직의 경우는 직장생활에서의 갈등을 다른 집단들보다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갈등 다음으로 높은 갈등 경험률을 보인다.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가족, 공공기관과의 갈등을 다른 집단들보다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 실업자는 가족, 친구/선후배,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갈등을 다른 집단들보다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비자발적인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대상들과의 갈등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16〉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단위: %)

구분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상용	임시/일용	고용/자영/무급	실업	장기 실업	비경활	있음	없음
가족	13.1	16.2	10.6	16.2	15.8	11.7	22.6	11.8
친구, 선후배	4.7	3.5	3.9	10.6	14.9	4.9	9.2	4.3
이웃	1.5	4.1	2.1	0.0	0.0	2.6	4.4	2.0
직장생활	11.2	7.7	5.9	6.1	3.1	0.7	15.2	5.5
우연히 만난 사람	0.5	1.3	1.1	5.6	2.7	0.7	5.6	0.6
사고로 만난 사람	0.9	0.9	0.6	1.1	3.1	0.7	4.5	0.5
공공기관	1.0	2.0	1.6	1.1	3.1	0.6	3.2	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4절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

본 절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사회갈등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세대별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세대는 청년층(19~34세), 중장년층(35~64세), 노인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 같은 세대 구분은 사회통합 실태조사 연구의 선행 연구들(여유진, 정해식 등, 2015; 정해식 등, 2016)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갈등 인식이나 경험, 그리고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다. 청년층의 경우는 다시 19~24세, 25~29세, 30~34세로 세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관련한 유일한 법령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이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15~29세)과 이 법령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적용되는 연령(15~34세)을 고려한 것이다. 29세 이하를 다시 25~29세로 세분한 것은 고졸자와 대졸자의 상이한 노동시장 진입 연령을 고려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빈곤, 실업(비자발적 실업경험, 실업기간)으로 한정한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애주기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는데, 예컨대 노인은 1인 가구와 같은 가구 구성 형태와 빈곤이,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이나 실업경험이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다만, 가구 구성 형태는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4점 척도로 구성된 14개 문항의 평균값(최소 0점, 최대 4점)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빈곤상태별 자아탄력성을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빈곤선은 균등화한 가구총소득의 중위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빈곤층의 자아탄력성 점수는 2.49점, 비빈곤층은 2.69로 비빈곤층의 자아탄력성이 더 크다. 빈곤 여부별 자아탄력성의 크기는 전체인구와 동일하게 비빈곤층의 자아탄력성이 더 크다.

빈곤층의 세대별 자아탄력성 크기는 청년, 노인, 중장년의 순으로 중장년의 자아탄력성이 가장 작은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청년층을 세분해서 비교해 보면 빈곤층의 경우 19~24세(2.61), 30~34세(2.53), 25~29세(2.53) 순으로 대졸자의 통상적인 노동

시장 진입 연령에서 자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17〉 빈곤상태와 자아탄력성 세대 간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19~34)			중장년	노인	
		19~24	25~29	30~34			
빈곤	2.49	2.58	2.61	2.53	2.58	2.47	2.48
비빈곤	2.69	2.76	2.80	2.76	2.71	2.67	2.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자아탄력성을 비교해 보면 실업 경험이 있는 경우의 자아탄력성(2.63)이 그렇지 않은 경우(2.67)에 비해 아주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 세대에서 실업 경험이 있는 경우의 자아탄력성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노인의 경우 실업경험 여부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가장 큰 특징을 보인다. 청년층 연령을 세분해서 보면 30~34세 연령대의 경우 그 차이가 다른 청년 세대에 비해 조금 더 큰 특징을 보이는 반면, 25~29세 연령대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난다.

〈표 5-18〉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자아탄력성 세대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19~34)			중장년	노인	
		19~24	25~29	30~34			
있다	2.63	2.71	2.75	2.77	2.65	2.62	2.42
없다	2.67	2.75	2.79	2.74	2.71	2.66	2.5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실업 기간에 따라 자아탄력성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실업 기간이 길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세대별로는 실업 기간과 자아탄력성의 관계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청년의 경우 6~12개월 미만의 경우는 오히려 자아탄력성이 비실업 상태보다 더 크고, 중장년과 노인¹²⁾의 경우는 오히려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자아탄력성이 보다 짧은 실업 기간을 가진 집단보다 크게 나타난다.

12) 조사 대상 중 노인 556명 중 현재 실업자 수는 13명(6개월 미만 7명, 6~12개월 미만 1명, 12개월 이상 5명)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둔다.

〈표 5-19〉 실업 기간과 자아탄력성 세대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실업 경험 없음	2.67	2.75	2.66	2.56
6개월 미만	2.60	2.68	2.57	2.40
6~12개월 미만	2.59	2.81	2.33	2.21
12개월 이상	2.59	2.67	2.51	2.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경우 전체적으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별로 구분해 보면 청년과 노인은 빈곤층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반면, 중장년의 경우는 오히려 비빈곤층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은 생애주기별로 특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이 중첩되는 세대가 중장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양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비빈곤 중장년의 경우 경제활동과 관련된 스트레스(실적 부진, 은퇴 고민 등)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 같은 측면들이 비빈곤 중장년의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경우 빈곤지위별 스트레스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연령대가 25~29세인데,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에서 빈곤지위별 스트레스 차이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표 5-20〉 빈곤상태와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19~34)	청년			중장년	노인
			19~24	25~29	30~34		
빈곤	19.59	19.23	18.59	20.08	19.15	17.95	19.31
비빈곤	17.87	17.76	17.58	17.73	18.00	19.96	17.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비자발적 실업경험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실업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세대별로 모두 공통적이다. 청년 세대 내에서 25~29세의 경우는 다른 세대와 반대로 나타나는 점은 이례적인

데, 이는 19~24세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 연령으로서 실업 경험의 사례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실업 경험자의 스트레스가 비경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청년 세대 내에서는 역시 30~34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5-21〉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19~34)			중장년	노인	
		19~24	25~29	30~34			
있다	19.53	18.81	17.98	17.47	20.07	19.69	20.32
없다	17.96	17.77	17.62	17.87	17.87	17.98	18.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실업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심한데, 6개월 미만에 비해 6~12개월의 스트레스 정도가 더 낮은 특징이 있다. 청년의 경우 6개월 미만 실업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전체 세대와 전체 기간 구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장년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이, 노인은 6~12개월 미만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22〉 실업 기간과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실업 경험 없음	18.01	17.75	18.07	18.33
6개월 미만	19.26	29.30	23.42	21.46
6~12개월 미만	18.58	16.36	21.16	22.00
12개월 이상	20.55	20.92	21.30	15.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우울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울 정도는 상기 자아탄력성이나 스트레스 수준에 비해 빈곤과 비빈곤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표이다. 전체적으로 빈곤층의 우울 정도가 비빈곤층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별로는 청년과 중장년의 빈곤층이 같은 세대의 비빈곤층에 비해 우울 정도가 심각한 반면, 노인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빈곤한 노인의 우울 정도가 비빈곤 노인의 우울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기초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각종 공공부조성 급여가 빈곤 노인에게 집중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25~29세의 빈곤층 우울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비빈곤층과의 격차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5-23〉 빈곤상태와 우울 세대 간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19~34)	세대			중장년	노인
			19~24	25~29	30~34		
빈곤	7.34	5.92	4.68	7.89	5.45	7.86	3.68
비빈곤	3.75	3.33	2.58	3.64	3.90	3.97	7.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 역시 다른 지표와 달리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실업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 정도가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빈곤과 달리 실업 경험 여부는 모든 세대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실업 경험에 따른 우울 정도는 노인, 중장년, 청년의 순으로 나타나 실업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는 노인 세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세대 간 특성은 실업 경험이 없는 집단과의 우울 정도 상대적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청년층 내부에서는 30~34세의 실업 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 실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24〉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우울 세대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19~34)	청년			중장년	노인
			19~24	25~29	30~34		
있다	6.69	5.56	4.09	4.80	6.69	6.91	8.57
없다	3.96	3.33	2.64	3.78	3.73	4.06	5.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실업 기간과 우울 정도는 거의 비례관계에 있다. 즉 실업 기간이 길수록 우울 정도가 심각해진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중장년 세대에서는 전체 인구와 똑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우울 정도는 중장년층이 가장 심각하고, 다음으로 청년, 노인의 순으로 나타난다. 청년의 경우는 6~12개월 미만에서 살짝 줄어들기는 하지만 12개월 이상이 될 경우 우울 정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5-25〉 실업 기간과 우울 세대 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실업 경험 없음	4.04	3.25	4.20	5.10
6개월 미만	5.87	5.78	5.79	6.42
6~12개월 미만	7.33	5.53	9.75	6.42
12개월 이상	8.87	8.83	10.09	4.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5절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1. 자료와 변수의 조작적 정의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에 수행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연구원이 2014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일환이다. 전국의 만 19세부터 74세까지의 성인 남녀 3,839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문항은 가구 구성 및 경제상태, 생활상태, 사회심리적 감정상태, 신

회 및 갈등 인식,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응답자 일반 사항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영역별로 세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병리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세 가지 지표(자아탄력성, 스트레스 척도, 우울 척도)는 설명 변수 또는 종속 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사회갈등 변수들은 정신건강(사회병리)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부터 설명되는 종속 변수로도 사용될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갈등에 대한 인식과 (9개)유형별 갈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이 경험한 갈등은 원인별, 가족 간 갈등 원인별, 갈등 대상별로 구분해서 활용한다.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사회구조) 관련 변수들로 빈곤,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와 더불어 박탈 지표를 사용한다. 그리고 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을 통제 변수로 사용한다.

〈표 5-26〉 주요 변수와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설명
정신건강 (설명/종속 변수)	자아탄력성	- 14개 문항의 평균(1~4) - (또는) 총점수(0~56)
	스트레스 척도	- 1~5점을 0~4점으로 변환. 일부 문항 역코딩. 10개 문항의 변환된 점수의 합(0~40점)
	우울 척도	- 1~4점을 0~3점으로 변환. 일부 문항 역코딩. 11개 문항의 변환된 점수의 합(0~33점) - (또는) 총점이 9점 이상이면 1(우울), 미만이면 0(비우울)
사회갈등 (설명/종속 변수)	갈등 인식	- 전반적 갈등 인식 점수(0~3점)
	유형별 갈등 인식	- 9개 유형별 갈등 인식 점수(0~27점)
	원인별 갈등 경험	- 원인별 경험 갈등 수(1~5점)
	가족 간 갈등 경험	- 가족 간 갈등 경험 합계(1~8점)
사회경제적 특성 (설명 변수)	빈곤	- 균등화 중위소득(총소득) 50% 기준
	박탈 지표	- 7개 물질적 박탈 지표 점수 합계(0~7점)
	비자발적 실업 경험 (더미)	-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
사회통합 (종속 변수)	사회통합 인식	- 사회통합 인식(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0)
통제 변수	성(더미)	- 남=0, 여=1
	연령(더미)	- 청년(19~34세)=0, 중장년(35~64세)=1, 노인(65세 이상)=2
	학력(더미)	- 중졸 이하=0, 고졸=1, 대졸 이상=2
	소득수준	- 로그 총소득

2. 분석 결과

가. 갈등의 사회경제적 맥락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사회갈등 인식과 갈등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사회갈등 인식에 물질적 박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비자발적 실업경험, 교육 수준, 연령대, 가구총소득 등의 변수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인별 갈등 경험의 총점수를 종속 변수로 할 경우에는 물질적 박탈, 비자발적 실업 경험, 성별, 학력(대학이상), 가구총소득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족 내 갈등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물질적 박탈, 비자발적 실업 경험, 성별, 학력, 연령대(중장년층) 등으로 확인된다. 대상별 갈등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물질적 박탈, 비자발적 실업 경험, 가구총소득 등으로 확인된다. 세 가지 모형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대표하는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력이 높은 것은 가족 내 갈등 경험으로 파악된다. 가구의 빈곤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물질적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 갈등 경험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역시 가족 내 갈등 경험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가족 내 갈등경험 확률이 낮아 가족 내 갈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층이 가족 내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5-27〉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갈등 인식 및 갈등 경험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갈등 인식	원인별 갈등 경험	가족 내 갈등 경험	대상별 갈등 경험
물질적 박탈		0.043***	0.118***	0.258***	0.076***
비자발적 실업 경험(없음=0)		0.091*	0.414***	0.640***	0.384***
남성(여성=0)		0.040*	0.091**	-0.151***	0.004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029	0.099	0.162*	0.027
	대학 이상	0.044	0.218***	0.282***	0.062
연령대 (청년층=0)	중장년층	0.039	0.059	0.286***	0.041
	노인층	-0.004	0.098	0.005	0.010
로그 총소득		0.012	0.128***	0.075	0.073***
상수		2.784***	0.027***	0.214***	0.084***
N		3,751	3,801	3,801	3,801
R ²		0.009	0.036	0.068	0.032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세 가지 정신건강의 지표 중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는 우울,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의 순으로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에 대해서는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고, 교육수준과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은 강한 양의 설명력을 갖는다.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박탈, 비자발적 실업 경험이 유의미한 양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층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청년층의 스트레스가 보다 많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울에 대해서는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박탈, 비자발적 실업 경험이 유의미한 양의 설명력을 갖는다. 두 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스트레스의 그것보다 커서 정신건강 지표들 중에서 우울이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보다 잘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가구총소득은 우울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확인된다.

〈표 5-28〉 자아탄력성의 사회경제적 맥락

구분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우울
물질적 박탈		0.043	0.531***	1.189***
비자발적 실업 경험(없음=0)		-0.348	1.191***	2.304***
남성(여성=0)		0.713***	-0.274*	-0.346*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956***	-0.518**	-0.944***
	대학 이상	1.573***	-0.855***	-1.101***
연령대 (청년층=0)	중장년층	-1.043***	0.048	0.399*
	노인층	-0.584	-0.608**	-0.231
로그 총소득		1.438***	-0.726***	-1.385***
상수		34.898	19.389***	5.948***
N		3,801	3,801	3,801
R ²		0.085	0.051	0.11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갈등과 정신건강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통합 인식의 사회경제적 맥락은 〈모형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 연령대, 가구총소득 등의 변수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모형 2〉, 〈모형 3〉, 〈모형 4〉는 회귀방정식에 가족 내 갈등 경험과 각각의 정신건강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먼저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가족 내 갈등 경험과 자아탄력성은 사회통합 인식에 각각 유의미한 부(-)의 효과와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가족 내에서 갈등을 많이 겪을수록 사회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반면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은 낮아지지만 여전히 부(-)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모형 3〉과 〈모형 4〉의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이 결과들을 〈모형 1〉과 비교해 볼 때 사회경제적 맥락을 대표하는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각각의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더불어 설명력(회귀계수의 크기)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은 갈등 경험과 정신건강 지표를 매개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분석 결과로부터 물질적 박탈이나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갈등 경험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9〉 갈등 경험, 정신건강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가족 내 갈등경험			-0.110***	-0.098***	-0.103***
자아탄력성			0.028***		
스트레스				-0.044***	
우울					-0.013*
물질적 박탈		-0.151***	-0.124**	-0.103*	-0.109*
비자발적 실업 경험(없음=0)		-0.339**	-0.259*	-0.224	-0.243*
남성(여성=0)		-0.191***	-0.228***	-0.218***	-0.211***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037	-0.046	-0.043	-0.032
	대학 이상	0.027	0.014	0.017	0.042
연령대 (청년층=0)	중장년층	-0.117	-0.056	-0.087	-0.082
	노인층	0.084	0.101	0.058	0.082
로그 총소득		0.073	0.041	0.049	0.063
상수		4.670***	3.714***	5.542***	4.768***
N		3,801	3,801	3,801	3,801
R ²		0.012	0.024	0.026	0.02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6절 소결과 정책 시사점

1. 소결

가.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

2017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에 대해서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약 80%(매우 심하다 8.5%, 대체로 심하다 71.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갈등 유형으로는 이념, 정규직-비정규직, 노사 간의 갈등을 꼽았다. 전년 대비 이념 갈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6년 말부터 전개된 정치적 사건과 이듬해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사회갈등 전반에 대한 인식을 주요 인구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 중장년, 대졸 이상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빈곤과 실업(장기실업, 비자발적 실업 경험) 경험도 심각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회갈등 원인별 경험은 정치적 견해, 세대, 문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구집단별로는 대체로 남성, 중장년, 대졸 이상 집단에서 이들 갈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처할수록 갈등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갈등 경험은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취업 또는 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 크게 경제적 요인과 가사의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해당 갈등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갈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은 고부갈등, 노부모 부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갈등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은 취업 또는 실업과 관련되는 갈등을 가족 내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건강, 경제문제, 폭력 등의 갈등에 많이 노출되는 반면 고소득층은 가사분담, 양육, 고부갈등과 같은 가족 간의 감정적 갈등에 많이 노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폭력으로 확대된 갈등 유형은 가족 간의 갈등, 직장생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의 많은 부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소·고발과 같이 법적 분쟁으로 많이 확대되는 갈등 유형은 사고로 인한 갈등이나 공공기관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나.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

자아탄력성은 빈곤, 비자발적 실업 경험, 실업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집단의 자아탄력성이 대체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빈곤층 중 자아탄력성이 가장 낮은 집단은 노인, 중장년, 중기청년 등의 순이고, 실업 경험 집단 중에서는 노인, 중장년, 후기청년 등의 순이다.

스트레스는 빈곤층, 실업 경험 집단에서 전체 세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실업 기간은 청년, 중장년의 경우는 6개월 미만에서 가장 높은 반면, 노인은 6~12개월 미만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연령 집단은 중기청년, 노인, 후기청년 등의 순이고, 실업 경험 집단 중에서는 노인, 후기청년, 중장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도 역시 빈곤층, 실업 경험 집단에서 전체 세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실업 기간에 따라서는 청년과 중장년이 장기 실업일수록 우울이 심각한 특징을 보인다. 자아탄력성이나 스트레스에 비해 우울은 빈곤, 실업 경험, 실업 기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다.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

갈등 인식과 갈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들로, 종속 변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모험마다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대표하는 지표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남성은 원인별 갈등 경험에는 양(+)¹⁾의 효과를, 가족 내 갈등경험에는 부(-)²⁾의 효과를 각각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와 중장년층이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자아탄력성을 제외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울이 이 변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표로 파악됐다. 저학력자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정신건강이 열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모든 정신건강 변수들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보여 줬다.

몇 가지 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 내 갈등을 많이 겪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이 심각할수록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이 클수록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갈등경험과 정신건강을 매개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소 거칠게 해석할 수 있다.

2. 정책 함의

본 장의 분석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와 이의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이나 정신건강과 같은 사회병리 또는 사회문제는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이 사회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고안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함으로써 사회통합 정책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갈등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되는 경제적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념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건전한 정치 발전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는 일상의 소소한 갈등들이 불필요하게 이념 갈등으로 증폭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6년 말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지나오면서 앞으로 이 같은 문제는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사관계,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적 갈등 문제는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불평등 심화의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종합될 필요가 있다. 갈등 관리의 차원에서는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원인별 갈등 중에서 심각하게 인식되는 갈등 유형이 가족 내 갈등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갈등의 경우 폭력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가족 문제에 대해 공공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가족 내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무시

할 수 없게 된다. 가족 내 갈등 역시 빈곤이나 실업 등의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원인으로 꼽히고, 가사 분담이나 양육 문제, 그리고 고부간의 관계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자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재분배 정책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근로시간 역시 남성과 여성의 가사 분담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파악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법정공휴일 보장 등의 노동시장 정책도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넷째, 빈곤과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응하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은 앞서 언급한 거시적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사후적인 측면에서 정신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책은 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고안되고 있으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달 체계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세대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따른 저임금 근로 등의 문제로 인해 다수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의 감수성에 부합하는 전달 체계를 위해 청년 특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청년 전담 센터나 기존 센터 내에 부서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복지 전달 체계에서도 세대별, 사회경제적 지위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6 장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 사회구조 인식의 영향 분석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개요 및 모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 : 사회구조 인식의 영향 분석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한국 사회 구성원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위험 인식은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위험 인식은 사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Beck(1992)은 위험을 “우리를 위협하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남은영, 2015, p. 7에서 재인용). Beck의 위험사회론(theories of risk society)은 산업사회가 만들어 낸 다양한 위험들에 의해 전통적인 복지국가 단위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위험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정무권, 2012, p. 196).¹³⁾

위험사회론의 위험은 평등적인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소위 위험의 민주화, 평등화 또는 위험의 계급화 논쟁이다(김영란, 2011).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사회적 위험 구조는 위험의 지위와 생산의 경우는 전 계층이 공유할 수 있지만,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계급,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분석이 있다(김영란, 2011, p. 82). 한국 사회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위험이 집단에 따라 다른 확률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불안감도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불완전한 사회보장 체계에서는 고용과 소득의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한 요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구사회위험이 혼재한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남은영(2015, p. 21)은 여성, 청년과 노년층이 사회적 위험의 담지자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위험의 계급화 논의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정서 속에 배태된 불안의 원인을 설명할

13)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한 대응을 복지국가의 정책 지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은 은퇴, 실업과 같은 생애주기적 상황의 일자리 변화와 그에 따른 소득보장과 관련되는 주제였다.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은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 고용이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확대됨에 따라 등장한다(Esping-Andersen 1999; Bonoli, 2005).

수 있다. 여유진, 정해식 등(2015, p. 181)은 사회이동 수준에서 객관적 실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사회적 기대에 비해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불안감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정해식 등(2016, p. 153)은 저축과 미래 대비 여력의 부족에 더해 공적 보장제도의 미비에 따라 불안감이 확대되고, 그것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정해식 등(2016, p. 183)은 한국인이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에 비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인의 불안 심리에는 현재의 사회체계가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그래서 각자도생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은 이상영 등(2015, pp. 263-264)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들은 우리 사회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장애 정도가 낮고, 반대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자살생각 경험과 사회적 일탈 충동의 경험 비율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인의 불안 속에는 구조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체계의 기능이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하여 통합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사회계층이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양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계층에 따라서 사회적 위험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신뢰, 유대감 등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가 취약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하면 사회적 위험이 구성원의 즉각적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사회제도에 의해서 사회적 위험은 희석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위험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의 인과관계에 사회구조의 작동 방식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준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구조 인식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노력-공정성의 확보, 갈등의 해소, 격차의 축소-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으로써 사회문제 대응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실천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개요 및 모형

1. 연구 개요

미시적 수준에서 한 개인은 다양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회계층은 그 개인 및 가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의 수준을 대리한다. 한편 객관적인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원과는 별도로, 각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자원 수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귀속적 사회계층도 존재한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 및 사회적 자원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자기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서 위험 인식에 대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물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 개인적, 주관적 특성 자체가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높을수록 위험 인식이 높을 수 있는데, 이를 불안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사회의 기능 수행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의 정상 기능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가지게 된다. 즉 위험 인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낮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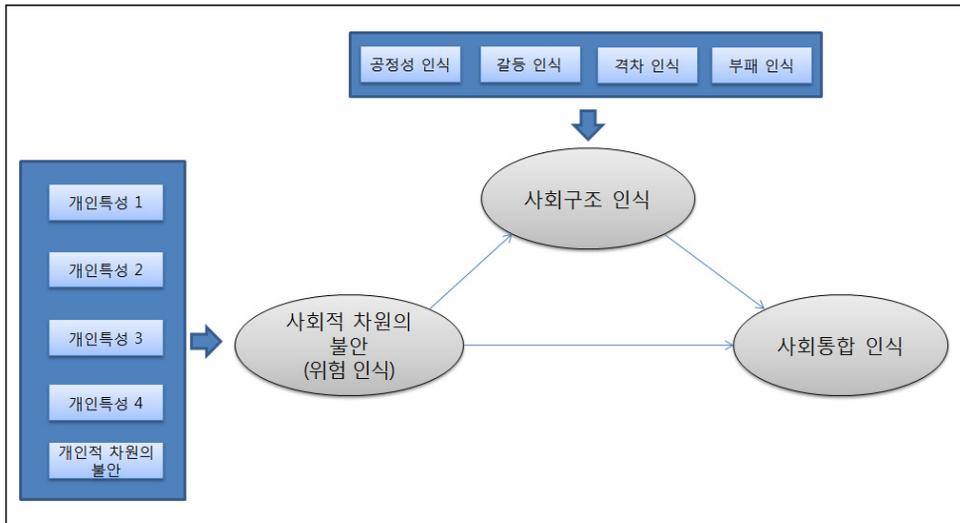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 인식에 따른 사회통합 인식의 차이에 사회제도 인식이 개입한다고 본다. 한 개인이 가지는 불안의 근저에 사회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또는 포괄적 작동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러한 의심에 영향 받아, 또는 그러한 의심으로 인해 사회통합 인식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모형

6장의 연구 목적은 위험 인식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불안이, 특히 사회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 의해 영향 받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이 연구의 3장과 4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정적 생활 경험을 줄이고, 물질적 박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모태가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5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정

신건강 수준을 낮춘다. 그러므로 사회제도의 작동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 물질적 수준의 개선뿐 아니라 사회제도적 차원의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임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모형은 [그림 6-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그림 6-1]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연구 모형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사회통합 인식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적 조작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해식 등(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적 조작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두 가지 설문을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0~10점 서열 변수)라는 단일 설문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통합 인식’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중 후자의 경우는 <표 6-1>과 같은 설문 문항을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추상적인 수준의 사회통합에 대해서 사회제도 인식이 개입한다고 본다. 물론 사회통합의 각 하위 영역들, 특히 사회제도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로서 사회통합의 하위 개념이 6장의 분석에 보다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개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사회통합 문항을 주로 이용하고자 한다.¹⁴⁾

〈표 6-1〉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 설문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배려와 포용의 사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 조사’ 조사표 재구성.

나. 사회적 차원의 불안

사회적 차원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영역별 위험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생애주기, 경제생활 관련 영역의 불안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여러 형태의 사회적 차원의 불안 정도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계층 등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서 위험 인식이 달라지는 문항을 중심으로 독립 변수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¹⁵⁾

사회적 차원의 불안 정도는 한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불안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불안이 개인적 차원의 불안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표 1-5〉 스트레스 척도 문항을 이용하여 개인적 차원의 불안 점수를 도출하였다. 설문 문항 중에서 ‘꽤 자주 있었다’와 ‘매우 자주 있었다’를 ‘자주 있었다’로 코딩하였다(평균 25.54점).

14) 이와 별개로 기초 분석에서는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 개념별로 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15) 생애주기 관련 불안, 사회생활 관련 불안, 경제생활 관련 불안이 이에 해당하였다.

다. 사회구조 인식

이 연구에서 사회구조 인식은 한국 사회 각종 제도의 작동 수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구조 인식에 대해서 각각의 측정 변수를 하나의 잠재 변수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제도적 수준에 대한 평가로도 해석할 수 있다.

1) 공정성 인식

공정성 인식에 대한 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다(김명언, 2005, pp. 216-220).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 하위 지문으로는 ‘두뇌(능력)에 비해’, ‘일과 관련된 기술에 비해’, ‘노력에 비해’, ‘학력에 비해’, ‘경력에 비해’라는 다섯 문항을 이용하였다.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그 하위에 모두 6개의 지문을 배치하였다.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1),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는다”(2),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3), “외부 압력이나 ‘백’(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4),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5),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다”(6)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절차 공정성은 권력 배제와 목소리 허용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는데(김명언, 2005, p. 217), 여기서도 절차 공정성은 다시 ‘의견 수렴의 공정성’(q45_1, 2, 6), 권력 배제 공정성(q45_3, 4, 5)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2) 격차 인식

격차 인식은 한국 사회의 격차가 매우 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제도적 한계에 있

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다섯 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역코딩)”,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의 문항이 그것이다.

3) 갈등 인식

갈등 인식은 한국 사회의 집단들 간의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갈등 인식은 요인 분석 결과 크게 세 요인 ‘경제적 갈등(q47_1~5)’, ‘이념갈등(q47_6)’, ‘내부적 갈등’(q47_7, 8)으로 구분되었다. 여기서는 계층적 속성이 반영되는 이유로 경제적 갈등만 분석 모형에 투입한다.

4) 부패인식

마지막으로 부패인식은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0점)에서부터 ‘부패가 매우 심하다’(6점)의 7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제3절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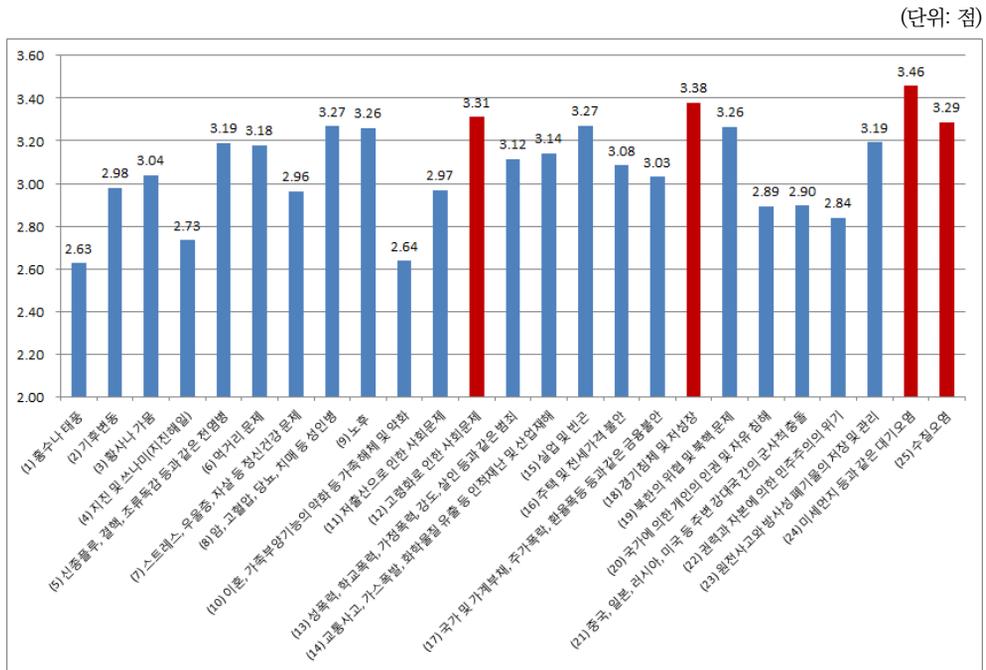
1. 기초 분석 결과

가. 위험에 대한 불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위험은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 경기침체 및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수질오염,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에 있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의 정도는 2017년 실시한 ‘사회문제

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다른 조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초부터 미세먼지 증가 현상과 이를 둘러싼 오염원 논쟁 등이 확대되면서 대중의 인식이 부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2] 항목별 위험요소에 대한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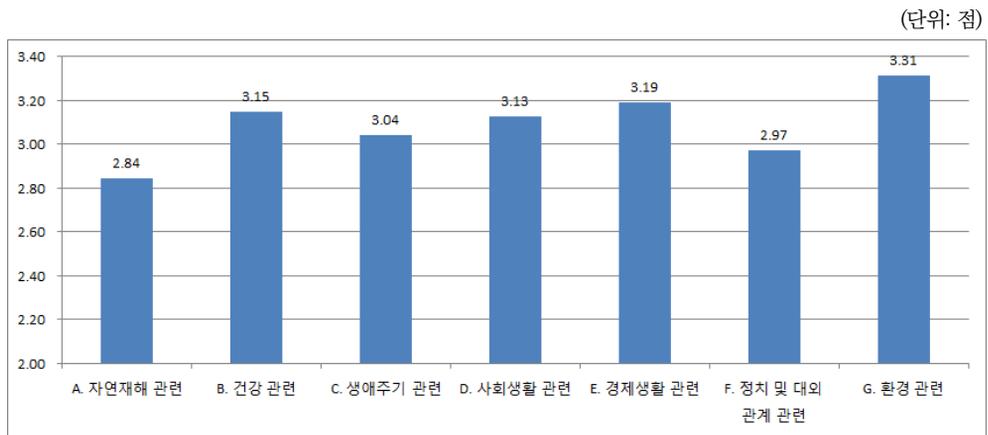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위 항목별 불안을 영역별로 살펴보기 위해 영역별 평균을 계산하였다. [그림 6-3]의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이 평균 3.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제생활 관련 불안이 3.19점, 건강 관련 불안이 3.15점, 사회생활 관련 불안이 3.13점으로 높았다. 생애주기 관련 불안(3.04점),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불안(2.97점), 자연재해 관련 불안(2.8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태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은 자연재해 관련 문제보다 환경 관련 문제가 조금 더 우리 일상에 가까운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표 6-2〉는 영역별 위험에 대한 불안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층 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 중에서 생애주기 및 경제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해서 가구소득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영역에서는 성,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여성일수록 각종 위험에 불안을 더 많이 느꼈다.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관련 영역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불안을 느꼈지만, 사회생활(범죄, 산업재해) 관련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불안을 느꼈다. 환경 관련 문제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더 불안을 느꼈다.

[그림 6-3] 영역별 위험에 대한 불안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6-2> 영역별 위험 인식의 설명 요인

구분	A. 자연재해 관련	B. 건강 관련	C. 생애주기 관련	D. 사회생활 관련	E. 경제생활 관련	F.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G. 환경 관련
성별	0.119*** (0.029)	0.121*** (0.028)	0.075** (0.026)	0.227*** (0.031)	0.029 (0.028)	0.034 (0.027)	0.167*** (0.028)
연령대별	0.026* (0.012)	0.047*** (0.011)	0.076*** (0.011)	-0.039** (0.013)	-0.036** (0.012)	0.017 (0.011)	0.003 (0.012)
학력별	-0.025 (0.024)	-0.003 (0.023)	0.008 (0.022)	0.013 (0.026)	0.019 (0.024)	-0.003 (0.022)	0.056* (0.024)
가구소득별	-0.007 (0.010)	-0.016 (0.009)	-0.017* (0.009)	-0.016 (0.010)	-0.041*** (0.009)	-0.008 (0.009)	-0.016 (0.009)
상수	2.667*** (0.094)	2.891*** (0.089)	2.745*** (0.084)	2.933*** (0.100)	3.357*** (0.092)	2.907*** (0.085)	2.984*** (0.091)
사례수	3,835	3,835	3,835	3,835	3,835	3,835	3,835
adj. R-sq	0.007	0.013	0.022	0.016	0.006	0.001	0.009

주: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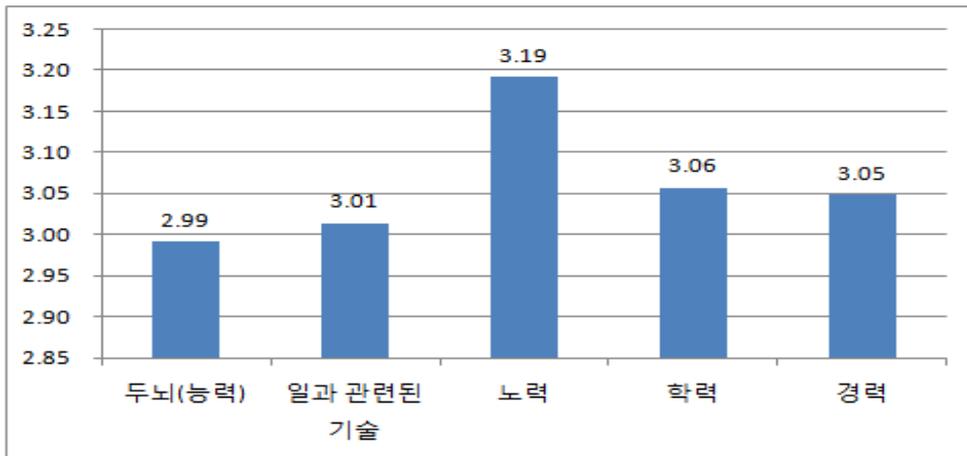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두 가지 영역을 검토하였다. [그림 6-4]은 그 중에서 분배 공정성을 측정하는 하위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즉 본인이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달랐다.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3.19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두뇌(능력)에 비해서는 2.99점, 일과 관련된 기술에 비해서는 3.01점, 학력에 비해서는 3.06점, 경력에 비해서는 3.05점으로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즉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노력하지 않는 자가 가져가는 성취에 대한 불만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4]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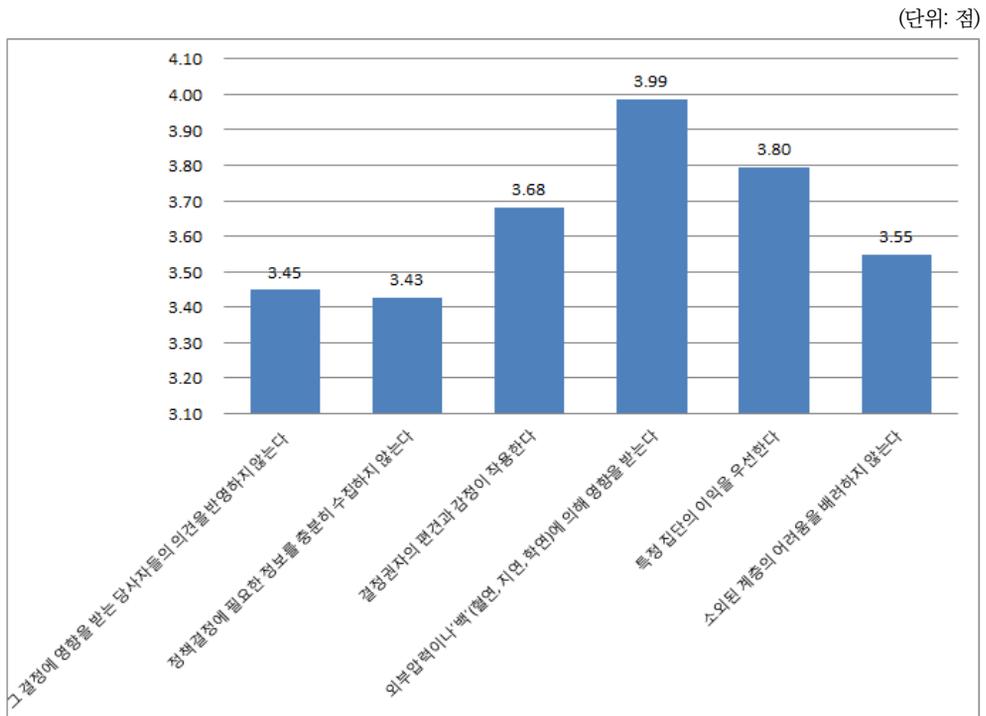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불공정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 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절차에 대해서는 '외부 압력이나 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3.99점으로 다소 그렇다는 응답에 가까웠으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3.80점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높았다. 앞서 분배 공정성과 관련하여 평가해 보면 공정성의 왜곡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명확하다 하겠다. 그 외에도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3.68점)에 대해서도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한국 사회의 절차 공정성에서 ‘권력 배제’의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미 1995년, 2000년에도 있었다는 점(김명언, 2005, p. 217)을 고려하면, 절차 공정성에서 권력의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여전하다 할 것이다.¹⁶⁾¹⁷⁾

[그림 6-5]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불공정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 16) 김명언(2005)은 1995년과 2000년 조사를 비교하면서 “관련된 사람의 목소리(voice) 허용에서의 절차 공정성은 증가를 보였으나 힘 있는 자들의 권력(power) 행사의 배제에서의 절차 공정성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전 조사와 이 연구를 비교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권력 배제의 절차 공정성은 이전 시기보다는 양호해졌지만,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는 이전보다 악화되었다.
- 17) 분배 공정성에 비해서 절차 공정성의 측정 항목은 여러 개의 요인으로 축약될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축약되는데 절차에서의 의견 수렴, 권력 배제가 크게 구분되고, 소외 계층의 의견 수렴은 절차에서의 의견 수렴 하위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갈등 인식

한국 사회의 갈등의 세부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5장에서 살펴보았다. 여러 갈등 유형 중 이 연구의 조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이전 조사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갈등 항목이었다.

그러므로 6장에서는 갈등 유형의 요인 축약을 목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갈등 항목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경제적 갈등, 이념 갈등, 내부적 갈등을 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축약되었다.¹⁸⁾ 각 문항을 단순 평균한 영역별 갈등 요인에 대한 설명 요인을 찾아보면 경제적 갈등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다. 즉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경제적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념 갈등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계층 변수와 이념 성향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내부적 갈등에 대한 인식은 주로 학력,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6-3〉 영역별 갈등 인식의 설명 요인

구분	경제적 갈등	이념 갈등	내부적 갈등
성별	-0.011 (0.016)	-0.030 (0.023)	0.012 (0.017)
연령대별	-0.003 (0.007)	-0.002 (0.010)	0.007 (0.007)
학력별	0.013 (0.013)	0.029 (0.020)	0.032* (0.015)
가구소득별	-0.001 (0.005)	0.003 (0.008)	0.015** (0.006)
이념성향	0.027* (0.011)	0.026 (0.017)	0.020 (0.012)
상수	2.840*** (0.057)	3.189*** (0.084)	2.604*** (0.062)
사례수	3,821	3,788	3,817
adj. R-sq	0.002	0.002	0.005

주: 1) * p<0.05, ** p<0.01, *** p<0.001

2) 경제적 갈등은 갈등 문항(1~5)의 평균, 이념 갈등은 갈등 문항(6), 내부적 갈등은 갈등 문항(7~8)번의 평균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18) 환경 갈등에 대한 설명은 세 요인 외의 요인으로 주로 설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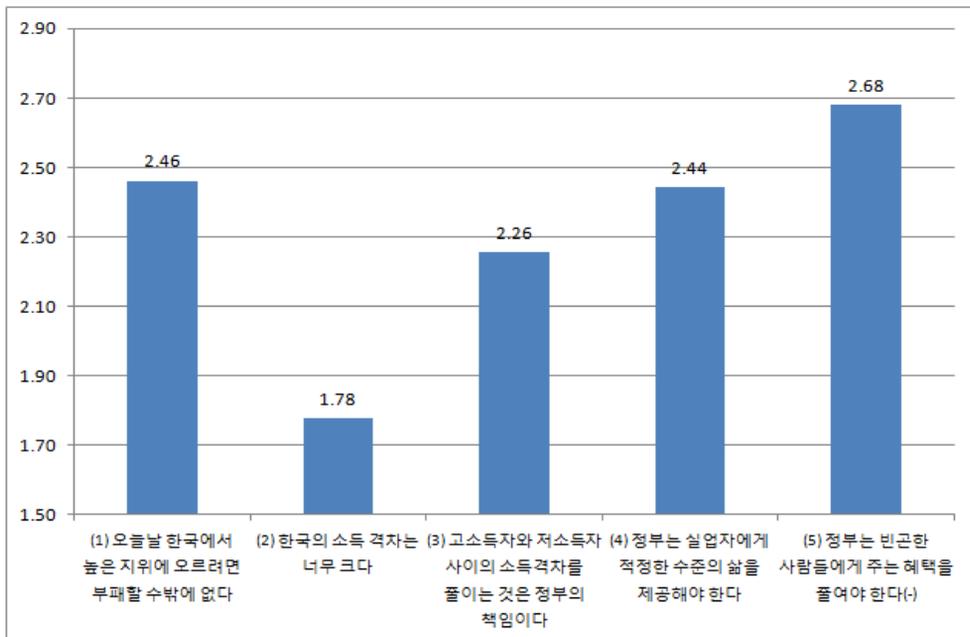
라. 소득격차 및 정부 책임성 인식

한국 사회의 격차 및 관련 인식에서는 특히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이 컸다. [그림 6-6]에서와 같이 소득 격차가 크다는 평가에 대한 동의는 1.78점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 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격차 축소의 정부 책임에 대한 동의도 2.26점으로 높았다. 한국 사회의 격차 축소에 대한 요구가 명확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는 소득격차, 소득격차 축소에 대한 정부 책임, 실업자에 대한 보호 필요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부패인식 및 빈곤 대응은 다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소득격차 및 이에 대한 정부 책임성의 인식은 이념 성향과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졌다.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소득격차 및 정부의 책임 수준이 크다고 인식하였고,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소득격차 및 정부의 책임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그림 6-6] 한국 사회 격차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을 역코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마. 부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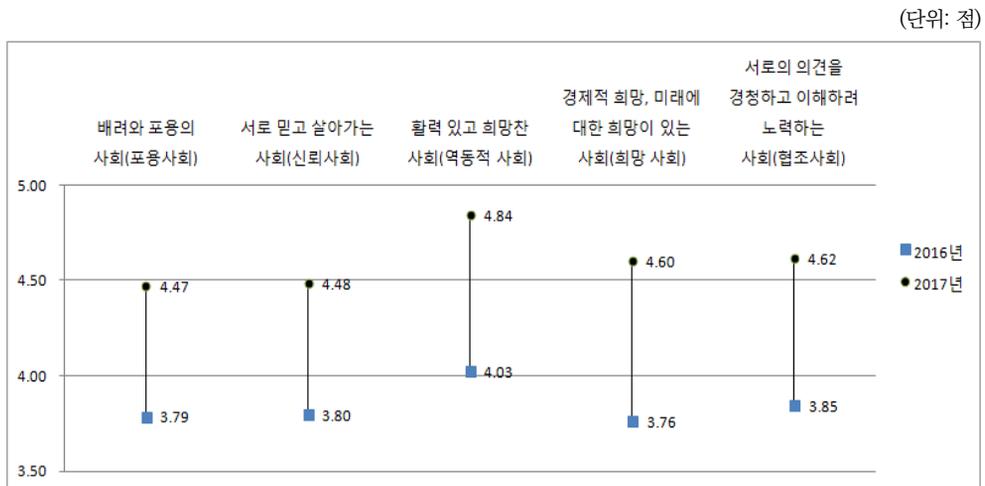
한국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는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4.54점)가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4.29점)보다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부패가 심하다고 인식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부패가 심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바. 사회통합 인식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2016년 4.18점에서 4.50점으로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그림 6-7]은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에 대한, 즉 한국 사회의 각 요소에 대한 평가에서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긍정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역동적 사회로의 평가와 희망 사회로의 평가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7]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자료: 2016년 결과는 정해식 등(2016, p. 48)을 재인용한 것이며, 2017년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2.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분석

가. 생애주기 위험

앞서 영역별 위험 인식 중 생애주기 관련 위험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 인식이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각각의 위험 인식에 개인 특성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표 6-4〉 개인 특성과 생애주기 위험 인식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성별 (남성=0)	0.067* (0.027)	0.066* (0.027)	0.074** (0.027)	0.074** (0.027)	0.082** (0.027)	0.077** (0.027)
연령대	0.077*** (0.011)	0.075*** (0.011)	0.075*** (0.011)	0.077*** (0.011)	0.073*** (0.011)	0.073*** (0.011)
학력	0.005 (0.022)	0.022 (0.022)	0.056* (0.022)	0.056* (0.022)	0.063** (0.022)	0.063** (0.022)
경제활동 (정규직)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비정규직	0.100* (0.044)	0.089* (0.044)	0.064 (0.044)	0.065 (0.044)	0.041 (0.044)	0.038 (0.043)
비임금근로자	0.072 (0.039)	0.068 (0.039)	0.084* (0.038)	0.085* (0.038)	0.078* (0.038)	0.077* (0.038)
미취업자	0.056 (0.035)	0.045 (0.036)	0.067 (0.035)	0.068 (0.035)	0.047 (0.035)	0.033 (0.035)
소득그룹		-0.033** (0.013)	0.014 (0.013)	0.014 (0.013)	0.023 (0.013)	0.025 (0.013)
주관적 소득계층			-0.178*** (0.018)	-0.178*** (0.018)	-0.147*** (0.018)	-0.134*** (0.018)
이념성향				0.007 (0.018)	0.006 (0.018)	0.010 (0.018)
박탈 점수					0.042*** (0.007)	0.035*** (0.007)
자각된 스트레스						0.024*** (0.004)
상수	2.650*** (0.086)	2.708*** (0.089)	2.923*** (0.090)	2.906*** (0.100)	2.766*** (0.102)	2.064*** (0.148)
사례수	3,839	3,835	3,835	3,835	3,835	3,835
adj. R-sq	0.022	0.024	0.048	0.048	0.056	0.067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6-4〉는 개인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 위험 인식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모델은 성, 연령, 학력 및 근로 형태 특성을 기본 모델로 하고, 소득수준, 주관적 소득계층, 이념성향, 박탈 점수, 자각된 스트레스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생애주기 불안에서는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근로 형태에서는 비정규직일수록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주관적 소득계층은 독립적이지 않아서 모델에 주관적 소득계층을 투입할 경우 소득의 생애주기별 위험 인식 설명력은 유의도를 상실하였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보다 불안감을 크게 느끼지만, 이것은 주관적 소득 계층을 투입할 때 유의성을 잃었다. 이런 점에서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당 부분 생애주기 위험 자체를 반영하여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념 성향은 생애주기 위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다. 박탈 점수가 높을수록 생애주기 위험에 대해 유의하게 높게 인식한다. 또한 자각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생애주기 위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다. 박탈 점수와 자각된 스트레스 점수를 모형에 투입할 경우 모델 전체의 설명력은 높아지고 주관적 소득계층의 위험 인식에 대한 영향력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나. 경제적 위험

〈표 6-5〉는 앞서 생애주기 위험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개인 특성 변수를 투입한 회귀 모델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앞서 생애주기 위험과 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은 경제적 위험 인식에 유의한 설명 요인이 되지 못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위험에 대한 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소득계층과 주관적 소득계층을 통제한 이후 모델인 모델 3 이하에서부터 학력이 높을수록 불안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 역시 기대 수준과 실제 수준의 과도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과 비임금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분석 모델에 투입되면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앞서와 같았다. 이 외에 박탈 점수가 낮을수록, 자각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5〉 개인 특성과 경제적 위험 인식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성별 (남성=0)	0.199*** (0.058)	0.197*** (0.058)	0.189** (0.058)	0.184** (0.058)	0.191*** (0.058)	0.188** (0.058)
연령대	-0.014 (0.023)	-0.010 (0.023)	-0.010 (0.023)	0.004 (0.024)	0.011 (0.024)	0.002 (0.024)
학력	0.007 (0.046)	-0.002 (0.048)	-0.041 (0.048)	-0.048 (0.048)	-0.043 (0.048)	-0.039 (0.048)
경제활동 (정규직)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비정규직	-0.199* (0.093)	-0.190* (0.094)	-0.162 (0.094)	-0.160 (0.094)	-0.153 (0.093)	-0.148 (0.093)
비임금 근로자	-0.010 (0.082)	-0.012 (0.082)	-0.030 (0.082)	-0.026 (0.082)	-0.018 (0.082)	-0.015 (0.082)
미취업자	-0.043 (0.075)	-0.025 (0.076)	-0.049 (0.076)	-0.044 (0.076)	-0.037 (0.076)	-0.035 (0.076)
소득그룹		0.037 (0.027)	-0.015 (0.029)	-0.016 (0.029)	-0.014 (0.029)	-0.015 (0.029)
주관적 소득계층			0.197*** (0.038)	0.197*** (0.038)	0.180*** (0.039)	0.170*** (0.039)
이념성향				0.077 (0.039)	0.078* (0.039)	0.080* (0.039)
박탈 점수					-0.096** (0.035)	-0.024 (0.045)
자각된 스트레스						-0.104* (0.042)
상수	4.272*** (0.183)	4.189*** (0.189)	3.951*** (0.194)	3.774*** (0.214)	4.054*** (0.236)	4.207*** (0.244)
사례수	3,839	3,835	3,835	3,835	3,835	3,835
adj. R-sq	0.003	0.003	0.010	0.011	0.012	0.01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표 6-6〉은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한국 사회가 더 통합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근로 형태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두드러지게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냈다. 그러나 근로 형태에 따른 차이는 주관적 소득계층이 투입되면서 유의도를 잃었다. 사회통합 인식은 생애주기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낮았으나, 경제적 위험 인식이 모형에 함께 투입될 경우에는 유의도를 잃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6-6〉 사회통합 인식의 설명 요인: 사회적 불안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성별 (남성=0)	0.199*** (0.058)	0.197*** (0.058)	0.189** (0.058)	0.184** (0.058)	0.191*** (0.058)	0.188** (0.058)
연령대	-0.014 (0.023)	-0.010 (0.023)	-0.010 (0.023)	0.004 (0.024)	0.011 (0.024)	0.002 (0.024)
학력	0.007 (0.046)	-0.002 (0.048)	-0.041 (0.048)	-0.048 (0.048)	-0.043 (0.048)	-0.039 (0.048)
경제활동 (정규직)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비정규직	-0.199* (0.093)	-0.190* (0.094)	-0.162 (0.094)	-0.160 (0.094)	-0.153 (0.093)	-0.148 (0.093)
비임금근로자	-0.010 (0.082)	-0.012 (0.082)	-0.030 (0.082)	-0.026 (0.082)	-0.018 (0.082)	-0.015 (0.082)
미취업자	-0.043 (0.075)	-0.025 (0.076)	-0.049 (0.076)	-0.044 (0.076)	-0.037 (0.076)	-0.035 (0.076)
소득그룹		0.037 (0.027)	-0.015 (0.029)	-0.016 (0.029)	-0.014 (0.029)	-0.015 (0.029)
주관적 소득계층			0.197*** (0.038)	0.197*** (0.038)	0.180*** (0.039)	0.170*** (0.039)
이념성향				0.077 (0.039)	0.078* (0.039)	0.080* (0.039)
생애주기 위험 인식					-0.096** (0.035)	-0.024 (0.045)
경제적 위험 인식						-0.104* (0.042)
상수	4.272*** (0.183)	4.189*** (0.189)	3.951*** (0.194)	3.774*** (0.214)	4.054*** (0.236)	4.207*** (0.244)
사례수	3,839	3,835	3,835	3,835	3,835	3,835
adj. R-sq	0.003	0.003	0.010	0.011	0.012	0.01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사회구조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에 대한 분석

〈표 6-7〉은 여러 형태의 사회구조 인식 중에서 특히 공정성 인식, 부패인식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¹⁹⁾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종속 변수로 놓고, 사회제도 인식을 독립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주관적 소득계층이 상층일수록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19) 다른 관측 변수인 경제적 갈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여기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제외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둘째, 절차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6-7〉 사회구조 인식(공정성 인식 관련)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성별 (남성=0)	0.167** (0.058)	0.156** (0.057)	0.154** (0.056)
연령대	-0.005 (0.024)	-0.001 (0.023)	-0.000 (0.023)
학력	-0.048 (0.047)	-0.004 (0.047)	0.019 (0.046)
경제활동 (정규직)	0.000 (.)	0.000 (.)	0.000 (.)
비정규직	-0.128 (0.093)	-0.119 (0.091)	-0.099 (0.090)
비임금근로자	0.009 (0.082)	0.000 (0.080)	0.022 (0.079)
미취업자	-0.010 (0.074)	-0.022 (0.073)	0.010 (0.072)
주관적 소득계층	0.124*** (0.036)	0.108** (0.036)	0.086* (0.035)
이념성향	0.069 (0.039)	0.076 (0.039)	0.090* (0.038)
분배 공정성 인식	-0.377*** (0.046)	-0.271*** (0.047)	-0.248*** (0.046)
절차 공정성1		-0.266*** (0.052)	-0.206*** (0.052)
절차 공정성2		-0.327*** (0.051)	-0.281*** (0.051)
부패인식			-0.602*** (0.062)
사례수	5.105***	6.888***	8.113***
adj. R-sq	(0.265)	(0.300)	(0.323)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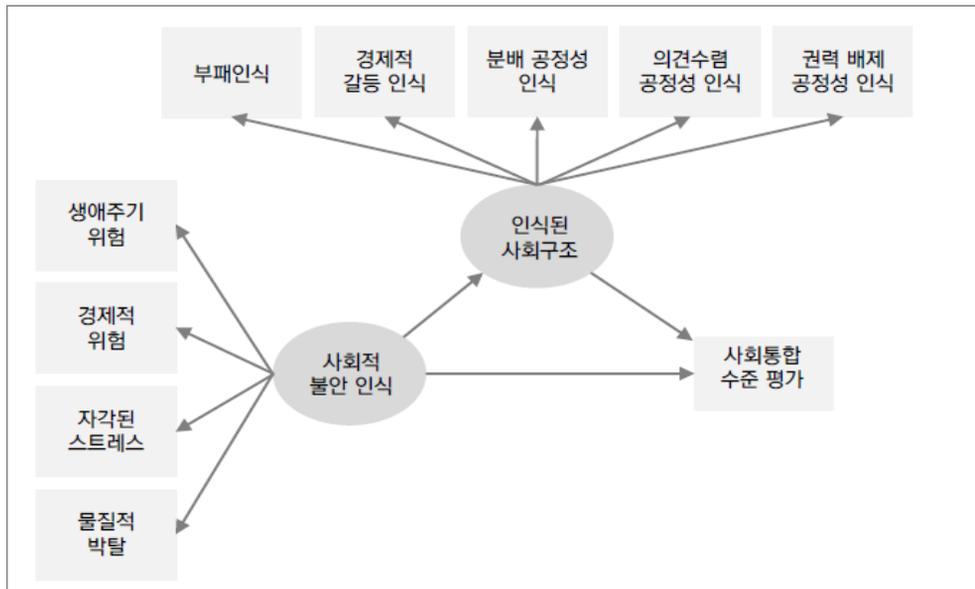
4.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 사회구조 인식의 영향 분석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한국 사회의 통합 정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런 평가는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부정적 평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즉 스스로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 따라 불안 인식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다. 만약 각 인식 간의 관계에서 이런 효과가 확인된다면 한국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고 있는 각종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 대응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제도의 운영 원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가. 연구 모형 설정

이상의 가설적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6-8]과 같은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6-8]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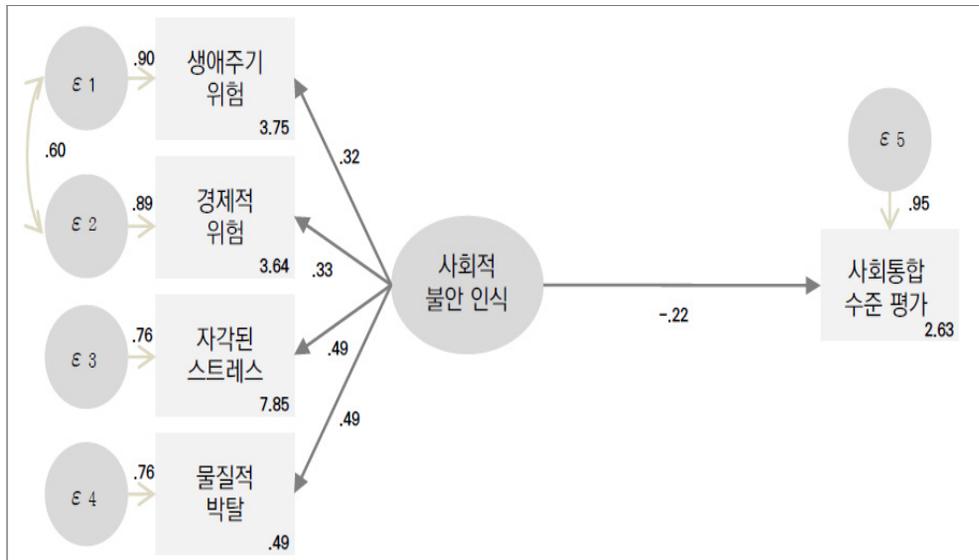
나. 단계별 구조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가정하고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생애주기 위험과 경제적 위험은 비록 분리하여 측정하였지만, 오차항의 공분산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인과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2 통계량이 9.0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절대적합지수(RMSEA) 및 증분적합지수(CFI, TLI)는 모두 수용 조건을 만족함에 따라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²⁰⁾

〈표 6-8〉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 인과모형의 모형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CFI	TLI
인과모형1	9.079(4) .059	.018	.998	.995

[그림 6-9]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의 인과모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인과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6-9]과 같으며,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애주기 위험을 높게 인식하고, 경제적 위험을 높게 인식

20) 이하 적합도 검증은 가중치가 없는 모형으로 산출하고, 경로계수 추정에는 가중치를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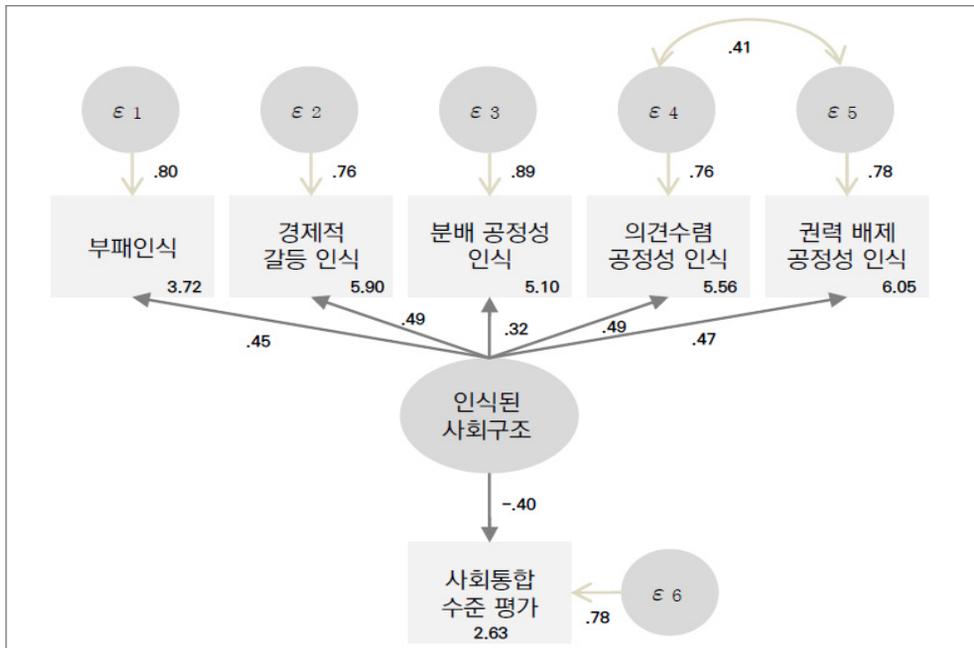
하며, 자각된 스트레스가 많고,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을수록 사회적 불안 정도가 높았다. 이렇게 사회적 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다음으로는 사회구조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간의 인과모형을 상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의견수렴 공정성 인식과 권력배제 공정성 인식 간에 오차항의 공분산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χ^2 통계량이 36.1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절대적합지수(RMSEA), 증분적합지수(CFI, TLI)는 수용 기준을 일부 만족함에 따라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6-9〉 사회구조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 인과모형의 모형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CFI	TLI
인과모형1	36.123(8) .000	.030	.989	.879

[그림 6-10] 사회구조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의 인과모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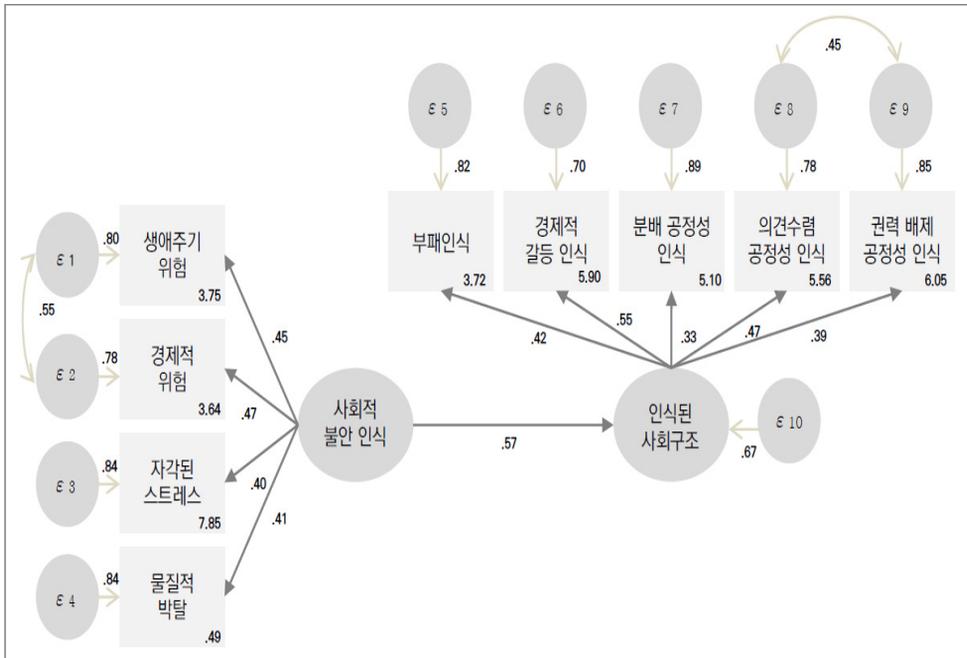
인과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6-10]과 같으며,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경제적 갈등이 심각하며, 분배가 공정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에서 의견 수렴과 권력 배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위험 인식과 사회구조 인식의 인과관계 모형의 적합도는 <표 6-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또한 인과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6-11]과 같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의 구조가 부패하고, 불공정하며,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6-10> 사회적 위험 인식과 사회구조 인식 인과모형의 모형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CFI	TLI
인과모형1	332.825(24) .000	.058	.940	.910

[그림 6-11]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구조 인식의 인과모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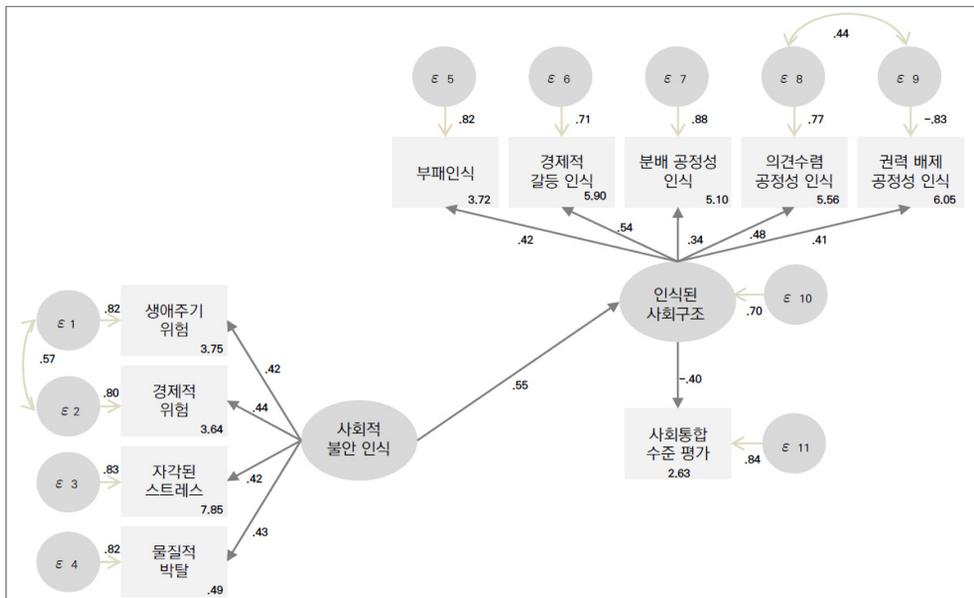
다. 연구모형 분석

단계별 구조모형 검증을 완료하고, 최종적인 연구 모형인 완전경로모형을 상정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사회통합 수준의 평가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표 6-11>과 같다. 이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χ^2 통계량이 377.6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절대적합지수(RMSEA), 증분적합지수(CFI, TLI)는 수용 기준을 일부 만족함에 따라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정된 완전경로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6-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11> 완전경로모형의 모형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CFI	TLI
완전경로모형	377.533(31) .000	.054	.937	.908
수정모형	377.603(32) .000	.053	.937	.911

[그림 6-12] 사회통합 수준 평가에 관한 수정된 경로모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의 관계의 경로모형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사회통합 수준 평가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그림 6-9]에서 제시하였던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의 대부분은 사회구조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할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동시에 사회구조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사회통합 인식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장에서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 및 사회적 자원이 사회적 불안의 정도를 결정하고, 한국 사회의 제도의 작동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위협에 대한 인식, 즉 사회적 불안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노후, 가족해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와 같은 생애주기 관련 위협에 대한 불안 정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졌으며, 고령일수록 높아졌다. 실업 및 빈곤, 주택 가격의 불안, 금융불안 및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생활 관련 위협에 대한 불안 정도 역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졌고, 고령일 경우 줄어들었다. 이러한 불안 인식은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매개로 하여 부정적 사회통합 평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실제의 위협보다 사회적 위협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식하고 불안해하는 집단은 개인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거나, 사회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에서는 사회 기능의 정상적 작동에 대한 인식-사회구조 인식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 관련 위협에 대한 불안과 경제생활 관련 위협에 대한 불안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속성이 여실히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애주기 위험에 대한 불안에 있어 주관적 소득 계층은 비정규직 근로 형태의 유의성, 소득집단의 유의성을 포괄한다. 즉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보다 불안감을 크게 느끼지만, 이것은 주관적 소득계층을 투입할 때 유의성을 잃는다. 박탈 점수가 높을수록, 자각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생애주기 위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불안의 정도가 높았으나, 이 경우에도 주관적 소득계층이 투입되면 영향력을 잃는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인 주관적 소득계층을 통제하더라도 불안의 정도가 높았다. 마찬가지로 박탈 점수가 낮을수록, 자각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안함의 정도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위험 인식이 투입될 경우에는 생애주기 위험 인식은 유의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셋째, 공정성 및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절차 공정성이 갖춰졌다고 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구조 인식은 사회적 위험 인식(사회적 불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회통합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불공정하고, 부패하여 그들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사회통합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요소별 통합 정도에 대하여 지난 2017년에는 우리 국민의 긍정적 평가가 늘었다. 배려와 포용의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라는 평가는 각각 0.68점 상승했으며,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라는 평가는 0.81점,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라는 평가는 0.84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라는 평가는 0.77점 상승했다. 이 외에도 2015년 6.0점으로 최저점을 보였던 행복도는 2016년 6.5점, 2017년에는 6.7점으로 상승했으며, 삶의 만족도도 2015년 5.7점에서 2016년 6.2점, 2017년 6.3점으로 상승 국면으로 반전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평가 반전에는 2015년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불안이 광범위하게 펼쳐졌다. 동시에 사회제도가 이러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모든 집단에서 행복도가 하락하였다(정해식, 우선희, 2017). 동시에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이동성의 저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두드러졌던 시기이다.

한국 사회의 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객관적 여건의 개선이 절실하다.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성의 축소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통합 증진, 특히 인식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살 만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불안 요소에 대한 직접적 개입 외에도 사회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가 부패하였다고 인식하고, 분배 결과 및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한국 사회의 통합 정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인식적 차원의 개선을 위한 시도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다시금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그것이 사회적 응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다시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불신, 불만의 사회에서는 특정 제도의 변화가 누구를 위해 이득이 될 것인지를 주로 평가하게 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여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을 더디게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7년의 조사 결과가 우리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박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사회보장을 통한 인식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보여 주는 공정성의 측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임을 이 연구의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제 7 장

결론 및 연구 함의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요약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국민 인식’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들은 인식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에서의 괴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불안의 요소를 실제로 경험한 이들은 적었지만, 불안해하는 사람은 많았다. 사회적 배제에 대해서도 실제의 배제가 발생한 것보다 배제의 우려에 대한 걱정이 컸다. 즉 우리 국민들은 과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실제와 인식의 차이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 평가와 타인에 대한 판단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의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수준은 어떠한지, 갈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불안, 불만, 불신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인의 불안 정도를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정신건강 수준의 측정, 그리고 그러한 정신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가 현재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이 구조적인 수준이라면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개인의 내재적인 속성을 강화하는 것도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각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통합의 관점은 사회구조와 사회 구성원의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 접근을 취한다. 지금까지 사회통합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와 사회구성원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이동성의 제고, 사회적 격차의 축소, 사회갈등 관리 기능의 활성화가 그러한 것들이다. 2017년의 이 연구는 사회구조와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따라 구성원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사회의 비정상적인 작동 상황에서 구성원은 어떤 충격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3장에서는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한 다양한 사건, 사고, 재난은 트라우마 경험을 만들어 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 역시 불가피하게 트라우마 경험을 만들어 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급격한 노령화의 문제 등에 따른 세대 구성의 재편은 우리 사회의 예정된 변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며, 사회와 구성원 간의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통합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우울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할 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여부,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생각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여부,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자살생각이 크게 늘지 않았다. 실직, 노령화에 따른 질환 발생 및 유병, 가족의 상실 등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가지는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닌 최근 강조되는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물질적 박탈, 즉 배제의 정도는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정신건강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재화의 소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4장에서는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질적 박탈의 영역별로-기초생활, 주거, 의료, 미래 대비, 절대 박탈의 차원-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으며, 특히 정책적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지지)의 확보를 고려하기 위해 박탈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자본(지지)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질적 박탈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우울 수준을 설명하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14%→21.3%로 설명력 향상). 한편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

울의 수준이 낮았다. 그렇지만 박탈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는 박탈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지는 못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미약하게나마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노년기에는 박탈의 수준이 다소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강하면 우울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적 박탈, 실업 등 개인이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따라서 갈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개인이 경험한 갈등과 그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3장의 분석에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전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개인의 갈등 인식이나 갈등 경험이 우울,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취약성, 갈등 경험, 정신건강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사회갈등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일 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같은 사회병리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이, 중장년이, 고학력 집단일수록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갈등의 경험 원인은 정치적 견해, 세대, 문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갈등 경험도 많았다. 한편 빈곤,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처할수록 갈등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갈등 경험은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취업 또는 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 크게 경제적 요인과 가사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정신건강 지표로서 자아탄력성은 빈곤, 비자발적 실업 경험, 실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집단의 자아탄력성이 낮았다. 스트레스는 빈곤층, 실업 경험 집단에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도 빈곤층, 실업 경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나 스트레스에 비해 우울은 빈곤, 실업 경험, 실업 기간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된 경우 갈등 인식과 경험이 악화되었다. 또한 취약성에 노출된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갈등 경험과 정신건강을 매개로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속성이 여실히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애주기 위험에 대한 불안에 있어 주관적 소득 계층은 비정규직 근로 형태의 유의성, 소득집단의 유의성을 포괄한다. 즉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보다 불안감을 크게 느끼지만, 이것은 주관적 소득 계층이 투입할 때 유의성을 잃는다. 박탈 점수가 높을수록, 자각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생애주기 위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불안의 정도가 높았으나, 이 경우에도 주관적 소득계층이 투입되면 영향력을 잃는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인 주관적 소득계층을 통제하더라도 불안의 정도가 높았다. 마찬가지로 박탈 점수가 낮을수록, 자각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경제적 위험에 대해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함의 정도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위험 인식이 투입될 경우에는 생애주기 위험 인식은 유의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공정성 및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절차 공정성이 갖춰졌다고 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작동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위험 인식(사회적 불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회통합 평가의 경로에 있었다. 즉 사회적 위험에 대해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불공정하고, 부패하여 그들의 위험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통합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정책적 함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물질적 격차의 축소 등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그리고 박탈의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우울할 가능성,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외상이 발생한 초기에 위기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세월호 사고와 같이 외상의 경험이 외부로 드러나 초기에 위기 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등 외상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아 초기 위기 개입이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트라우마 경험에 조기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외상의 경험이 외부로 드러나 초기에 위기 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조기 개입은 불가능하므로 조기 개입 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즉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대중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정신보건 및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생활 경험을 한 대상자들에게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경험자들을 모니터링하여 치료나 개입의 영역으로 연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아탄력성 역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입 프로그램도 강화하여야 한다.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보장, 건강보장, 서비스보장을 아우르는 생활보장의 차원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복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지지는 모두 정신건강, 즉 우울과 자살생각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질병에 대한 보장률을 높이며, 돌봄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기존 가족 역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줄 때 개인의 정신건강, 나아가 사회의 통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연령에 따라 개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영향도가 상당히 달리 나타난다.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갈등이나 정신건강과 같은 사회문제는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인별 갈등에

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가족 내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득재분배 등의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실천적 접근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사회의 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성의 축소와 같은 객관적 여건의 개선이 절실하며, 이는 정책제언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바이다. 한편 인식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살 만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불안 요소에 대한 직접적 개입 외에도 사회제도,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은 사회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사회적 불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런 평가에 따라 사회통합이 낮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제도 운영의 질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정책 제언

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 강화

사회의 지속성과 조화를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한국 사회가 보여 주는 아노미적 상황은 사회병리적 현상이다. 그리고 만연한 사회병리적 현상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문제임을 고려하면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는 분명하다. 이 경우 사회병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사회제도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심리적 감정 상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위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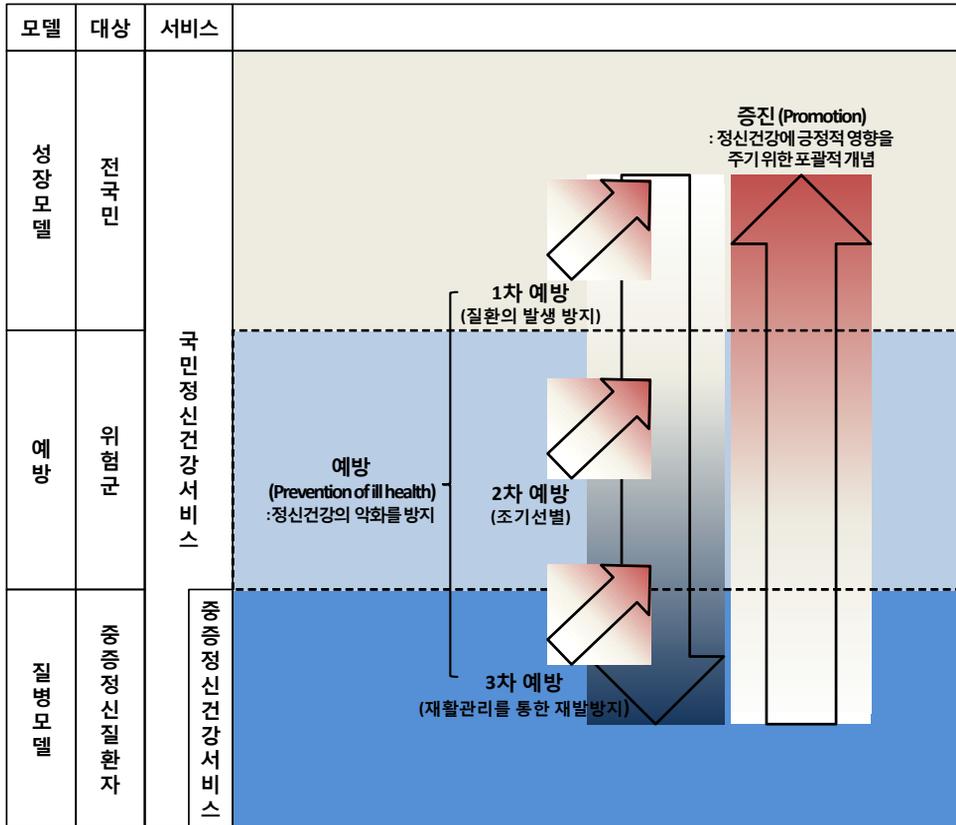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을 2016년 제정(전부개정)해 2017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정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중증정신질환자의 복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두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법에 따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 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의 연계가 포함된다. 또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

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정신건강복지법, 2016, 제7조).

이에 앞서 2013년 OECD 조사 및 권고안은 높은 자살률, 문제 음주율, 도박 및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및 왕따 등의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스트레스 지수가 전 연령대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 지표들과 내재된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을 우선 이해하고,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 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해소하며, 마지막으로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늘려 현존하는 치료 간극을 줄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태희, 양용준, 2013, pp. 237-238).

이렇듯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필요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의 두 가지 요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요구되고 있다(강상경 등, 2016, p. 136). 실제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은 서비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예방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사업에 그만큼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상경 등, 2016, p. 74). 그러나 동시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은 과거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설립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까지도 포괄하는 형태로 업무 영역이 확장됨에 따른 혼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강상경 등, 2016, p. 136).

[그림 7-1] 예방-증진 개념의 도식화



자료: 강상경 등. (2016).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연구. p. 31.

앞서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 문제가 사회제도적 차원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 측면에서도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보다는 정신건강의 관리 능력 자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제 상황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은 다시 두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증진이고, 다른 하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예방이다.

강상경(2013)은 증진(promotion)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안녕 및 행복감 증진을 목표로 하는 반면, 예방(prevention)은 위험군·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사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를 구분하고 있다(강상경 등, 2016, p. 30에서 재인용). [그림 7-1]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악화를 예방하거나, 취약 집단에 대한 조기 개입을 예방 모델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조기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정신건강 상황에 대한 개입 장치로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트라우마 센터의 기능은 강상경 등(2016)이 제안한 국민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 및 확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중앙이나 광역 단위에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고, 지진과 같은 재난을 경험한 지역에 센터 인력들이 투입되어 대응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련 인력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증진 모델로 나아가는 데는 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특정 사안의 경험 지역에 우선적으로 트라우마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기관(가칭 ‘마음건강통합지원센터’)을 설치하고, 이를 향후 확대해 가는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실천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하며, 심리학에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 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김주환, 2011). 사회생태계 역시 위기에 맞서 회복탄력성을 가진다. 이때 사회는 단순히 원래 상태로의 복귀만이 아니라 위기 이전 상태의 안정성(stability)과 변화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adaptability)을 확보하여 어느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준의 사회생태적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Walker et al., 2014; Folke et al., 2010; 구혜란, 2013, p. 38에서 재인용).

높은 수준의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와 복지 등 사회제도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져야 한다. 복지제도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지출 확대 등의 반경기적 개입을 시도한다. 그러나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복지제도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능력이 낮아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다. 사회 구성원 각각의 능력과 이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사회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역량 또한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구혜란(2013, p. 38)은 국제 금융 위기와 함께 촉발된 그리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복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나 복지제도 개혁뿐 아니라 정치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 역시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 김호기(2014)는 한국이 사회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잃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청년 실업, 비정규직, 소득 양극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빈곤과 실업에 대한 경제적 대응 외에도 이에 따른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족 내 갈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도 가사분담이나 양육의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함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 수준의 회복탄력성 외에도 사회구성원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실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앞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그 일환일 것이다.

다. 사회갈등의 원인 진단과 선제적 대응

우리사회의 공정성 및 부패 인식 수준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절차 공정성이 갖춰졌다고 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공정성 인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갈등의 소지를 명확히 표현한다.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성의 축소 외에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이 경험하고 있는 각종 사회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의 갈등 관리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 인지를 짚어 봐야 한다.

참고문헌 <<

- 강상경, 권태연.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332-355.
- 강상경, 금현섭, 김경희, 김동일, 이명수, 하경희 등. (2016).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 강상경. (2013). 한국 정신보건서비스의 전개과정: 사회서비스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강세현. (2002). 사회병리학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 논의. 논문집, 26. 제주한라대학.
- 강현아. (2013). 청소년의 누적 위험 요인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9), 175-197.
- 구혜란. (2013). 그리스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회복탄력성. 국제·지역연구, 22(3), 17-43.
- Giddens, A. (2012). Sociology. (김미숙, 김용학, 박길성, 송호근, 신광영, 유홍준, 정성호 역).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4), 1041-1061.
- 김동배, 유병선, 이정은. (2012). 노인의 건강불평등: 교육불평등에 따른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3(1), 117-142.
- 김명언. (2005). 정부정책의 공정성. 석현호 외(공저),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의식의 변화. (215-23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경. (2012).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1), 1-13.
- 김병, 김용준, 박무일, 염동문, 이은정, 이인순 등. (2010).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상원. (2010). 사회적 지원과 일탈: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4(3), 81-95.
- 김승섭. (2017).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영란. (2011). 한국의 사회적 위험구조 -위험의 민주화 또는 위험의 계급화?. 담론201, 14(3), 57-88.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 김주희, 송인한, 유정원. (2015).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5(3), 42-70.
- 김창엽, 김명희. (2003).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 한국인의 주요 상병 및 건강행태 분석: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부문 심층 분석 결과. 최정수 편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69-498.
- 김태희, 양용준. (2013). 한국인의 정신건강: 2013년 OECD 조사 및 권고안 요약본 번역 (Korean Translation of 'Mental Health in Korea: OECD Review and Recommendations 2013 Summary'). 가정의학, 3(3), 236-239.
- 김한나, 김혜련, 최윤신. (2011).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5), 117-129.
- 김호기. (2014). 사회의 회복탄력성. 한국일보(2014.12.22.).
- 김호기, 고동현, 김영범, 최성수. (2015). 한국사회 계층갈등과 해소방안 연구. 국민대통합위원회.
- 남은영. (2015). 사회적 위험과 국민인식: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5(3), 7-22.
- 노대명, 강신욱, 전지현. (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노대명. (2009).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4), 6-19.
- 노대명, 이현주, 강신욱, 강은정, 전지현, 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교훈. (1974). 현대가족의 병리학. 사회학 논평.
- 박경. (2007). 여고생의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여성건강, 8(1), 1-22.
- 박세홍, 김창엽, 신영전. (2009).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우울감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27, 79-120.
- 박은혜, 이민규. (2016).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과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3), 623-640.
- 박효민, 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이론, 27, 219-260.
- 성준모. (2013).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경제 요인: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 회귀분석. 사회과학연구, 24(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7-228.
- 송리라, 이민아. (2016).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인구학, 39(2), 1-24.
- 신동준. (2004).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머튼의 아노미이론 검증을 위한 국가 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8(4), 33-71.
- 신진욱. (2007). 공공성과 한국사회. 시민과세계, 11, 18-39.

- 신학진. (2014). 노인의 질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빈곤의 조절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14년 2호).
- 양보람. (2013). 한국사회의 우울증 담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우선희 등.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서울: 국민대 통합위원회.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 등. (2007). 2007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등. (2015).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권 3호, 59-77.
- 윤명숙, 김서현. (2012). 대학생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2), 5-32.
- 이상영, 정진욱, 송태민, 손명구, 김영택, 한소현 등. (2013).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원인과 원인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영, 정진욱, 황도경, 손창균, 윤시몬, 채수미 등. (2015).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현. (2004). 현대 사회병리학의 이론과 그 과제. 한국경찰학회보, 8, 135-151.
-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2), 29-57.
- 이웅, 임란. (2014).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4), 93-122.
- 이윤주. (2017. 10. 9.). 2017 한국 소설 키워드는 '불안'... 저변엔 세월호. 한국일보.
- 이종하, 신철민, 고영훈, 임재형, 조숙행, 김승현 등. (2012).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정신신체의학, 20(2), 127-134.
- 이현정. (2012). 1991~2010년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우울증 담론의 변화와 그 문화적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45(1), 43-88.
- 임정숙, 윤명숙. (2014).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1), 31-60.
- 장덕진, 조병희, 이재열, 구혜란, 김지영, 고동현 등. (2015).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 한올아카데미.

- 장지연, 안재진. (2013). 빈곤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정 내 부부갈등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Vol.42, 1-28.
- 전상진. (2006). 통합은 사회 갈등과 문제의 해결책? 통합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229-256.
- 정무권. (2012). 위험사회론과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 사회적 위험의 거시적 연구를 위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195-22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24호 (2016).
- 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2017).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가중치 적용 방법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4), 370-405.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유진영, 김성아. (2014).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안상훈. (2015). 사회적 응집성: 현실과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편),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95-127)*.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정해식,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우선희. (2017). 주관적 안녕의 추이와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복지국가와 국민 행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조영주. (2016).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실존적 안녕, 우울 및 자살 사고의 관계: 6주 단기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01-827.
- 최수미. (2015). 외상 사건 후 PTSD 예방을 위한 치료적 개입 및 모델의 동향분석. *상담학연구*, 16(3), 537-556.
- 최일섭, 최성재 (공편) (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최정미, 이숙.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6(4), 71-81.
- 통계청. (2017. 2). 청년 고용동향. <http://www.index.go.kr>. 2017. 10. 11. 인출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건강 형평성 측정 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허종호, 조영태, 권순만. (2010).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4(2), 93-120.
- Beauvais, C. & Jenson, J. (2002). Social Cohesion: Updating the State of the Research. *CPRN Discussion Paper No. F|22*.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
- Beck, W., van der Maesen, L. J. G. & Walker, A. (2001). Theorizing Social Quality: The Concept's Validity. In W. Beck, L. J. G. van der Maesen, F. ThoméseandA. Walker (Eds.),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pp. 305-351). The Hague: Kluwer Law and Taxation Pulbishers.
- Berger-Schmitt, R. (2000).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uality of Societies: Concept and Measurement. *EuReporting Working Paper*, No. 14.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ZUMA). Center for Survey Reseach and Methodology.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58-167.
- Bonanno G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 Psychol*, 59, 20-28.
- Bonoli, G. (2005). The politics of the new social policies: providing coverage
- Cohen, S., Kamarck, T., and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6-396.
- Bursik, R. J. & Grasmick, H. G.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New York: Lexington Books.
- Calandrino, Michele. (2003). Low-income and Deprivation in British families, A study carried out on behalf of DWP, *Working paper* No.10.
-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0). Social Cohesion in Canada: Possible Indicators. Social Cohesion Network,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SRA-543.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6-396.
- Copeland, W. E., Keeler, G., Angold, A. & Costello, E. J. (2007).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in Childhood. *Archives of Geneneral Psychiatry*, 64(5), 577-584.
- Council of Europe. (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Belgium: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Deaton, A. (2001). Relative Deprivation, Inequality, and Mortality. *NBER Working Paper*. NO. 8099.
- Durkheim, É. (1893).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New York: Free Press.
- Elliott, M. A. Merrill, F. F. (1950). *Social Disorganization*, 3rd ed., Harper & Brother, 4.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lke, C., S. R. Carpenter, B. Walker, et al. (2010). Resilience Thinking: Integration Resilience, Adaptability and Transformability. *Ecology and Society*, 15(4). 20.
- Gershoff, E. T., J. L. Aber, C. C. Raver, & M. C. Lennon.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1), 70-95.
- Jenson, J. (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CPRN Study*, No. 03.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Inc. against new social risks in mature welfare states. *Policy & Politics*, 33(3), 431-449.
- Kavolis, Vytautas. (1981). A Universal Criterion of Pathology. In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Five Perspectives*, Third edition. edited by Earl Rubington and Martin S. Weinber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nderman, P., Schwannauer, M., Pontin, E., & Tai, S. (2013). Psychological Processes Mediate the Impact of Familial Risk, Social Circumstances and Life Events on Mental Health. *PLoS ONE* 8(10); e76564.
- Krechel, R. (1999).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J. T. Marcus (Ed.),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Social Philosophy from the Frankfurt School to the Columbia Faculty Seminars*, 85-95.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Leventhal, Gerald S. (1980). What Should Be Done with Equity Theory?, 27-55 in *Social Exchange*. edited by K. Gergen, M. Greenberg and R. Willis, New York, NY: Springer.
- Lockwood, D. (1964).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G. K. Zollschan and W. Hirsch (Eds.), *Social Change: Explorations, Diagnoses and Conjectures*, 244-257. London: Routledge.
- Lockwood, D. (1999). Civic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In I. Gough and G. Olofsson (Eds.), *Capitalism and Social Cohesion* (63-84). Hampshire:

- Macmillan Press Ltd.
- Nisbet, Robert A. (1965). *Emile Durkheim*.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5). *OECD Health Statistics 2015*. OECD.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 A spotlight on youth*. OECD.
- Ogle, C. M., Rubin, D. C., & Siegler, I. C. (2014). *Cumulative exposure to traumatic events in older adults. Aging & Mental Health*.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later, Philip. (1981). The Pursuit of Loneliness. In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Five Perspectives*, Third edition.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role, Leo. (1956). Social Integration and Certain Corolla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 Stuckler D, Basu S, Suhrcke M, Coutts A, Mckee M. (2009). the public health effect of economic crises and alternative policy responses in Europe: an empirical analysis. *The Lancet* 374(9686), 315-323.
- Suliman, S., Mkabile, S. G., Fincham, D. S., Ahmed, R., Stein, D. J. & Seedat, S. (2009). Cumulative Effect of Multiple Trauma on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xie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Comprehensive Psychiatry*, 50(2), 121-127.
- UN ECLAC. (2007). *Social Cohesion: Inclusion and a sense of belonging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antiago, Chile: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UN]. (1994). Social Integration: Approaches and Issues. *UNRISD Briefing Paper*, No. 1.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Van Gool, K., & M. Pearson. (2014). *Health, Austerity and Economic Crisis Assessing the Short-term Impact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76. OECD Publishing, Paris.
- Walker, B, H., C. S. Holling, S. R. Carpenter, & A. Kinzig. (2004). Resilience,

adaptability and transformability in social-ecological systems. *Ecology and society*, 9(2), 5.

Yehuda, R. (2002).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6(2), 108-114.

[부록 1]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 설계

1. 표본 설계

가. 모집단 정의

- 목표 모집단: 2017년 5월 현재 대한민국 거주 가구
- 조사 모집단: 2015년 집계구
- 추출틀: 2015년 집계구 리스트

<부표 1-1> 2015년 집계구 분포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7,690	11,755	0	0	19,445
부산	1,769	4,811	51	246	6,877
대구	1,587	3,020	111	253	4,971
인천	1,810	3,774	183	27	5,794
광주	829	2,248	0	0	3,077
대전	1,053	2,073	0	0	3,126
울산	398	1,485	133	289	2,305
세종	14	204	92	102	412
경기	6,541	13,934	1,959	2,017	24,451
강원	523	1,327	733	481	3,064
충북	585	1,314	713	543	3,155
충남	492	1,359	1,457	923	4,231
전북	788	1,857	854	267	3,766
전남	428	1,153	1,883	648	4,112
경북	744	2,152	1,571	924	5,391
경남	1,126	3,282	1,281	1,096	6,785
제주	306	592	317	42	1,257
계	26,683	56,340	11,338	7,858	102,219

〈부표 1-2〉 가구 및 인구 분포

구 분	가 구			인 구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서울	3,784,490	0	3,784,490	9,444,796	0	9,444,796
부산	1,281,902	53,998	1,335,900	3,215,602	144,344	3,359,946
대구	862,070	66,458	928,528	2,220,861	181,885	2,402,746
인천	1,011,279	34,138	1,045,417	2,704,901	78,664	2,783,565
광주	567,157	0	567,157	1,461,127	0	1,461,127
대전	582,504	0	582,504	1,499,520	0	1,499,520
울산	345,360	78,052	423,412	911,330	209,195	1,120,525
세종	34,916	40,303	75,219	99,456	98,195	197,651
경기	3,640,083	744,659	4,384,742	9,893,597	1,975,441	11,869,038
강원	361,679	244,438	606,117	897,464	577,860	1,475,324
충북	352,665	249,190	601,855	924,964	604,015	1,528,979
충남	349,217	446,968	796,185	903,907	1,108,585	2,012,492
전북	493,421	223,890	717,311	1,263,519	518,772	1,782,291
전남	297,164	423,448	720,612	761,517	979,982	1,741,499
경북	553,218	509,507	1,062,725	1,401,455	1,188,589	2,590,044
경남	809,720	448,767	1,258,487	2,114,217	1,085,990	3,200,207
제주	161,092	59,277	220,369	431,296	151,343	582,639
계	15,487,937	3,623,093	19,111,030	40,149,529	8,902,860	49,052,389

〈부표 1-3〉 집계구 유형별 주택 분포

구 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1,242,619	1,593,551	0	0	2,836,170
부산	413,996	657,285	13532	36346	1,121,159
대구	213,519	444,921	17241	42521	718,202
인천	344,263	555,187	27339	2313	929,102
광주	111,368	356,337	0	0	467,705
대전	131,474	318,610	0	0	450,084
울산	76,018	196,472	26465	42425	341,380
세종	931	34,036	18382	13190	66,539
경기	893,858	2,123,454	370289	297422	3,685,023
강원	94,923	207,080	162091	54845	518,939
충북	83,796	203,654	152672	72097	512,219
충남	81,180	208,878	275184	133529	698,771
전북	118,209	296,037	176374	31958	622,578
전남	82,650	183,263	314380	79451	659,744
경북	156,481	292,568	346780	110159	905,988
경남	199,965	451,242	274224	139345	1,064,776
제주	77,560	53,981	49848	2328	183,717
계	4,322,810	8,176,556	2224801	1057929	15,782,096

〈부표 1-4〉 주택 유형별 분포

구분	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영업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 거처	계
서울	626,039	350,921	1,593,551	111,960	17,576	136,123	2,836,170
부산	126,071	216,163	693,631	28,085	9,355	47,854	1,121,159
대구	49,625	152,192	487,442	8,564	7,571	12,808	718,202
인천	212,250	97,422	557,500	19,432	4,665	37,833	929,102
광주	6,833	84,892	356,337	6,470	3,930	9,243	467,705
대전	30,635	79,477	318,610	8,756	3,277	9,329	450,084
울산	20,435	64,506	238,897	6,318	4,842	6,382	341,380
세종	959	15,114	47,226	723	502	2,015	66,539
경기	497,253	485,375	2,420,876	112,270	20,419	148,830	3,685,023
강원	8,198	214,747	261,925	15,893	7,668	10,508	518,939
충북	14,461	189,692	275,751	13,357	6,754	12,204	512,219
충남	29,697	282,419	342,407	16,283	7,014	20,951	698,771
전북	9,634	254,808	327,995	11,683	6,723	11,735	622,578
전남	7,251	352,417	262,714	11,094	8,400	17,868	659,744
경북	37,096	409,560	402,727	22,207	11,695	22,703	905,988
경남	30,641	377,833	590,587	21,683	10,877	33,155	1,064,776
제주	20,913	80,034	56,309	14,890	3,227	8,344	183,717
계	1,727,991	3,707,572	9,234,485	429,668	134,495	547,885	15,782,096

〈부표 1-5〉 주택 유형별 분포-동부

구분	동부						소계
	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영업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 거처	
서울	626,039	350,921	1,593,551	111,960	17,576	136,123	2,836,170
부산	123,206	208,522	657,285	26,907	8,971	46,390	1,071,281
대구	47,880	139,947	444,921	7,987	6,878	10,827	658,440
인천	209,191	75,810	555,187	18,406	4,231	36,625	899,450
광주	6,833	84,892	356,337	6,470	3,930	9,243	467,705
대전	30,635	79,477	318,610	8,756	3,277	9,329	450,084
울산	17,383	44,777	196,472	5,254	3,893	4,711	272,490
세종	0	47	34,036	12	0	872	34,967
경기	419,006	262,593	2,123,454	86,461	12,966	112,832	3,017,312
강원	3,889	74,258	207,080	8,892	3,756	4,128	302,003
충북	7,617	60,915	203,654	7,274	4,287	3,703	287,450
충남	15,353	45,951	208,878	7,128	3,198	9,550	290,058
전북	8,042	90,131	296,037	9,264	5,155	5,617	414,246
전남	3,622	62,213	183,263	5,305	4,880	6,630	265,913
경북	24,593	101,865	292,568	14,358	7,252	8,413	449,049
경남	23,657	133,668	451,242	15,520	6,808	20,312	651,207
제주	19,102	38,998	53,981	11,233	2,297	5,930	131,541
계	1,586,048	1,854,985	8,176,556	351,187	99,355	431,235	12,499,366

〈부표 1-6〉 주택 유형별 분포-읍면부

구분	읍면부						소계
	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영업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 거처	
서울	0	0	0	0	0	0	0
부산	2,865	7,641	36,346	1,178	384	1,464	49,878
대구	1,745	12,245	42,521	577	693	1,981	59,762
인천	3,059	21,612	2,313	1,026	434	1,208	29,652
광주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울산	3,052	19,729	42,425	1,064	949	1,671	68,890
세종	959	15,067	13,190	711	502	1,143	31,572
경기	78,247	222,782	297,422	25,809	7,453	35,998	667,711
강원	4,309	140,489	54,845	7,001	3,912	6,380	216,936
충북	6,844	128,777	72,097	6,083	2,467	8,501	224,769
충남	14,344	236,468	133,529	9,155	3,816	11,401	408,713
전북	1,592	164,677	31,958	2,419	1,568	6,118	208,332
전남	3,629	290,204	79,451	5,789	3,520	11,238	393,831
경북	12,503	307,695	110,159	7,849	4,443	14,290	456,939
경남	6,984	244,165	139,345	6,163	4,069	12,843	413,569
제주	1,811	41,036	2,328	3,657	930	2,414	52,176
계	141,943	1,852,587	1,057,929	78,481	35,140	116,650	3,282,730

나. 표본 규모 및 배분

□ 표본 배분 방법

○ 방안1 - 집계구 수에 대한 제곱근 비례배분

○ 방안2 - 층별 주택수의 변동에 따른 네이만 배분

- 방안1은 시도별 표본 규모의 편차가 고른 반면에 방안2는 시도별 표본 규모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시도별 표본 규모의 편차가 적은 방안1로 결정함.

N : 모집단 총 집계구 수($=\sum_{h=1}^H N_h$)

N_h : h 층의 모집단 집계구 수

n_h : h 층의 표본 집계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총 가구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 내 표본 가구수

x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 내 j 번째 표본 가구에서 만 18세 이상 가구원 수

r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응답 가구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 가중치

w_{hi}^r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

w_{hij}^p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사후 가중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최종 가중치

① h 층의 j 번째 집계구의 i 번째 가구의 기본 가중치

$$w_{hij} = \frac{M_{hi}}{m_{hi}} \times x_{hij} \quad (1)$$

② 무응답 조정 가중치

$$w_{hij}^r = w_{hij} \times \frac{m_{hi}}{r_{hi}} \quad (3)$$

③ 최종 가중치

$$W_{hij} = w_{hi}^r \times w_{hij}^p \quad (4)$$

□ 추정치의 계산

○ 평균 소득 및 지출

$$\widehat{Y} = \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 / W_{\dots} \quad (5)$$

여기서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이며, h 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지역과 동부, 읍면부를 나타낸다. i 는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이다.

○ 표본평균 \hat{Y} 의 분산 추정치

$$\hat{V}(\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6)$$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Y}) \right) / W_{h..}$,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SE(\hat{Y}) = \sqrt{\hat{V}(\hat{Y})}$$

○ 상대표준오차

$$\widehat{CV}(\hat{Y}) = \frac{SE(\hat{Y})}{\hat{Y}} \times 100\% \quad (7)$$

<부표 1-7>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1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1	26	0	0	47
부산	10	17	2	4	33
대구	9	13	3	4	29
인천	10	15	3	0	28
광주	7	11	0	0	18
대전	8	11	0	0	19
울산	5	9	3	4	21
세종	1	3	2	2	8
경기	19	28	11	11	69
강원	5	9	6	5	25
충북	6	9	6	6	27
충남	5	9	9	7	30
전북	7	10	7	4	28
전남	5	8	10	6	29
경북	7	11	9	7	34
경남	8	14	9	8	39
제주	4	6	4	2	16
계	137	209	84	70	500

〈부표 1-8〉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2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33	66	0	0	99
부산	9	28	0	2	39
대구	6	15	0	1	22
인천	10	17	1	0	28
광주	4	10	0	0	14
대전	4	9	0	0	13
울산	1	7	1	1	10
세종	0	1	0	1	2
경기	40	56	9	9	114
강원	2	6	3	3	14
충북	2	7	3	3	15
충남	2	6	7	5	20
전북	3	9	4	2	18
전남	2	6	13	4	25
경북	3	11	7	5	26
경남	5	16	7	6	34
제주	1	3	2	1	7
계	127	273	57	43	500

□ 표본 집계구 대체

- 경기도의 3개 집계구와 강원도의 2개 집계구에 대해 별장 지역, 공장 지역 등의 문제로 동일 지역 내에서 5개 집계구를 대체함.

□ 가구 내 응답자의 선정 방법

- 이 조사는 표본 가구 내에서 대표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대표 가구원의 선정은 Kish(1970)에 의해 제안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사 현장에서 조사원의 방법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생일법(last birthday)’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즉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가구원 중 가장 근접한 시점의 생일인 가구원을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을 적용함.
 - 이 연구에서는 가구원 각각의 생일 및 조사일을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따라 ‘빠른 생일법’을 이용하였음. 즉 가구 내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대상으로 함(2017년 5월 현재 만 18~75세).

- 예를 들어 가구주 및 배우자 2인과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대표 가구원 선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되며, 이들 2명 중 조사 시점 기준으로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임.
-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최근 생일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응답 가구원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

2. 가중치 조정 과정

가. 가중치 조정 과정의 개요

- 우선 집계구 및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계구와 신규 아파트를 추출함으로써 표본 추출 과정에서 생성되는 추출 확률의 역수인 설계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산정함.
- 조사 과정에서 진입 불가 또는 조사 불가능한 집계구에 대해 무응답 조정하며, 이를 가구 가중치에 적용하고, 가구 가중치를 바탕으로 가구 내 성인 1인을 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가구 내 성인을 대표 할 수 있도록 가구원 가중치를 조정함.
- 최종 가구 및 가구원 가중치는 2017년 추계가구 및 인구수로 벤치마킹하였음.

나. 가구 무응답 가중치 조정

- 전국 평균 4978로서 평균적으로 약 4978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9907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8016로 나타났고,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이 1175이며, 다음으로 제주가 1695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별로 설계효과($1 + cv_w^2$)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98이며, 경북이 2.38으로 가장 크며 광주가 1.04로 가장 작게 나타나, 가중치에 의한 분산 증가가 가장 큰 지역이 경북지역으로 예상됨.

〈부표 1-9〉 가구 무응답 가중치 기초통계

지역	표본수	합계	평균값	표준 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 + cv_w^2$
전국	3,839	19,111,030	4,978	4,924	22	2,474	3,999	5,869	67,468	1.98
서울	382	3,784,491	9,907	10,028	2,678	6,458	7,319	9,880	67,468	2.02
부산	240	1,335,900	5,566	5,258	626	3,598	5,645	6,334	33,598	1.89
대구	237	928,528	3,918	1,691	1,059	2,336	4,995	4,995	10,086	1.19
인천	219	1,045,417	4,774	5,060	2,082	3,778	4,097	4,683	54,441	2.12
광주	143	567,156	3,966	751	2,461	3,700	4,153	4,429	5,259	1.04
대전	151	582,504	3,858	834	2,210	3,169	4,249	4,275	5,146	1.05
울산	168	423,412	2,520	953	1,084	1,469	2,878	3,314	3,787	1.14
세종	64	75,219	1,175	543	22	1,103	1,200	1,319	2,137	1.21
경기	547	4,384,743	8,016	4,167	1,742	3,999	7,854	10,560	21,941	1.27
강원	164	606,116	3,696	1,722	1,160	2,763	3,547	4,512	7,967	1.22
충북	201	601,855	2,994	1,629	912	2,168	3,027	3,251	8,340	1.30
충남	224	796,185	3,554	3,042	1,694	2,134	2,379	4,098	17,564	1.73
전북	207	717,311	3,465	1,605	379	2,751	3,604	4,119	7,638	1.21
전남	202	720,613	3,567	1,959	1,224	2,094	3,646	4,543	9,535	1.30
경북	264	1,062,725	4,026	4,720	1,839	1,981	2,196	5,489	30,253	2.38
경남	296	1,258,487	4,252	1,350	2,177	2,908	4,227	5,418	6,668	1.10
제주	130	220,369	1,695	876	176	1,307	1,429	1,896	4,161	1.27

□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 가구 설계 가중치에 대해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반으로 한 2017년 추계가구 수에 따라 권역별 가구원 수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 가중치에 대한 래킹비 조정을 실시함.

$$w_{hij}^{RAK} = w_{hij}^a \times AF_h$$

20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부표 1-10〉 래킹비 조정 인자

구분	관측치 수	가중치합계	모집단	비포함률	조정승수	
지역	서울	382	3,784,491	3,787,319	0.07	1.001
	부산	240	1,335,900	1,351,166	1.13	1.011
	대구	237	928,527.9	939,536	1.17	1.012
	인천	219	1,045,417	1,070,384	2.33	1.024
	광주	143	567,156.4	573,359	1.08	1.011
	대전	151	582,503.9	594,615	2.04	1.021
	울산	168	423,411.5	428,652	1.22	1.012
	세종	64	75,218.97	102,551	26.65	1.363
	경기	547	4,384,743	4,541,136	3.44	1.036
	강원	164	606,115.9	621,044	2.40	1.025
	충북	201	601,855.2	622,147	3.26	1.034
	충남	224	796,185	823,952	3.37	1.035
	전북	207	717,311.3	731,051	1.88	1.019
	전남	202	720,612.5	733,391	1.74	1.018
	경북	264	1,062,725	1,087,679	2.29	1.023
	경남	296	1,258,487	1,282,811	1.90	1.019
제주	130	220,369.1	232,794	5.34	1.056	
가구원 수	1인	469	2509359	5,562,048	54.88	2.217
	2인	947	4721383	5,260,718	10.25	1.114
	3인	855	4331181	4,173,015	-3.79	0.963
	4인	1183	5829866	3,410,213	-70.95	0.585
	5인	306	1390838	860,802	-61.57	0.619
	6인 이상	79	328403.1	256,791	-27.89	0.782

〈부표 1-11〉 가구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가중치 결과

지역	표본수	합계	평균값	표준 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 + cv_w^2$
전국	3,839	19,523,587	5,086	4,059	795	2,297	3,847	6,127	30,732	1.64
서울	382	3,785,989	9,911	5,870	3,621	5,451	9,209	12,067	22,198	1.35
부산	240	1,351,524	5,631	3,423	1,982	3,009	5,083	6,701	20,778	1.37
대구	237	939,667	3,965	2,713	1,387	2,108	3,468	4,255	14,348	1.47
인천	219	1,070,226	4,887	3,011	1,910	2,846	3,930	5,742	18,234	1.38
광주	143	573,656	4,012	2,534	1,533	2,302	3,263	4,252	15,275	1.40
대전	151	594,742	3,939	2,736	1,553	2,273	3,241	4,030	15,791	1.48
울산	168	428,383	2,550	1,789	1,207	1,564	1,828	2,641	10,244	1.49
세종	64	102,711	1,605	888	795	795	1,343	1,604	3,458	1.31
경기	547	4,537,189	8,295	4,429	2,881	4,897	7,570	9,042	30,732	1.29
강원	164	622,144	3,794	2,624	1,300	1,916	3,224	3,866	13,000	1.48
충북	201	623,249	3,101	2,202	1,194	1,488	2,514	3,003	9,056	1.50
충남	224	823,874	3,678	2,256	1,356	2,124	3,126	3,853	13,974	1.38
전북	207	731,640	3,535	2,440	1,434	1,907	2,647	3,847	12,643	1.48
전남	202	734,127	3,634	1,862	1,537	2,032	3,336	3,985	11,939	1.26
경북	264	1,088,356	4,123	1,985	1,475	2,159	3,648	4,654	8,793	1.23
경남	296	1,283,772	4,337	2,967	1,498	2,297	3,881	4,635	15,812	1.47
제주	130	232,339	1,787	831	1,157	1,157	1,738	2,334	7,555	1.22

다. 개인 가중치 조정

- 개인 가중치는 가구 최종 가중치를 기반으로 가구 내 가구주 또는 배우자 중 최근 생일법에 의해 만 18세 이상 75세 이하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이 응답하였기 때문에 가구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함.
- 개인 가중치는 가구 내 1인이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별도의 무응답 조정은 불필요하며, 최종적으로 2017년 추계 인구수를 기반으로 사후 조정을 통해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함.

□ 개인 설계 가중치 조정

- 개인 가중치는 가구 내 18세 이상 성인수를 기반으로 가구 최종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w_{hijk}^{(HH)} = w_{FH} \times M_{hij}$$

여기서 w_{FH} 는 가구 최종 가중치이며, M_{hij} 는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구의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 수임.

〈부표 1-12〉 개인 가중치의 성인 승수 조정 가중치

지역	표본수	합계	평균값	표준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 + cv_w^2$
전국	3,839	41,005,687	10,681	11,125	29	4,963	8,217	12,798	185,134	2.08
서울	382	7,860,226	20,577	21,967	2,966	10,944	15,653	20,788	185,134	2.14
부산	240	2,783,795	11,599	11,538	697	6,943	11,227	13,550	92,651	1.99
대구	237	2,066,603	8,720	4,288	2,076	5,962	8,499	11,523	23,268	1.24
인천	219	2,442,659	11,154	12,636	1,705	6,360	9,678	11,509	133,815	2.28
광주	143	1,199,188	8,386	2,696	2,871	5,559	9,302	9,932	16,203	1.10
대전	151	1,276,585	8,454	3,022	2,598	5,977	8,585	10,396	20,910	1.13
울산	168	981,647	5,843	2,891	1,837	3,384	4,981	8,191	12,906	1.24
경기	64	176,914	2,764	1,600	29	1,854	2,957	3,150	7,009	1.34
강원	547	9,846,503	18,001	10,939	2,151	9,293	15,717	24,521	67,110	1.37
충북	164	1,163,653	7,095	3,730	625	3,979	7,095	9,331	17,163	1.28
충남	201	1,203,475	5,987	3,681	987	3,640	5,844	7,509	23,832	1.38
전북	224	1,652,409	7,377	6,546	1,937	3,924	5,203	8,966	49,756	1.79
전남	207	1,450,376	7,007	3,908	351	5,036	6,642	8,635	21,231	1.31
경북	202	1,465,550	7,255	4,677	1,320	3,802	6,063	9,801	25,478	1.42
경남	264	2,199,436	8,331	9,785	1,876	4,177	4,751	9,977	85,967	2.38
제주	296	2,677,521	9,046	3,494	2,818	6,217	8,305	11,936	18,581	1.15

□ 개인 래킹 조정 가중치

- 개인 래킹비 조정 가중치는 성인 가구원 승수를 고려한 조정 가중치에 대해 표본의 포괄성 확보를 위해 모집단의 주변합과 일치시키도록 함.
- 가구 가중치에 대한 래킹비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권역별 개인 가중치를 래킹하며, 응답자 성별과 연령대를 래킹비 변수로 고려함.

〈부표 1-13〉 개인 가중치의 래킹 조정인자

구분	관측치 수	가중치합계	모집단	비포함률	조정승수	
지역	서울	382	7,860,226	7,855,813	-0.06	1.00
	부산	240	2,783,795	2,720,177	-2.34	0.98
	대구	237	2,066,603	1,913,058	-8.03	0.93
	인천	219	2,442,659	2,275,871	-7.33	0.93
	광주	143	1,199,188	1,140,753	-5.12	0.95
	대전	151	1,276,585	1,181,472	-8.05	0.93
	울산	168	981,646.8	903,501	-8.65	0.92
	세종	64	176,913.8	198,768	10.99	1.12
	경기	547	9,846,503	9,826,738	-0.20	1.00
	강원	164	1,163,653	1,155,054	-0.74	0.99
	충북	201	1,203,475	1,218,141	1.20	1.01
	충남	224	1,652,409	1,605,582	-2.92	0.97
	전북	207	1,450,376	1,362,744	-6.43	0.94
	전남	202	1,465,550	1,315,279	-11.43	0.90
	경북	264	2,199,436	2,029,097	-8.39	0.92
	경남	296	2,677,521	2,538,562	-5.47	0.95
제주	130	559,147.8	468,238	-19.42	0.84	
성별	남	1,924	20,377,122	20,152,414	-1.12	0.99
	여	1,915	20,628,566	19,556,434	-5.48	0.95
연령	-29세	618	7,417,252	7,552,329	1.79	1.02
	-39세	787	7,229,436	7,561,778	4.40	1.05
	-49세	821	6,966,189	8,602,472	19.02	1.23
	59세	765	9,121,070	8,406,022	-8.51	0.92
	-69세	545	6,859,440	5,458,443	-25.67	0.80
	70세이상	303	3,412,301	2,127,804	-60.37	0.62

- 래킹비 조정 과정 시 고려된 벤치마킹 정보는 응답 가구원의 성별, 연령을 고려함.

$$w_{hijk}^{(RAK)} = w_{hijk}^{(HH)} \times A_h$$

〈부표 1-14〉 개인 가중치의 래킹비 조정 결과

지역	표본수	합계	평균값	표준 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1 + cv_w^2$
전국	3,839	39,708,848	10,344	5,880	2,295	6,410	8,145	13,208	36,844	1.32
서울	382	7,856,467	20,567	5,321	8,905	16,909	19,053	23,633	36,844	1.07
부산	240	2,720,313	11,335	2,909	5,329	9,629	10,692	12,681	20,253	1.07
대구	237	1,913,119	8,072	1,719	5,058	6,968	8,033	8,653	14,356	1.05
인천	219	2,275,846	10,392	2,044	6,273	9,017	10,574	11,579	16,908	1.04
광주	143	1,140,795	7,978	1,530	5,197	6,994	8,168	8,695	13,372	1.04
대전	151	1,181,310	7,823	1,414	5,114	6,854	7,973	8,538	12,859	1.03
울산	168	903,426	5,378	799	3,629	4,931	5,685	5,914	7,663	1.02
세종	64	198,755	3,106	381	2,295	2,821	3,252	3,392	3,702	1.02
경기	547	9,826,881	17,965	4,113	8,448	16,197	17,148	18,713	33,181	1.05
강원	164	1,155,142	7,044	1,573	4,679	6,183	7,164	7,576	13,346	1.05
충북	201	1,218,019	6,060	1,019	3,720	5,385	6,208	6,476	10,508	1.03
충남	224	1,605,442	7,167	1,271	4,722	6,409	7,415	7,708	14,485	1.03
전북	207	1,362,759	6,583	1,271	3,593	5,871	6,768	7,290	11,551	1.04
전남	202	1,315,147	6,511	1,225	3,282	5,791	6,676	6,965	11,734	1.04
경북	264	2,028,854	7,685	1,575	4,340	6,811	7,852	8,191	15,394	1.04
경남	296	2,538,371	8,576	2,074	4,319	7,218	8,398	9,489	16,003	1.06
제주	130	468,202	3,602	463	2,318	3,244	3,740	3,901	5,507	1.02

[부록 2]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집계구 번호					
-----------	--	--	--	--	--

응답자 ID					
-----------	--	--	--	--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  Hankook Research
- 문의처 : (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성현정 부장 ☎ 02-3014-0168
(주) 한국리서치 대면조사부 김지혜 팀장 ☎ 02-3014-0122

집계구 번호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가구원 대체 여부	① 빠른생일자	② 대체가구원
응답자 선정	★ 만19~75세의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본 조사의 응답자로 선정합니다. (주민등록 생월일기준)				
응답자 이름 (빠른생일자)			응답자 연락처 (빠른생일자)	- -	
응답자 성별 (빠른생일자)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빠른생일자)	만 _____ 세 → 만18세 이하, 만76세 이상 조사 중단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세부주소)				
응답자 (빠른생일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응답 도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가구주란 세대주의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유치조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2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3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4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최종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_____ 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1. 가구 구성 및 경제상태

※ 가구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경우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 201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 __ 남댁의 가구원수는 몇 명이십니까? 그리고 가구원 중 다음의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구분	가구원수
1-1.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명
1-2. 가구원 중 노인 수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62년 5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명
1-3. 가구원 중 장애인 수 ※ 등록장애인(1~6등급) 기준,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명
1-4.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수 ※ 만성질환이란, 3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경우임 (경제적 사정으로 투약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만성질환자에 포함, 질병 범위 면접원 지침서 참조)	명
1-5. 가구원 중 아동 수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1999년 5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1-6. 가구원 중 실업자 수 ※ 2017년 5월 31일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자	명
1-7. 가구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수 ※ 2017년 5월 31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 자	명

문2. __ 남댁의 가구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단독가구(1인가구)
- ② 모자가구(모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 ③ 부자가구(부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 ④ 조손가구(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 ⑤ 기타(일반가구)

※ 단위는 만원으로 작성하되 반올림하여 처리합니다.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3. __ 남댁의 총 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총 생활비	지난 3개월(2017.3.1.~2017.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총생활비는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기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 로 구성됩니다. ※ 가정생활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도 제외합니다. - 단,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할부금, 부채상환금은 포함합니다. ※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 2016년 12월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무이자 할부시 1월 50만원 지출 ※ 친인척 및 이웃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각종 현물(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받은 현물 서비스 및 비우체 형태의 지원(장부보유료, 무상급식 등)은 제외합니다.	만원
	천 원 백 원 십 원 일 원	

문4. __님댁의 생활비 중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 없음 0)
4-1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7.3.1~2017.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 교육비 = 공교육비 + 사교육비 - 공교육비 : 등록금(초·중·고·대학·대학원), 납입금, 입학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우학비, 아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 사교육비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이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사비, 학생의 야학연수비, 학습비유치 등	만원 천 백 십 일
4-2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7.3.1~2017.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의료비는 얼마입니까? ※ 입원비, 외래진료비, 처방료(의사 수술비)인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행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인형, 콘택트렌즈 등), 보양주, 치통환(유치비)만아용(유치) 비용 등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만원 천 백 십 일
4-3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7.3.1~2017.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월세액은 얼마입니까? ※ 자가주택이나 전세인 경우에는 '0' 을 기입 ※ 3개월 이내 이사 혹은 재계약한 경우, 이사 혹은 재계약한 주택의 월평균 월세액을 기입	만원 천 백 십 일

문5. 지난 3개월(2017.3.1~2017.5.31.) 동안 __님댁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아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수급여부		
		받았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5-1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 일반생계급여, 사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소년부 생계급여 등	①	②	③
5-2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①	②	③
5-3	※ 학교 또는 사설특수학교 등에 다니는 초·중·고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교생, 교과서대 부교재비 포함)고등학생, 부교재비(초·중·고학생 및 학원생비(중·고등학생 등 지원 - 부교재비 포함)비) 교과서 대금은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거나, 수입없는 학교로 지급 ◆ 각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비지원사업'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①	②	③
5-4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 혹은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①	②	③

문6. 지난 3개월(2017.3.1~2017.5.31.) 동안 __님댁 전체 가구 총소득과 __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 없음 0)
6-1	지난 3개월(2017.3.1~2017.5.31.)동안 __님 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총 소득 =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현금으로 가계에 유입된 소득만 포함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근로장려제 등) - 현물 및 나누쳐 형태의 지원은 제외함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6-2	지난 3개월(2017.3.1~2017.5.31.)동안 __님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 근로소득 = 임금 + 사업소득(자영업소득 포함) ※ 사업소득지는 순소득(총소득 - 경비)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문7. 요즘 귀댁의 소득에 대해 귀하는 다음 중 어떻게 느끼십니까?

- ① 현재소득으로 만족스럽게 생활함
- ② 현재소득으로 그럭저럭 살아감
- ③ 현재소득으로 생활하기 다소 어려움
- ④ 현재소득으로 생활하기 매우 어려움

문8. __남댁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과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재산과 부채는 명의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구분	해당항목	금액 (※ 없음 0)						
8-1	거주 주택가격 2017.5.31 기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현시가 기준)은 얼마입니까? ※ 가구원이 아닌 부모님 또는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포함하지 않음 ※ 자가는 주택가격, 전세는 전세금,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을 기입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만원
8-2	금융재산 2017.5.31. 기준 금융재산은 얼마입니까? ※ 금융재산(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만원
8-3	기타 부동산 및 재산 2017.5.31. 기준 거주하고 있는 집과 금융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및 재산은 얼마입니까? ※ 사업목적의 (소유 또는 점유) 부동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 소유부동산(거주주택 외 주택, 상가, 토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 ※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및 기타(회원권, 골동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만원
8-4	부채 총액 2017.5.31. 기준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합니다.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 일반사채,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 외상, 미리 탄 컷돈(미리 탄 컷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 기타부채(일린 월세, 제납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만원

문9. __남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다가구)
- ② 아파트
-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 ④ 기타(영업용 건물 내 거주, 오피스텔 등)

문10. __남댁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 ④ 월세(사글세)
- ⑤ 기타

II. 생활상태

문1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 경제적 어려움은 되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하고(갖고) 있지 않거나 대체소비를 하고 있는 경우 ☞ '①하고(갖고) 있다' 로 응답
 (예: (1) 채식주의자의 경우, 대체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면 '①하고(갖고) 있다' 로 응답)
 ※ 아래의 문항들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①하고(갖고) 있다' 로 응답
 (예: (12) 이가 아프지 않았으나, 아팠을 경우를 가정하고 치과에 갈 수 있었다면 '①하고(갖고) 있다' 로 응답)

우리 가정에서는,		① 하고(갖고) 있다	② 못 하고(갖고) 있다
식생활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①	②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①	②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①	②
의생활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피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①	②
	(5)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①	②
주택 및 주거 환경	(6)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①	②
	(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①	②
	(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①	②
	(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①	②
	(1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①	②
의료 및 건강	(11)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 있다	①	②
	(12)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①	②
	(13)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①	②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14)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①	②
	(15)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①	②
	(16)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①	②
사회적 지지	(17)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①	②
저축	(18)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①	②
	(19) 노후를 위해 (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①	②
	(20)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중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	①	②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문11-1. **(현재 '대학생 이하 가구원 이 있는 경우만 응답)**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 댁 내 대학생 이하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 ※ 가구원 중 대학생 이하 (손)자녀, 형제 등이 있는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 ※ 본인이 대학생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는,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②못 하고 있다' 로 응답합니다.		① 하고 있다	② 못 하고 있다
교육	(21)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①	②
	(22)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①	②
	(23)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①	②
	(24)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①	②

문11-2.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① 있다	② 없다	③ 해당 없음
경제적 어려움	(25)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
	(26)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27)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28)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29)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
	(30)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자가 또는 무상인 경우 '③해당 없음' 에 응답	①	②	③
	(31) 가구원(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학업, 진학을 포기하거나 중단(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분납(대출) 포함 ※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③해당 없음' 에 응답	①	②	③

사회문제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문13. ___님의 현재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지하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 ④ 고용주
- ⑤ 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실업자 * 2017. 5.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 문16로
- ⑧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문16으로

문13-1. [문13에서 ①~⑥ 응답자만] ___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 ⑩ 군인

문13-2. [문13에서 ①~⑥ 응답자만] ___님의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 주 평균 시간 → 응답 후 문13에서 비임금근로자(④~⑥)는 문16으로 이동

문13-3. [문13에서 ①~③ 응답자만] ___님의 근로시간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전일제(풀타임)
 - ② 시간제(파트타임)
- * 전일제 :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 근로시간동안 근로주당 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
 * 시간제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응답 후 문13에서 임시·일용근로자(②~③)는 문14로 이동

문13-4. [문13에서 ① 응답자만] ___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문14. [문13에서 ①~③ 응답자만] ___님께서 현재 직장 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가입함
 - ② 가입안함
 - ③ 가입대상이 아님
 - ④ 노동조합이 없음
- 문16으로 이동

문15. [문13에서 ⑦ 응답자-실업자만] ___님께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구직활동)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표시)

문16. [모든응답자] 귀하는 지난 5년(2012년~현재) 동안 원치 않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모름

문17. ___님께서 현재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연금을 받고 있다	모르겠다
(1)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2) 건강보험(피부양자 포함)	①	②		④
(3) 고용보험	①	②		④
(4) 산재보험	①	②		④

*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IV. 사회심리적 감정상태

※ 다음 문18~20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8. __님께서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9. __님께서서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0. __님께서서는 요즘 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1.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적 지원란, 다른 사람(가족, 친척, 선생님, 친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고 감정과 정보를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혀 받고 있지 않음	←				매우 많이 받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2. 평소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음	←				매우 많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3. 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 복지사 전담 공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문27.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나 동료에게 너그럽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갑자기 놀림을 당해도 금방 관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다른 여러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매일 생활은 흥미로운 일로 가득하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관찮아진다	①	②	③	④

문28. **보기카드** 다음 문항은 지난 한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1)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문29. **보기카드** 지난 일주일 동안 ___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치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30. **보기카드** 귀하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문30-1로**
- ② 아니오 **문31로**

문30-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이유 때문에
- ② 현재 살고 있는 질환 때문에
- ③ 가족갈등 및 주변과의 단절 등 사회적 관계 때문에
- ④ 기타(_____)

문31. 아래 문항을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요즘에는 누구를 믿어야할지 정말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미래를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3) 누가 뭐라고 해도, 보통사람들의 생활은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요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따름이지, 미래를 생각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요즘 공무원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탄원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6) 요즘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7) 요즘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식스러운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문32. **보기카드** _____님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경험 유무	
	예	아니오
(1)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죽음, 유산, 실종 등)	①	②
(2) 폭행 피해(신체, 정서, 언어, 성폭행 등)	①	②
(3) 따돌림	①	②
(4) 본인의 신체/정신 질환	①	②
(5)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정신 질환	①	②
(6) 자연 재해	①	②
(7) 사고 경험 (교통사고, 화재, 등)	①	②
(8) (본인 혹은 가족의)이혼, 별거	①	②
(9) 재정적 문제	①	②
(10) 학업, 업무, 취업에서의 실패나 어려움	①	②
(11) 어린시절 학대	①	②

문32-1. (문32에서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 말씀하신 경험들 중 귀하가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또는 무기력을 느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경험은 언제 하였습니다습니까?

1)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또는 무기력을 느꼈던 사건 (※문32의 경험한 사건 중 보기 선택)	보기 _____ 번
2) 사건을 경험한 시기	_____ 년 _____ 월

문33. 귀하는 현재 흡연을 하십니까?

- ① 예 → **문33-1로** ② 아니오 → **문34로**

문33-1. (흡연을 하신다면) 하루 평균 흡연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평균 개비

문34.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① 전혀 마시지 않음 → **문35로**
 ② 한 달에 1회 미만 (몇 달에 한번 정도) → **문34-1로**
 ③ 한 달에 1회 → **문34-1로**
 ④ 한 달에 2~3회 (일주일에 1회 미만) → **문34-1로**
 ⑤ 일주일에 2~3회 → **문34-1로**
 ⑥ 일주일에 4회 이상 → **문34-1로**

문34-1.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 소주, 맥주 구분없이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문34-2. **〔남성 응답자〕** 지난 1년간 한 번에 소주 7잔 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여성 응답자〕 지난 1년간 한 번에 소주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맥주 355cc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전혀 없다 ② 한 달에 1회 미만 ③ 한 달에 1회 ④ 일주일에 1회 ⑤ 거의 매일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문44. 한국사회로부터 귀하기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공정하다	약간 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불공정하다	매우 불공정하다
(1) 두뇌(능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관련된 기술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3) 노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4) 학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5) 경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문45.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부압력이나 '뻘'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46. 우리나라는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47.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5)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6)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7)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①	②	③	④	⑤
(8)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①	②	③	④	⑤
(9)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문48. 귀하께서는 지난 5년간 법적 문제의 발생으로 법률상담, 법률서류작성 등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문48-1로 ② 없었다 → 문49로

문48-1. 귀하께서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였던 당시 유무상의 법률상담, 법률서류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문49. 귀하께서는 필요할 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별로 어렵지 않다 → 문50으로
 ④ 전혀 어렵지 않다 → 문50으로

문49-1. 귀하께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내용이 어려워서
 ② 비용이 높아서
 ③ 법조인들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④ 주변에서 관련 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 힘들어서
 ⑤ 기타

문50.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음 사회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일탈	사회적 규범의 해체	사회제도와 가치간의 충돌	빈곤,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
(1) 자살, 알코올 중독, 허키코모리 등 자파피괴적 행동	①	②	③	④	⑤
(2) 살인, 각종 범죄 등 타인에 대한 폭력·범죄	①	②	③	④	⑤
(3) 특정인,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는 태도	①	②	③	④	⑤
(4) 희망, 진취성과 같은 삶의 방향 상실	①	②	③	④	⑤

문5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툼이나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음	없음
(1) 정치적 견해 차이	①	②
(2) 문화적 차이	①	②
(3) 출신 지역 차이	①	②
(4) 세대 간의 차이	①	②
(5) 학벌 차이	①	②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문5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로 가족과 다름이나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셨다면, 그 일로 느끼신 심리적 부담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가족이 없으시거나 미혼이라 해당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시면 '② 없음' 에 응답해주세요

	문52 경험 여부		【문52에서 ①만 응답】 문52-1. 심리적 부담			
	있음	없음	매우적음	적음	큼	매우 큼
(1) 경제적 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2) 가사 분담 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3) 자녀 양육(교육) 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4) 취업 또는 실업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5) 가족 내 건강 혹은 간병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6) 생활양식(종교, 가치관)과 성격차이	①	②	①	②	③	④
(7) 고부갈등, 노부모부양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8) 폭언 및 폭행(학대) 문제	①	②	①	②	③	④

문5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갈등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신고·고소·고발을 하거나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 폭력 : 언어폭력(폭언), 물리적 폭력(폭행), SNS 폭력(문자, 트위터 등)을 모두 포함, 가해와 피해 모두 포함

	문53. 경험 여부		【문53에서 ①만 응답】 문53-1. 폭력 발생 여부		【문53에서 ①만 응답】 문53-2. 고소·고발 여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가족	①	②	①	②	③	④
(2) 친구, 선후배	①	②	①	②	③	④
(3) 이웃	①	②	①	②	③	④
(4) 직장생활(업무, 거래관계)	①	②	①	②	③	④
(5) 우연히 만난 사람 (길거리, 술집, 버스, 지하철 등)	①	②	①	②	③	④
(6) 사고로 만난 사람 (교통사고 등)	①	②	①	②	③	④
(7) 공공기관 (경찰, 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 등)	①	②	①	②	③	④

VI.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문54.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___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문55.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56.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57. ___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58. ___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59.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보통 →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60.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보통 →										배려와 포용의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보통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보통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보통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보통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안)

■ 본인은 「2017년 사회문제 및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조사」 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사·이용 목적] ①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인식 파악
②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개인정보 조사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조사 항목] 소득, 생활비, 재산, 부채 등 설문문항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조사·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및 부호화 처리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응답자 : _____ (인)

조사원 : _____ (인)

[부록 3]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초 분석

〈부표 3-1〉 박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

(단위: %)

구분		하고(갓고) 있음	못 하고(갓고) 있음	χ^2
전체		94.05	5.95	
성별	남성	94.09	5.91	0.016
	여성	94.00	6.00	
연령	20대 이하	97.21	2.79	86.439***
	30대	96.78	3.22	
	40대	95.14	4.86	
	50대	93.81	6.19	
	60대 이상	87.18	12.82	
지역	수도권	93.60	6.40	1.374
	비수도권	94.50	5.50	
	대도시	94.38	5.62	1.306
	중소도시 농어촌	94.00 92.86	6.00 7.1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2.45	27.55	534.246***
	중하층	96.53	3.47	
	중간층	98.18	1.82	
	중상층(상층)	10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6.95	23.05	363.332***
	200만 원대	94.66	5.34	
	300만 원대	95.73	4.27	
	400만 원대	98.16	1.84	
	500만 원 이상	98.37	1.63	
학력	중졸 이하	82.39	17.61	173.853***
	고졸	95.36	4.64	
	대졸 이상	97.04	2.9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61	2.39	67.20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0.67	9.33	
	고용주·자영자	95.46	4.54	
	무급가족 종사자	94.05	5.95	
	실업자	85.48	14.52	
	비경제활동인구	91.77	8.23	
직업	관리자·전문가	96.96	3.04	49.93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6.56	3.44	
	숙련 및 기술직	96.26	3.74	
	단순노무 종사자	86.39	13.6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06	1.94	43.474***
	비정규직	91.09	8.91	
이념적 성향	보수적	92.35	7.65	12.225***
	중도적	93.88	6.12	
	진보적	95.88	4.12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 먹는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 박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4.79	5.21	
성별	남성	93.57	6.43	11.973***
	여성	96.05	3.95	
연령	20대 이하	96.81	3.19	34.5839***
	30대	95.66	4.34	
	40대	96.07	3.93	
	50대	94.55	5.45	
	60대 이상	90.73	9.27	
지역	수도권	94.09	5.91	3.8731**
	비수도권	95.50	4.50	
	대도시	94.81	5.19	0.9282
	중소도시 농어촌	94.99 93.79	5.01 6.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8.57	21.43	340.6003***
	중하층	96.78	3.22	
	중간층	97.87	2.13	
	중상층(상층)	98.73	1.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0.41	19.59	289.6315***
	200만 원대	94.82	5.18	
	300만 원대	97.60	2.40	
	400만 원대	98.07	1.93	
	500만 원 이상	97.90	2.10	
학력	중졸 이하	87.48	12.52	75.8267***
	고졸	96.13	3.87	
	대졸 이상	96.12	3.8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16	1.84	67.798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0.09	9.91	
	고용주·자영자	94.65	5.35	
	무급가족 종사자	96.12	3.88	
	실업자	86.29	13.71	
	비경제활동인구	93.98	6.02	
직업	관리자·전문가	97.00	3.00	12.790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6.25	3.75	
	숙련 및 기술직	94.96	5.04	
	단순노무 종사자	91.40	8.6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50	1.50	54.247***
	비정규직	90.95	9.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48	6.52	7.6531**
	중도적	94.73	5.27	
	진보적	96.11	3.89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 먹는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 박탈: 가끔 기호식품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7.71	2.29	
성별	남성	97.51	2.49	0.708
	여성	97.92	2.08	
연령	20대 이하	99.41	0.59	80.029***
	30대	99.16	0.84	
	40대	98.85	1.15	
	50대	97.55	2.45	
	60대 이상	93.48	6.52	
지역	수도권	97.75	2.25	0.024
	비수도권	97.68	2.32	
	대도시	98.21	1.79	4.325
	중소도시 농어촌	97.52 96.58	2.48 3.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92	10.08	177.096***
	중하층	98.35	1.65	
	중간층	99.50	0.50	
	중상층(상층)	99.34	0.6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9.48	10.52	212.579***
	200만 원대	97.51	2.49	
	300만 원대	99.53	0.47	
	400만 원대	99.83	0.17	
	500만 원 이상	99.35	0.65	
학력	중졸 이하	92.67	7.33	80.914***
	고졸	98.33	1.67	
	대졸 이상	98.96	1.0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47	0.53	49.29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5.36	4.64	
	고용주·자영자	98.92	1.08	
	무급가족 종사자	97.87	2.13	
	실업자	93.81	6.19	
	비경제활동인구	96.49	3.51	
직업	관리자·전문가	99.77	0.23	26.73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9.02	0.98	
	숙련 및 기술직	97.97	2.03	
	단순노무 종사자	94.94	5.0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48	0.52	25.372***
	비정규직	96.14	3.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69	3.31	6.829**
	중도적	98.08	1.92	
	진보적	98.12	1.88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가끔 기호 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 먹는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 박탈: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6.70	3.30	
성별	남성	97.02	2.98	1.240
	여성	96.37	3.63	
연령	20대 이하	99.01	0.99	46.141***
	30대	97.64	2.36	
	40대	97.04	2.96	
	50대	96.78	3.22	
	60대 이상	92.99	7.01	
지역	수도권	96.41	3.59	1.015
	비수도권	96.99	3.01	0.077
	대도시	96.61	3.39	
	중소도시	96.77	3.23	
	농어촌	96.74	3.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6.38	13.62	215.003***
	중하층	97.77	2.23	
	중간층	98.78	1.22	
	중상층(상층)	99.54	0.4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8.25	11.75	159.488***
	200만 원대	97.00	3.00	
	300만 원대	97.22	2.78	
	400만 원대	99.64	0.36	
	500만 원 이상	98.55	1.45	
학력	중졸 이하	89.66	10.34	110.887***
	고졸	97.54	2.46	
	대졸 이상	98.47	1.5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95	1.05	52.88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3.48	6.52	
	고용주·자영자	98.20	1.80	
	무급가족 종사자	96.69	3.31	
	실업자	93.82	6.18	
	비경제활동인구	95.02	4.98	
직업	관리자·전문가	99.38	0.62	55.79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8.52	1.48	
	숙련 및 기술직	97.38	2.62	
	단순노무 종사자	90.76	9.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30	0.70	44.811***
	비정규직	93.83	6.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95.66	4.34	5.163*
	중도적	96.96	3.04	
	진보적	97.29	2.71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 박탈: 계절 정장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2.52	7.48	
성별	남성	92.95	7.05	1.026
	여성	92.09	7.91	
연령	20대 이하	92.36	7.64	19.134***
	30대	94.66	5.34	
	40대	93.56	6.44	
	50대	92.83	7.17	
	60대 이상	89.04	10.96	
지역	수도권	90.02	9.98	35.247***
	비수도권	95.06	4.94	
	대도시	91.22	8.78	7.304
	중소도시 농어촌	93.29 94.30	6.71 5.7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4.00	26.00	321.006***
	중하층	94.32	5.68	
	중간층	96.36	3.64	
	중상층(상층)	97.67	2.3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9.90	20.10	171.391***
	200만 원대	93.03	6.97	
	300만 원대	92.43	7.57	
	400만 원대	96.69	3.31	
	500만 원 이상	96.06	3.94	
학력	중졸 이하	83.27	16.73	92.959***
	고졸	93.10	6.90	
	대졸 이상	95.41	4.5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6.05	3.95	65.34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18	11.82	
	고용주·자영자	94.93	5.07	
	무급가족 종사자	96.37	3.63	
	실업자	85.87	14.13	
	비경제활동인구	89.57	10.43	
직업	관리자·전문가	97.04	2.96	51.00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5.39	4.61	
	숙련 및 기술직	94.23	5.77	
	단순노무 종사자	84.09	15.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6.46	3.54	36.788**
	비정규직	88.87	11.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91.95	8.05	1.382
	중도적	93.08	6.92	
	진보적	92.24	7.76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예상장 같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 박탈: 난방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8.54	1.46	
성별	남성	98.79	1.21	1.779
	여성	98.28	1.72	
연령	20대 이하	99.77	0.23	17.082***
	30대	97.89	2.11	
	40대	98.95	1.05	
	50대	98.60	1.40	
	60대 이상	97.43	2.57	
지역	수도권	98.53	1.47	0.004
	비수도권	98.55	1.45	
	대도시	98.68	1.32	0.417
	중소도시 농어촌	98.46 98.35	1.54 1.6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3.63	6.37	109.682***
	중하층	98.93	1.07	
	중간층	99.61	0.39	
	중상층(상층)	10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4.64	5.36	77.943***
	200만 원대	98.21	1.79	
	300만 원대	99.11	0.89	
	400만 원대	100.00	0.00	
	500만 원 이상	99.36	0.64	
학력	중졸 이하	96.72	3.28	21.929***
	고졸	98.39	1.61	
	대졸 이상	99.40	0.6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38	0.62	24.68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7.22	2.78	
	고용주·자영자	99.12	0.88	
	무급가족 종사자	100.00	0.00	
	실업자	95.43	4.57	
	비경제활동인구	98.05	1.95	
직업	관리자·전문가	99.58	0.42	30.83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9.27	0.73	
	숙련 및 기술직	99.20	0.80	
	단순노무 종사자	95.32	4.6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46	0.54	12.163***
	비정규직	97.47	2.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98.86	1.14	1.240
	중도적	98.33	1.67	
	진보적	98.55	1.45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출처 없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 박탈: 방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6.38	3.62	
성별	남성	96.61	3.39	0.608
	여성	96.14	3.86	
연령	20대 이하	96.73	3.27	16.577****
	30대	95.84	4.16	
	40대	94.45	5.55	
	50대	97.01	2.99	
	60대 이상	98.05	1.95	
지역	수도권	94.49	5.51	39.655****
	비수도권	98.29	1.71	
	대도시	95.44	4.56	7.310
	중소도시 농어촌	96.97 97.48	3.03 2.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09	10.91	105.680****
	중하층	96.58	3.42	
	중간층	98.07	1.93	
	중상층(상층)	10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4.64	5.36	14.647**
	200만 원대	96.50	3.50	
	300만 원대	95.10	4.90	
	400만 원대	96.91	3.09	
	500만 원 이상	97.62	2.38	
학력	중졸 이하	96.16	3.84	0.241
	고졸	96.30	3.70	
	대졸 이상	96.55	3.4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10	2.90	21.11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4.21	5.79	
	고용주·자영자	96.63	3.37	
	무급가족 종사자	98.70	1.30	
	실업자	90.72	9.28	
	비경제활동인구	96.69	3.31	
직업	관리자·전문가	95.73	4.27	8.49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6.76	3.24	
	숙련 및 기술직	97.60	2.40	
	단순노무 종사자	93.55	6.4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7.33	2.67	9.406****
	비정규직	94.30	5.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29	3.71	2.488
	중도적	96.87	3.13	
	진보적	95.74	4.26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 박탈: 대중교통 접근성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7.35	2.65	
성별	남성	97.54	2.46	0.521
	여성	97.17	2.83	
연령	20대 이하	98.81	1.19	12.116**
	30대	97.68	2.32	
	40대	96.81	3.19	
	50대	97.49	2.51	
	60대 이상	96.05	3.95	
지역	수도권	97.07	2.93	1.191
	비수도권	97.64	2.36	
	대도시	98.76	1.24	38.417***
	중소도시 농어촌	96.98 93.28	3.02 6.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3.84	6.16	33.763***
	중하층	97.39	2.61	
	중간층	98.23	1.77	
	중상층(상층)	99.07	0.9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5.33	4.67	16.397***
	200만 원대	96.47	3.53	
	300만 원대	97.79	2.21	
	400만 원대	97.48	2.52	
	500만 원 이상	98.36	1.64	
학력	중졸 이하	93.73	6.27	35.855***
	고졸	97.88	2.12	
	대졸 이상	98.16	1.8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78	2.22	4.72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6.03	3.97	
	고용주·자영자	97.29	2.71	
	무급가족 종사자	97.51	2.49	
	실업자	98.71	1.29	
	비경제활동인구	97.29	2.71	
직업	관리자·전문가	96.44	3.56	10.02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8.21	1.79	
	숙련 및 기술직	96.27	3.73	
	단순노무 종사자	95.57	4.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7.57	2.43	0.807
	비정규직	96.80	3.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60	3.40	3.414
	중도적	97.74	2.26	
	진보적	97.49	2.51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 박탈: 지상 거주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6.55	3.45	
성별	남성	96.34	3.66	0.526
	여성	96.77	3.23	
연령	20대 이하	97.74	2.26	4.052
	30대	96.11	3.89	
	40대	96.12	3.88	
	50대	96.40	3.60	
	60대 이상	96.47	3.53	
지역	수도권	94.35	5.65	56.796***
	비수도권	98.78	1.22	
	대도시	95.71	4.29	6.080*
	중소도시 농어촌	97.12 97.39	2.88 2.6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8.97	11.03	111.979***
	중하층	97.47	2.53	
	중간층	98.26	1.74	
	중상층(상층)	96.66	3.3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2.85	7.15	36.335***
	200만 원대	95.59	4.41	
	300만 원대	97.42	2.58	
	400만 원대	98.62	1.38	
	500만 원 이상	97.08	2.92	
학력	중졸 이하	95.75	4.25	1.611
	고졸	96.55	3.45	
	대졸 이상	96.87	3.1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92	2.08	22.55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3.73	6.27	
	고용주·자영자	95.71	4.29	
	무급가족 종사자	98.48	1.52	
	실업자	93.92	6.08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96.83	3.17	18.374***
	관리자·전문가	97.09	2.9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6.88	3.12	
	숙련 및 기술직	97.41	2.59	
	단순노무 종사자	91.57	8.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7.92	2.08	13.348***
	비정규직	94.55	5.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95.90	4.10	2.555
	중도적	97.03	2.97	
	진보적	96.46	3.54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옥탑방이 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 박탈: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8.90	1.10	
성별	남성	98.66	1.34	1.937
	여성	99.13	0.87	
연령	20대 이하	99.93	0.07	12.840**
	30대	99.18	0.82	
	40대	98.16	1.84	
	50대	98.82	1.18	
	60대 이상	98.50	1.50	
지역	수도권	98.59	1.41	3.397*
	비수도권	99.21	0.79	
	대도시	98.99	1.01	1.643
	중소도시 농어촌	98.94 98.25	1.06 1.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4.54	5.46	110.351****
	중하층	99.57	0.43	
	중간층	99.59	0.41	
	중상층(상층)	10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5.10	4.90	90.017****
	200만 원대	99.53	0.47	
	300만 원대	99.57	0.43	
	400만 원대	100.00	0.00	
	500만 원 이상	99.33	0.67	
학력	중졸 이하	97.35	2.65	19.863****
	고졸	98.80	1.20	
	대졸 이상	99.58	0.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89	0.11	66.38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5.75	4.25	
	고용주·자영자	99.02	0.98	
	무급가족 종사자	99.50	0.50	
	실업자	95.35	4.65	
	비경제활동인구	99.25	0.75	
직업	관리자·전문가	98.98	1.02	26.26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9.35	0.65	
	숙련 및 기술직	99.10	0.90	
	단순노무 종사자	95.49	4.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88	0.12	33.518****
	비정규직	96.58	3.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2.35	7.65	12.225****
	중도적	93.88	6.12	
	진보적	95.88	4.12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 시설을 갖추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 박탈: 정기 진료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4.25	5.75	
성별	남성	94.19	5.81	0.033
	여성	94.32	5.68	
연령	20대 이하	94.12	5.88	8.771*
	30대	92.33	7.67	
	40대	93.99	6.01	
	50대	95.54	4.46	
	60대 이상	95.18	4.82	
지역	수도권	92.85	7.15	14.178***
	비수도권	95.67	4.33	
	대도시	94.92	5.08	4.210
	중소도시 농어촌	94.08 92.28	5.92 7.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6.99	13.01	64.646***
	중하층	94.89	5.11	
	중간층	95.62	4.38	
	중상층(상층)	97.58	2.4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1.00	9.00	23.556***
	200만 원대	92.66	7.34	
	300만 원대	94.23	5.77	
	400만 원대	96.78	3.22	
	500만 원 이상	95.17	4.83	
학력	중졸 이하	92.98	7.02	2.204
	고졸	94.61	5.39	
	대졸 이상	94.35	5.6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5.75	4.25	21.68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0.29	9.71	
	고용주·자영자	94.23	5.77	
	무급가족 종사자	97.47	2.53	
	실업자	96.99	3.01	
	비경제활동인구	93.67	6.33	
직업	관리자·전문가	93.74	6.26	18.32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5.03	4.97	
	숙련 및 기술직	95.73	4.27	
	단순노무 종사자	88.36	11.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5.84	4.16	14.662***
	비정규직	91.17	8.83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49	6.51	1.572
	중도적	94.59	5.41	
	진보적	94.47	5.53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 박탈: 차과 이용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6.82	3.18	
성별	남성	97.06	2.94	0.729
	여성	96.58	3.42	
연령	20대 이하	98.49	1.51	31.832***
	30대	97.23	2.77	
	40대	97.98	2.02	
	50대	96.42	3.58	
	60대 이상	93.87	6.13	
지역	수도권	96.15	3.85	5.748**
	비수도권	97.50	2.50	
	대도시	97.34	2.66	3.628
	중소도시 농어촌	96.26 97.31	3.74 2.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5.90	14.10	250.772***
	중하층	97.89	2.11	
	중간층	99.05	0.95	
	중상층(상층)	10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8.03	11.97	177.007***
	200만 원대	96.92	3.08	
	300만 원대	97.73	2.27	
	400만 원대	99.61	0.39	
	500만 원 이상	98.76	1.24	
학력	중졸 이하	91.17	8.83	72.759***
	고졸	97.70	2.30	
	대졸 이상	98.01	1.9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50	1.50	50.24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4.48	5.52	
	고용주·자영자	98.85	1.15	
	무급가족 종사자	100.00	0.00	
	실업자	94.37	5.63	
	비경제활동인구	94.81	5.19	
직업	관리자·전문가	99.02	0.98	86.49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8.59	1.41	
	숙련 및 기술직	99.15	0.85	
	단순노무 종사자	89.55	10.4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67	1.33	20.386***
	비정규직	94.92	5.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95.57	4.43	8.186**
	중도적	97.04	2.96	
	진보적	97.67	2.33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이가 아쁘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 박탈: 의약품 구입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8.92	1.08	
성별	남성	98.96	1.04	0.070
	여성	98.87	1.13	
연령	20대 이하	99.16	0.84	3.019
	30대	99.13	0.87	
	40대	99.16	0.84	
	50대	98.69	1.31	
	60대 이상	98.46	1.54	
지역	수도권	98.84	1.16	0.208
	비수도권	99.00	1.00	
	대도시	99.36	0.64	7.056
	중소도시 농어촌	98.74 97.94	1.26 2.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5.92	4.08	55.209***
	중하층	99.15	0.85	
	중간층	99.55	0.45	
	중상층(상층)	10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5.53	4.47	75.858***
	200만 원대	99.43	0.57	
	300만 원대	99.81	0.19	
	400만 원대	100.00	0.00	
	500만 원 이상	99.11	0.89	
학력	중졸 이하	97.05	2.95	23.337***
	고졸	99.14	0.86	
	대졸 이상	99.39	0.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46	0.54	13.24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8.30	1.70	
	고용주·자영자	99.36	0.64	
	무급가족 종사자	99.50	0.50	
	실업자	99.79	0.21	
	비경제활동인구	98.21	1.79	
직업	관리자·전문가	99.20	0.80	14.87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9.46	0.54	
	숙련 및 기술직	99.55	0.45	
	단순노무 종사자	97.09	2.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63	0.37	9.193***
	비정규직	98.17	1.83	
이념적 성향	보수적	98.66	1.34	3.136
	중도적	98.78	1.22	
	진보적	99.37	0.63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 박탈: 여행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79.14	20.86	
성별	남성	79.22	20.78	0.016
	여성	79.05	20.95	
연령	20대 이하	83.77	16.23	174.013***
	30대	87.58	12.42	
	40대	84.35	15.65	
	50대	76.65	23.35	
	60대 이상	62.96	37.04	
지역	수도권	78.37	21.63	1.390
	비수도권	79.91	20.09	
	대도시	78.13	21.87	50.092***
	중소도시 농어촌	82.62 66.82	17.38 33.1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79	56.21	536.590***
	중하층	78.85	21.15	
	중간층	89.06	10.94	
	중상층(상층)	92.49	7.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57	54.43	553.739***
	200만 원대	72.00	28.00	
	300만 원대	82.54	17.46	
	400만 원대	89.43	10.57	
	500만 원 이상	90.54	9.46	
학력	중졸 이하	56.36	43.64	260.569***
	고졸	78.90	21.10	
	대졸 이상	88.01	11.9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9.13	10.87	138.59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7.05	32.95	
	고용주·자영자	78.36	21.64	
	무급가족 종사자	73.40	26.60	
	실업자	64.18	35.82	
	비경제활동인구	75.92	24.08	
직업	관리자·전문가	89.81	10.19	84.78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3.87	16.13	
	숙련 및 기술직	78.71	21.29	
	단순노무 종사자	61.03	38.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0.44	9.56	123.610***
	비정규직	68.63	31.37	
이념적 성향	보수적	73.79	26.21	31.797***
	중도적	79.52	20.48	
	진보적	83.58	16.42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 박탈: 특별한 날 기념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0.33	9.67	
성별	남성	90.00	10.00	0.506
	여성	90.68	9.32	
연령	20대 이하	94.66	5.34	133.632***
	30대	95.61	4.39	
	40대	92.28	7.72	
	50대	89.02	10.98	
	60대 이상	80.02	19.98	
지역	수도권	90.88	9.12	1.335
	비수도권	89.78	10.22	
	대도시	91.75	8.25	31.574***
	중소도시 농어촌	90.75 82.46	9.25 17.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3.28	36.72	560.971***
	중하층	91.62	8.38	
	중간층	96.85	3.15	
	중상층(상층)	99.16	0.8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4.42	35.58	584.971***
	200만 원대	86.83	13.17	
	300만 원대	93.09	6.91	
	400만 원대	97.74	2.26	
	500만 원 이상	98.29	1.71	
학력	중졸 이하	74.82	25.18	208.565***
	고졸	91.17	8.83	
	대졸 이상	95.30	4.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6.30	3.70	102.95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3.63	16.37	
	고용주·자영자	90.85	9.15	
	무급가족 종사자	83.38	16.62	
	실업자	78.74	21.26	
	비경제활동인구	88.16	11.84	
직업	관리자·전문가	96.94	3.06	85.05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4.16	5.84	
	숙련 및 기술직	89.19	10.81	
	단순노무 종사자	77.95	22.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7.10	2.90	88.475***
	비정규직	84.45	15.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87.35	12.65	17.052***
	중도적	90.77	9.23	
	진보적	92.48	7.52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6〉 박탈: 여가활동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79.46	20.54	
성별	남성	79.91	20.09	0.480
	여성	79.00	21.00	
연령	20대 이하	86.21	13.79	230.318***
	30대	88.47	11.53	
	40대	83.86	16.14	
	50대	77.96	22.04	
	60대 이상	60.44	39.56	
지역	수도권	78.67	21.33	1.502
	비수도권	80.27	19.73	
	대도시	80.51	19.49	70.711***
	중소도시 농어촌	81.97 63.24	18.03 36.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6.14	53.86	485.418***
	중하층	79.24	20.76	
	중간층	88.41	11.59	
	중상층(상층)	94.54	5.4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60	54.40	603.556***
	200만 원대	69.46	30.54	
	300만 원대	83.44	16.56	
	400만 원대	90.82	9.18	
	500만 원 이상	91.32	8.68	
학력	중졸 이하	54.21	45.79	321.556***
	고졸	79.33	20.67	
	대졸 이상	89.17	10.8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9.65	10.35	134.11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8.70	31.30	
	고용주·자영자	77.16	22.84	
	무급가족 종사자	66.59	33.41	
	실업자	68.90	31.10	
	비경제활동인구	76.54	23.46	
직업	관리자·전문가	92.08	7.92	67.06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3.14	16.86	
	숙련 및 기술직	76.40	23.60	
	단순노무 종사자	67.08	32.9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0.50	9.50	102.878***
	비정규직	71.01	28.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73.93	26.07	33.281***
	중도적	80.01	19.99	
	진보적	83.85	16.15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 박탈: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94.84	5.16	
성별	남성	94.04	5.96	5.084**
	여성	95.65	4.35	
연령	20대 이하	97.29	2.71	48.070****
	30대	97.19	2.81	
	40대	95.86	4.14	
	50대	93.08	6.92	
	60대 이상	90.84	9.16	
지역	수도권	93.89	6.11	7.080**
	비수도권	95.79	4.21	
	대도시	94.37	5.63	19.488****
	중소도시 농어촌	96.09 90.81	3.91 9.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8.27	21.73	372.060****
	중하층	95.76	4.24	
	중간층	98.99	1.01	
	중상층(상층)	98.40	1.6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0.31	19.69	302.013****
	200만 원대	95.36	4.64	
	300만 원대	96.00	4.00	
	400만 원대	98.39	1.61	
	500만 원 이상	98.65	1.35	
학력	중졸 이하	85.32	14.68	135.303****
	고졸	95.67	4.33	
	대졸 이상	97.54	2.4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91	1.09	97.39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0.57	9.43	
	고용주·자영자	95.24	4.76	
	무급가족 종사자	98.23	1.77	
	실업자	84.34	15.66	
	비경제활동인구	92.93	7.07	
직업	관리자·전문가	97.88	2.12	31.96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6.59	3.41	
	숙련 및 기술직	97.47	2.53	
	단순노무 종사자	89.71	10.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11	0.89	61.055****
	비정규직	91.80	8.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67	6.33	5.844*
	중도적	94.81	5.19	
	진보적	95.96	4.04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8〉 박탈: 저축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80.46	19.54	
성별	남성	79.65	20.35	1.674
	여성	81.30	18.70	
연령	20대 이하	84.76	15.24	151.405***
	30대	86.73	13.27	
	40대	83.30	16.70	
	50대	82.43	17.57	
	60대 이상	64.54	35.46	
지역	수도권	78.23	21.77	12.297***
	비수도권	82.72	17.28	
	대도시	80.79	19.21	12.572***
	중소도시 농어촌	81.59 73.79	18.41 26.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6.97	53.03	545.294***
	중하층	78.49	21.51	
	중간층	90.70	9.30	
	중상층(상층)	97.20	2.8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7.08	52.92	572.600***
	200만 원대	74.94	25.06	
	300만 원대	82.31	17.69	
	400만 원대	88.49	11.51	
	500만 원 이상	93.15	6.85	
학력	중졸 이하	59.09	40.91	214.761***
	고졸	82.07	17.93	
	대졸 이상	86.81	13.1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9.93	10.07	127.27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5.82	24.18	
	고용주·자영자	81.25	18.75	
	무급가족 종사자	75.34	24.66	
	실업자	64.52	35.48	
	비경제활동인구	74.33	25.67	
직업	관리자·전문가	90.43	9.57	52.61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6.01	13.99	
	숙련 및 기술직	82.67	17.33	
	단순노무 종사자	69.06	30.9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0.10	9.90	42.937***
	비정규직	78.21	21.79	
이념적 성향	보수적	74.73	25.27	30.971***
	중도적	82.12	17.88	
	진보적	83.38	16.62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9〉 박탈: 노후 대비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79.97	20.03	
성별	남성	79.85	20.15	0.038
	여성	80.10	19.90	
연령	20대 이하	76.37	23.63	167.965***
	30대	87.87	12.13	
	40대	85.28	14.72	
	50대	84.54	15.46	
	60대 이상	64.60	35.40	
지역	수도권	77.23	22.77	18.211***
	비수도권	82.74	17.26	
	대도시	78.04	21.96	22.951***
	중소도시	82.96	17.04	
	농어촌	73.88	26.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7.44	52.56	496.743***
	중하층	78.24	21.76	
	중간층	90.25	9.75	
	중상층(상층)	92.91	7.0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6.83	53.17	560.278***
	200만 원대	72.84	27.16	
	300만 원대	82.94	17.06	
	400만 원대	88.71	11.29	
	500만 원 이상	92.13	7.87	
학력	중졸 이하	60.31	39.69	222.215***
	고졸	78.62	21.38	
	대졸 이상	88.88	11.1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2.59	7.41	235.85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2.22	27.78	
	고용주·자영자	81.49	18.51	
	무급가족 종사자	77.38	22.62	
	실업자	54.92	45.08	
	비경제활동인구	72.16	27.84	
직업	관리자·전문가	90.92	9.08	38.22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6.02	13.98	
	숙련 및 기술직	84.79	15.21	
	단순노무 종사자	72.41	27.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3.58	6.42	122.685***
	비정규직	74.14	25.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75.62	24.38	26.223***
	중도적	79.75	20.25	
	진보적	84.39	15.61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0〉 박탈: 사적 보험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음	못 하고(갖고) 있음	χ^2
전체		87.27	12.73	
성별	남성	86.92	13.08	0.422
	여성	87.62	12.38	
연령	20대 이하	85.86	14.14	232.655***
	30대	93.75	6.25	
	40대	93.69	6.31	
	50대	90.42	9.58	
	60대 이상	71.43	28.57	
지역	수도권	85.72	14.28	8.358***
	비수도권	88.83	11.17	
	대도시	87.76	12.24	10.268**
	중소도시 농어촌	87.92 82.13	12.08 17.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9.64	40.36	468.712***
	중하층	88.01	11.99	
	중간층	94.37	5.63	
	중상층(상층)	96.61	3.3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4.91	45.09	693.139***
	200만 원대	83.67	16.33	
	300만 원대	92.66	7.34	
	400만 원대	95.51	4.49	
	500만 원 이상	96.16	3.84	
학력	중졸 이하	67.68	32.32	266.572***
	고졸	88.03	11.97	
	대졸 이상	93.87	6.1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5.95	4.05	173.87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4.73	15.27	
	고용주·자영자	89.55	10.45	
	무급가족 종사자	85.56	14.44	
	실업자	72.63	27.37	
	비경제활동인구	79.92	20.08	
직업	관리자·전문가	96.60	3.40	51.57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3.21	6.79	
	숙련 및 기술직	89.18	10.82	
	단순노무 종사자	81.16	18.8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6.48	3.52	63.237***
	비정규직	85.82	14.18	
이념적 성향	보수적	83.85	16.15	28.587***
	중도적	86.67	13.33	
	진보적	91.36	8.64	

주: 1)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사회보험 외의 사적 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1〉 박탈: 자녀 고등교육

(단위: %)

구분		하고 있음	못 하고 있음	χ^2
전체		96.80	3.20	
성별	남성	97.28	2.72	1.461
	여성	96.33	3.67	
연령	20대 이하	97.56	2.44	16.700***
	30대	96.93	3.07	
	40대	97.70	2.30	
	50대	95.47	4.53	
	60대 이상	89.97	10.03	
지역	수도권	96.40	3.60	1.158
	비수도권	97.25	2.75	
	대도시	95.56	4.44	8.250**
	중소도시 농어촌	97.94 96.85	2.06 3.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2.65	17.35	136.352***
	중하층	96.99	3.01	
	중간층	99.17	0.83	
	중상층(상층)	98.09	1.9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8.25	21.75	106.695***
	200만 원대	93.08	6.92	
	300만 원대	97.72	2.28	
	400만 원대	97.45	2.55	
	500만 원 이상	98.69	1.31	
학력	중졸 이하	81.99	18.01	74.107***
	고졸	96.28	3.72	
	대졸 이상	98.68	1.3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10	2.90	12.40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2.56	7.44	
	고용주·자영자	97.35	2.65	
	무급가족 종사자	99.11	0.89	
	실업자	95.23	4.77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97.30	2.70	33.798***
	관리자·전문가	97.47	2.5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7.49	2.51	
	숙련 및 기술직	96.43	3.5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83.80	16.20	18.830***
	정규직	97.82	2.18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91.29	8.71	11.205***
	보수적	96.65	3.35	
	중도적	95.52	4.48	
	진보적	98.51	1.49	

주: 1)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2〉 박탈: 자녀 사교육

(단위: %)

구분		하고 있음	못 하고 있음	χ^2
전체		92.50	7.50	
성별	남성	94.43	5.57	10.302***
	여성	90.63	9.37	
연령	20대 이하	92.64	7.36	1.737
	30대	93.78	6.22	
	40대	91.82	8.18	
	50대	92.13	7.87	
	60대 이상	91.54	8.46	
지역	수도권	91.48	8.52	3.414*
	비수도권	93.67	6.33	
	대도시	92.34	7.66	0.506
	중소도시 농어촌	92.86 91.42	7.14 8.5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5.93	34.07	221.190***
	중하층	92.16	7.84	
	중간층	96.89	3.11	
	중상층(상층)	98.89	1.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6.85	33.15	156.232***
	200만 원대	80.57	19.43	
	300만 원대	90.29	9.71	
	400만 원대	95.91	4.09	
	500만 원 이상	97.42	2.58	
학력	중졸 이하	78.60	21.40	48.435***
	고졸	90.24	9.76	
	대졸 이상	96.02	3.9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3.88	6.12	19.57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7.90	12.10	
	고용주·자영자	94.22	5.78	
	무급가족 종사자	97.21	2.79	
	실업자	80.55	19.45	
	비경제활동인구	92.09	7.91	
직업	관리자·전문가	95.59	4.41	39.41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4.78	5.22	
	숙련 및 기술직	91.26	8.74	
	단순노무 종사자	75.03	24.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4.92	5.08	19.162***
	비정규직	85.96	14.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91.15	8.85	9.970**
	중도적	91.12	8.88	
	진보적	95.06	4.94	

주: 1)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3> 박탈: 자녀 기본 참고서나 도서

(단위: %)

구분		하고 있음	못 하고 있음	χ^2
전체		97.63	2.37	
성별	남성	98.01	1.99	1.223
	여성	97.26	2.74	
연령	20대 이하	98.24	1.76	6.690
	30대	97.42	2.58	
	40대	98.23	1.77	
	50대	96.67	3.33	
	60대 이상	94.46	5.54	
지역	수도권	98.17	1.83	2.927*
	비수도권	97.00	3.00	
	대도시	97.64	2.36	2.070
	중소도시	97.90	2.10	
	농어촌	96.12	3.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4.49	15.51	154.157****
	중하층	98.12	1.88	
	중간층	99.60	0.40	
	중상층(상층)	98.89	1.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8.30	21.70	147.118****
	200만 원대	94.50	5.50	
	300만 원대	98.32	1.68	
	400만 원대	99.12	0.88	
	500만 원 이상	99.12	0.88	
학력	중졸 이하	88.37	11.63	39.918****
	고졸	97.22	2.78	
	대졸 이상	98.89	1.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66	1.34	18.72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4.95	5.05	
	고용주·자영자	98.78	1.22	
	무급가족 종사자	97.21	2.79	
	실업자	91.45	8.55	
	비경제활동인구	97.22	2.78	
직업	관리자·전문가	99.35	0.65	7.33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8.18	1.82	
	숙련 및 기술직	97.83	2.17	
	단순노무 종사자	94.14	5.8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00	1.00	14.978****
	비정규직	94.64	5.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97.07	2.93	4.006
	중도적	97.16	2.84	
	진보적	98.56	1.44	

주: 1)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 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4〉 박탈: 자녀 고등학교 졸업까지 양육 책임

(단위: %)

구분		하고 있음	못 하고 있음	χ^2
전체		97.80	2.20	
성별	남성	97.85	2.15	0.026
	여성	97.74	2.26	
연령	20대 이하	97.79	2.21	4.382
	30대	98.22	1.78	
	40대	98.30	1.70	
	50대	96.53	3.47	
	60대 이상	96.41	3.59	
지역	수도권	97.87	2.13	0.060
	비수도권	97.71	2.29	
	대도시	97.42	2.58	1.634
	중소도시 농어촌	98.24 97.33	1.76 2.6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5.39	14.61	147.080***
	중하층	98.36	1.64	
	중간층	99.60	0.40	
	중상층(상층)	98.89	1.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8.92	21.08	143.045***
	200만 원대	95.66	4.34	
	300만 원대	98.97	1.03	
	400만 원대	98.76	1.24	
	500만 원 이상	99.01	0.99	
학력	중졸 이하	91.58	8.42	28.231***
	고졸	96.93	3.07	
	대졸 이상	99.23	0.7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74	1.26	16.80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5.96	4.04	
	고용주·자영자	98.19	1.81	
	무급가족 종사자	100.00	0.00	
	실업자	91.04	8.96	
	비경제활동인구	97.51	2.49	
직업	관리자·전문가	98.28	1.72	10.98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8.57	1.43	
	숙련 및 기술직	98.59	1.41	
	단순노무 종사자	92.92	7.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04	0.96	10.759***
	비정규직	95.60	4.4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7.71	2.29	6.850**
	중도적	96.97	3.03	
	진보적	98.92	1.08	

주: 1)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5> 박탈: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름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3.29	96.71	
성별	남성	3.42	96.58	0.198
	여성	3.16	96.84	
연령	20대 이하	3.48	96.52	1.231
	30대	2.99	97.01	
	40대	3.09	96.91	
	50대	3.09	96.91	
	60대 이상	3.85	96.15	
지역	수도권	4.60	95.40	20.949***
	비수도권	1.97	98.03	
	대도시	3.65	96.35	1.143
	중소도시 농어촌	3.03 3.02	96.97 96.9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41	92.59	40.649***
	중하층	3.50	96.50	
	중간층	2.08	97.92	
	중상층(상층)	1.05	98.9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01	90.99	74.823***
	200만 원대	1.70	98.30	
	300만 원대	3.09	96.91	
	400만 원대	3.24	96.76	
	500만 원 이상	1.59	98.41	
학력	중졸 이하	4.37	95.63	2.831
	고졸	2.93	97.07	
	대졸 이상	3.26	96.7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6	97.54	18.00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4	96.06	
	고용주·자영자	2.36	97.64	
	무급가족 종사자	4.37	95.63	
	실업자	8.63	91.37	
	비경제활동인구	3.81	96.19	
직업	관리자·전문가	1.80	98.20	2.48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16	96.84	
	숙련 및 기술직	2.61	97.39	
	단순노무 종사자	2.01	97.9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30	97.70	3.653
	비정규직	3.97	96.0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2	97.38	2.073
	중도적	3.48	96.52	
	진보적	3.63	96.37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6〉 박탈: 기한 내 공과금 미납부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3.57	96.43	
성별	남성	3.57	96.43	0.000
	여성	3.57	96.43	
연령	20대 이하	2.54	97.46	9.070*
	30대	4.60	95.40	
	40대	4.64	95.36	
	50대	3.24	96.76	
	60대 이상	2.72	97.28	
지역	수도권	5.09	94.91	25.873***
	비수도권	2.04	97.96	
	대도시	4.37	95.63	5.195*
	중소도시 농어촌	2.97 3.07	97.03 96.9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58	92.42	37.368***
	중하층	3.90	96.10	
	중간층	2.32	97.68	
	중상층(상층)	1.18	98.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33	93.67	24.706***
	200만 원대	2.63	97.37	
	300만 원대	4.44	95.56	
	400만 원대	3.96	96.04	
	500만 원 이상	2.03	97.97	
학력	중졸 이하	3.36	96.64	0.239
	고졸	3.49	96.51	
	대졸 이상	3.74	96.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8	97.12	26.30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30	95.70	
	고용주·자영자	3.55	96.45	
	무급가족 종사자	1.89	98.11	
	실업자	11.45	88.55	
	비경제활동인구	3.31	96.69	
직업	관리자·전문가	4.28	95.72	1.74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29	96.71	
	숙련 및 기술직	2.64	97.36	
	단순노무 종사자	3.36	96.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6	97.34	3.805
	비정규직	4.49	95.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5	97.05	2.563
	중도적	3.53	96.47	
	진보적	4.22	95.78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7> 박탈: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경험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1.66	98.34	
성별	남성	1.45	98.55	1.135
	여성	1.89	98.11	
연령	20대 이하	1.54	98.46	6.160
	30대	1.08	98.92	
	40대	2.34	97.66	
	50대	2.10	97.90	
	60대 이상	1.12	98.88	
지역	수도권	1.98	98.02	2.387
	비수도권	1.34	98.66	
	대도시	1.74	98.26	1.111
	중소도시 농어촌	1.48 2.21	98.52 97.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5	97.35	3.952
	중하층	1.48	98.52	
	중간층	1.57	98.43	
	중상층(상층)	1.18	98.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6	98.14	4.178
	200만 원대	1.10	98.90	
	300만 원대	2.04	97.96	
	400만 원대	2.24	97.76	
	500만 원 이상	1.32	98.68	
학력	중졸 이하	1.93	98.07	0.397
	고졸	1.55	98.45	
	대졸 이상	1.68	98.3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4	98.56	5.56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9	97.51	
	고용주·자영자	1.31	98.69	
	무급가족 종사자	0.90	99.10	
	실업자	3.48	96.52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67	98.33	3.451
	관리자·전문가	2.35	97.6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42	98.58	
	숙련 및 기술직	1.09	98.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2.44	97.56	1.984
	정규직	1.40	98.60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2.36	97.64	0.837
	보수적	1.36	98.64	
	중도적	1.78	98.22	
	진보적	1.78	98.22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8〉 박탈: 난방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3.07	96.93	
성별	남성	2.74	97.26	1.423
	여성	3.41	96.59	
연령	20대 이하	1.82	98.18	19.061***
	30대	2.55	97.45	
	40대	2.06	97.94	
	50대	3.91	96.09	
	60대 이상	5.06	94.94	
지역	수도권	3.85	96.15	7.968***
	비수도권	2.28	97.72	
	대도시	3.50	96.50	1.874
	중소도시 농어촌	2.83 2.45	97.17 97.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86	89.14	130.494***
	중하층	2.14	97.86	
	중간층	1.57	98.43	
	중상층(상층)	1.18	98.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82	90.18	106.049***
	200만 원대	2.78	97.22	
	300만 원대	1.88	98.12	
	400만 원대	2.31	97.69	
	500만 원 이상	1.26	98.74	
학력	중졸 이하	7.04	92.96	38.786***
	고졸	1.97	98.03	
	대졸 이상	2.76	97.2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8	98.02	20.33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64	96.36	
	고용주·자영자	2.12	97.88	
	무급가족 종사자	2.11	97.89	
	실업자	7.36	92.64	
	비경제활동인구	4.13	95.87	
직업	관리자·전문가	2.14	97.86	3.93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50	97.50	
	숙련 및 기술직	1.40	98.60	
	단순노무 종사자	3.65	96.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1	98.09	3.764
	비정규직	3.48	96.52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5	96.85	3.203
	중도적	3.52	96.48	
	진보적	2.33	97.67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29〉 박탈: 병원 방문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2.15	97.85	
성별	남성	2.07	97.93	0.117
	여성	2.23	97.77	
연령	20대 이하	1.09	98.91	12.804**
	30대	1.70	98.30	
	40대	1.72	98.28	
	50대	2.73	97.27	
	60대 이상	3.48	96.52	
지역	수도권	2.53	97.47	2.742
	비수도권	1.76	98.24	
	대도시	2.21	97.79	0.102
	중소도시 농어촌	2.07 2.24	97.93 97.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33	93.67	53.305***
	중하층	1.65	98.35	
	중간층	1.33	98.67	
	중상층(상층)	1.18	98.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44	93.56	61.447***
	200만 원대	0.87	99.13	
	300만 원대	2.04	97.96	
	400만 원대	1.52	98.48	
	500만 원 이상	1.19	98.81	
학력	중졸 이하	4.48	95.52	18.418***
	고졸	1.59	98.41	
	대졸 이상	1.86	98.1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1	98.59	17.44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28	96.72	
	고용주·자영자	1.35	98.65	
	무급가족 종사자	0.90	99.10	
	실업자	5.57	94.43	
	비경제활동인구	2.68	97.32	
직업	관리자·전문가	2.70	97.30	3.66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0	98.40	
	숙련 및 기술직	1.08	98.92	
	단순노무 종사자	2.23	97.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4	98.76	7.837
	비정규직	3.25	96.7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9	98.21	1.194
	중도적	2.16	97.84	
	진보적	2.46	97.54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0〉 박탈: 집세를 이유로 이사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해당없음	χ^2
전체		1.22	29.65	69.13	
성별	남성	1.40	29.16	69.45	1.381
	여성	1.04	30.17	68.79	
연령	20대 이하	0.69	32.63	66.68	125.604***
	30대	1.44	42.10	56.46	
	40대	0.50	31.13	68.37	
	50대	2.32	24.19	73.49	
	60대 이상	1.12	18.67	80.21	
지역	수도권	1.88	36.17	61.95	98.079***
	비수도권	0.56	23.07	76.37	
	대도시	1.86	34.02	64.12	58.304***
	중소도시 농어촌	0.85 0.34	28.46 17.13	70.69 82.5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8	53.83	40.79	369.609***
	중하층	0.71	33.38	65.91	
	중간층	0.32	21.18	78.50	
	중상층(상층)	0.99	11.63	87.3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2	36.85	60.44	144.370***
	200만 원대	1.25	41.82	56.93	
	300만 원대	1.91	33.64	64.45	
	400만 원대	0.21	24.03	75.76	
	500만 원 이상	0.63	21.11	78.26	
학력	중졸 이하	0.77	24.42	74.81	12.650**
	고졸	1.41	29.65	68.94	
	대졸 이상	1.19	31.64	67.1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0	31.40	67.89	91.2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3	42.22	56.04	
	고용주·자영자	2.14	24.01	73.84	
	무급가족 종사자	1.21	7.96	90.82	
	실업자	3.17	40.79	56.03	
	비경제활동인구	0.80	27.28	71.91	
직업	관리자·전문가	1.93	35.32	62.75	32.35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7	31.25	67.17	
	숙련 및 기술직	0.80	21.86	77.34	
	단순노무 종사자	0.16	36.59	63.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5	31.30	68.25	24.330***
	비정규직	2.05	40.32	57.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2	25.37	73.21	18.981***
	중도적	1.24	29.55	69.20	
	진보적	1.00	33.82	65.18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1〉 박탈: 자녀 공교육비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해당없음	χ^2
전체		0.94	51.26	47.8	
성별	남성	0.69	49.91	49.39	6.087*
	여성	1.20	52.64	46.16	
연령	20대 이하	1.02	59.79	39.18	870.868****
	30대	0.90	63.83	35.27	
	40대	1.52	79.04	19.45	
	50대	1.18	39.92	58.9	
	60대 이상	0.00	11.28	88.72	
지역	수도권	1.21	54.38	44.41	19.700****
	비수도권	0.67	48.10	51.23	
	대도시	0.98	53.56	45.46	8.646*
	중소도시 농어촌	0.90 1.01	50.36 45.92	48.74 53.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3	32.08	65.99	119.486****
	중하층	1.09	49.68	49.23	
	중간층	0.61	57.83	41.57	
	중상층(상층)	0.19	58.59	41.2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8	13.04	86.08	555.667****
	200만 원대	1.35	35.74	62.91	
	300만 원대	1.05	56.66	42.29	
	400만 원대	0.84	66.16	33	
	500만 원 이상	0.78	64.90	34.33	
학력	중졸 이하	0.72	14.45	84.83	400.302****
	고졸	1.34	55.15	43.52	
	대졸 이상	0.61	60.99	38.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68	56.09	43.23	84.92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1	40.56	58.02	
	고용주·자영자	0.67	43.57	55.77	
	무급가족 종사자	0.00	43.43	56.57	
	실업자	0.98	35.48	63.54	
	비경제활동인구	1.26	56.91	41.83	
직업	관리자·전문가	1.43	62.86	35.72	75.52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60	50.97	48.43	
	숙련 및 기술직	0.62	44.84	54.54	
	단순노무 종사자	1.33	27.81	70.8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7	57.87	41.56	48.237****
	비정규직	1.50	39.88	58.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9	38.55	60.87	121.564****
	중도적	1.03	52.46	46.51	
	진보적	1.15	61.38	37.47	

주: 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2〉 어제 행복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음-----매우 행복했음										χ ²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42	0.80	1.58	3.02	3.19	23.15	9.56	17.56	22.15	11.90	6.67	
성별	남성	0.55	1.01	1.69	3.38	3.44	23.42	9.17	18.57	21.63	10.80	6.35	14.631
	여성	0.29	0.59	1.46	2.65	2.94	22.87	9.97	16.51	22.68	13.03	7.00	
연령	20대 이하	0.52	0.09	0.44	1.47	2.37	18.94	8.16	18.69	25.79	13.15	10.37	161.275***
	30대	0.72	0.29	1.49	2.92	3.66	19.43	8.27	17.27	24.07	12.54	9.35	
	40대	0.29	0.48	1.08	2.08	2.51	25.57	9.83	19.72	21.91	10.38	6.15	
	50대	0.42	1.49	1.80	3.45	2.68	23.27	11.44	17.67	21.48	12.14	4.15	
	60대 이상	0.18	1.61	3.10	5.24	4.89	28.16	9.85	14.13	17.63	11.49	3.71	
지역	수도권	0.66	1.04	2.08	3.29	4.24	25.02	9.51	17.31	19.99	10.95	5.92	48.683***
	비수도권	0.19	0.56	1.06	2.75	2.14	21.26	9.61	17.80	24.33	12.86	7.43	
	대도시	0.67	0.77	2.10	3.80	3.30	22.73	9.87	18.07	21.41	11.57	5.72	26.525
	중소도시 농어촌	0.22 0.40	0.83 0.81	1.18 1.28	2.31 3.14	3.19 2.73	22.97 25.76	9.39 9.08	17.90 13.78	22.39 24.09	12.36 11.10	7.26 7.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6	4.34	7.11	9.40	6.75	30.90	7.28	11.77	9.94	7.03	3.62	634.768***
	중하층	0.17	0.20	0.81	2.96	3.64	26.79	10.89	20.49	20.38	8.56	5.12	
	중간층	0.19	0.26	0.40	1.42	2.11	19.61	9.52	17.57	26.17	13.99	8.75	
	중상층(상층)	0.27	0.00	1.64	0.00	0.00	8.81	7.29	13.47	32.35	27.91	8.2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32	3.93	4.63	7.01	5.66	30.98	8.79	12.72	14.44	7.25	4.26	312.157***
	200만 원대	1.00	0.55	1.64	3.41	3.34	26.22	8.73	17.49	21.25	10.47	5.89	
	300만 원대	0.00	0.24	1.29	2.93	3.58	25.78	10.24	18.42	19.44	11.28	6.81	
	400만 원대	0.28	0.49	0.87	2.26	1.41	20.05	8.68	21.44	26.58	11.22	6.72	
	500만 원 이상	0.54	0.00	0.70	1.47	2.70	18.01	10.39	17.29	25.41	15.44	8.06	
학력	중졸 이하	0.31	2.75	4.12	5.64	4.87	27.24	10.25	14.08	18.13	8.70	3.91	145.627***
	고졸	0.30	0.34	1.24	3.16	3.22	24.10	10.67	17.76	22.02	11.26	5.92	
	대졸 이상	0.60	0.56	0.97	1.88	2.53	20.58	8.11	18.65	23.80	13.81	8.5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7	0.34	0.43	1.65	3.03	18.97	9.90	19.04	25.21	13.26	7.91	187.98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7	1.68	3.84	5.60	5.50	26.42	10.79	16.85	15.23	7.00	5.52	
	고용주·자영자	0.44	0.33	1.47	4.31	2.53	24.00	8.06	18.43	23.57	10.70	6.17	
	무급가족 종사자	0.00	0.00	0.93	1.77	0.00	24.92	10.43	19.51	25.22	11.23	6.01	
	실업자	1.22	1.44	6.21	6.25	4.99	35.50	10.16	11.89	11.20	6.47	4.66	
비경제활동인구	0.12	1.22	1.55	2.45	2.98	24.22	9.58	16.27	21.62	13.58	6.40		
직업	관리자·전문가	0.73	0.51	0.72	2.68	2.41	18.24	9.01	18.54	24.19	15.99	6.98	111.54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44	0.27	0.89	3.26	3.16	21.05	8.82	19.86	23.10	11.67	7.48	
	숙련 및 기술직	0.00	0.57	1.34	2.35	3.54	21.98	12.60	16.96	25.10	9.77	5.79	
	단순노무 종사자	2.15	2.37	5.19	4.95	3.90	33.40	7.33	13.58	15.31	5.88	5.9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9	0.37	0.47	1.75	2.93	18.32	9.75	19.83	24.75	13.36	8.19	80.441***
	비정규직	1.27	1.35	3.09	4.63	5.22	26.31	10.93	15.64	18.13	8.02	5.4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8	0.59	2.01	3.69	3.90	25.84	10.45	17.81	19.12	12.03	4.18	39.602**
	중도적	0.39	1.13	1.53	2.68	2.84	22.27	9.76	17.70	23.14	11.36	7.21	
	진보적	0.51	0.52	1.23	2.90	3.05	21.93	8.44	17.10	23.52	12.59	8.21	

주: 1) “ _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3〉 어제 우울

(단위: %)

구분		전혀 우울하지 않음-----매우 우울했음											χ ²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6.60	18.42	19.72	12.36	6.27	16.75	2.96	3.52	2.12	0.92	0.35	
성별	남성	17.67	17.37	20.49	11.80	6.33	16.84	2.65	3.63	2.40	0.42	0.40	21.175**
	여성	15.51	19.50	18.92	12.93	6.22	16.65	3.29	3.41	1.84	1.43	0.30	
연령	20대 이하	19.45	18.79	19.51	12.85	7.94	13.49	3.40	2.53	1.23	0.39	0.43	78.426***
	30대	18.21	18.09	20.53	10.94	6.72	17.71	2.08	2.67	1.94	0.75	0.35	
	40대	16.18	19.26	19.17	12.94	4.56	19.42	2.75	3.71	0.78	0.78	0.44	
	50대	14.65	18.00	21.40	12.50	5.96	16.43	2.47	3.44	3.02	1.63	0.51	
	60대 이상	14.81	17.89	17.87	12.47	6.46	16.35	4.20	5.23	3.72	0.99	0.00	
지역	수도권	12.55	16.00	18.11	12.58	7.46	20.62	3.65	4.86	2.49	1.27	0.41	133.491 ***
	비수도권	20.70	20.86	21.35	12.13	5.07	12.83	2.27	2.17	1.75	0.57	0.30	
	대도시	16.18	18.67	17.93	12.78	6.62	16.54	2.89	4.57	2.58	0.70	0.55	103.930 ***
중소도시	13.80	18.31	22.19	12.55	6.33	17.94	3.10	2.79	1.64	1.17	0.19		
농어촌	31.67	17.90	15.49	9.70	4.56	11.97	2.62	2.64	2.54	0.63	0.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32	11.92	17.00	12.02	5.50	20.92	4.36	6.85	8.38	3.11	0.62	325.627 ***
	중하층	13.32	16.64	19.17	16.19	7.75	18.86	2.88	3.01	1.39	0.75	0.05	
	중간층	20.48	21.22	21.23	9.95	5.61	14.28	2.55	3.02	0.82	0.29	0.53	
	중상층(상층)	25.51	24.14	18.68	7.43	3.96	11.99	3.14	2.40	1.18	1.32	0.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47	14.07	17.55	12.01	7.30	17.25	4.87	7.01	6.75	2.67	0.06	195.146 ***
	200만 원대	17.17	18.13	19.15	12.91	6.32	18.21	2.37	2.00	2.13	1.48	0.13	
	300만 원대	16.81	18.34	17.86	13.79	5.09	18.66	2.63	4.41	1.27	0.32	0.82	
	400만 원대	16.81	19.84	21.56	11.72	6.73	17.17	2.21	1.66	1.51	0.79	0.00	
	500만 원 이상	18.91	19.92	21.24	11.75	6.28	14.33	2.99	2.95	0.86	0.29	0.49	
학력	중졸 이하	12.13	14.89	19.30	13.76	6.27	16.27	3.81	5.17	5.98	2.35	0.06	110.478 ***
	고졸	16.51	17.76	19.77	12.33	6.07	17.88	3.19	3.78	1.12	1.13	0.47	
	대졸 이상	18.40	20.47	19.82	11.86	6.50	15.70	2.40	2.62	1.74	0.15	0.3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49	21.81	22.07	12.08	6.42	14.38	2.25	2.71	1.19	0.19	0.41	147.79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22	12.85	15.55	13.88	5.23	25.60	2.47	3.73	3.15	2.95	0.38	
	고용주·자영자	18.84	18.03	22.50	11.54	4.65	15.47	2.82	2.83	2.49	0.44	0.37	
	무급가족 종사자	23.63	15.47	24.05	8.38	5.03	12.28	3.46	5.35	0.87	1.48	0.00	
	실업자	12.14	8.19	15.14	18.22	11.65	16.00	6.37	6.52	3.42	1.53	0.84	
	비경제활동인구	16.19	18.50	17.38	12.26	6.98	17.14	3.53	4.22	2.42	1.12	0.25	
직업	관리자·전문가	17.05	20.24	20.92	10.94	3.84	18.73	3.56	3.14	0.95	0.34	0.28	65.064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91	18.98	21.12	12.84	6.02	15.86	2.23	2.51	2.15	0.78	0.61	
	숙련 및 기술직	18.98	18.81	24.00	10.91	4.75	14.19	2.61	4.58	0.85	0.31	0.00	
	단순노무 종사자	13.22	16.61	14.68	12.14	8.13	23.61	2.29	2.20	4.43	2.69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93	22.19	22.17	11.62	6.10	14.38	2.30	2.53	1.15	0.21	0.45	67.570***
	비정규직	13.76	13.79	16.62	14.50	6.14	23.43	2.32	3.91	2.87	2.37	0.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26	17.90	18.56	12.43	6.62	17.86	3.79	4.65	2.76	0.96	0.19	44.123 ***
	중도적	17.75	17.06	20.73	12.97	5.60	17.38	2.39	2.76	2.15	1.05	0.16	
	진보적	17.10	20.90	19.30	11.39	6.94	14.76	3.03	3.59	1.50	0.69	0.79	

주: 1) “ _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4〉 삶의 만족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매우 만족함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76	0.98	1.91	4.34	4.05	25.43	12.42	19.79	18.24	8.11	3.98	
성별	남성	1.00	1.20	1.94	4.48	3.66	26.69	12.11	20.30	18.08	6.71	3.83	19.699**
	여성	0.52	0.75	1.88	4.19	4.45	24.13	12.73	19.27	18.40	9.55	4.13	
연령	20대 이하	1.12	0.37	1.08	3.08	3.60	22.85	11.48	19.51	20.44	9.73	6.75	112.864***
	30대	0.66	1.00	1.00	3.83	3.45	20.80	13.33	21.50	21.03	7.91	5.50	
	40대	0.61	0.97	1.26	4.30	4.16	27.12	11.58	21.65	16.67	8.42	3.25	
	50대	1.39	1.07	3.14	4.54	3.81	26.77	12.46	20.43	16.56	7.22	2.62	
	60대 이상	0.00	1.47	3.02	5.91	5.22	29.19	13.36	15.53	16.89	7.33	2.06	
지역	수도권	1.27	1.39	2.89	5.45	4.38	27.09	12.90	19.34	13.94	7.12	4.22	100.922***
	비수도권	0.26	0.56	0.92	3.21	3.71	23.74	11.93	20.24	22.57	9.11	3.74	
	대도시	1.08	0.96	2.56	5.81	4.24	24.45	12.01	19.93	17.59	7.70	3.65	34.077**
중소도시	0.56	1.08	1.44	3.30	3.92	25.97	13.18	20.07	18.08	8.21	4.18		
	농어촌	0.40	0.56	1.40	3.13	3.85	26.93	10.50	17.88	21.65	9.29	4.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4	4.61	9.42	12.41	7.97	31.01	9.47	8.42	7.25	2.89	3.40	795.482***
	중하층	0.27	0.39	0.72	4.11	4.87	30.42	15.68	19.65	16.66	4.00	3.24	
	중간층	0.45	0.33	0.62	2.46	2.49	21.45	11.30	23.82	21.36	11.17	4.55	
	중상층(상층)	0.00	0.65	0.72	0.33	1.20	11.16	7.86	18.61	30.72	22.64	6.1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65	3.30	5.96	9.72	8.68	30.15	10.87	13.44	11.26	3.24	2.73	352.284 ***
	200만 원대	1.32	1.36	2.31	3.81	3.77	30.79	11.33	18.14	17.69	5.90	3.58	
	300만 원대	0.21	0.29	1.16	6.29	4.38	27.72	12.66	20.51	16.12	7.27	3.39	
	400만 원대	0.56	0.77	0.83	3.13	1.60	23.14	13.58	23.56	19.75	8.56	4.53	
	500만 원 이상	1.01	0.27	0.76	1.56	3.13	20.35	12.94	21.14	22.28	11.71	4.84	
학력	중졸 이하	0.85	2.26	4.97	6.54	6.35	29.76	11.92	15.33	15.01	4.26	2.75	148.573 ***
	고졸	0.37	0.93	1.18	3.49	4.10	28.81	13.03	19.90	16.90	7.91	3.39	
	대졸 이상	1.16	0.55	1.54	4.42	3.12	20.15	11.96	21.36	20.90	9.77	5.0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65	0.38	0.64	2.85	3.23	23.45	13.52	20.75	21.06	9.05	4.42	175.32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9	2.51	2.85	6.56	4.09	27.26	13.17	18.33	14.21	5.27	4.25	
	고용주·자영자	0.61	0.92	2.01	4.16	3.22	26.01	12.11	21.80	19.26	7.22	2.68	
	무급가족 종사자	0.00	0.79	1.61	4.59	1.45	28.07	9.44	17.28	22.01	10.77	3.99	
	실업자	3.54	1.13	8.07	11.81	11.09	31.03	3.12	14.85	7.29	3.87	4.19	
	비경제활동인구	0.48	1.07	2.16	4.34	4.78	25.63	12.43	18.84	17.13	8.94	4.21	
직업	관리자·전문가	1.07	0.26	1.03	3.05	2.06	22.75	11.15	18.21	25.42	9.77	5.23	83.527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75	0.80	1.43	4.43	3.61	22.67	13.50	21.32	19.49	8.23	3.77	
	숙련 및 기술직	0.00	0.91	1.45	2.17	2.54	29.53	12.35	21.92	18.81	7.71	2.60	
	단순노무 종사자	2.19	2.81	2.40	6.58	5.25	32.55	13.09	15.73	10.57	3.52	5.3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2	0.36	0.70	2.81	2.83	22.99	13.81	20.84	21.12	9.24	4.59	50.521***
	비정규직	1.20	2.15	2.29	5.93	4.76	27.47	12.64	18.62	15.41	5.62	3.9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5	0.82	2.35	5.11	5.40	25.59	12.92	19.56	17.14	7.77	2.58	35.851**
	중도적	0.63	1.17	1.71	3.93	3.41	27.21	11.56	20.08	17.73	8.71	3.85	
	진보적	0.98	0.85	1.79	4.21	3.72	22.63	13.23	19.57	20.00	7.53	5.49	

주: 1) “__님께서서는 요즘 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5〉 사회적 지지

(단위: %)

구분		전혀 받고 있지 않음-----매우 많이 받고 있음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13	1.06	2.46	5.09	5.92	25.72	19.71	18.39	13.11	5.14	2.28	
성별	남성	1.26	1.27	2.54	4.99	6.33	26.78	19.42	17.58	13.48	4.28	2.07	13.698
	여성	1.00	0.84	2.38	5.18	5.51	24.63	20.01	19.23	12.72	6.02	2.49	
연령	20대 이하	0.92	0.69	1.34	3.16	4.41	22.72	19.44	20.49	16.14	5.30	5.40	179.131***
	30대	0.98	0.71	0.91	4.47	4.78	22.97	18.65	21.63	16.21	5.44	3.25	
	40대	1.90	1.12	1.85	4.77	5.92	27.50	19.81	18.25	13.18	4.71	0.99	
	50대	1.01	1.34	2.90	5.09	5.28	28.27	22.08	16.42	11.15	5.35	1.11	
지역	60대 이상	0.75	1.39	5.32	7.96	9.29	26.61	18.31	15.40	9.08	4.93	0.95	50.101 ***
	수도권	1.79	1.40	2.66	5.10	5.63	25.10	21.54	16.80	11.53	5.45	3.01	
	비수도권	0.47	0.71	2.26	5.08	6.23	26.35	17.87	19.99	14.70	4.82	1.53	
	대도시	1.24	1.06	2.86	5.25	5.31	23.30	20.74	20.10	13.15	4.43	2.55	
중소도시	1.13	1.20	1.89	4.68	6.35	26.74	19.66	17.16	13.22	5.99	1.98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69	0.35	3.49	6.32	6.45	30.97	15.67	17.11	12.36	4.05	2.53	614.163 ***
	하층	4.11	3.69	9.59	11.86	11.56	26.59	15.06	9.29	3.49	2.40	2.34	
	중하층	0.79	0.64	1.74	5.47	6.69	31.54	21.14	17.10	10.93	2.68	1.29	
	중간층	0.37	0.55	0.91	2.75	4.09	22.65	20.81	21.57	16.94	6.52	2.84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1.64	1.04	1.18	3.59	1.40	11.06	14.42	24.53	21.11	16.05	3.98	403.179 ***
	200만 원 미만	1.79	2.49	7.46	13.10	11.51	27.57	15.66	11.62	6.45	1.86	0.47	
	200만 원대	1.16	0.49	2.57	5.71	7.43	32.33	20.26	14.26	9.62	3.17	2.99	
	300만 원대	1.25	0.47	1.72	4.63	7.24	23.93	20.37	18.84	13.83	6.12	1.60	
	400만 원대	1.22	0.77	1.89	2.78	4.51	27.18	21.15	21.26	14.14	3.59	1.52	
학력	500만 원 이상	0.70	1.19	0.87	2.62	2.58	21.86	20.20	21.76	16.89	7.81	3.52	208.036 ***
	중졸 이하	2.30	1.29	6.17	8.90	9.42	30.84	16.10	15.07	6.06	2.93	0.90	
	고졸	0.64	0.92	2.10	5.66	6.12	28.07	21.01	16.55	12.78	4.15	1.98	
경제활동 상태	대졸 이상	1.22	1.11	1.43	3.02	4.39	21.25	19.68	21.63	16.12	7.04	3.11	182.236 ***
	상용직 임금근로자	0.55	0.64	1.18	3.39	4.74	23.41	20.99	21.00	15.98	5.28	2.82	
	일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87	1.68	3.74	7.76	7.83	30.65	19.51	12.80	7.44	2.83	2.87	
	고용주·자영자	1.15	0.84	2.60	4.71	5.21	30.45	19.01	18.80	12.79	3.90	0.54	
	무급가족 종사자	0.00	1.02	4.40	2.41	4.49	35.48	21.30	15.85	9.32	1.90	3.83	
	실업자	4.76	3.64	3.22	9.32	6.11	25.31	15.82	11.97	17.53	1.34	0.98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0.79	1.12	2.97	5.79	6.93	22.85	19.24	18.35	12.23	7.13	2.59	127.731 ***
	관리자·전문가	0.54	1.15	1.02	2.40	2.83	21.48	15.08	23.69	19.56	9.07	3.1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1	0.87	2.06	4.16	5.01	26.34	21.31	19.50	13.50	3.62	2.41	
	숙련 및 기술직	0.31	0.72	1.82	4.79	6.66	31.36	22.22	16.16	11.09	4.16	0.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3.32	1.07	5.34	9.23	8.85	31.24	15.74	12.63	7.95	1.88	2.75	78.660***
	정규직	0.61	0.70	1.06	3.24	4.70	22.76	21.03	21.31	16.19	5.43	2.98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2.31	1.35	3.48	7.21	7.31	30.61	19.73	13.76	8.68	3.01	2.54	74.431 ***
	보수적	1.20	1.60	3.43	6.64	8.21	26.55	17.60	17.52	10.34	4.98	1.94	
	중도적	1.33	0.72	1.88	4.21	5.75	27.27	20.64	19.27	12.75	4.39	1.79	
	진보적	0.78	1.06	2.40	4.92	4.05	22.65	20.32	17.90	16.23	6.40	3.30	

주: 1) “__님께서도 요즘 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6〉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단위: %)

구분		매우 적음-----매우 많음										χ ²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90	2.26	3.45	6.27	5.33	22.17	17.98	19.55	14.75	4.68	2.65	
성별	남성	1.23	2.69	3.69	6.41	6.02	22.24	18.75	18.05	13.82	4.12	2.99	24.842**
	여성	0.56	1.82	3.20	6.14	4.62	22.08	17.18	21.11	15.72	5.26	2.31	
연령	20대 이하	0.32	1.02	1.44	4.52	2.87	19.60	18.28	21.52	18.33	5.62	6.48	180.839***
	30대	0.23	1.77	2.16	6.53	4.29	20.53	17.29	21.52	16.72	5.47	3.49	
	40대	0.83	2.38	3.80	6.17	5.32	27.09	17.22	18.88	11.67	4.54	2.11	
	50대	1.28	2.56	4.27	6.09	6.67	20.24	20.28	19.20	14.50	3.96	0.95	
	60대 이상	1.82	3.50	5.43	8.10	7.32	22.89	16.69	16.78	13.01	3.94	0.52	
지역	수도권	1.35	2.72	3.59	6.41	5.25	21.87	18.31	19.83	12.48	4.73	3.46	36.259 ***
	비수도권	0.45	1.79	3.31	6.13	5.40	22.47	17.65	19.27	17.05	4.63	1.84	
	대도시	0.94	2.68	4.84	6.52	5.15	17.31	19.45	20.71	14.47	4.81	3.11	65.828 ***
	중소도시 농어촌	0.80	1.97	2.23	5.95	5.30	26.20	17.44	18.98	14.50	4.54	2.0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75	7.84	7.52	11.90	9.93	22.97	13.85	9.68	6.04	1.97	3.56	493.809 ***
	중하층	0.37	2.02	3.24	6.76	5.63	25.65	20.22	18.93	12.37	3.35	1.46	
	중간층	0.13	0.78	2.39	4.10	4.04	20.40	18.26	22.98	17.71	5.87	3.33	
	중상층(상층)	0.59	1.19	2.75	5.65	2.00	12.27	12.40	21.91	27.96	10.36	2.9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40	6.78	7.93	11.46	9.47	22.48	17.10	13.09	5.83	1.91	0.54	344.929 ***
	200만 원대	0.88	2.53	3.36	5.82	5.53	27.56	18.03	16.24	13.42	3.72	2.91	
	300만 원대	0.64	1.65	3.31	6.74	5.67	20.86	18.01	20.64	16.06	4.22	2.20	
	400만 원대	0.29	1.34	1.16	5.20	4.59	22.69	18.69	23.63	16.02	3.49	2.90	
	500만 원 이상	0.25	0.92	2.60	4.42	3.52	19.89	18.03	21.29	18.07	7.34	3.67	
학력	중졸 이하	2.62	4.13	6.28	9.79	8.76	23.25	16.38	15.76	9.42	2.96	0.64	141.372 ***
	고졸	0.77	2.05	3.40	6.33	4.98	23.80	18.58	19.03	14.17	4.21	2.69	
	대졸 이상	0.40	1.77	2.44	4.89	4.40	19.99	17.94	21.55	17.40	5.84	3.3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39	1.00	2.61	3.87	4.92	21.84	20.50	21.97	15.70	4.61	2.60	158.34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9	3.25	5.80	8.24	6.09	23.98	17.16	13.46	11.46	3.33	5.44	
	고용주·자영자	0.29	2.92	2.72	6.13	4.04	24.70	17.40	19.83	16.18	4.37	1.44	
	무급가족 종사자	0.00	2.43	5.43	7.57	4.41	30.86	10.19	16.51	16.94	3.75	1.90	
	실업자	4.60	7.39	6.82	7.85	8.40	15.37	14.27	15.92	13.12	4.72	1.52	
	비경제활동인구	1.14	2.22	3.42	7.79	5.97	20.46	17.05	19.70	14.14	5.47	2.63	
직업	관리자·전문가	0.45	1.92	1.78	4.58	2.41	25.94	14.73	20.94	16.62	7.16	3.47	78.710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59	2.00	3.22	5.03	3.89	21.58	18.97	21.21	16.27	4.27	2.96	
	숙련 및 기술직	0.44	1.19	3.77	5.96	7.08	25.68	21.14	17.03	13.88	2.73	1.12	
	단순노무 종사자	1.17	4.17	4.91	7.96	9.19	25.17	16.58	14.36	8.87	3.70	3.9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7	1.09	2.55	3.7	4.85	21.18	20.7	22.74	15.6	4.58	2.84	66.773***
	비정규직	1.97	2.62	5.3	7.73	6.01	24.94	17.4	13.51	12.5	3.64	4.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5	2.93	3.94	6.27	7.73	23.84	17.63	18.01	12.55	4.09	2.35	49.879 ***
	중도적	1.12	1.64	3.35	6.80	4.62	22.52	19.07	18.41	15.54	4.30	2.64	
	진보적	0.82	2.55	3.14	5.50	4.11	20.06	16.69	22.69	15.66	5.80	2.97	

주: 1) “__님께서서는 요즘 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7〉 가족 외에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사람: 감기가 심하게 걸려 집안을 부탁해야 할 경우

(단위: %)

구분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전문공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χ^2
전체		37.02	1.91	31.91	9.01	0.69	3.10	16.36	
성별	남성	37.32	3.07	33.08	4.76	0.81	2.74	18.22	119.629***
	여성	36.71	0.72	30.70	13.39	0.58	3.46	14.44	
연령	20대 이하	26.24	1.35	57.19	0.58	0.14	4.00	10.51	478.674***
	30대	41.15	2.07	34.69	5.37	0.07	2.57	14.09	
	40대	39.48	3.99	26.58	8.84	0.40	3.66	17.05	
	50대	38.31	1.41	26.04	12.59	0.86	3.16	17.61	
	60대 이상	39.41	0.53	16.55	17.23	2.02	2.01	22.26	
지역	수도권	39.05	1.70	30.10	7.77	0.77	4.07	16.53	28.055***
	비수도권	34.97	2.13	33.73	10.26	0.62	2.11	16.18	
	대도시	34.52	1.82	34.34	7.41	0.89	3.48	17.54	53.486***
	중소도시 농어촌	40.16 32.59	1.96 2.08	31.10 25.65	8.99 15.75	0.48 0.91	2.66 3.55	14.66 19.4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99	1.45	20.24	8.18	2.78	2.79	33.58	228.527***
	중하층	37.04	2.24	30.20	10.30	0.21	3.49	16.51	
	중간층	37.73	1.79	36.65	8.74	0.42	3.09	11.57	
	중상층(상층)	45.63	1.89	35.59	5.20	0.69	1.53	9.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01	0.62	20.40	15.90	3.21	2.94	30.92	303.864***
	200만 원대	35.89	1.73	31.71	9.08	0.28	3.52	17.78	
	300만 원대	41.74	1.99	25.76	9.46	0.48	4.33	16.25	
	400만 원대	38.57	1.99	37.32	5.82	0.00	2.32	13.98	
	500만 원 이상	38.79	2.52	38.37	7.24	0.24	2.62	10.23	
학력	중졸 이하	34.82	0.59	16.73	18.85	1.90	2.68	24.43	198.999***
	고졸	34.35	2.15	34.57	8.45	0.70	3.33	16.46	
	대졸 이상	40.73	2.16	34.79	5.89	0.23	3.00	13.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1.13	4.09	35.91	3.97	0.15	2.57	12.18	250.584***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34.30	2.95	29.15	7.26	0.62	3.44	22.29	
	고용주·자영자	40.70	1.42	25.25	11.81	0.71	3.65	16.46	
	무급가족 종사자	38.24	0.00	18.17	24.53	0.00	2.27	16.79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31.82 32.22	0.00 0.05	31.25 33.89	2.65 12.47	3.85 0.97	2.31 3.30	28.12 17.10	
직업	관리자·전문가	46.37	3.87	31.48	4.43	0.52	2.75	10.58	71.91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8.11	2.60	34.73	6.35	0.51	3.15	14.53	
	숙련 및 기술직	37.14	3.91	25.89	11.86	0.00	2.61	18.59	
	단순노무 종사자	45.70	1.46	18.53	9.92	0.37	3.73	20.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0.83	4.36	35.94	3.83	0.16	2.70	12.18	32.852***
	비정규직	36.26	2.61	30.42	6.91	0.50	3.00	20.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9.69	1.33	24.92	11.97	0.68	2.43	18.99	64.097***
	중도적	34.49	1.86	33.91	8.36	0.73	3.78	16.87	
	진보적	38.26	2.55	35.51	7.19	0.66	2.70	13.14	

주: 1) “다음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8〉 가족 외에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사람: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단위: %)

구분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χ^2
전체		33.93	1.40	27.16	2.64	0.20	6.18	28.49	
성별	남성	29.86	2.25	30.88	1.53	0.10	6.32	29.05	81.244***
	여성	38.13	0.52	23.32	3.79	0.31	6.03	27.91	
연령	20대 이하	23.47	1.15	46.09	0.56	0.27	5.30	23.17	341.950***
	30대	41.16	1.37	27.81	0.75	0.00	6.13	22.79	
	40대	38.28	2.79	24.02	1.78	0.21	7.36	25.55	
	50대	32.77	0.82	24.18	3.92	0.46	7.81	30.04	
	60대 이상	33.51	0.73	14.53	6.16	0.03	3.96	41.08	
지역	수도권	38.07	1.31	25.69	1.66	0.39	5.00	27.88	53.074***
	비수도권	29.75	1.49	28.64	3.64	0.01	7.37	29.11	
	대도시	33.42	1.77	30.45	1.70	0.46	5.67	26.52	71.785***
	중소도시 농어촌	35.22 29.97	1.19 0.81	26.00 18.91	2.84 5.66	0.01 0.00	5.70 10.57	29.04 34.0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25	0.89	16.50	2.97	0.73	3.97	48.69	227.943***
	중하층	33.62	1.63	23.38	3.27	0.14	6.20	31.77	
	중간층	36.08	1.42	32.20	2.29	0.11	6.55	21.35	
	중상층(상층)	38.38	1.06	38.49	0.69	0.00	8.52	12.8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39	0.58	13.85	6.33	0.69	4.92	52.24	349.823***
	200만 원대	32.22	1.45	25.80	2.29	0.00	6.41	31.83	
	300만 원대	36.84	1.43	21.48	3.31	0.25	8.10	28.58	
	400만 원대	36.99	1.02	30.15	1.46	0.00	5.30	25.07	
	500만 원 이상	37.16	1.93	35.68	1.33	0.14	5.94	17.81	
학력	중졸 이하	26.81	0.58	13.12	6.98	0.04	5.55	46.92	256.174***
	고졸	31.44	1.45	29.00	2.84	0.22	5.46	29.59	
	대졸 이상	39.32	1.65	30.48	0.79	0.24	7.19	20.3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99	3.37	32.30	0.98	0.15	5.68	20.54	252.16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8.36	1.17	22.56	1.59	0.88	5.24	40.20	
	고용주·자영자	34.80	0.74	25.00	4.89	0.00	8.74	25.84	
	무급가족 종사자	30.25	1.02	10.76	10.34	0.00	12.24	35.39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7.98 34.24	0.00 0.10	26.81 26.14	1.99 2.85	1.49 0.02	7.36 4.95	44.36 31.70	
직업	관리자·전문가	35.59	4.61	37.41	0.75	0.52	7.83	13.30	108.30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5.15	1.62	28.89	2.21	0.27	6.75	25.10	
	숙련 및 기술직	31.66	2.66	23.37	4.80	0.00	6.67	30.83	
	단순노무 종사자	36.75	0.15	15.58	2.27	0.00	5.18	40.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7.51	3.35	32.33	1.04	0.16	5.5	20.11	63.774***
	비정규직	28.97	1.64	24.4	1.35	0.71	5.69	37.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16	1.30	23.15	4.43	0.18	6.23	31.55	55.286***
	중도적	32.29	1.43	27.33	2.03	0.11	6.31	30.50	
	진보적	37.09	1.45	30.65	1.88	0.35	5.94	22.64	

주: 1) "다음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39〉 가족 외에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받아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경우

(단위: %)

구분		친척	직장동료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χ^2
전체		12.79	3.06	66.51	6.49	0.36	2.32	8.46	
성별	남성	10.94	4.26	69.50	3.43	0.42	2.28	9.17	94.188***
	여성	14.71	1.83	63.43	9.64	0.30	2.37	7.73	
연령	20대 이하	6.73	1.69	86.88	0.31	0.15	1.47	2.76	415.744***
	30대	11.96	4.24	71.63	4.55	0.22	2.01	5.39	
	40대	13.97	4.59	64.85	4.16	0.36	3.16	8.91	
	50대	14.21	3.04	64.16	7.51	0.76	1.80	8.53	
	60대 이상	16.76	1.54	45.64	16.06	0.27	3.10	16.62	
지역	수도권	14.32	3.26	64.17	5.44	0.59	3.39	8.82	42.928***
	비수도권	11.25	2.86	68.88	7.55	0.13	1.24	8.10	
	대도시	10.31	2.99	70.04	4.74	0.61	2.81	8.50	55.208***
	중소도시 농어촌	15.13 12.07	3.32 2.12	64.53 61.20	7.23 10.27	0.18 0.19	1.90 2.26	7.70 11.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85	2.48	47.35	7.60	1.65	5.29	24.78	349.526***
	중하층	13.43	3.34	64.81	7.39	0.11	1.67	9.25	
	중간층	12.62	3.11	72.71	5.98	0.11	2.07	3.41	
	중상층(상층)	14.66	2.46	77.11	2.28	0.65	1.11	1.7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77	0.90	40.93	15.31	1.65	3.07	24.38	492.780***
	200만 원대	15.02	2.45	62.62	6.05	0.00	4.01	9.86	
	300만 원대	13.77	5.27	64.00	6.86	0.15	3.21	6.74	
	400만 원대	11.18	1.84	74.66	4.84	0.24	0.98	6.27	
	500만 원 이상	11.57	3.62	77.41	3.32	0.14	1.33	2.60	
학력	중졸 이하	16.82	1.41	42.24	17.24	0.46	2.87	18.96	315.965***
	고졸	11.70	3.49	68.60	5.15	0.46	2.13	8.48	
	대졸 이상	12.45	3.22	73.45	3.86	0.22	2.32	4.4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4	6.53	75.60	2.09	0.15	2.11	3.59	310.690***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3.29	4.04	61.52	3.61	0.80	3.31	13.43	
	고용주·자영자	15.38	2.30	61.21	9.33	0.21	2.27	9.30	
	무급가족 종사자	16.07	0.00	47.49	23.82	0.00	1.56	11.05	
	실업자	9.19	0.00	65.00	3.44	1.49	4.04	16.84	
	비경제활동인구	14.03	0.30	63.94	9.24	0.42	2.10	9.98	
직업	관리자·전문가	13.27	6.17	71.84	2.32	0.52	3.25	2.64	96.11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93	4.33	71.65	4.18	0.25	2.15	6.50	
	숙련 및 기술직	12.32	5.00	62.10	9.69	0.00	1.73	9.16	
	단순노무 종사자	19.92	3.09	52.21	5.89	0.72	3.64	14.5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03	6.15	75.76	2.2	0.16	2.16	
비정규직	12.44	5.33	63.94	3.08	0.64	2.96	1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66	3.06	57.98	10.68	0.45	2.70	10.47	73.923***
	중도적	11.70	2.71	69.29	5.44	0.28	2.21	8.37	
	진보적	12.67	3.59	70.41	4.11	0.40	2.13	6.71	

주: 1) “다음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0〉 어두울 때 안전하다는 느낌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안전	안전하지 않음	매우 안전하지 않음	χ^2
전체		10.56	69.62	17.89	1.93	
성별	남성	12.98	73.84	11.66	1.52	121.375 ***
	여성	8.06	65.28	24.32	2.34	
연령	20대 이하	13.61	63.75	19.37	3.27	33.943 ***
	30대	11.38	68.08	18.45	2.09	
	40대	10.24	69.88	18.61	1.27	
	50대	8.69	71.32	18.23	1.77	
	60대 이상	9.14	74.83	14.69	1.34	
지역	수도권	9.20	69.55	18.70	2.55	16.126 ***
	비수도권	11.93	69.70	17.08	1.29	
	대도시	11.40	68.34	18.00	2.26	58.061 ***
	중소도시 농어촌	7.78 20.25	71.95 63.93	18.61 14.04	1.66 1.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93	68.87	21.53	3.67	66.740 ***
	중하층	9.67	69.15	18.87	2.31	
	중간층	11.44	70.65	16.98	0.92	
	중상층(상층)	20.06	66.99	10.33	2.6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15	71.91	17.80	2.14	28.829 ***
	200만 원대	9.34	72.14	15.78	2.74	
	300만 원대	11.23	69.31	17.55	1.91	
	400만 원대	7.79	69.35	21.25	1.61	
	500만 원 이상	13.25	67.80	17.47	1.47	
학력	중졸 이하	8.72	72.57	16.60	2.11	16.021 **
	고졸	9.19	69.65	19.10	2.06	
	대졸 이상	12.73	68.48	17.08	1.7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35	72.96	13.42	2.27	39.94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34	66.31	21.35	2.00	
	고용주·자영자	12.06	67.34	19.13	1.48	
	무급가족 종사자	16.87	63.00	18.86	1.27	
	실업자	12.49	63.63	20.62	3.26	
	비경제활동인구	8.34	69.92	20.00	1.74	
직업	관리자·전문가	14.57	71.12	12.29	2.03	17.459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95	68.39	18.68	1.98	
	숙련 및 기술직	12.81	70.73	14.28	2.18	
	단순노무 종사자	7.95	74.19	16.76	1.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65	72.62	13.36	
비정규직	9.93	68.31	19.93	1.83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9	73.02	16.53	1.06	14.903 **
	중도적	10.31	69.40	18.24	2.05	
	진보적	12.03	66.76	18.67	2.54	

주: 1) "어두울 때 귀하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혹은 혼자 걷는다면)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1〉 강도나 신체적 위해 경험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χ^2
전체		0.56	99.44	
성별	남성	0.75	99.25	2.385
	여성	0.37	99.63	
연령	20대 이하	0.52	99.48	1.689
	30대	0.72	99.28	
	40대	0.35	99.65	
	50대	0.76	99.24	
	60대 이상	0.47	99.53	
지역	수도권	0.63	99.37	0.287
	비수도권	0.50	99.50	
	대도시	0.67	99.33	0.610
	중소도시 농어촌	0.50 0.40	99.50 99.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7	98.83	13.494***
	중하층	0.90	99.10	
	중간층	0.07	99.93	
	중상층(상층)	0.59	99.4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3	99.17	4.640
	200만 원대	0.56	99.44	
	300만 원대	0.12	99.88	
	400만 원대	0.89	99.11	
	500만 원 이상	0.54	99.46	
학력	중졸 이하	0.51	99.49	1.225
	고졸	0.71	99.29	
	대졸 이상	0.42	99.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4	99.86	14.29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0	100.00	
	고용주·자영자	0.72	99.28	
	무급가족 종사자	0.00	100.00	
	실업자	1.70	98.30	
	비경제활동인구	1.00	99.00	
직업	관리자·전문가	0.26	99.74	1.14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37	99.63	
	숙련 및 기술직	0.19	99.81	
	단순노무 종사자	0.00	10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5	99.85	0.810
	비정규직	0.00	10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6	99.54	0.604
	중도적	0.67	99.33	
	진보적	0.51	99.49	

주: 1) “귀하나 가구원 중 최근 5년 동안(2011년~현재) 강도나 신체적 위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2〉 불안: 자연재해 - 홍수나 태풍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2.14	21.19	26.25	37.89	12.52	
성별	남성	1.53	20.32	25.45	39.05	13.65	14.626 **
	여성	2.76	22.10	27.08	36.70	11.36	
연령	20대 이하	1.29	19.22	26.90	36.10	16.49	49.273 ****
	30대	1.36	18.59	28.35	38.06	13.64	
	40대	2.44	20.35	28.01	36.95	12.26	
	50대	2.04	22.26	25.51	40.82	9.37	
	60대 이상	3.54	25.53	22.36	37.31	11.27	
지역	수도권	2.20	21.31	22.98	39.32	14.18	26.542 ****
	비수도권	2.08	21.08	29.56	36.44	10.85	
	대도시	2.13	18.67	26.54	38.88	13.78	19.177 **
	중소도시 농어촌	1.90 3.32	22.50 25.49	26.50 23.87	37.72 34.59	11.38 12.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9	25.41	24.20	37.68	10.92	61.900 ****
	중하층	1.96	21.56	29.94	36.36	10.17	
	중간층	2.47	20.07	24.40	39.83	13.23	
	중상층(상층)	1.69	17.23	22.26	33.91	24.9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80	27.71	23.59	34.06	11.85	44.775 ****
	200만 원대	2.63	21.08	28.39	35.45	12.45	
	300만 원대	1.94	22.42	23.67	39.96	12.01	
	400만 원대	1.88	19.10	26.41	42.98	9.63	
	500만 원 이상	1.87	18.51	28.07	36.80	14.75	
학력	중졸 이하	2.79	26.80	25.03	35.14	10.24	25.343 ****
	고졸	2.54	20.82	26.66	38.20	11.78	
	대졸 이상	1.47	19.48	26.28	38.59	14.1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3	17.54	26.32	42.03	13.38	70.18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2	23.13	28.07	32.88	13.31	
	고용주·자영자	3.89	22.23	28.60	34.62	10.67	
	무급가족 종사자	5.40	26.10	31.74	32.29	4.46	
	실업자	0.82	22.09	19.73	37.43	19.93	
	비경제활동인구	2.23	23.05	24.47	37.94	12.30	
직업	관리자·전문가	1.38	15.42	27.91	39.70	15.59	33.408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71	18.79	28.31	38.12	13.07	
	숙련 및 기술직	3.06	24.82	25.57	37.64	8.90	
	단순노무 종사자	4.05	25.36	26.28	34.27	10.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4	17.55	26.97	41.06	13.68	12.254 **
	비정규직	2.21	22.03	26.37	36.69	12.6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3	22.63	25.82	35.97	12.65	22.479 ****
	중도적	2.18	22.16	27.43	36.15	12.08	
	진보적	1.35	18.42	24.91	42.26	13.07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3〉 불안: 자연재해 -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동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7.22	28.13	29.67	25.50	9.49	
성별	남성	7.08	26.35	28.89	26.73	10.95	16.621 ***
	여성	7.36	29.96	30.47	24.23	7.98	
연령	20대 이하	5.87	23.81	31.32	27.44	11.55	23.266
	30대	8.71	27.98	29.38	24.40	9.52	
	40대	8.49	28.14	30.10	24.25	9.03	
	50대	5.89	29.82	28.85	26.43	9.01	
	60대 이상	7.10	30.68	28.73	25.04	8.45	
지역	수도권	6.64	31.67	28.81	23.05	9.82	29.639 ***
	비수도권	7.80	24.55	30.54	27.97	9.15	
	대도시	7.17	26.68	28.47	27.78	9.89	21.034 **
	중소도시 농어촌	7.59 5.65	29.45 27.87	31.28 26.99	22.49 30.22	9.18 9.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33	27.34	30.12	26.99	7.21	43.980 ***
	중하층	6.26	30.95	30.90	23.77	8.12	
	중간층	7.82	26.17	29.34	26.59	10.08	
	중상층(상층)	6.12	26.92	23.79	24.69	18.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18	28.88	28.07	27.86	8.01	31.043 **
	200만 원대	7.09	24.23	32.59	27.32	8.78	
	300만 원대	8.11	28.25	30.40	24.42	8.83	
	400만 원대	6.19	30.55	26.45	28.93	7.88	
	500만 원 이상	7.31	28.27	30.26	22.50	11.66	
학력	중졸 이하	5.83	30.91	30.67	25.98	6.62	20.095 **
	고졸	7.24	27.14	31.50	25.22	8.90	
	대졸 이상	7.72	28.14	27.31	25.62	11.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33	26.22	27.91	27.83	11.72	45.449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6.58	25.78	35.17	22.84	9.63	
	고용주·자영자	8.07	29.11	29.39	26.21	7.22	
	무급가족 종사자	11.42	31.93	28.17	26.16	2.32	
	실업자	7.47	22.79	24.40	33.87	11.47	
	비경제활동인구	7.50	30.51	30.30	22.82	8.88	
직업	관리자·전문가	5.81	29.06	24.64	27.07	13.41	31.868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19	27.83	31.13	24.85	10.01	
	숙련 및 기술직	9.53	25.04	26.98	31.31	7.14	
	단순노무 종사자	8.58	25.59	34.19	23.53	8.1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56	26.27	28.25	27.13	11.8	4.647
	비정규직	6.04	25.76	33.05	25.27	9.87	
이념적 성향	보수적	7.60	28.93	28.22	25.46	9.79	13.077
	중도적	7.36	26.64	31.86	25.83	8.32	
	진보적	6.66	29.58	27.78	25.04	10.94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4〉 불안: 자연재해 - 황사나 가뭄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5.37	33.51	28.64	24.51	7.96	
성별	남성	4.71	31.69	28.98	25.75	8.86	13.863 **
	여성	6.06	35.39	28.29	23.22	7.04	
연령	20대 이하	5.52	26.36	28.29	29.23	10.61	42.554 ****
	30대	5.91	33.69	27.78	23.60	9.02	
	40대	4.47	37.90	27.71	23.67	6.25	
	50대	5.28	33.03	30.00	23.62	8.07	
	60대 이상	5.81	36.02	29.42	22.64	6.11	
지역	수도권	6.13	37.89	25.09	22.94	7.95	47.244 ****
	비수도권	4.61	29.09	32.23	26.09	7.98	
	대도시	4.68	33.31	28.69	24.60	8.72	8.000
	중소도시 농어촌	5.96 5.45	33.88 32.63	29.12 26.17	23.82 27.39	7.21 8.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0	34.78	33.94	21.07	6.01	70.068 ****
	중하층	5.33	32.99	31.93	23.32	6.43	
	중간층	5.68	33.30	25.87	26.63	8.53	
	중상층(상층)	6.23	35.17	16.71	24.59	17.3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02	34.46	32.69	22.00	5.83	32.956 **
	200만 원대	6.02	32.34	30.68	22.84	8.13	
	300만 원대	6.79	33.29	28.48	24.15	7.29	
	400만 원대	3.83	32.29	29.07	28.17	6.63	
	500만 원 이상	5.18	34.34	25.63	24.84	10.01	
학력	중졸 이하	5.40	35.84	32.90	20.26	5.59	20.119 **
	고졸	5.60	33.29	27.64	25.95	7.52	
	대졸 이상	5.12	32.88	28.11	24.55	9.3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55	31.67	28.68	26.60	9.49	39.79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43	36.81	29.13	21.46	7.17	
	고용주·자영자	6.46	32.95	30.81	22.11	7.67	
	무급가족 종사자	13.38	37.30	25.81	19.40	4.11	
	실업자	6.23	32.23	29.02	23.13	9.40	
	비경제활동인구	5.86	34.38	27.31	25.42	7.03	
직업	관리자·전문가	2.22	35.45	26.82	24.98	10.53	28.359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64	33.90	28.35	24.55	8.57	
	숙련 및 기술직	8.23	28.93	32.11	23.85	6.88	
	단순노무 종사자	4.71	34.96	32.31	20.74	7.2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1	31.75	29.26	26.34	9.34	8.830*
	비정규직	5.57	35.65	27.83	23.00	7.95	
이념적 성향	보수적	5.12	33.52	29.65	23.40	8.32	12.975
	중도적	6.12	33.28	29.00	24.97	6.64	
	진보적	4.52	33.85	27.18	24.86	9.59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5> 불안: 자연재해 - 지진 및 쓰나미(지진해일)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5.14	22.18	27.01	32.20	13.46	
성별	남성	4.67	19.42	27.87	33.22	14.82	23.192 ***
	여성	5.63	25.03	26.12	31.16	12.05	
연령	20대 이하	4.55	22.67	26.13	30.49	16.17	23.852 *
	30대	4.10	22.67	29.29	30.26	13.68	
	40대	4.96	21.39	29.48	32.28	11.89	
	50대	6.18	22.15	26.82	31.78	13.07	
	60대 이상	5.84	22.16	23.02	36.22	12.76	
지역	수도권	4.11	21.42	27.46	32.76	14.25	11.572 **
	비수도권	6.19	22.95	26.56	31.64	12.66	
	대도시	5.47	24.02	25.68	31.00	13.83	23.449 ***
	중소도시 농어촌	4.97 4.60	21.21 19.13	29.11 22.59	32.56 35.50	12.14 18.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62	22.90	23.98	31.15	14.36	37.166 ***
	중하층	4.51	23.06	29.76	31.24	11.43	
	중간층	5.12	22.03	26.06	33.06	13.73	
	중상층(상층)	3.38	16.57	24.40	34.32	21.3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17	22.52	24.62	31.23	15.46	20.910
	200만 원대	5.02	20.70	28.61	32.07	13.59	
	300만 원대	5.44	22.90	25.95	32.40	13.32	
	400만 원대	3.77	24.28	26.48	35.54	9.93	
	500만 원 이상	5.22	21.14	28.35	30.96	14.33	
학력	중졸 이하	5.76	24.17	22.52	33.75	13.80	17.989 **
	고졸	5.92	22.99	27.14	31.43	12.52	
	대졸 이상	4.07	20.56	28.57	32.45	14.3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3	18.67	28.52	35.21	13.97	68.787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7.24	24.44	27.35	29.07	11.90	
	고용주·자영자	6.50	18.37	30.48	31.84	12.81	
	무급가족 종사자	6.68	25.06	18.50	33.56	16.20	
	실업자	1.51	25.42	20.88	28.67	23.51	
	비경제활동인구	5.36	26.57	24.57	30.83	12.68	
직업	관리자·전문가	4.59	17.20	26.83	37.62	13.76	16.83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5.05	19.83	29.97	31.56	13.59	
	숙련 및 기술직	4.67	20.06	26.73	36.27	12.27	
	단순노무 종사자	8.54	23.05	26.75	28.01	13.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75	18.77	29.04	34.12	14.31	11.487 **
	비정규직	6.27	23.11	26.5	32.55	11.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5.34	22.65	26.38	31.03	14.60	15.374 *
	중도적	5.84	23.12	26.29	32.90	11.85	
	진보적	3.92	20.36	28.67	32.28	14.77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6〉 불안: 건강 - 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과 같은 전염병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8.20	35.47	29.25	21.36	5.73	
성별	남성	7.08	32.98	29.34	23.83	6.75	31.523***
	여성	9.34	38.04	29.15	18.80	4.67	
연령	20대 이하	7.45	32.61	29.94	20.68	9.32	40.977***
	30대	9.84	35.26	30.04	20.25	4.60	
	40대	7.70	37.07	28.42	20.76	6.05	
	50대	7.16	36.76	26.62	25.01	4.45	
	60대 이상	9.01	35.28	31.62	19.76	4.33	
지역	수도권	9.36	37.88	26.33	20.08	6.35	29.615***
	비수도권	7.02	33.04	32.20	22.64	5.10	
	대도시	8.59	36.86	28.73	19.48	6.34	25.275***
	중소도시 농어촌	8.41 5.56	35.82 28.05	28.56 34.66	21.84 26.85	5.37 4.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24	40.57	27.08	19.88	2.23	51.827***
	중하층	8.78	35.29	30.30	19.78	5.85	
	중간층	6.90	34.60	29.78	22.95	5.78	
	중상층(상층)	9.11	31.01	24.46	22.89	12.5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45	36.61	31.72	19.52	3.70	34.056**
	200만 원대	9.12	31.79	31.81	21.65	5.63	
	300만 원대	8.13	35.88	28.94	21.93	5.12	
	400만 원대	8.58	37.05	28.63	22.22	3.53	
	500만 원 이상	7.51	35.62	27.28	21.33	8.26	
학력	중졸 이하	8.66	35.60	30.83	21.14	3.77	8.451
	고졸	8.60	35.14	28.87	20.83	6.55	
	대졸 이상	7.58	35.78	29.06	22.00	5.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51	31.28	30.18	24.48	6.54	48.14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6	39.55	29.09	16.29	6.21	
	고용주·자영자	7.43	35.84	31.21	20.61	4.90	
	무급가족 종사자	7.78	36.99	29.46	24.82	0.95	
	실업자	1.80	46.84	29.20	15.15	7.02	
	비경제활동인구	9.77	36.67	27.22	20.90	5.44	
직업	관리자·전문가	7.02	28.82	32.93	24.24	6.99	34.65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86	35.94	29.82	19.84	6.54	
	숙련 및 기술직	6.20	34.23	28.51	27.77	3.29	
	단순노무 종사자	11.69	32.36	33.31	17.27	5.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45	31.93	30.54	23.69	6.39	6.360
	비정규직	8.74	36.58	28.55	19.54	6.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9.03	33.45	28.62	22.20	6.69	10.989
	중도적	8.46	36.49	29.65	20.69	4.71	
	진보적	7.03	35.86	29.24	21.55	6.32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7〉 불안: 건강 - 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과 같은 먹거리 문제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9.84	31.61	31.24	21.29	6.01	
성별	남성	8.57	29.27	31.41	23.64	7.11	31.577***
	여성	11.16	34.02	31.06	18.88	4.88	
연령	20대 이하	11.58	26.98	31.11	21.80	8.53	46.328***
	30대	12.16	32.61	28.91	20.25	6.07	
	40대	10.81	35.80	28.81	19.55	5.04	
	50대	6.77	31.57	34.04	22.71	4.92	
	60대 이상	8.14	30.52	33.32	22.25	5.78	
지역	수도권	12.81	32.48	29.69	19.00	6.02	48.032***
	비수도권	6.85	30.74	32.80	23.61	6.01	
	대도시	10.50	30.10	31.49	21.27	6.64	28.269***
	중소도시 농어촌	10.13 5.76	33.72 27.92	31.05 31.08	19.67 29.07	5.43 6.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21	32.79	33.12	22.34	2.53	46.196***
	중하층	10.73	32.96	30.15	20.53	5.63	
	중간층	8.94	30.90	32.35	21.39	6.42	
	중상층(상층)	12.31	26.04	25.65	22.68	13.3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85	30.59	30.79	25.60	4.18	45.198***
	200만 원대	6.72	32.44	32.81	22.74	5.31	
	300만 원대	9.53	30.90	32.64	21.46	5.47	
	400만 원대	12.47	31.71	33.24	18.23	4.35	
	500만 원 이상	10.66	32.05	28.65	20.21	8.43	
학력	중졸 이하	7.46	29.12	36.24	22.86	4.31	25.733***
	고졸	8.72	32.39	31.05	21.75	6.10	
	대졸 이상	11.96	31.72	29.54	20.21	6.5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18	29.49	29.34	23.69	7.29	38.081**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6.96	36.63	33.16	18.54	4.71	
	고용주·자영자	7.93	32.60	33.17	20.57	5.73	
	무급가족 종사자	9.47	29.66	37.23	21.26	2.38	
	실업자	7.29	26.34	36.00	22.63	7.74	
	비경제활동인구	11.93	32.04	30.39	20.19	5.45	
직업	관리자·전문가	9.13	31.48	27.71	22.49	9.19	33.73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40	32.06	31.74	19.67	6.13	
	숙련 및 기술직	4.64	31.01	32.41	27.29	4.65	
	단순노무 종사자	9.69	31.03	32.68	20.70	5.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54	29.8	29.43	23.34	6.89	10.672**
	비정규직	6.85	34.58	32.22	20.29	6.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9.73	30.33	31.41	21.75	6.77	13.009
	중도적	9.26	31.49	32.65	21.73	4.87	
	진보적	10.81	32.99	28.99	20.22	6.99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8〉 불안: 건강 -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7.90	25.23	30.59	27.73	8.54	
성별	남성	8.53	24.06	29.42	28.81	9.18	9.406*
	여성	7.26	26.43	31.80	26.62	7.89	
연령	20대 이하	6.86	24.06	30.59	27.41	11.08	26.847*
	30대	7.75	24.56	30.27	28.38	9.04	
	40대	7.72	26.81	33.33	23.64	8.50	
	50대	8.78	27.06	27.71	29.53	6.93	
	60대 이상	8.33	23.22	31.02	30.07	7.37	
지역	수도권	10.93	25.39	28.81	26.27	8.59	52.134***
	비수도권	4.84	25.06	32.39	29.21	8.50	
	대도시	7.36	26.25	30.22	27.39	8.78	25.327***
	중소도시 농어촌	9.37 3.16	24.69 23.52	30.05 34.73	28.12 27.35	7.77 11.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17	31.37	27.80	23.71	4.94	91.365***
	중하층	8.05	27.18	32.17	25.99	6.62	
	중간층	5.95	22.67	30.79	30.30	10.29	
	중상층(상층)	10.82	17.58	26.46	29.33	15.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06	29.47	29.40	23.82	7.25	25.566*
	200만 원대	7.73	23.57	31.42	29.78	7.50	
	300만 원대	7.22	25.46	30.87	27.02	9.42	
	400만 원대	7.73	23.85	34.28	26.39	7.75	
	500만 원 이상	7.53	24.60	28.53	29.79	9.55	
학력	중졸 이하	10.08	26.39	30.13	26.87	6.54	11.734
	고졸	7.40	26.12	30.79	27.39	8.29	
	대졸 이상	7.61	23.82	30.57	28.43	9.5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07	20.96	30.18	31.52	10.27	48.8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82	31.18	31.08	21.88	8.04	
	고용주·자영자	7.51	26.58	30.22	27.37	8.32	
	무급가족 종사자	4.64	26.73	34.63	25.74	8.26	
	실업자	9.64	30.71	33.36	16.20	10.09	
	비경제활동인구	9.01	25.88	30.50	27.58	7.03	
직업	관리자·전문가	7.99	18.73	33.10	30.13	10.05	42.30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37	25.92	28.16	28.33	10.22	
	숙련 및 기술직	3.97	24.02	35.63	28.12	8.25	
	단순노무 종사자	13.25	26.87	28.86	26.90	4.1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27	20.87	30.9	30.74	10.24	15.927***
	비정규직	7.27	29.38	29.4	25.41	8.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6	23.22	29.40	29.03	8.69	13.415
	중도적	7.72	25.68	31.59	27.16	7.84	
	진보적	6.51	26.44	30.24	27.36	9.44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49> 불안: 건강 - 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성인병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11.82	34.77	27.51	20.22	5.68	
성별	남성	11.79	33.25	27.35	20.91	6.70	10.864**
	여성	11.85	36.33	27.68	19.52	4.62	
연령	20대 이하	6.86	22.80	31.96	28.12	10.26	241.977***
	30대	9.48	28.65	29.19	25.34	7.34	
	40대	12.34	34.05	30.67	19.09	3.86	
	50대	12.56	43.19	23.09	16.56	4.60	
	60대 이상	17.67	44.25	22.74	12.61	2.73	
지역	수도권	14.05	32.76	26.90	19.76	6.52	26.652***
	비수도권	9.56	36.79	28.14	20.69	4.83	
	대도시	10.53	35.67	26.73	21.11	5.97	27.102***
	중소도시 농어촌	12.86 12.26	32.66 40.97	27.64 30.17	20.88 13.47	5.96 3.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96	40.98	25.24	14.79	2.02	124.327***
	중하층	13.02	37.11	28.38	17.13	4.35	
	중간층	9.18	32.64	27.38	23.97	6.82	
	중상층(상층)	11.33	21.76	28.50	24.71	13.7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55	44.87	20.71	14.99	3.87	80.455***
	200만 원대	12.07	35.95	27.70	19.86	4.42	
	300만 원대	11.37	33.08	29.63	21.07	4.86	
	400만 원대	11.72	32.82	29.60	21.90	3.96	
	500만 원 이상	10.36	31.47	28.23	21.40	8.54	
학력	중졸 이하	17.77	46.56	22.80	11.11	1.76	112.357***
	고졸	11.39	33.84	28.20	21.18	5.38	
	대졸 이상	10.02	31.30	28.56	22.64	7.4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62	29.34	28.25	25.15	7.65	88.27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64	36.85	28.96	17.04	2.51	
	고용주·자영자	12.11	39.65	28.17	15.71	4.35	
	무급가족 종사자	17.40	46.18	27.04	8.63	0.74	
	실업자	9.62	40.50	24.35	16.71	8.82	
	비경제활동인구	12.67	35.10	26.26	20.33	5.64	
직업	관리자·전문가	10.72	26.45	31.95	22.10	8.78	41.61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13	34.32	28.50	20.10	5.95	
	숙련 및 기술직	9.70	38.34	27.53	20.58	3.85	
	단순노무 종사자	19.36	36.51	23.39	18.74	1.9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15	29.57	28.70	24.58	8.00	32.359***
	비정규직	14.62	34.90	27.88	19.81	2.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31	38.27	24.79	16.00	5.63	55.870***
	중도적	11.51	35.51	27.45	20.79	4.76	
	진보적	9.01	30.38	30.17	23.35	7.08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0〉 불안: 생애주기 - 노후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11.76	33.5	29.38	19.51	5.85	
성별	남성	11.39	31.30	29.95	20.81	6.56	13.341**
	여성	12.14	35.76	28.80	18.17	5.13	
연령	20대 이하	5.98	19.26	36.26	27.84	10.66	241.497***
	30대	8.39	29.38	31.66	24.57	5.99	
	40대	12.59	39.30	25.72	17.44	4.94	
	50대	13.90	39.59	28.38	14.26	3.87	
	60대 이상	17.54	38.42	25.55	14.32	4.17	
지역	수도권	13.58	34.87	26.85	17.96	6.74	31.561***
	비수도권	9.91	32.10	31.95	21.07	4.96	
	대도시	13.09	32.73	27.67	19.34	7.18	26.208***
	중소도시 농어촌	11.08 9.42	34.61 31.40	29.21 37.35	20.04 17.71	5.06 4.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27	40.36	20.66	9.27	2.43	333.135***
	중하층	13.39	37.20	28.06	17.23	4.13	
	중간층	6.28	30.38	32.86	23.14	7.33	
	중상층(상층)	4.81	17.99	32.90	30.88	13.4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3.24	36.60	23.68	12.01	4.48	171.461***
	200만 원대	13.01	34.69	30.51	17.59	4.20	
	300만 원대	10.19	37.86	30.28	17.00	4.67	
	400만 원대	9.94	32.90	29.94	23.32	3.90	
	500만 원 이상	7.86	29.07	30.66	23.49	8.93	
학력	중졸 이하	20.31	39.72	26.25	11.26	2.45	101.088***
	고졸	10.46	33.45	30.76	19.51	5.82	
	대졸 이상	9.91	31.19	29.09	22.63	7.1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24	32.37	30.80	22.69	6.91	96.55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84	37.45	27.83	14.97	3.91	
	고용주·자영자	12.67	36.38	29.36	17.03	4.56	
	무급가족 종사자	9.84	44.75	32.22	12.44	0.74	
	실업자	21.15	34.66	20.45	11.40	12.35	
	비경제활동인구	13.39	30.65	29.28	20.74	5.95	
직업	관리자·전문가	4.75	33.06	29.41	24.36	8.41	49.18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26	33.46	30.00	19.17	6.10	
	숙련 및 기술직	9.10	38.42	31.90	17.40	3.17	
	단순노무 종사자	17.31	37.98	25.19	16.94	2.5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03	32.12	31.26	22.53	7.06	36.637***
	비정규직	14.61	36.96	27.44	16.82	4.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24	35.94	26.89	16.29	5.64	40.705***
	중도적	10.57	34.43	30.54	19.11	5.35	
	진보적	10.25	29.82	30.02	23.10	6.81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1〉 불안: 생애주기 - 이혼, 가족부양 기능의 악화 등 가족 해체 및 악화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3.48	16.9	32.25	34.6	12.77	
성별	남성	3.65	15.62	32.29	34.69	13.76	7.281
	여성	3.29	18.23	32.21	34.51	11.75	
연령	20대 이하	3.24	11.22	34.78	36.92	13.84	47.507***
	30대	4.24	15.65	30.64	36.99	12.48	
	40대	3.36	20.70	30.43	33.69	11.83	
	50대	2.47	19.49	35.71	30.96	11.37	
	60대 이상	4.20	16.64	29.57	34.97	14.61	
지역	수도권	4.15	17.37	32.96	33.73	11.79	10.005**
	비수도권	2.79	16.44	31.52	35.48	13.77	
	대도시	2.78	16.67	32.94	34.75	12.85	41.378***
	중소도시 농어촌	4.54 1.33	18.56 10.05	31.72 31.87	33.67 38.38	11.52 18.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24	21.26	37.71	26.83	6.96	122.263***
	중하층	3.99	18.47	33.87	32.53	11.13	
	중간층	2.21	14.50	30.48	38.02	14.80	
	중상층(상층)	0.65	14.46	22.70	40.68	21.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16	20.15	33.45	30.02	11.21	50.842***
	200만 원대	5.45	15.54	32.61	34.51	11.89	
	300만 원대	3.24	17.07	32.20	32.68	14.81	
	400만 원대	3.11	18.45	31.12	38.65	8.67	
	500만 원 이상	2.11	15.08	32.17	35.94	14.71	
학력	중졸 이하	4.07	18.76	30.81	33.43	12.94	9.570
	고졸	3.41	16.70	34.35	33.35	12.20	
	대졸 이상	3.32	16.43	30.53	36.39	13.3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0	15.66	31.93	35.26	14.56	38.38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85	18.28	34.86	32.20	8.82	
	고용주·자영자	2.65	17.83	31.98	34.90	12.64	
	무급가족 종사자	2.94	13.86	38.98	24.77	19.45	
	실업자	6.27	16.17	35.76	27.42	14.38	
	비경제활동인구	3.75	17.38	31.00	36.01	11.85	
직업	관리자·전문가	0.66	18.22	31.31	34.95	14.86	21.98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53	16.57	31.77	34.98	13.15	
	숙련 및 기술직	2.47	15.66	35.64	33.42	12.81	
	단순노무 종사자	6.67	17.67	33.59	30.67	11.4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7	15.00	32.65	35.09	14.58	16.308***
	비정규직	5.06	19.14	32.78	33.13	9.8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70	20.90	29.66	32.16	13.58	28.508***
	중도적	3.67	16.35	34.14	33.85	11.99	
	진보적	2.98	13.98	31.87	38.00	13.17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2〉 불안: 생애주기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4.94	27.28	34.42	26.20	7.16	
성별	남성	4.67	26.85	34.45	25.96	8.06	5.501
	여성	5.22	27.72	34.39	26.45	6.22	
연령	20대 이하	5.29	21.95	32.27	30.43	10.07	54.784***
	30대	6.00	25.56	34.05	26.73	7.67	
	40대	4.50	31.86	33.88	24.16	5.60	
	50대	4.16	25.88	40.25	23.65	6.05	
	60대 이상	4.89	30.66	31.11	26.61	6.74	
지역	수도권	5.34	28.03	34.39	24.42	7.82	9.096*
	비수도권	4.54	26.52	34.45	28.00	6.49	
	대도시	4.49	25.03	31.16	30.13	9.19	84.332***
	중소도시 농어촌	5.39 4.70	31.46 16.83	35.60 42.44	22.09 29.30	5.46 6.7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5	20.39	40.54	28.10	5.61	36.025***
	중하층	5.53	28.21	34.26	25.55	6.44	
	중간층	4.79	28.15	33.16	26.21	7.70	
	중상층(상층)	1.63	31.47	30.22	25.66	11.0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9	23.10	32.40	31.44	8.47	40.814***
	200만 원대	5.25	23.25	38.08	26.48	6.93	
	300만 원대	4.80	28.59	35.27	25.12	6.22	
	400만 원대	5.13	26.81	34.60	28.78	4.68	
	500만 원 이상	4.95	30.60	33.09	22.93	8.43	
학력	중졸 이하	5.10	27.72	35.11	27.54	4.53	9.808
	고졸	4.76	26.44	35.30	26.16	7.34	
	대졸 이상	5.07	28.03	33.21	25.74	7.9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92	25.86	34.97	26.40	7.84	42.30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75	24.30	37.82	26.75	6.37	
	고용주·자영자	3.95	28.32	38.28	22.59	6.85	
	무급가족 종사자	9.89	29.27	41.24	17.31	2.29	
	실업자	5.95	25.11	28.91	27.08	12.95	
	비경제활동인구	5.17	29.17	30.53	28.47	6.67	
직업	관리자·전문가	4.29	31.85	34.09	21.47	8.31	29.01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5.10	27.27	36.42	23.30	7.90	
	숙련 및 기술직	4.13	22.21	39.35	28.71	5.59	
	단순노무 종사자	4.98	23.10	35.76	32.28	3.8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15	26.6	34.25	25.74	8.27	8.073*
	비정규직	4.32	23.08	38.77	28.06	5.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5.15	27.27	34.63	26.04	6.92	11.851
	중도적	4.34	25.84	36.32	26.71	6.79	
	진보적	5.63	29.42	31.43	25.60	7.92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3〉 불안: 생애주기 -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11.39	37.13	27.80	18.62	5.06	
성별	남성	11.53	34.51	28.11	19.70	6.14	19.218***
	여성	11.24	39.83	27.49	17.51	3.94	
연령	20대 이하	8.35	30.22	28.48	24.64	8.31	76.869***
	30대	10.46	33.77	31.40	19.44	4.93	
	40대	11.41	41.28	27.09	15.86	4.35	
	50대	12.77	38.92	26.64	17.96	3.71	
	60대 이상	13.77	40.66	25.64	15.69	4.24	
지역	수도권	13.06	40.10	25.20	16.10	5.54	43.307***
	비수도권	9.70	34.12	30.44	21.17	4.57	
	대도시	10.51	35.23	27.81	20.28	6.17	40.181***
	중소도시 농어촌	12.97 7.51	39.83 32.26	26.52 33.87	16.47 21.92	4.21 4.4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83	42.87	21.65	18.01	2.63	65.125***
	중하층	12.58	37.43	29.37	16.61	4.02	
	중간층	9.51	35.06	29.18	20.36	5.89	
	중상층(상층)	9.62	36.60	23.22	19.74	10.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99	37.82	24.92	19.26	4.00	28.473**
	200만 원대	10.33	36.42	30.72	17.19	5.34	
	300만 원대	10.81	39.14	28.31	16.74	5.00	
	400만 원대	10.99	34.17	31.34	20.20	3.30	
	500만 원 이상	11.24	37.60	25.64	19.14	6.38	
학력	중졸 이하	14.39	39.87	27.09	16.49	2.16	24.577***
	고졸	9.94	36.92	28.68	19.23	5.24	
	대졸 이상	11.81	36.32	27.13	18.78	5.9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24	34.00	30.07	20.28	6.41	50.843***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2.65	39.16	25.88	17.31	5.00	
	고용주·자영자	11.56	38.35	30.06	16.46	3.58	
	무급가족 종사자	15.04	48.89	25.71	8.88	1.48	
	실업자	14.92	39.15	20.90	15.32	9.71	
	비경제활동인구	12.34	37.76	25.77	19.74	4.40	
직업	관리자·전문가	9.00	38.78	26.38	19.21	6.63	13.56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66	36.15	29.85	16.93	5.40	
	숙련 및 기술직	9.07	36.53	30.71	19.54	4.15	
	단순노무 종사자	11.46	37.42	25.67	21.75	3.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42	34.53	29.63	19.76	6.66	5.145
	비정규직	11.62	37.05	27.61	18.97	4.7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32	36.64	26.39	17.51	5.15	33.550***
	중도적	8.55	37.40	29.83	19.94	4.28	
	진보적	12.84	37.18	26.13	17.72	6.13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4〉 불안: 사회생활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과 같은 범죄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9.25	30.99	28.80	24.03	6.93	
성별	남성	6.94	27.86	29.29	27.81	8.10	66.851***
	여성	11.62	34.21	28.30	20.14	5.73	
연령	20대 이하	11.45	29.97	27.32	23.57	7.70	63.654***
	30대	13.40	31.72	28.18	21.00	5.69	
	40대	8.61	35.61	25.80	24.41	5.57	
	50대	7.88	29.82	31.28	23.31	7.71	
	60대 이상	5.15	27.30	31.56	27.88	8.11	
지역	수도권	12.63	32.87	25.92	21.53	7.05	73.865***
	비수도권	5.83	29.09	31.72	26.56	6.81	
	대도시	9.81	29.05	27.60	24.64	8.90	69.276***
	중소도시 농어촌	10.07 3.01	34.05 24.57	29.10 32.40	22.10 30.66	4.69 9.3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06	30.06	31.44	23.90	5.55	32.422***
	중하층	9.81	31.58	28.42	23.88	6.32	
	중간층	8.21	31.97	28.73	24.14	6.96	
	중상층(상층)	13.52	22.95	25.62	24.46	13.4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46	30.39	29.95	26.13	7.07	29.664**
	200만 원대	8.76	30.52	30.42	24.39	5.91	
	300만 원대	9.87	31.18	29.79	21.89	7.28	
	400만 원대	9.44	33.61	27.88	25.22	3.86	
	500만 원 이상	10.16	29.89	27.46	23.69	8.80	
학력	중졸 이하	5.12	30.47	31.82	25.15	7.44	17.653**
	고졸	10.49	30.95	27.83	24.22	6.51	
	대졸 이상	9.47	31.22	28.70	23.41	7.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89	29.19	28.06	26.58	8.28	48.73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12	35.56	30.18	17.68	7.46	
	고용주·자영자	7.33	29.84	28.98	26.31	7.55	
	무급가족 종사자	8.99	26.02	39.40	19.35	6.24	
	실업자	11.21	27.69	29.17	23.29	8.63	
	비경제활동인구	11.56	32.52	28.19	22.77	4.95	
직업	관리자·전문가	8.90	30.81	27.73	23.73	8.82	17.76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57	31.29	28.35	23.89	7.90	
	숙련 및 기술직	5.14	28.84	30.96	28.76	6.31	
	단순노무 종사자	9.62	27.72	31.34	21.61	9.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65	29.38	28.46	26.36	8.15	10.055**
	비정규직	9.39	33.93	28.92	19.88	7.8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43	25.77	30.08	25.55	8.17	27.265***
	중도적	8.40	33.81	29.46	22.25	6.08	
	진보적	9.38	31.71	26.63	25.24	7.04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5> 불안: 사회생활 - 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7.69	31.62	33.14	22.27	5.28	
성별	남성	6.75	28.83	34.45	23.78	6.19	26.631***
	여성	8.66	34.50	31.79	20.71	4.34	
연령	20대 이하	8.40	28.11	34.37	22.53	6.58	19.201
	30대	8.30	33.15	31.93	22.20	4.41	
	40대	8.14	34.60	30.58	21.61	5.06	
	50대	7.12	32.83	33.78	21.20	5.07	
	60대 이상	6.51	28.85	35.31	23.98	5.35	
지역	수도권	9.32	32.23	31.87	21.06	5.52	18.671***
	비수도권	6.05	31.00	34.42	23.49	5.04	
	대도시	6.62	29.96	33.69	23.36	6.38	25.279***
	중소도시 농어촌	9.05 5.76	33.29 30.60	32.60 33.40	21.04 23.54	4.02 6.7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67	29.71	34.65	23.34	4.63	38.837***
	중하층	8.12	34.13	33.71	19.86	4.18	
	중간층	7.05	30.46	33.04	23.95	5.49	
	중상층(상층)	9.64	29.31	27.13	22.21	11.7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35	31.21	35.45	22.58	4.41	19.438
	200만 원대	7.89	32.85	33.41	20.82	5.02	
	300만 원대	8.03	31.11	33.55	22.28	5.03	
	400만 원대	8.09	33.66	31.46	23.54	3.26	
	500만 원 이상	7.69	30.44	32.61	22.22	7.04	
학력	중졸 이하	6.51	32.32	34.38	21.62	5.18	4.463
	고졸	8.14	31.06	33.98	21.69	5.13	
	대졸 이상	7.66	31.95	31.77	23.13	5.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46	28.20	34.06	24.68	6.60	65.187***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6.96	31.90	39.04	15.42	6.69	
	고용주·자영자	7.19	32.47	32.92	22.52	4.90	
	무급가족 종사자	14.24	37.06	38.42	9.54	0.74	
	실업자	13.62	29.44	25.64	24.76	6.54	
	비경제활동인구	8.39	34.21	30.75	22.73	3.92	
직업	관리자·전문가	6.47	28.39	34.74	22.23	8.17	13.51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45	30.52	33.79	22.64	5.61	
	숙련 및 기술직	6.02	32.15	35.08	22.12	4.64	
	단순노무 종사자	7.75	28.79	39.82	16.29	7.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94	28.83	34.72	23.86	6.65	6.654
	비정규직	7.95	29.86	36.69	18.94	6.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9.21	29.19	31.99	24.16	5.44	22.646***
	중도적	7.02	33.62	34.83	19.34	5.18	
	진보적	7.26	30.93	31.72	24.81	5.28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6〉 불안: 경제생활 - 실업 및 빈곤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11.05	35.02	28.96	19.90	5.07	
성별	남성	11.54	34.78	27.04	21.14	5.51	10.526**
	여성	10.54	35.26	30.95	18.62	4.62	
연령	20대 이하	12.34	37.55	25.33	19.00	5.78	45.564***
	30대	10.83	31.35	32.23	21.00	4.59	
	40대	11.97	38.28	27.53	17.42	4.81	
	50대	10.45	37.47	30.28	18.24	3.56	
	60대 이상	9.59	29.74	29.49	24.35	6.83	
지역	수도권	14.49	37.85	26.09	16.65	4.93	82.292***
	비수도권	7.57	32.16	31.87	23.19	5.22	
	대도시	11.48	34.02	27.24	21.86	5.40	60.277***
	중소도시 농어촌	11.72 6.04	38.13 24.43	28.69 37.46	16.84 26.26	4.63 5.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01	40.38	23.14	13.49	1.99	192.717***
	중하층	11.87	39.04	29.29	16.12	3.68	
	중간층	7.83	31.10	30.90	23.99	6.18	
	중상층(상층)	5.86	26.46	26.92	28.25	12.5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00	31.59	28.76	18.93	3.72	57.191***
	200만 원대	12.24	36.40	27.85	19.89	3.63	
	300만 원대	9.84	38.57	29.72	16.67	5.20	
	400만 원대	8.99	38.35	29.07	19.50	4.08	
	500만 원 이상	9.61	31.97	29.08	22.64	6.71	
학력	중졸 이하	12.93	30.61	31.44	21.13	3.90	32.301***
	고졸	10.61	37.43	29.99	18.01	3.96	
	대졸 이상	10.81	34.08	26.93	21.47	6.7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23	34.25	29.37	21.57	6.58	128.70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41	41.99	26.55	15.29	2.76	
	고용주·자영자	8.90	33.08	31.50	20.52	5.99	
	무급가족 종사자	7.68	30.67	46.21	14.70	0.74	
	실업자	29.78	45.78	9.71	9.88	4.86	
	비경제활동인구	12.56	33.70	28.70	20.88	4.17	
직업	관리자·전문가	4.33	37.38	29.21	21.49	7.59	44.72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63	33.58	30.16	19.16	6.47	
	숙련 및 기술직	6.87	35.88	32.54	22.10	2.61	
	단순노무 종사자	14.63	39.52	25.18	17.13	3.5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98	34.37	30.14	20.9	6.6	23.444***
	비정규직	12.94	40.22	25.49	17.91	3.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68	30.48	29.80	22.28	5.76	37.368***
	중도적	9.61	36.32	31.44	18.64	3.98	
	진보적	12.57	37.34	24.51	19.54	6.04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7〉 불안: 경제생활 - 주택 및 전세 가격 불안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9.64	28.20	30.57	24.17	7.42	
성별	남성	8.92	27.81	30.82	24.51	7.94	4.058
	여성	10.38	28.61	30.32	23.81	6.88	
연령	20대 이하	8.43	28.02	32.02	24.22	7.30	56.603***
	30대	12.50	30.93	30.31	20.21	6.05	
	40대	10.36	32.01	29.84	20.03	7.75	
	50대	9.29	26.61	30.53	27.35	6.23	
	60대 이상	7.58	23.11	30.26	29.22	9.84	
지역	수도권	13.73	32.53	29.75	18.21	5.78	165.044***
	비수도권	5.51	23.83	31.40	30.19	9.08	
	대도시	9.66	29.64	29.37	24.92	6.40	101.662***
	중소도시 농어촌	10.81 4.03	29.67 15.23	31.38 31.74	21.60 33.20	6.54 15.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56	31.70	27.26	16.57	4.91	177.394***
	중하층	10.00	33.41	29.63	20.81	6.15	
	중간층	6.63	23.63	32.94	28.59	8.21	
	중상층(상층)	5.90	21.49	27.26	30.38	14.9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33	28.00	29.47	24.49	6.71	31.784**
	200만 원대	12.05	28.05	28.31	25.46	6.13	
	300만 원대	10.71	28.70	30.43	21.68	8.48	
	400만 원대	8.91	31.84	31.24	21.09	6.92	
	500만 원 이상	7.47	25.97	31.92	26.64	7.99	
학력	중졸 이하	8.09	25.86	29.06	28.83	8.16	10.924
	고졸	9.83	28.62	31.34	22.97	7.24	
	대졸 이상	10.03	28.63	30.31	23.69	7.3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62	28.90	29.48	25.70	7.30	52.987***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3.36	30.50	31.72	17.61	6.80	
	고용주·자영자	7.70	27.25	32.58	24.21	8.25	
	무급가족 종사자	4.10	17.24	40.11	25.40	13.15	
	실업자	15.84	37.99	24.62	16.44	5.12	
	비경제활동인구	10.25	27.02	30.01	25.61	7.11	
직업	관리자·전문가	5.41	29.87	33.59	23.48	7.64	27.17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16	29.11	30.12	22.72	7.90	
	숙련 및 기술직	7.02	23.72	34.02	28.24	7.00	
	단순노무 종사자	12.19	31.71	27.09	20.81	8.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47	29.07	30.37	25.08	7.01	10.190**
	비정규직	12.74	29.85	29.43	20.48	7.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80	25.23	29.22	26.67	8.07	19.631**
	중도적	8.28	28.66	32.66	23.20	7.19	
	진보적	10.57	30.30	28.75	23.25	7.14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8〉 불안: 경제생활 - 국가 및 가계부채,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과 같은 금융불안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6.86	25.64	36.78	25.10	5.62	
성별	남성	7.03	26.36	35.16	25.57	5.87	4.607
	여성	6.68	24.88	38.46	24.62	5.36	
연령	20대 이하	6.92	22.75	37.42	25.15	7.75	48.487***
	30대	8.63	25.01	37.22	24.88	4.26	
	40대	7.53	31.40	33.39	22.76	4.92	
	50대	6.63	26.00	38.65	23.81	4.91	
	60대 이상	4.50	22.19	37.51	29.36	6.44	
지역	수도권	8.51	28.66	35.70	21.92	5.22	47.219***
	비수도권	5.19	22.58	37.88	28.33	6.02	
	대도시	6.75	26.18	33.92	27.31	5.84	52.449***
	중소도시 농어촌	7.70 3.30	26.87 17.52	38.89 38.71	21.49 33.05	5.04 7.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63	23.98	36.45	25.17	3.77	53.628***
	중하층	6.68	29.38	37.26	22.20	4.49	
	중간층	6.02	23.57	36.83	27.10	6.48	
	중상층(상층)	5.19	21.81	34.49	28.11	10.4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10	23.93	33.24	30.56	5.18	36.686***
	200만 원대	7.21	22.98	37.39	26.42	6.00	
	300만 원대	7.05	26.25	41.45	20.54	4.71	
	400만 원대	8.26	26.54	37.76	22.95	4.49	
	500만 원 이상	5.75	26.93	34.62	26.02	6.67	
학력	중졸 이하	6.62	23.88	36.15	28.05	5.31	11.208
	고졸	6.88	24.66	39.03	24.12	5.31	
	대졸 이상	6.93	27.35	34.61	25.05	6.0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71	27.45	34.44	26.30	6.11	37.3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95	21.39	42.30	22.47	4.90	
	고용주·자영자	7.23	26.38	38.76	22.35	5.28	
	무급가족 종사자	5.00	20.03	44.99	24.09	5.89	
	실업자	14.15	24.10	30.94	24.57	6.25	
	비경제활동인구	6.42	25.43	36.05	26.60	5.51	
직업	관리자·전문가	5.13	30.44	37.31	22.23	4.90	19.60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58	25.70	37.22	23.34	6.17	
	숙련 및 기술직	4.65	22.71	39.65	28.14	4.86	
	단순노무 종사자	8.58	26.96	33.95	25.12	5.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57	27.48	34.77	26.00	6.18	12.904**
	비정규직	8.61	22.49	40.07	23.84	4.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7.26	23.57	38.52	25.82	4.83	12.246
	중도적	5.75	26.47	37.00	24.88	5.91	
	진보적	8.13	26.34	34.84	24.77	5.92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59〉 불안: 경제생활 - 경기침체 및 저성장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12.10	37.60	30.16	16.24	3.91	
성별	남성	12.67	37.06	29.32	16.65	4.31	4.337
	여성	11.51	38.16	31.02	15.82	3.49	
연령	20대 이하	11.27	33.49	30.83	18.24	6.17	45.206***
	30대	13.75	38.77	28.85	15.67	2.95	
	40대	13.80	41.19	27.27	14.74	3.00	
	50대	11.84	39.59	30.94	13.91	3.72	
	60대 이상	9.62	34.25	33.19	19.11	3.84	
지역	수도권	15.99	41.18	26.24	12.91	3.68	108.497***
	비수도권	8.16	33.98	34.11	19.61	4.14	
	대도시	11.86	38.51	28.95	16.18	4.51	41.191***
	중소도시 농어촌	13.67 5.64	38.16 31.15	29.51 38.23	15.24 21.23	3.41 3.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55	43.88	27.06	13.75	1.75	83.794***
	중하층	14.17	40.24	28.79	13.91	2.88	
	중간층	10.40	34.23	32.88	17.62	4.87	
	중상층(상층)	8.43	31.23	26.35	25.90	8.0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68	35.01	31.30	18.42	2.58	25.590*
	200만 원대	13.89	36.85	29.25	16.28	3.73	
	300만 원대	12.60	40.94	29.79	13.21	3.46	
	400만 원대	12.60	36.28	31.99	15.90	3.23	
	500만 원 이상	10.43	37.91	29.21	17.34	5.11	
학력	중졸 이하	9.72	36.34	34.36	17.92	1.65	25.329***
	고졸	12.49	36.65	31.36	15.55	3.95	
	대졸 이상	12.57	39.10	27.27	16.35	4.7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27	37.32	29.43	16.78	5.19	51.15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19	42.15	30.70	13.77	2.19	
	고용주·자영자	15.66	38.14	29.77	13.05	3.38	
	무급가족 종사자	8.55	44.52	27.94	15.92	3.07	
	실업자	17.75	44.01	18.57	14.62	5.06	
	비경제활동인구	10.77	34.85	32.25	18.64	3.49	
직업	관리자·전문가	9.35	36.20	33.64	16.31	4.50	28.19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75	40.23	28.11	13.30	4.60	
	숙련 및 기술직	9.95	36.90	31.35	18.13	3.67	
	단순노무 종사자	15.31	36.78	29.63	17.42	0.8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09	37.96	29.48	16.43	5.04	3.972
	비정규직	11.58	39.88	30.33	15.10	3.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01	35.86	30.41	17.72	3.00	16.936**
	중도적	10.52	38.13	31.82	15.36	4.17	
	진보적	13.57	38.44	27.46	16.16	4.37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0〉 불안: 정치 및 대외관계 -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10.08	35.26	30.31	19.62	4.73	
성별	남성	8.55	34.87	30.64	20.04	5.90	21.307***
	여성	11.66	35.66	29.96	19.20	3.52	
연령	20대 이하	8.07	30.77	34.08	20.34	6.74	48.912***
	30대	9.77	33.60	31.07	21.47	4.09	
	40대	8.83	35.35	31.13	19.48	5.20	
	50대	10.30	36.15	30.87	18.47	4.21	
	60대 이상	13.54	40.30	24.24	18.51	3.41	
지역	수도권	10.39	34.91	31.74	17.67	5.29	13.231**
	비수도권	9.77	35.61	28.86	21.60	4.17	
	대도시	11.91	35.83	28.97	17.88	5.41	52.014***
	중소도시 농어촌	8.66 9.14	36.29 28.01	32.16 27.11	18.75 31.01	4.13 4.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50	34.12	31.25	21.07	3.06	28.924***
	중하층	12.35	35.67	29.49	18.20	4.30	
	중간층	8.58	34.47	31.23	20.38	5.35	
	중상층(상층)	6.26	40.91	26.62	19.44	6.7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93	33.04	25.12	24.18	3.74	44.443***
	200만 원대	12.24	34.70	30.31	18.96	3.79	
	300만 원대	8.59	35.37	33.46	18.19	4.38	
	400만 원대	8.80	38.31	31.57	17.55	3.77	
	500만 원 이상	8.90	34.88	30.16	19.82	6.24	
학력	중졸 이하	13.68	38.06	24.35	21.88	2.02	40.133***
	고졸	9.59	34.04	30.11	21.08	5.19	
	대졸 이상	9.24	35.51	32.78	17.20	5.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49	34.21	30.88	20.30	6.12	44.6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66	34.70	33.16	17.93	5.54	
	고용주·자영자	9.01	37.85	29.37	19.10	4.67	
	무급가족 종사자	16.51	29.36	27.82	23.23	3.07	
	실업자	9.74	33.12	29.65	17.70	9.78	
	비경제활동인구	12.35	35.56	29.55	19.81	2.73	
직업	관리자·전문가	10.83	32.91	32.04	18.33	5.88	14.91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03	36.32	30.96	18.80	5.90	
	숙련 및 기술직	8.30	34.88	29.62	22.83	4.37	
	단순노무 종사자	13.34	32.72	29.87	19.16	4.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45	34.93	31.39	19.75	5.48	1.727
	비정규직	8.73	33.12	31.65	19.54	6.9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96	37.13	27.75	17.94	4.22	44.820***
	중도적	9.67	36.47	31.48	18.74	3.64	
	진보적	7.98	31.72	30.97	22.50	6.82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1〉 불안: 정치 및 대외관계 -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4.40	21.60	39.51	28.07	6.43	
성별	남성	4.26	22.30	38.22	28.14	7.07	5.223
	여성	4.53	20.87	40.83	27.99	5.77	
연령	20대 이하	5.88	21.24	37.17	27.42	8.29	34.572***
	30대	5.02	18.44	40.34	30.22	5.98	
	40대	3.43	26.23	38.67	25.19	6.48	
	50대	3.61	22.37	40.48	28.63	4.91	
	60대 이상	4.25	19.00	40.87	29.21	6.67	
지역	수도권	4.55	23.57	37.54	27.50	6.84	12.445**
	비수도권	4.24	19.60	41.49	28.64	6.02	
	대도시	4.04	20.93	37.03	30.58	7.42	32.079***
	중소도시 농어촌	4.77 4.10	23.34 16.12	41.37 40.97	24.80 33.09	5.72 5.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34	19.71	40.58	28.22	5.14	51.438***
	중하층	5.90	21.92	40.95	26.16	5.07	
	중간층	2.91	21.34	38.44	30.04	7.27	
	중상층(상층)	1.46	25.79	36.04	25.27	11.4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36	20.06	41.29	29.41	4.88	33.697**
	200만 원대	6.05	18.29	40.92	28.56	6.17	
	300만 원대	4.79	21.71	41.48	26.01	6.01	
	400만 원대	4.11	23.35	37.99	30.15	4.40	
	500만 원 이상	3.54	22.98	37.43	27.43	8.62	
학력	중졸 이하	5.07	21.49	41.79	27.28	4.37	7.102
	고졸	4.18	21.35	39.41	28.50	6.57	
	대졸 이상	4.37	21.91	38.75	27.91	7.0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6	21.03	35.92	31.54	8.35	51.622***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5.30	17.51	45.83	24.44	6.92	
	고용주·자영자	3.96	23.64	40.58	26.56	5.26	
	무급가족 종사자	7.72	18.06	52.10	19.12	2.99	
	실업자	6.97	21.81	37.72	28.74	4.76	
	비경제활동인구	5.05	22.58	39.52	27.36	5.48	
직업	관리자·전문가	3.99	22.72	37.83	25.13	10.34	17.51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26	21.84	38.31	28.95	6.64	
	숙련 및 기술직	2.57	19.33	42.09	29.94	6.07	
	단순노무 종사자	4.99	18.19	44.28	26.21	6.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8	21.14	36.72	30.81	8.45	13.548***
	비정규직	5.47	17.96	42.22	27.35	6.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74	21.76	41.01	27.34	6.16	7.734
	중도적	4.64	21.52	40.18	26.90	6.76	
	진보적	4.65	21.56	37.10	30.49	6.20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2〉 불안: 정치 및 대외관계 -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주변 강대국 간의 군사적 충돌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4.12	21.45	40.07	28.56	5.81	
성별	남성	4.37	21.46	39.85	28.06	6.25	2.337
	여성	3.86	21.44	40.29	29.07	5.35	
연령	20대 이하	3.99	19.1	42.14	26.93	7.84	21.677
	30대	4.05	19.66	40.53	30.21	5.55	
	40대	3.59	22.61	39.59	27.4	6.81	
	50대	4.36	22.87	39.86	28.36	4.56	
	60대 이상	4.65	22.7	38.32	30.06	4.27	
지역	수도권	4.73	22.36	38.72	28.28	5.9	6.972
	비수도권	3.5	20.53	41.43	28.84	5.71	
	대도시	3.71	23.81	37.86	27.85	6.76	40.285***
	중소도시 농어촌	5.04 1.42	20.67 15.3	41.81 41.03	27.75 35.31	4.72 6.9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02	20.03	38.46	30.65	4.84	29.190***
	중하층	4.93	22.52	41.65	25.85	5.04	
	중간층	3.16	21.13	39.62	29.67	6.42	
	중상층(상층)	1.67	20.61	37.57	31.93	8.2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06	20.36	39.08	30.53	4.97	18.202
	200만 원대	4.75	21.65	38.58	30.09	4.92	
	300만 원대	3.46	21.4	42.65	27.61	4.87	
	400만 원대	4.73	20.46	41.02	28.39	5.41	
	500만 원 이상	3.49	22.48	39.05	27.56	7.42	
학력	중졸 이하	5.13	22.47	39.64	29.58	3.18	11.342
	고졸	4.19	21.07	40.16	28.25	6.33	
	대졸 이상	3.66	21.47	40.13	28.5	6.2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1	20.78	37.66	31.53	7.13	39.6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14	18.6	41.56	29.57	5.14	
	고용주·자영자	3.66	24.63	42.02	25.18	4.52	
	무급가족 종사자	8.67	14.23	50.52	22.05	4.53	
	실업자	5.21	21.38	38.47	30.18	4.76	
	비경제활동인구	4.8	21.7	40.21	27.59	5.7	
직업	관리자·전문가	6.18	21.35	39.41	23.48	9.58	24.40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5	21.64	40.16	29.13	5.57	
	숙련 및 기술직	2.36	20.96	39.55	31.66	5.47	
	단순노무 종사자	4.52	20.22	41.87	29.9	3.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8	20.75	38.64	30.48	7.15	4.897
	비정규직	4.55	19.09	38.76	32.13	5.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4.28	23.97	37.67	28.75	5.34	14.690*
	중도적	4.41	20.9	41.96	26.62	6.11	
	진보적	3.54	19.91	39.51	31.25	5.79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3〉 불안: 정치 및 대외관계 -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3.97	18.79	40.77	30.01	6.46	
성별	남성	4.47	17.93	41.36	28.96	7.28	9.955*
	여성	3.45	19.68	40.17	31.08	5.62	
연령	20대 이하	4.88	17.26	42.85	27.57	7.44	17.677
	30대	4.15	17.57	40.70	30.96	6.62	
	40대	3.98	20.09	39.33	28.97	7.63	
	50대	3.97	19.75	40.46	31.18	4.65	
	60대 이상	2.88	19.00	40.77	31.35	6.01	
지역	수도권	4.34	21.33	38.45	29.00	6.89	22.119***
	비수도권	3.60	16.23	43.12	31.02	6.03	
	대도시	3.05	19.79	38.43	30.84	7.89	45.048***
	중소도시 농어촌	5.22 1.91	19.20 12.70	42.46 42.52	28.04 35.86	5.09 7.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11	16.55	40.52	30.57	6.25	38.175***
	중하층	4.76	21.49	40.42	28.17	5.16	
	중간층	2.75	17.16	42.03	30.65	7.41	
	중상층(상층)	2.89	19.39	34.78	34.95	7.9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29	18.00	39.21	32.73	5.77	22.003
	200만 원대	5.47	18.07	41.69	29.94	4.82	
	300만 원대	3.78	18.02	43.82	27.68	6.71	
	400만 원대	4.32	18.30	41.61	29.98	5.79	
	500만 원 이상	3.05	20.30	38.65	30.21	7.79	
학력	중졸 이하	3.96	18.57	42.95	30.90	3.63	14.275*
	고졸	3.93	17.96	42.03	29.02	7.06	
	대졸 이상	4.01	19.77	38.60	30.73	6.8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3	18.44	37.77	32.44	8.13	46.569***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4.29	15.08	42.06	32.47	6.11	
	고용주·자영자	3.40	20.72	41.62	28.76	5.50	
	무급가족 종사자	5.05	13.37	58.92	18.13	4.53	
	실업자	8.31	19.89	43.23	20.57	8.00	
	비경제활동인구	4.40	19.52	41.28	29.30	5.50	
직업	관리자·전문가	5.77	18.58	37.80	27.57	10.27	20.83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22	19.16	39.88	31.21	6.54	
	숙련 및 기술직	2.61	16.01	42.93	31.59	6.85	
	단순노무 종사자	4.19	18.70	41.44	31.91	3.7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8	18.48	38.93	31.37	8.04	4.715
	비정규직	4.18	15.66	38.8	34.67	6.6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7	19.70	41.91	28.46	6.26	11.601
	중도적	3.68	18.48	41.59	29.08	7.17	
	진보적	4.68	18.39	38.50	32.83	5.60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4〉 불안: 환경 - 원전사고와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8.24	33.07	33.21	20.63	4.85	
성별	남성	7.15	31.55	33.20	22.22	5.87	21.852***
	여성	9.36	34.63	33.22	19.00	3.79	
연령	20대 이하	8.38	32.78	33.55	18.88	6.41	23.499
	30대	11.09	34.62	29.63	20.03	4.63	
	40대	7.21	33.46	33.34	21.21	4.77	
	50대	7.12	32.39	35.45	20.30	4.74	
	60대 이상	7.67	32.11	33.83	22.68	3.71	
지역	수도권	8.66	35.16	32.78	18.03	5.36	20.998***
	비수도권	7.81	30.95	33.65	23.26	4.33	
	대도시	8.54	35.79	31.09	18.97	5.61	30.448***
	중소도시 농어촌	8.19 7.24	32.40 24.88	34.53 35.78	20.68 27.35	4.20 4.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4	30.26	36.42	21.03	3.34	30.562***
	중하층	8.54	34.07	34.00	19.79	3.59	
	중간층	7.57	33.12	32.74	20.71	5.85	
	중상층(상층)	9.54	33.18	24.65	24.01	8.6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29	26.43	35.68	25.79	2.81	53.222***
	200만 원대	9.42	30.77	35.56	19.42	4.83	
	300만 원대	9.10	35.98	34.12	16.87	3.92	
	400만 원대	6.70	35.43	32.73	21.20	3.95	
	500만 원 이상	7.50	34.29	30.54	20.81	6.86	
학력	중졸 이하	8.60	31.07	36.47	21.64	2.22	19.332**
	고졸	7.90	32.04	34.13	20.91	5.02	
	대졸 이상	8.47	34.93	30.99	19.95	5.6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81	33.16	30.39	22.73	6.91	57.68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20	31.87	38.86	16.53	5.54	
	고용주·자영자	9.10	30.48	36.52	20.41	3.49	
	무급가족 종사자	9.79	25.82	43.69	20.70	0.00	
	실업자	5.49	35.13	31.66	20.48	7.25	
	비경제활동인구	9.67	35.20	31.51	20.13	3.48	
직업	관리자·전문가	7.13	36.35	31.54	17.57	7.41	20.43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17	32.61	33.77	20.21	5.23	
	숙련 및 기술직	6.73	28.18	34.42	25.20	5.47	
	단순노무 종사자	7.55	29.34	39.92	19.88	3.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42	33.46	30.94	22.17	7.01	7.407
	비정규직	7.92	31.5	36.06	18.92	5.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7.70	32.04	33.97	21.47	4.82	24.591***
	중도적	7.18	34.15	35.47	18.64	4.56	
	진보적	10.31	32.43	29.18	22.79	5.30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5〉 위험 인식: 환경 -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12.60	41.43	28.53	13.97	3.47	
성별	남성	10.49	39.79	29.94	15.73	4.05	31.760***
	여성	14.77	43.12	27.07	12.17	2.88	
연령	20대 이하	13.17	36.15	29.67	15.51	5.50	79.221***
	30대	19.37	37.18	27.81	12.79	2.84	
	40대	12.85	45.96	25.06	13.11	3.02	
	50대	8.58	44.00	30.46	13.23	3.72	
	60대 이상	9.45	42.93	29.88	15.42	2.32	
지역	수도권	16.90	43.04	24.01	12.58	3.47	92.522***
	비수도권	8.25	39.80	33.09	15.39	3.47	
	대도시	15.56	40.94	26.59	13.12	3.79	67.872***
	중소도시 농어촌	11.07 7.51	44.17 30.47	28.70 35.76	13.13 21.51	2.93 4.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02	41.62	28.89	14.43	3.03	18.338
	중하층	13.09	43.79	28.22	12.37	2.53	
	중간층	12.31	39.95	28.54	15.14	4.06	
	중상층(상층)	13.04	37.41	29.38	14.28	5.8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35	39.52	30.37	16.01	1.76	31.242**
	200만 원대	11.22	40.00	32.02	13.76	3.01	
	300만 원대	12.75	41.82	30.28	11.18	3.98	
	400만 원대	13.97	42.52	24.96	16.04	2.52	
	500만 원 이상	12.61	42.26	26.74	13.85	4.55	
학력	중졸 이하	10.43	44.13	29.10	14.37	1.98	23.019***
	고졸	11.26	40.06	29.80	15.00	3.89	
	대졸 이상	14.86	41.88	26.94	12.72	3.5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58	42.05	28.38	14.07	3.92	38.725**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0.38	39.60	33.38	11.14	5.49	
	고용주·자영자	10.79	43.75	29.61	13.13	2.73	
	무급가족 종사자	13.54	36.55	33.04	16.13	0.74	
	실업자	13.49	42.75	22.41	15.67	5.69	
	비경제활동인구	15.28	40.27	26.68	15.04	2.73	
직업	관리자·전문가	15.05	42.09	26.24	11.85	4.77	20.00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30	42.92	29.81	12.70	3.27	
	숙련 및 기술직	8.86	39.72	30.91	16.86	3.65	
	단순노무 종사자	10.29	40.93	32.25	11.31	5.2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90	41.87	29.12	13.30	3.80	9.993
	비정규직	9.94	40.46	30.85	13.31	5.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9.91	40.79	31.74	13.83	3.74	24.588***
	중도적	12.18	41.67	28.76	14.23	3.15	
	진보적	15.75	41.66	25.17	13.73	3.70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6〉 위험 인식: 환경 - 수질오염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전혀 불안하지 않다					χ ²
		1	2	3	4	5	
전체		8.41	36.17	35.24	16.17	4.02	
성별	남성	7.06	34.25	35.97	18.13	4.59	25.884***
	여성	9.80	38.14	34.49	14.14	3.43	
연령	20대 이하	8.46	30.75	37.30	16.98	6.50	59.876***
	30대	12.26	31.94	36.06	16.43	3.31	
	40대	8.47	40.39	32.87	15.21	3.07	
	50대	5.73	40.35	35.23	14.49	4.20	
	60대 이상	7.41	36.34	35.09	18.03	3.13	
지역	수도권	10.61	37.95	32.34	15.10	4.00	37.833***
	비수도권	6.18	34.37	38.17	17.25	4.04	
	대도시	9.13	35.36	35.01	16.03	4.48	47.661***
	중소도시 농어촌	8.58 4.59	38.97 26.26	34.38 40.28	14.99 22.31	3.07 6.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55	36.32	35.05	16.89	2.18	24.263**
	중하층	9.19	37.61	34.42	15.39	3.39	
	중간층	7.62	35.65	35.48	16.63	4.62	
	중상층(상층)	6.67	31.01	38.78	15.86	7.6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00	30.86	38.31	19.63	2.21	50.328***
	200만 원대	10.69	32.77	37.47	15.73	3.34	
	300만 원대	9.56	37.62	34.89	13.88	4.04	
	400만 원대	8.74	40.18	32.04	16.24	2.79	
	500만 원 이상	6.18	37.29	34.63	16.22	5.68	
학력	중졸 이하	7.61	38.41	35.29	16.63	2.06	18.074**
	고졸	8.16	33.53	36.78	17.00	4.53	
	대졸 이상	8.97	38.16	33.57	15.09	4.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06	38.80	32.30	16.62	5.21	53.32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11	30.40	44.55	14.70	4.25	
	고용주·자영자	7.67	37.85	35.80	15.20	3.48	
	무급가족 종사자	10.55	34.55	38.37	15.11	1.43	
	실업자	10.40	29.16	31.59	22.05	6.80	
	비경제활동인구	10.60	35.42	34.73	16.27	2.98	
직업	관리자·전문가	9.04	39.91	30.04	14.60	6.41	21.79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29	37.37	35.79	15.26	4.29	
	숙련 및 기술직	4.86	35.43	37.16	18.76	3.77	
	단순노무 종사자	9.38	32.96	40.13	14.04	3.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09	39.67	32.65	15.51	5.07	17.880***
	비정규직	6.23	30.22	41.42	17.40	4.73	
이념적 성향	보수적	7.79	36.03	36.65	15.39	4.13	11.677
	중도적	7.41	37.01	35.51	16.35	3.72	
	진보적	10.46	35.04	33.52	16.61	4.36	

주: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7〉 자아탄력성: 1) 나는 내 친구나 동료에게 너그럽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0.21	10.72	78.72	10.35	
성별	남성	0.19	11.23	77.83	10.75	2.047
	여성	0.24	10.19	79.63	9.95	
연령	20대 이하	0.45	12.22	75.28	12.05	13.296
	30대	0.22	9.41	80.92	9.45	
	40대	0.26	10.92	79.01	9.81	
	50대	0.00	11.22	79.48	9.31	
	60대 이상	0.17	9.74	78.75	11.34	
지역	수도권	0.38	10.29	79.21	10.11	5.926
	비수도권	0.05	11.14	78.21	10.60	
	대도시	0.38	11.22	79.52	8.89	15.834**
	중소도시 농어촌	0.12 0.00	10.14 11.34	78.96 74.20	10.78 14.4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3	15.45	75.18	9.14	59.390 ***
	중하층	0.19	12.22	79.38	8.20	
	중간층	0.23	8.48	80.18	11.12	
	중상층(상층)	0.23	6.67	72.81	20.3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50	17.91	71.49	10.11	70.944 ***
	200만 원대	0.00	10.10	82.26	7.64	
	300만 원대	0.47	10.11	78.00	11.42	
	400만 원대	0.19	9.30	83.76	6.75	
	500만 원 이상	0.04	8.59	78.33	13.04	
학력	중졸 이하	0.42	11.48	76.84	11.26	10.125
	고졸	0.14	11.52	79.28	9.06	
	대졸 이상	0.22	9.56	78.82	11.4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3	7.94	81.29	10.64	71.30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3	12.36	78.98	8.53	
	고용주·자영자	0.25	8.25	82.04	9.47	
	무급가족 종사자	1.49	6.16	83.51	8.84	
	실업자	0.00	26.77	64.78	8.45	
	비경제활동인구	0.25	12.99	75.24	11.53	
직업	관리자·전문가	0.00	5.28	80.86	13.86	23.124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29	8.72	81.42	9.58	
	숙련 및 기술직	0.00	9.44	83.26	7.30	
	단순노무 종사자	0.57	12.50	75.28	11.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4	7.98	81.67	10.20	5.158
	비정규직	0.10	11.41	78.64	9.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5	11.56	76.67	11.62	22.797 ***
	중도적	0.26	11.04	80.82	7.87	
	진보적	0.21	9.44	77.52	12.83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8〉 자아탄력성: 2) 나는 갑자기 놀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 ²
		1	2	3	4	
전체		2.71	28.72	61.07	7.51	
성별	남성	2.47	24.83	64.15	8.54	33.390 ***
	여성	2.95	32.72	57.90	6.44	
연령	20대 이하	2.32	22.23	65.50	9.96	29.603 ***
	30대	2.97	28.18	62.03	6.82	
	40대	2.54	30.90	59.94	6.62	
	50대	2.83	32.79	57.33	7.04	
	60대 이상	2.87	28.72	61.15	7.26	
지역	수도권	2.55	27.66	61.71	8.08	3.784
	비수도권	2.86	29.78	60.43	6.93	
	대도시	2.67	29.98	59.76	7.59	13.891 **
	중소도시 농어촌	3.24 0.35	28.03 26.72	61.18 66.04	7.56 6.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58	35.26	54.45	6.71	47.003 ***
	중하층	3.01	31.18	59.65	6.16	
	중간층	2.39	25.05	64.48	8.09	
	중상층(상층)	1.13	24.87	60.93	13.0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73	31.99	57.10	7.18	31.730 ***
	200만 원대	2.63	31.30	58.96	7.11	
	300만 원대	2.53	31.53	58.17	7.77	
	400만 원대	4.14	25.58	63.70	6.58	
	500만 원 이상	1.63	25.85	64.32	8.19	
학력	중졸 이하	3.56	31.53	57.88	7.03	11.069 *
	고졸	2.83	28.66	61.91	6.60	
	대졸 이상	2.25	27.71	61.38	8.6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32	26.18	63.59	7.91	20.84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7	29.16	60.05	8.72	
	고용주·자영자	2.52	28.30	61.30	7.87	
	무급가족 종사자	2.27	28.83	63.76	5.14	
	실업자	1.52	35.23	60.88	2.37	
	비경제활동인구	3.55	30.62	58.67	7.16	
직업	관리자·전문가	1.06	21.69	65.25	12.00	20.197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59	27.27	62.16	7.98	
	숙련 및 기술직	2.43	30.08	61.63	5.86	
	단순노무 종사자	2.52	30.73	60.18	6.5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6	25.77	64.37	7.90	4.976
	비정규직	2.89	29.42	59.10	8.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8	31.56	56.95	8.41	21.700 ***
	중도적	2.45	28.96	62.68	5.92	
	진보적	2.73	25.69	62.56	9.01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69〉 자아탄력성: 3)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5.98	41.56	45.42	7.05	
성별	남성	4.67	40.43	46.69	8.20	21.554 ***
	여성	7.34	42.71	44.10	5.85	
연령	20대 이하	2.96	30.71	58.22	8.11	131.991 ***
	30대	4.89	41.92	43.91	9.28	
	40대	4.61	39.60	48.10	7.70	
	50대	8.09	45.80	41.19	4.92	
	60대 이상	9.31	49.50	35.83	5.36	
지역	수도권	5.24	39.39	47.04	8.33	19.378 ***
	비수도권	6.74	43.74	43.78	5.74	
	대도시	4.72	42.20	47.61	5.47	23.154 ***
	중소도시 농어촌	6.89 6.94	40.32 44.72	44.47 40.74	8.31 7.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92	51.78	30.78	6.52	90.176 ***
	중하층	6.33	42.57	44.86	6.24	
	중간층	4.25	38.22	49.88	7.65	
	중상층(상층)	4.71	35.52	51.05	8.7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14	48.45	33.22	6.20	108.909 ***
	200만 원대	7.24	47.10	39.75	5.91	
	300만 원대	5.13	39.59	48.29	6.99	
	400만 원대	4.40	42.21	45.20	8.20	
	500만 원 이상	3.93	36.55	52.08	7.44	
학력	중졸 이하	12.20	49.59	33.06	5.14	103.794 ***
	고졸	6.10	40.26	47.76	5.88	
	대졸 이상	3.50	39.91	47.56	9.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97	40.03	46.96	8.03	34.61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62	38.36	48.19	7.83	
	고용주·자영자	6.39	44.35	41.34	7.92	
	무급가족 종사자	11.00	54.03	32.48	2.50	
	실업자	2.93	49.80	41.59	5.67	
	비경제활동인구	6.83	40.80	46.63	5.74	
직업	관리자·전문가	3.55	29.16	52.80	14.50	62.976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91	42.53	44.91	7.64	
	숙련 및 기술직	7.56	46.01	41.89	4.53	
	단순노무 종사자	9.60	43.31	41.03	6.0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04	39.52	47.52	7.91	0.131
	비정규직	5.35	39.76	46.78	8.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8.52	43.99	41.41	6.08	37.311 ***
	중도적	5.72	42.10	45.75	6.42	
	진보적	3.98	38.47	48.67	8.88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0〉 자아탄력성: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1.18	14.48	70.29	14.05	
성별	남성	1.24	15.44	69.05	14.27	3.648
	여성	1.13	13.48	71.57	13.81	
연령	20대 이하	0.98	11.77	68.62	18.64	43.413***
	30대	1.03	10.20	73.78	14.98	
	40대	1.51	15.28	70.47	12.74	
	50대	1.13	18.51	68.22	12.14	
	60대 이상	1.23	16.06	70.58	12.13	
지역	수도권	1.27	12.80	71.18	14.74	9.538**
	비수도권	1.09	16.17	69.40	13.34	
	대도시	0.68	14.75	70.73	13.84	12.226*
	중소도시 농어촌	1.56 1.52	13.57 17.66	70.98 65.22	13.90 15.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0	24.21	63.58	11.01	95.656***
	중하층	1.06	15.95	71.28	11.71	
	중간층	1.26	11.05	72.22	15.46	
	중상층(상층)	1.34	7.46	66.52	24.6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8	23.10	62.91	11.91	55.443***
	200만 원대	1.02	14.86	71.15	12.97	
	300만 원대	0.73	13.71	71.28	14.28	
	400만 원대	1.67	12.79	71.72	13.82	
	500만 원 이상	0.88	11.60	71.94	15.57	
학력	중졸 이하	1.81	18.52	68.38	11.29	31.767***
	고졸	1.20	16.14	68.87	13.79	
	대졸 이상	0.93	11.15	72.55	15.3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6	12.24	72.14	14.56	27.96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58	15.97	69.71	13.74	
	고용주·자영자	0.73	17.26	68.96	13.05	
	무급가족 종사자	1.49	13.10	68.63	16.78	
	실업자	1.30	24.20	63.47	11.02	
	비경제활동인구	1.75	13.60	70.29	14.36	
직업	관리자·전문가	0.00	8.90	71.11	19.99	29.15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6	14.84	69.61	14.49	
	숙련 및 기술직	0.78	16.10	72.78	10.34	
	단순노무 종사자	1.50	16.16	71.34	10.9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2	12.06	72.14	14.68	5.159
	비정규직	0.55	15.61	70.2	13.6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0	16.73	68.48	12.99	19.313***
	중도적	1.18	14.82	70.29	13.71	
	진보적	0.61	11.86	72.00	15.53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1〉 자아탄력성: 5)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4.56	35.32	50.33	9.79	
성별	남성	4.58	34.23	50.95	10.24	2.437
	여성	4.53	36.44	49.69	9.33	
연령	20대 이하	2.39	26.75	55.47	15.39	141.872***
	30대	3.40	28.62	55.65	12.34	
	40대	3.94	36.99	49.28	9.80	
	50대	5.49	38.95	48.78	6.78	
	60대 이상	7.55	44.60	42.84	5.01	
지역	수도권	4.26	34.35	49.55	11.84	18.927***
	비수도권	4.86	36.30	51.12	7.72	
	대도시	3.52	34.22	52.76	9.50	29.212***
	중소도시 농어촌	4.67 8.37	35.25 40.25	49.42 44.51	10.67 6.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37	43.26	41.49	5.89	86.982***
	중하층	5.29	35.68	49.74	9.29	
	중간층	2.72	33.55	52.48	11.25	
	중상층(상층)	2.05	27.51	58.93	11.5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26	38.38	41.83	7.53	136.465***
	200만 원대	4.93	40.66	47.43	6.98	
	300만 원대	2.86	35.28	52.05	9.80	
	400만 원대	2.39	37.22	50.24	10.15	
	500만 원 이상	3.05	30.30	54.64	12.02	
학력	중졸 이하	10.30	45.44	38.74	5.52	123.323***
	고졸	4.16	36.24	50.46	9.14	
	대졸 이상	2.82	30.50	54.57	12.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1	32.39	53.18	11.82	56.58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26	32.61	55.57	7.56	
	고용주·자영자	5.45	41.00	46.45	7.09	
	무급가족 종사자	6.81	46.34	42.05	4.80	
	실업자	6.34	28.90	53.11	11.65	
	비경제활동인구	5.70	35.67	48.31	10.32	
직업	관리자·전문가	1.79	22.67	61.67	13.88	65.54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94	34.60	51.21	10.24	
	숙련 및 기술직	3.85	42.86	47.79	5.50	
	단순노무 종사자	6.84	42.88	43.33	6.9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9	31.78	53.40	12.03	6.824*
	비정규직	3.55	33.83	54.66	7.96	
이념적 성향	보수적	5.12	41.54	45.80	7.54	42.664***
	중도적	5.18	33.06	52.31	9.45	
	진보적	3.12	32.83	51.65	12.40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2〉 자아탄력성: 6)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 ²
		1	2	3	4	
전체		4.14	38.64	49.55	7.67	
성별	남성	3.45	34.74	52.46	9.36	41.643 ***
	여성	4.86	42.66	46.55	5.93	
연령	20대 이하	1.64	32.84	56.37	9.16	124.694 ***
	30대	2.14	34.60	54.19	9.07	
	40대	3.36	35.53	52.34	8.78	
	50대	5.31	42.73	45.63	6.33	
	60대 이상	8.23	47.43	39.32	5.01	
지역	수도권	4.17	37.62	49.42	8.79	7.411 *
	비수도권	4.12	39.67	49.68	6.54	
	대도시	4.05	39.39	48.72	7.85	5.462
	중소도시 농어촌	3.94 5.49	37.49 40.95	50.79 47.16	7.78 6.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36	47.82	34.41	5.42	193.118***
	중하층	3.40	41.89	48.37	6.33	
	중간층	2.41	33.80	55.23	8.56	
	중상층(상층)	1.77	32.30	51.58	14.3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63	49.00	34.01	4.35	209.954 ***
	200만 원대	3.89	43.30	47.66	5.15	
	300만 원대	2.68	37.39	51.18	8.75	
	400만 원대	1.95	38.21	52.15	7.68	
	500만 원 이상	2.44	32.57	55.24	9.75	
학력	중졸 이하	9.64	50.16	35.23	4.97	132.073 ***
	고졸	3.68	39.79	48.53	8.00	
	대졸 이상	2.56	33.04	56.06	8.3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9	31.51	58.32	7.67	94.76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05	39.33	46.93	8.70	
	고용주·자영자	3.10	36.87	51.29	8.74	
	무급가족 종사자	6.11	46.86	37.87	9.15	
	실업자	7.17	45.41	41.89	5.53	
	비경제활동인구	5.62	45.16	42.42	6.79	
직업	관리자·전문가	1.62	23.79	62.80	11.79	59.633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36	34.54	52.97	9.13	
	숙련 및 기술직	2.95	38.31	54.41	4.33	
	단순노무 종사자	5.70	47.08	40.82	6.4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3	31.37	57.97	8.04	12.231***
	비정규직	4.27	38.10	49.90	7.74	
이념적 성향	보수적	4.97	44.30	45.07	5.67	56.765 ***
	중도적	4.79	39.16	48.80	7.25	
	진보적	2.42	32.56	54.87	10.15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3〉 자아탄력성: 7)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다른 여러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7.17	46.48	40.02	6.33	
성별	남성	6.44	43.24	42.97	7.34	26.825 ***
	여성	7.92	49.81	36.98	5.29	
연령	20대 이하	3.37	42.00	46.32	8.31	79.272 ***
	30대	6.54	43.83	41.89	7.73	
	40대	6.43	47.33	39.94	6.29	
	50대	7.87	47.23	38.83	6.07	
	60대 이상	11.63	51.76	33.30	3.31	
지역	수도권	7.85	43.01	41.27	7.87	28.436 ***
	비수도권	6.49	49.98	38.75	4.78	
	대도시	7.17	44.11	42.14	6.58	12.738 *
	중소도시 농어촌	6.82 8.87	47.43 51.77	39.45 33.90	6.30 5.4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98	50.01	32.90	4.11	79.886 ***
	중하층	7.21	48.81	38.54	5.44	
	중간층	5.44	44.51	43.28	6.76	
	중상층(상층)	5.70	38.45	42.28	13.5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06	50.73	32.75	2.46	88.667 ***
	200만 원대	6.38	48.50	38.11	7.02	
	300만 원대	7.02	46.33	40.02	6.63	
	400만 원대	6.14	48.25	38.16	7.46	
	500만 원 이상	4.91	42.82	45.24	7.03	
학력	중졸 이하	12.86	54.39	30.06	2.69	82.175 ***
	고졸	6.09	46.70	41.33	5.88	
	대졸 이상	6.18	43.24	42.38	8.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50	44.11	42.64	6.75	31.52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18	47.91	39.72	6.19	
	고용주·자영자	6.24	47.40	39.62	6.75	
	무급가족 종사자	18.33	48.94	28.68	4.04	
	실업자	5.02	43.63	42.64	8.72	
	비경제활동인구	8.18	47.87	38.30	5.64	
직업	관리자·전문가	6.56	33.21	49.67	10.56	48.446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5.65	47.46	40.44	6.44	
	숙련 및 기술직	9.16	45.77	39.79	5.28	
	단순노무 종사자	8.35	56.11	31.30	4.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65	43.57	42.85	6.94	3.425
	비정규직	5.93	48.30	39.86	5.91	
이념적 성향	보수적	9.71	48.41	36.84	5.04	35.261 ***
	중도적	6.89	47.37	39.94	5.79	
	진보적	5.20	43.34	43.11	8.34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4〉 자아탄력성: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5.18	42.17	46.00	6.65	
성별	남성	3.57	40.99	47.29	8.15	36.135 ***
	여성	6.84	43.39	44.68	5.09	
연령	20대 이하	2.19	32.58	56.64	8.59	151.333 ***
	30대	2.74	40.04	48.60	8.63	
	40대	5.48	38.57	48.94	7.01	
	50대	6.16	47.49	40.75	5.61	
	60대 이상	9.15	52.05	35.33	3.47	
지역	수도권	5.10	39.24	47.34	8.32	25.929 ***
	비수도권	5.26	45.14	44.65	4.95	
	대도시	4.78	39.80	49.43	5.99	32.563 ***
	중소도시 농어촌	4.62 9.48	43.44 46.06	44.49 38.89	7.45 5.5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37	49.83	37.10	3.69	74.471 ***
	중하층	5.98	42.67	45.49	5.85	
	중간층	3.32	40.52	48.14	8.02	
	중상층(상층)	3.82	33.37	54.35	8.4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96	50.89	33.43	4.72	113.272 ***
	200만 원대	6.43	46.56	41.53	5.48	
	300만 원대	3.82	42.43	46.91	6.84	
	400만 원대	3.82	39.56	50.74	5.88	
	500만 원 이상	3.50	37.37	50.88	8.26	
학력	중졸 이하	10.06	55.38	31.63	2.93	121.939 ***
	고졸	5.14	41.82	45.71	7.34	
	대졸 이상	3.37	37.56	51.76	7.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4	39.85	50.04	6.47	45.98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2	42.24	46.43	7.42	
	고용주·자영자	5.75	41.51	45.26	7.48	
	무급가족 종사자	10.44	51.94	37.12	0.50	
	실업자	2.44	49.01	36.82	11.73	
	비경제활동인구	6.70	43.45	43.89	5.96	
직업	관리자·전문가	2.45	30.23	55.06	12.26	76.163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11	39.02	50.15	6.73	
	숙련 및 기술직	6.45	48.77	41.03	3.76	
	단순노무 종사자	5.99	53.27	35.36	5.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73	39.04	50.42	6.81	2.993
	비정규직	3.68	43.45	46.35	6.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7.07	47.73	40.59	4.61	59.892 ***
	중도적	5.75	41.31	46.26	6.68	
	진보적	2.55	38.25	50.70	8.50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5〉 자아탄력성: 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0.72	16.39	71.92	10.97	
성별	남성	0.62	16.73	71.42	11.23	1.139
	여성	0.81	16.04	72.44	10.71	
연령	20대 이하	0.19	15.73	68.62	15.46	36.287***
	30대	0.56	14.27	73.15	12.02	
	40대	1.18	16.52	72.23	10.07	
	50대	1.20	17.90	72.01	8.89	
	60대 이상	0.33	17.34	73.53	8.79	
지역	수도권	0.58	15.07	72.64	11.71	7.386 *
	비수도권	0.86	17.72	71.19	10.23	
	대도시	0.59	16.37	72.56	10.49	5.576
	중소도시 농어촌	0.67 1.45	16.75 14.80	71.53 71.13	11.05 12.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0	25.59	66.15	6.96	64.384***
	중하층	0.64	17.20	71.81	10.36	
	중간층	0.61	13.52	73.81	12.06	
	중상층(상층)	0.57	10.63	72.66	16.1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4	21.33	69.51	8.32	28.317 **
	200만 원대	1.12	13.35	74.49	11.03	
	300만 원대	0.47	17.00	72.63	9.90	
	400만 원대	0.16	16.23	70.26	13.36	
	500만 원 이상	0.91	15.21	72.34	11.54	
학력	중졸 이하	0.48	17.94	71.73	9.85	8.234
	고졸	0.89	17.17	71.65	10.29	
	대졸 이상	0.61	14.97	72.29	12.1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80	15.39	72.56	11.25	14.46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6	19.35	69.56	9.83	
	고용주·자영자	0.52	15.52	73.96	10.01	
	무급가족 종사자	0.71	13.70	74.46	11.13	
	실업자	0.84	20.95	71.73	6.48	
	비경제활동인구	0.55	16.58	70.75	12.12	
직업	관리자·전문가	0.21	11.83	73.55	14.41	20.896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81	16.09	72.29	10.80	
	숙련 및 기술직	1.33	16.59	74.31	7.77	
	단순노무 종사자	0.29	21.06	68.07	10.5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2	15.37	72.17	11.64	4.604
	비정규직	1.14	18.61	70.96	9.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8	19.00	71.83	8.29	17.938 **
	중도적	0.64	15.52	72.51	11.33	
	진보적	0.67	15.24	71.13	12.96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6〉 자아탄력성: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 ²
		1	2	3	4	
전체		1.28	22.48	64.93	11.31	
성별	남성	1.41	22.37	64.98	11.24	0.567
	여성	1.15	22.58	64.87	11.39	
연령	20대 이하	0.56	21.91	66.56	10.98	26.923**
	30대	0.58	22.32	61.70	15.41	
	40대	1.58	22.52	65.53	10.37	
	50대	1.84	23.94	64.85	9.37	
	60대 이상	1.75	21.52	65.94	10.79	
지역	수도권	1.24	19.94	65.16	13.65	29.922 ***
	비수도권	1.32	25.03	64.70	8.95	
	대도시	1.14	22.23	64.51	12.12	16.125 **
	중소도시 농어촌	1.18 2.36	21.80 26.68	65.43 64.33	11.59 6.6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9	26.35	58.06	13.61	31.616 ***
	중하층	1.20	23.10	64.80	10.90	
	중간층	1.12	20.67	68.25	9.96	
	중상층(상층)	1.28	22.50	58.41	17.8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23	27.62	58.93	10.22	39.680 ***
	200만 원대	1.26	23.61	64.95	10.18	
	300만 원대	1.05	20.22	66.47	12.25	
	400만 원대	1.01	23.79	63.98	11.22	
	500만 원 이상	0.69	20.29	67.29	11.73	
학력	중졸 이하	1.99	27.44	62.49	8.08	30.405 ***
	고졸	1.20	22.85	65.86	10.09	
	대졸 이상	1.10	20.19	64.85	13.8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6	22.22	64.70	12.02	18.12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3	21.75	66.10	10.32	
	고용주·자영자	1.01	20.79	67.90	10.31	
	무급가족 종사자	0.54	33.79	61.51	4.17	
	실업자	2.10	26.34	61.39	10.18	
	비경제활동인구	1.44	22.81	63.58	12.16	
직업	관리자·전문가	1.10	15.84	66.67	16.39	25.626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6	21.71	67.42	9.80	
	숙련 및 기술직	1.61	26.63	61.33	10.43	
	단순노무 종사자	0.78	23.34	64.93	10.9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6	22.37	64.84	11.64	0.432
	비정규직	1.47	21.53	65.55	11.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3	23.22	63.03	11.71	11.435 *
	중도적	1.11	23.24	64.98	10.67	
	진보적	0.83	20.64	66.64	11.90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7〉 자아탄력성: 11)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5.09	44.98	44.22	5.71	
성별	남성	4.21	43.06	45.74	6.99	22.564 ***
	여성	5.99	46.95	42.66	4.40	
연령	20대 이하	2.48	38.49	51.47	7.56	115.322 ***
	30대	3.86	41.80	46.59	7.75	
	40대	3.75	43.13	46.57	6.54	
	50대	6.18	48.13	41.80	3.89	
	60대 이상	9.21	53.18	34.70	2.91	
지역	수도권	5.08	42.43	44.85	7.64	31.169 ***
	비수도권	5.09	47.55	43.59	3.76	
	대도시	5.28	44.57	44.98	5.17	8.392 ***
	중소도시 농어촌	4.71 6.04	44.41 49.33	44.43 40.12	6.44 4.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75	51.53	34.41	3.32	85.117
	중하층	4.56	47.29	43.25	4.90	
	중간층	3.70	41.72	47.41	7.18	
	중상층(상층)	4.89	39.19	50.15	5.7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66	50.89	34.81	2.64	128.919***
	200만 원대	6.32	52.05	36.42	5.21	
	300만 원대	3.52	44.72	45.14	6.62	
	400만 원대	2.49	43.22	48.59	5.69	
	500만 원 이상	3.83	39.90	49.44	6.83	
학력	중졸 이하	12.20	54.59	31.13	2.08	149.590 ***
	고졸	4.25	46.65	43.59	5.51	
	대졸 이상	3.30	39.54	49.86	7.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7	43.05	47.18	6.10	33.48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29	50.53	39.46	5.73	
	고용주·자영자	5.52	44.82	43.58	6.08	
	무급가족 종사자	11.51	54.17	31.22	3.11	
	실업자	5.94	52.15	37.75	4.16	
	비경제활동인구	5.97	43.69	44.90	5.44	
직업	관리자·전문가	1.72	31.60	53.59	13.09	80.972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89	44.90	44.92	5.30	
	숙련 및 기술직	4.78	50.47	40.94	3.81	
	단순노무 종사자	6.75	55.95	33.32	3.9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69	42.3	47.77	6.23	11.154
	비정규직	4.11	50.62	39.73	5.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7.45	48.27	40.30	3.98	48.324***
	중도적	5.04	44.97	44.68	5.32	
	진보적	2.94	41.90	47.24	7.92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8〉 자아탄력성: 12) 나는 매일 생활은 흥미로운 일로 가득하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8.94	50.26	37.49	3.31	
성별	남성	8.99	49.38	37.57	4.05	7.230 *
	여성	8.89	51.17	37.40	2.54	
연령	20대 이하	5.87	46.15	43.56	4.42	72.501 ***
	30대	5.90	51.64	38.70	3.77	
	40대	7.51	52.13	37.25	3.10	
	50대	11.84	47.54	37.11	3.52	
	60대 이상	13.45	53.87	30.92	1.76	
지역	수도권	8.81	47.84	38.63	4.72	29.051 ***
	비수도권	9.08	52.70	36.33	1.89	
	대도시	10.29	50.48	36.85	2.39	24.085 ***
	중소도시 농어촌	7.11 12.05	50.09 50.15	38.67 34.54	4.13 3.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77	51.18	27.25	1.80	123.275 ***
	중하층	9.03	50.13	38.01	2.83	
	중간층	5.53	50.91	39.50	4.06	
	중상층(상층)	7.48	44.49	43.68	4.3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38	48.96	27.85	1.81	172.258 ***
	200만 원대	10.30	51.51	35.03	3.16	
	300만 원대	6.90	53.78	37.12	2.20	
	400만 원대	6.63	50.93	38.95	3.48	
	500만 원 이상	4.96	47.70	42.66	4.68	
학력	중졸 이하	17.27	52.19	28.87	1.67	93.210 ***
	고졸	9.03	50.84	37.21	2.91	
	대졸 이상	5.70	48.91	41.04	4.3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68	51.33	39.51	3.48	42.45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43	52.05	36.14	2.39	
	고용주·자영자	9.29	49.38	38.02	3.30	
	무급가족 종사자	12.80	55.32	31.88	0.00	
	실업자	17.11	51.92	29.26	1.71	
	비경제활동인구	10.66	48.60	36.88	3.86	
직업	관리자·전문가	5.97	43.37	45.07	5.59	30.335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24	51.64	38.04	3.08	
	숙련 및 기술직	8.05	52.78	37.62	1.55	
	단순노무 종사자	11.87	54.53	30.28	3.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71	51.78	39.23	3.27	5.016
	비정규직	8.62	50.97	37.38	3.0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93	50.47	35.44	3.16	29.685 ***
	중도적	8.72	51.70	37.41	2.18	
	진보적	7.41	47.94	39.53	5.12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79〉 자아탄력성: 13)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4.93	41.30	48.51	5.25	
성별	남성	4.32	39.15	50.21	6.33	18.576***
	여성	5.57	43.53	46.77	4.14	
연령	20대 이하	3.14	40.00	52.55	4.31	35.984***
	30대	6.11	38.23	48.85	6.81	
	40대	3.89	39.55	51.96	4.59	
	50대	5.66	42.37	45.86	6.12	
	60대 이상	5.93	46.47	43.20	4.40	
지역	수도권	5.01	39.69	48.82	6.48	13.788***
	비수도권	4.86	42.94	48.20	4.00	
	대도시	4.46	43.13	48.16	4.26	12.967**
	중소도시 농어촌	5.30 5.20	39.04 44.43	49.70 44.36	5.96 6.0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4	46.24	41.72	3.10	50.261***
	중하층	4.77	42.54	47.66	5.03	
	중간층	3.95	39.19	51.35	5.50	
	중상층(상층)	3.61	37.49	49.30	9.6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22	45.72	40.05	4.00	66.015***
	200만 원대	5.13	41.85	48.03	4.98	
	300만 원대	4.55	42.20	47.32	5.93	
	400만 원대	2.88	42.89	49.61	4.61	
	500만 원 이상	3.75	37.71	52.81	5.74	
학력	중졸 이하	8.87	47.84	39.48	3.81	54.363***
	고졸	3.67	42.14	49.54	4.66	
	대졸 이상	4.81	37.94	50.83	6.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51	40.74	49.83	5.92	42.43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54	35.27	55.22	5.97	
	고용주·자영자	4.86	39.44	49.22	6.47	
	무급가족 종사자	6.96	46.44	44.65	1.95	
	실업자	8.25	41.71	44.22	5.82	
	비경제활동인구	6.37	44.65	45.20	3.78	
직업	관리자·전문가	2.61	30.50	58.00	8.89	36.62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99	40.08	49.41	5.53	
	숙련 및 기술직	3.35	44.54	48.33	3.79	
	단순노무 종사자	1.97	38.66	49.99	9.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60	40.51	50.01	5.88	2.349
	비정규직	3.35	36.81	53.79	6.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5.87	41.05	47.27	5.80	13.532**
	중도적	4.43	43.34	47.98	4.25	
	진보적	4.80	38.53	50.47	6.20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0〉 자아탄력성: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관찮아진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2.56	33.47	59.13	4.84	
성별	남성	2.23	30.25	61.80	5.72	25.136 ***
	여성	2.90	36.79	56.38	3.93	
연령	20대 이하	1.51	29.18	61.80	7.51	37.766 ***
	30대	3.94	32.41	58.42	5.23	
	40대	2.30	32.24	61.71	3.75	
	50대	2.70	35.80	57.70	3.80	
	60대 이상	2.38	37.62	55.84	4.16	
지역	수도권	2.95	30.41	60.23	6.42	33.987 ***
	비수도권	2.17	36.57	58.02	3.24	
	대도시	3.32	35.22	56.29	5.17	17.462 **
	중소도시 농어촌	1.82 2.93	31.65 34.86	62.07 57.02	4.47 5.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66	42.78	46.72	4.83	108.305 ***
	중하층	3.08	34.40	58.93	3.60	
	중간층	1.31	30.39	63.53	4.76	
	중상층(상층)	1.16	28.23	58.11	12.5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11	44.40	47.18	4.32	64.618 ***
	200만 원대	3.07	34.30	59.68	2.95	
	300만 원대	2.40	32.99	58.93	5.69	
	400만 원대	2.55	31.22	62.31	3.92	
	500만 원 이상	1.73	29.52	62.79	5.95	
학력	중졸 이하	3.78	41.97	49.84	4.40	32.867 ***
	고졸	2.02	31.86	61.65	4.48	
	대졸 이상	2.69	31.99	59.93	5.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4	31.21	62.78	3.77	30.17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3	32.09	59.65	5.83	
	고용주·자영자	2.61	31.70	60.45	5.24	
	무급가족 종사자	1.94	40.43	56.42	1.21	
	실업자	6.45	36.13	52.09	5.32	
	비경제활동인구	2.54	36.46	55.50	5.50	
직업	관리자·전문가	2.54	26.61	63.87	6.97	29.406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39	31.61	61.50	4.50	
	숙련 및 기술직	1.90	33.23	63.26	1.61	
	단순노무 종사자	3.13	37.82	51.67	7.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20	30.73	63.30	3.77	3.955
	비정규직	2.48	32.92	59.18	5.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3	35.36	56.50	4.51	25.635 ***
	중도적	1.77	34.71	59.54	3.97	
	진보적	2.73	29.87	60.98	6.42	

주: 1) “다음에 제시된 문항별로 ___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1〉 스트레스 수준: 1)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매우 자주 있었다					χ ²
		1	2	3	4	5	
전체		10.21	42.29	41.80	5.30	0.41	
성별	남성	10.11	42.82	41.64	4.93	0.50	2.172
	여성	10.30	41.74	41.97	5.68	0.31	
연령	20대 이하	13.35	41.47	38.90	5.54	0.74	45.175***
	30대	8.51	38.45	46.74	5.67	0.62	
	40대	8.76	40.40	45.25	5.28	0.31	
	50대	8.42	44.33	41.69	5.17	0.40	
	60대 이상	12.40	46.81	35.95	4.84	0.00	
지역	수도권	5.94	38.57	47.26	7.71	0.53	153.783***
	비수도권	14.52	46.05	36.28	2.86	0.29	
	대도시	9.54	36.52	48.55	5.05	0.33	66.543 ***
	중소도시 농어촌	9.72 15.27	46.55 46.09	37.47 34.16	5.76 4.13	0.49 0.3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17	37.57	43.82	9.74	0.70	54.251 ***
	중하층	9.19	41.65	43.33	5.55	0.28	
	중간층	11.37	43.38	41.34	3.54	0.36	
	중상층(상층)	12.65	49.08	31.52	5.86	0.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08	40.07	41.22	7.06	0.57	32.718 **
	200만 원대	13.00	44.32	38.36	4.32	0.00	
	300만 원대	9.44	41.47	44.69	4.17	0.23	
	400만 원대	10.30	44.38	37.72	6.81	0.80	
	500만 원 이상	8.93	41.76	44.13	4.74	0.44	
학력	중졸 이하	10.84	44.72	36.77	7.04	0.64	20.458 **
	고졸	10.92	43.07	41.32	4.22	0.48	
	대졸 이상	9.20	40.53	44.22	5.80	0.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02	41.47	42.62	4.64	0.25	43.825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7.03	38.19	47.60	6.15	1.03	
	고용주·자영자	9.15	44.21	42.44	4.12	0.08	
	무급가족 종사자	12.28	47.57	37.98	2.17	0.00	
	실업자	7.65	41.34	37.97	12.43	0.60	
	비경제활동인구	11.25	43.11	39.26	5.83	0.55	
직업	관리자·전문가	5.20	40.18	48.98	5.12	0.52	46.593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60	42.99	41.47	4.79	0.15	
	숙련 및 기술직	11.68	42.26	43.65	2.29	0.11	
	단순노무 종사자	7.49	37.14	44.88	8.81	1.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36	42.02	41.43	5.07	0.12	21.531***
	비정규직	7.10	37.68	49.11	4.95	1.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9.84	41.69	42.23	6.18	0.07	14.663 *
	중도적	10.07	44.26	40.67	4.63	0.37	
	진보적	10.75	39.94	43.07	5.45	0.79	

주: 1)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2〉 스트레스 수준: 2)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매우 자주 있었다					χ ²
		1	2	3	4	5	
전체		17.55	50.17	27.49	4.48	0.31	
성별	남성	16.99	50.06	27.71	4.74	0.50	5.890
	여성	18.13	50.28	27.26	4.22	0.12	
연령	20대 이하	18.53	47.68	29.04	4.06	0.69	32.898**
	30대	18.49	47.32	28.39	5.35	0.45	
	40대	14.25	51.81	28.96	4.83	0.13	
	50대	17.80	48.93	27.94	5.10	0.23	
	60대 이상	19.10	54.99	22.87	2.97	0.06	
지역	수도권	12.91	48.98	31.67	6.09	0.35	95.884 ***
	비수도권	22.24	51.37	23.26	2.86	0.27	
	대도시	15.38	46.98	32.49	4.80	0.35	41.010 ***
	중소도시 농어촌	18.83 20.56	52.68 51.56	23.76 24.33	4.43 3.44	0.31 0.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73	46.27	31.38	7.00	0.61	41.667 ***
	중하층	15.67	49.80	30.13	4.17	0.24	
	중간층	19.47	51.42	24.59	4.31	0.22	
	중상층(상층)	21.63	52.54	23.30	1.88	0.6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35	47.46	28.34	6.57	0.28	31.685 **
	200만 원대	19.99	53.41	23.19	3.17	0.23	
	300만 원대	14.93	52.03	28.93	3.84	0.28	
	400만 원대	17.79	52.14	25.11	4.22	0.75	
	500만 원 이상	18.04	47.72	29.38	4.72	0.15	
학력	중졸 이하	15.99	50.91	26.87	5.16	1.07	18.793 **
	고졸	18.63	49.34	27.46	4.26	0.31	
	대졸 이상	16.98	50.78	27.75	4.47	0.0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79	50.04	27.58	4.48	0.11	53.04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68	44.12	35.28	2.96	0.96	
	고용주·자영자	18.67	52.71	25.01	3.62	0.00	
	무급가족 종사자	25.27	49.64	23.36	1.74	0.00	
	실업자	11.72	50.54	27.02	9.00	1.72	
	비경제활동인구	17.03	50.88	26.51	5.25	0.34	
직업	관리자·전문가	15.72	47.85	34.78	1.57	0.09	51.965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9.67	48.50	27.55	4.28	0.00	
	숙련 및 기술직	16.70	54.60	24.16	4.34	0.20	
	단순노무 종사자	15.45	49.29	29.71	3.69	1.8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82	50.23	27.43	4.40	0.12	13.172**
	비정규직	16.83	44.87	34.10	3.42	0.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92	50.22	26.39	4.40	0.07	8.983
	중도적	16.73	49.07	28.89	4.92	0.39	
	진보적	17.49	51.75	26.44	3.91	0.41	

주: 1)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3〉 스트레스 수준: 3)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매우 자주 있었다					χ ²
		1	2	3	4	5	
전체		11.47	36.00	40.77	10.48	1.28	
성별	남성	11.33	34.94	42.07	10.30	1.34	3.145
	여성	11.61	37.08	39.43	10.66	1.22	
연령	20대 이하	12.93	32.69	40.28	12.30	1.79	70.929***
	30대	8.60	32.71	43.95	12.64	2.10	
	40대	9.80	35.35	44.15	9.57	1.13	
	50대	11.83	34.98	42.70	9.53	0.97	
	60대 이상	14.37	44.43	32.13	8.59	0.48	
지역	수도권	6.14	31.41	45.65	14.89	1.91	225.330***
	비수도권	16.85	40.64	35.84	6.02	0.65	
	대도시	8.27	30.86	47.01	12.75	1.11	108.677 ***
	중소도시 농어촌	12.64 19.23	39.19 42.27	37.02 32.55	9.71 4.66	1.44 1.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80	30.55	42.97	15.56	2.12	44.946 ***
	중하층	10.31	35.37	42.40	10.48	1.44	
	중간층	13.40	38.20	38.24	9.19	0.97	
	중상층(상층)	10.95	36.83	43.74	7.82	0.6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72	40.29	35.65	9.95	1.39	31.067 **
	200만 원대	14.82	31.89	44.07	8.38	0.84	
	300만 원대	9.44	36.82	40.72	11.57	1.45	
	400만 원대	11.74	36.66	40.90	9.05	1.64	
	500만 원 이상	10.31	35.20	41.63	11.70	1.16	
학력	중졸 이하	11.89	43.77	33.54	9.39	1.42	31.037 ***
	고졸	12.90	34.88	40.77	10.29	1.15	
	대졸 이상	9.77	34.26	43.51	11.09	1.3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78	33.67	44.40	9.91	1.24	48.136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0.49	33.70	43.30	9.77	2.74	
	고용주·자영자	10.99	37.05	40.94	10.54	0.47	
	무급가족 종사자	16.55	43.44	35.18	3.88	0.95	
	실업자	18.19	24.66	43.10	12.98	1.07	
	비경제활동인구	11.73	39.09	36.39	11.43	1.36	
직업	관리자·전문가	5.13	31.89	52.60	9.16	1.21	46.800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66	34.10	42.44	10.73	1.07	
	숙련 및 기술직	13.48	39.22	38.41	8.27	0.61	
	단순노무 종사자	9.80	35.50	41.23	9.43	4.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05	33.91	44.99	9.70	1.35	3.749
	비정규직	12.07	33.20	42.28	10.24	2.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08	37.85	36.92	12.10	1.05	12.669
	중도적	11.20	35.97	42.04	9.50	1.30	
	진보적	11.30	34.31	42.51	10.40	1.48	

주: 1)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4〉 스트레스 수준: 4)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매우 자주 있었다					χ ²
		1	2	3	4	5	
전체		8.73	33.71	43.33	13.40	0.83	
성별	남성	7.43	32.59	44.17	14.85	0.96	16.680 ***
	여성	10.06	34.87	42.46	11.91	0.70	
연령	20대 이하	8.86	29.09	42.64	18.12	1.28	127.413 ***
	30대	7.31	24.80	50.14	16.88	0.88	
	40대	7.43	32.16	47.46	11.99	0.96	
	50대	9.55	36.34	41.61	11.86	0.64	
	60대 이상	10.57	46.05	34.44	8.54	0.40	
지역	수도권	5.90	32.60	45.25	15.20	1.05	51.767 ***
	비수도권	11.58	34.84	41.39	11.58	0.61	
	대도시	7.23	30.82	46.24	15.07	0.63	43.993 ***
	중소도시 농어촌	9.43 11.63	34.87 40.27	41.36 40.52	13.16 7.58	1.18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92	42.87	35.59	11.48	0.14	50.484 ***
	중하층	8.57	31.39	46.24	13.01	0.79	
	중간층	8.35	33.04	44.28	13.49	0.84	
	중상층(상층)	9.54	31.15	37.42	19.31	2.5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02	44.81	33.86	9.18	0.13	106.000 ***
	200만 원대	11.62	36.29	40.95	10.30	0.83	
	300만 원대	8.17	32.25	46.62	11.77	1.18	
	400만 원대	8.03	32.99	43.12	15.68	0.18	
	500만 원 이상	6.56	28.73	46.89	16.54	1.28	
학력	중졸 이하	9.73	45.02	36.42	8.56	0.27	79.047 ***
	고졸	9.47	34.81	40.82	14.27	0.63	
	대졸 이상	7.55	28.26	48.64	14.29	1.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37	27.42	48.43	15.57	1.21	76.09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60	34.24	44.02	13.82	0.32	
	고용주·자영자	7.93	33.12	44.06	13.87	1.03	
	무급가족 종사자	12.61	40.28	40.34	6.77	0.00	
	실업자	5.90	43.43	43.46	6.60	0.60	
	비경제활동인구	10.93	38.59	37.86	12.01	0.60	
직업	관리자·전문가	4.18	22.29	55.49	15.59	2.45	49.285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03	30.53	43.90	15.50	1.04	
	숙련 및 기술직	6.78	36.13	44.24	12.65	0.20	
	단순노무 종사자	7.60	32.23	49.71	10.46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12	27.56	48.85	15.58	0.89	6.164
	비정규직	8.09	32.63	44.01	14.12	1.15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8	37.95	38.96	13.20	0.50	59.062 ***
	중도적	8.51	35.61	44.50	10.62	0.75	
	진보적	8.42	26.93	45.69	17.69	1.26	

주: 1)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5〉 스트레스 수준: 5)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매우 자주 있었다					χ ²
		1	2	3	4	5	
전체		8.18	28.20	49.58	13.04	1.00	
성별	남성	7.42	26.36	51.22	13.57	1.43	17.831 ***
	여성	8.97	30.09	47.90	12.49	0.56	
연령	20대 이하	7.94	23.96	52.04	14.70	1.37	69.229 ***
	30대	6.34	24.83	51.77	15.64	1.42	
	40대	7.77	24.46	51.49	15.27	1.02	
	50대	8.51	32.95	47.30	10.39	0.86	
	60대 이상	10.37	34.73	45.34	9.19	0.37	
지역	수도권	5.77	25.01	52.65	15.17	1.41	68.803 ***
	비수도권	10.62	31.41	46.49	10.88	0.59	
	대도시	7.51	23.97	54.38	13.37	0.78	50.667 ***
	중소도시 농어촌	8.37 10.11	29.92 37.63	46.78 42.91	13.61 8.93	1.32 0.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64	37.45	44.74	10.58	0.59	49.658 ***
	중하층	8.07	27.18	49.51	14.36	0.88	
	중간층	8.75	26.48	50.93	13.00	0.84	
	중상층(상층)	8.40	25.00	51.74	11.15	3.7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53	37.99	43.34	8.91	0.23	73.293 ***
	200만 원대	10.95	29.28	48.89	10.37	0.50	
	300만 원대	6.51	26.15	52.34	14.10	0.90	
	400만 원대	8.97	27.67	49.38	12.85	1.14	
	500만 원 이상	6.89	24.54	51.28	15.69	1.60	
학력	중졸 이하	9.54	38.03	42.23	9.97	0.22	68.401 ***
	고졸	9.21	29.00	48.72	12.13	0.94	
	대졸 이상	6.56	23.61	53.30	15.17	1.3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02	24.70	52.28	14.82	1.18	56.420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7.07	23.47	53.56	15.26	0.63	
	고용주·자영자	8.71	27.55	49.20	12.80	1.75	
	무급가족 종사자	13.54	34.25	42.31	9.90	0.00	
	실업자	8.29	41.69	41.52	7.90	0.60	
	비경제활동인구	9.01	31.83	47.13	11.41	0.62	
직업	관리자·전문가	4.49	20.35	58.10	14.76	2.30	36.450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80	24.83	49.53	15.71	1.13	
	숙련 및 기술직	7.18	31.52	50.41	10.37	0.53	
	단순노무 종사자	7.67	24.98	53.42	12.21	1.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89	25.19	51.56	15.24	1.13	2.244
	비정규직	7.34	22.68	54.82	14.30	0.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8.87	28.64	51.54	10.07	0.89	30.509 ***
	중도적	8.66	30.29	47.31	12.77	0.98	
	진보적	6.83	24.69	51.12	16.21	1.15	

주: 1)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6〉 스트레스 수준: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매우 자주 있었다					χ ²
		1	2	3	4	5	
전체		8.03	28.21	45.94	16.63	1.19	
성별	남성	7.27	27.00	46.12	18.18	1.43	12.624 **
	여성	8.82	29.46	45.75	15.03	0.95	
연령	20대 이하	8.32	25.15	45.74	19.06	1.72	88.162 ***
	30대	8.04	21.97	47.91	21.05	1.03	
	40대	6.47	25.87	47.83	17.92	1.91	
	50대	7.66	31.02	45.47	14.89	0.96	
	60대 이상	9.93	37.01	42.52	10.26	0.28	
지역	수도권	6.40	23.88	47.87	20.26	1.60	77.759 ***
	비수도권	9.68	32.58	43.98	12.96	0.79	
	대도시	7.95	24.58	48.14	18.42	0.91	45.030 ***
	중소도시 농어촌	7.88 9.10	29.48 37.29	44.41 43.98	16.62 9.21	1.60 0.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50	40.11	38.44	11.42	0.53	95.878 ***
	중하층	7.98	29.64	46.16	14.89	1.33	
	중간층	7.62	24.24	48.20	19.08	0.87	
	중상층(상층)	7.90	20.28	46.02	21.64	4.1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84	41.45	38.01	9.61	0.09	120.934 ***
	200만 원대	9.75	30.15	46.15	13.14	0.82	
	300만 원대	7.21	26.18	49.77	15.99	0.86	
	400만 원대	8.73	25.00	45.13	19.70	1.44	
	500만 원 이상	6.10	24.24	47.46	20.23	1.96	
학력	중졸 이하	9.01	40.93	39.73	10.11	0.22	97.900 ***
	고졸	8.70	28.89	45.44	15.98	0.99	
	대졸 이상	6.94	22.66	48.82	19.79	1.7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99	24.03	47.06	20.22	1.69	54.61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53	28.08	48.79	15.62	0.99	
	고용주·자영자	6.80	29.10	46.49	16.06	1.56	
	무급가족 종사자	8.93	38.10	41.18	11.79	0.00	
	실업자	12.37	35.99	36.43	14.15	1.07	
	비경제활동인구	9.79	30.34	44.82	14.39	0.66	
직업	관리자·전문가	2.74	14.30	55.71	23.80	3.44	72.016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23	26.85	45.47	17.96	1.48	
	숙련 및 기술직	6.64	32.11	44.91	16.09	0.25	
	단순노무 종사자	5.83	32.10	48.13	12.67	1.2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17	23.57	47.18	20.62	1.45	8.365*
	비정규직	6.25	28.24	48.21	15.68	1.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08	30.64	43.67	15.72	0.89	29.444 ***
	중도적	6.90	29.45	47.34	15.37	0.94	
	진보적	8.73	24.09	45.99	19.34	1.86	

주: 1)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7〉 스트레스 수준: 7)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매우 자주 있었다					χ ²
		1	2	3	4	5	
전체		7.00	26.31	48.03	17.55	1.11	
성별	남성	6.21	25.05	48.80	18.62	1.32	10.566 **
	여성	7.81	27.61	47.24	16.45	0.89	
연령	20대 이하	6.69	25.07	46.97	19.76	1.52	52.658 ***
	30대	6.91	21.92	49.51	19.58	2.08	
	40대	5.72	23.55	52.63	17.32	0.78	
	50대	7.72	28.85	45.46	17.55	0.42	
	60대 이상	8.03	32.25	45.26	13.60	0.85	
지역	수도권	5.30	24.70	47.76	21.00	1.24	46.911 ***
	비수도권	8.71	27.94	48.31	14.07	0.97	
	대도시	7.39	23.86	48.55	19.22	0.99	31.163 ***
	중소도시 농어촌	6.48 7.78	27.52 30.81	46.80 51.73	17.89 9.01	1.30 0.6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66	38.96	41.16	9.74	0.47	93.306 ***
	중하층	6.21	26.27	49.22	17.07	1.22	
	중간층	6.84	22.37	50.24	19.32	1.23	
	중상층(상층)	6.63	25.00	41.57	25.80	1.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23	37.15	40.95	9.76	0.92	126.332 ***
	200만 원대	9.82	26.00	48.52	15.31	0.35	
	300만 원대	6.22	25.37	51.29	16.44	0.68	
	400만 원대	6.05	27.37	46.86	18.40	1.32	
	500만 원 이상	4.70	21.47	49.60	22.51	1.71	
학력	중졸 이하	7.85	34.98	44.89	11.33	0.96	56.879 ***
	고졸	7.47	27.42	46.75	17.48	0.87	
	대졸 이상	6.16	21.84	50.60	19.98	1.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10	20.68	51.74	19.89	1.59	87.062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4.76	34.14	45.18	15.24	0.69	
	고용주·자영자	6.17	24.64	48.84	19.48	0.87	
	무급가족 종사자	7.50	43.16	39.26	9.46	0.63	
	실업자	14.90	34.99	36.55	13.56	0.00	
	비경제활동인구	8.29	28.08	46.69	15.88	1.07	
직업	관리자·전문가	2.97	17.23	51.38	25.76	2.65	61.586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99	24.54	48.36	18.95	1.16	
	숙련 및 기술직	5.63	25.70	51.89	16.53	0.25	
	단순노무 종사자	4.58	37.79	45.88	10.44	1.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07	20.78	51.66	19.88	1.61	23.266***
	비정규직	5.07	31.31	46.63	16.17	0.82	
이념적 성향	보수적	7.34	30.85	44.00	17.23	0.58	48.976***
	중도적	6.45	26.86	50.61	15.03	1.06	
	진보적	7.49	21.24	48.02	21.59	1.67	

주: 1)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8〉 스트레스 수준: 8)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매우 자주 있었다					χ ²
		1	2	3	4	5	
전체		5.86	22.68	49.22	20.50	1.74	
성별	남성	5.43	21.59	49.39	21.27	2.32	12.168 **
	여성	6.31	23.81	49.04	19.70	1.14	
연령	20대 이하	5.78	21.60	48.57	21.38	2.67	32.475 **
	30대	4.88	19.56	52.89	20.77	1.90	
	40대	5.03	20.94	51.82	21.41	0.81	
	50대	7.34	24.42	47.14	19.51	1.58	
	60대 이상	6.23	26.93	45.57	19.40	1.87	
지역	수도권	2.92	20.19	51.00	23.45	2.44	98.021 ***
	비수도권	8.84	25.20	47.43	17.51	1.02	
	대도시	5.36	20.73	51.22	20.84	1.85	24.515 ***
	중소도시 농어촌	6.16 6.54	22.96 29.51	47.57 48.72	21.46 14.47	1.85 0.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00	32.10	41.76	17.14	1.01	68.658 ***
	중하층	5.01	23.12	51.91	18.33	1.63	
	중간층	5.87	20.09	49.70	22.64	1.69	
	중상층(상층)	5.93	16.71	47.18	25.91	4.2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33	31.71	44.29	14.24	1.44	73.776 ***
	200만 원대	6.89	23.32	49.59	18.73	1.46	
	300만 원대	5.25	21.70	52.52	19.32	1.21	
	400만 원대	5.11	22.90	48.13	22.64	1.22	
	500만 원 이상	5.04	18.54	49.93	23.89	2.61	
학력	중졸 이하	6.25	29.91	44.18	18.19	1.47	39.180 ***
	고졸	6.40	22.95	50.59	18.45	1.61	
	대졸 이상	5.13	19.67	49.66	23.56	1.9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98	19.97	49.89	21.87	2.29	56.45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43	22.49	49.00	21.21	0.87	
	고용주·자영자	4.92	21.66	48.82	23.02	1.58	
	무급가족 종사자	6.20	30.95	49.74	13.11	0.00	
	실업자	13.13	36.58	33.73	16.56	0.00	
	비경제활동인구	5.35	24.02	50.43	18.32	1.88	
직업	관리자·전문가	3.16	12.54	52.37	26.97	4.97	63.996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42	21.40	48.01	22.83	1.34	
	숙련 및 기술직	4.96	24.72	52.84	16.89	0.58	
	단순노무 종사자	7.39	25.77	45.41	19.17	2.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80	19.91	49.95	22.11	2.23	3.404
	비정규직	6.72	22.12	49.05	20.83	1.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6.94	22.85	48.29	19.90	2.02	23.187 ***
	중도적	5.08	22.98	52.03	18.20	1.70	
	진보적	6.01	22.09	45.93	24.44	1.53	

주: 1)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89> 스트레스 수준: 9)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매우 자주 있었다					χ ²
		1	2	3	4	5	
전체		14.26	40.28	37.41	7.51	0.54	
성별	남성	12.98	40.28	38.57	7.48	0.69	7.602
	여성	15.58	40.29	36.22	7.53	0.39	
연령	20대 이하	16.01	35.30	40.44	7.75	0.50	35.373***
	30대	13.23	40.35	38.03	7.02	1.37	
	40대	13.49	39.46	38.03	8.51	0.51	
	50대	14.64	40.12	37.14	7.90	0.20	
	60대 이상	14.00	46.30	33.38	6.17	0.16	
지역	수도권	9.27	38.43	42.77	8.87	0.66	111.444***
	비수도권	19.30	42.15	32.00	6.13	0.42	
	대도시	11.14	37.72	43.42	7.39	0.33	54.615 ***
	중소도시 농어촌	16.48 16.73	41.72 44.16	33.23 32.18	7.88 6.20	0.68 0.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99	32.34	43.10	10.14	0.43	33.739 ***
	중하층	12.33	41.09	38.34	7.62	0.61	
	중간층	15.38	41.86	35.58	6.66	0.52	
	중상층(상층)	18.34	42.68	31.78	6.70	0.5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66	34.40	41.73	8.80	0.41	24.250 *
	200만 원대	16.16	43.23	32.43	7.93	0.24	
	300만 원대	14.57	40.59	37.00	6.93	0.90	
	400만 원대	14.07	41.82	35.95	7.30	0.87	
	500만 원 이상	13.12	40.58	38.74	7.20	0.35	
학력	중졸 이하	12.48	42.25	35.74	9.13	0.39	15.332 *
	고졸	15.95	38.79	38.35	6.48	0.43	
	대졸 이상	13.11	41.15	37.03	7.99	0.7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40	40.97	36.35	6.86	0.43	36.522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1.80	39.33	38.36	10.09	0.42	
	고용주·자영자	12.49	42.88	37.66	6.67	0.30	
	무급가족 종사자	24.78	39.72	28.18	4.61	2.71	
	실업자	20.27	34.23	35.81	8.78	0.92	
	비경제활동인구	13.71	39.07	38.76	7.81	0.65	
직업	관리자·전문가	9.14	38.24	44.59	7.07	0.95	22.941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19	42.33	35.12	6.89	0.48	
	숙련 및 기술직	14.80	42.57	34.97	7.55	0.11	
	단순노무 종사자	14.63	35.52	39.87	9.47	0.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61	40.36	36.70	6.86	0.47	6.463
	비정규직	12.06	40.90	37.25	9.45	0.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47	40.54	37.42	7.00	0.56	8.341
	중도적	13.43	40.56	37.53	8.19	0.29	
	진보적	15.28	39.64	37.22	6.96	0.90	

주: 1)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0〉 스트레스 수준: 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매우 자주 있었다					χ ²
		1	2	3	4	5	
전체		17.95	43.60	31.84	6.13	0.48	
성별	남성	17.80	43.40	32.39	6.06	0.35	1.978
	여성	18.10	43.82	31.27	6.20	0.62	
연령	20대 이하	20.79	40.24	32.72	5.91	0.34	24.807*
	30대	18.24	41.64	32.26	7.20	0.66	
	40대	15.76	43.07	35.33	5.40	0.43	
	50대	17.17	45.71	30.28	6.64	0.20	
	60대 이상	18.19	47.18	28.31	5.54	0.79	
지역	수도권	12.41	43.35	35.56	7.93	0.75	109.583***
	비수도권	23.55	43.86	28.07	4.31	0.21	
	대도시	15.35	42.23	35.75	6.10	0.58	28.683 ***
	중소도시 농어촌	19.74 20.31	44.90 43.19	28.49 31.42	6.40 4.96	0.47 0.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45	40.37	36.07	9.03	1.07	48.375 ***
	중하층	15.83	45.76	31.27	6.65	0.50	
	중간층	20.11	43.03	31.40	5.11	0.34	
	중상층(상층)	25.58	42.31	28.60	3.51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85	40.78	35.44	7.27	1.67	37.378 ***
	200만 원대	21.00	42.97	30.19	5.51	0.33	
	300만 원대	18.17	46.54	29.15	5.76	0.39	
	400만 원대	18.30	42.67	31.65	7.06	0.32	
	500만 원 이상	17.66	43.90	32.63	5.67	0.15	
학력	중졸 이하	14.33	45.74	30.57	8.61	0.75	23.059 ***
	고졸	19.56	44.37	30.13	5.38	0.57	
	대졸 이상	17.59	41.97	34.16	5.99	0.2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27	42.69	31.49	5.43	0.13	40.02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10	42.70	36.37	5.76	1.06	
	고용주·자영자	16.54	46.27	30.97	6.22	0.00	
	무급가족 종사자	24.48	44.64	26.89	3.98	0.00	
	실업자	19.72	34.60	38.52	5.72	1.44	
	비경제활동인구	17.23	44.08	30.78	7.07	0.84	
직업	관리자·전문가	18.27	44.48	31.12	6.14	0.00	10.36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8.33	42.49	32.73	6.19	0.26	
	숙련 및 기술직	19.27	46.95	29.64	3.88	0.26	
	단순노무 종사자	15.00	43.75	34.71	6.03	0.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26	42.56	31.72	5.32	0.14	11.074**
	비정규직	15.33	42.97	34.93	5.92	0.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98	41.63	31.16	6.63	0.60	8.680
	중도적	16.77	45.33	32.02	5.51	0.38	
	진보적	17.81	42.91	32.19	6.58	0.52	

주: 1)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3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부표 3-91〉 우울 수준: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대부분 그랬다				χ^2
		1	2	3	4	
전체		75.34	20.69	3.50	0.47	
성별	남성	79.14	17.44	2.99	0.43	30.722 ***
	여성	71.44	24.03	4.02	0.51	
연령	20대 이하	82.74	13.98	3.00	0.28	68.550 ***
	30대	76.18	19.75	3.85	0.22	
	40대	76.78	20.86	2.17	0.19	
	50대	73.42	23.30	2.85	0.44	
	60대 이상	67.65	25.21	5.86	1.27	
지역	수도권	72.16	22.77	4.37	0.71	26.374 ***
	비수도권	78.56	18.59	2.62	0.23	
	대도시	72.45	22.34	4.38	0.83	24.712 ***
	중소도시 농어촌	78.09 74.38	19.06 21.53	2.74 3.43	0.11 0.6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5.94	32.22	11.17	0.68	228.084 ***
	중하층	73.12	23.95	2.61	0.32	
	중간층	82.65	14.94	2.03	0.38	
	중상층(상층)	81.87	15.23	1.41	1.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6.67	31.34	10.92	1.08	199.358 ***
	200만 원대	74.28	22.82	2.63	0.27	
	300만 원대	76.53	20.04	3.24	0.19	
	400만 원대	80.20	18.26	1.17	0.37	
	500만 원 이상	81.20	16.53	1.75	0.52	
학력	중졸 이하	62.33	29.72	7.33	0.62	77.000 ***
	고졸	76.85	19.47	3.03	0.64	
	대졸 이상	78.64	18.58	2.54	0.2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1.56	16.42	1.66	0.36	68.84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9.56	25.12	4.95	0.37	
	고용주·자영자	75.54	20.99	3.02	0.46	
	무급가족 종사자	71.83	24.28	3.06	0.82	
	실업자	66.64	22.32	8.63	2.41	
	비경제활동인구	72.28	22.75	4.58	0.40	
직업	관리자·전문가	77.88	19.56	2.56	0.00	18.968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7.34	19.83	2.33	0.50	
	숙련 및 기술직	80.89	16.03	2.80	0.28	
	단순노무 종사자	68.04	26.40	4.84	0.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1.68	16.28	1.65	0.39	25.678***
	비정규직	71.65	23.73	4.33	0.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71.22	23.15	5.13	0.50	33.003 ***
	중도적	74.85	21.52	3.36	0.27	
	진보적	79.95	17.15	2.16	0.74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_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2〉 우울 수준: 2) 비교적 잘 지냈다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대부분 그랬다				χ ²
		1	2	3	4	
전체		6.50	8.19	26.93	58.37	
성별	남성	6.28	8.31	25.76	59.65	3.498
	여성	6.74	8.06	28.14	57.06	
연령	20대 이하	3.61	7.51	26.96	61.92	33.290***
	30대	5.98	8.76	23.22	62.04	
	40대	8.05	6.99	27.15	57.81	
	50대	6.17	9.70	28.26	55.88	
	60대 이상	8.52	7.97	28.90	54.61	
지역	수도권	7.12	9.82	26.69	56.37	17.612 ***
	비수도권	5.88	6.54	27.17	60.40	
	대도시	9.08	10.29	28.08	52.54	63.954 ***
	중소도시 농어촌	4.80 3.85	6.40 7.87	25.62 28.39	63.18 59.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54	19.89	28.72	37.85	232.813 ***
	중하층	6.06	8.20	28.62	57.12	
	중간층	4.37	4.87	25.84	64.93	
	중상층(상층)	7.85	4.47	20.65	67.0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08	14.72	33.27	41.94	121.662 ***
	200만 원대	8.24	7.08	31.09	53.58	
	300만 원대	5.26	7.75	27.98	59.01	
	400만 원대	4.45	6.25	24.98	64.32	
	500만 원 이상	5.90	6.88	22.44	64.78	
학력	중졸 이하	9.59	11.93	29.36	49.12	42.857 ***
	고졸	6.13	7.27	28.61	57.98	
	대졸 이상	5.74	7.76	24.20	62.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51	5.97	26.45	62.07	70.16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93	13.38	26.71	52.98	
	고용주·자영자	5.92	7.67	27.66	58.75	
	무급가족 종사자	9.18	4.96	27.96	57.90	
	실업자	16.01	16.89	29.06	38.05	
	비경제활동인구	6.52	8.20	26.76	58.51	
직업	관리자·전문가	6.33	9.34	23.49	60.84	17.720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5.35	6.98	26.68	60.99	
	숙련 및 기술직	6.00	7.29	28.74	57.97	
	단순노무 종사자	9.59	11.02	29.19	50.1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75	5.83	25.61	62.81	25.362***
	비정규직	6.15	12.22	28.4	53.23	
이념적 성향	보수적	8.41	8.91	27.97	54.71	16.184 **
	중도적	5.97	8.60	26.62	58.81	
	진보적	5.50	6.90	26.43	61.17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_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3〉 우울 수준: 3) 상당히 우울했다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대부분 그랬다				χ^2
		1	2	3	4	
전체		76.55	18.74	3.69	1.02	
성별	남성	78.33	17.40	3.08	1.19	10.406 **
	여성	74.71	20.12	4.31	0.85	
연령	20대 이하	80.06	16.40	2.91	0.63	36.828 ***
	30대	79.99	15.27	4.12	0.63	
	40대	78.32	18.18	2.85	0.66	
	50대	72.94	21.80	4.07	1.19	
	60대 이상	71.62	21.78	4.57	2.03	
지역	수도권	73.42	20.70	4.86	1.02	27.205 ***
	비수도권	79.71	16.76	2.51	1.02	
	대도시	72.05	22.25	4.51	1.18	35.665 ***
	중소도시 농어촌	80.60 76.07	15.64 18.79	2.86 4.20	0.90 0.9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6.23	30.36	10.37	3.05	212.876 ***
	중하층	76.13	20.64	2.82	0.41	
	중간층	83.19	13.47	2.58	0.76	
	중상층(상층)	79.27	17.65	1.31	1.7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9.28	28.36	9.01	3.35	162.820 ***
	200만 원대	78.18	17.31	3.91	0.60	
	300만 원대	76.23	20.84	2.34	0.58	
	400만 원대	83.17	14.07	2.12	0.64	
	500만 원 이상	80.46	16.23	2.67	0.63	
학력	중졸 이하	66.33	24.02	6.86	2.79	68.096 ***
	고졸	77.22	19.23	2.66	0.89	
	대졸 이상	79.69	16.22	3.60	0.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1.97	14.52	3.07	0.44	90.153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71.18	21.20	5.79	1.84	
	고용주·자영자	78.53	18.55	2.62	0.30	
	무급가족 종사자	80.13	16.96	2.17	0.74	
	실업자	59.92	27.17	6.99	5.92	
	비경제활동인구	73.38	21.39	3.97	1.26	
직업	관리자·전문가	82.58	14.69	2.73	0.00	41.353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9.95	16.48	3.10	0.47	
	숙련 및 기술직	79.70	16.68	2.96	0.66	
	단순노무 종사자	65.98	24.17	7.11	2.7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2.98	13.58	2.96	0.48	32.125***
	비정규직	71.18	21.86	5.49	1.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71.53	22.42	4.96	1.09	29.927 ***
	중도적	77.21	18.98	2.83	0.99	
	진보적	80.27	14.94	3.78	1.01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_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4〉 우울 수준: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대부분 그랬다				χ^2
		1	2	3	4	
전체		61.29	30.97	5.88	1.87	
성별	남성	62.42	30.88	5.19	1.52	6.647 *
	여성	60.12	31.06	6.59	2.23	
연령	20대 이하	69.75	24.69	3.76	1.80	44.875***
	30대	61.28	31.51	5.05	2.17	
	40대	58.67	34.77	5.31	1.26	
	50대	57.96	32.49	7.99	1.57	
	60대 이상	59.55	30.68	7.12	2.65	
지역	수도권	56.89	33.76	6.79	2.56	37.553 ***
	비수도권	65.73	28.15	4.95	1.16	
	대도시	53.65	35.67	8.16	2.52	89.185 ***
	중소도시 농어촌	68.23 60.22	26.59 32.13	3.70 6.67	1.48 0.9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8.04	41.65	15.79	4.51	246.490 ***
	중하층	59.46	34.23	5.04	1.27	
	중간층	69.00	25.68	3.85	1.47	
	중상층(상층)	71.45	24.26	2.22	2.0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75	37.91	11.97	4.37	117.752 ***
	200만 원대	61.74	30.58	6.43	1.25	
	300만 원대	60.69	31.87	5.67	1.77	
	400만 원대	68.41	25.87	3.95	1.77	
	500만 원 이상	64.90	29.99	3.98	1.13	
학력	중졸 이하	51.64	33.94	10.80	3.61	55.002 ***
	고졸	61.96	31.39	5.18	1.47	
	대졸 이상	64.21	29.39	4.77	1.6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4.93	30.42	3.98	0.67	88.62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3.58	35.27	9.61	1.54	
	고용주·자영자	60.00	33.29	5.98	0.73	
	무급가족 종사자	62.62	29.83	7.55	0.00	
	실업자	46.77	37.14	10.17	5.92	
	비경제활동인구	62.54	28.10	5.83	3.53	
직업	관리자·전문가	67.31	27.14	4.49	1.06	26.546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1.45	32.44	5.27	0.84	
	숙련 및 기술직	62.41	31.85	5.47	0.26	
	단순노무 종사자	49.70	38.14	10.54	1.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5.15	30.08	4.04	0.73	21.809***
	비정규직	55.36	35.03	8.38	1.24	
이념적 성향	보수적	56.67	33.28	7.84	2.21	20.254 ***
	중도적	62.48	30.21	5.65	1.66	
	진보적	63.86	29.93	4.37	1.85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_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5〉 우울 수준: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대부분 그랬다				χ ²
		1	2	3	4	
전체		61.28	30.11	6.40	2.21	
성별	남성	63.67	29.21	5.39	1.73	15.161 ***
	여성	58.83	31.03	7.45	2.70	
연령	20대 이하	73.03	21.79	3.59	1.59	100.610 ***
	30대	63.81	26.44	7.82	1.93	
	40대	59.58	33.53	4.68	2.22	
	50대	60.39	30.66	7.11	1.84	
	60대 이상	50.00	37.54	8.96	3.50	
지역	수도권	55.91	32.67	7.99	3.43	68.164 ***
	비수도권	66.71	27.52	4.80	0.98	
	대도시	57.43	32.08	8.42	2.08	34.605 ***
	중소도시 농어촌	64.67 61.29	28.02 31.77	4.73 5.93	2.57 1.0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99	36.33	14.91	4.77	151.962 ***
	중하층	60.21	32.24	5.19	2.35	
	중간층	67.16	26.34	5.23	1.26	
	중상층(상층)	66.19	29.47	2.23	2.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3.57	37.50	13.83	5.11	145.351 ***
	200만 원대	63.07	30.12	5.20	1.61	
	300만 원대	61.28	31.30	4.77	2.65	
	400만 원대	65.39	29.33	3.82	1.46	
	500만 원 이상	66.63	26.26	5.82	1.29	
학력	중졸 이하	46.84	38.25	11.05	3.85	74.282 ***
	고졸	63.33	28.49	5.92	2.26	
	대졸 이상	64.54	28.76	5.16	1.5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6.58	27.80	4.33	1.30	45.16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6.81	31.48	8.85	2.85	
	고용주·자영자	60.98	31.10	6.21	1.70	
	무급가족 종사자	55.57	38.11	4.44	1.88	
	실업자	56.07	28.78	10.29	4.86	
	비경제활동인구	58.75	30.89	7.43	2.93	
직업	관리자·전문가	62.17	31.37	4.95	1.52	39.831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2.87	29.67	5.68	1.77	
	숙련 및 기술직	68.03	27.84	3.33	0.81	
	단순노무 종사자	51.13	32.69	12.44	3.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6.20	28.12	4.49	1.19	14.789***
	비정규직	59.50	30.10	7.63	2.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53.31	35.97	7.94	2.78	44.038 ***
	중도적	62.93	28.88	5.84	2.34	
	진보적	66.32	26.42	5.79	1.48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_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6〉 우울 수준: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대부분 그랬다				χ ²
		1	2	3	4	
전체		75.28	18.08	4.88	1.76	
성별	남성	75.79	17.44	4.60	2.16	5.228
	여성	74.76	18.73	5.16	1.35	
연령	20대 이하	84.50	12.50	2.18	0.81	90.827***
	30대	80.38	13.42	4.59	1.61	
	40대	75.09	18.42	4.72	1.77	
	50대	70.83	21.89	5.46	1.83	
	60대 이상	66.17	23.65	7.40	2.78	
지역	수도권	72.23	19.12	6.23	2.42	31.334 ***
	비수도권	78.37	17.03	3.51	1.09	
	대도시	72.18	20.63	5.36	1.83	19.500 ***
	중소도시 농어촌	78.23 74.26	15.57 19.31	4.37 5.27	1.83 1.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2.95	28.06	13.93	5.06	279.195 ***
	중하층	72.58	21.51	4.25	1.66	
	중간층	83.96	12.42	2.87	0.76	
	중상층(상층)	81.80	14.48	1.93	1.7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4.58	27.72	12.67	5.03	208.080 ***
	200만 원대	75.57	19.52	3.88	1.03	
	300만 원대	76.71	18.29	3.81	1.19	
	400만 원대	79.80	15.07	3.51	1.61	
	500만 원 이상	81.30	14.47	3.18	1.05	
학력	중졸 이하	61.08	27.17	8.16	3.59	89.941 ***
	고졸	75.66	18.17	4.84	1.34	
	대졸 이상	80.24	14.54	3.69	1.5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0.20	15.81	3.31	0.68	75.80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7.80	23.81	4.84	3.54	
	고용주·자영자	76.22	16.08	5.78	1.92	
	무급가족 종사자	80.54	14.93	4.53	0.00	
	실업자	64.22	19.77	8.93	7.08	
	비경제활동인구	73.27	19.54	5.50	1.68	
직업	관리자·전문가	79.97	13.98	5.53	0.52	44.457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8.47	15.69	4.05	1.79	
	숙련 및 기술직	77.13	18.92	3.24	0.70	
	단순노무 종사자	61.44	28.00	7.18	3.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0.57	15.52	3.23	0.68	32.129***
	비정규직	69.46	22.84	4.71	2.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69.14	22.64	6.22	2.00	35.248 ***
	중도적	76.36	17.59	4.19	1.87	
	진보적	79.44	14.53	4.65	1.38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_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7〉 우울수준: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대부분 그랬다				χ^2
		1	2	3	4	
전체		8.93	11.50	29.95	49.62	
성별	남성	8.07	11.81	28.86	51.27	7.355 *
	여성	9.81	11.17	31.08	47.93	
연령	20대 이하	7.17	8.51	30.61	53.71	21.849*
	30대	8.58	11.83	27.96	51.63	
	40대	9.22	12.71	27.89	50.18	
	50대	9.80	12.46	30.92	46.82	
	60대 이상	9.72	11.68	32.56	46.03	
지역	수도권	10.40	12.72	30.52	46.37	23.110***
	비수도권	7.44	10.26	29.38	52.92	
	대도시	12.06	13.80	30.42	43.72	75.602 ***
	중소도시 농어촌	7.22 3.96	9.00 13.72	30.35 26.12	53.42 56.2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88	22.62	33.05	31.45	149.711 ***
	중하층	8.71	12.29	29.59	49.42	
	중간층	7.42	7.79	29.95	54.83	
	중상층(상층)	11.59	7.19	25.14	56.0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80	17.93	35.20	35.07	98.863 ***
	200만 원대	8.85	14.29	31.32	45.54	
	300만 원대	10.72	8.12	30.43	50.72	
	400만 원대	5.90	10.22	30.05	53.83	
	500만 원 이상	8.15	9.98	26.51	55.35	
학력	중졸 이하	10.16	14.59	34.10	41.16	36.316 ***
	고졸	8.95	10.29	32.05	48.71	
	대졸 이상	8.44	11.62	26.13	53.8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66	10.36	26.90	55.09	82.97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06	15.59	34.09	39.26	
	고용주·자영자	9.13	11.61	29.53	49.73	
	무급가족 종사자	8.80	11.02	21.82	58.36	
	실업자	16.57	19.72	42.20	21.51	
	비경제활동인구	8.54	10.32	31.06	50.09	
직업	관리자·전문가	11.15	13.87	20.28	54.70	32.767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41	10.14	30.04	51.40	
	숙련 및 기술직	7.06	11.96	29.17	51.81	
	단순노무 종사자	10.99	17.08	32.76	39.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55	10.06	26.67	55.71	32.535***
	비정규직	10.63	15.19	33.15	41.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80	12.31	32.71	44.17	25.323 ***
	중도적	8.65	12.16	27.66	51.54	
	진보적	7.58	9.75	30.76	51.90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_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8〉 우울 수준: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대부분 그랬다				χ^2
		1	2	3	4	
전체		85.02	12.55	2.03	0.41	
성별	남성	84.45	12.99	1.89	0.67	8.012*
	여성	85.61	12.09	2.17	0.13	
연령	20대 이하	87.30	11.71	0.33	0.67	25.243**
	30대	83.45	13.22	2.51	0.81	
	40대	84.84	12.94	1.99	0.23	
	50대	83.82	12.80	3.19	0.19	
	60대 이상	85.85	11.99	1.98	0.19	
지역	수도권	84.02	13.40	2.14	0.44	3.049
	비수도권	86.03	11.68	1.91	0.37	
	대도시	82.68	14.35	2.27	0.70	21.991***
	중소도시 농어촌	86.80 86.36	11.52 9.94	1.57 3.16	0.11 0.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3.75	20.30	5.77	0.17	111.579***
	중하층	85.08	12.76	1.73	0.43	
	중간층	87.94	10.65	1.19	0.22	
	중상층(상층)	90.08	6.84	1.01	2.0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6.38	18.15	5.05	0.43	64.509***
	200만 원대	87.47	10.47	2.06	0.00	
	300만 원대	85.69	11.63	1.95	0.73	
	400만 원대	85.80	12.51	0.93	0.75	
	500만 원 이상	86.94	11.60	1.25	0.21	
학력	중졸 이하	80.08	15.70	3.87	0.35	28.338***
	고졸	86.24	11.98	1.68	0.09	
	대졸 이상	85.57	11.97	1.70	0.7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6.55	11.50	1.87	0.07	50.98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4.62	12.26	2.75	0.37	
	고용주·자영자	86.84	11.23	1.39	0.55	
	무급가족 종사자	88.81	8.48	0.00	2.71	
	실업자	75.08	21.38	1.05	2.49	
	비경제활동인구	83.34	13.82	2.54	0.29	
직업	관리자·전문가	87.26	10.03	2.71	0.00	16.65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6.44	11.62	1.50	0.44	
	숙련 및 기술직	86.95	11.89	0.96	0.21	
	단순노무 종사자	83.28	11.52	4.48	0.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6.86	11.23	1.83	0.08	3.256
	비정규직	84.36	12.67	2.67	0.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83.77	13.74	2.05	0.44	5.384
	중도적	85.11	12.40	2.25	0.25	
	진보적	86.06	11.66	1.68	0.60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_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99〉 우울수준: 9) 마음이 슬펐다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대부분 그랬다				χ^2
		1	2	3	4	
전체		78.40	16.57	4.13	0.90	
성별	남성	81.22	14.55	3.46	0.77	18.816 ***
	여성	75.49	18.66	4.82	1.04	
연령	20대 이하	83.39	13.00	3.09	0.52	38.547 ***
	30대	81.32	13.61	4.70	0.37	
	40대	77.67	18.12	3.09	1.12	
	50대	75.77	19.31	3.92	1.01	
	60대 이상	74.27	18.30	5.98	1.45	
지역	수도권	74.33	18.98	5.69	1.01	45.123 ***
	비수도권	82.52	14.15	2.55	0.79	
	대도시	73.84	19.55	5.58	1.03	37.660 ***
	중소도시 농어촌	81.76 81.45	14.44 14.32	2.95 3.63	0.85 0.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6.69	29.23	12.30	1.78	251.755 ***
	중하층	76.84	19.05	3.38	0.73	
	중간층	85.43	11.38	2.51	0.67	
	중상층(상층)	88.13	9.30	1.09	1.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2.75	25.04	9.92	2.29	122.324 ***
	200만 원대	79.52	16.32	3.36	0.79	
	300만 원대	80.19	15.53	3.24	1.04	
	400만 원대	81.87	14.56	3.04	0.53	
	500만 원 이상	82.04	14.57	2.97	0.43	
학력	중졸 이하	68.78	20.39	8.46	2.37	65.963 ***
	고졸	79.33	16.72	3.47	0.48	
	대졸 이상	81.04	14.98	3.19	0.8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2.44	14.21	2.70	0.65	65.920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73.40	19.51	6.01	1.07	
	고용주·자영자	80.97	14.96	3.55	0.53	
	무급가족 종사자	84.68	10.89	4.43	0.00	
	실업자	57.73	30.25	9.05	2.97	
	비경제활동인구	76.34	17.81	4.69	1.16	
직업	관리자·전문가	80.62	17.06	2.22	0.09	37.261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0.74	14.90	3.61	0.75	
	숙련 및 기술직	84.59	12.63	2.52	0.26	
	단순노무 종사자	69.09	20.81	8.12	1.9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2.84	13.92	2.54	0.71	19.674***
	비정규직	74.34	19.09	5.70	0.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75.58	18.55	4.91	0.96	8.020
	중도적	79.03	16.34	3.72	0.90	
	진보적	80.10	15.06	4.00	0.84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_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0〉 우울 수준: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대부분 그랬다				χ ²
		1	2	3	4	
전체		87.87	10.28	1.44	0.41	
성별	남성	87.37	10.74	1.21	0.68	9.376 **
	여성	88.38	9.80	1.68	0.13	
연령	20대 이하	90.48	7.73	1.09	0.70	19.355 *
	30대	86.68	10.91	1.54	0.87	
	40대	88.73	9.73	1.25	0.29	
	50대	87.37	11.02	1.51	0.10	
	60대 이상	86.04	11.99	1.84	0.13	
지역	수도권	86.71	11.01	1.69	0.59	7.496 *
	비수도권	89.04	9.54	1.20	0.22	
	대도시	85.33	11.78	2.01	0.87	32.802***
	중소도시 농어촌	90.25 87.16	8.65 11.73	1.06 0.91	0.04 0.2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6.56	19.51	3.47	0.46	117.896 ***
	중하층	86.44	11.67	1.66	0.23	
	중간층	92.31	6.73	0.57	0.39	
	중상층(상층)	91.18	5.72	1.62	1.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0.23	15.77	3.24	0.76	54.017 ***
	200만 원대	87.81	11.42	0.77	0.00	
	300만 원대	90.19	7.66	1.39	0.76	
	400만 원대	88.15	10.60	0.89	0.36	
	500만 원 이상	89.77	8.70	1.28	0.25	
학력	중졸 이하	80.91	16.97	1.96	0.16	38.537 ***
	고졸	88.99	9.46	1.18	0.37	
	대졸 이상	89.29	8.63	1.54	0.5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0.08	8.64	1.02	0.27	32.70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6.56	10.92	2.15	0.37	
	고용주·자영자	88.09	10.10	1.70	0.11	
	무급가족 종사자	87.52	8.97	0.79	2.71	
	실업자	80.48	16.77	1.17	1.58	
	비경제활동인구	86.81	11.19	1.54	0.46	
직업	관리자·전문가	90.70	8.42	0.87	0.00	20.153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9.44	8.66	1.50	0.40	
	숙련 및 기술직	88.64	10.47	0.89	0.00	
	단순노무 종사자	82.09	13.90	2.94	1.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0.21	8.38	1.12	0.29	4.160
	비정규직	86.96	11.01	1.73	0.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85.90	12.07	1.42	0.61	9.671
	중도적	88.22	10.06	1.52	0.19	
	진보적	89.19	8.92	1.35	0.54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_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1〉 우울 수준: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대부분 그랬다				χ^2
		1	2	3	4	
전체		80.55	15.39	3.30	0.76	
성별	남성	81.89	14.58	2.98	0.55	6.151
	여성	79.16	16.23	3.64	0.98	
연령	20대 이하	84.49	11.82	2.85	0.84	33.122***
	30대	81.12	14.83	3.86	0.19	
	40대	80.52	15.50	2.71	1.27	
	50대	81.68	15.06	2.84	0.42	
	60대 이상	74.82	19.75	4.39	1.04	
지역	수도권	78.45	15.90	4.62	1.02	26.862 ***
	비수도권	82.66	14.88	1.97	0.49	
	대도시	75.88	18.36	4.49	1.26	62.930 ***
	중소도시 농어촌	85.27 77.57	11.74 20.31	2.54 1.96	0.44 0.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2.55	24.64	10.91	1.90	225.527 ***
	중하층	78.50	17.53	3.22	0.75	
	중간층	86.77	11.59	1.26	0.38	
	중상층(상층)	90.31	8.21	0.65	0.8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4.61	24.34	9.53	1.52	152.954 ***
	200만 원대	81.21	16.66	1.69	0.44	
	300만 원대	82.95	13.83	1.89	1.33	
	400만 원대	83.88	12.85	2.81	0.46	
	500만 원 이상	84.38	12.90	2.36	0.37	
학력	중졸 이하	69.78	23.33	5.63	1.25	54.849 ***
	고졸	82.84	14.06	2.41	0.70	
	대졸 이상	82.15	13.83	3.38	0.6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4.67	12.82	2.22	0.28	77.366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77.47	18.22	3.27	1.05	
	고용주·자영자	81.05	15.47	2.71	0.77	
	무급가족 종사자	85.11	11.39	3.51	0.00	
	실업자	56.37	31.13	10.62	1.89	
	비경제활동인구	79.44	15.55	3.96	1.05	
직업	관리자·전문가	85.24	14.13	0.63	0.00	23.984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1.94	14.01	3.06	0.99	
	숙련 및 기술직	83.73	14.31	1.96	0.00	
	단순노무 종사자	77.19	18.63	4.18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4.34	12.92	2.42	0.31	7.320*
	비정규직	79.56	16.96	2.63	0.84	
이념적 성향	보수적	78.58	16.71	3.90	0.81	8.083
	중도적	80.20	16.03	3.02	0.75	
	진보적	82.90	13.21	3.16	0.73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_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2〉 자살생각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χ^2
전체		6.34	93.66	
성별	남성	5.66	94.34	3.048 *
	여성	7.03	92.97	
연령	20대 이하	4.00	96.00	21.902***
	30대	5.54	94.46	
	40대	5.19	94.81	
	50대	7.81	92.19	
	60대 이상	9.12	90.88	
지역	수도권	8.12	91.88	20.694 ***
	비수도권	4.54	95.46	
	대도시	7.54	92.46	9.086 **
	중소도시 농어촌	5.10 7.15	94.90 92.8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17	79.83	207.917***
	중하층	4.79	95.21	
	중간층	3.27	96.73	
	중상층(상층)	5.13	94.8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99	84.01	109.638 ***
	200만 원대	5.94	94.06	
	300만 원대	5.52	94.48	
	400만 원대	3.65	96.35	
	500만 원 이상	4.03	95.97	
학력	중졸 이하	13.12	86.88	55.030 ***
	고졸	5.47	94.53	
	대졸 이상	4.70	95.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4	96.36	36.50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55	91.45	
	고용주·자영자	6.03	93.97	
	무급가족 종사자	5.66	94.34	
	실업자	14.56	85.44	
	비경제활동인구	7.59	92.41	
직업	관리자·전문가	3.59	96.41	14.019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5.87	94.13	
	숙련 및 기술직	3.19	96.81	
	단순노무 종사자	9.12	90.8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9	96.61	17.212***
	비정규직	8.11	91.89	
이념적 성향	보수적	6.68	93.32	3.634
	중도적	5.51	94.49	
	진보적	7.23	92.77	

주: 1) “귀하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3〉 아노미: 1) 요즘에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8.13	47.67	41.58	2.61	
성별	남성	8.59	48.89	39.80	2.72	5.452
	여성	7.66	46.42	43.42	2.50	
연령	20대 이하	11.80	54.25	32.19	1.75	85.082***
	30대	9.50	50.30	36.79	3.41	
	40대	8.65	47.98	41.34	2.04	
	50대	5.56	42.21	49.08	3.16	
	60대 이상	5.38	44.20	47.68	2.73	
지역	수도권	9.63	43.84	43.57	2.97	28.139 ***
	비수도권	6.62	51.54	39.58	2.26	
	대도시	9.29	47.21	40.39	3.12	18.239 **
	중소도시 농어촌	7.29 7.30	46.84 53.53	43.84 35.88	2.03 3.2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76	34.84	54.39	6.01	146.348 ***
	중하층	6.22	46.14	45.07	2.56	
	중간층	9.69	53.74	35.08	1.49	
	중상층(상층)	16.09	43.89	37.10	2.9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3	41.90	48.93	4.64	55.492 ***
	200만 원대	5.52	49.66	42.02	2.80	
	300만 원대	9.22	45.51	43.08	2.19	
	400만 원대	7.71	49.48	40.60	2.21	
	500만 원 이상	10.61	49.70	37.61	2.09	
학력	중졸 이하	3.57	41.27	50.61	4.55	68.453 ***
	고졸	7.55	47.00	43.31	2.15	
	대졸 이상	10.48	50.82	36.31	2.3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83	50.96	37.79	2.42	36.589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0.44	38.72	46.69	4.16	
	고용주·자영자	6.65	49.91	41.15	2.29	
	무급가족 종사자	3.12	55.09	41.25	0.54	
	실업자	9.77	41.41	45.41	3.41	
	비경제활동인구	7.70	46.35	43.42	2.53	
직업	관리자·전문가	15.18	52.03	30.65	2.14	46.360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06	48.08	41.42	2.43	
	숙련 및 기술직	4.68	51.11	41.61	2.60	
	단순노무 종사자	7.49	41.23	46.75	4.5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99	50.66	38.18	2.17	15.318***
	비정규직	9.79	41.74	44.15	4.33	
이념적 성향	보수적	6.91	45.59	44.13	3.38	27.792 ***
	중도적	7.28	47.09	42.88	2.75	
	진보적	10.55	50.47	37.28	1.70	

주: 1) "아래 문항을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4〉 아노미: 2) 미래를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두렵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12.68	44.07	35.53	7.72	
성별	남성	12.37	44.99	35.04	7.60	1.386
	여성	13.00	43.13	36.04	7.83	
연령	20대 이하	12.57	35.83	40.67	10.92	111.038***
	30대	9.68	40.67	37.84	11.80	
	40대	12.13	42.51	38.56	6.81	
	50대	12.81	48.50	33.11	5.58	
	60대 이상	16.25	52.52	27.39	3.84	
지역	수도권	13.76	43.02	34.01	9.21	18.356 ***
	비수도권	11.59	45.13	37.08	6.20	
	대도시	13.15	41.44	37.23	8.18	10.548 **
	중소도시 농어촌	12.31 12.43	46.63 42.90	33.99 35.79	7.06 8.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95	37.42	37.96	13.68	85.031 ***
	중하층	10.71	42.56	37.83	8.89	
	중간층	13.58	47.23	33.95	5.24	
	중상층(상층)	21.75	46.16	27.64	4.4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26	45.21	30.84	9.69	30.525 ***
	200만 원대	15.49	39.69	36.74	8.08	
	300만 원대	11.69	41.99	37.48	8.84	
	400만 원대	11.50	49.08	32.33	7.09	
	500만 원 이상	11.89	44.38	37.58	6.15	
학력	중졸 이하	14.19	48.84	30.60	6.37	14.399 **
	고졸	12.88	43.30	36.60	7.23	
	대졸 이상	11.89	43.10	36.26	8.7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42	44.03	37.12	7.43	34.80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92	39.49	35.58	12.00	
	고용주·자영자	14.06	45.40	35.44	5.10	
	무급가족 종사자	13.50	43.06	36.67	6.77	
	실업자	9.05	42.66	33.30	14.99	
	비경제활동인구	13.32	45.11	34.17	7.39	
직업	관리자·전문가	14.12	45.80	32.10	7.98	13.94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24	41.12	38.99	7.65	
	숙련 및 기술직	11.39	47.18	34.48	6.95	
	단순노무 종사자	14.76	47.37	30.71	7.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29	44.05	37.21	7.45	7.595*
	비정규직	12.91	40.33	35.71	11.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59	47.18	32.63	5.60	22.470 ***
	중도적	11.82	44.25	35.65	8.28	
	진보적	12.15	40.89	38.09	8.87	

주: 1) "아래 문항을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5〉 아노미: 3) 누가 뭐라고 해도, 보통사람들의 생활은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 ²
		1	2	3	4	
전체		5.14	36.13	50.86	7.87	
성별	남성	5.47	35.00	51.31	8.22	2.973
	여성	4.80	37.28	50.40	7.52	
연령	20대 이하	8.42	39.02	46.93	5.63	54.675***
	30대	4.04	36.28	50.27	9.41	
	40대	5.57	35.37	49.56	9.50	
	50대	5.64	33.75	52.11	8.50	
	60대 이상	1.91	36.58	55.45	6.05	
지역	수도권	5.35	31.85	53.02	9.78	41.402 ***
	비수도권	4.92	40.45	48.68	5.95	
	대도시	5.41	33.80	52.93	7.87	8.158
	중소도시 농어촌	4.92 5.02	37.98 37.04	48.97 51.24	8.13 6.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1	22.17	58.79	16.24	179.587 ***
	중하층	3.14	34.34	53.53	8.99	
	중간층	7.02	40.40	47.85	4.73	
	중상층(상층)	9.02	48.65	38.23	4.1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49	33.46	52.38	11.67	68.099 ***
	200만 원대	3.31	33.84	56.54	6.31	
	300만 원대	5.43	31.32	53.28	9.96	
	400만 원대	6.89	35.48	51.00	6.62	
	500만 원 이상	6.00	41.73	45.99	6.28	
학력	중졸 이하	2.43	33.90	55.61	8.06	20.088 ***
	고졸	4.98	35.74	51.75	7.53	
	대졸 이상	6.33	37.38	48.11	8.1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85	38.71	49.23	7.20	30.836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7.46	29.89	52.88	9.78	
	고용주·자영자	5.87	35.41	52.07	6.64	
	무급가족 종사자	4.89	31.85	53.09	10.17	
	실업자	4.22	25.83	56.66	13.28	
	비경제활동인구	4.29	37.52	50.30	7.89	
직업	관리자·전문가	8.21	38.86	44.65	8.28	22.148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5.55	34.90	51.98	7.58	
	숙련 및 기술직	3.75	39.48	51.04	5.73	
	단순노무 종사자	6.49	29.70	52.81	11.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14	38.35	49.48	7.03	7.925**
	비정규직	6.33	32.37	51.66	9.64	
이념적 성향	보수적	4.01	37.29	51.13	7.57	10.998 *
	중도적	5.79	35.02	52.11	7.08	
	진보적	5.22	36.68	48.77	9.33	

주: 1) “아래 문항을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6〉 아노미: 4) 요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따름이지, 미래를 생각지 않는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 ²
		1	2	3	4	
전체		8.30	50.47	37.22	4.01	
성별	남성	8.93	48.89	38.35	3.83	5.540
	여성	7.65	52.10	36.05	4.20	
연령	20대 이하	11.17	51.20	33.32	4.31	42.477***
	30대	7.98	55.72	32.49	3.81	
	40대	9.38	47.97	39.46	3.20	
	50대	7.14	51.39	36.78	4.69	
	60대 이상	5.83	46.33	43.76	4.09	
지역	수도권	7.95	46.62	40.63	4.80	30.080 ***
	비수도권	8.65	54.36	33.76	3.22	
	대도시	8.61	49.11	37.67	4.61	11.085 *
	중소도시 농어촌	7.99 8.45	50.30 56.95	37.91 32.07	3.80 2.5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46	38.64	48.39	9.51	157.530***
	중하층	6.05	50.03	39.85	4.07	
	중간층	10.86	54.35	32.44	2.35	
	중상층(상층)	14.67	53.14	29.50	2.6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46	42.14	45.28	8.11	84.527 ***
	200만 원대	7.78	51.15	38.31	2.77	
	300만 원대	7.11	49.63	39.55	3.72	
	400만 원대	8.36	51.21	37.10	3.33	
	500만 원 이상	10.91	54.20	31.75	3.14	
학력	중졸 이하	3.89	45.85	45.08	5.18	49.736 ***
	고졸	7.77	49.74	38.40	4.09	
	대졸 이상	10.54	53.01	32.97	3.4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2	52.96	33.60	3.73	38.10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36	50.30	38.47	4.87	
	고용주·자영자	9.02	49.78	38.91	2.29	
	무급가족 종사자	3.50	57.78	36.51	2.21	
	실업자	9.37	36.01	48.90	5.71	
	비경제활동인구	7.37	49.50	38.17	4.96	
직업	관리자·전문가	10.91	55.48	30.63	2.97	37.532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82	51.01	35.32	3.85	
	숙련 및 기술직	6.60	54.71	36.85	1.84	
	단순노무 종사자	3.52	43.13	47.89	5.4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59	53.29	33.16	3.96	5.719
	비정규직	7.30	50.13	38.42	4.15	
이념적 성향	보수적	7.82	46.89	41.36	3.93	18.248 **
	중도적	7.35	52.87	35.62	4.16	
	진보적	10.16	50.27	35.70	3.87	

주: 1) "아래 문항을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7〉 아노미: 5) 요즘 공무원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탄원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 ²
		1	2	3	4	
전체		5.72	50.16	39.98	4.14	
성별	남성	6.07	50.59	38.67	4.67	5.447
	여성	5.36	49.72	41.34	3.58	
연령	20대 이하	7.82	54.23	34.62	3.33	31.672***
	30대	4.15	52.31	38.63	4.91	
	40대	6.35	48.12	41.68	3.84	
	50대	5.84	46.87	42.03	5.25	
	60대 이상	4.35	49.92	42.47	3.26	
지역	수도권	6.07	46.10	43.05	4.78	26.636 ***
	비수도권	5.37	54.27	36.88	3.48	
	대도시	6.32	47.33	42.02	4.33	14.939 **
	중소도시 농어촌	4.97 6.78	51.49 55.67	39.42 34.18	4.12 3.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56	39.56	48.62	7.26	83.905 ***
	중하층	5.21	47.10	43.56	4.12	
	중간층	5.84	55.97	35.22	2.97	
	중상층(상층)	10.47	51.98	32.43	5.1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32	46.85	43.81	5.03	31.263 ***
	200만 원대	3.69	50.77	41.34	4.20	
	300만 원대	5.64	46.86	42.98	4.52	
	400만 원대	5.92	50.40	39.06	4.63	
	500만 원 이상	7.31	53.42	36.19	3.08	
학력	중졸 이하	4.28	42.86	47.42	5.44	29.056 ***
	고졸	5.16	51.01	40.12	3.71	
	대졸 이상	6.87	52.01	37.02	4.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33	53.62	36.10	3.95	44.46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57	39.17	48.07	7.19	
	고용주·자영자	5.46	48.11	42.80	3.62	
	무급가족 종사자	3.17	55.55	36.06	5.22	
	실업자	4.43	49.05	40.37	6.16	
	비경제활동인구	5.64	51.53	39.55	3.28	
직업	관리자·전문가	7.95	50.63	35.22	6.20	37.440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26	49.95	39.83	3.97	
	숙련 및 기술직	3.06	53.84	39.30	3.80	
	단순노무 종사자	6.51	34.89	52.13	6.4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58	53.22	36.29	3.92	21.920***
	비정규직	5.19	42.84	45.35	6.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6.20	47.77	41.38	4.65	9.067
	중도적	4.73	51.81	39.50	3.95	
	진보적	6.74	49.96	39.38	3.92	

주: 1) "아래 문항을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8〉 아노미: 6) 요즘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 ²
		1	2	3	4	
전체		8.00	51.08	38.29	2.62	
성별	남성	9.39	51.23	36.67	2.71	12.371 **
	여성	6.57	50.93	39.97	2.53	
연령	20대 이하	11.96	51.57	34.37	2.10	45.556 ***
	30대	8.39	52.61	35.15	3.85	
	40대	6.79	50.89	39.93	2.40	
	50대	8.56	50.23	39.50	1.71	
	60대 이상	4.44	50.24	42.14	3.18	
지역	수도권	7.45	46.60	42.36	3.59	47.477 ***
	비수도권	8.56	55.62	34.18	1.64	
	대도시	9.41	50.28	37.73	2.59	19.250 ***
	중소도시 농어촌	6.59 8.84	50.52 57.11	40.00 32.56	2.89 1.4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6	38.78	51.47	5.49	146.016 ***
	중하층	6.22	48.03	42.77	2.99	
	중간층	10.15	57.18	30.97	1.70	
	중상층(상층)	12.08	54.76	32.83	0.3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69	46.87	43.99	4.44	48.008 ***
	200만 원대	8.83	48.63	39.50	3.04	
	300만 원대	7.24	48.91	41.20	2.64	
	400만 원대	7.72	52.42	36.86	3.00	
	500만 원 이상	9.64	54.81	34.17	1.38	
학력	중졸 이하	3.56	46.33	46.05	4.07	40.294 ***
	고졸	8.22	51.60	38.03	2.15	
	대졸 이상	9.45	52.33	35.64	2.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90	53.48	34.95	2.67	26.34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4	49.42	38.79	2.94	
	고용주·자영자	8.64	52.84	37.29	1.23	
	무급가족 종사자	4.07	48.12	45.21	2.60	
	실업자	5.21	50.00	42.72	2.06	
	비경제활동인구	7.01	48.59	41.05	3.35	
직업	관리자·전문가	12.00	58.37	25.92	3.71	34.471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60	51.60	37.92	1.88	
	숙련 및 기술직	7.35	54.24	35.86	2.56	
	단순노무 종사자	6.90	43.85	47.28	1.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10	53.02	35.61	2.28	3.178
	비정규직	8.45	51.18	36.67	3.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7.54	46.92	41.76	3.79	35.769 ***
	중도적	6.40	53.20	38.04	2.37	
	진보적	10.82	51.86	35.42	1.91	

주: 1) "아래 문항을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09〉 아노미: 7) 요즘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많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χ^2
		1	2	3	4	
전체		11.94	51.73	33.86	2.47	
성별	남성	13.31	51.43	32.99	2.27	7.872 *
	여성	10.52	52.04	34.76	2.68	
연령	20대 이하	14.46	48.65	33.26	3.63	37.054***
	30대	14.35	50.12	31.79	3.73	
	40대	12.02	53.71	32.33	1.94	
	50대	9.73	52.47	35.69	2.11	
	60대 이상	9.36	53.33	36.23	1.08	
지역	수도권	12.51	47.04	36.88	3.57	46.998 ***
	비수도권	11.36	56.47	30.81	1.36	
	대도시	12.70	49.78	34.66	2.86	16.952 **
	중소도시 농어촌	10.67 14.78	52.48 56.28	34.47 27.63	2.38 1.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62	39.71	49.91	3.77	174.865 ***
	중하층	9.25	49.66	37.44	3.65	
	중간층	14.73	56.75	27.43	1.10	
	중상층(상층)	20.35	56.41	21.07	2.1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29	47.13	43.01	2.57	53.494 ***
	200만 원대	12.82	49.71	34.28	3.18	
	300만 원대	10.08	52.14	34.69	3.09	
	400만 원대	11.56	52.88	33.60	1.95	
	500만 원 이상	14.89	54.05	29.07	1.99	
학력	중졸 이하	6.91	49.77	40.70	2.62	43.176 ***
	고졸	12.22	49.27	35.93	2.58	
	대졸 이상	13.53	55.12	29.05	2.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01	57.18	28.11	1.70	64.688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1.54	44.26	40.69	3.52	
	고용주·자영자	12.74	51.35	34.81	1.10	
	무급가족 종사자	9.88	59.06	26.77	4.29	
	실업자	6.87	42.57	46.78	3.77	
	비경제활동인구	11.21	49.64	35.73	3.43	
직업	관리자·전문가	18.58	56.18	23.39	1.85	44.951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08	51.70	34.15	2.07	
	숙련 및 기술직	11.01	59.25	28.85	0.89	
	단순노무 종사자	10.10	44.17	42.12	3.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31	56.49	28.57	1.63	19.139***
	비정규직	11.20	48.23	37.27	3.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84	51.90	34.74	2.52	12.695 *
	중도적	10.87	53.19	33.78	2.16	
	진보적	14.54	49.40	33.17	2.89	

주: 1) "아래 문항을 읽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0〉 부정적 생활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폭행 피해	따돌림	본인 신체/ 정신질환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 정신질환	자연 재해	사고 경험	이혼, 별거	재정 문제	학업 취업 실패	어린 시절 학대
전체		30.29	5.75	3.07	7.34	6.55	2.96	10.24	7.46	20.33	14.10	1.97
성별	남성	28.42	5.92	3.13	7.66	6.12	3.24	12.21	7.08	20.52	16.08	2.49
	여성	32.22	5.57	3.01	7.01	7.00	2.68	8.21	7.85	20.13	12.05	1.44
연령	20대 이하	13.05	5.00	4.39	4.57	4.57	4.12	4.85	5.10	10.94	18.87	1.96
	30대	22.96	8.79	5.76	6.39	7.60	3.31	11.48	5.51	17.44	17.14	2.10
	40대	31.78	6.16	2.70	5.35	5.74	2.10	13.30	7.52	23.57	14.20	2.02
	50대	38.80	4.93	1.37	7.73	6.09	1.90	11.30	11.47	25.03	13.60	2.21
	60대 이상	43.64	3.91	1.37	12.85	8.91	3.63	9.69	7.25	23.65	6.75	1.54
지역	수도권	31.61	7.93	4.40	8.57	7.92	3.53	10.96	8.77	24.65	17.74	3.16
	비수도권	28.97	3.54	1.72	6.09	5.17	2.39	9.50	6.14	15.96	10.41	0.77
	대도시	33.53	9.19	4.38	9.23	8.76	3.09	10.82	8.77	26.00	18.56	2.56
	중소도시 농어촌	27.54 29.83	3.37 2.67	2.16 1.96	5.40 8.60	4.29 8.04	2.87 2.89	9.78 9.97	6.79 5.23	16.40 15.32	11.26 8.95	1.49 1.7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66	7.64	3.86	17.92	10.21	4.53	12.32	18.18	40.71	18.15	3.36
	중하층	30.81	6.39	3.04	6.27	6.12	3.84	11.17	8.34	22.28	15.73	2.33
	중간층	26.27	4.53	2.67	4.64	5.47	1.67	8.78	3.94	13.60	12.17	1.22
	중상층(상층)	29.25	6.13	4.25	8.08	8.21	3.20	10.14	2.35	9.14	8.69	1.9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9.17	4.88	3.60	18.13	9.38	4.07	8.36	13.56	28.73	12.00	3.09
	200만 원대	29.66	5.89	2.62	6.44	6.46	3.27	9.82	12.04	22.42	13.94	1.54
	300만 원대	30.40	6.94	2.47	6.38	6.81	2.63	10.25	7.73	20.02	14.81	2.95
	400만 원대	25.77	5.79	4.16	5.60	6.21	2.80	11.68	4.01	18.19	12.63	1.38
	500만 원 이상	28.73	5.21	2.72	4.21	5.06	2.33	10.42	4.01	16.71	15.24	1.24
학력	중졸 이하	43.59	4.65	2.23	15.05	9.79	4.27	11.26	8.00	26.09	9.04	2.86
	고졸	27.91	5.43	2.55	6.09	5.04	2.47	9.34	9.02	21.42	14.38	1.75
	대졸 이상	27.83	6.51	3.95	5.76	6.95	3.00	10.81	5.58	16.97	15.71	1.8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40	5.35	2.60	4.37	5.01	2.22	11.31	5.86	17.19	14.35	1.49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39.20	8.34	4.76	8.84	8.93	3.62	13.07	15.98	32.90	21.50	3.55
	고용주·자영자	33.51	5.47	0.85	5.26	5.83	2.96	12.87	7.82	22.09	11.06	1.57
	무급가족 종사자	35.60	0.00	1.16	5.42	6.53	0.85	10.17	4.54	11.28	5.85	1.02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9.48 28.85	16.07 4.75	8.29 3.85	17.30 10.05	8.21 7.49	12.00 2.68	10.28 6.64	15.47 5.26	37.43 16.87	42.06 10.79	3.69 2.02
직업	관리자·전문가	36.91	7.22	3.20	8.53	9.64	2.81	14.43	7.42	17.08	15.56	2.0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8.11	6.25	2.54	4.87	5.24	2.94	11.34	8.15	21.42	15.74	1.51
	숙련 및 기술직	30.80	3.32	0.49	3.37	5.34	1.90	11.78	5.54	17.78	9.21	1.55
	단순노무 종사자	41.24	5.91	4.94	9.39	6.63	2.32	13.44	15.58	34.16	15.79	4.45
직업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25.98	5.33	2.85	4.38	4.64	2.43	11.08	5.34	16.55	14.45	1.45
	비정규직	37.58	7.80	3.83	7.95	8.94	2.92	13.21	15.08	31.17	19.91	3.23
이념적 성향	보수적	41.71	6.15	1.80	8.88	8.01	3.06	11.30	9.95	24.84	11.84	2.35
	중도적	26.58	5.20	2.95	6.92	5.25	2.77	10.60	5.93	17.30	12.95	1.75
	진보적	25.08	6.19	4.44	6.51	7.11	3.15	8.69	7.40	20.57	17.90	1.95

주: 1) “__님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1〉 흡연 여부 및 평균 흡연량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평균 흡연량	χ^2
전체		23.20	76.80	14.8	
성별	남성	42.73	57.27	14.9	846.876 ***
	여성	3.08	96.92	12.3	
연령	20대 이하	24.48	75.52	13.5	27.954 ***
	30대	26.60	73.40	14.5	
	40대	25.93	74.07	15.2	
	50대	22.28	77.72	15.5	
	60대 이상	16.47	83.53	15.4	
지역	수도권	21.87	78.13	14.3	3.837 *
	비수도권	24.54	75.46	15.2	
	대도시	25.60	74.40	14.6	9.055 **
	중소도시 농어촌	21.38 21.81	78.62 78.19	14.4 1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82	69.18	15.0	26.251 ***
	중하층	21.45	78.55	15.3	
	중간층	23.16	76.84	14.3	
	중상층(상층)	16.49	83.51	13.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3.19	76.81	14.3	5.551
	200만 원대	25.48	74.52	15.7	
	300만 원대	22.16	77.84	15.0	
	400만 원대	20.48	79.52	14.2	
	500만 원 이상	24.14	75.86	14.7	
학력	중졸 이하	15.23	84.77	15.6	25.558 ***
	고졸	24.09	75.91	14.9	
	대졸 이상	25.26	74.74	14.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04	69.96	14.7	240.23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66	69.34	14.8	
	고용주·자영자	31.65	68.35	15.8	
	무급가족 종사자	6.57	93.43	18.2	
	실업자	34.70	65.30	15.8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8.90	91.10	12.3	20.375 ***
	관리자·전문가	31.77	68.23	14.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6.42	73.58	14.2	
	숙련 및 기술직	36.63	63.37	17.0	
	단순노무 종사자	31.81	68.19	1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26	69.74	14.6	0.007
	비정규직	30.06	69.94	1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31	76.69	15.2	1.609
	중도적	22.33	77.67	14.4	
	진보적	24.39	75.61	14.8	

주: 1) “귀하는 현재 흡연을 하십니까? 하신다면 하루 평균 흡연량은 얼마나 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2〉 음주 빈도

(단위: %)

구분		전혀 마시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회	한 달에 2~3회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4회 이상	χ^2
		1	2	3	4	5	6	
전체		31.98	11.62	9.88	21.95	18.46	6.12	
성별	남성	19.93	8.52	7.99	26.59	26.90	10.08	519.741 ***
	여성	44.39	14.83	11.82	17.17	9.76	2.03	
연령	20대 이하	24.42	11.89	13.35	29.34	18.46	2.54	285.853 ***
	30대	26.71	9.87	11.31	24.74	22.17	5.21	
	40대	23.76	13.19	8.38	25.31	21.55	7.80	
	50대	32.84	12.27	8.87	19.68	17.71	8.62	
	60대 이상	53.10	10.61	7.80	10.51	12.08	5.90	
지역	수도권	29.01	13.07	9.72	22.99	18.69	6.52	20.806 ***
	비수도권	34.97	10.16	10.03	20.89	18.23	5.71	
	대도시	30.30	10.82	8.49	23.98	18.84	7.57	48.844 ***
	중소도시 농어촌	31.50 41.21	12.57 10.49	11.44 8.26	20.90 18.46	19.07 13.95	4.52 7.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29	10.01	7.05	17.73	15.41	9.51	64.145 ***
	중하층	31.47	12.45	11.21	19.83	18.76	6.27	
	중간층	30.56	11.39	9.86	23.65	19.49	5.05	
	중상층(상층)	25.85	12.12	8.58	32.02	16.54	4.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2.87	8.77	7.28	12.60	11.22	7.26	231.348 ***
	200만 원대	35.35	9.83	9.93	18.46	18.28	8.15	
	300만 원대	34.27	11.48	10.35	20.67	17.21	6.02	
	400만 원대	25.72	16.00	11.82	23.52	17.60	5.34	
	500만 원 이상	22.76	11.54	9.76	27.82	23.01	5.11	
학력	중졸 이하	54.75	10.64	7.83	9.77	9.22	7.80	216.701 ***
	고졸	29.89	11.44	11.36	22.22	19.29	5.80	
	대졸 이상	25.60	12.19	9.05	26.26	21.06	5.8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34	10.43	9.42	27.85	24.93	7.03	365.27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8.61	8.63	10.31	26.56	19.12	6.77	
	고용주·자영자	28.09	11.03	8.06	19.71	22.46	10.65	
	무급가족 종사자	50.52	8.50	10.33	15.18	12.03	3.45	
	실업자	28.20	9.96	5.41	25.16	21.65	9.62	
	비경제활동인구	45.94	14.55	11.67	16.05	9.65	2.14	
직업	관리자·전문가	20.95	12.17	5.72	31.46	22.17	7.53	37.655 ***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5.32	10.38	10.48	24.83	21.82	7.17	
	숙련 및 기술직	24.09	8.99	8.14	22.44	27.15	9.19	
	단순노무 종사자	32.82	9.35	9.08	19.62	18.74	10.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54	10.09	8.79	28.70	25.66	
비정규직	28.67	9.71	11.45	25.02	18.72	6.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18	12.17	9.66	19.09	16.29	6.61	35.912 ***
	중도적	33.14	11.81	9.39	21.98	18.04	5.64	
	진보적	26.31	10.84	10.80	24.59	21.11	6.36	

주: 1)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3〉 음주량

(단위: %)

구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χ^2
전체		19.06	24.47	21.01	20.01	15.45	
성별	남성	9.41	17.88	24.51	26.69	21.51	459.019 ***
	여성	33.37	34.24	15.83	10.10	6.46	
연령	20대 이하	11.20	24.57	25.72	19.63	18.89	65.937 ***
	30대	20.31	24.41	17.78	18.83	18.66	
	40대	20.31	24.27	19.31	21.82	14.29	
	50대	20.77	21.36	21.81	20.88	15.18	
	60대 이상	24.70	29.66	20.39	17.75	7.50	
지역	수도권	19.81	24.24	19.96	21.35	14.65	6.184
	비수도권	18.24	24.72	22.17	18.54	16.33	
	대도시	17.66	22.23	20.90	22.02	17.19	23.816 ***
	중소도시 농어촌	19.36 24.30	26.64 23.53	22.13 15.47	17.70 22.81	14.18 13.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45	15.39	22.10	23.90	15.16	43.203 ***
	중하층	16.36	28.81	21.79	19.22	13.82	
	중간층	19.82	23.56	21.32	19.55	15.75	
	중상층(상층)	20.63	23.49	12.98	20.11	22.8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3.42	22.24	22.98	16.69	14.67	33.091 **
	200만 원대	17.91	24.32	22.68	19.36	15.73	
	300만 원대	19.98	27.22	17.84	22.27	12.69	
	400만 원대	21.48	21.87	22.14	15.43	19.07	
	500만 원 이상	16.41	25.10	20.99	22.41	15.08	
학력	중졸 이하	32.45	25.87	19.40	15.00	7.28	48.040 ***
	고졸	16.47	24.97	22.04	20.32	16.20	
	대졸 이상	18.60	23.64	20.35	20.85	16.5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77	20.86	23.03	23.37	18.97	248.533 ***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3.39	18.97	24.89	26.44	16.31	
	고용주·자영자	17.32	22.32	18.53	24.04	17.79	
	무급가족 종사자	43.19	37.72	7.48	7.93	3.67	
	실업자	8.46	17.58	25.13	18.36	30.46	
비경제활동인구	30.57	33.96	18.59	10.05	6.83		
직업	관리자·전문가	17.44	21.84	15.73	23.48	21.51	17.80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17	21.61	22.34	22.81	18.07	
	숙련 및 기술직	14.12	19.34	22.42	28.22	15.90	
	단순노무 종사자	16.67	24.13	25.94	18.30	14.9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73	19.98	23.10	23.73	19.46	2.723
	비정규직	13.54	21.42	24.36	25.01	15.6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83	25.93	20.85	19.78	14.61	10.482
	중도적	21.45	23.40	20.49	19.23	15.43	
	진보적	16.03	24.71	21.85	21.24	16.17	

주: 1)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4〉 사행활동 경험

(단위: %)

구분		내국인 카지노 베팅	경마 마권 구매	경륜 경주권 구매	경정 경주권 구매	복권 구매	체육 진흥 투표권 구매	소싸움 경기 우권 구매	사설 사행 행동	친목 도모 게임	오락형 온라인 게임
전체		0.60	0.53	0.04	0.15	31.30	3.27	0.19	0.23	7.12	2.50
성별	남성	0.75	0.69	0.09	0.25	40.73	4.88	0.29	0.41	9.63	3.98
	여성	0.44	0.36	0.00	0.04	21.57	1.61	0.09	0.05	4.55	0.98
연령	20대 이하	0.58	0.00	0.00	0.00	24.46	4.41	0.14	0.54	4.03	5.30
	30대	1.01	0.64	0.00	0.08	44.74	5.66	0.19	0.14	6.18	2.70
	40대	1.01	1.14	0.00	0.09	38.61	2.68	0.07	0.09	8.80	2.92
	50대	0.36	0.44	0.21	0.52	31.51	2.66	0.37	0.12	9.13	1.45
	60대 이상	0.00	0.34	0.00	0.00	16.16	1.11	0.19	0.30	7.03	0.23
지역	수도권	0.87	0.89	0.09	0.18	33.96	4.14	0.00	0.27	4.86	2.76
	비수도권	0.33	0.17	0.00	0.12	28.61	2.39	0.38	0.19	9.41	2.24
	대도시	0.70	0.57	0.00	0.10	33.76	4.60	0.37	0.38	8.38	4.02
	중소도시 농어촌	0.63 0.00	0.48 0.62	0.09 0.00	0.22 0.00	31.03 22.30	2.53 1.26	0.03 0.21	0.15 0.00	6.13 6.64	1.58 0.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5	1.20	0.00	0.00	29.73	3.08	0.00	0.00	5.44	2.74
	중하층	0.53	0.45	0.00	0.16	34.43	3.51	0.28	0.17	8.41	2.44
	중간층	0.31	0.30	0.10	0.21	30.32	2.91	0.16	0.21	6.58	2.36
	중상층(상층)	1.93	0.98	0.00	0.00	23.32	4.83	0.33	1.25	7.20	3.3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00	0.24	0.00	0.00	15.16	1.49	0.00	0.00	5.39	0.10
	200만 원대	0.60	0.87	0.00	0.10	30.98	2.14	0.24	0.29	7.10	2.53
	300만 원대	1.16	0.11	0.00	0.11	35.91	2.88	0.15	0.16	7.46	3.51
	400만 원대	0.99	0.87	0.26	0.52	34.35	3.19	0.15	0.12	6.27	2.49
	500만 원 이상	0.32	0.58	0.00	0.06	34.51	4.92	0.30	0.42	8.20	2.99
학력	중졸 이하	0.00	0.15	0.00	0.00	18.04	1.11	0.32	0.13	6.59	0.50
	고졸	0.31	0.69	0.10	0.29	30.07	3.59	0.21	0.41	7.07	3.14
	대졸 이상	1.13	0.50	0.00	0.05	37.63	3.74	0.13	0.08	7.38	2.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6	0.82	0.00	0.18	42.20	4.89	0.41	0.15	9.45	2.72
	임사·일용직 임금근로 자	0.00	0.71	0.00	0.00	32.28	5.09	0.37	0.00	7.77	3.20
	고용주·자영자	0.81	0.55	0.23	0.46	34.89	2.98	0.11	0.43	8.09	2.52
	무급가족 종사자	0.00	0.00	0.00	0.00	14.67	0.00	0.00	0.00	7.00	0.79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0.62 0.26	1.07 0.15	0.00 0.00	0.00 0.00	32.94 19.13	1.89 1.60	0.00 0.00	0.00 0.32	6.14 4.16	3.09 2.10
직업	관리자·전문가	2.42	1.27	0.00	0.00	42.50	3.85	0.00	0.00	12.20	3.3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 자	0.70	0.45	0.12	0.30	36.62	4.58	0.18	0.25	7.36	2.35
	숙련 및 기술직	0.09	0.86	0.00	0.12	38.22	4.05	0.69	0.28	10.39	3.67
	단순노무 종사자	0.27	0.89	0.00	0.38	31.97	2.55	0.54	0.00	7.31	1.27
직업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0.95	0.84	0.00	0.20	43.50	5.08	0.39	0.16	9.84	2.76
	비정규직	0.45	0.68	0.00	0.00	31.51	4.66	0.41	0.00	7.28	3.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5	0.55	0.16	0.40	29.56	2.43	0.35	0.66	9.40	1.20
	중도적	0.52	0.39	0.00	0.08	30.72	4.00	0.06	0.10	6.09	2.68
	진보적	0.86	0.70	0.00	0.00	33.77	2.99	0.23	0.03	6.52	3.47

주: 1) “지난 1년간 귀하는 다음의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5〉 사회 신뢰

(단위: %)

구분		전혀 믿을 수 없음-----매우 믿을 수 있음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1	1.5	5.3	11.5	10.4	32.7	13.1	16.0	7.2	0.9	0.5	
성별	남성	1.4	1.7	5.2	12.1	9.1	32.7	12.7	15.4	8.0	1.3	0.6	25.049***
	여성	0.7	1.3	5.4	10.8	11.7	32.7	13.6	16.6	6.4	0.5	0.4	
연령	20대 이하	1.1	2.2	5.0	12.5	9.8	29.5	13.4	17.4	8.7	0.2	0.5	53.612*
	30대	1.3	1.6	6.3	10.6	12.5	33.6	12.4	15.0	5.8	0.4	0.6	
	40대	1.3	0.9	5.3	11.5	9.1	33.6	13.8	13.5	9.0	1.3	0.7	
	50대	1.3	1.6	4.3	10.9	11.8	32.6	12.8	16.7	6.6	1.1	0.4	
	60대 이상	0.4	1.3	5.7	11.8	8.9	34.1	13.2	17.5	5.7	1.3	0.2	
지역	수도권	1.4	1.5	6.3	13.0	9.3	32.1	12.9	16.3	6.1	0.5	0.5	36.695***
	비수도권	0.8	1.5	4.2	9.9	11.4	33.3	13.4	15.6	8.3	1.3	0.5	
	대도시	1.4	1.8	6.6	11.3	11.0	32.2	12.0	16.6	6.3	0.7	0.2	34.644*
중소도시	0.7	1.4	4.2	11.6	10.1	33.2	14.1	15.2	8.0	0.9	0.6		
	농어촌	1.5	1.2	5.0	11.2	9.1	32.6	13.3	16.7	6.7	1.8	0.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	2.7	8.1	15.8	10.5	32.4	11.8	8.6	4.5	1.4	0.7	159.601***
	중하층	0.4	1.2	4.7	11.0	13.0	33.2	13.7	14.5	6.7	1.0	0.5	
	중간층	0.8	1.0	4.9	10.5	8.3	33.0	13.9	18.2	8.2	0.7	0.5	
	중상층(상층)	0.3	4.1	4.6	10.8	9.3	28.1	7.9	25.8	8.5	0.5	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	1.1	6.0	11.2	12.1	33.2	15.6	12.5	5.2	1.9	0.5	76.495***
	200만 원대	2.3	1.7	3.7	12.5	8.7	32.2	14.9	15.8	6.6	0.9	0.8	
	300만 원대	1.3	1.5	6.6	12.1	10.8	33.6	11.9	14.8	6.3	0.7	0.4	
	400만 원대	0.3	1.8	4.3	11.5	10.1	34.7	13.0	13.8	8.7	0.8	1.0	
	500만 원 이상	0.7	1.3	5.4	10.7	10.4	31.0	12.1	19.6	8.1	0.6	0.1	
학력	중졸 이하	0.7	1.1	5.9	12.9	9.7	33.3	14.4	14.3	6.0	1.3	0.6	20.706
	고졸	1.0	1.7	5.1	10.9	11.4	33.1	13.6	15.4	6.6	0.7	0.6	
	대졸 이상	1.3	1.4	5.3	11.6	9.6	32.0	12.1	17.2	8.3	0.9	0.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6	1.3	4.7	10.8	11.1	33.6	11.8	16.4	8.4	0.9	0.4	94.25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1	1.1	8.2	11.1	8.8	31.5	13.8	15.0	5.8	1.4	0.3	
	고용주·자영자	1.0	2.0	5.1	12.6	8.5	32.6	15.1	13.8	7.8	1.2	0.4	
	무급가족 종사자	1.0	1.3	6.8	13.5	8.2	38.6	8.0	13.5	5.3	3.9	0.0	
	실업자	3.9	2.7	4.2	8.6	12.8	28.1	15.5	13.0	8.5	1.5	1.3	
	비경제활동인구	0.5	1.5	4.9	11.7	11.3	32.3	13.2	17.7	6.0	0.3	0.6	
직업	관리자·전문가	1.3	1.3	4.4	9.8	8.7	35.0	14.5	15.8	7.9	0.7	0.8	28.22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	1.7	6.2	11.4	9.7	31.4	13.0	16.0	8.3	1.2	0.2	
	숙련 및 기술직	1.7	1.1	3.6	12.5	9.9	34.7	12.8	14.1	7.6	1.5	0.6	
	단순노무 종사자	1.2	1.5	7.6	12.4	11.6	37.2	10.9	12.6	4.0	0.8	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	1.2	4.8	10.7	10.2	34.0	11.6	17.2	8.4	0.9	0.5	25.619***
	비정규직	2.7	1.4	7.3	11.3	11.0	31.1	13.8	13.5	6.4	1.4	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	1.7	5.4	11.7	10.3	33.1	12.7	16.7	6.6	0.8	0.2	35.243**
	중도적	0.8	1.6	5.0	10.7	11.4	34.8	13.0	14.3	7.2	0.5	0.6	
	진보적	1.6	1.2	5.5	12.3	9.0	29.1	13.7	17.7	7.7	1.5	0.7	

주: 1) “__님께서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6〉 대인 신뢰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11.69	48.55	26.46	12.11	1.20	
성별	남성	12.31	47.73	26.38	12.22	1.36	2.750
	여성	11.06	49.38	26.54	11.99	1.03	
연령	20대 이하	8.78	46.29	29.30	14.24	1.39	39.633***
	30대	15.83	45.44	24.25	12.88	1.60	
	40대	12.45	50.66	25.49	10.08	1.31	
	50대	12.05	48.07	27.31	11.43	1.14	
	60대 이상	9.20	52.01	25.98	12.26	0.54	
지역	수도권	13.85	50.04	24.80	9.87	1.44	39.135***
	비수도권	9.52	47.04	28.13	14.36	0.95	
	대도시	13.79	49.05	26.14	9.63	1.40	37.034***
	중소도시 농어촌	10.01 10.97	49.26 43.04	26.76 26.36	13.10 17.75	0.88 1.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89	49.83	22.38	8.34	0.56	68.613***
	중하층	10.97	48.30	28.82	10.87	1.04	
	중간층	10.11	47.94	26.94	13.79	1.22	
	중상층(상층)	10.49	51.20	18.67	16.26	3.3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27	47.58	27.83	12.35	0.98	12.337
	200만 원대	10.25	49.54	27.25	11.95	1.01	
	300만 원대	13.59	48.28	24.80	12.12	1.20	
	400만 원대	11.07	48.18	28.99	11.04	0.72	
	500만 원 이상	11.57	48.91	25.23	12.66	1.64	
학력	중졸 이하	8.96	50.22	27.99	12.04	0.80	24.732**
	고졸	10.33	50.50	26.68	11.53	0.95	
	대졸 이상	14.20	45.81	25.63	12.75	1.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12	46.15	27.36	14.05	1.32	31.92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21	45.97	26.74	11.02	1.05	
	고용주·자영자	10.47	50.78	27.30	10.12	1.32	
	무급가족 종사자	10.46	55.47	17.59	15.43	1.06	
	실업자	15.90	51.62	15.15	15.80	1.52	
	비경제활동인구	11.41	49.66	26.74	11.15	1.03	
직업	관리자·전문가	16.83	41.61	23.02	15.65	2.90	37.36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59	48.30	27.50	11.40	1.22	
	숙련 및 기술직	7.76	51.75	27.58	12.62	0.29	
	단순노무 종사자	13.08	44.98	27.47	13.09	1.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32	46.18	26.95	14.11	
비정규직	14.01	45.95	27.71	11.48	0.8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41	51.58	24.30	10.26	0.46	36.214***
	중도적	10.82	47.38	29.30	11.26	1.25	
	진보적	11.38	47.42	24.28	15.09	1.82	

주: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7〉 타인이 나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8.73	42.13	34.88	12.39	1.87	
성별	남성	9.80	43.42	32.24	12.57	1.97	14.891***
	여성	7.64	40.80	37.59	12.20	1.77	
연령	20대 이하	7.40	40.74	38.07	11.05	2.74	30.255**
	30대	10.11	42.82	33.22	12.76	1.09	
	40대	9.32	45.78	30.87	12.39	1.64	
	50대	9.91	41.49	34.47	12.57	1.56	
	60대 이상	6.70	39.41	38.33	13.14	2.41	
지역	수도권	10.59	44.18	33.18	9.16	2.89	76.313***
	비수도권	6.85	40.07	36.59	15.64	0.85	
	대도시	9.56	43.46	33.85	10.76	2.38	20.647***
	중소도시 농어촌	8.28 7.46	42.20 36.29	34.96 38.75	13.03 16.12	1.53 1.3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63	41.24	35.28	7.66	3.20	39.373***
	중하층	8.79	41.89	35.38	12.18	1.76	
	중간층	7.66	42.50	35.04	13.44	1.36	
	중상층(상층)	6.98	43.05	29.91	17.03	3.0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51	35.52	41.21	10.39	4.37	71.852***
	200만 원대	6.98	39.92	37.65	14.26	1.19	
	300만 원대	12.37	41.52	32.57	13.01	0.53	
	400만 원대	6.59	45.43	33.82	12.63	1.52	
	500만 원 이상	8.44	44.96	32.59	11.94	2.08	
학력	중졸 이하	7.23	37.52	38.34	14.92	1.99	32.534***
	고졸	8.52	41.64	37.68	10.37	1.79	
	대졸 이상	9.53	44.4	30.55	13.6	1.9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80	42.25	33.44	14.96	1.55	41.393***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0.46	43.10	35.95	9.58	0.91	
	고용주·자영자	10.83	42.10	31.82	13.25	2.00	
	무급가족 종사자	7.87	42.65	30.78	18.69	0.00	
	실업자	9.09	44.25	32.33	11.32	3.02	
	비경제활동인구	7.83	41.45	38.25	10.01	2.46	
직업	관리자·전문가	11.03	45.58	24.92	16.7	1.77	32.02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56	40.85	35.27	12.55	1.77	
	숙련 및 기술직	6.72	42.61	33.23	16.82	0.62	
	단순노무 종사자	9.77	46.30	34.03	8.20	1.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42	43.10	32.90	15.07	
비정규직	10.74	41.15	36.59	10.40	1.1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1	42.92	33.61	12.34	1.53	12.165
	중도적	7.83	40.92	37.42	11.74	2.09	
	진보적	9.25	43.19	32.30	13.39	1.87	

주: 1)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8〉 타인의 이기심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χ^2
전체		12.55	51.19	28.65	7.10	0.51	
성별	남성	12.74	51.78	27.29	7.64	0.54	4.659
	여성	12.36	50.58	30.05	6.54	0.47	
연령	20대 이하	10.27	48.80	33.09	6.70	1.14	38.525***
	30대	14.18	52.47	26.62	6.73	0.00	
	40대	14.65	51.30	26.05	7.76	0.24	
	50대	13.64	52.43	27.13	6.17	0.63	
	60대 이상	9.61	50.79	30.88	8.15	0.56	
지역	수도권	17.17	51.54	24.64	5.90	0.75	99.949***
	비수도권	7.89	50.83	32.70	8.31	0.27	
	대도시	14.03	51.71	26.46	7.41	0.39	23.724***
	중소도시 농어촌	12.27 7.71	51.26 48.70	29.17 35.30	6.61 8.15	0.69 0.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06	47.79	23.89	4.64	0.62	74.755***
	중하층	11.54	51.35	29.10	7.35	0.66	
	중간층	9.99	51.88	30.39	7.39	0.35	
	중상층(상층)	12.27	53.22	24.83	9.21	0.4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96	49.85	30.37	9.09	0.73	24.611*
	200만 원대	11.11	51.04	29.32	8.01	0.52	
	300만 원대	14.26	48.74	30.27	6.52	0.21	
	400만 원대	15.08	49.94	27.46	7.16	0.36	
	500만 원 이상	11.82	54.23	27.17	6.11	0.66	
학력	중졸 이하	11.03	47.69	32.86	7.74	0.68	21.064**
	고졸	10.89	53.39	28.38	6.80	0.54	
	대졸 이상	14.92	50.15	27.35	7.18	0.4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91	49.22	29.94	8.20	0.72	25.41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48	46.49	31.44	6.27	0.33	
	고용주·자영자	11.67	55.07	25.57	7.36	0.32	
	무급가족 종사자	9.73	49.30	31.16	9.81	0.00	
	실업자	15.95	53.69	26.80	3.56	0.00	
	비경제활동인구	12.54	52.31	28.26	6.33	0.56	
직업	관리자·전문가	17.39	44.82	27.61	10.17	0.00	37.44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41	51.30	28.91	6.80	0.57	
	숙련 및 기술직	7.98	51.88	30.11	9.79	0.23	
	단순노무 종사자	15.10	50.82	28.30	4.22	1.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16	49.37	29.71	7.96	0.79	4.115
	비정규직	14.26	46.70	31.62	7.16	0.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93	54.02	25.26	6.28	0.52	21.890***
	중도적	11.33	48.51	31.92	7.77	0.47	
	진보적	13.08	52.50	26.99	6.88	0.56	

주: 1)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2) * p<0.1, ** p<0.05, *** p<0.01

〈부표 3-119〉 자원봉사 참여

(단위: %)

구분		일주일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6~7번	일 년에 한두 번	전혀 안했다	χ^2
전체		2.80	4.69	2.15	10.84	79.52	
성별	남성	2.29	3.81	1.89	11.87	80.13	15.518***
	여성	3.33	5.59	2.42	9.77	78.88	
연령	20대 이하	2.27	2.52	2.47	19.49	73.25	137.746***
	30대	1.06	2.92	1.43	11.76	82.82	
	40대	2.43	6.62	3.06	10.19	77.70	
	50대	4.19	6.54	1.65	8.40	79.22	
	60대 이상	3.96	4.36	2.07	4.75	84.85	
지역	수도권	3.49	4.03	1.83	11.01	79.64	11.980*
	비수도권	2.12	5.35	2.48	10.66	79.39	
	대도시	3.71	3.62	1.22	9.42	82.03	45.693***
	중소도시 농어촌	2.16 2.11	4.95 7.91	2.88 2.56	12.65 8.13	77.36 79.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5	2.80	1.34	3.70	90.31	145.030***
	중하층	2.40	3.67	1.83	9.69	82.41	
	중간층	2.31	6.09	2.51	13.04	76.05	
	중상층(상층)	10.63	5.23	3.43	18.45	62.2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26	3.15	1.40	5.05	88.14	88.850***
	200만 원대	2.79	4.39	1.65	6.31	84.85	
	300만 원대	2.61	4.56	1.66	9.64	81.54	
	400만 원대	2.49	4.91	2.56	11.96	78.08	
	500만 원 이상	3.36	5.52	2.84	15.85	72.43	
학력	중졸 이하	3.11	3.42	1.60	3.55	88.32	52.224***
	고졸	3.03	5.19	1.71	11.59	78.49	
	대졸 이상	2.45	4.63	2.83	12.79	77.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8	3.54	2.99	12.89	78.80	46.20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68	3.55	1.51	6.69	84.58	
	고용주·자영자	3.18	6.38	2.00	8.76	79.68	
	무급가족 종사자	0.60	4.53	1.79	7.17	85.92	
	실업자	2.19	4.02	1.08	9.31	83.41	
	비경제활동인구	3.50	5.28	1.78	11.90	77.54	
직업	관리자·전문가	4.41	5.78	5.89	18.37	65.54	81.47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42	4.94	1.74	10.65	80.25	
	숙련 및 기술직	1.71	3.19	2.13	6.97	85.99	
	단순노무 종사자	1.83	2.11	1.72	4.59	89.7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3	3.88	2.82	13.24	78.33	19.695***
	비정규직	3.41	2.85	2.14	7.15	84.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82	5.41	2.48	7.99	80.30	31.601***
	중도적	2.31	3.88	1.69	10.71	81.41	
	진보적	2.59	5.21	2.53	13.69	75.98	

주: 1) “__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0〉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단위: %)

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6~7번	일 년에 한두 번	전혀 안했다	χ^2
전체		0.87	9.89	2.09	14.20	72.95	
성별	남성	0.66	8.73	2.21	14.94	73.46	9.343*
	여성	1.09	11.09	1.97	13.44	72.42	
연령	20대 이하	0.12	4.93	2.07	11.35	81.53	114.096***
	30대	0.68	11.49	1.96	16.81	69.06	
	40대	1.33	15.50	2.58	17.05	63.54	
	50대	0.65	10.06	2.54	14.83	71.92	
	60대 이상	1.53	6.68	1.17	10.50	80.11	
지역	수도권	0.67	10.50	2.33	14.07	72.43	4.552
	비수도권	1.08	9.27	1.84	14.33	73.48	
	대도시	0.68	10.43	2.08	14.16	72.65	5.339
	중소도시 농어촌	0.89 1.59	9.44 9.75	2.01 2.47	13.93 15.63	73.72 70.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5	3.31	0.71	4.67	90.57	207.122***
	중하층	1.03	7.55	2.16	13.22	76.03	
	중간층	0.91	12.72	2.11	16.01	68.25	
	중상층(상층)	0.00	18.80	4.60	28.92	47.6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1	3.08	0.67	5.93	88.42	184.589***
	200만 원대	0.99	7.02	1.99	10.15	79.84	
	300만 원대	1.01	8.87	2.45	14.59	73.09	
	400만 원대	0.82	11.99	0.84	14.58	71.78	
	500만 원 이상	0.29	13.82	3.23	19.55	63.11	
학력	중졸 이하	1.11	5.61	0.62	6.92	85.74	173.077***
	고졸	0.89	6.79	1.76	12.39	78.17	
	대졸 이상	0.76	14.84	3.00	18.90	62.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65	13.85	2.01	18.21	65.28	94.60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0	5.52	1.24	11.47	80.98	
	고용주·자영자	1.09	9.17	2.45	14.85	72.44	
	무급가족 종사자	0.52	6.60	1.79	9.34	81.75	
	실업자	1.22	5.58	6.35	5.59	81.26	
	비경제활동인구	0.97	8.61	1.83	12.05	76.53	
직업	관리자·전문가	0.49	22.73	5.48	29.11	42.19	193.20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77	10.11	1.71	15.12	72.30	
	숙련 및 기술직	0.92	7.76	0.92	12.68	77.72	
	단순노무 종사자	1.26	3.62	1.08	6.30	87.7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4	14.23	1.96	19.06	64.11	47.662***
	비정규직	0.80	6.35	1.49	11.01	80.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5	9.46	2.47	12.63	74.49	21.665***
	중도적	0.65	8.43	1.87	14.22	74.83	
	진보적	1.14	12.45	2.05	15.64	68.72	

주: 1) “__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1〉 투표 여부 1: 지방 선거(2014. 6. 4.)

(단위: %)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χ^2
전체		84.19	12.80	3.01	
성별	남성	84.98	11.99	3.03	2.223
	여성	83.37	13.64	2.99	
연령	20대 이하	62.40	25.66	11.94	348.729***
	30대	81.01	17.44	1.55	
	40대	87.32	10.85	1.83	
	50대	89.91	9.41	0.68	
	60대 이상	93.74	4.53	1.73	
지역	수도권	82.01	14.53	3.46	12.918***
	비수도권	86.34	11.09	2.57	
	대도시	81.19	15.43	3.37	27.858***
	중소도시 농어촌	85.21 91.58	11.89 6.34	2.90 2.0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4.20	13.01	2.79	6.713
	중하층	83.34	13.89	2.77	
	중간층	84.22	12.37	3.41	
	중상층(상층)	89.02	8.71	2.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6.20	10.92	2.88	10.569
	200만 원대	81.98	14.78	3.23	
	300만 원대	86.28	11.63	2.09	
	400만 원대	85.13	11.61	3.26	
	500만 원 이상	82.57	13.98	3.45	
학력	중졸 이하	90.75	7.10	2.15	40.282***
	고졸	81.05	14.54	4.41	
	대졸 이상	84.73	13.28	1.9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4.28	13.42	2.30	57.17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7.55	18.90	3.55	
	고용주·자영자	89.56	9.37	1.08	
	무급가족 종사자	90.65	7.47	1.88	
	실업자	75.49	19.72	4.79	
	비경제활동인구	83.41	11.81	4.78	
직업	관리자·전문가	87.74	11.18	1.08	18.83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3.02	13.94	3.04	
	숙련 및 기술직	88.66	10.56	0.77	
	단순노무 종사자	83.84	14.82	1.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4.54	13.14	2.32	9.286***
	비정규직	78.34	18.40	3.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89.01	9.12	1.87	27.275***
	중도적	81.99	14.75	3.26	
	진보적	82.63	13.59	3.79	

주: 1)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분석에 포함.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2〉 투표 여부 II: 국회의원 선거(2016. 4. 13.)

(단위: %)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χ^2
전체		87.03	11.79	1.19	
성별	남성	87.61	11.17	1.22	1.439
	여성	86.43	12.42	1.15	
연령	20대 이하	70.11	25.44	4.44	255.184***
	30대	84.49	14.92	0.59	
	40대	89.92	9.17	0.91	
	50대	91.34	8.56	0.10	
	60대 이상	95.75	3.71	0.54	
지역	수도권	84.90	13.46	1.64	17.119***
	비수도권	89.14	10.13	0.74	
	대도시	85.97	12.26	1.77	17.329***
	중소도시 농어촌	86.81 92.36	12.35 7.26	0.84 0.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8.46	10.87	0.67	17.406***
	중하층	84.44	14.26	1.29	
	중간층	88.03	10.65	1.32	
	중상층(상층)	92.10	7.14	0.7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9.33	10.08	0.59	9.445
	200만 원대	83.87	14.73	1.40	
	300만 원대	87.90	10.82	1.28	
	400만 원대	86.86	11.88	1.25	
	500만 원 이상	86.98	11.75	1.27	
학력	중졸 이하	93.46	6.20	0.34	48.593***
	고졸	83.63	14.28	2.10	
	대졸 이상	88.02	11.40	0.5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7.43	11.45	1.12	44.34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9.95	18.38	1.67	
	고용주·자영자	91.33	8.43	0.25	
	무급가족 종사자	93.93	4.18	1.88	
	실업자	80.22	17.98	1.81	
	비경제활동인구	86.65	11.79	1.55	
직업	관리자·전문가	86.52	13.37	0.11	12.75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6.93	11.62	1.45	
	숙련 및 기술직	90.33	9.05	0.61	
	단순노무 종사자	86.24	13.48	0.2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7.83	10.97	1.19	15.678***
	비정규직	80.55	18.04	1.41	
이념적 성향	보수적	90.73	8.60	0.67	25.324***
	중도적	85.02	13.95	1.03	
	진보적	86.38	11.71	1.91	

주: 1)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분석에 포함.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3〉 투표 여부 III: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 5. 9.)

(단위: %)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χ^2
전체		92.54	7.26	0.20	
성별	남성	92.72	7.12	0.16	0.565
	여성	92.35	7.40	0.25	
연령	20대 이하	84.88	14.77	0.35	86.522***
	30대	92.39	7.36	0.25	
	40대	94.19	5.39	0.42	
	50대	94.45	5.55	0.00	
	60대 이상	96.14	3.86	0.00	
지역	수도권	92.30	7.43	0.27	0.971
	비수도권	92.77	7.09	0.14	
	대도시	92.12	7.77	0.11	2.512
	중소도시 농어촌	92.71 93.44	7.00 6.38	0.29 0.1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0.04	9.83	0.13	16.164**
	중하층	92.07	7.48	0.45	
	중간층	93.29	6.66	0.05	
	중상층(상층)	95.71	4.29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2.72	7.28	0.00	4.456
	200만 원대	91.27	8.35	0.39	
	300만 원대	92.42	7.43	0.14	
	400만 원대	92.92	6.95	0.13	
	500만 원 이상	92.90	6.81	0.29	
학력	중졸 이하	94.06	5.94	0.00	15.686***
	고졸	90.68	9.02	0.30	
	대졸 이상	93.94	5.88	0.1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3.62	6.20	0.18	37.14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9.24	10.15	0.60	
	고용주·자영자	94.28	5.72	0.00	
	무급가족 종사자	94.95	3.17	1.88	
	실업자	86.56	13.44	0.00	
	비경제활동인구	92.01	7.88	0.12	
직업	관리자·전문가	95.06	4.84	0.11	7.66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92.52	7.10	0.37	
	숙련 및 기술직	94.37	5.47	0.16	
	단순노무 종사자	90.76	9.24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3.97	5.86	0.16	11.520***
	비정규직	89.37	10.07	0.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68	6.28	0.03	11.593*
	중도적	91.03	8.73	0.24	
	진보적	93.68	6.01	0.30	

주: 1)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분석에 포함.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4〉 이념적 성향

(단위: %)

구분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χ^2
전체		3.16	24.28	43.29	26.15	3.13	
성별	남성	3.88	25.14	40.91	26.28	3.79	18.613***
	여성	2.41	23.41	45.74	26.01	2.44	
연령	20대 이하	2.27	7.23	49.68	34.59	6.23	649.388***
	30대	1.13	14.88	41.29	38.53	4.18	
	40대	1.50	16.35	48.39	30.97	2.79	
	50대	4.17	33.75	41.59	18.46	2.04	
	60대 이상	6.83	49.13	35.02	8.44	0.58	
지역	수도권	3.90	22.55	42.63	27.65	3.26	15.650***
	비수도권	2.40	26.04	43.94	24.62	2.99	
	대도시	3.88	25.38	42.17	25.30	3.26	20.361***
	중소도시	2.86	22.46	43.65	27.94	3.09	
농어촌	1.54	28.38	46.18	21.15	2.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49	32.79	41.61	18.61	2.50	74.515***
	중하층	2.44	24.09	44.87	25.46	3.14	
	중간층	2.87	21.34	44.26	28.75	2.78	
	중상층(상층)	6.26	26.38	31.25	29.29	6.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45	40.97	40.51	13.36	1.70	162.351***
	200만 원대	3.76	26.51	44.50	22.45	2.78	
	300만 원대	2.32	23.16	44.24	26.67	3.61	
	400만 원대	1.81	17.20	46.04	31.92	3.03	
	500만 원 이상	3.97	20.07	42.08	30.31	3.57	
학력	중졸 이하	3.34	44.78	43.51	7.18	1.19	280.219***
	고졸	3.08	22.90	46.52	24.85	2.65	
	대졸 이상	3.17	18.02	39.72	34.72	4.3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3	20.03	40.47	33.99	3.39	124.21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90	23.37	50.48	20.03	3.23	
	고용주·자영자	4.62	29.15	42.84	21.39	2.00	
	무급가족 종사자	1.67	35.20	49.40	12.61	1.12	
	실업자	10.03	15.45	37.08	31.35	6.10	
비경제활동인구	2.78	26.04	44.04	23.79	3.34		
직업	관리자·전문가	2.45	18.39	45.17	29.72	4.28	75.67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25	20.33	42.42	31.10	2.89	
	숙련 및 기술직	2.11	32.87	43.01	19.92	2.10	
	단순노무 종사자	4.33	32.64	45.78	14.85	2.4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7	19.39	40.96	34.05	3.42	23.231***
	비정규직	2.66	24.04	47.50	22.62	3.1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50	88.50	0.00	0.00	0.00	7678.000***
	중도적	0.00	0.00	100.00	0.00	0.00	
	진보적	0.00	0.00	0.00	89.32	10.68	

주: 1) “__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5〉 국가 자긍심

(단위: %)

구분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χ^2
전체		8.29	70.37	20.26	1.08	
성별	남성	8.83	67.68	22.01	1.48	17.296***
	여성	7.73	73.15	18.45	0.67	
연령	20대 이하	6.59	71.29	20.97	1.14	157.698***
	30대	4.35	69.56	25.43	0.66	
	40대	5.56	68.95	24.12	1.37	
	50대	7.67	71.99	18.39	1.94	
	60대 이상	17.68	70.09	12.09	0.15	
지역	수도권	8.33	66.89	23.36	1.42	29.256***
	비수도권	8.24	73.90	17.13	0.74	
	대도시	6.41	69.16	23.10	1.33	71.494***
	중소도시 농어촌	7.89 17.98	73.03 62.85	18.33 17.57	0.75 1.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03	62.47	26.32	3.18	66.556***
	중하층	9.10	67.94	21.89	1.07	
	중간층	7.70	73.64	18.17	0.50	
	중상층(상층)	8.21	79.95	11.49	0.3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16	65.18	18.88	0.78	55.789***
	200만 원대	9.93	68.80	20.49	0.79	
	300만 원대	6.62	71.22	21.02	1.14	
	400만 원대	5.28	70.87	22.25	1.60	
	500만 원 이상	6.99	72.89	19.07	1.05	
학력	중졸 이하	15.95	70.29	12.92	0.84	70.603***
	고졸	7.43	70.58	20.87	1.12	
	대졸 이상	6.31	70.18	22.38	1.1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31	71.18	21.57	0.94	49.70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14	68.96	22.25	1.66	
	고용주·자영자	9.34	70.39	19.25	1.02	
	무급가족 종사자	15.77	66.68	16.86	0.69	
	실업자	8.68	58.61	27.58	5.13	
	비경제활동인구	9.45	71.52	18.37	0.67	
직업	관리자·전문가	7.62	71.37	19.39	1.61	11.79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54	70.52	21.87	1.08	
	숙련 및 기술직	9.12	69.48	20.51	0.89	
	단순노무 종사자	11.51	70.42	17.36	0.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55	70.85	21.65	0.95	0.957
	비정규직	6.48	70.07	21.96	1.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17	72.45	15.20	1.18	40.504***
	중도적	6.99	71.18	21.02	0.80	
	진보적	7.50	67.23	23.87	1.39	

주: 1) “__님께서서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6〉 정치 영역의 부패인식

(단위: %)

구분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음-----부패가 매우 심함						χ^2	
		0	1	2	3	4	5		6
전체		0.29	2.53	3.58	13.63	20.00	36.80	23.18	
성별	남성	0.27	2.74	2.62	12.96	18.13	37.77	25.51	29.350***
	여성	0.30	2.32	4.57	14.31	21.92	35.79	20.78	
연령	20대 이하	0.09	3.37	3.20	16.24	19.88	35.73	21.49	20.653
	30대	0.26	2.36	3.83	11.61	18.81	37.21	25.92	
	40대	0.20	2.39	3.65	12.82	19.89	37.46	23.58	
	50대	0.47	1.70	3.18	13.71	21.04	36.50	23.40	
	60대 이상	0.40	2.97	4.06	13.86	20.26	37.02	21.43	
지역	수도권	0.22	2.77	3.10	12.69	20.35	37.37	23.50	7.227
	비수도권	0.36	2.29	4.06	14.57	19.64	36.22	22.86	
	대도시	0.00	3.15	3.57	14.06	18.80	36.19	24.24	58.560***
	중소도시 농어촌	0.35 1.20	2.30 1.11	3.12 5.78	12.94 15.08	21.63 17.25	38.97 29.03	20.69 30.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5	1.53	3.63	10.53	12.72	36.36	35.07	80.759***
	중하층	0.13	2.31	3.86	13.17	21.71	35.39	23.43	
	중간층	0.50	2.98	3.52	14.91	20.85	37.37	19.86	
	중상층(상층)	0.00	3.07	2.24	14.43	20.59	42.01	17.6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15	1.70	4.70	13.46	20.66	34.68	24.66	27.973
	200만 원대	0.47	2.00	4.09	11.42	20.91	36.73	24.37	
	300만 원대	0.27	2.78	3.31	12.38	22.08	34.88	24.30	
	400만 원대	0.15	2.55	2.61	13.03	19.64	38.85	23.16	
	500만 원 이상	0.34	3.02	3.51	15.87	18.22	38.04	20.99	
학력	중졸 이하	0.64	1.52	3.49	15.49	22.82	33.81	22.23	18.821
	고졸	0.25	2.99	3.90	14.36	18.81	36.85	22.85	
	대졸 이상	0.20	2.43	3.27	12.13	20.21	37.87	23.9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5	2.59	4.59	13.76	20.14	37.39	21.28	55.23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47	1.82	2.63	12.58	20.07	34.94	27.48	
	고용주·자영자	0.11	1.93	1.93	13.68	19.54	36.15	26.66	
	무급가족 종사자	0.74	2.92	2.64	9.92	15.39	36.66	31.72	
	실업자	0.00	3.65	1.63	5.53	16.79	38.12	34.28	
	비경제활동인구	0.36	2.95	4.16	14.90	20.74	37.11	19.78	
직업	관리자·전문가	0.27	2.04	3.21	12.80	18.73	40.12	22.83	10.44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25	2.46	3.20	13.71	19.03	37.23	24.12	
	숙련 및 기술직	0.41	1.81	3.42	12.71	22.37	34.66	24.63	
	단순노무 종사자	0.00	2.55	4.72	14.04	19.96	31.60	27.1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2	2.55	4.58	13.98	20.22	36.78	21.68	6.320
	비정규직	0.49	2.05	3.03	12.36	19.93	36.71	25.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2	3.34	4.24	11.94	20.46	36.85	22.96	34.944***
	중도적	0.26	1.85	3.09	16.68	20.15	36.30	21.68	
	진보적	0.39	2.80	3.68	10.69	19.34	37.49	25.61	

주: 1)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영역"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7〉 경제 영역의 부패인식

(단위: %)

구분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음-----부패가 매우 심함							χ^2
		0	1	2	3	4	5	6	
전체		0.35	2.33	4.12	19.28	25.61	31.27	17.04	
성별	남성	0.26	2.18	3.47	19.57	24.28	31.33	18.93	16.730**
	여성	0.46	2.49	4.79	18.98	26.98	31.20	15.10	
연령	20대 이하	0.20	2.46	4.21	20.78	23.08	33.44	15.84	50.885***
	30대	0.26	2.65	3.87	15.41	26.20	31.48	20.14	
	40대	0.07	2.52	4.37	16.98	24.80	32.12	19.13	
	50대	0.47	1.58	3.47	19.57	26.28	31.65	16.98	
	60대 이상	0.79	2.51	4.71	23.94	27.70	27.50	12.85	
지역	수도권	0.40	2.24	3.37	19.03	27.55	31.44	15.98	14.056**
	비수도권	0.31	2.43	4.87	19.53	23.65	31.09	18.12	
	대도시	0.08	2.62	4.33	19.05	26.82	29.49	17.61	58.766***
	중소도시 농어촌	0.51 0.77	2.28 1.36	3.64 5.50	19.52 19.09	25.47 21.20	34.18 24.85	14.39 27.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9	1.03	4.20	15.21	22.90	33.05	22.92	47.096***
	중하층	0.23	2.48	4.08	19.72	25.08	29.85	18.57	
	중간층	0.40	2.50	4.25	19.96	27.70	31.33	13.86	
	중상층(상층)	0.00	3.26	3.27	21.25	20.42	35.02	16.7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28	1.39	5.46	20.73	25.57	29.31	17.26	24.283
	200만 원대	0.59	1.95	3.07	21.46	26.72	28.78	17.43	
	300만 원대	0.55	2.44	4.49	17.56	25.54	31.94	17.49	
	400만 원대	0.08	2.71	3.37	17.45	26.14	31.38	18.87	
	500만 원 이상	0.30	2.69	4.18	19.65	24.95	32.99	15.24	
학력	중졸 이하	0.90	1.22	4.24	23.89	27.81	27.05	14.88	39.351***
	고졸	0.34	2.87	4.19	20.55	24.79	30.96	16.30	
	대졸 이상	0.16	2.17	3.99	16.17	25.65	33.19	18.6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1	2.60	5.14	18.43	26.09	30.60	17.03	58.26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65	1.56	2.50	18.34	24.68	32.61	19.66	
	고용주·자영자	0.29	1.83	3.06	20.24	25.34	30.95	18.29	
	무급가족종사자	0.74	3.41	3.52	15.35	23.69	22.89	30.41	
	실업자	0.00	2.53	2.12	14.81	23.47	28.02	29.05	
	비경제활동인구	0.53	2.54	4.55	20.60	25.96	32.54	13.28	
직업	관리자·전문가	0.10	2.37	2.19	17.37	22.60	34.12	21.26	17.75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27	2.41	4.35	19.12	25.63	30.99	17.23	
	숙련 및 기술직	0.55	1.82	3.78	17.59	26.38	29.59	20.28	
	단순노무 종사자	0.00	1.75	5.11	22.40	27.46	27.34	15.9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2	2.62	5.11	18.41	25.53	31.02	17.19	7.467
	비정규직	0.52	1.73	3.06	18.39	26.14	31.34	18.8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5	3.23	4.06	20.98	25.90	29.42	16.07	49.643***
	중도적	0.35	1.68	3.78	22.09	24.69	32.08	15.33	
	진보적	0.36	2.46	4.68	13.54	26.69	31.79	20.48	

주: 1)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 영역"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8〉 사회 인식 I: 성공과 부패의 연관성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2.68	49.66	20.98	12.19	4.49	
성별	남성	13.14	50.02	20.01	11.54	5.29	9.609**
	여성	12.21	49.28	21.97	12.87	3.66	
연령	20대 이하	10.29	49.28	21.26	13.72	5.45	31.364**
	30대	13.71	49.12	21.08	11.88	4.22	
	40대	15.77	47.66	18.79	13.40	4.38	
	50대	12.71	53.16	21.16	9.81	3.16	
	60대 이상	10.49	48.96	22.88	12.26	5.40	
지역	수도권	11.90	48.53	21.10	13.70	4.77	10.766**
	비수도권	13.47	50.80	20.85	10.67	4.20	
	대도시	11.69	49.43	20.19	12.88	5.81	28.429***
	중소도시 농어촌	12.58 17.29	50.49 46.66	22.21 18.43	11.64 11.95	3.08 5.6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75	47.10	24.07	9.47	3.60	23.609**
	중하층	13.22	49.59	19.92	12.11	5.16	
	중간층	11.32	49.75	21.65	12.92	4.37	
	중상층(상층)	11.92	55.20	15.55	13.84	3.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46	47.02	23.16	11.36	5.01	17.121
	200만 원대	13.69	50.07	20.22	10.95	5.07	
	300만 원대	14.15	50.33	20.26	11.67	3.60	
	400만 원대	12.28	52.53	19.88	11.49	3.82	
	500만 원 이상	10.98	48.77	21.44	13.91	4.90	
학력	중졸 이하	11.88	48.73	24.03	12.25	3.12	12.547
	고졸	12.97	50.97	20.21	11.90	3.96	
	대졸 이상	12.67	48.60	20.65	12.49	5.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26	47.91	22.79	12.77	4.26	43.31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68	51.64	24.57	8.39	2.72	
	고용주·자영자	13.85	53.86	16.05	11.63	4.62	
	무급가족 종사자	12.98	47.69	16.60	13.32	9.42	
	실업자	10.90	55.71	14.87	10.08	8.44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2.56	47.71	21.81	13.41	4.51	18.319
	관리자·전문가	15.72	47.36	17.54	14.03	5.3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41	50.40	21.56	11.28	4.35	
	숙련 및 기술직	12.80	51.51	18.73	12.83	4.1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11.14	51.56	26.85	7.95	2.51	10.963**
	정규직	12.50	47.29	22.78	13.29	4.15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12.11	52.20	24.25	8.18	3.27	25.152***
	보수적	13.40	51.32	18.30	12.32	4.66	
	중도적	11.72	50.65	22.89	11.45	3.30	
	진보적	13.42	46.64	20.66	13.17	6.10	

주: 1)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29〉 사회 인식 II: 한국의 소득 격차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40.03	45.07	12.03	2.74	0.12	
성별	남성	41.30	44.79	10.76	2.98	0.17	8.688*
	여성	38.74	45.37	13.34	2.49	0.07	
연령	20대 이하	35.95	45.58	15.43	2.68	0.37	35.533***
	30대	42.06	44.26	11.34	2.25	0.09	
	40대	43.90	44.71	9.33	1.92	0.15	
	50대	40.02	44.21	11.65	4.11	0.00	
	60대 이상	37.71	46.76	12.82	2.71	0.00	
지역	수도권	47.55	40.79	9.70	1.97	0.00	101.193***
	비수도권	32.44	49.41	14.39	3.52	0.24	
	대도시	43.02	43.70	10.03	3.15	0.09	20.829***
	중소도시 농어촌	37.98 37.31	46.28 45.08	13.31 14.26	2.32 3.02	0.11 0.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6.45	33.80	8.65	0.98	0.12	98.754***
	중하층	41.28	44.41	12.07	2.14	0.09	
	중간층	34.57	48.13	13.28	3.86	0.16	
	중상층(상층)	33.27	53.36	10.84	2.53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4.17	40.79	11.99	2.92	0.12	40.364***
	200만 원대	43.92	41.43	12.61	1.59	0.45	
	300만 원대	40.83	44.88	11.70	2.59	0.00	
	400만 원대	41.17	44.76	12.34	1.72	0.00	
	500만 원 이상	34.98	49.21	11.85	3.85	0.10	
학력	중졸 이하	39.85	44.17	13.80	2.19	0.00	12.779
	고졸	38.97	44.80	13.35	2.73	0.15	
	대졸 이상	41.25	45.71	9.94	2.96	0.1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8.58	47.74	10.55	2.81	0.32	47.32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6.96	35.87	15.25	1.92	0.00	
	고용주·자영자	39.91	46.35	10.34	3.41	0.00	
	무급가족 종사자	36.65	46.37	10.68	6.30	0.00	
	실업자	48.74	34.13	13.14	3.99	0.00	
	비경제활동인구	38.48	45.93	13.35	2.20	0.05	
직업	관리자·전문가	42.91	48.58	6.97	1.35	0.19	24.73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0.66	44.40	11.76	3.03	0.15	
	숙련 및 기술직	34.76	47.93	13.30	3.77	0.24	
	단순노무 종사자	48.12	38.59	10.34	2.95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9.11	47.30	10.35	2.89	0.35	16.898***
	비정규직	44.23	39.10	14.75	1.92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7.72	46.62	11.98	3.56	0.12	10.530
	중도적	40.27	44.20	12.54	2.82	0.16	
	진보적	41.86	44.92	11.31	1.85	0.06	

주: 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0〉 정부의 역할 1: 소득 격차 축소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9.95	45.08	25.28	8.70	0.99	
성별	남성	20.37	43.99	24.44	9.83	1.37	14.088***
	여성	19.52	46.20	26.15	7.53	0.60	
연령	20대 이하	21.64	45.15	23.95	8.45	0.81	19.224
	30대	21.20	42.39	26.77	8.41	1.23	
	40대	21.56	45.79	23.53	8.01	1.12	
	50대	17.82	46.53	25.16	10.10	0.40	
	60대 이상	17.56	45.29	27.24	8.47	1.44	
지역	수도권	23.58	44.33	24.20	7.39	0.51	44.767***
	비수도권	16.28	45.84	26.38	10.03	1.48	
	대도시	23.49	44.79	23.25	7.86	0.61	48.225***
중소도시	17.03	46.34	26.60	9.15	0.88		
농어촌	19.02	40.32	27.45	10.09	3.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08	49.42	16.38	6.50	0.62	78.672***
	중하층	20.72	46.99	24.20	7.25	0.84	
	중간층	17.74	43.16	27.82	9.96	1.32	
	중상층(상층)	14.55	37.43	34.18	13.42	0.4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39	44.59	22.82	6.23	0.96	28.483**
	200만 원대	21.01	44.65	25.16	8.09	1.09	
	300만 원대	19.23	47.83	22.05	9.90	1.00	
	400만 원대	18.80	45.57	25.83	8.67	1.13	
	500만 원 이상	18.06	43.62	27.99	9.43	0.89	
학력	중졸 이하	19.53	46.34	24.00	8.71	1.43	8.610
	고졸	19.79	46.63	24.87	7.99	0.72	
	대졸 이상	20.27	42.93	26.21	9.46	1.1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64	44.49	25.04	9.86	0.98	35.35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67	42.59	22.02	9.69	1.03	
	고용주·자영자	17.11	46.66	26.43	8.41	1.39	
	무급가족 종사자	16.64	38.06	31.14	10.97	3.19	
	실업자	15.69	57.04	19.03	8.24	0.00	
비경제활동인구	20.97	44.83	26.20	7.29	0.71		
직업	관리자·전문가	24.72	42.34	21.78	9.52	1.63	15.06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8.48	46.20	25.40	8.84	1.09	
	숙련 및 기술직	17.90	43.11	27.44	10.49	1.06	
	단순노무 종사자	23.46	41.47	23.13	10.53	1.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02	43.84	25.02	10.17	0.95	2.748
	비정규직	22.88	44.32	22.66	9.07	1.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66	43.28	28.80	10.14	1.11	26.82***
	중도적	19.93	45.45	24.77	8.76	1.09	
	진보적	23.06	46.21	22.74	7.26	0.73	

주: 1)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1〉 정부의 역할 II: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삶 제공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1.12	46.10	31.49	9.86	1.42	
성별	남성	11.27	45.93	31.04	9.65	2.12	14.217***
	여성	10.98	46.28	31.96	10.08	0.70	
연령	20대 이하	12.59	44.73	31.28	9.79	1.61	51.872***
	30대	9.31	46.98	32.26	9.61	1.84	
	40대	16.20	42.62	28.62	11.67	0.89	
	50대	8.42	50.96	31.31	7.93	1.38	
	60대 이상	8.72	45.16	34.38	10.28	1.46	
지역	수도권	13.84	47.91	28.70	8.15	1.40	49.485***
	비수도권	8.38	44.28	34.31	11.59	1.44	
	대도시	11.85	47.13	29.88	9.84	1.31	10.366
	중소도시 농어촌	10.66 10.33	46.32 40.80	32.18 34.93	9.46 11.85	1.38 2.0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01	51.45	26.11	6.12	1.29	39.002***
	중하층	10.99	46.24	32.06	9.69	1.02	
	중간층	10.18	44.50	31.99	11.41	1.92	
	중상층(상층)	9.60	44.26	36.83	8.70	0.6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37	46.76	31.63	7.28	0.95	14.679
	200만 원대	10.00	46.88	31.35	9.99	1.77	
	300만 원대	12.32	43.75	32.81	10.09	1.03	
	400만 원대	10.35	46.55	31.25	10.29	1.56	
	500만 원 이상	10.34	46.66	30.71	10.66	1.64	
학력	중졸 이하	9.46	49.25	32.31	8.06	0.93	8.615
	고졸	11.84	45.50	31.52	9.79	1.36	
	대졸 이상	10.99	45.56	31.15	10.63	1.6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52	45.81	30.30	10.81	1.56	48.90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37	48.36	29.22	7.30	0.75	
	고용주·자영자	8.83	43.87	32.98	11.99	2.33	
	무급가족 종사자	10.30	33.93	37.15	14.87	3.76	
	실업자	13.63	57.45	22.34	5.74	0.84	
비경제활동인구	10.78	46.59	33.11	8.65	0.87		
직업	관리자·전문가	15.70	47.70	28.37	4.50	3.72	46.60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30	44.54	31.22	12.74	1.21	
	숙련 및 기술직	8.94	44.56	33.63	10.89	1.98	
	단순노무 종사자	15.04	47.79	29.00	6.85	1.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58	45.62	30.96	10.36	1.48	4.066
	비정규직	13.69	48.26	28.04	8.92	1.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8.38	44.45	35.22	10.20	1.75	20.551***
	중도적	11.69	46.40	30.66	9.78	1.46	
	진보적	12.86	47.21	29.21	9.66	1.05	

주: 1)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2〉 정부의 역할 III: 빈곤층 지원 축소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3.14	21.17	29.52	33.07	13.10	
성별	남성	3.24	21.35	30.27	31.09	14.05	8.356*
	여성	3.04	20.98	28.74	35.12	12.12	
연령	20대 이하	3.63	20.64	31.17	33.72	10.83	29.498**
	30대	3.45	16.83	34.07	32.98	12.67	
	40대	2.83	22.94	26.69	32.97	14.58	
	50대	3.40	24.23	26.63	32.01	13.73	
	60대 이상	2.42	20.62	29.74	33.81	13.41	
지역	수도권	3.36	19.91	28.6	33.81	14.33	9.685**
	비수도권	2.92	22.44	30.44	32.33	11.86	
	대도시	3.51	19.64	26.95	36.47	13.43	33.764***
	중소도시 농어촌	2.86 2.95	23.37 17.10	30.42 35.90	29.92 33.88	13.43 10.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8	18.31	23.41	29.51	25.39	105.127***
	중하층	2.61	22.21	31.50	30.88	12.80	
	중간층	3.47	20.75	29.70	36.54	9.54	
	중상층(상층)	3.44	24.44	30.54	30.05	11.5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3	18.14	24.34	33.09	21.70	70.046***
	200만 원대	3.12	21.95	30.33	30.85	13.76	
	300만 원대	3.92	22.10	30.60	31.21	12.17	
	400만 원대	3.86	18.95	33.78	31.14	12.27	
	500만 원 이상	2.49	22.83	28.49	36.29	9.90	
학력	중졸 이하	3.48	19.91	28.16	32.40	16.04	13.062
	고졸	3.16	22.86	28.12	33.57	12.30	
	대졸 이상	2.99	19.82	31.53	32.80	12.8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9	20.69	31.55	32.61	11.96	55.12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5	24.80	26.53	25.51	20.61	
	고용주·자영자	3.89	21.06	30.72	33.97	10.37	
	무급가족 종사자	3.51	29.54	31.68	27.39	7.87	
	실업자	2.00	20.62	23.97	34.32	19.08	
	비경제활동인구	2.95	19.94	28.26	35.87	12.98	
직업	관리자·전문가	4.53	18.73	29.52	32.22	15.00	38.91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44	22.42	31.10	31.55	11.49	
	숙련 및 기술직	3.10	22.57	31.67	32.40	10.26	
	단순노무 종사자	1.00	20.98	24.72	29.06	24.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7	20.79	31.41	32.5	11.93	20.375***
	비정규직	2.29	23.78	27.82	27.12	18.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7	25.45	29.46	31.03	11.48	27.237***
	중도적	3.21	20.03	31.15	32.06	13.55	
	진보적	3.57	18.84	27.15	36.49	13.95	

주: 1)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3〉 공정성 인식 1: 두뇌(능력)에 비해

(단위: %)

구분		매우 공정하다	약간 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불공정하다	매우 불공정하다	χ^2
전체		0.96	21.49	56.20	20.12	1.23	
성별	남성	0.88	22.18	53.68	21.72	1.54	13.695***
	여성	1.03	20.78	58.81	18.47	0.91	
연령	20대 이하	1.50	18.86	55.49	22.52	1.63	34.126***
	30대	1.02	22.26	56.70	18.79	1.23	
	40대	1.33	24.81	51.81	20.81	1.24	
	50대	0.61	20.75	55.56	21.76	1.32	
	60대 이상	0.32	20.40	62.12	16.45	0.72	
지역	수도권	1.32	21.57	53.52	22.44	1.15	0.817***
	비수도권	0.59	21.42	58.91	17.78	1.30	
	대도시	1.50	19.73	56.33	21.20	1.24	25.915***
	중소도시 농어촌	0.51 0.77	22.75 22.88	54.88 61.97	20.57 13.44	1.28 0.9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2	13.03	57.56	26.05	2.34	123.818***
	중하층	0.54	17.89	56.42	23.92	1.23	
	중간층	1.08	25.20	57.11	15.89	0.73	
	중상층(상층)	2.36	36.05	45.71	13.70	2.1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58	17.39	63.10	16.68	2.25	71.617***
	200만 원대	0.26	20.65	62.86	15.20	1.03	
	300만 원대	0.79	18.55	54.88	24.41	1.37	
	400만 원대	1.08	21.14	57.55	19.41	0.83	
	500만 원 이상	1.51	25.87	49.93	21.71	0.98	
학력	중졸 이하	0.88	19.13	62.76	16.24	0.99	41.716***
	고졸	0.35	20.00	58.50	19.95	1.20	
	대졸 이상	1.63	23.99	51.26	21.77	1.3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0	24.46	51.46	21.45	1.03	57.07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2	17.75	57.13	21.77	1.52	
	고용주·자영자	0.62	21.28	57.40	19.32	1.37	
	무급가족 종사자	0.71	18.23	69.29	11.77	0.00	
	실업자	0.00	16.51	50.06	32.83	0.60	
	비경제활동인구	0.34	20.75	59.55	17.98	1.39	
직업	관리자·전문가	3.18	30.63	46.73	17.45	2.01	48.29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94	20.54	55.28	22.18	1.07	
	숙련 및 기술직	0.41	23.07	56.18	19.00	1.35	
	단순노무 종사자	2.97	16.82	61.27	18.72	0.2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9	24.38	51.48	21.33	1.12	5.757
	비정규직	1.59	19.21	56.00	21.97	1.2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9	23.26	54.29	19.95	1.21	28.629***
	중도적	0.87	18.82	60.50	18.44	1.37	
	진보적	0.78	23.80	51.64	22.75	1.04	

주: 1)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두뇌(능력)에 비해"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4〉 공정성 인식 II: 일과 관련된 기술에 비해

(단위: %)

구분		매우 공정하다	약간 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불공정하다	매우 불공정하다	χ^2
전체		1.72	23.29	48.71	24.43	1.85	
성별	남성	1.69	23.74	46.62	25.83	2.12	8.678*
	여성	1.76	22.82	50.86	22.99	1.57	
연령	20대 이하	1.60	22.34	50.68	23.62	1.77	26.375**
	30대	1.77	23.04	49.16	23.26	2.77	
	40대	1.83	24.24	45.35	25.95	2.64	
	50대	1.71	24.25	45.79	27.09	1.16	
	60대 이상	1.71	22.33	53.34	21.75	0.89	
지역	수도권	2.24	23.52	47.63	24.68	1.94	7.148
	비수도권	1.21	23.05	49.80	24.18	1.76	
	대도시	2.44	21.55	48.85	25.81	1.36	33.797***
	중소도시 농어촌	1.22 1.14	24.75 23.62	47.17 55.42	24.87 16.60	1.99 3.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5	14.71	49.70	29.44	4.30	160.084***
	중하층	1.06	19.29	47.19	30.47	1.99	
	중간층	1.92	27.25	50.94	19.01	0.88	
	중상층(상층)	3.90	38.62	40.00	15.33	2.1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3	17.33	54.15	24.44	2.24	33.402***
	200만 원대	1.36	24.32	49.62	22.49	2.21	
	300만 원대	1.49	22.08	47.11	27.18	2.14	
	400만 원대	1.41	23.86	45.52	27.50	1.71	
	500만 원 이상	2.16	26.06	48.53	21.86	1.39	
학력	중졸 이하	1.93	22.27	51.13	23.27	1.40	12.686
	고졸	1.25	21.81	49.71	25.29	1.94	
	대졸 이상	2.16	25.27	46.71	23.95	1.9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0	25.93	44.52	25.25	1.60	88.42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2	20.61	45.99	28.40	2.59	
	고용주·자영자	1.60	25.15	45.78	25.80	1.68	
	무급가족 종사자	0.74	24.25	51.78	19.61	3.62	
	실업자	0.91	8.17	46.80	42.43	1.70	
	비경제활동인구	0.75	22.01	55.46	19.94	1.83	
직업	관리자·전문가	3.32	33.85	38.81	20.75	3.27	44.24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35	23.31	45.47	27.61	1.26	
	숙련 및 기술직	0.95	24.28	47.42	24.23	3.12	
	단순노무 종사자	3.19	20.55	50.22	25.57	0.4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5	26.04	44.76	24.70	1.75	6.034
	비정규직	2.38	21.41	45.20	28.92	2.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0	23.50	47.44	24.73	1.43	18.466**
	중도적	1.35	21.85	50.45	24.42	1.93	
	진보적	1.17	25.21	47.32	24.18	2.11	

주: 1)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기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일과 관련된 기술에 비해”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5〉 공정성 인식 III: 노력에 비해

(단위: %)

구분		매우 공정하다	약간 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불공정하다	매우 불공정하다	χ^2
전체		1.10	19.22	43.52	31.71	4.44	
성별	남성	0.99	19.93	41.42	32.96	4.69	8.020*
	여성	1.22	18.49	45.68	30.42	4.19	
연령	20대 이하	1.17	19.40	41.00	33.30	5.13	16.398
	30대	0.97	21.33	43.75	30.03	3.93	
	40대	1.57	18.14	43.99	31.61	4.69	
	50대	1.00	19.03	41.37	33.67	4.93	
	60대 이상	0.76	18.38	47.65	29.74	3.47	
지역	수도권	1.30	18.92	41.80	33.58	4.40	8.510*
	비수도권	0.90	19.53	45.26	29.82	4.48	
	대도시	1.15	18.46	41.18	34.88	4.34	36.778***
	중소도시 농어촌	0.99 1.45	19.86 19.39	43.97 51.15	31.24 20.75	3.94 7.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4	11.79	39.50	36.87	10.80	154.505***
	중하층	0.50	16.94	40.82	37.30	4.44	
	중간층	1.45	22.81	47.17	25.97	2.60	
	중상층(상층)	2.36	24.61	43.26	26.97	2.8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9	14.93	46.39	31.08	6.71	38.898***
	200만 원대	0.46	17.17	46.98	30.76	4.62	
	300만 원대	0.69	20.04	42.53	31.98	4.76	
	400만 원대	0.84	21.25	39.83	33.56	4.51	
	500만 원 이상	1.90	20.68	43.16	31.15	3.11	
학력	중졸 이하	0.87	17.57	45.25	31.57	4.74	19.249**
	고졸	1.02	16.85	45.05	32.70	4.39	
	대졸 이상	1.29	22.40	41.22	30.69	4.4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9	23.81	39.46	32.15	3.50	77.80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4	14.42	40.00	39.29	4.84	
	고용주·자영자	1.56	17.98	43.90	31.22	5.33	
	무급가족 종사자	2.08	14.95	44.27	30.81	7.88	
	실업자	0.00	10.50	36.82	46.98	5.70	
	비경제활동인구	0.78	18.31	49.11	27.45	4.35	
직업	관리자·전문가	2.12	28.43	36.04	29.70	3.71	23.81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0	18.99	40.87	34.71	4.34	
	숙련 및 기술직	1.23	19.28	43.86	30.81	4.81	
	단순노무 종사자	1.77	16.60	43.09	33.38	5.1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3	24.07	39.36	32.20	3.34	18.041***
	비정규직	1.50	15.71	40.11	37.79	4.9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5	18.90	41.47	33.02	4.77	46.939***
	중도적	0.96	15.66	46.74	32.04	4.60	
	진보적	0.63	24.80	40.69	29.98	3.90	

주: 1)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노력에 비해”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6〉 공정성 인식 IV: 학력에 비해

(단위: %)

구분		매우 공정하다	약간 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불공정하다	매우 불공정하다	χ^2
전체		1.05	19.67	54.27	22.51	2.50	
성별	남성	1.07	20.04	51.76	24.04	3.09	14.488***
	여성	1.03	19.29	56.85	20.94	1.89	
연령	20대 이하	1.28	17.37	50.85	27.20	3.30	41.672***
	30대	1.51	22.60	52.75	20.15	2.99	
	40대	0.67	21.72	51.52	23.85	2.24	
	50대	0.82	19.14	55.16	22.69	2.20	
	60대 이상	1.08	17.28	61.31	18.49	1.83	
지역	수도권	1.36	20.47	52.02	23.43	2.72	10.546**
	비수도권	0.74	18.86	56.53	21.59	2.27	
	대도시	1.38	19.66	54.44	22.16	2.36	12.384
중소도시	0.79	20.17	52.78	23.71	2.55		
농어촌	0.96	17.31	60.57	18.32	2.8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7	11.99	58.75	22.59	5.30	112.080***
	중하층	0.39	17.28	53.96	25.90	2.47	
	중간층	1.24	22.50	54.84	20.14	1.28	
	중상층(상층)	2.93	31.36	41.98	19.00	4.7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8	12.74	61.08	21.54	2.76	61.405***
	200만 원대	0.22	18.40	58.75	19.86	2.77	
	300만 원대	0.87	18.82	54.70	22.22	3.39	
	400만 원대	0.49	20.37	52.64	23.57	2.92	
	500만 원 이상	1.49	23.69	49.55	23.80	1.48	
학력	중졸 이하	1.70	15.83	60.10	20.45	1.92	37.938***
	고졸	0.73	18.26	57.17	21.47	2.37	
	대졸 이상	1.16	22.63	48.94	24.42	2.8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6	24.66	48.11	23.03	2.63	55.60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44	17.56	55.75	24.04	2.21	
	고용주·자영자	1.30	16.37	59.61	20.71	2.00	
	무급가족 종사자	0.00	13.45	64.69	18.65	3.22	
	실업자	1.30	18.80	47.53	30.34	2.03	
비경제활동인구	0.67	17.97	56.59	22.01	2.76		
직업	관리자·전문가	2.18	30.40	46.25	17.18	4.00	37.45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2	20.02	53.73	22.94	2.19	
	숙련 및 기술직	0.80	17.39	56.11	23.54	2.15	
	단순노무 종사자	1.52	16.55	56.30	23.84	1.7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2	24.67	47.73	23.44	2.54	12.363**
	비정규직	0.54	18.93	55.05	22.97	2.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4	20.92	52.95	22.06	2.93	22.266***
	중도적	1.12	17.42	57.98	21.48	2.00	
	진보적	0.88	21.81	50.01	24.47	2.83	

주: 1)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기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학력에 비해”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7〉 공정성 인식 V: 경력에 비해

(단위: %)

구분		매우 공정하다	약간 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불공정하다	매우 불공정하다	χ^2	
전체		1.13	20.41	53.28	22.80	2.37		
성별	남성	1.09	20.65	51.77	23.76	2.73	5.589	
	여성	1.18	20.17	54.83	21.81	2.01		
연령	20대 이하	1.38	19.77	54.41	21.83	2.61	31.474**	
	30대	1.22	22.92	52.33	20.70	2.83		
	40대	1.15	21.06	49.59	25.96	2.24		
	50대	0.65	19.70	51.27	25.59	2.79		
	60대 이상	1.33	18.59	59.51	19.18	1.38		
지역	수도권	1.36	20.90	52.05	23.29	2.41	3.732	
	비수도권	0.90	19.92	54.52	22.31	2.34		
	대도시	1.51	22.60	49.59	24.01	2.29		36.284****
	중소도시 농어촌	0.73 1.53	18.38 20.90	54.96 60.66	23.56 14.16	2.36 2.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6	12.82	54.16	26.53	5.53	148.576****	
	중하층	0.87	16.64	51.37	28.62	2.50		
	중간층	1.24	24.04	55.67	17.74	1.31		
	중상층(상층)	2.36	34.46	45.96	15.38	1.8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2	17.00	56.06	23.02	2.59	32.980****	
	200만 원대	1.25	18.82	55.73	21.11	3.09		
	300만 원대	0.97	18.70	53.93	23.61	2.79		
	400만 원대	0.39	19.30	51.93	26.05	2.34		
	500만 원 이상	1.49	24.46	51.09	21.25	1.70		
학력	중졸 이하	1.48	17.97	55.57	23.37	1.61	24.580****	
	고졸	0.88	18.13	54.86	23.85	2.28		
	대졸 이상	1.27	23.79	50.71	21.46	2.7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4	23.76	49.08	23.39	2.23	52.02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8	19.93	48.96	26.31	3.73		
	고용주·자영자	1.31	18.61	55.24	22.09	2.75		
	무급가족 종사자	2.20	19.18	56.01	20.34	2.27		
	실업자	1.99	10.18	51.41	33.25	3.16		
	비경제활동인구	0.49	19.50	57.71	20.54	1.75		
직업	관리자·전문가	2.57	30.76	44.34	17.49	4.84	44.5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5	21.39	51.06	24.33	1.97		
	숙련 및 기술직	1.05	17.74	55.09	23.43	2.70		
	단순노무 종사자	1.52	15.88	52.59	26.64	3.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1	24.19	48.76	23.43	2.20	6.111	
	비정규직	1.44	19.78	49.66	25.64	3.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3	21.37	51.33	22.87	3.29	32.489****	
	중도적	1.09	17.62	57.72	21.84	1.74		
	진보적	1.20	23.65	48.54	24.16	2.45		

주: 1)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경력에 비해”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8〉 한국 사회 의사결정 과정 I: 당사자들의 의견 미반영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3.77	50.37	33.04	12.60	0.22	
성별	남성	4.72	50.99	31.55	12.38	0.35	15.617***
	여성	2.78	49.73	34.58	12.82	0.09	
연령	20대 이하	4.06	51.12	30.59	13.66	0.57	39.487***
	30대	4.10	50.21	31.36	13.97	0.36	
	40대	3.97	54.81	30.00	11.22	0.00	
	50대	4.78	48.47	34.73	12.02	0.00	
	60대 이상	1.79	46.88	38.71	12.37	0.25	
지역	수도권	4.54	50.37	32.68	12.17	0.24	6.928
	비수도권	2.99	50.38	33.41	13.03	0.20	
	대도시	3.40	52.79	32.73	10.77	0.32	23.836***
	중소도시 농어촌	4.17 3.39	49.94 42.39	31.80 40.24	13.94 13.81	0.15 0.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91	53.46	31.96	9.67	0.00	22.742**
	중하층	4.16	50.30	33.02	12.33	0.19	
	중간층	2.75	49.93	33.53	13.56	0.24	
	중상층(상층)	5.91	46.91	32.23	14.12	0.8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49	46.28	37.51	13.05	0.67	30.624**
	200만 원대	2.92	49.49	35.66	11.71	0.22	
	300만 원대	5.20	51.89	31.75	11.16	0.00	
	400만 원대	3.86	53.63	29.29	13.21	0.00	
	500만 원 이상	3.83	49.98	32.48	13.42	0.28	
학력	중졸 이하	3.12	46.64	37.00	13.15	0.09	13.236
	고졸	3.87	50.27	33.96	11.58	0.32	
	대졸 이상	3.90	51.90	30.56	13.48	0.1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79	51.01	31.24	12.79	0.16	32.73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90	49.05	37.02	10.90	0.13	
	고용주·자영자	4.18	48.69	34.51	12.62	0.00	
	무급가족 종사자	1.79	51.52	36.09	10.60	0.00	
	실업자	4.77	56.98	28.72	7.96	1.58	
	비경제활동인구	2.85	50.45	32.79	13.58	0.32	
직업	관리자·전문가	5.72	48.90	31.46	13.33	0.59	15.45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81	51.18	32.46	12.51	0.04	
	숙련 및 기술직	4.37	48.55	35.57	11.51	0.00	
	단순노무 종사자	3.69	47.66	36.94	11.71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85	50.71	31.59	12.80	0.05	6.977
	비정규직	3.14	50.05	35.17	11.26	0.37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9	51.48	32.40	12.66	0.17	24.854***
	중도적	3.52	49.82	35.80	10.74	0.13	
	진보적	4.58	50.16	29.57	15.28	0.41	

주: 1)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39〉 한국 사회 의사결정 과정 II: 불충분한 정보 수집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7.10	42.20	37.36	12.94	0.40	
성별	남성	7.60	42.55	35.77	13.56	0.52	6.902
	여성	6.57	41.84	39.01	12.30	0.28	
연령	20대 이하	7.11	39.22	39.58	13.79	0.30	25.562*
	30대	7.69	44.19	35.94	11.53	0.64	
	40대	8.26	43.28	34.28	13.43	0.75	
	50대	7.01	44.22	36.76	12.00	0.00	
	60대 이상	5.26	39.73	40.74	13.97	0.31	
지역	수도권	8.44	43.31	38.07	9.70	0.48	43.536***
	비수도권	5.74	41.09	36.65	16.21	0.32	
	대도시	6.32	46.48	36.75	10.11	0.33	48.036***
	중소도시 농어촌	8.43 4.01	39.78 35.88	36.61 43.50	14.68 16.46	0.51 0.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03	39.32	37.40	10.86	0.39	33.914***
	중하층	7.35	43.40	35.47	13.35	0.43	
	중간층	5.41	42.59	38.36	13.20	0.44	
	중상층(상층)	6.07	39.12	41.37	13.44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00	39.59	39.27	13.81	0.34	17.223
	200만 원대	5.13	41.05	40.22	13.35	0.26	
	300만 원대	8.62	42.48	37.05	11.57	0.28	
	400만 원대	7.90	45.20	34.82	11.71	0.38	
	500만 원 이상	6.74	42.14	36.65	13.89	0.59	
학력	중졸 이하	5.35	40.60	38.43	15.45	0.17	22.227***
	고졸	7.51	41.08	39.60	11.60	0.21	
	대졸 이상	7.31	44.01	34.55	13.43	0.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75	45.37	33.55	13.87	0.46	25.45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03	44.28	36.22	12.47	0.00	
	고용주·자영자	8.44	39.80	39.49	11.93	0.34	
	무급가족 종사자	7.85	44.97	33.86	13.32	0.00	
	실업자	8.81	43.34	35.08	12.76	0.00	
	비경제활동인구	6.43	39.51	40.70	12.77	0.59	
직업	관리자·전문가	7.82	44.27	32.97	14.36	0.59	15.73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30	42.98	35.89	12.40	0.44	
	숙련 및 기술직	5.42	46.32	35.58	12.68	0.00	
	단순노무 종사자	5.27	38.88	40.07	15.78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96	45.91	32.78	13.85	0.50	5.728
	비정규직	6.55	43.37	37.31	12.78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6.04	43.78	36.47	13.46	0.25	15.465*
	중도적	6.53	42.18	38.86	12.13	0.30	
	진보적	8.92	40.75	36.00	13.64	0.69	

주: 1)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0〉 한국 사회 의사결정 과정 Ⅲ: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 작용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13.80	48.10	30.74	7.18	0.18	
성별	남성	14.60	48.33	29.89	6.84	0.34	8.501*
	여성	12.97	47.86	31.61	7.53	0.03	
연령	20대 이하	14.01	44.77	32.22	8.65	0.36	37.796**
	30대	14.81	52.74	26.66	5.26	0.53	
	40대	14.64	49.22	28.87	7.28	0.00	
	50대	14.81	46.40	31.69	7.09	0.00	
	60대 이상	10.51	47.39	34.39	7.64	0.07	
지역	수도권	16.52	49.49	28.29	5.48	0.22	45.842***
	비수도권	11.05	46.69	33.21	8.90	0.15	
	대도시	13.65	49.72	30.06	6.51	0.06	52.914***
중소도시	15.63	47.84	29.14	7.05	0.33		
농어촌	5.79	42.54	41.10	10.58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89	42.86	30.15	5.67	0.42	42.536***
	중하층	13.37	49.27	30.86	6.49	0.00	
	중간층	11.82	48.44	30.92	8.54	0.29	
	중상층(상층)	13.88	50.76	30.07	5.29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77	46.50	35.95	7.69	0.09	24.288***
	200만 원대	14.69	47.83	29.57	7.91	0.00	
	300만 원대	14.85	48.10	30.65	6.40	0.00	
	400만 원대	15.67	48.98	27.78	7.28	0.28	
	500만 원 이상	13.50	48.64	30.55	6.92	0.38	
학력	중졸 이하	9.63	46.74	35.14	8.41	0.08	33.280***
	고졸	14.72	45.66	33.05	6.38	0.19	
	대졸 이상	14.38	51.23	26.59	7.59	0.2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11	49.36	28.80	6.47	0.27	22.66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90	45.20	32.47	6.43	0.00	
	고용주·자영자	12.52	50.37	30.17	6.61	0.33	
	무급가족 종사자	8.88	48.91	34.57	7.64	0.00	
	실업자	16.26	51.34	25.60	6.81	0.00	
비경제활동인구	12.64	46.13	32.64	8.49	0.11		
직업	관리자·전문가	16.39	46.39	30.69	5.27	1.25	32.07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03	49.55	28.15	7.16	0.11	
	숙련 및 기술직	10.60	50.07	33.13	6.20	0.00	
	단순노무 종사자	14.90	46.12	33.52	5.46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01	49.70	28.35	6.64	0.29	5.691
	비정규직	15.94	45.30	32.70	6.07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27	46.30	32.76	6.67	0.00	29.097***
	중도적	12.32	47.59	32.83	6.87	0.39	
	진보적	15.55	50.53	25.76	8.12	0.05	

주: 1)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1〉 한국 사회 의사결정 과정 IV: 외부 압력이나 인맥 영향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27.31	48.43	19.87	4.32	0.07	
성별	남성	28.90	47.65	18.77	4.54	0.14	9.616**
	여성	25.67	49.24	21.01	4.09	0.00	
연령	20대 이하	25.19	48.09	20.65	5.70	0.36	32.902***
	30대	32.22	45.94	18.30	3.54	0.00	
	40대	27.51	48.91	19.77	3.82	0.00	
	50대	27.36	50.33	18.51	3.80	0.00	
	60대 이상	24.24	48.62	22.30	4.85	0.00	
지역	수도권	29.60	47.85	18.59	3.87	0.09	13.066**
	비수도권	25.00	49.02	21.17	4.77	0.04	
	대도시	28.23	48.41	18.60	4.76	0.00	28.917***
	중소도시 농어촌	28.21 19.21	48.52 48.12	19.39 27.45	3.74 5.22	0.14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91	42.88	18.31	6.58	0.33	51.191***
	중하층	27.17	48.35	19.86	4.62	0.00	
	중간층	24.49	51.00	21.33	3.13	0.05	
	중상층(상층)	37.03	43.88	13.51	5.58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3.05	47.73	23.29	5.93	0.00	25.903*
	200만 원대	27.97	47.83	19.93	4.27	0.00	
	300만 원대	30.07	47.59	19.02	3.32	0.00	
	400만 원대	29.57	46.28	18.99	4.88	0.28	
	500만 원 이상	25.94	50.71	19.34	3.94	0.07	
학력	중졸 이하	19.89	50.40	23.07	6.65	0.00	33.556***
	고졸	27.51	47.69	20.47	4.28	0.05	
	대졸 이상	29.90	48.49	18.02	3.47	0.1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16	49.28	19.60	3.81	0.15	20.90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7.61	48.90	17.89	5.60	0.00	
	고용주·자영자	26.94	49.60	19.34	4.12	0.00	
	무급가족 종사자	21.01	56.37	18.73	3.90	0.00	
	실업자	31.16	53.83	10.51	4.50	0.00	
	비경제활동인구	27.61	45.66	22.17	4.50	0.07	
직업	관리자·전문가	26.64	51.84	18.11	2.88	0.54	26.43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8.47	47.94	19.94	3.65	0.00	
	숙련 및 기술직	22.92	52.89	18.23	5.96	0.00	
	단순노무 종사자	27.70	48.11	18.55	5.64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84	49.32	20.08	3.61	0.16	6.210
	비정규직	28.20	48.90	17.24	5.67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59	46.04	21.77	3.60	0.00	22.275***
	중도적	25.80	48.15	21.24	4.66	0.16	
	진보적	28.35	51.10	16.07	4.48	0.00	

주: 1)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 압력이나 ‘백(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2〉 한국 사회 의사결정 과정 V: 특정 집단의 이익 우선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15.29	53.65	26.55	4.36	0.14	
성별	남성	16.34	53.53	26.28	3.68	0.17	7.467
	여성	14.20	53.78	26.84	5.07	0.11	
연령	20대 이하	13.52	54.28	27.14	4.59	0.47	42.061***
	30대	20.28	51.46	23.87	4.38	0.00	
	40대	17.44	53.07	25.14	4.18	0.16	
	50대	14.49	54.40	27.12	3.99	0.00	
	60대 이상	10.51	55.03	29.62	4.73	0.10	
지역	수도권	20.17	51.28	24.64	3.81	0.09	73.253***
	비수도권	10.36	56.05	28.49	4.92	0.19	
	대도시	15.36	52.59	28.09	3.92	0.05	34.776***
	중소도시 농어촌	16.66 8.51	54.79 52.68	23.64 33.98	4.65 4.83	0.26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06	49.10	25.66	3.71	0.46	33.472***
	중하층	16.41	52.24	27.05	4.15	0.15	
	중간층	12.82	56.08	26.56	4.49	0.05	
	중상층(상층)	12.68	55.47	25.65	6.19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12	54.66	28.62	4.47	0.13	16.649
	200만 원대	15.61	50.43	29.70	4.26	0.00	
	300만 원대	16.07	55.62	24.67	3.54	0.09	
	400만 원대	16.13	53.45	24.59	5.54	0.28	
	500만 원 이상	15.50	53.66	26.39	4.26	0.18	
학력	중졸 이하	9.78	55.50	29.37	5.22	0.12	32.849***
	고졸	14.50	52.86	28.41	4.05	0.18	
	대졸 이상	18.22	53.81	23.49	4.37	0.1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48	53.37	24.29	4.66	0.21	22.6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81	52.24	24.68	5.12	0.15	
	고용주·자영자	13.70	55.36	27.09	3.85	0.00	
	무급가족 종사자	10.56	55.46	28.87	5.11	0.00	
	실업자	16.79	56.16	23.50	3.55	0.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3.39	53.02	29.26	4.14	0.19	21.088**
	관리자·전문가	18.04	53.89	23.86	3.68	0.5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7.12	52.12	26.17	4.55	0.05	
	숙련 및 기술직	11.21	58.44	25.21	5.01	0.1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19.29	53.49	22.86	4.36	0.00	0.306
	정규직 비정규직	17.37 17.97	53.25 52.72	24.36 24.45	4.79 4.74	0.23 0.1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38	53.48	27.67	4.33	0.14	19.295**
	중도적	13.60	53.71	28.03	4.46	0.20	
	진보적	18.64	53.73	23.34	4.23	0.06	

주: 1)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3〉 한국 사회 의사결정 과정 VI: 소외 계층의 어려움 무시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9.29	45.46	36.26	8.64	0.34	
성별	남성	10.66	44.94	35.49	8.61	0.31	9.009*
	여성	7.88	46.00	37.06	8.67	0.38	
연령	20대 이하	7.91	46.68	35.11	9.76	0.54	34.127***
	30대	11.74	46.48	35.15	6.56	0.08	
	40대	11.27	45.79	34.82	7.72	0.41	
	50대	7.38	47.30	36.12	9.00	0.19	
	60대 이상	8.12	40.82	40.32	10.25	0.49	
지역	수도권	13.19	46.18	32.67	7.68	0.28	82.294***
	비수도권	5.35	44.73	39.89	9.62	0.41	
	대도시	9.47	48.93	33.21	8.14	0.26	38.540***
	중소도시 농어촌	10.14 4.52	43.71 39.30	36.88 46.05	8.95 9.28	0.31 0.8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19	44.71	31.28	7.29	0.52	46.362***
	중하층	9.10	45.83	35.43	9.19	0.45	
	중간층	7.38	45.89	38.00	8.48	0.25	
	중상층(상층)	7.93	42.03	40.44	9.59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08	43.24	38.23	9.03	0.41	17.941
	200만 원대	7.97	45.31	35.69	10.72	0.30	
	300만 원대	10.11	46.23	36.90	6.31	0.44	
	400만 원대	10.68	44.1	35.65	8.93	0.64	
	500만 원 이상	8.75	46.93	35.42	8.79	0.12	
학력	중졸 이하	8.43	42.82	38.73	9.63	0.39	11.428
	고졸	8.88	44.20	37.53	9.02	0.37	
	대졸 이상	10.06	47.82	33.97	7.86	0.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09	48.42	33.94	8.20	0.35	22.45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76	44.74	32.88	9.38	0.24	
	고용주·자영자	8.20	43.90	38.47	9.14	0.29	
	무급가족 종사자	8.60	40.97	40.90	9.53	0.00	
	실업자	8.57	49.00	38.47	3.96	0.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9.06	43.68	37.85	8.95	0.46	10.33
	관리자·전문가	10.07	47.22	34.92	7.26	0.5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27	46.28	34.50	8.71	0.24	
	숙련 및 기술직	6.66	45.75	37.18	9.98	0.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10.05	44.98	36.90	8.07	0.00	5.658
	정규직	8.87	48.22	33.98	8.55	0.38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12.51	45.89	33.01	8.41	0.19	12.925
	보수적	7.82	46.22	37.00	8.68	0.27	
	중도적	9.88	43.50	37.58	8.50	0.54	
	진보적	9.80	47.64	33.63	8.82	0.12	

주: 1)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4〉 우리나라 갈등 인식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전체		8.50	71.84	17.45	0.77	1.44	
성별	남성	9.65	71.75	16.55	0.67	1.37	8.604*
	여성	7.31	71.93	18.37	0.87	1.51	
연령	20대 이하	7.14	70.02	18.80	1.30	2.74	38.832***
	30대	10.64	72.15	14.90	0.58	1.73	
	40대	9.16	74.19	15.67	0.31	0.67	
	50대	9.17	70.21	18.51	0.93	1.18	
	60대 이상	6.21	72.49	19.50	0.77	1.03	
지역	수도권	10.56	71.10	16.29	0.31	1.74	35.667***
	비수도권	6.42	72.59	18.62	1.23	1.14	
	대도시	8.91	70.69	17.65	1.03	1.71	12.412
	중소도시 농어촌	8.15 8.42	73.35 69.48	16.75 19.92	0.41 1.42	1.34 0.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77	75.94	9.51	0.09	1.68	56.549***
	중하층	8.04	70.56	19.12	1.21	1.07	
	중간층	7.15	71.36	18.94	0.74	1.82	
	중상층(상층)	10.71	73.33	15.50	0.00	0.4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03	69.36	20.44	0.99	1.17	18.364
	200만 원대	8.27	71.26	17.20	0.74	2.53	
	300만 원대	8.91	73.12	16.09	0.98	0.89	
	400만 원대	9.81	71.57	15.89	0.84	1.88	
	500만 원 이상	7.77	72.66	17.90	0.51	1.16	
학력	중졸 이하	7.81	68.93	19.69	0.96	2.61	20.051**
	고졸	7.94	72.19	17.94	0.43	1.51	
	대졸 이상	9.37	72.57	16.08	1.07	0.9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60	70.44	18.35	0.86	1.74	13.80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59	69.65	18.53	0.84	2.39	
	고용주·자영자	9.18	71.95	17.00	0.88	0.98	
	무급가족 종사자	6.01	72.52	19.33	0.00	2.14	
	실업자	7.88	76.71	15.41	0.00	0.00	
비경제활동인구	8.19	73.36	16.54	0.72	1.19		
직업	관리자·전문가	13.52	69.54	14.96	0.51	1.48	23.08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8.18	70.87	18.21	1.05	1.69	
	숙련 및 기술직	6.67	72.97	18.56	0.83	0.97	
	단순노무 종사자	9.29	67.37	20.15	0.00	3.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70	70.67	17.94	0.95	1.74	1.320
	비정규직	8.39	69.34	19.35	0.67	2.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7.52	72.31	18.11	0.58	1.47	29.828***
	중도적	6.86	73.25	17.49	0.62	1.77	
	진보적	11.83	69.31	16.77	1.16	0.92	

주: 1) "우리나라는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5〉 집단 간 갈등 인식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전체		17.75	62.02	17.35	0.83	2.05	
성별	남성	19.33	61.07	17.19	0.61	1.81	9.608**
	여성	16.13	63.00	17.52	1.06	2.29	
연령	20대 이하	15.67	60.74	17.50	1.97	4.12	49.167***
	30대	18.61	61.30	18.25	0.27	1.57	
	40대	19.46	64.29	14.55	0.25	1.45	
	50대	17.96	62.41	17.65	0.87	1.11	
	60대 이상	16.80	61.00	19.16	0.87	2.17	
지역	수도권	21.46	62.33	13.08	0.55	2.59	80.103***
	비수도권	14.01	61.71	21.67	1.12	1.50	
	대도시	19.98	63.16	14.16	1.15	1.55	43.063***
	중소도시 농어촌	16.48 14.50	62.09 56.92	18.75 24.03	0.46 1.27	2.22 3.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30	59.38	9.86	0.00	1.46	94.093***
	중하층	18.09	60.56	18.27	1.27	1.81	
	중간층	13.85	64.10	18.93	0.59	2.54	
	중상층(상층)	16.50	62.20	18.12	1.83	1.3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04	58.19	18.51	0.61	1.66	16.936
	200만 원대	18.33	60.78	17.73	0.88	2.28	
	300만 원대	17.94	62.29	17.39	0.95	1.42	
	400만 원대	16.91	62.85	16.69	0.40	3.16	
	500만 원 이상	16.15	63.98	17.03	0.92	1.92	
학력	중졸 이하	19.70	58.55	18.86	0.65	2.24	6.316
	고졸	16.89	63.49	17.00	0.70	1.92	
	대졸 이상	17.95	61.75	17.16	1.04	2.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34	62.35	18.27	1.27	1.76	29.11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78	55.91	17.64	0.57	3.10	
	고용주·자영자	16.93	63.51	17.27	0.71	1.58	
	무급가족 종사자	15.64	54.64	23.97	0.76	4.98	
	실업자	19.87	65.01	13.54	0.00	1.58	
	비경제활동인구	17.81	63.12	16.34	0.65	2.08	
직업	관리자·전문가	19.54	61.91	15.02	0.18	3.35	20.17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97	61.59	17.98	1.35	2.11	
	숙련 및 기술직	15.77	62.75	19.39	0.67	1.43	
	단순노무 종사자	23.13	55.20	20.04	0.47	1.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16.73	62.61	17.63	1.39	1.6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61	63.44	18.12	0.73	1.11	28.187***
	중도적	16.05	61.91	18.54	0.73	2.77	
	진보적	21.35	60.85	14.88	1.08	1.85	

주: 1) “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6〉 집단 간 갈등 인식 II: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전체		25.31	56.37	15.94	0.94	1.44	
성별	남성	25.42	55.73	16.68	1.09	1.08	6.228
	여성	25.20	57.02	15.17	0.79	1.82	
연령	20대 이하	25.15	56.72	15.78	1.04	1.31	43.570***
	30대	28.38	58.23	11.92	0.76	0.70	
	40대	26.88	56.66	14.43	0.94	1.09	
	50대	24.32	54.76	18.20	1.45	1.27	
	60대 이상	21.73	55.61	19.29	0.48	2.89	
지역	수도권	28.65	56.48	12.78	0.63	1.46	45.390***
	비수도권	21.94	56.26	19.12	1.26	1.42	
	대도시	29.36	54.26	14.60	1.20	0.58	40.728***
	중소도시 농어촌	22.34 22.53	58.09 56.98	16.85 17.19	0.78 0.68	1.95 2.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5.67	53.33	8.91	0.60	1.48	70.411***
	중하층	25.04	56.10	15.76	1.06	2.04	
	중간층	21.42	58.43	18.01	1.00	1.13	
	중상층(상층)	30.13	50.65	18.56	0.65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81	56.99	18.18	0.47	2.56	31.425**
	200만 원대	24.55	58.42	14.22	0.72	2.09	
	300만 원대	26.13	56.31	14.88	1.37	1.31	
	400만 원대	28.04	54.10	16.42	0.12	1.31	
	500만 원 이상	25.30	56.30	16.19	1.44	0.77	
학력	중졸 이하	21.15	57.43	17.90	0.55	2.97	29.698***
	고졸	24.96	56.28	15.82	1.35	1.59	
	대졸 이상	27.26	56.06	15.32	0.65	0.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89	55.32	16.93	1.28	0.58	47.00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8.43	53.11	16.32	0.66	1.48	
	고용주·자영자	23.02	57.55	17.50	0.89	1.04	
	무급가족 종사자	28.33	51.20	15.05	0.00	5.42	
	실업자	22.88	68.90	5.17	1.75	1.30	
	비경제활동인구	25.07	56.88	15.08	0.73	2.24	
직업	관리자·전문가	26.52	57.09	14.22	0.36	1.81	13.96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6.08	54.49	17.12	1.46	0.85	
	숙련 및 기술직	23.86	55.91	18.27	0.67	1.29	
	단순노무 종사자	24.88	57.97	16.65	0.00	0.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72	55.59	16.81	1.33	0.55	5.658
	비정규직	28.30	52.98	16.68	0.67	1.3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18	53.65	17.32	1.08	1.77	21.149***
	중도적	23.20	57.92	16.48	0.66	1.74	
	진보적	27.62	56.62	13.84	1.23	0.69	

주: 1) “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7〉 집단 간 갈등 인식 III: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전체		11.35	41.32	37.72	5.47	4.14	
성별	남성	11.90	41.93	36.29	5.77	4.11	4.203
	여성	10.78	40.70	39.18	5.16	4.18	
연령	20대 이하	13.47	37.56	37.97	4.77	6.23	33.203***
	30대	12.11	42.80	35.78	5.23	4.07	
	40대	11.34	44.21	35.66	4.86	3.93	
	50대	9.84	41.82	40.32	4.91	3.10	
	60대 이상	10.16	39.77	38.84	7.70	3.53	
지역	수도권	13.28	44.77	34.86	2.93	4.16	78.241***
	비수도권	9.39	37.84	40.61	8.04	4.12	
	대도시	12.05	45.81	33.44	4.57	4.13	94.895***
	중소도시 농어촌	12.08 4.99	39.07 33.27	40.27 43.41	4.61 13.27	3.96 5.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15	42.47	29.91	4.02	3.43	67.581***
	중하층	10.90	42.39	36.66	5.90	4.15	
	중간층	8.82	39.74	41.39	5.60	4.45	
	중상층(상층)	11.39	43.37	36.32	5.29	3.6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43	35.74	36.73	8.62	4.47	38.898***
	200만 원대	10.37	44.31	36.24	5.51	3.56	
	300만 원대	10.31	45.14	36.23	5.36	2.95	
	400만 원대	12.77	38.69	39.68	3.82	5.04	
	500만 원 이상	10.34	41.46	38.69	4.95	4.55	
학력	중졸 이하	11.82	37.85	39.28	7.16	3.89	7.916
	고졸	10.73	42.57	37.11	5.34	4.25	
	대졸 이상	11.83	41.29	37.78	4.97	4.1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59	42.61	38.69	4.72	4.39	57.33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06	37.39	36.97	4.61	4.98	
	고용주·자영자	9.38	42.98	38.66	5.22	3.76	
	무급가족 종사자	6.06	26.75	47.02	14.08	6.08	
	실업자	21.10	38.51	34.78	3.71	1.90	
	비경제활동인구	11.98	41.71	36.13	6.24	3.94	
직업	관리자·전문가	12.40	44.39	34.69	3.02	5.49	32.87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07	41.50	38.75	4.43	4.25	
	숙련 및 기술직	6.52	39.97	40.50	8.37	4.64	
	단순노무 종사자	13.90	38.16	39.85	5.38	2.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13	43.01	38.54	4.84	4.48	16.798***
	비정규직	15.74	37.58	37.61	4.38	4.6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83	41.82	37.73	6.37	3.26	37.725***
	중도적	9.27	40.38	40.54	4.77	5.05	
	진보적	14.92	42.25	33.53	5.66	3.63	

주: 1) “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8〉 집단 간 갈등 인식 IV: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전체		29.48	52.42	13.88	1.83	2.38	
성별	남성	30.75	51.56	13.87	1.67	2.15	4.193
	여성	28.17	53.31	13.89	2.01	2.62	
연령	20대 이하	29.10	50.32	14.11	2.72	3.75	42.624***
	30대	32.37	50.92	13.12	2.09	1.50	
	40대	32.52	52.28	12.73	1.29	1.18	
	50대	27.64	55.90	13.23	1.26	1.96	
	60대 이상	25.57	52.32	16.44	1.95	3.72	
지역	수도권	31.17	51.26	12.71	1.79	3.07	16.251***
	비수도권	27.78	53.60	15.06	1.88	1.69	
	대도시	29.49	52.80	13.04	2.53	2.13	10.413
	중소도시 농어촌	29.83 27.79	52.02 52.76	14.34 15.19	1.30 1.47	2.51 2.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2.37	50.50	12.76	0.52	3.85	22.905**
	중하층	28.37	53.45	13.48	2.27	2.43	
	중간층	29.65	52.36	13.91	1.98	2.10	
	중상층(상층)	28.25	51.24	18.52	1.25	0.7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3.29	51.55	18.44	2.52	4.20	42.581***
	200만 원대	28.61	51.49	14.23	2.78	2.89	
	300만 원대	32.41	52.22	12.70	0.94	1.73	
	400만 원대	29.88	53.18	12.70	1.72	2.53	
	500만 원 이상	30.69	53.10	12.88	1.69	1.64	
학력	중졸 이하	24.67	52.96	16.93	1.37	4.06	24.571***
	고졸	29.52	52.75	13.04	2.29	2.40	
	대졸 이상	31.26	51.86	13.63	1.52	1.7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82	52.51	15.41	1.89	1.38	42.47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71	50.04	16.59	0.91	1.76	
	고용주·자영자	28.86	56.98	11.14	1.45	1.57	
	무급가족 종사자	26.43	53.98	12.86	0.91	5.82	
	실업자	30.14	54.27	10.86	1.86	2.88	
	비경제활동인구	30.22	50.17	13.45	2.39	3.77	
직업	관리자·전문가	30.70	55.68	10.25	0.90	2.47	24.10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9.48	53.45	13.64	1.78	1.65	
	숙련 및 기술직	26.07	56.07	15.47	1.42	0.97	
	단순노무 종사자	31.27	43.91	21.29	1.43	2.0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21	51.97	15.56	1.97	1.29	3.258
	비정규직	29.52	51.64	16.05	0.93	1.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72	51.90	14.02	2.05	2.32	6.165
	중도적	28.00	54.06	13.54	1.76	2.65	
	진보적	31.46	50.49	14.26	1.75	2.04	

주: 1) “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49〉 집단 간 갈등 인식 V: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전체		13.41	44.68	34.78	5.41	1.72	
성별	남성	13.33	43.77	35.37	5.67	1.86	2.094
	여성	13.49	45.62	34.17	5.14	1.58	
연령	20대 이하	11.62	42.61	36.91	6.04	2.83	27.260**
	30대	15.23	43.50	33.95	5.83	1.49	
	40대	14.59	48.07	31.09	5.06	1.20	
	50대	12.55	42.59	37.85	4.88	2.14	
	60대 이상	12.99	46.41	34.28	5.35	0.97	
지역	수도권	15.30	45.30	33.22	4.67	1.51	18.235***
	비수도권	11.50	44.06	36.36	6.15	1.93	
	대도시	12.73	44.96	36.28	4.21	1.82	28.638***
	중소도시 농어촌	14.83 9.51	45.29 40.65	32.60 38.83	5.82 8.47	1.46 2.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72	44.61	28.72	4.78	2.18	50.746***
	중하층	14.70	43.19	35.81	4.62	1.69	
	중간층	9.99	45.46	36.50	6.50	1.56	
	중상층(상층)	15.12	48.13	30.74	3.99	2.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03	43.46	35.69	4.37	1.45	39.781***
	200만 원대	16.51	40.68	35.55	5.19	2.06	
	300만 원대	12.42	50.34	28.88	7.22	1.14	
	400만 원대	13.51	42.77	37.11	4.10	2.52	
	500만 원 이상	11.65	44.67	36.48	5.58	1.63	
학력	중졸 이하	15.50	44.45	32.22	5.38	2.45	11.002
	고졸	13.48	42.91	36.40	5.71	1.50	
	대졸 이상	12.54	46.68	34.00	5.09	1.6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99	43.03	36.02	6.10	1.85	41.98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01	43.77	33.43	2.71	2.08	
	고용주·자영자	10.87	51.53	30.74	5.10	1.75	
	무급가족 종사자	10.90	37.14	41.59	9.33	1.03	
	실업자	15.99	46.43	34.47	3.10	0.00	
	비경제활동인구	13.63	42.89	35.99	5.81	1.67	
직업	관리자·전문가	16.19	48.66	29.69	3.27	2.19	28.00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60	46.78	33.88	5.95	1.79	
	숙련 및 기술직	13.23	44.01	36.12	5.59	1.06	
	단순노무 종사자	18.10	36.19	38.35	3.94	3.4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88	43.10	36.22	5.89	1.91	8.545*
	비정규직	17.27	43.48	33.51	3.83	1.9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43	45.09	35.46	5.45	0.58	20.500***
	중도적	11.91	44.59	35.70	5.47	2.33	
	진보적	15.61	44.44	32.78	5.29	1.89	

주: 1) “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0〉 집단 간 갈등 인식 VI: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전체		40.78	44.41	12.45	1.02	1.33	
성별	남성	42.85	42.57	12.63	1.06	0.89	12.965**
	여성	38.66	46.31	12.26	0.99	1.78	
연령	20대 이하	38.54	47.08	11.36	0.71	2.32	31.549**
	30대	45.29	40.42	13.14	0.68	0.47	
	40대	42.03	45.34	10.24	1.19	1.20	
	50대	39.86	44.32	13.55	1.36	0.91	
	60대 이상	38.14	44.79	14.13	1.13	1.81	
지역	수도권	43.21	44.31	10.46	0.41	1.60	34.249***
	비수도권	38.34	44.51	14.46	1.64	1.05	
	대도시	38.71	47.74	11.22	1.06	1.27	
	중소도시	42.14	42.17	13.51	0.86	1.31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42.98	41.17	12.55	1.64	1.66	12.631
	하층	41.98	42.32	12.37	1.18	2.15	
	중하층	39.20	45.10	13.40	1.08	1.23	
월평균 소득	중간층	40.77	45.29	11.76	1.04	1.14	29.681**
	중상층(상층)	47.35	39.19	11.83	0.26	1.36	
	200만 원 미만	37.51	45.47	12.96	2.20	1.86	
	200만 원대	41.01	43.08	14.43	0.38	1.10	
	300만 원대	43.31	41.99	12.84	1.32	0.54	
학력	400만 원대	41.90	43.48	12.41	0.40	1.82	20.484***
	500만 원 이상	39.91	46.63	11.08	0.94	1.44	
	중졸 이하	37.45	44.34	14.09	1.63	2.49	
경제활동 상태	고졸	39.79	45.41	12.27	1.02	1.52	35.613**
	대졸 이상	43.12	43.37	12.02	0.81	0.69	
	상용직 임금근로자	40.82	43.18	13.69	1.03	1.2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3.98	48.21	13.22	1.24	3.35	
	고용주·자영자	42.41	44.53	11.71	0.85	0.49	
	무급가족 종사자	43.88	41.33	11.37	0.87	2.55	
직업	실업자	40.95	44.04	10.20	2.97	1.84	19.024*
	비경제활동인구	41.91	44.48	11.71	0.86	1.04	
	관리자·전문가	43.97	43.54	11.31	0.58	0.6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9.82	44.09	13.23	1.05	1.81	
	숙련 및 기술직	41.14	45.45	11.22	1.52	0.6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34.63	45.11	17.70	0.19	2.38	12.050**
	정규직	41.43	42.69	13.53	0.99	1.35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34.03	48.26	13.63	1.27	2.81	34.454***
	보수적	41.82	42.23	13.85	1.23	0.86	
	중도적	37.15	47.18	12.52	1.03	2.12	
	진보적	45.19	42.36	11.03	0.83	0.60	

주: 1) “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1〉 집단 간 갈등 인식 Ⅴ: 지역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전체		15.80	41.31	32.95	7.33	2.61	
성별	남성	15.79	40.85	33.06	7.62	2.68	0.744
	여성	15.81	41.79	32.83	7.04	2.53	
연령	20대 이하	17.01	41.14	30.35	7.62	3.88	34.417***
	30대	20.01	40.04	33.22	5.13	1.59	
	40대	13.94	40.34	34.15	8.86	2.71	
	50대	14.07	42.85	33.45	7.83	1.79	
	60대 이상	14.44	42.13	33.32	6.96	3.15	
지역	수도권	19.45	44.65	27.54	5.86	2.50	89.234***
	비수도권	12.12	37.93	38.41	8.82	2.71	
	대도시	16.80	44.51	30.13	6.23	2.34	71.216***
	중소도시 농어촌	16.34 9.10	40.72 30.80	33.54 41.84	6.93 13.83	2.46 4.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37	40.78	29.00	7.87	4.98	45.398***
	중하층	15.36	39.68	36.20	7.18	1.58	
	중간층	14.43	42.99	32.62	7.23	2.74	
	중상층(상층)	24.24	40.45	25.25	7.73	2.3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08	39.02	33.58	8.98	4.34	37.327***
	200만 원대	15.88	40.71	35.49	5.76	2.16	
	300만 원대	18.00	35.93	34.72	8.68	2.67	
	400만 원대	15.12	44.71	32.32	5.23	2.62	
	500만 원 이상	15.47	44.26	30.65	7.63	1.99	
학력	중졸 이하	13.85	39.48	34.78	8.23	3.66	17.184**
	고졸	14.24	41.92	33.86	7.42	2.56	
	대졸 이상	18.23	41.35	31.26	6.90	2.2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86	37.71	35.14	8.60	2.69	71.18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47	42.79	35.09	5.02	3.63	
	고용주·자영자	15.05	43.72	34.15	5.64	1.44	
	무급가족 종사자	5.43	29.55	39.55	21.77	3.71	
	실업자	16.58	46.39	24.45	8.15	4.42	
	비경제활동인구	17.61	43.18	29.78	6.83	2.60	
직업	관리자·전문가	17.07	44.16	29.99	6.29	2.50	40.25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83	40.06	34.81	6.32	1.98	
	숙련 및 기술직	9.75	38.51	37.95	10.82	2.97	
	단순노무 종사자	11.21	38.06	36.65	9.30	4.7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05	37.59	35.74	8.05	2.56	5.978
	비정규직	13.54	42.04	33.84	6.86	3.7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57	39.64	31.71	9.56	2.52	27.447***
	중도적	13.95	42.14	34.58	6.06	3.27	
	진보적	17.82	41.65	31.70	7.12	1.71	

주: 1) “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2〉 집단 간 갈등 인식 VIII: 다문화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전체		6.99	42.86	39.51	5.98	4.65	
성별	남성	6.97	42.38	39.69	6.96	4.01	10.121**
	여성	7.02	43.37	39.33	4.97	5.32	
연령	20대 이하	7.05	42.29	36.96	7.98	5.72	42.605***
	30대	8.49	43.60	39.75	4.28	3.88	
	40대	7.96	45.55	38.55	5.32	2.62	
	50대	6.66	43.45	39.32	5.84	4.72	
	60대 이상	4.71	39.00	43.12	6.58	6.58	
지역	수도권	9.20	45.13	35.72	4.43	5.51	67.668***
	비수도권	4.76	40.57	43.34	7.54	3.78	
	대도시	7.60	41.24	39.95	6.35	4.85	22.227***
	중소도시 농어촌	6.79 5.43	45.83 35.57	37.40 47.72	5.51 6.61	4.47 4.6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80	40.60	36.45	6.70	6.44	27.810***
	중하층	7.28	41.68	42.20	5.04	3.81	
	중간층	5.88	43.81	38.95	6.43	4.93	
	중상층(상층)	6.61	48.34	34.71	6.71	3.6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27	37.09	42.38	7.49	6.76	38.688***
	200만 원대	4.96	40.78	42.41	7.05	4.80	
	300만 원대	7.25	40.83	41.50	6.75	3.67	
	400만 원대	7.61	44.92	38.81	4.50	4.17	
	500만 원 이상	7.70	46.69	36.02	5.09	4.50	
학력	중졸 이하	5.09	41.74	40.63	5.78	6.76	25.025***
	고졸	6.14	41.83	40.60	6.65	4.77	
	대졸 이상	8.63	44.40	37.92	5.33	3.7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53	40.72	39.89	6.26	4.60	45.64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91	36.68	41.09	6.48	5.83	
	고용주·자영자	5.74	45.19	42.27	4.49	2.31	
	무급가족 종사자	5.73	39.99	43.54	5.80	4.93	
	실업자	6.83	47.42	33.60	6.07	6.08	
	비경제활동인구	5.33	45.45	37.30	6.41	5.52	
직업	관리자·전문가	12.39	40.50	38.05	3.42	5.64	47.00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77	42.88	40.49	5.82	3.04	
	숙련 및 기술직	4.54	40.59	44.12	6.85	3.89	
	단순노무 종사자	9.24	34.62	40.51	6.29	9.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60	40.64	40.56	5.71	4.49	4.561
	비정규직	9.50	37.63	39.47	7.59	5.82	
이념적 성향	보수적	6.27	42.99	40.08	6.44	4.23	24.408***
	중도적	5.58	42.75	40.61	5.64	5.42	
	진보적	9.77	42.92	37.35	6.04	3.92	

주: 1) “__님께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3〉 집단 간 갈등 인식 IX: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전체		10.32	52.63	28.84	3.49	4.71	
성별	남성	10.96	50.98	30.20	3.76	4.10	10.094**
	여성	9.67	54.33	27.45	3.21	5.34	
연령	20대 이하	7.58	50.68	30.13	5.74	5.87	52.593***
	30대	13.55	50.63	29.40	2.17	4.25	
	40대	11.33	56.48	24.83	3.22	4.14	
	50대	10.19	54.40	28.45	3.61	3.35	
	60대 이상	8.84	50.24	31.99	2.74	6.18	
지역	수도권	12.25	54.52	24.73	2.28	6.22	74.460***
	비수도권	8.37	50.72	33.00	4.72	3.19	
	대도시	10.37	53.09	28.52	3.81	4.21	9.455
	중소도시 농어촌	9.95 11.91	53.57 46.28	28.39 32.37	3.18 3.61	4.92 5.8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63	52.02	25.05	2.17	8.12	28.367***
	중하층	10.40	53.28	28.73	3.56	4.03	
	중간층	9.36	52.17	30.19	3.90	4.37	
	중상층(상층)	11.30	53.39	28.79	3.22	3.3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45	45.73	31.75	6.16	6.91	47.821***
	200만 원대	9.57	48.93	32.42	2.95	6.13	
	300만 원대	10.26	53.92	28.20	3.20	4.43	
	400만 원대	12.21	55.80	26.55	2.24	3.20	
	500만 원 이상	10.18	55.15	27.43	3.23	4.01	
학력	중졸 이하	8.46	53.36	29.88	2.93	5.37	12.930
	고졸	10.34	50.91	29.82	3.49	5.43	
	대졸 이상	11.01	54.21	27.40	3.69	3.6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34	48.88	31.80	4.56	3.42	48.90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20	52.77	25.64	2.71	6.69	
	고용주·자영자	10.09	56.65	27.78	1.47	4.01	
	무급가족 종사자	8.83	52.86	27.33	3.29	7.69	
	실업자	7.85	45.51	37.17	3.48	5.99	
	비경제활동인구	9.18	54.58	26.94	3.92	5.37	
직업	관리자·전문가	15.77	46.09	30.97	1.94	5.23	30.76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10	53.83	28.26	3.71	4.09	
	숙련 및 기술직	9.74	53.50	31.27	2.83	2.67	
	단순노무 종사자	12.62	46.15	29.38	3.60	8.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43	50.23	31.05	4.15	3.14	11.305**
	비정규직	11.84	49.18	28.41	3.93	6.6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40	52.25	29.86	3.12	4.37	25.474***
	중도적	8.56	54.59	28.69	2.84	5.32	
	진보적	12.86	50.09	28.12	4.79	4.14	

주: 1) “__님께서서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4〉 법률서비스 필요 및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법률서비스 필요 경험			(필요한 경우만 응답) 이용 경험			
		유	무	χ^2	유	무	χ^2	
전체		6.90	93.10		76.32	23.68		
성별	남성	8.05	91.95	8.081***	71.35	28.65	5.264**	
	여성	5.72	94.28		83.53	16.47		
연령	20대 이하	2.93	97.07	51.279***	75.28	24.72	7.248	
	30대	7.46	92.54		66.20	33.80		
	40대	10.30	89.70		75.45	24.55		
	50대	9.29	90.71		79.12	20.88		
	60대 이상	3.81	96.19		91.95	8.05		
지역	수도권	8.99	91.01	26.298***	79.31	20.69	2.480	
	비수도권	4.79	95.21		70.66	29.34		
	대도시	7.62	92.38	2.508	81.24	18.76		6.659**
	중소도시	6.52	93.48		74.97	25.03		
농어촌	5.75	94.25	56.41	43.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53	90.47	9.006**	74.22	25.78	0.496	
중하층	6.76	93.24	75.38		24.62			
중간층	5.95	94.05	78.65		21.35			
중상층(상층)	8.33	91.67	74.76		25.2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61	94.39	2.597	67.68	32.32	2.535	
	200만 원대	7.12	92.88		82.42	17.58		
	300만 원대	6.35	93.65		75.93	24.07		
	400만 원대	7.50	92.50		73.41	26.59		
	500만 원 이상	7.31	92.69		77.85	22.15		
학력	중졸 이하	4.40	95.60	12.598***	73.60	26.40	1.178	
	고졸	6.33	93.67		79.77	20.23		
	대졸 이상	8.47	91.53		74.08	25.9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37	93.63	71.597***	76.75	23.25	3.70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77	92.23		78.85	21.15		
	고용주·자영자	11.10	88.90		74.10	25.90		
	무급가족 종사자	4.49	95.51		57.84	42.16		
	실업자	18.83	81.17		67.23	32.77		
비경제활동인구	3.58	96.42	84.23	15.77				
직업	관리자·전문가	15.59	84.41	32.766***	83.22	16.78	2.73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30	92.70		71.29	28.71		
	숙련 및 기술직	5.53	94.47		75.68	24.32		
	단순노무 종사자	6.27	93.73		78.33	21.6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17	93.83	1.756	75.45	24.55	0.385	
	비정규직	7.92	92.08		80.53	19.47		
이념적 성향	보수적	8.47	91.53	7.501**	73.22	26.78	0.718	
	중도적	5.76	94.24		78.06	21.94		
	진보적	7.13	92.87		77.69	22.31		

주: 1) “귀하께서는 지난 5년간 법적 문제의 발생으로 법률상담, 법률서류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귀하께서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였던 당시 유무상의 법률상담, 법률서류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5〉 법률서비스 이용 어려움

(단위: %)

구분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별로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χ^2
전체		18.30	46.03	28.99	6.68	
성별	남성	17.00	44.60	31.63	6.78	14.987***
	여성	19.64	47.51	26.27	6.58	
연령	20대 이하	14.20	43.19	33.81	8.80	69.209***
	30대	15.14	46.00	30.91	7.95	
	40대	17.79	48.42	28.57	5.22	
	50대	18.30	46.63	29.79	5.28	
	60대 이상	26.10	45.53	21.87	6.50	
지역	수도권	13.85	47.16	33.07	5.92	68.589***
	비수도권	22.79	44.89	24.87	7.44	
	대도시	15.65	46.86	30.51	6.99	56.297***
	중소도시 농어촌	17.90 31.21	45.81 43.69	29.51 20.20	6.78 4.9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4.89	46.01	15.29	3.81	189.421***
	중하층	18.07	49.53	26.58	5.82	
	중간층	14.13	43.46	34.76	7.65	
	중상층(상층)	10.82	43.48	34.31	11.3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01	40.94	21.08	7.97	120.610***
	200만 원대	20.52	49.01	22.62	7.85	
	300만 원대	17.23	48.47	27.27	7.03	
	400만 원대	16.86	48.46	29.45	5.22	
	500만 원 이상	13.32	44.12	36.47	6.10	
학력	중졸 이하	33.00	46.98	14.55	5.47	152.670***
	고졸	17.32	47.36	29.40	5.92	
	대졸 이상	13.79	44.25	34.01	7.9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78	45.49	31.78	6.94	50.66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37	43.67	28.51	4.44	
	고용주·자영자	16.55	47.86	29.96	5.64	
	무급가족 종사자	31.13	51.70	16.45	0.72	
	실업자	21.75	50.18	17.76	10.30	
	비경제활동인구	18.82	45.49	27.85	7.83	
직업	관리자·전문가	12.94	45.73	33.63	7.70	49.30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04	45.41	31.83	6.72	
	숙련 및 기술직	20.82	47.56	28.01	3.61	
	단순노무 종사자	29.62	47.40	19.39	3.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55	45.77	32.08	6.60	11.847***
	비정규직	22.37	43.44	28.53	5.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72	46.31	26.38	6.59	45.580***
	중도적	19.12	48.61	25.92	6.36	
	진보적	14.81	41.97	35.99	7.23	

주: 1) “귀하께서는 필요할 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6〉 법률서비스 이용 어려움의 이유 1: 1순위

(단위: %)

구분		내용이 어려워서	비용이높아서	법조인들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주변에서 관련 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 힘들어서	기타	χ^2
전체		47.00	37.34	9.37	6.09		
성별	남성	44.27	38.9	9.36	7.32	0.14	11.436**
	여성	49.58	35.86	9.37	4.93	0.26	
연령	20대 이하	52.64	33.56	8.27	5.31	0.22	31.866**
	30대	44.75	36.79	8.46	9.43	0.57	
	40대	44.19	39.06	12.01	4.61	0.13	
	50대	44.12	39.31	9.96	6.46	0.15	
	60대 이상	50.28	37.01	7.65	5.05	0.00	
지역	수도권	43.21	39.61	9.55	7.40	0.22	16.483***
	비수도권	50.46	35.26	9.20	4.90	0.19	
	대도시	46.19	37.49	9.74	6.16	0.42	8.591
	중소도시 농어촌	46.31 52.64	38.11 33.70	9.43 7.83	6.10 5.83	0.06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82	45.40	5.33	5.44	0.00	70.292***
	중하층	48.68	37.83	7.90	5.33	0.25	
	중간층	47.07	34.68	11.23	7.02	0.00	
	중상층(상층)	45.13	25.97	19.96	7.00	1.9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1.10	37.10	5.64	6.16	0.00	22.145
	200만 원대	48.86	36.06	8.52	6.56	0.00	
	300만 원대	43.95	40.11	10.77	5.17	0.00	
	400만 원대	49.00	35.47	9.37	5.78	0.37	
	500만 원 이상	44.73	37.14	11.02	6.64	0.47	
학력	중졸 이하	52.22	35.87	6.72	5.18	0.00	12.753
	고졸	46.31	37.94	9.80	5.82	0.14	
	대졸 이상	45.12	37.37	10.24	6.89	0.3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4.58	39.49	10.18	5.65	0.11	28.62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9.69	38.80	8.22	3.05	0.24	
	고용주·자영자	48.64	33.84	9.66	7.33	0.54	
	무급가족 종사자	48.30	40.13	7.60	3.97	0.00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39.83 48.04	42.93 35.99	4.74 9.54	11.53 6.43	0.98 0.00	
직업	관리자·전문가	41.67	35.25	12.58	10.50	0.00	19.95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7.66	37.11	9.38	5.37	0.48	
	숙련 및 기술직	48.39	38.05	9.39	4.17	0.00	
	단순노무 종사자	46.02	42.67	7.19	4.12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4.65	39.15	10.20	5.87	0.12	5.261
	비정규직	48.63	39.58	8.52	3.08	0.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45.09	38.27	10.31	6.22	0.10	9.434
	중도적	49.14	36.48	8.56	5.75	0.07	
	진보적	45.36	37.81	9.75	6.55	0.54	

주: 1) “귀하께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 법률서비스 이용 어려움의 이유 II: 2순위

(단위: %)

구분		내용이 어려워서	비용이 높아서	법조인들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주변에서 관련 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 힘들어서	기타	χ^2
전체		22.59	40.92	22.01	13.19		
성별	남성	23.14	38.70	22.50	13.84	1.82	9.115*
	여성	22.06	43.03	21.55	12.57	0.79	
연령	20대 이하	17.13	40.75	21.88	17.41	2.83	36.953***
	30대	23.17	39.30	22.55	13.00	1.98	
	40대	24.42	39.78	22.89	12.07	0.84	
	50대	24.34	38.15	23.78	13.08	0.66	
	60대 이상	22.82	46.41	18.95	11.24	0.57	
지역	수도권	20.81	39.18	23.51	14.15	2.36	27.599***
	비수도권	24.19	42.48	20.67	12.33	0.34	
	대도시	20.48	40.41	23.02	13.88	2.21	18.598**
	중소도시 농어촌	24.62 21.75	40.43 44.60	21.13 22.06	13.19 10.82	0.64 0.7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03	39.93	18.45	11.44	0.16	85.318***
	중하층	21.69	41.68	23.76	12.28	0.61	
	중간층	21.15	40.77	21.86	14.71	1.51	
	중상층(상층)	14.21	39.80	22.50	14.81	8.6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69	44.10	18.16	11.78	0.28	25.393*
	200만 원대	23.90	42.98	20.41	11.79	0.91	
	300만 원대	22.24	41.55	22.24	13.11	0.86	
	400만 원대	20.85	39.12	22.48	16.13	1.43	
	500만 원 이상	21.43	38.64	24.55	13.04	2.34	
학력	중졸 이하	23.40	47.09	18.59	10.70	0.21	18.624**
	고졸	22.65	40.19	22.76	13.00	1.40	
	대졸 이상	22.09	38.55	22.91	14.72	1.7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61	39.73	22.48	13.71	1.48	19.71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49	43.16	22.47	10.90	0.98	
	고용주·자영자	19.78	41.94	21.08	15.24	1.96	
	무급가족 종사자	26.72	43.77	12.06	16.93	0.51	
	실업자	27.21	31.97	23.53	17.29	0.00	
	비경제활동인구	23.37	41.38	22.65	11.54	1.06	
직업	관리자·전문가	17.71	38.38	22.70	20.24	0.97	24.52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9.96	41.86	22.89	13.27	2.02	
	숙련 및 기술직	25.37	40.20	20.11	13.73	0.59	
	단순노무 종사자	29.00	43.22	17.13	9.30	1.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2.10	39.98	22.90	13.68	1.35	1.487
	비정규직	23.49	42.07	21.67	11.46	1.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62	41.39	23.07	10.28	1.64	9.348
	중도적	22.89	40.60	21.20	14.07	1.24	
	진보적	20.93	40.96	22.26	14.83	1.01	

주: 1) “귀하께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8〉 사회문제의 원인 1: 자살, 알코올중독 등 자기 파괴적 행동

(단위: %)

구분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일탈	사회적 규범의 해체	사회제도와 가치 간의 충돌	빈곤,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	χ^2
전체		49.30	23.22	11.03	7.36	9.09	
성별	남성	49.15	23.54	10.58	7.20	9.54	1.956
	여성	49.45	22.89	11.51	7.53	8.63	
연령	20대 이하	46.51	24.26	10.78	7.11	11.34	38.932***
	30대	49.87	23.06	10.74	6.70	9.64	
	40대	49.09	20.07	10.44	9.40	11.00	
	50대	48.41	24.55	13.70	6.79	6.55	
	60대 이상	52.71	24.45	9.30	6.59	6.96	
지역	수도권	48.56	20.49	12.31	8.18	10.46	30.091***
	비수도권	50.04	25.97	9.75	6.53	7.71	
	대도시	50.29	22.71	9.07	7.46	10.47	25.125***
	중소도시 농어촌	47.24 54.88	24.02 21.56	13.00 9.92	7.34 7.03	8.40 6.6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1.29	22.20	8.37	8.95	9.19	12.995
	중하층	47.94	24.43	10.81	7.60	9.22	
	중간층	49.92	22.93	11.62	6.58	8.94	
	중상층(상층)	48.37	20.47	14.33	7.71	9.1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1.95	23.59	8.52	8.43	7.50	26.357**
	200만 원대	49.81	24.23	11.30	7.72	6.93	
	300만 원대	46.79	22.75	11.38	7.72	11.35	
	400만 원대	47.26	20.95	13.26	7.54	10.98	
	500만 원 이상	50.40	24.12	10.72	6.41	8.36	
학력	중졸 이하	56.39	21.43	8.31	6.16	7.70	22.741***
	고졸	49.04	23.32	12.03	7.45	8.16	
	대졸 이상	46.89	23.78	11.00	7.72	10.6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5.39	24.65	12.21	7.75	10.00	33.02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9.47	23.86	8.98	9.60	8.08	
	고용주·자영자	52.96	21.46	11.83	6.69	7.06	
	무급가족 종사자	55.31	24.14	10.94	6.10	3.51	
	실업자	48.86	17.46	9.91	10.05	13.72	
	비경제활동인구	50.52	23.16	10.25	6.41	9.65	
직업	관리자·전문가	43.92	22.87	10.86	9.53	12.81	23.89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9.19	23.10	10.98	7.57	9.16	
	숙련 및 기술직	48.66	25.72	13.25	7.32	5.06	
	단순노무 종사자	53.10	22.14	11.40	6.61	6.7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5.74	24.60	12.31	7.65	9.70	4.633
	비정규직	47.94	24.13	9.40	9.44	9.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46.84	26.93	11.19	7.30	7.74	29.544***
	중도적	50.76	23.73	9.76	6.92	8.83	
	진보적	49.43	18.98	12.78	8.07	10.74	

주: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음 사회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59〉 사회문제의 원인 II: 살인, 각종 범죄 등 타인에 대한 폭력범죄

(단위: %)

구분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일탈	사회적 규범의 해체	사회제도와 가치 간의 충돌	빈곤,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	χ^2
전체		17.52	26.01	26.11	16.52	13.84	
성별	남성	17.15	26.69	26.52	16.48	13.16	2.620
	여성	17.91	25.30	25.68	16.56	14.55	
연령	20대 이하	17.87	24.54	26.28	18.31	13.00	26.316**
	30대	16.51	25.72	29.63	15.04	13.10	
	40대	17.36	23.77	24.55	16.63	17.68	
	50대	17.50	27.32	26.32	16.99	11.87	
	60대 이상	18.41	28.82	23.95	15.56	13.26	
지역	수도권	15.52	27.72	27.27	16.06	13.43	16.272***
	비수도권	19.55	24.28	24.93	16.98	14.26	
	대도시	14.58	25.44	25.52	17.88	16.58	77.522***
	중소도시 농어촌	17.76 28.70	27.31 22.20	27.83 20.38	16.33 11.76	10.78 16.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98	26.57	24.39	16.20	15.87	29.297***
	중하층	17.58	24.49	27.30	15.72	14.91	
	중간층	17.61	27.53	26.84	16.30	11.73	
	중상층(상층)	17.83	23.15	18.09	23.36	17.5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24	26.17	24.48	13.61	16.50	29.849**
	200만 원대	20.77	26.99	25.57	12.89	13.77	
	300만 원대	17.88	23.44	27.18	16.98	14.51	
	400만 원대	15.41	28.57	25.89	18.29	11.85	
	500만 원 이상	15.97	25.66	26.65	18.37	13.35	
학력	중졸 이하	20.21	28.47	22.40	13.99	14.93	20.529***
	고졸	18.92	24.67	26.65	16.57	13.19	
	대졸 이상	15.01	26.51	26.93	17.42	14.1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14	26.67	25.98	17.87	13.34	24.75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12	24.44	27.61	17.28	13.55	
	고용주·자영자	17.62	27.09	27.35	14.73	13.21	
	무급가족 종사자	29.16	23.18	16.33	17.22	14.11	
	실업자	11.64	25.00	32.67	13.86	16.84	
	비경제활동인구	18.77	25.55	24.97	16.22	14.49	
직업	관리자·전문가	17.46	28.05	21.09	18.20	15.19	33.19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71	24.63	27.93	18.65	13.08	
	숙련 및 기술직	19.57	27.93	28.32	12.87	11.30	
	단순노무 종사자	20.40	30.01	19.73	12.59	17.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71	26.68	26.41	17.90	13.30	1.541
	비정규직	17.84	24.86	26.39	17.33	13.5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74	27.15	24.54	17.92	14.65	27.771***
	중도적	19.61	24.20	28.07	14.07	14.04	
	진보적	16.11	27.60	24.66	18.83	12.80	

주: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음 사회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60〉 사회문제의 원인 III: 특정인(집단) 적대시하는 태도

(단위: %)

구분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일탈	사회적 규범의 해체	사회제도와 가치 간의 충돌	빈곤,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	χ^2
전체		9.09	11.53	23.60	38.12	17.67	
성별	남성	8.92	10.84	22.89	40.05	17.29	6.772
	여성	9.27	12.23	24.33	36.12	18.05	
연령	20대 이하	9.25	12.12	21.37	37.24	20.02	28.416**
	30대	8.76	9.67	26.48	39.23	15.86	
	40대	8.21	11.45	20.85	40.94	18.55	
	50대	9.19	11.42	25.47	39.07	14.85	
	60대 이상	10.16	12.99	23.98	33.63	19.25	
지역	수도권	7.80	11.31	24.55	38.42	17.93	8.998*
	비수도권	10.40	11.75	22.64	37.81	17.40	
	대도시	7.78	10.82	21.34	42.43	17.63	53.016***
	중소도시 농어촌	8.66 16.59	12.10 11.74	25.09 25.94	35.72 31.51	18.43 14.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63	9.32	19.92	41.23	19.90	23.221**
	중하층	8.31	10.85	25.45	37.55	17.83	
	중간층	9.47	12.26	23.77	36.95	17.54	
	중상층(상층)	9.77	15.38	19.93	42.38	12.5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66	12.98	25.27	31.54	18.55	31.924**
	200만 원대	11.40	10.78	23.24	36.21	18.37	
	300만 원대	7.00	10.97	22.91	39.11	20.01	
	400만 원대	7.63	11.00	24.22	39.66	17.50	
	500만 원 이상	8.90	11.88	23.19	40.61	15.42	
학력	중졸 이하	13.18	14.13	23.16	31.46	18.07	32.678***
	고졸	9.19	10.42	24.33	37.83	18.23	
	대졸 이상	7.44	11.73	22.97	40.94	16.9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18	10.01	24.63	39.89	17.29	39.28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67	13.92	21.26	37.25	16.90	
	고용주·자영자	10.11	11.01	24.28	37.43	17.17	
	무급가족 종사자	16.99	10.76	15.04	41.64	15.57	
	실업자	6.20	10.99	12.81	41.62	28.39	
	비경제활동인구	8.60	12.60	24.67	36.49	17.63	
직업	관리자·전문가	10.07	10.97	21.23	42.35	15.38	23.32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7.92	10.79	24.38	39.15	17.76	
	숙련 및 기술직	11.66	9.56	24.09	38.67	16.01	
	단순노무 종사자	13.19	15.93	21.33	30.97	18.5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85	10.15	25.25	39.83	16.92	9.847**
	비정규직	10.86	12.86	20.63	37.89	17.76	
이념적 성향	보수적	7.83	11.80	24.35	37.97	18.06	5.360
	중도적	9.96	11.61	23.32	37.19	17.92	
	진보적	8.99	11.15	23.30	39.63	16.93	

주: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음 사회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61〉 사회문제의 원인 IV: 희망, 진취성과 같은 삶의 방향 상실

(단위: %)

구분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일탈	사회적 규범의 해체	사회제도와 가치 간의 충돌	빈곤,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	χ^2
전체		21.01	13.71	19.01	22.63	23.64	
성별	남성	21.06	14.41	18.53	22.44	23.56	1.960
	여성	20.95	12.99	19.50	22.82	23.73	
연령	20대 이하	18.65	13.90	16.41	24.02	27.03	30.144**
	30대	22.89	13.16	19.66	19.64	24.66	
	40대	21.69	11.28	19.08	22.85	25.10	
	50대	21.02	14.16	19.05	24.58	21.19	
	60대 이상	20.70	16.33	20.82	21.82	20.33	
지역	수도권	19.69	13.82	18.90	22.12	25.48	9.242*
	비수도권	22.35	13.60	19.12	23.15	21.79	
	대도시	21.31	13.92	16.71	23.97	24.09	29.063***
	중소도시 농어촌	19.94 24.81	13.51 13.73	19.63 25.62	22.37 18.27	24.54 17.5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45	15.68	17.58	21.78	24.50	10.050
	중하층	20.77	13.35	19.81	22.73	23.34	
	중간층	20.78	13.79	18.31	23.10	24.02	
	중상층(상층)	25.18	10.83	22.36	20.73	20.9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2.73	14.93	21.19	19.18	21.96	19.695
	200만 원대	22.41	14.52	18.36	21.25	23.46	
	300만 원대	20.43	11.64	17.31	24.27	26.35	
	400만 원대	18.76	12.91	19.87	24.02	24.43	
	500만 원 이상	21.17	14.51	18.98	23.11	22.22	
학력	중졸 이하	21.67	14.98	19.16	24.18	20.01	10.625
	고졸	22.04	13.70	19.25	21.14	23.87	
	대졸 이상	19.65	13.24	18.69	23.64	24.7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21	12.55	18.22	24.24	24.77	50.95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35	17.78	16.24	23.04	24.59	
	고용주·자영자	22.30	12.82	22.00	19.96	22.91	
	무급가족 종사자	34.24	11.48	18.87	21.18	14.24	
	실업자	11.56	11.86	16.49	21.64	38.46	
	비경제활동인구	22.01	14.30	19.22	22.69	21.77	
직업	관리자·전문가	26.18	11.19	16.69	19.19	26.75	22.91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8.61	13.31	19.72	23.55	24.81	
	숙련 및 기술직	22.15	14.66	18.32	22.90	21.97	
	단순노무 종사자	25.19	15.49	20.03	21.72	17.5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08	13.16	18.21	24.20	24.35	2.410
	비정규직	18.99	15.5	16.66	23.37	25.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24	14.30	20.49	24.30	19.67	26.535***
	중도적	22.53	14.03	18.57	20.08	24.78	
	진보적	18.54	12.67	18.27	24.83	25.69	

주: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음 사회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62〉 다름이나 갈등 경험

(단위: %)

구분		정치적 견해 차이	문화적 차이	출신 지역 차이	세대 간의 차이	학벌 차이
전체		18.96	7.25	4.46	10.85	5.66
성별	남성	22.53	7.46	5.86	11.61	6.54
	여성	15.27	7.04	3.02	10.07	4.75
연령	20대 이하	17.89	5.86	5.02	12.27	8.79
	30대	20.52	9.99	6.17	12.32	7.65
	40대	21.33	8.98	3.57	12.11	4.55
	50대	17.61	7.89	4.71	10.44	5.13
	60대 이상	17.26	3.25	2.94	7.00	2.38
지역	수도권	24.19	9.62	5.57	14.23	7.78
	비수도권	13.67	4.86	3.34	7.44	3.51
	대도시	22.44	7.67	4.97	13.62	6.85
	중소도시 농어촌	18.06 8.69	7.33 5.16	4.49 2.22	9.30 6.68	5.21 2.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05	6.58	3.91	9.02	5.26
	중하층	17.80	7.57	5.53	11.57	6.48
	중간층	20.84	7.29	3.68	10.45	4.86
	중상층(상층)	23.79	6.72	4.88	13.49	7.2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05	2.68	2.06	5.46	2.96
	200만 원대	18.18	6.52	4.25	8.76	4.96
	300만 원대	18.59	7.68	6.17	11.79	6.42
	400만 원대	18.48	9.04	3.81	10.71	5.00
	500만 원 이상	23.61	8.53	4.97	13.86	7.12
학력	중졸 이하	10.88	3.68	3.06	6.72	2.79
	고졸	17.73	6.23	3.91	10.03	6.04
	대졸 이상	23.33	9.70	5.58	13.30	6.3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67	7.51	4.56	9.95	6.2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9.44	7.74	4.67	13.64	7.53
	고용주·자영자	21.21	6.65	5.10	10.50	5.76
	무급가족 종사자	10.88	5.31	6.84	7.06	2.97
	실업자	23.00	12.82	8.86	18.34	10.10
	비경제활동인구	15.91	6.75	3.31	10.46	4.08
직업	관리자·전문가	27.61	13.91	9.79	20.40	10.9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1.27	7.03	4.38	10.96	6.00
	숙련 및 기술직	15.16	4.96	3.29	5.59	4.40
	단순노무 종사자	15.14	3.54	3.62	5.98	4.7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07	7.70	4.73	10.13	6.44
	비정규직	18.84	7.30	4.29	12.53	6.9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77	6.95	5.32	9.88	5.60
	중도적	14.96	6.83	3.71	9.86	5.66
	진보적	23.17	8.15	4.77	13.22	5.70

주: 1)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름이나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163〉 가족과의 다툼이나 갈등 경험 I

(단위: %)

구분		경제적 부담 문제	가사 부담 문제	자녀 양육(교육) 문제	취업 또는 실업 문제
전체		19.99	11.66	12.32	7.95
성별	남성	18.56	10.52	10.57	7.98
	여성	21.46	12.83	14.12	7.93
연령	20대 이하	11.44	6.00	3.52	11.60
	30대	22.03	21.31	25.02	8.15
	40대	27.23	19.83	23.98	8.69
	50대	23.10	6.52	6.67	8.00
	60대 이상	14.81	4.09	1.45	3.25
지역	수도권	25.56	14.17	15.59	10.59
	비수도권	14.36	9.12	9.01	5.29
	대도시	21.12	12.34	12.83	10.86
	중소도시 농어촌	19.72 16.60	11.83 7.98	13.14 6.32	6.33 3.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18	7.67	7.21	11.75
	중하층	23.85	13.23	13.90	8.47
	중간층	14.02	12.18	13.06	6.21
	중상층(상층)	8.85	7.97	9.66	8.3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35	3.09	2.84	5.83
	200만 원대	25.33	9.17	9.33	7.00
	300만 원대	24.52	14.22	14.93	9.20
	400만 원대	19.48	14.58	18.21	7.61
	500만 원 이상	14.81	13.71	13.31	8.82
학력	중졸 이하	20.72	4.18	2.22	3.01
	고졸	22.07	10.42	10.5	8.70
	대졸 이상	17.48	15.82	18.1	9.0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03	15.12	15.72	7.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81	11.09	10.20	11.96
	고용주·자영자	21.26	9.94	10.18	4.86
	무급가족 종사자	15.79	7.52	5.87	7.33
	실업자	23.99	8.21	8.29	41.30
	비경제활동인구	18.28	10.13	11.84	5.77
직업	관리자·전문가	18.00	19.62	24.91	7.2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9.86	12.83	12.38	7.82
	숙련 및 기술직	20.11	9.14	8.60	5.45
	단순노무 종사자	30.92	8.81	6.61	8.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56	15.37	15.77	7.02
	비정규직	29.10	11.34	11.18	11.3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57	9.24	8.85	7.52
	중도적	18.45	10.57	11.18	7.61
	진보적	19.85	15.53	17.26	8.88

주: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로 가족과 다툼이나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164〉 가족과의 다툼이나 갈등 경험 II

(단위: %)

구분		가족 내 건강 혹은 간병 문제	생활양식 (종교, 가치관)과 성격 차이	고부갈등, 노부모 부양 문제	폭언 및 폭행(학대) 문제
전체		5.41	5.33	5.30	1.97
성별	남성	5.10	4.66	4.08	1.26
	여성	5.74	6.03	6.55	2.70
연령	20대 이하	2.42	3.93	1.28	0.59
	30대	4.68	7.08	7.35	2.94
	40대	6.87	6.36	7.74	3.45
	50대	6.04	6.14	5.86	1.55
	60대 이상	6.77	2.93	3.85	1.16
지역	수도권	6.70	6.04	7.13	2.95
	비수도권	4.11	4.61	3.45	0.98
	대도시	5.59	6.28	6.10	2.78
	중소도시 농어촌	5.17 5.82	4.82 3.81	4.87 3.98	1.47 0.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02	3.93	3.48	2.72
	중하층	5.58	5.68	6.02	1.81
	중간층	4.47	5.42	4.44	1.86
	중상층(상층)	5.00	5.87	11.06	1.9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50	2.60	1.97	1.52
	200만 원대	5.53	4.21	3.83	1.61
	300만 원대	5.84	5.90	6.57	3.21
	400만 원대	6.89	6.62	6.92	2.31
	500만 원 이상	3.71	6.12	5.84	1.27
학력	중졸 이하	8.14	2.79	3.67	2.27
	고졸	4.71	5.25	4.48	1.77
	대졸 이상	5.14	6.38	6.79	2.0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02	5.95	5.62	1.4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51	7.60	7.13	4.23
	고용주·자영자	3.92	2.78	4.42	1.28
	무급가족 종사자	4.26	0.00	9.30	1.02
	실업자	7.51	9.04	0.69	2.66
	비경제활동인구	6.46	5.44	5.06	2.11
직업	관리자·전문가	6.38	11.70	7.67	2.5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64	4.16	5.64	2.00
	숙련 및 기술직	4.44	3.76	3.57	0.51
	단순노무 종사자	10.22	3.93	7.66	3.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04	6.08	5.72	1.27
	비정규직	7.58	7.00	6.63	4.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5.85	6.19	6.78	2.26
	중도적	5.39	4.46	3.72	1.95
	진보적	5.04	5.82	6.24	1.74

주: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로 가족과 다툼이나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165〉 타인과의 갈등 및 폭력 발생과 고소고발 경험 I

(단위: %)

구분		가족			친구, 선후배		
		갈등 경험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 발생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	갈등 경험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 발생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
전체		12.57	4.70	2.52	4.63	2.58	0.28
성별	남성	11.55	4.54	3.47	4.89	3.61	0.52
	여성	13.63	4.85	1.69	4.37	1.39	0.00
연령	20대 이하	9.32	3.64	2.58	8.41	0.00	0.00
	30대	14.82	6.53	2.87	4.60	0.00	1.46
	40대	16.15	5.59	2.89	4.31	9.59	0.00
	50대	13.33	3.78	3.16	3.40	4.15	0.00
	60대 이상	8.68	2.43	0.00	2.63	0.00	0.00
지역	수도권	14.12	6.55	4.07	5.41	2.59	0.00
	비수도권	11.01	2.31	0.51	3.85	2.56	0.67
	대도시	17.53	4.74	2.35	6.71	0.98	0.00
	중소도시 농어촌	9.16 8.10	5.18 1.81	3.27 0.00	3.27 2.45	5.88 0.00	0.00 5.1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31	8.44	5.51	4.44	11.19	0.00
	중하층	14.70	2.98	1.88	5.90	1.39	0.60
	중간층	10.66	4.51	1.21	3.73	1.20	0.00
	중상층(상층)	7.24	9.03	9.03	3.94	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30	3.47	0.00	4.26	0.00	0.00
	200만 원대	12.86	3.03	2.00	4.36	4.07	0.00
	300만 원대	14.01	2.31	0.44	4.58	1.34	1.40
	400만 원대	13.49	9.84	7.51	4.79	7.39	0.00
	500만 원 이상	13.39	4.66	2.13	4.89	1.21	0.00
학력	중졸 이하	11.53	2.27	0.00	1.90	0.00	0.00
	고졸	12.24	6.25	3.68	4.89	4.28	0.00
	대졸 이상	13.33	3.97	2.20	5.38	1.26	0.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03	3.88	1.41	4.68	3.16	0.86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6.22	6.31	2.27	3.50	0.00	0.00
	고용주·자영자	10.45	2.74	2.74	3.75	7.66	0.00
	무급가족 종사자	14.91	0.00	0.00	4.57	0.00	0.00
	실업자	16.22	17.01	14.27	10.56	0.00	0.00
	비경제활동인구	11.60	4.52	2.28	4.89	1.11	0.00
직업	관리자·전문가	13.87	0.00	0.00	5.08	6.17	0.0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3.37	4.30	2.04	4.52	3.39	0.00
	숙련 및 기술직	10.78	3.18	0.00	3.94	3.55	2.37
	단순노무 종사자	13.33	9.88	7.41	1.37	0.00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21	3.78	1.12	4.90	3.30
비정규직	15.22	6.15	2.69	3.28	0.00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68	6.21	3.19	4.50	5.69	0.00
	중도적	10.46	2.36	0.91	3.68	2.31	0.00
	진보적	14.67	5.86	3.64	6.15	0.68	0.71

주: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갈등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신고·고소·고발을 하거나 당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166〉 타인과의 갈등 및 폭력 발생과 고소고발 경험 II

(단위: %)

구분		이웃			직장생활(업무, 거래관계)		
		갈등 경험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 발생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	갈등 경험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 발생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
전체		2.23	5.77	4.48	6.06	1.59	4.24
성별	남성	1.64	0.00	4.46	7.75	0.24	3.98
	여성	2.85	9.19	4.50	4.32	4.07	4.72
연령	20대 이하	1.16	0.00	0.00	3.89	0.00	0.00
	30대	2.56	20.28	20.52	10.38	2.02	4.57
	40대	2.72	0.00	0.00	7.88	0.55	5.99
	50대	2.16	6.54	0.00	5.09	0.00	4.14
	60대 이상	2.51	0.00	0.00	2.93	8.36	3.56
지역	수도권	3.00	6.57	6.65	8.29	2.08	3.13
	비수도권	1.46	4.10	0.00	3.81	0.50	6.69
	대도시	2.43	6.17	6.17	8.59	2.40	3.12
	중소도시 농어촌	2.19 1.61	6.28 0.00	3.54 0.00	4.34 3.67	0.45 0.00	4.92 11.4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0	0.00	0.00	4.98	0.00	2.09
	중하층	2.52	11.49	4.34	8.43	3.13	4.40
	중간층	1.52	3.55	3.55	5.11	0.00	4.87
	중상층(상층)	3.74	0.00	15.71	1.32	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2	0.00	0.00	2.47	0.00	5.78
	200만 원대	2.03	0.00	0.00	4.44	0.00	11.96
	300만 원대	3.23	11.63	9.73	8.08	5.93	4.16
	400만 원대	2.09	15.04	0.00	7.68	0.00	2.04
	500만 원 이상	1.94	0.00	5.88	6.41	0.00	2.86
학력	중졸 이하	2.61	0.00	0.00	2.41	12.61	3.99
	고졸	2.24	3.04	0.00	5.19	0.00	0.73
	대졸 이상	2.08	11.67	11.80	8.39	1.44	6.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6	0.00	0.00	11.15	0.27	1.5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08	0.00	0.00	7.59	0.00	2.48
	고용주·자영자	1.97	3.26	9.83	6.10	4.00	10.43
	무급가족 종사자	5.53	0.00	0.00	3.61	0.00	0.00
	실업자	0.00	-	-	6.06	0.00	0.00
	비경제활동인구	2.52	14.25	7.71	0.70	17.47	26.19
직업	관리자·전문가	2.98	0.00	0.00	10.39	1.03	4.51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22	1.54	4.64	8.42	1.55	2.99
	숙련 및 기술직	1.40	0.00	0.00	10.5	0.00	4.08
	단순노무 종사자	2.83	0.00	0.00	4.25	0.00	2.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3	0.00	0.00	11.38	0.00	1.65
	비정규직	3.41	0.00	0.00	7.82	0.87	1.9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5	3.07	7.99	5.80	0.59	2.18
	중도적	2.11	6.29	4.37	5.69	3.52	6.39
	진보적	1.94	8.51	0.00	6.86	0.00	3.25

주: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갈등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신고·고소·고발을 하거나 당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167〉 타인과의 갈등 및 폭력 발생과 고소고발 경험 III

(단위: %)

구분		우연히 만난 사람(길거리, 지하철 등)			사고로 만난 사람(교통사고 등)		
		갈등 경험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 발생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	갈등 경험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 발생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
전체		0.97	11.67	5.60	0.78	3.41	16.87
성별	남성	1.20	14.81	5.13	0.73	0.00	5.38
	여성	0.74	6.39	6.39	0.84	6.48	27.2
연령	20대 이하	0.94	16.73	0.00	0.25	0.00	0.00
	30대	1.71	7.11	7.11	1.36	0.00	0.00
	40대	1.08	4.04	0.00	1.39	8.88	11.91
	50대	0.56	18.41	18.41	0.59	0.00	61.38
	60대 이상	0.61	25.17	8.12	0.27	0.00	38.98
지역	수도권	1.62	10.09	2.84	1.14	4.66	12.19
	비수도권	0.31	19.96	20.00	0.42	0.00	29.66
	대도시	1.24	14.34	8.63	1.00	6.36	14.26
	중소도시	0.94	8.60	2.10	0.63	0.00	23.79
	농어촌	0.00	-	-	0.59	0.00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2	50.14	21.34	1.24	0.00	24.55
	중하층	1.26	2.06	2.07	0.34	0.00	7.32
	중간층	0.86	14.23	6.23	0.85	0.00	5.46
	중상층(상층)	0.65	0.00	0.00	1.87	22.69	50.8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50	69.03	29.38	0.68	0.00	42.52
	200만 원대	0.20	0.00	0.00	0.44	0.00	29.39
	300만 원대	1.09	28.44	14.90	1.24	0.00	17.05
	400만 원대	2.07	0.00	0.00	0.82	0.00	0.00
	500만 원 이상	0.91	0.00	0.00	0.70	11.85	11.85
학력	중졸 이하	0.97	14.60	14.60	0.48	0.00	58.06
	고졸	0.60	11.15	0.00	0.59	10.30	23.10
	대졸 이상	1.37	11.14	5.84	1.10	0.00	6.4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4	5.49	0.00	0.90	0.00	3.18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28	15.29	15.29	0.88	0.00	0.00
	고용주·자영자	1.22	12.74	0.00	0.70	0.00	32.35
	무급가족 종사자	0.00	-	-	0.00	-	-
	실업자	5.62	0.00	0.00	1.07	0.00	0.00
	비경제활동인구	0.74	22.05	13.70	0.71	11.65	34.79
직업	관리자·전문가	1.08	9.89	0.00	1.36	0.00	0.0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0	8.30	0.00	0.72	0.00	20.17
	숙련 및 기술직	0.23	0.00	0.00	1.01	0.00	0.00
	단순노무 종사자	1.10	34.59	34.59	0.00	-	-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6	0.00	0.00	0.93	0.00
비정규직	1.09	20.54	14.34	0.82	0.00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8	25.82	9.65	0.85	0.00	22.87
	중도적	1.09	10.88	6.60	0.27	0.00	0.00
	진보적	0.88	0.00	0.00	1.48	6.18	18.27

주: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갈등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신고·고소·고발을 하거나 당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168〉 타인과의 갈등 및 폭력 발생과 고소고발 경험 IV

(단위: %)

구분		공공기관(경찰, 공무원 등)		
		갈등 경험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 발생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
전체		1.12	5.39	12.53
성별	남성	1.23	6.87	21.05
	여성	1.01	3.53	1.84
연령	20대 이하	1.25	0.00	12.50
	30대	1.48	0.00	13.15
	40대	1.61	12.23	14.84
	50대	0.46	17.94	0.00
	60대 이상	0.79	0.00	14.17
지역	수도권	1.94	4.38	11.23
	비수도권	0.29	12.29	21.39
	대도시	1.36	0.00	8.95
	중소도시 농어촌	1.11 0.17	11.39 0.00	16.80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1	33.04	33.04
	중하층	1.61	2.98	11.50
	중간층	0.56	0.00	12.34
	중상층(상층)	2.54	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9	0.00	0.00
	200만 원대	0.33	0.00	0.00
	300만 원대	1.20	0.00	24.97
	400만 원대	2.29	15.47	10.97
	500만 원 이상	0.89	0.00	12.83
학력	중졸 이하	0.84	0.00	0.00
	고졸	1.13	12.15	16.09
	대졸 이상	1.21	0.00	12.2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0	0.00	14.5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97	0.00	0.00
	고용주·자영자	1.49	14.92	32.77
	무급가족 종사자	2.71	0.00	0.00
	실업자	1.07	0.00	0.00
	비경제활동인구	0.62	8.76	0.00
직업	관리자·전문가	2.50	0.00	26.5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52	7.82	14.92
	숙련 및 기술직	0.23	0.00	0.00
	단순노무 종사자	1.47	0.00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9	0.00	4.59
	비정규직	2.43	0.00	10.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8	13.24	13.24
	중도적	0.71	5.69	9.64
	진보적	1.66	0.00	13.88

주: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갈등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신고·고소·고발을 하거나 당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부표 3-169〉 생활수준 인식 1: 지난 10년 동안의 생활수준

(단위: %)

구분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χ^2
전체		1.28	27.99	53.92	14.07	2.73	
성별	남성	1.68	27.63	54.07	13.42	3.20	9.606**
	여성	0.86	28.37	53.78	14.74	2.25	
연령	20대 이하	2.40	28.38	57.98	9.65	1.59	152.170***
	30대	1.64	34.35	54.19	8.46	1.36	
	40대	1.21	31.95	50.65	13.85	2.34	
	50대	0.57	26.72	53.96	14.73	4.02	
	60대 이상	0.67	18.20	53.30	23.59	4.24	
지역	수도권	1.49	28.02	53.15	14.04	3.30	6.344
	비수도권	1.06	27.97	54.71	14.10	2.16	
	대도시	1.02	28.26	52.70	15.11	2.91	6.682
	중소도시 농어촌	1.52 1.22	28.24 25.73	54.65 55.59	13.11 14.30	2.48 3.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30	10.46	41.86	33.13	14.25	799.227***
	중하층	0.74	22.39	58.95	16.54	1.38	
	중간층	1.00	36.31	55.24	6.97	0.48	
	중상층(상층)	8.50	43.02	43.03	5.45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16	12.27	49.11	28.62	9.84	460.400***
	200만 원대	0.77	20.90	54.10	20.71	3.52	
	300만 원대	1.29	23.78	56.95	16.03	1.96	
	400만 원대	1.39	32.12	58.33	7.50	0.67	
	500만 원 이상	1.98	39.02	51.98	6.37	0.65	
학력	중졸 이하	0.33	17.42	51.37	25.46	5.41	148.250***
	고졸	1.24	26.59	55.61	14.47	2.09	
	대졸 이상	1.68	33.51	53.07	9.33	2.4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7	33.80	55.36	8.13	1.13	198.46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7	26.98	45.92	21.11	4.62	
	고용주·자영자	1.18	29.05	51.50	15.95	2.32	
	무급가족 종사자	0.90	26.44	53.68	17.65	1.33	
	실업자	0.00	7.12	48.76	30.68	13.44	
	비경제활동인구	1.18	24.29	57.26	14.39	2.88	
직업	관리자·전문가	2.58	36.95	50.39	8.88	1.19	73.13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02	31.32	53.12	12.86	1.68	
	숙련 및 기술직	1.33	26.96	57.84	12.16	1.71	
	단순노무 종사자	2.12	28.90	39.14	22.76	7.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3	34.00	55.81	7.58	1.18	68.699***
	비정규직	1.72	27.89	46.82	19.73	3.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4	26.35	50.94	17.77	3.90	33.019***
	중도적	0.93	28.17	55.45	13.13	2.32	
	진보적	2.02	29.28	54.46	12.00	2.24	

주: 1)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0〉 생활수준 인식 II: 앞으로 10년 이내의 생활수준 변화 예측

(단위: %)

구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χ^2
전체		1.94	37.35	49.55	10.23	0.92	
성별	남성	2.08	37.51	49.17	10.09	1.15	2.977
	여성	1.80	37.20	49.94	10.38	0.68	
연령	20대 이하	4.19	50.33	39.84	4.78	0.86	445.619***
	30대	2.65	51.67	40.36	4.81	0.51	
	40대	2.32	39.69	50.82	5.94	1.24	
	50대	0.51	30.00	55.38	13.62	0.50	
	60대 이상	0.15	15.68	60.48	22.19	1.49	
지역	수도권	2.15	39.26	48.00	9.45	1.14	10.997**
	비수도권	1.73	35.43	51.12	11.03	0.69	
	대도시	1.92	37.67	48.35	10.94	1.12	16.886**
	중소도시 농어촌	1.99 1.78	38.61 30.11	49.45 55.06	9.09 12.71	0.86 0.3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8	20.97	53.86	19.60	4.19	249.387***
	중하층	1.78	33.86	51.24	12.68	0.44	
	중간층	1.99	44.67	46.91	6.12	0.32	
	중상층(상층)	3.82	44.37	48.20	3.18	0.4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3	17.43	55.58	23.19	2.78	300.621***
	200만 원대	1.16	32.32	51.72	13.40	1.41	
	300만 원대	2.69	34.31	52.64	10.01	0.34	
	400만 원대	2.68	44.85	47.44	4.68	0.35	
	500만 원 이상	1.89	46.93	44.83	5.86	0.48	
학력	중졸 이하	0.10	14.29	59.92	23.72	1.97	290.032***
	고졸	1.63	38.44	49.69	9.55	0.69	
	대졸 이상	2.97	44.91	45.49	5.86	0.7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9	43.98	47.02	5.48	0.93	116.53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52	33.50	48.49	15.95	1.54	
	고용주·자영자	1.97	39.36	47.63	10.59	0.46	
	무급가족 종사자	0.00	23.97	59.24	16.79	0.00	
	실업자	0.00	32.75	44.87	19.17	3.21	
	비경제활동인구	2.11	32.40	53.35	11.34	0.79	
직업	관리자·전문가	3.07	42.88	48.43	4.61	1.00	84.94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74	44.29	45.83	7.38	0.76	
	숙련 및 기술직	1.79	32.90	52.64	12.26	0.42	
	단순노무 종사자	1.95	26.82	48.45	20.40	2.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23	44.25	46.87	5.70	0.95	35.307***
	비정규직	1.67	34.97	48.52	13.45	1.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4	29.75	52.74	15.22	0.96	98.655***
	중도적	1.59	36.53	51.49	9.36	1.03	
	진보적	3.02	45.71	43.70	6.85	0.71	

주: 1)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1〉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1: 세대 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기대

(단위: %)

구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χ^2
전체		1.18	41.71	37.67	15.52	3.92	
성별	남성	1.33	40.97	37.86	16.86	2.98	14.680***
	여성	1.04	42.47	37.47	14.14	4.89	
연령	20대 이하	2.42	48.35	34.67	10.96	3.61	67.670***
	30대	0.81	46.79	36.18	12.70	3.52	
	40대	1.00	40.81	36.01	18.10	4.08	
	50대	0.63	37.85	38.97	18.83	3.72	
	60대 이상	1.15	35.33	42.58	16.27	4.66	
지역	수도권	0.97	44.08	32.48	17.18	5.30	60.090***
	비수도권	1.40	39.31	42.92	13.84	2.53	
	대도시	1.14	41.50	35.58	17.01	4.77	14.154*
	중소도시 농어촌	1.09 1.81	41.83 41.99	39.32 38.58	14.54 13.94	3.22 3.6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2	25.49	36.40	33.00	4.89	311.522***
	중하층	0.80	34.10	43.04	18.24	3.82	
	중간층	1.73	51.05	34.89	8.69	3.65	
	중상층(상층)	1.84	58.35	28.51	7.09	4.2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8	30.72	40.58	23.22	4.00	106.131***
	200만 원대	0.66	35.84	42.49	17.72	3.29	
	300만 원대	1.65	40.13	36.09	16.77	5.36	
	400만 원대	0.67	42.52	39.77	13.48	3.56	
	500만 원 이상	1.28	50.17	33.90	11.14	3.50	
학력	중졸 이하	0.80	30.33	45.41	19.42	4.03	45.445***
	고졸	0.98	42.84	36.47	15.58	4.14	
	대졸 이상	1.55	44.79	36.03	13.98	3.6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4	41.82	37.66	15.44	3.34	66.20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51	37.58	34.29	20.62	7.00	
	고용주·자영자	0.98	40.89	39.02	16.70	2.40	
	무급가족 종사자	0.76	45.94	33.37	11.10	8.83	
	실업자	0.59	34.91	33.60	28.09	2.81	
	비경제활동인구	1.08	43.91	38.76	12.14	4.10	
직업	관리자·전문가	3.15	49.64	29.10	13.92	4.19	38.73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15	40.88	37.76	16.36	3.84	
	숙련 및 기술직	0.88	38.00	41.11	17.17	2.84	
	단순노무 종사자	0.00	35.08	38.23	20.50	6.1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1	42.01	37.43	15.51	3.43	12.073**
	비정규직	1.02	38.00	35.42	19.46	6.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6	37.90	39.96	17.68	3.40	21.498***
	중도적	0.87	42.20	36.83	15.70	4.39	
	진보적	1.76	44.55	36.76	13.22	3.70	

주: 1) “__님께서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2〉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II: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단위: %)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2.45	48.90	32.28	7.42	8.96	
성별	남성	2.42	47.25	33.60	7.59	9.15	4.679
	여성	2.48	50.60	30.92	7.25	8.76	
연령	20대 이하	2.48	51.01	29.97	4.82	11.72	51.919***
	30대	3.57	50.89	28.82	6.22	10.50	
	40대	2.53	47.68	32.08	8.09	9.62	
	50대	1.27	48.94	33.65	9.05	7.09	
	60대 이상	2.51	46.14	36.73	8.64	5.98	
지역	수도권	2.98	47.74	31.26	6.82	11.2	30.433***
	비수도권	1.91	50.06	33.31	8.02	6.69	
	대도시	2.81	49.15	29.95	7.75	10.34	25.827***
	중소도시 농어촌	2.05 2.81	48.01 52.02	34.84 29.88	6.58 10.03	8.52 5.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1	38.63	32.60	15.08	12.09	102.312***
	중하층	3.01	46.77	33.65	7.45	9.12	
	중간층	1.89	52.96	31.30	5.46	8.39	
	중상층(상층)	4.86	56.54	30.32	3.42	4.8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8	40.92	37.45	11.37	8.88	46.265***
	200만 원대	2.55	45.94	34.06	8.83	8.62	
	300만 원대	2.64	48.56	31.88	7.59	9.33	
	400만 원대	3.05	51.99	31.00	5.11	8.85	
	500만 원 이상	2.47	52.53	29.95	6.07	8.99	
학력	중졸 이하	0.97	43.41	36.98	11.20	7.43	35.315***
	고졸	2.31	49.77	32.58	6.34	9.00	
	대졸 이상	3.15	50.04	30.17	7.15	9.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6	47.98	33.28	7.16	8.62	37.66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0	43.32	33.78	8.53	13.38	
	고용주·자영자	1.40	50.50	33.52	6.72	7.86	
	무급가족 종사자	3.50	51.02	29.09	7.48	8.91	
	실업자	3.19	47.78	30.43	13.52	5.08	
	비경제활동인구	2.92	50.73	30.46	7.08	8.81	
직업	관리자·전문가	3.28	50.97	29.28	6.52	9.95	23.20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13	48.90	31.93	7.04	10.01	
	숙련 및 기술직	1.92	46.50	37.46	8.39	5.72	
	단순노무 종사자	1.30	41.74	38.03	7.26	11.6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9	48.17	33.15	7.01	
비정규직	1.31	43.85	33.94	8.58	12.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4	46.92	34.23	8.79	7.01	42.577***
	중도적	1.04	50.75	32.31	6.23	9.67	
	진보적	3.97	48.01	30.41	7.89	9.72	

주: 1) “___님께서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3) 사회통합 인식

구분	전혀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⑧	⑨	매우 잘 이루지고 있다 ⑩	χ^2
전체	1.58	8.54	15.80	15.16	31.98	11.83	9.07	3.15	0.16	0.10	
성별	남성	2.39	8.69	16.26	16.17	30.20	10.75	9.08	0.17	0.07	30.123***
	여성	0.75	8.39	15.33	14.12	33.81	12.95	9.06	0.16	0.13	
연령	20대 이하	1.85	7.99	15.13	15.06	31.13	10.98	11.47	0.00	0.24	
	30대	1.78	8.16	15.13	15.20	31.72	13.25	8.08	0.08	0.17	
	40대	1.57	8.86	17.85	14.00	32.35	9.04	10.29	0.26	0.00	52.870*
	50대	1.90	8.57	16.22	13.49	31.62	13.49	9.12	0.12	0.11	
	60대 이상	0.79	9.08	14.35	18.40	33.05	12.59	6.25	3.18	0.35	0.00
지역	수도권	2.19	8.77	17.26	14.86	31.27	11.61	8.04	0.06	0.04	59.185***
	비수도권	0.97	8.31	14.33	15.47	32.69	12.06	10.12	0.27	0.16	
	대도시	1.69	8.38	14.84	16.41	31.06	12.25	9.82	0.05	0.21	
주관적 소득계층	중소도시	1.43	8.19	16.97	14.41	31.75	11.76	8.64	0.30	0.00	36.777**
	농어촌	1.86	10.86	14.25	13.52	36.88	10.41	8.03	0.00	0.14	
	하층	2.48	11.83	18.90	19.01	28.83	5.49	5.37	3.08	0.39	0.00
	중하층	1.76	8.09	16.28	17.53	28.81	12.82	9.73	3.14	0.16	0.17
	중간층	1.10	8.06	14.44	12.86	35.08	13.04	9.64	3.01	0.12	0.05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1.87	7.05	15.33	8.55	36.20	12.16	9.70	4.26	0.00	110.229***
	200만 원 미만	1.07	8.71	14.14	17.54	36.14	11.88	5.35	3.14	0.32	0.00
	200만 원대	2.28	8.72	16.79	15.17	32.39	10.94	8.27	3.46	0.00	0.29
	300만 원대	1.52	10.81	15.55	15.23	30.97	11.02	7.63	3.95	0.09	0.12
	400만 원대	1.40	8.14	16.91	15.32	28.96	11.65	12.49	2.36	0.30	0.11
500만 원 이상	1.35	7.21	15.72	14.00	32.12	12.88	10.27	2.93	0.15	0.04	

추: 1)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4〉 사회통합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⑧	⑨	매우 잘 이루지고 있다 ⑩	χ^2
학력	중졸 이하	2.08	9.97	16.09	16.81	33.37	10.70	7.14	2.64	0.15	28.319
	고졸	2.43	8.71	15.96	15.42	31.32	11.74	10.14	2.87	0.11	
	대졸 이상	3.02	7.83	15.52	14.26	32.17	12.36	8.66	3.63	0.1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1	7.62	16.25	15.61	31.62	11.64	9.31	3.50	0.00	68.75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3	11.84	16.19	13.90	30.47	10.27	8.05	3.91	0.00	
	고용주·자영자	1.44	9.45	14.29	14.08	34.29	11.70	9.63	2.21	0.00	
	무급가족 종사자	0.00	11.92	12.13	15.02	41.46	7.73	6.93	2.08	1.05	
	실업자	4.17	5.22	18.27	9.68	26.72	15.76	7.73	6.56	0.91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11	7.91	16.12	16.37	31.37	12.51	9.14	2.82	0.17	69.139***
	관리자·전문가	4.11	5.58	19.46	12.40	36.14	9.35	6.05	4.03	0.0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20	9.04	14.32	14.33	31.86	11.45	11.50	3.05	0.16	
	숙련 및 기술직	1.85	9.89	13.93	16.80	32.82	12.61	7.37	2.51	0.17	
	단순노무 종사자	0.67	12.41	20.70	17.07	30.80	10.08	2.97	3.79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9	7.57	16.59	15.16	31.34	11.76	9.41	3.70	0.00	10.343
	비정규직	2.71	11.12	15.48	15.19	31.28	10.28	8.08	3.41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0	9.68	16.36	15.13	32.90	10.66	7.12	3.43	0.05	55.596***
	중도적	0.83	8.58	16.31	14.67	34.39	10.70	8.95	3.02	0.16	
	진보적	2.77	7.43	14.53	15.93	27.56	14.61	11.08	3.07	0.10	

주: 1)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5〉 사회상 인식 1 :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

(단위: %)

구분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 배려와 포용의 사회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12	2.28	6.48	17.25	23.07	25.65	13.30	8.03	1.91	0.88	0.02		
성별	남성	1.37	2.63	7.34	17.75	22.17	25.88	12.70	7.09	2.19	0.87	18.093*	
	여성	0.86	1.92	5.60	16.74	23.99	25.42	13.92	8.99	1.62	0.90		
	20대 이하	1.63	2.16	4.89	16.72	22.72	27.07	13.55	7.12	2.12	2.03		
연령	30대	1.91	2.56	7.94	16.57	23.20	24.99	12.75	7.54	1.99	0.52		
	40대	1.11	3.15	6.13	19.10	20.12	27.02	12.46	8.26	1.50	1.07	84.211****	
	50대	0.58	2.45	6.74	16.37	24.98	21.98	12.79	10.99	2.95	0.18		
	60대 이상	0.43	0.95	6.71	17.36	24.52	27.44	15.12	5.88	0.92	0.68		
	수도권	1.76	3.32	8.48	20.61	21.22	24.28	11.42	7.49	1.33	0.09	137.381****	
지역	비수도권	0.47	1.23	4.45	13.86	24.94	27.04	15.20	8.57	2.49	1.68		
	대도시	1.47	2.63	7.87	17.20	22.14	25.65	12.97	8.32	1.27	0.48		
	중소도시	0.92	1.90	5.57	17.72	24.08	24.07	13.36	8.23	2.68	1.43	54.778****	
	농어촌	0.62	2.65	4.98	15.28	22.14	33.16	14.39	5.86	0.91	0.00		
	하층	1.81	6.35	11.16	24.06	22.96	19.59	5.87	4.91	2.02	1.27		
주관적 소득계층	중하층	1.15	1.55	6.41	17.78	25.14	25.23	12.86	6.86	1.75	1.28		
	중간층	0.91	1.36	4.98	14.78	22.29	28.00	15.10	9.78	2.23	0.55	188.662****	
	중상층(상층)	0.83	3.65	6.60	15.83	16.66	25.73	20.29	9.84	0.30	0.00		
	200만 원 미만	0.6	2.5	7.7	18.3	26.5	24.6	12.9	5.4	1.1	0.6		
월평균 소득	200만 원대	0.8	1.8	8.4	17.3	23.7	25.6	13.1	7.3	1.4	0.6		
	300만 원대	1.8	2.3	7.4	17.8	20.4	27.4	12.2	7.9	2.1	0.7		
	400만 원대	1.2	2.4	5.9	17.6	22.9	24.6	13.4	8.5	2.6	1.0		
	500만 원 이상	1.1	2.2	4.7	16.3	23.1	25.6	14.3	9.5	2.0	1.2		
	44.602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6〉 사회상 인식 1 :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vs. 배려와 포용의 사회

(단위: %)

구분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 배려와 포용의 사회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0.31	2.11	17.76	24.41	25.98	13.40	5.98	0.95	0.86	0.00	0.31	2.11	17.76	24.41	25.98	13.40	5.98	0.95	0.86	0.00	40.064***
	고졸	1.05	1.71	18.18	24.01	25.32	13.71	7.85	2.26	1.02	0.05	1.05	1.71	18.18	24.01	25.32	13.71	7.85	2.26	1.02	0.05	
	대졸 이상	1.51	2.96	16.07	21.55	25.90	12.83	8.99	1.89	0.75	0.00	1.51	2.96	16.07	21.55	25.90	12.83	8.99	1.89	0.75	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5	5.51	17.67	23.26	24.88	13.55	8.61	1.73	0.70	0.00	0.95	5.51	17.67	23.26	24.88	13.55	8.61	1.73	0.70	0.00	82.57***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3	3.87	19.63	21.12	24.93	8.71	8.22	2.28	1.45	0.15	2.13	3.87	19.63	21.12	24.93	8.71	8.22	2.28	1.45	0.15	
	고용주·자영자	1.07	1.12	17.59	23.41	26.00	12.67	9.06	2.50	0.44	0.03	1.07	1.12	17.59	23.41	26.00	12.67	9.06	2.50	0.44	0.03	
	무급가족 종사자	0.00	0.00	22.44	27.50	28.73	11.66	6.13	0.67	0.63	0.00	0.00	0.00	22.44	27.50	28.73	11.66	6.13	0.67	0.63	0.00	
	실업자	0.00	2.69	15.10	19.56	20.13	12.96	10.15	1.49	2.28	0.00	0.00	2.69	15.10	19.56	20.13	12.96	10.15	1.49	2.28	0.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15	1.68	15.65	23.42	26.82	15.16	6.70	1.73	1.01	0.00	1.15	1.68	15.65	23.42	26.82	15.16	6.70	1.73	1.01	0.00	44.708**
	관리자·전문가	1.22	5.84	20.36	20.33	25.68	13.07	7.13	2.37	0.65	0.00	1.22	5.84	20.36	20.33	25.68	13.07	7.13	2.37	0.65	0.0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1.64	2.05	16.88	23.71	24.60	11.98	9.80	2.39	0.78	0.05	1.64	2.05	16.88	23.71	24.60	11.98	9.80	2.39	0.78	0.05	
	숙련 및 기술직	0.34	2.33	16.81	23.80	27.55	13.12	8.34	1.52	0.80	0.05	0.34	2.33	16.81	23.80	27.55	13.12	8.34	1.52	0.80	0.05	
	단순노무 종사자	0.00	5.09	25.90	21.54	24.28	12.10	3.82	0.34	0.62	0.00	0.00	5.09	25.90	21.54	24.28	12.10	3.82	0.34	0.62	0.00	
직업만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8	3.40	17.93	22.82	24.54	13.41	8.87	1.83	0.76	0.00	0.98	3.40	17.93	22.82	24.54	13.41	8.87	1.83	0.76	0.00	10.455
	비정규직	1.85	3.22	18.69	22.45	25.61	9.95	7.75	1.96	1.17	0.12	1.85	3.22	18.69	22.45	25.61	9.95	7.75	1.96	1.17	0.1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7	1.91	18.42	21.96	24.93	15.31	7.12	1.77	0.60	0.02	0.57	1.91	18.42	21.96	24.93	15.31	7.12	1.77	0.60	0.02	37.527***
	중도적	1.21	2.02	16.80	24.73	26.71	11.69	7.96	2.05	1.38	0.00	1.21	2.02	16.80	24.73	26.71	11.69	7.96	2.05	1.38	0.00	
	진보적	1.51	3.01	16.84	21.65	24.77	13.79	8.98	1.82	0.43	0.06	1.51	3.01	16.84	21.65	24.77	13.79	8.98	1.82	0.43	0.06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7〉 사회상 인식 II :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vs.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단위: %)

구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0.99	2.04	6.78	15.62	22.77	27.74	15.07	6.85	1.50	0.64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10.546	
성별	남성	1.24	2.09	7.44	15.06	22.88	28.10	13.98	7.16	1.38	0.68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10.546
	여성	0.72	1.99	6.11	16.20	22.65	27.37	16.19	6.53	1.62	0.6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546
연령	20대 이하	1.39	2.11	6.86	14.88	22.60	26.47	16.98	6.47	1.39	0.8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3.883*
	30대	1.90	2.49	8.99	15.46	20.29	27.71	14.58	6.24	1.70	0.61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53.883*
	40대	0.40	2.80	6.04	17.83	22.62	26.96	14.04	7.32	1.18	0.8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3.883*
	50대	0.91	1.44	5.82	15.11	22.57	28.26	14.83	8.52	2.27	0.2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3.883*
	60대 이상	0.43	1.35	6.41	14.58	25.79	29.34	15.07	5.45	0.92	0.6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3.883*
	수도권	1.35	2.88	9.29	18.87	20.62	27.18	13.56	5.38	0.82	0.0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1.479***
지역	비수도권	0.62	1.20	4.24	12.33	24.93	28.31	16.58	8.33	2.18	1.26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141.479***
	대도시	1.3	2.1	8.7	16.6	20.3	26.7	16.8	6.0	1.2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6.758***
	중소도시	0.8	2.2	5.3	15.3	24.1	27.8	13.9	7.6	2.1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6.758***
	농어촌	0.4	1.3	5.8	13.4	27.1	31.9	13.2	6.9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6.75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1	5.42	10.11	20.86	23.33	22.87	10.07	4.46	1.25	0.6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2.699***
	중하층	1.23	1.63	6.52	15.80	24.34	27.41	14.20	6.40	1.39	1.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2.699***
	중간층	0.80	1.13	5.80	14.40	21.13	29.49	17.01	8.00	1.85	0.37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112.699***
	중상층(상층)	0.83	3.10	7.48	11.14	23.58	28.64	17.98	6.98	0.2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2.699***
	200만 원 미만	0.58	1.64	5.04	17.77	24.68	27.44	14.72	6.74	1.11	0.2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4.981
월평균 소득	200만 원대	0.56	1.63	7.37	15.73	24.17	28.04	14.89	5.37	1.33	0.9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4.981
	300만 원대	1.31	3.10	6.83	15.37	24.16	27.35	13.28	5.91	2.14	0.5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4.981
	400만 원대	1.80	1.74	7.10	14.19	21.29	27.20	17.74	6.21	1.67	1.0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4.981
	500만 원 이상	0.76	1.80	7.13	15.41	21.22	28.36	15.07	8.48	1.25	0.5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4.981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8〉 사회상 인식 II :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vs.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단위: %)

구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χ ²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0.63	2.03	7.65	16.62	24.66	27.72	14.21	4.72	1.02	0.75	0.00	0.87	1.36	5.58	16.24	22.79	27.34	17.10	6.51	1.43	0.75	0.01	38.579***
	고졸	1.24	2.78	7.75	14.57	22.03	28.17	13.20	8.02	1.75	0.48	0.00	0.65	3.25	5.33	15.12	23.45	28.84	14.97	6.88	0.91	0.61	0.00	
	대졸 이상	1.55	2.11	8.18	17.75	24.09	23.21	14.69	5.95	1.82	0.65	0.00	0.99	1.48	6.34	15.44	22.04	28.69	14.99	7.56	2.09	0.37	0.03	
경제활동 상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0	0.00	1.74	17.91	32.56	30.72	12.07	3.78	0.00	1.23	0.00	0.00	2.96	13.84	13.92	22.81	27.71	10.80	4.22	2.08	1.66	0.00	70.223***
	고용주·자영업자	1.29	1.22	7.60	15.50	21.41	27.47	15.98	7.19	1.66	0.68	0.00	1.99	2.92	6.18	16.51	20.08	29.27	15.07	6.79	0.55	0.65	0.00	
	무급가족 종사자	0.96	2.15	6.01	15.57	22.95	28.48	14.40	7.19	1.85	0.42	0.00	0.36	2.21	5.55	15.16	25.39	26.84	15.90	6.52	1.00	1.02	0.05	
직업	단순노무 종사자	0.00	3.70	6.74	17.36	27.05	24.45	14.53	5.19	0.69	0.28	0.00	0.71	3.38	5.34	15.03	23.81	28.38	14.72	7.19	0.76	0.67	0.00	27.786
	직업인정성 (임금근로자)	1.25	2.05	7.60	17.43	23.20	25.27	15.26	5.49	1.94	0.52	0.00	0.58	1.65	7.38	14.80	22.84	29.54	12.67	7.73	2.19	0.60	0.02	
	비정규직	1.01	2.37	5.57	16.88	23.62	27.87	14.86	5.65	1.19	0.96	0.00	1.33	1.92	8.00	14.53	21.43	25.86	17.61	7.79	1.30	0.21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5	2.05	7.60	17.43	23.20	25.27	15.26	5.49	1.94	0.52	0.00	0.71	3.38	5.34	15.03	23.81	28.38	14.72	7.19	0.76	0.67	0.00	44.653***
	중도적	1.01	2.37	5.57	16.88	23.62	27.87	14.86	5.65	1.19	0.96	0.00	0.58	1.65	7.38	14.80	22.84	29.54	12.67	7.73	2.19	0.60	0.02	
	진보적	1.33	1.92	8.00	14.53	21.43	25.86	17.61	7.79	1.30	0.21	0.00	1.01	2.37	5.57	16.88	23.62	27.87	14.86	5.65	1.19	0.96	0.00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79〉 사회상 인식 III :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vs.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단위: %)

구분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0.58	1.43	4.26	10.48	19.59	32.89	18.62	9.54	2.14	0.37	0.09		
성별	남성	0.72	1.92	4.43	11.69	19.80	32.10	17.04	9.50	2.20	0.40	23.601***	
	여성	0.44	0.93	4.08	9.23	19.38	33.70	20.24	9.59	2.08	0.33		
연령	20대 이하	0.99	1.21	5.68	8.29	20.72	32.71	17.50	9.53	2.36	0.55	0.46	
	30대	1.26	1.28	3.57	12.23	17.81	32.92	18.84	10.48	1.50	0.09	0.03	
	40대	0.25	2.07	5.45	11.66	19.48	31.60	18.26	8.15	2.77	0.31	0.00	
	50대	0.16	1.56	3.64	9.79	20.64	30.23	19.71	10.94	2.64	0.70	0.00	
	60대 이상	0.34	0.94	2.88	10.33	19.21	37.47	18.71	8.66	1.30	0.17	0.00	
	수도권	0.84	1.65	5.06	12.74	19.09	32.63	17.16	9.00	1.59	0.15	0.09	
지역	비수도권	0.32	1.21	3.46	8.19	20.10	33.16	20.09	10.09	2.69	0.59	0.10	
	대도시	0.70	1.79	5.37	9.71	19.90	31.69	19.25	9.42	1.96	0.16	0.06	
	중소도시	0.49	1.05	3.28	11.47	19.29	32.35	18.63	10.09	2.60	0.63	0.11	
	농어촌	0.54	1.74	4.29	9.00	19.70	40.45	15.93	7.48	0.71	0.00	0.1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7	3.17	8.17	12.56	20.07	31.51	16.16	4.23	2.32	0.83	0.33	
	중하층	0.76	1.18	3.38	10.86	22.05	32.77	17.71	9.12	1.82	0.35	0.00	
	중간층	0.49	0.89	3.56	9.66	17.96	33.42	19.76	11.55	2.32	0.29	0.11	
	중상층(상층)	0.00	2.66	5.32	9.17	15.50	33.09	21.64	10.22	2.40	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15	1.29	4.30	10.75	22.98	34.40	16.59	7.30	2.26	0.00	0.00	
	200만 원대	0.51	2.74	4.15	10.67	18.63	31.50	20.78	8.39	1.66	0.95	0.00	
	300만 원대	1.31	1.63	5.08	10.20	20.83	32.81	15.61	10.38	1.89	0.14	0.12	
	400만 원대	0.82	0.24	4.47	11.06	17.27	33.61	19.03	10.76	1.93	0.42	0.38	
	500만 원 이상	0.24	1.38	3.56	10.17	18.88	32.66	20.16	9.98	2.59	0.37	0.02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80〉 사회상 인식 III :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vs.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단위: %)

구분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χ ²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1.37	3.93	10.83	19.89	36.58	16.67	8.39	1.33	0.81	0.00	22.573
	고졸	1.26	3.81	10.54	19.48	33.47	18.80	9.15	2.53	0.22	0.05	
	대졸 이상	1.64	4.87	10.27	19.60	30.87	19.16	10.40	2.03	0.36	0.1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34	5.06	9.67	18.58	31.66	20.16	10.49	1.75	0.53	0.15	95.15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1	4.24	10.02	16.49	35.54	16.07	10.95	2.85	0.63	0.16	
	고용주·자영업자	0.49	2.99	11.40	23.88	31.86	16.24	8.89	2.15	0.13	0.03	
	무급가족 종사자	0.00	1.99	9.51	16.97	48.96	13.50	3.47	1.40	0.60	0.00	
	실업자	0.00	4.23	14.06	19.20	19.70	21.56	6.61	5.18	0.00	0.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0.58	3.75	10.58	19.33	34.05	19.44	9.24	2.01	0.28	0.07	59.194***
	관리자·전문가	0.96	3.00	9.49	15.77	33.40	21.29	10.41	2.26	0.33	0.54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86	4.91	10.18	20.58	31.07	18.12	10.36	2.31	0.35	0.05	
	숙련 및 기술직	0.00	2.69	7.75	21.13	36.03	16.48	9.88	1.70	0.74	0.05	
	단순노무 종사자	0.00	0.89	17.77	17.27	37.05	16.42	5.70	0.91	0.34	0.00	
직업만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2	1.63	10.11	17.57	31.28	20.89	10.40	1.85	0.51	0.16	17.962*
	비정규직	1.48	3.97	9.02	19.00	35.57	15.34	11.05	2.42	0.64	0.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0	4.10	11.72	20.87	32.71	17.20	9.39	1.90	0.33	0.02	37.223**
	중도적	0.30	3.62	8.66	20.15	35.00	18.28	9.45	2.46	0.48	0.15	
	진보적	1.07	5.36	12.00	17.57	29.94	20.45	9.82	1.90	0.24	0.08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8〉 사회상 인식 IV: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구분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χ ²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0.84	2.48	12.78	23.12	26.47	18.27	7.68	2.22	0.15	0.05	
성별	남성	0.82	2.87	13.25	23.48	25.79	17.48	7.89	2.07	0.14	8.135
	여성	0.86	2.08	12.29	22.75	27.17	19.09	7.46	2.37	0.16	
연령	20대 이하	0.47	2.66	12.49	20.98	27.49	20.19	5.77	2.57	0.13	0.12
	30대	2.72	3.39	12.59	21.30	25.64	18.72	7.99	1.57	0.14	0.03
	40대	0.66	3.37	14.04	22.17	27.03	16.12	6.98	2.35	0.39	0.09
	50대	0.11	1.61	13.61	22.33	24.43	19.03	9.82	2.72	0.00	0.00
	60대 이상	0.34	1.35	10.91	29.03	27.90	17.52	7.67	1.81	0.07	0.00
	수도권	1.16	3.53	15.24	24.36	23.41	16.66	7.00	1.00	0.09	0.00
지역	비수도권	0.51	1.42	10.29	21.87	29.56	19.90	8.35	3.45	0.20	109.748***
	대도시	0.90	2.89	14.04	24.28	24.22	17.78	7.33	1.28	0.17	0.06
	중소도시	0.81	2.36	11.58	21.93	27.08	19.19	8.27	3.40	0.16	52.671***
	농어촌	0.69	1.35	13.21	23.94	32.91	15.98	6.32	0.54	0.00	0.00
	하층	1.24	5.08	15.17	29.07	20.94	11.30	5.70	2.16	0.22	0.00
주관적 소득계층	중하층	1.15	2.25	12.44	24.53	26.83	18.36	6.85	2.10	0.05	0.05
	중간층	0.56	1.89	12.65	20.15	27.64	19.91	9.62	2.40	0.12	110.949***
	중상층(상층)	0.00	1.98	10.26	22.00	28.79	22.26	3.62	1.75	0.73	0.00
	200만 원 미만	0.44	2.68	14.08	28.47	24.71	16.14	7.08	1.42	0.09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대	0.60	2.00	12.22	21.09	29.92	17.26	7.43	2.81	0.15	0.00
	300만 원대	1.27	2.81	12.95	23.98	27.51	16.02	8.22	1.45	0.22	55.781**
	400만 원대	1.11	2.77	9.50	21.46	25.93	20.03	9.50	2.96	0.00	0.00
	500만 원 이상	0.73	2.27	13.97	22.06	25.36	20.28	6.73	2.37	0.20	0.02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82〉 사회상 인식 IV: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단위: %)

구분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χ ²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2.24	5.79	11.81	27.63	26.40	17.41	6.85	1.58	0.09	0.00	29.918*
	고졸	1.93	5.65	13.06	22.82	26.03	18.98	7.86	2.86	0.15	0.01	
	대졸 이상	3.17	6.33	12.84	21.75	26.96	17.84	7.78	1.77	0.17	0.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2	6.23	11.83	20.43	27.76	20.22	7.34	1.75	0.22	0.06	97.76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73	6.31	13.79	27.30	25.32	12.95	8.58	2.98	0.17	0.00	
	고용주·자영업자	1.28	4.36	13.96	26.85	23.38	18.17	9.81	1.59	0.24	0.03	
	무급가족 종사자	0.78	5.34	8.45	29.35	33.96	13.25	6.88	1.99	0.00	0.00	
	실업자	3.50	14.14	16.67	21.52	20.00	15.14	6.70	2.32	0.00	0.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01	5.70	12.56	21.85	27.59	18.92	6.58	2.79	0.04	0.07	45.205**
	관리자·전문가	3.45	4.49	15.53	18.92	30.83	14.88	8.04	2.18	0.30	0.0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07	5.87	12.54	23.61	25.69	18.92	8.23	1.83	0.30	0.05	
	숙련 및 기술직	2.21	5.17	10.64	23.54	25.66	19.71	10.37	2.15	0.00	0.05	
	단순노무 종사자	1.37	7.21	14.17	33.61	24.03	14.12	3.89	1.60	0.00	0.00	
직업만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44	6.38	11.74	21.12	26.35	20.61	7.34	1.91	0.24	0.07	23.177**
	비정규직	1.23	5.98	13.60	24.51	28.74	13.56	8.34	2.39	0.13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8	5.49	13.13	26.23	24.84	17.74	6.46	3.19	0.21	0.02	44.604***
	중도적	2.12	5.56	11.87	23.97	27.46	18.76	7.66	1.86	0.00	0.04	
	진보적	3.39	6.96	13.79	18.95	26.52	18.05	8.83	1.83	0.30	0.08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83〉 사회상 인식 V: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vs.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단위: %)

구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02	2.12	5.34	14.12	21.1	28.3	17.92	7.57	2.32	0.12	0.07	21.989**
성별	남성	1.42	2.20	5.32	15.23	20.10	16.24	7.69	2.59	0.12	0.13	
	여성	0.62	2.04	5.36	12.98	22.12	19.65	7.45	2.05	0.11	0.00	
연령	20대 이하	1.72	2.19	4.53	12.41	18.53	16.78	6.78	3.46	0.22	0.12	70.331****
	30대	1.59	2.12	5.24	15.59	20.16	17.63	7.37	2.18	0.19	0.23	
	40대	0.63	2.55	6.07	16.45	20.59	15.62	8.48	2.19	0.10	0.00	
	50대	0.45	2.31	6.49	12.29	21.78	24.67	8.98	2.39	0.00	0.00	
	60대 이상	0.85	1.35	4.16	13.74	24.40	18.92	5.97	1.40	0.08	0.00	
	수도권	1.23	2.90	6.68	17.40	21.01	26.09	17.06	6.53	0.93	0.10	
지역	비수도권	0.81	1.33	3.99	10.81	21.19	30.54	18.79	8.62	3.73	0.13	101.742****
	대도시	1.27	2.43	6.56	14.88	20.11	18.27	7.03	1.28	0.04	0.06	
	중소도시	0.89	1.82	4.42	13.65	21.16	18.41	8.17	3.73	0.21	0.09	
	농어촌	0.64	2.23	4.64	13.20	24.88	33.25	14.17	6.98	0.00	0.00	
	하층	1.51	4.70	9.19	22.94	22.46	20.40	11.42	5.41	1.96	0.00	
주관적 소득계층	중하층	1.27	1.80	4.14	14.69	22.18	17.40	7.95	2.22	0.11	0.10	136.931****
	중간층	0.81	1.56	5.15	10.94	19.40	19.88	8.26	2.65	0.18	0.07	
	중상층(상층)	0.00	1.98	4.94	12.68	23.41	27.88	22.09	5.56	1.46	0.00	
	200만 원 미만	0.26	2.08	4.86	15.46	25.80	27.46	15.46	6.89	1.37	0.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대	1.01	1.89	6.23	13.86	19.84	30.68	17.43	6.70	1.85	0.00	53.667*
	300만 원대	1.44	3.05	5.48	13.85	20.86	27.96	17.43	7.57	2.13	0.12	
	400만 원대	1.79	1.73	3.92	14.06	19.31	28.41	20.31	7.38	3.09	0.00	
	500만 원 이상	0.73	1.89	5.82	13.74	20.57	27.80	18.40	8.34	2.71	0.00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표 3-184〉 사회상 인식 V: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길등이 심한 사회 vs.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단위: %)

구분	배려하지 않는 길등이 심한 사회 ◀-----▶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력	중졸 이하	1.69	6.25	15.20	25.50	25.83	17.10	5.98	1.54	0.00	0.00	19.873
	고졸	1.08	4.58	13.63	20.45	28.82	18.38	8.23	2.47	0.12	0.10	
	대졸 이상	1.00	5.82	14.24	20.14	28.68	17.73	7.46	2.46	0.16	0.0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8	4.76	13.58	19.57	29.16	20.01	6.55	2.52	0.13	0.12	89.9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7	2.72	5.53	23.91	26.51	11.03	8.66	3.06	0.32	0.00	
	고용주·자영자	0.63	4.49	13.71	23.74	28.10	15.84	10.51	1.21	0.19	0.03	
	무급가족 종사자	0.00	0.78	10.86	29.20	33.31	11.26	6.85	1.23	0.00	0.00	
	실업자	1.78	3.62	10.70	14.78	26.13	13.96	8.18	4.33	0.00	0.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20	1.48	14.08	20.16	28.09	20.34	6.44	2.41	0.00	0.07	70.879***
	관리자·전문가	2.40	3.29	10.35	19.84	28.48	18.59	7.95	2.87	0.00	0.0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0.87	3.98	14.58	22.62	28.25	17.09	8.43	2.03	0.22	0.00	
	숙련 및 기술직	0.38	2.12	5.92	19.72	30.45	17.47	9.27	2.64	0.00	0.05	
	단순노무 종사자	0.00	4.26	20.97	25.72	25.64	11.80	3.58	0.90	0.63	0.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2	2.85	14.30	18.41	28.89	20.08	6.70	2.75	0.08	0.13	27.442***
	비정규직	1.77	2.71	4.70	25.47	27.59	12.64	7.92	2.46	0.39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9	1.85	13.08	24.01	27.85	18.34	5.53	2.57	0.19	0.16	45.795***
	중도적	0.60	2.45	13.81	21.93	29.27	17.42	7.67	2.17	0.05	0.00	
	진보적	1.78	1.89	15.55	17.13	27.30	18.26	9.34	2.31	0.14	0.08	

주: 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 p<0.1, ** p<0.05, *** p<0.01

[부록 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4개년 지속 문항 비교

〈부표 4-1〉 응답자 특성별 행복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행복도	F값 (유의도)	행복도	F값 (유의도)	행복도	F값 (유의도)	행복도	F값 (유의도)
전체		6.2		6.0		6.5		6.7	
성별	남	6.1	8.16**	6.0	0.88	6.5	2.51	6.6	4.09*
	여	6.3		6.1		6.5		6.8	
연령대	20대 이하	6.6	17.26***	6.3	13.27***	6.8	14.85***	7.2	26.01***
	30대	6.4		6.1		6.7		6.9	
	40대	6.2		5.9		6.5		6.7	
	50대	5.9		6.0		6.3		6.6	
	60대	5.8		5.8		6.1		6.2	
학력	중졸 이하	5.6	57.35***	5.5	58.64***	6.0	41.17***	6.1	59.09***
	고졸	6.2		6.0		6.4		6.7	
	대졸 이상	6.6		6.3		6.8		7.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4	55.37***	5.3	66.11***	5.9	30.13***	5.8	55.77***
	200만 원대	6.1		5.8		6.4		6.6	
	300만 원대	6.2		6.2		6.5		6.7	
	400만 원대	6.5		6.3		6.6		7.0	
	500만 원 이상	7.0		6.5		6.9		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1	123.94***	4.8	213.34***	5.2	125.06***	5.3	148.09***
	중하층	6.1		5.9		6.2		6.6	
	중간층	6.8		6.5		6.9		7.1	
	중상층(상층)	7.4		7.1		7.5		7.8	
	상용직 임금근로자	6.6		6.3		6.7		7.1	
경제활동 상태	임시·일용직 근로자	5.7	21.07***	5.4	22.57***	5.7	22.07***	6.0	23.43***
	고용주·자영자	6.2		6.1		6.5		6.7	
	무급가족 종사자	6.3		6.2		6.8		6.9	
	실업자	4.9		5.1		5.5		5.7	
	비경제활동인구	6.2		6.1		6.6		6.8	
	관리자·전문가	7.2		6.2		6.5		7.0	
직업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3	20.76***	6.2	14.95***	6.6	5.78**	6.9	19.51***
	숙련 및 기술직	6.0		6.0		6.4		6.8	
	단순노무 종사자	5.7		5.5		6.0		5.8	
	정규직	6.7		6.3		6.7		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5.8	60.47***	5.5	61.52***	6.0	56.28***	6.2	65.02***
	보수적	6.1	4.50*	5.9	10.89***	6.3	6.92**	6.5	16.94***
중도적	6.2	6.0		6.5		6.8			
진보적	6.4	6.3		6.6		6.9			

주: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2〉 응답자 특성별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만족도	F값 (유의도)	만족도	F값 (유의도)	만족도	F값 (유의도)	만족도	F값 (유의도)
전체		6.1		5.7		6.2		6.3	
성별	남	5.9	2.96	5.6	0.40	6.2	1.55	6.2	5.25*
	여	6.2		5.7		6.2		6.4	
연령대	20대 이하	6.3	16.46***	5.9	9.69***	6.4	10.35***	6.6	16.52***
	30대	6.3		5.7		6.2		6.6	
	40대	6.1		5.6		6.2		6.3	
	50대	5.8		5.6		6.0		6.1	
	60대	5.7		5.5		5.9		6.0	
학력	중졸 이하	5.4	63.47***	5.2	56.10***	5.7	41.12***	5.7	51.85***
	고졸	6.1		5.6		6.2		6.3	
	대졸 이상	6.3		5.9		6.4		6.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4	59.23***	5.0	66.87***	5.5	45.36***	5.4	60.01***
	200만 원대	5.8		5.4		6.0		6.1	
	300만 원대	6.2		5.9		6.2		6.3	
	400만 원대	6.3		5.9		6.3		6.6	
	500만 원 이상	6.8		6.2		6.6		6.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0	134.44***	4.3	261.46***	4.8	166.20***	4.8	190.37***
	중하층	5.9		5.5		5.9		6.2	
	중간층	6.6		6.2		6.6		6.8	
	중상층(상층)	7.4		6.8		7.4		7.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4	19.15***	5.9	24.14***	6.3	21.03***	6.6	19.38***
	임시·일용직 근로자	5.5		4.9		5.6		5.9	
	고용주·자영자	6.0		5.7		6.2		6.3	
	무급가족 종사자	6.3		6.0		6.4		6.5	
	실업자	4.8		4.9		4.8		5.1	
	비경제활동인구	6.1		5.7		6.3		6.3	
직업	관리자·전문가	6.8	21.91***	5.9	18.52***	6.3	7.27***	6.7	15.8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6.2		5.8		6.2		6.4	
	숙련 및 기술직	5.8		5.6		6.1		6.4	
	단순노무 종사자	5.4		5.1		5.7		5.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5	67.84***	5.9	77.62***	6.4	49.82***	6.6	42.81***
	비정규직	5.5		5.1		5.7		6.0	
이념적 성향	보수적	6.0	2.91	5.5	9.26***	6.0	2.63	6.2	14.06***
	중도적	6.0		5.7		6.2		6.3	
	진보적	6.2		5.9		6.3		6.4	

주: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41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부표 4-3〉 응답자 특성별 우울도

구분		2014		2016		2017	
		우울도	F값 (유의도)	우울도	F값 (유의도)	우울도	F값 (유의도)
전체		3.2		3.1		2.7	
성별	남	3.2	1.87	3.0	6.08*	2.7	1.88
	여	3.3		3.2		2.8	
연령대	20대 이하	3.0	6.57***	2.8	5.18***	2.5	6.58***
	30대	3.1		3.1		2.6	
	40대	3.3		3.0		2.7	
	50대	3.2		3.3		2.9	
	60대	3.4		3.3		3.0	
학력	중졸 이하	3.6	28.59***	3.6	17.86***	3.3	30.89***
	고졸	3.2		3.0		2.8	
	대졸 이상	3.0		3.0		2.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7	33.47***	3.6	15.20***	3.6	30.60***
	200만 원대	3.3		3.1		2.7	
	300만 원대	3.3		3.0		2.8	
	400만 원대	3.1		3.1		2.5	
	500만 원 이상	2.4		2.8		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	58.55***	3.9	47.90***	3.8	82.99***
	중하층	3.4		3.3		2.9	
	중간층	2.7		2.8		2.4	
	중상층(상층)	2.2		2.4		2.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	12.40***	3.0	6.24***	2.5	15.35***
	임시·일용직 근로자	3.5		3.4		3.3	
	고용주·자영자	3.4		3.0		2.6	
	무급가족 종사자	3.2		2.8		2.5	
	실업자	4.1		3.7		3.5	
	비경제활동인구	3.3		3.0		2.9	
직업	관리자·전문가	2.4	8.51***	3.3	4.23**	2.6	8.5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2		3.1		2.6	
	숙련 및 기술직	3.1		2.8		2.5	
	단순노무 종사자	3.4		3.3		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	24.16***	3.0	10.79**	2.4	41.85***
	비정규직	3.3		3.3		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	1.10	3.1	0.46	3.0	9.66***
	중도적	3.2		3.1		2.7	
	진보적	3.1		3.0		2.6	

주: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4〉 응답자 특성별 사회에 대한 신뢰도 (11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신뢰도	F값 (유의도)	신뢰도	F값 (유의도)	신뢰도	F값 (유의도)	신뢰도	F값 (유의도)
전체		4.6		4.7		4.7		5.1	
성별	남	4.5	1.11	4.8	0.35	4.7	0.43	5.1	0.01
	여	4.7		4.7		4.7		5.1	
연령대	20대 이하	4.3	25.77***	4.8	2.71*	4.8	6.21***	5.1	0.78
	30대	4.3		4.5		4.5		5.0	
	40대	4.7		4.7		4.7		5.2	
	50대	4.8		4.8		4.8		5.1	
	60대	5		4.9		4.9		5.1	
학력	중졸 이하	4.8	18.79***	4.7	0.61	4.7	0.38	5.1	2.01
	고졸	4.6		4.8		4.8		5.1	
	대졸 이상	4.4		4.7		4.7		5.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7	3.28*	4.7	3.75**	4.7	3.27*	5.1	2.19
	200만 원대	4.6		4.5		4.5		5.1	
	300만 원대	4.4		4.8		4.6		5.0	
	400만 원대	4.5		4.9		4.8		5.2	
	500만 원 이상	4.8		4.8		4.9		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5	2.87*	4.4	20.00***	4.2	21.34***	4.6	14.98***
	중하층	4.4		4.7		4.5		5.1	
	중간층	4.8		4.9		5		5.3	
	중상층(상층)	4.8		4.8		5.1		5.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6	7.63***	4.8	1.08	4.8	5.86***	5.2	0.81
	일시·일용직 근로자	4.7		4.6		4.6		4.9	
	고용주·자영자	4.7		4.7		4.7		5.1	
	무급가족 종사자	5.3		4.8		4.9		5.0	
	실업자	3.7		4.7		3.8		5.1	
	비경제활동인구	4.6		4.8		4.7		5.1	
직업	관리자·전문가	4.8	3.93**	4.6	1.44	4.6	0.87	5.2	2.58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6		4.7		4.8		5.1	
	숙련 및 기술직	4.6		4.8		4.8		5.1	
	단순노무 종사자	4.8		4.6		4.7		4.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9	2.25	4.8	6.26*	4.9	7.53**	5.2	7.46**
	비정규직	5.2		4.6		4.6		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4.8	23.36***	4.8	3.86*	4.9	7.94***	5.1	5.39**
	중도적	4.7		4.7		4.7		5.1	
	진보적	4.2		4.8		4.5		5.2	

주: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41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부표 4-5〉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구분		2014		2015		2016		2017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5		2.3		2.5		2.4	
성별	남	2.4	6.44*	2.3	0.51	2.5	0.88	2.4	0.05
	여	2.5		2.3		2.5		2.4	
연령대	20대 이하	2.5	3.51**	2.4	5.02***	2.7	8.85***	2.5	3.22*
	30대	2.3		2.3		2.4		2.4	
	40대	2.5		2.2		2.4		2.4	
	50대	2.4		2.3		2.4		2.4	
	60대	2.5		2.4		2.4		2.4	
학력	중졸 이하	2.5	1.53	2.4	4.22*	2.4	2.11	2.5	0.72
	고졸	2.5		2.3		2.5		2.4	
	대졸 이상	2.4		2.3		2.5		2.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4	2.14	2.3	0.36	2.4	7.33***	2.4	1.43
	200만 원대	2.4		2.3		2.4		2.4	
	300만 원대	2.4		2.3		2.4		2.4	
	400만 원대	2.5		2.3		2.5		2.4	
	500만 원 이상	2.6		2.3		2.6		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	12.47***	2.2	9.34***	2.2	30.55***	2.2	12.36***
	중하층	2.4		2.3		2.4		2.4	
	중간층	2.6		2.4		2.6		2.5	
	중상층(상층)	2.7		2.3		2.8		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	3.26**	2.3	2.95*	2.5	2.40*	2.5	0.67
	임시·일용직 근로자	2.4		2.3		2.4		2.4	
	고용주·자영자	2.5		2.3		2.4		2.4	
	무급가족 종사자	2.8		2.5		2.6		2.4	
	실업자	2.2		2.1		2.3		2.4	
	비경제활동인구	2.5		2.3		2.5		2.4	
직업	관리자·전문가	2.5	0.57	2.2	3.17*	2.4	0.42	2.5	0.25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5		2.3		2.5		2.4	
	숙련 및 기술직	2.4		2.4		2.5		2.5	
	단순노무 종사자	2.5		2.4		2.5		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	2.46	2.3	2.43	2.5	4.33*	2.5	1.35
	비정규직	2.3		2.3		2.5		2.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	1.18	2.3	0.53	2.4	1.71	2.3	10.65***
	중도적	2.5		2.3		2.5		2.4	
	진보적	2.5		2.3		2.6		2.5	

주:1) 매우 동의한다 1~ 매우 반대한다 5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6〉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구분		2014		2015		2016		2017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6		2.4		2.6		2.6	
성별	남	2.6	1.46	2.4	0.01	2.6	0.00	2.5	3.25
	여	2.6		2.4		2.6		2.6	
연령대	20대 이하	2.6	2.31	2.5	5.18***	2.7	4.35**	2.6	2.22
	30대	2.5		2.4		2.6		2.5	
	40대	2.6		2.3		2.5		2.5	
	50대	2.6		2.4		2.5		2.5	
	60대	2.7		2.5		2.6		2.7	
학력	중졸 이하	2.6	0.25	2.4	1.63	2.5	0.07	2.7	3.09*
	고졸	2.6		2.5		2.6		2.6	
	대졸 이상	2.6		2.4		2.6		2.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	1.88	2.4	1.20	2.5	3.97**	2.7	3.05*
	200만 원대	2.6		2.4		2.5		2.6	
	300만 원대	2.5		2.4		2.5		2.5	
	400만 원대	2.7		2.4		2.6		2.6	
	500만 원 이상	2.8		2.4		2.6		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	7.59***	2.3	12.04***	2.3	17.42***	2.5	5.63***
	중하층	2.6		2.4		2.5		2.6	
	중간층	2.7		2.5		2.7		2.6	
	중상층(상층)	2.6		2.4		2.7		2.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	2.03	2.4	6.07***	2.6	2.89*	2.6	1.47
	임시·일용직 근로자	2.6		2.3		2.5		2.5	
	고용주·자영자	2.6		2.4		2.5		2.5	
	무급가족 종사자	2.8		2.8		2.5		2.6	
	실업자	2.4		2.3		2.5		2.5	
	비경제활동인구	2.6		2.4		2.6		2.6	
직업	관리자·전문가	2.6	0.44	2.3	3.61	2.4	1.27	2.5	2.2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7		2.4		2.6		2.6	
	숙련 및 기술직	2.6		2.5		2.6		2.6	
	단순노무 종사자	2.6		2.4		2.6		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	1.42	2.4	9.55**	2.6	5.58*	2.6	5.09*
	비정규직	2.6		2.3		2.5		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	17.83***	2.4	1.46	2.6	0.77	2.5	1.24
	중도적	2.7		2.4		2.6		2.6	
	진보적	2.7		2.5		2.6		2.6	

주:1) 매우 동의한다 1~ 매우 반대한다 5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4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부표 4-7〉 자원봉사 횟수

구분	①일주일 한 번 이상	②한 달에 한두 번	③일 년에 6-7번	④일 년에 한두 번 혹은 그 이하	⑤전혀 안 했다	합계
2014	2.4	5.2	5.9	14.0	72.6	100.0
2015	2.2	4.3	3.3	12.4	77.7	100.0
2016	1.7	4.5	3.0	10.6	80.1	100.0
2017	2.8	4.7	2.2	10.8	79.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8〉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구분	①일주일 한 번 이상	②한 달에 한두 번	③일 년에 6-7번	④일 년에 한두 번 혹은 그 이하	⑤전혀 안 했다	합계
2014	0.9	10.8	5.8	16.4	66.1	100.0
2015	1.0	8.8	2.8	18.7	68.7	100.0
2016	1.1	7.8	2.8	16.1	72.3	100.0
2017	0.9	9.9	2.1	14.2	73.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9〉 국가 자긍심

구분		2014		2015		2016		2017	
		자긍심 정도	F값 (유의도)	자긍심 정도	F값 (유의도)	자긍심 정도	F값 (유의도)	자긍심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8		2.8		2.8		2.9	
성별	남	2.8	3.83	2.8	11.33***	2.8	3.47	2.8	4.78*
	여	2.8		2.9		2.8		2.9	
연령대	20대 이하	2.8	9.92***	2.8	33.25***	2.7	38.81***	2.8	34.38***
	30대	2.7		2.7		2.7		2.8	
	40대	2.8		2.8		2.8		2.8	
	50대	2.9		2.9		2.9		2.9	
	60대	3.1		3.1		3.0		3.1	
학력	중졸 이하	3.0	9.98***	3.0	45.40***	3.0	34.71***	3.0	33.45***
	고졸	2.8		2.8		2.8		2.8	
	대졸 이상	2.8		2.8		2.8		2.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	24.34***	2.9	4.70***	2.9	3.58**	2.9	7.91***
	200만 원대	2.9		2.8		2.8		2.9	
	300만 원대	2.8		2.8		2.8		2.8	
	400만 원대	2.7		2.8		2.8		2.8	
	500만 원 이상	2.8		2.8		2.8		2.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	3.79*	2.8	8.25***	2.7	11.37***	2.8	7.52***
	중하층	2.8		2.8		2.8		2.9	
	중간층	2.9		2.9		2.9		2.9	
	중상층(상층)	3.1		2.9		3.0		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	5.48***	2.8	4.89***	2.8	5.65***	2.8	5.88***
	임시·일용직 근로자	2.8		2.8		2.8		2.8	
	고용주·자영자	2.8		2.9		2.9		2.9	
	무급가족 종사자	3.0		3.0		2.9		3.0	
	실업자	2.7		2.8		2.7		2.7	
	비경제활동인구	2.9		2.9		2.9		2.9	
직업	관리자·전문가	2.9	9.26***	2.8	2.93*	2.8	2.60	2.9	1.9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8		2.8		2.8		2.8	
	숙련 및 기술직	2.9		2.9		2.8		2.9	
	단순노무 종사자	2.9		2.9		2.9		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	1.15	2.8	0.19	2.8	0.01	2.8	0.30
	비정규직	2.8		2.8		2.8		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	16.58***	2.9	21.25***	3.0	38.97***	2.9	12.97***
	중도적	2.8		2.8		2.8		2.8	
	진보적	2.8		2.8		2.7		2.8	

주:1)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1~ 매우 자랑스럽다 4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0〉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2014		2016		2017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6		3.6		3.5	
성별	남	3.7	7.10**	3.6	6.72**	3.5	0.09
	여	3.5		3.6		3.5	
연령대	20대 이하	3.6	7.83***	3.6	2.59*	3.5	2.09
	30대	3.6		3.7		3.6	
	40대	3.7		3.6		3.6	
	50대	3.6		3.6		3.6	
	60대	3.5		3.5		3.5	
학력	중졸 이하	3.5	14.24***	3.6	1.17	3.5	2.78
	고졸	3.6		3.6		3.6	
	대졸 이상	3.7		3.6		3.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5	7.32***	3.6	0.34	3.5	1.91
	200만 원대	3.6		3.6		3.6	
	300만 원대	3.7		3.5		3.6	
	400만 원대	3.6		3.6		3.6	
	500만 원 이상	3.7		3.6		3.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	0.31	3.7	3.51*	3.6	5.31**
	중하층	3.6		3.6		3.5	
	중간층	3.6		3.5		3.5	
	중상층(상층)	3.5		3.6		3.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	3.32**	3.6	0.82	3.5	1.66
	임시·일용직 근로자	3.5		3.6		3.6	
	고용주·자영자	3.8		3.7		3.6	
	무급가족 종사자	3.6		3.4		3.4	
	실업자	3.8		3.6		3.5	
	비경제활동인구	3.5		3.5		3.5	
직업	관리자·전문가	3.6	3.35*	3.7	0.55	3.5	1.3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7		3.6		3.6	
	숙련 및 기술직	3.7		3.6		3.6	
	단순노무 종사자	3.5		3.6		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6	0.60	3.6	2.90	3.5	6.99**
	비정규직	3.6		3.7		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	4.68**	3.6	0.87	3.6	2.97
	중도적	3.6		3.6		3.6	
	진보적	3.7		3.6		3.5	

주:1) 매우 반대한다 1~ 매우 동의한다 5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4.2		4.3		4.1		4.2	
성별	남	4.2	0.03	4.3	3.93*	4.2	2.42	4.2	3.51
	여	4.2		4.3		4.1		4.2	
연령대	20대 이하	4.2	5.23***	4.3	7.26***	4.1	3.30*	4.1	3.23*
	30대	4.2		4.3		4.2		4.3	
	40대	4.3		4.4		4.2		4.3	
	50대	4.2		4.3		4.2		4.2	
	60대	4.2		4.2		4.1		4.2	
학력	중졸 이하	4.2	7.29***	4.3	6.06**	4.2	0.53	4.2	1.08
	고졸	4.3		4.3		4.2		4.2	
	대졸 이상	4.2		4.3		4.1		4.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2	2.69*	4.3	3.15*	4.2	1.44	4.3	1.24
	200만 원대	4.2		4.4		4.2		4.3	
	300만 원대	4.3		4.3		4.2		4.2	
	400만 원대	4.3		4.3		4.1		4.3	
	500만 원 이상	4.2		4.3		4.1		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	0.89	4.5	16.59***	4.3	10.48***	4.5	15.84***
	중하층	4.3		4.3		4.2		4.2	
	중간층	4.2		4.2		4.1		4.1	
	중상층(상층)	4.1		4.2		4.1		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2	1.91	4.3	3.45**	4.1	0.62	4.2	0.69
	임시·일용직 근로자	4.3		4.4		4.2		4.3	
	고용주·자영자	4.3		4.3		4.2		4.2	
	무급가족 종사자	4.2		4.3		4.1		4.1	
	실업자	4.3		4.4		4.1		4.3	
	비경제활동인구	4.2		4.2		4.1		4.2	
직업	관리자·전문가	4.2	1.95	4.3	0.26	4.2	1.07	4.3	3.5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4.2		4.3		4.2		4.2	
	숙련 및 기술직	4.3		4.3		4.1		4.1	
	단순노무 종사자	4.3		4.3		4.2		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2	4.55*	4.3	0.71	4.1	4.50*	4.2	0.01
	비정규직	4.3		4.4		4.2		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4.2	9.65***	4.3	2.89	4.1	7.39***	4.2	1.50
	중도적	4.2		4.3		4.2		4.2	
	진보적	4.3		4.3		4.2		4.3	

주:1) 매우 반대한다 1~ 매우 동의한다 5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7		3.7		3.7		3.7	
성별	남	3.6	0.34	3.7	1.87	3.7	0.04	3.7	0.14
	여	3.7		3.7		3.7		3.8	
연령대	20대 이하	3.7	9.30***	3.8	6.75***	3.7	2.06	3.8	0.79
	30대	3.7		3.8		3.7		3.7	
	40대	3.8		3.8		3.7		3.8	
	50대	3.6		3.7		3.7		3.7	
	60대	3.5		3.5		3.6		3.7	
학력	중졸 이하	3.6	11.47***	3.6	9.07***	3.7	0.80	3.7	1.33
	고졸	3.7		3.7		3.7		3.8	
	대졸 이상	3.7		3.7		3.7		3.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6	5.63***	3.7	1.22	3.7	0.48	3.9	2.81*
	200만 원대	3.7		3.7		3.7		3.8	
	300만 원대	3.8		3.8		3.7		3.7	
	400만 원대	3.6		3.7		3.7		3.7	
	500만 원 이상	3.7		3.7		3.7		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	1.91	3.8	13.58***	3.8	5.65***	4.0	17.22***
	중하층	3.7		3.8		3.8		3.8	
	중간층	3.7		3.6		3.6		3.7	
	중상층(상층)	3.3		3.5		3.6		3.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7	1.15**	3.7	4.03	3.7	0.47	3.7	2.04*
	임시·일용직 근로자	3.7		3.8		3.7		3.8	
	고용주·자영자	3.7		3.6		3.7		3.7	
	무급가족 종사자	3.5		3.9		3.6		3.5	
	실업자	3.7		3.9		3.8		3.8	
	비경제활동인구	3.6		3.6		3.7		3.8	
직업	관리자·전문가	3.8	3.46**	3.8	5.45	3.8	0.96	3.8	1.66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6		3.8		3.7		3.7	
	숙련 및 기술직	3.7		3.7		3.7		3.7	
	단순노무 종사자	3.7		3.6		3.7		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7	1.21	3.8	0.49	3.7	0.12	3.7	0.69
	비정규직	3.7		3.7		3.7		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	15.97***	3.7	9.77***	3.6	4.96**	3.6	4.91**
	중도적	3.7		3.7		3.7		3.7	
	진보적	3.8		3.8		3.8		3.8	

주:1) 매우 반대한다 1~ 매우 동의한다 5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6		3.5		3.6		3.6	
성별	남	3.6	4.61*	3.5	0.86	3.6	1.72	3.5	0.00
	여	3.6		3.5		3.5		3.6	
연령대	20대 이하	3.6	3.60*	3.5	1.81	3.6	3.57*	3.6	1.73
	30대	3.6		3.5		3.6		3.5	
	40대	3.7		3.5		3.6		3.6	
	50대	3.5		3.5		3.5		3.6	
	60대	3.6		3.4		3.5		3.5	
학력	중졸 이하	3.5	4.01*	3.5	2.78	3.5	0.57	3.6	0.86
	고졸	3.6		3.5		3.6		3.6	
	대졸 이상	3.6		3.5		3.6		3.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6	0.55	3.5	1.89	3.6	1.34	3.6	0.43
	200만 원대	3.6		3.5		3.5		3.5	
	300만 원대	3.7		3.5		3.5		3.6	
	400만 원대	3.6		3.5		3.6		3.5	
	500만 원 이상	3.5		3.4		3.5		3.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	3.10*	3.6	10.20***	3.6	3.94***	3.7	5.87***
	중하층	3.6		3.5		3.6		3.6	
	중간층	3.6		3.4		3.5		3.5	
	중상층(상층)	3.5		3.4		3.5		3.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	5.25***	3.5	8.49***	3.6	3.46**	3.5	6.47***
	임시·일용직 근로자	3.6		3.6		3.6		3.7	
	고용주·자영자	3.5		3.4		3.5		3.4	
	무급가족 종사자	3.2		3.6		3.4		3.3	
	실업자	3.8		3.9		3.6		3.8	
	비경제활동인구	3.6		3.4		3.5		3.6	
직업	관리자·전문가	3.7	2.35	3.5	0.82	3.7	1.79	3.7	5.8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6		3.5		3.5		3.5	
	숙련 및 기술직	3.6		3.5		3.5		3.5	
	단순노무 종사자	3.6		3.6		3.5		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6	1.50	3.5	1.11	3.6	0.00	3.6	1.61
	비정규직	3.6		3.6		3.6		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	12.90***	3.4	4.83**	3.5	6.45**	3.5	6.79**
	중도적	3.6		3.5		3.6		3.6	
	진보적	3.7		3.5		3.6		3.6	

주:1) 매우 반대한다 1~ 매우 동의한다 5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동의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7		2.7		2.8		2.7	
성별	남	2.7	0.19	2.7	1.08	2.8	2.16	2.7	0.49
	여	2.6		2.7		2.9		2.7	
연령대	20대 이하	2.7	0.70	2.6	1.78	2.7	2.97*	2.7	1.57
	30대	2.7		2.7		2.8		2.7	
	40대	2.7		2.6		2.8		2.7	
	50대	2.7		2.7		3.0		2.7	
	60대	2.7		2.7		2.9		2.6	
학력	중졸 이하	2.6	0.58	2.7	1.36	2.8	0.11	2.6	1.13
	고졸	2.7		2.7		2.9		2.7	
	대졸 이상	2.7		2.6		2.8		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	2.51*	2.7	0.42	2.8	1.50	2.5	4.46**
	200만 원대	2.7		2.7		2.8		2.7	
	300만 원대	2.7		2.6		2.8		2.7	
	400만 원대	2.6		2.7		2.9		2.7	
	500만 원 이상	2.8		2.7		2.8		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	0.84	2.6	3.61**	2.7	1.75	2.4	6.46***
	중하층	2.6		2.7		2.8		2.7	
	중간층	2.7		2.7		2.9		2.7	
	중상층(상층)	2.8		2.7		2.9		2.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	1.33	2.7	3.92**	2.8	2.48*	2.7	2.36*
	임시·일용직 근로자	2.7		2.6		2.9		2.6	
	고용주·자영자	2.7		2.8		2.9		2.7	
	무급가족 종사자	2.8		3.0		3.1		2.9	
	실업자	2.6		2.4		2.5		2.5	
	비경제활동인구	2.6		2.6		2.8		2.6	
직업	관리자·전문가	2.6	5.94***	2.5	2.36	2.8	1.32	2.7	3.5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8		2.7		2.9		2.7	
	숙련 및 기술직	2.7		2.7		2.9		2.8	
	단순노무 종사자	2.6		2.7		2.9		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	0.81	2.7	0.35	2.9	0.69	2.7	0.26
	비정규직	2.7		2.6		2.8		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	7.64***	2.8	21.66***	2.9	17.13***	2.8	4.41*
	중도적	2.7		2.7		2.9		2.7	
	진보적	2.5		2.5		2.7		2.6	

주:1) 매우 반대한다 1~ 매우 동의한다 5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5〉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수준

구분		2014		2016		2017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0		3.1		3.0	
성별	남	3.0	0.04	3.1	0.32	3.0	4.57*
	여	3.0		3.1		3.0	
연령대	20대 이하	3.0	2.34	3.1	8.61***	2.9	3.66**
	30대	3.0		3.2		3.0	
	40대	3.1		3.1		3.0	
	50대	3.0		3.1		3.0	
	60대	3.0		3.0		3.0	
학력	중졸 이하	3.0	5.52**	3.0	11.96***	3.0	0.70
	고졸	3.0		3.1		3.0	
	대졸 이상	3.1		3.1		3.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	0.98	3.0	2.96*	3.0	0.11
	200만 원대	3.1		3.1		3.0	
	300만 원대	3.0		3.1		3.0	
	400만 원대	3.0		3.1		3.0	
	500만 원 이상	3.1		3.1		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	0.88	3.2	5.52***	3.2	17.33***
	중하층	3.0		3.1		3.0	
	중간층	3.0		3.0		2.9	
	중상층(상층)	3.1		3.0		2.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	1.84	3.1	1.10	3.0	2.68*
	임시·일용직 근로자	3.1		3.1		3.0	
	고용주·자영자	3.0		3.1		3.0	
	무급가족 종사자	3.0		3.0		2.9	
	실업자	3.1		3.1		3.1	
	비경제활동인구	3.0		3.1		3.0	
직업	관리자·전문가	3.0	0.31	3.1	1.88	3.0	2.7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0		3.1		3.0	
	숙련 및 기술직	3.1		3.0		2.9	
	단순노무 종사자	3.0		3.0		3.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	0.41	3.1	0.01	3.0	0.50
	비정규직	3.0		3.1		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	3.02*	3.0	3.81*	3.0	7.66***
	중도적	3.0		3.1		3.0	
	진보적	3.1		3.1		3.0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6〉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구분		2014		2016		2017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1		3.1		3.1	
성별	남	3.0	0.21	3.1	0.87	3.1	0.01
	여	3.1		3.1		3.1	
연령대	20대 이하	3.1	1.30	3.1	9.23***	3.1	3.60**
	30대	3.0		3.1		3.2	
	40대	3.0		3.1		3.1	
	50대	3.1		3.1		3.0	
	60대	3.0		3.0		3.0	
학력	중졸 이하	3.0	2.04	3.0	17.39***	3.0	3.64*
	고졸	3.0		3.1		3.1	
	대졸 이상	3.1		3.1		3.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	3.35**	3.0	5.63***	3.0	1.96*
	200만 원대	3.0		3.1		3.1	
	300만 원대	3.0		3.1		3.1	
	400만 원대	3.1		3.1		3.1	
	500만 원 이상	3.1		3.1		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	0.38	3.1	0.95	3.3	13.82***
	중하층	3.1		3.1		3.1	
	중간층	3.0		3.0		3.0	
	중상층(상층)	3.0		3.0		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	0.76	3.1	2.10	3.1	0.46
	임시·일용직 근로자	3.1		3.1		3.1	
	고용주·자영자	3.0		3.0		3.0	
	무급가족 종사자	3.0		2.9		3.1	
	실업자	3.1		3.1		3.1	
	비경제활동인구	3.1		3.1		3.1	
직업	관리자·전문가	3.0	0.08	3.1	3.01*	3.1	1.00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0		3.1		3.1	
	숙련 및 기술직	3.0		3.0		3.0	
	단순노무 종사자	3.1		3.0		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	1.43	3.1	0.16	3.1	0.11
	비정규직	3.1		3.1		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	4.68**	3.0	1.93	3.1	2.03
	중도적	3.0		3.1		3.1	
	진보적	3.1		3.1		3.1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7〉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간의 갈등

구분		2014		2016		2017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6		2.6		2.6	
성별	남	2.6	2.12	2.6	0.58	2.6	1.51
	여	2.6		2.6		2.6	
연령대	20대 이하	2.6	4.35**	2.6	5.41***	2.6	4.93***
	30대	2.6		2.7		2.6	
	40대	2.7		2.7		2.6	
	50대	2.6		2.6		2.6	
	60대	2.6		2.6		2.5	
학력	중졸 이하	2.6	5.48**	2.5	16.69***	2.6	3.73*
	고졸	2.6		2.6		2.6	
	대졸 이상	2.6		2.7		2.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	1.34	2.6	1.79	2.6	1.15
	200만 원대	2.6		2.6		2.6	
	300만 원대	2.6		2.6		2.6	
	400만 원대	2.6		2.7		2.6	
	500만 원 이상	2.6		2.7		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	1.72	2.7	0.92	2.8	15.47***
	중하층	2.6		2.7		2.6	
	중간층	2.6		2.6		2.5	
	중상층(상층)	2.5		2.6		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	1.29	2.6	2.17	2.6	7.65***
	임시·일용직 근로자	2.6		2.7		2.7	
	고용주·자영자	2.6		2.6		2.6	
	무급가족 종사자	2.5		2.4		2.3	
	실업자	2.6		2.7		2.8	
	비경제활동인구	2.6		2.6		2.6	
직업	관리자·전문가	2.5	0.56	2.7	7.61***	2.7	9.77***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6		2.7		2.6	
	숙련 및 기술직	2.6		2.5		2.5	
	단순노무 종사자	2.6		2.6		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	0.34	2.6	0.43	2.6	8.07**
	비정규직	2.6		2.7		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	5.18**	2.6	3.48*	2.6	6.36**
	중도적	2.6		2.6		2.6	
	진보적	2.6		2.7		2.7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8〉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구분		2014		2016		2017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1		3.1		3.1	
성별	남	3.1	5.43*	3.1	1.10	3.1	3.03
	여	3.1		3.1		3.1	
연령대	20대 이하	3.0	6.23***	3.1	4.21**	3.1	4.28**
	30대	3.1		3.1		3.2	
	40대	3.2		3.1		3.2	
	50대	3.1		3.2		3.1	
	60대	3.1		3.1		3.1	
학력	중졸 이하	3.1	1.90	3.0	11.23** *	3.1	8.25***
	고졸	3.1		3.1		3.1	
	대졸 이상	3.1		3.2		3.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	2.82*	3.1	3.00*	3.0	7.29***
	200만 원대	3.1		3.1		3.1	
	300만 원대	3.1		3.1		3.2	
	400만 원대	3.2		3.1		3.1	
	500만 원 이상	3.1		3.1		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	0.28	3.1	0.21	3.2	1.79
	중하층	3.1		3.1		3.1	
	중간층	3.1		3.1		3.1	
	중상층(상층)	3.0		3.1		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	2.54*	3.1	1.31	3.1	0.58
	임시·일용직 근로자	3.1		3.1		3.1	
	고용주·자영자	3.1		3.1		3.2	
	무급가족 종사자	3.1		2.9		3.1	
	실업자	3.1		3.1		3.2	
	비경제활동인구	3.1		3.1		3.1	
직업	관리자·전문가	3.1	5.69***	3.1	1.64	3.2	0.9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1		3.1		3.1	
	숙련 및 기술직	3.2		3.0		3.1	
	단순노무 종사자	3.0		3.1		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	0.00	3.1	0.07	3.1	0.46
	비정규직	3.1		3.1		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	0.94	3.1	0.83	3.1	0.27
	중도적	3.1		3.1		3.1	
	진보적	3.1		3.1		3.1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19〉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구분		2014		2016		2017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7		2.7		2.7	
성별	남	2.7	1.63	2.8	1.89	2.7	0.39
	여	2.7		2.7		2.7	
연령대	20대 이하	2.5	5.89****	2.7	1.96	2.6	1.59
	30대	2.6		2.8		2.7	
	40대	2.8		2.8		2.7	
	50대	2.7		2.8		2.6	
	60대	2.7		2.7		2.7	
학력	중졸 이하	2.7	0.47	2.8	0.88	2.7	0.48
	고졸	2.7		2.7		2.7	
	대졸이상	2.7		2.8		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	1.41	2.8	0.50	2.7	0.30
	200만 원대	2.7		2.8		2.7	
	300만 원대	2.8		2.7		2.7	
	400만 원대	2.7		2.8		2.7	
	500만 원 이상	2.6		2.7		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	0.89	2.8	4.47**	2.8	10.28****
	중하층	2.7		2.8		2.7	
	중간층	2.6		2.7		2.6	
	중상층(상층)	2.7		2.7		2.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	0.49	2.8	0.23	2.6	4.67****
	임시·일용직 근로자	2.7		2.7		2.8	
	고용주·자영자	2.7		2.8		2.7	
	무급가족 종사자	2.8		2.6		2.5	
	실업자	2.6		2.7		2.8	
	비경제활동인구	2.7		2.7		2.7	
직업	관리자·전문가	2.6	1.42	2.8	0.46	2.8	2.23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6		2.8		2.7	
	숙련 및 기술직	2.8		2.8		2.7	
	단순노무 종사자	2.7		2.7		2.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	0.78	2.8	0.03	2.6	9.25**
	비정규직	2.7		2.7		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	0.28	2.8	3.71*	2.7	1.66
	중도적	2.6		2.7		2.6	
	진보적	2.7		2.8		2.7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2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구분		2014		2016		2017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3.2		3.1		3.3	
성별	남	3.2	6.63*	3.2	4.15*	3.3	4.23*
	여	3.2		3.1		3.2	
연령대	20대 이하	3.2	4.43**	3.1	10.96***	3.3	1.90
	30대	3.2		3.2		3.3	
	40대	3.2		3.2		3.3	
	50대	3.2		3.2		3.2	
	60대	3.1		3.0		3.2	
학력	중졸 이하	3.1	16.62***	3.0	17.45***	3.2	5.58**
	고졸	3.2		3.1		3.3	
	대졸이상	3.2		3.2		3.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1	9.77***	3.0	8.08***	3.2	1.28
	200만 원대	3.1		3.1		3.3	
	300만 원대	3.2		3.2		3.3	
	400만 원대	3.3		3.2		3.3	
	500만 원 이상	3.2		3.2		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2	1.54	3.1	0.92	3.3	1.08
	중하층	3.2		3.2		3.2	
	중간층	3.1		3.1		3.3	
	중상층(상층)	3.2		3.2		3.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	1.58	3.1	1.64	3.3	1.02
	임시·일용직 근로자	3.1		3.1		3.2	
	고용주·자영자	3.2		3.2		3.3	
	무급가족 종사자	3.2		3.0		3.3	
	실업자	3.2		3.3		3.3	
	비경제활동인구	3.2		3.1		3.3	
직업	관리자·전문가	3.2	2.12	3.3	5.86***	3.3	0.4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3.2		3.1		3.2	
	숙련 및 기술직	3.2		3.1		3.3	
	단순노무 종사자	3.1		3.0		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2	1.59	3.1	1.09	3.3	1.96
	비정규직	3.2		3.1		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	8.50***	3.1	1.06	3.3	2.45
	중도적	3.2		3.1		3.2	
	진보적	3.2		3.2		3.3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21〉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구분		2014		2010		2017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9		2.7		2.7	
성별	남	2.9	0.23	2.7	0.48	2.7	0.16
	여	2.9		2.7		2.7	
연령대	20대 이하	2.9	5.07***	2.7	5.15***	2.7	1.77
	30대	2.9		2.7		2.8	
	40대	3.0		2.7		2.6	
	50대	2.9		2.7		2.6	
	60대	2.8		2.6		2.7	
학력	중졸 이하	2.8	12.35***	2.6	11.70***	2.6	3.66*
	고졸	2.9		2.7		2.6	
	대졸 이상	3.0		2.8		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8	7.40***	2.6	3.50**	2.6	0.50
	200만 원대	2.9		2.7		2.7	
	300만 원대	3.0		2.7		2.6	
	400만 원대	3.0		2.7		2.7	
	500만 원 이상	2.9		2.7		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	2.99*	2.7	0.35	2.7	3.28*
	중하층	2.9		2.7		2.6	
	중간층	2.9		2.7		2.7	
	중상층(상층)	3.0		2.7		2.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	2.88*	2.7	0.80	2.6	8.74***
	임시·일용직 근로자	2.8		2.7		2.7	
	고용주·자영자	2.9		2.7		2.7	
	무급가족 종사자	3.0		2.6		2.2	
	실업자	3.1		2.7		2.7	
	비경제활동인구	2.9		2.7		2.7	
직업	관리자·전문가	2.9	0.90	2.8	4.94**	2.7	6.42***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9		2.7		2.7	
	숙련 및 기술직	2.9		2.6		2.5	
	단순노무 종사자	2.8		2.6		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	9.08**	2.8	2.31	2.6	0.26
	비정규직	2.8		2.6		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	4.60*	2.7	1.03	2.6	1.23
	중도적	2.9		2.7		2.7	
	진보적	2.9		2.7		2.7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표 4-22〉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구분		2014		2016		2017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심한 정도	F값 (유의도)
전체		2.6		2.5		2.5	
성별	남	2.6	1.73	2.5	0.85	2.5	0.89
	여	2.6		2.5		2.6	
연령대	20대 이하	2.6	6.49***	2.6	4.39**	2.5	3.80**
	30대	2.5		2.5		2.6	
	40대	2.6		2.5		2.6	
	50대	2.6		2.5		2.5	
	60대	2.5		2.4		2.4	
학력	중졸 이하	2.5	7.86***	2.5	10.02***	2.5	5.69**
	고졸	2.6		2.5		2.5	
	대졸 이상	2.6		2.6		2.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	2.72*	2.5	0.75	2.5	3.94**
	200만 원대	2.6		2.5		2.5	
	300만 원대	2.6		2.5		2.5	
	400만 원대	2.6		2.5		2.6	
	500만 원 이상	2.5		2.6		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	0.65	2.5	0.43	2.6	2.32
	중하층	2.6		2.5		2.5	
	중간층	2.6		2.5		2.5	
	중상층(상층)	2.5		2.5		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	2.25*	2.6	2.17	2.5	0.68
	임시·일용직 근로자	2.6		2.5		2.5	
	고용주·자영자	2.6		2.5		2.5	
	무급가족 종사자	2.6		2.4		2.5	
	실업자	2.9		2.5		2.6	
	비경제활동인구	2.6		2.5		2.5	
직업	관리자·전문가	2.5	1.40	2.7	6.59***	2.7	3.69*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2.6		2.6		2.6	
	숙련 및 기술직	2.6		2.5		2.4	
	단순노무 종사자	2.5		2.4		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	1.19	2.6	0.87	2.5	1.80
	비정규직	2.6		2.5		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	5.23**	2.5	0.96	2.5	0.44
	중도적	2.5		2.5		2.5	
	진보적	2.6		2.6		2.6	

주:1)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1~ 갈등이 매우 심하다 4

2) *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